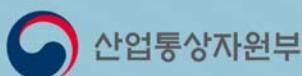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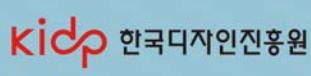
2017 KOREA DESIGN STATISTICAL DATA

2017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총괄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이용자를 위하여

- ▣ 본 조사의 기준시점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임
- ▣ 표본추출률은 통계청의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자료 중 디자인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한 표본조사임
- ▣ 본 조사에서 제시된 산업규모는 모수 추정한 결과임
- ▣ 통계표상의 모든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부항목을 더한 수치와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표 중 중복응답 문항은 비율의 합계가 100.0%를 초과함
- ▣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 [-] : 해당 숫자 없음
 - ▣ [0], [0.0] : 단위 미만
- ▣ 본 보고서의 내용을 전재(轉載) 또는 역재(譯載) 할 경우에는 「2017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보고서 ○쪽에서 전재 또는 역재」라고 기재하여야 함
- ▣ 본 보고서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엔지니어링PD로 문의하기 바람 (☎031-780-2266)

CONTENTS

2017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Part I

국내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Part II

국제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Part III

국내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결과



Part I 국내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제1장 조사 개요

- | | |
|-----------------|----|
| 1. 조사 설계 | 1 |
| 2. 응답자 특성 | 11 |

제2장 2017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주요 통계

- | | |
|---------------------------|----|
| 1. 디자인산업 규모 | 17 |
| 2.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 27 |
| 3. 디자인 활용률 | 28 |
| 4. 디자인학과 졸업 및 취업 현황 | 30 |

Part II

국제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제1장 요약본

1. 디자인 산업규모	39
2. 디자인 인력	41
3. 디자인 활용률	42

제2장 국제 디자인산업

1. 디자인 산업규모	45
2. 디자인 인력	52
3. 디자인 역량	54
4. 디자인 인증	55
5. 디자인 활용률	60
6. 디자인 정책	62
7. 디자인 교육	65

제3장 주요 산업동향

Part III 국내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결과

제1장 일반업체

1. 디자인활용업체 비율	79
2. 디자인 활용 현황	82
1) 디자이너 고용 여부	82
2) 전문디자인업체 용역 의뢰 경험 여부	84
3) 디자인 활용 분야	86
4) 디자인 부서 형태	87
5) 디자인 개발 비중	89
5-1) 디자인 개발 비중(건 수 기준)	89
5-2) 디자인 개발 비중(비용 기준)	91
6) 직원 수	93
6-1) 디자인 부서 직원 수	95
6-2) 디자이너 수	97
6-2-1) 직급별 디자이너 수	99
6-2-2) 학력별 디자이너 수	101
6-2-3) 연령별 디자이너 수	103
6-2-4)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105
6-2-5)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106
6-2-6) 근로자 형태별 디자이너 수	108
7) 2016년 재무 및 투자 현황	110
7-1) 2016년 디자인 투자금액	112
8) 2017년 재무 및 투자 전망	114
8-1) 2017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114
8-2) 2017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116
8-3) 2017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	118

9) 2018년 재무 및 투자 전망	120
9-1) 2018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120
9-2)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122
9-3) 2018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	124
10) 제품판매 영향 요소별 비중	126
3. 디자인 인력	128
1) 구인 디자이너 수	128
2)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	130
3) 2016년 신규 채용한 디자이너 수(경력/신입)	132
4) 2016년 퇴사한 디자이너 수	134
5)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	136
6)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	138
7)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40
4. 디자인 교육	142
1)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142
2) 디자인 재교육을 받은 직원 직급	144
3)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	146
4)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148
5)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150
6)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	152
7)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156
8)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158
9)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160
5. 디자인 역량	162
1) 디자인 수준 - 공감	162
2) 디자인 수준 - 능력	164
3) 디자인 수준 - 문화	166
4) 디자인 수준 - 성과	168
5) 디자인 수준 - 영향	170

6)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용역업체 개입 단계	172
7) 디자인 업무 및 활동 수준	175
8) 디자인 투자 및 활용 기여도	177
9)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경력 건수	179
6. 기타	181
1) 디자인 활용 시 느끼는 애로사항	181
2) 정부지원 여부	183
3)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185
3-1)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 및 건수	187
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189
4-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191
4-2)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193
5)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경험	195
5-1)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분야	197
5-2)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활용	199
5-3)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필요 인력/현원 ..	201
5-4)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 ·	203

제2장 전문디자인업체

1. 디자인 활용 현황	209
1) 전문디자인업체의 서비스 분야	209
2) 직원 수	211
2-1) 디자인 부서 직원 수	213
2-2) 디자이너 수	215
2-2-1) 직급별 디자이너 수	217
2-2-2) 학력별 디자이너 수	219
2-2-3) 연령별 디자이너 수	221
2-2-4)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223
2-2-5)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225
2-2-6) 근로자 형태별 디자이너 수	227

3) 2016년 재무 및 투자 현황	229
3-1) 2016년 디자인 투자금액	231
3-2)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	233
3-3) 용역 형태별 매출구성	235
3-3-1) 용역 형태별 매출구성 비율	235
3-3-2) 용역 형태별 매출구성 건수	237
3-4) 매출액 기준 고객 비중	239
4) 2017년 재무 및 투자 전망	241
4-1) 2017년 매출액 전망	241
4-2) 2017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	243
4-3) 2017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245
4-4) 2017년 연구개발비 전망	247
5) 2018년 재무 및 투자 전망	249
5-1) 2018년 매출액 전망	249
5-2) 2018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	251
5-3)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253
5-4) 2018년 연구개발비 전망	255
2. 디자인 인력	257
1) 구인 디자이너 수	257
2)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	259
3) 2016년 신규 채용한 디자이너 수(경력/신입)	262
4) 2016년 퇴사한 디자이너 수	264
5)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	266
6)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	268
7)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70
8)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 부분	272
3. 디자인 교육	274
1)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274
2)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276
3)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	278

4)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280
5)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282
6)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	284
7)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290
8)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292
8-1) 디자인 재교육을 받은 직원 직급	294
9)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296
4. 디자인 역량	298
1) 해외 비즈니스 및 진출 여부	298
1-1) 해외 비즈니스 방법	300
1-2) 해외 비즈니스 주력 분야	302
1-3) 교류 해외 지역	304
2)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경력 건수	306
3) 최종산출물에 대한 디자인권 소유(명의)	308
5. 기타	310
1) 디자인산업 육성·발전 장애 요인	310
2) 디자인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부분	312
3) 디자인 개발 시 느끼는 애로사항	314
4) 정부지원 여부	315
4-1)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317
4-2)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319
5) 향후 매출 증대 방안	321
6) 부당한 처우 경험	323
6-1) 부당한 처우 피해 유형	325
7)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327
7-1)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 및 건수	329
7-2) 디자인표준계약서 평균 계약금액	331
7-3) 디자인표준계약서 사용대상	333

8)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335
8-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337
8-2)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339
9) 세액공제 적용 여부	341
10)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경험	343
10-1)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분야	345
10-2)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활용	347
10-3)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필요 인력/현원	349
10-4)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	351

제3장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1. 디자인 활용 현황	357
1)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여부	357
2) 직원 수	359
2-1)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총 직원 수	359
2-2)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디자이너 수	361
2-2-1)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363
2-2-2)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365
3) 2016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367
3-1) 2016년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367
3-1-1) 디자인 용역비	367
3-1-2) 인건비	369
3-1-3)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371
3-1-4) 지방자치단체 예산	373
3-2) 2016년 디자인 전담부서 미보유 기관	374
3-2-1) 디자인 용역비	374
3-2-2) 인건비	376
3-2-3)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378
4) 2017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전망	380
5) 2017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382

2. 디자인 인력	384
1) 구인 디자이너 수	384
2) 신규 디자인 담당자 채용 필요도	386
3. 디자인 교육	388
1)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388
2)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390
3) 대학 디자인 교육의 기여도	392
4)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394
5)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396
6) 디자인 교육 필요도	398
7)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및 횟수/시간	400
7-1) 실시한 디자인 교육 분야	402
8)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403
4. 기타	405
1)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405
2) 디자인 예산 집행방법별 비율	407
3) 디자인 사업 발주방법별 비율	409
4) 공공디자인사업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	411
4-1)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	414
5)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	417
5-1)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우선 추진 정책	420
6) 공공정책의 디자인 활용 단계	423
7)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425
7-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427
7-2)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429

제4장 교육통계(문헌조사)

1. 대학(원)의 디자인학과 보유 학교 및 학과 현황	433
2. 대학(원) 디자인학과 학생 현황	435
1) 재적학생 수	435
2) 재학생 수	436
3) 입학자 수	437
4) 졸업자 수	439
5) 취업자 수	441
6) 취업률	443

제5장 부록

표본설계

1. 디자인활용업체(일반업체) 조사	447
2. 전문디자인업체 조사	459
3. 중앙부처 및 지자체	463
조사표	464

한국디자인산업의 동향 및 시사점

1. 한국디자인산업의 성장성 동향

부문별 성장

디자인산업규모는 2016년 16조 9,137억 원으로 2015년 15조 6,516억 원 대비 8.1% 성장하여 전체 산업이나 서비스산업 생산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고성장 추세를 보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산업규모가 367억 원에서 99억 원으로 큰 감소를 보였으나 기타 부문에서 감소를 상쇄하는 성장을 보였다. 특히 프리랜서 부문이 전년대비 26.0%의 높은 성장을 보였다. **업종별**로 시각디자인 -9.5%, 산업공예디자인 -4.9%, 디지털미디어디자인 -2.4%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모두 성장하였고 디자인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업종은 29.1%, 공간디자인 업종은 18.4%를 기록하여 전체 디자인산업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반 업체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기업 산업규모가 전년대비 145.7%라는 급격한 성장률을 보였고 비록 소폭이지만 중견기업도 1.2% 성장을 보였다. 반면 전체 디자인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던 대기업의 성장률은 전년대비 52.4% 감소하여 기업규모별 현황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였던 소기업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업체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규모에서 투자금액이 감소하고 있어 일반 업체는 물론 전체 디자인산업의 성장을 중기업이 주도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디자인산업 성장을 주도하던 대기업의 디자인산업규모 감소에 따라 기업규모별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평균 디자인 규모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중견기업과 중기업의 격차도 역시 소폭이나마 줄어들었다. 기업규모별 업체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의 격차 축소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이 현상이 규모가 작은 업체들의 적극적인 디자인 투자보다 대기업의 디자인 투자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격차 축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소기업의 경우 업체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 규모가 전년에 비해 하락함으로써 소기업의 디자인 투자 활성화 문제가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다르게 디자인 활용 업체 수나 일반 업체 디자인 활용률은 모두 증가하여 디자인 저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 점은 바람직하지만 중기업을 제외하고 기타 규모 기업들의

업체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이 감소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일반 업체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 디자인 투자 저변 확대와 함께 업체의 디자인 투자를 통한 양적 확대를 가져올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2016년 디자인산업 내 일반 업체의 전반적인 특징은 대기업의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기업이 이를 적절히 보완함으로써 전체 디자인산업 규모 성장의 완충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디자인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문 디자인업체 성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은 대기업이 디자인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전문 디자인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기타 규모의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대기업의 디자인 투자금액 증가가 전문 디자인업체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 디자인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견기업이나 중기업의 디자인 투자금액 및 활용도 증가는 향후 전문 디자인업체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평균 디자이너 수도 감소현상을 보였는데 평균 디자이너 수가 일반 업체의 디자인 활동 내부화에 대한 정확한 측정 지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감소가 전문 디자인업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 디자인업체들의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디자인업체의 디자인산업규모는 업종별로 매년 성장하는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이 같이 나타나는 추세를 보였고 장기적으로 동일 부문의 경우에도 연도별로 성장과 하락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6년 전문 디자인업체의 디자인 산업규모는 모든 업종이 성장하였고 특히 기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이 전년대비 44.4% 성장하여 전문 디자인업체 성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든 업종의 고른 성장은 전문 디자인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기업과 중견기업의 디자인 투자 증대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신성장 수요 발굴 및 업체의 종합 디자인역량 강화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등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의 디자인산업규모는 2015년에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6년 마이너스 14.6% 성장률을 보여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전체 산업규모가 크지 않아 성장률 감소 자체는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연도별로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전담 부서 예산이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어 공공부문 디자인 투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에 대한 안정성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프리랜서의 디자인산업규모는 2015년에 기록한 전년대비 성장을 14.7%에 이어 2016년 26.0%의 성장률을 보여 디자인산업규모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프리랜서는 디자인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디자인업계의 유연한 대응이나 디자인 인력 기반 유지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디자인산업규모의 성장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이 부문이 전체 디자인 산업의 성장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다른 부문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리랜서 디자이너 1인당 연간 임금규모가 2013년 이후 소폭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 약 2,170만원 수준에 이르렀지만 일반 업체나 전문 디자인업체 디자이너 1인당 매출액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프리랜서의 성장률이 프리랜서의 높은 전문 역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일반 업체나 전문 디자인업체의 하부에서 보다 비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향후 일반 업체, 전문 업체, 프리랜서로 이어지는 한국형 디자인 가치사슬이나 협업 구조 정립과 함께 프리랜서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프리랜서 활용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교육의 디자인산업규모는 2015년 5.4%의 전년대비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6년 0.9%의 전년대비 성장률을 기록하여 증가세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전체 디자인산업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로 미미하여 디자인 산업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다. 하지만 인력 양성이나 디자인 혁신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부문의 규모 증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디자인 인력

디자인 인력(非디자이너 제외)은 2016년 324,277명으로 2015년도 300,678명에서 7.8% 성장하였다. 디자인 인력 구조를 부문별 비율로 살펴보면 일반 업체가 78.5%라는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프리랜서가 14.7%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에 비해 전문 디자인업체 인력 비율은 5.8%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5년 이후 일반 업체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전문 디자인업체와 프리랜서 비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2013년 이후 구조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부문별로 일반 업체의 경우 활용업체 전체와 디자이너 고용업체의 평균 디자이너 수는 각각 2.16명과 3.62명으로 디자인 인력 규모 감소를 반영하여 전년도의 2.47명과 3.93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활용업체는 약 1~3명, 디자이너 고용업체는 약 2~5명 수준으로 2015년에 비해 인력 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업종 간 격차가 크지 않은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규모별 전년도 대비 평균 디자이너 수를 살펴보면 활용업체 전체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격차는 5.5명에서 2.5명, 중견기업과 중기업의 격차는 7.2명에서 5.6명으로 감소하였지만 중기업과 소기업의 격차는 0.4명에서 1.5명으로 오히려 확대되었다. 이는 기업규모별 전년대비 업체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 격차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업규모 간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 격차가 인력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체 평균 디자인 투자규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인력 구조의 개선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에 상당한 정도 영향을 미치는 전문 디자인업체의 경우 2016년 종사자 기준 평균 디자인 인력과 디자이너 기준 평균 디자인 인력은 각각 5.44명, 3.47명으로 종사자 기준 4.57명, 디자이너 기준 3.06명을 기록한 전년과 비교해 모두 증가하였으며 모든 업종에서 고르게 증가함으로써 업종 간 격차에서도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 디자인산업의 생산구조

디자인산업의 생산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업종별 디자인 인력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 업체는 78.5%, 전문 디자인업체 5.8%, 공공부문 0.2%, 프리랜서 14.7%, 고등교육 0.8%의 비율을 보였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일반 업체는 -1.6%p, 고등교육은 -0.1%p의 비율 감소를 보였다. 전문 디자인업체는 0.7%p, 프리랜서는 1.0%p의 성장을 보였으나 일반 업체와 프리랜서 위주의 생산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전체 디자인산업 생산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업체의 업종별 디자인 투자규모 비율을 살펴보면 제품디자인 22.8%, 디자인인프라 19.5%, 서비스/경험디자인 19.4% 순의 분포를 보였다. 2013년 이후 일반 업체의 업종별 디자인산업 규모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제품디자인의 지속적인 비율 하락이었는데 2016년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었다. 제품디자인 비율 하락은 제조업 경기침체 등 디자인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디자인산업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산업경쟁력에서

디자인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경우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제조업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디자인 역량 확충 등 중장기적인 제품디자인 활성화 방안 강화 등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문 디자인업체 생산구조 확인을 위해 인력규모 비율을 살펴보면 시각디자인이 3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품디자인 27.7%, 인테리어디자인 20.3%, 기타 패션스타일 13.4% 순의 비율을 보여 2015년 전문 디자인업체 인력 규모 비율인 시각디자인 38.0%, 제품디자인 27.0%, 인테리어디자인 21.2%, 기타 패션 스타일 13.9%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문 디자인업체 부문의 성장을 주도하던 인테리어 디자인 업종의 인력규모 성장률은 18.2%로 기타 업종과 비교하여 최하위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규모의 비율이 3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문 디자인업체 산업규모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인테리어디자인 업종의 산업규모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전체 산업규모의 상승 추세가 인테리어디자인 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의 규모 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디자인산업의 균형적인 성장으로 나아가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디자인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디자인산업의 투자와 생산성

일반 업체의 **업체당 평균 디자인투자 규모**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일반 업체의 경우 1억 210만원으로 1억 1,533만원을 기록한 전년도에 비해 약 1,300만원 감소하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9,369만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약 406만원 상승한 공간디자인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업체당 평균 디자인투자가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몇 개의 업종은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을 상회하고 기타 업종은 평균 투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양극화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패션/텍스타일디자인은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을 상회한 반면 서비스/경험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디자인인프라, 공간디자인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을 보여 전년도와 동일한 추세를 보였다. 가장 높은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을 보인 제품디자인 업종과 제일 낮은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을 보인 산업공예디자인 업종 간 격차는 2015년 1억 6,374에서 1억 5,055 만원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업종별 디자인 투자 확대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일반 업체의 **기업규모별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의 격차도 업종별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

양극화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기업규모별 평균 디자인 투자규모 비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기업의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을 1로 보고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의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 규모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1 : 1.3 : 10.3 : 21.8에서 2016년 1 : 1.9 : 9.8 : 11.8로 규모 비율이 변화하고 있다. 위 결과는 중견기업과 대기업, 중기업과 중견기업의 격차 축소와 함께 소기업과 나머지 기업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중견기업과 대기업, 중기업과 중견기업 간 디자인 투자금액 축소는 기업규모별 디자인산업 규모와 같이 소기업의 디자인 투자규모 향상이 아닌 대기업의 투자금액 축소에 기인한 결과라는 점에서 디자인 투자금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소기업을 포함한 중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의 디자인 투자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 디자인업체의 **업종별 평균 매출액**의 경우 2015년 10억 2,088만원을 기록한 인테리어디자인만 전체 평균 매출액인 6억 1,594만원을 상회했지만 2016년에는 9억 5,900만원을 기록한 인테리어디자인뿐만 아니라 6억 2,952만원을 기록한 기타 패션 텍스타일도 전체 평균 매출액인 6억 1,895만원을 웃돌아 업종별 디자인 투자금액 대형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산업의 생산성을 **디자인 인력 1인당 산업규모**로 살펴보면 전체 디자인산업 1인당 산업규모는 5,147만원 수준으로 5,127만원을 기록한 전년에 비해서 소폭 상승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부문별 서로 다른 집계 기준으로 인하여 디자인 산업을 구성하는 각 부문에 대한 1인당 산업규모의 단순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동일한 집계 기준을 이용한 동일 부문을 구성하는 부문 내 업종별 규모 비교는 의미가 있다. **일반 업체**를 살펴보면 1인당 산업규모는 4,731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시각디자인 7,069만원, 제품디자인 6,302만원,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5,612만원 순으로 해당 업종만 일반 업체 1인당 산업규모를 상회하는 규모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 일반 업체 부문의 업종별 1인당 산업규모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제외한 기타 업체의 1인당 산업규모 평균은 3,876만원으로 2015년의 3,682만원에 비해 194만원의 상승이 있었으나, 업종 간 1인당 산업규모 격차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디자인업체의 1인당 평균 매출액의 경우 1억 7,859만원으로 2억 89만원을 기록한 전년에 비해 약 2,200만원 감소하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인테리어디자인이 2억 9,910만원, 기타패션텍스타일이 2억 1,761만원을 기록하여 평균을 상회한 반면 1억

4,927만원을 기록한 제품디자인이나 1억 2,303만원을 기록한 시각디자인은 평균을 하회하였다. 업종별 1인당 평균 매출액의 격차는 업종 특성에 의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 디자인업체 당 종사자 기준 평균 종사자 수나 디자이너 기준 평균 종사자 수는 업종 간 격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1인당 매출액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부가가치 수준 향상 등에 초점을 둔 혁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디자인산업 활용성 동향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표준산업분류 상 19개 산업 기준에 따른 전체 산업의 디자인 활용률 평균을 살펴보면 2015년 13.7%에서 2016년 16.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49.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26.0%, 부동산업과 임대업이 24.3% 순으로 디자인 활용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디자인 활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광업 및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숙박 및 음식점업을 포함하여 디자인 활용률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업종이 총 11개 업종에 이르러 이들 업종에 대해 산업 전반의 디자인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나 디자인 활용 모범 경영모델의 보급 등을 통하여 디자인 활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디자인 특수분류 기준에 따른 디자인 활용률은 평균 33.6%로 2015년 29.0%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모든 업종의 디자인 활용률이 상승했지만 가장 높은 활용률을 보인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과 가장 낮은 활용률을 보인 공간디자인 간 격차는 35.3%p로 2015년 최상위 업종인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과 최하위 업종인 제품디자인 간 격차인 30.0%p보다 5.3%p 상승하였다. 결과적으로 모든 업종의 디자인 활용률이 향상되었으나 업종 간 디자인 활용률의 격차는 더욱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비추어 우려를 낳고 있는 제품디자인 업종의 디자인 활용률은 25.8%를 기록하여 2015년 23.6%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아직도 평균인 33.6%에 미달하는 모습을 보이며 크게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들은 업종별로 고른 디자인 활용률 향상을 위한 업종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디자인 산업의 활용성을 보기에 적합한 지표인 디자인 개발 건수를 살펴보면 일반업체가 디자인을 활용할 때 자체 디자인 개발과 외주 디자인 개발 비율은 각각

55.4%와 44.6%로 2015년 자체 디자인 개발 및 외주 디자인 개발 비율 59.3%, 40.7%와 비교하여 자체 개발 비율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외주 디자인업체를 통한 디자인 개발의 경우 외부 전문 디자인업체를 활용하는 비율은 건 수 기준으로 92.0%에 이르고 비용 기준은 91.9%로 두 가지 기준에 대해 90%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2015년 건 수 기준 90.1%, 비용 기준 91.0%와 비교하여 건 수는 1.9%p, 비용은 0.9%p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 디자인업체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업종별로 구분해보면 공간디자인과 패션/텍스타일디자인 업종의 경우 자체 디자인 개발 비율이 96.0%와 71.9%로 외주 디자인 개발 비율이 낮으며 자체 디자인 개발 비율의 업체 평균인 55.4%를 40.6%p, 16.5%p의 차이로 상회하고 있어 자체 디자인 개발과 외주 디자인 개발 비율이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높은 외주 디자인 개발 비율이 전문 디자인업체의 육성과 관련 있으나 이러한 현상이 내부 디자이너 육성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향후 외주 전문 디자인업체를 통한 디자인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반 업체의 내부 디자이너와 전문 디자인업체 간 바람직한 협력모델의 개발이나 전문 디자인업체의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업종별로 차별화된 접근방식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디자인산업 경제성 동향

2016년 디자인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103조 8,436억 원으로 94조 1807억 원을 기록한 전년도 대비 10.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디자인 인프라 73.6%, 시각디자인 34.0%, 공간디자인 26.9%,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8.6% 등의 순으로 높은 성장을 보였다. 디자인인프라의 경제적 가치가 디자인 활용비율의 증가와 함께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디자인 경제적 가치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서비스/경험디자인의 하락세(-25.5%)가 나타났다. 향후 경제적 가치의 꾸준한 성장을 위해 디자인인프라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도 서비스/경험디자인의 디자인 기여 및 부가가치율을 높이는 정책을 통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반 업체의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디자인, 마케팅, 고객서비스, 성능, 브랜드, 유통, 기업 아이덴티티로 구분하여 전체 평균으로 비율을 살펴보면 디자인 25.6%, 마케팅 22.1%, 고객서비스 19.6% 순의 비율을 보였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디자인 요소의 업종별 비율을 살펴보면 패션/텍스타일디자인 35.0%, 시각디자인

32.4%, 공간디자인 29.2% 순으로 나타났고 모든 업종이 고르게 2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여 디자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비교적 널리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국제 교류 부문

2016년 디자인 수출입을 보면 수출액은 882억 원, 수입액은 103억 원으로 2015년에 기록한 수출액 741억 원, 수입액 70억 원 대비 각각 19.0%, 47.1% 성장하였다. 수입이 47.1%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전체 디자인 수출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5% 정도로 낮은 수준이며 디자인 산업의 무역수지는 779억 원 흑자로 2013년 178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흑자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디자인산업은 큰 폭의 무역흑자를 보이는 서비스 부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전문 디자인업체의 매출 구조에서 해외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71% 수준에 불과하며 이 비율의 변화폭도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적인 시장 확보를 위해 디자인산업이 해외 시장 개척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 디자인업체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조사결과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은 1순위 답변 비율이 1.9%, 1순위 및 2순위를 더한 중복응답 비율은 5.6%로 나타나 전년에 기록한 1.5%, 4.1%에 비해 각각 0.4%p, 1.5%p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 디자인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수출 지원금 지원이 22.9%로 전년과 동일한 비율을 보였고 민간 네트워크 지원정책과 해외시장 조사지원의 비율은 각각 9.1%와 6.9%로 2015년 17.6%와 9.2%와 대비하여 요구비율이 높아진 반면 그동안 주요한 지원 요구항목이었던 해외지사 지원 사업은 15.9%에서 7.3%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은 13.3%에서 9.8%로 비율이 하락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디자인 관련 해외진출이 기존의 일회성 해외진출 단계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나 글로벌 역량을 필요로 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도 다양화, 맞춤화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5. 공적 지원

일반 업체에 대한 정부지원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자금지원 3.1%,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1%, 인력양성 지원 1.3%,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 0.1%로 전반적으로 정부지원 경험에 대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 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의 마련이 여전히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을 확인한 결과 일반 업체의 경우 정부/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무료교육 활용의 선호 비율이 29.4%로 2015년과 같이 가장 선호하는 재교육방법으로 나타났지만 전년도에 비해 -9.4%p로 비율이 하락하고 있고 실제로 일반 업체에서 디자이너를 재교육 하는 방법은 사내 자체교육이 33.4%,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관람이 8.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문 디자인업체의 경우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은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28.5%, 사내 자체 교육 18.5%순이었다. 또한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교육을 선호하는 비율은 12.7%로 2015년의 6.8%에 비해 5.9%p의 비율 상승이 있었다. 실제로 전문 디자인업체가 디자이너를 재교육 하는 방법은 재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중복 비율이 67.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선호하는 재교육 방법과 실제 수행하는 재교육 방법의 괴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 업체와 전문 디자인업체의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의 중복응답 비율을 확인한 결과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이 각각 52.2%, 56.4%,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이 43.6%, 45.7%, 교육예산 부족이 38.8%, 35.3%로 일반 업체와 전문 디자인업체의 애로사항이 동일한 양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각 업체의 적극적인 재교육 의지를 고취함으로써 정부/공공기관 지원 교육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요한 일반 업체 및 전문 디자인업체에 찾아가는 디자이너 재교육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 교육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디자인산업 현장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체계화하여 능력 있는 인재의 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한 인지도는 일반 업체의 경우 19.4%를 기록하여 2015년 18.9%에서 0.5%p 향상하였다. 성장률의 상승폭이 높지 않았지만 활용도는 30.8%로 전년도의 18.2%에서 12.6%p 향상되었다.

일반 업체의 세부적인 업무 활용도를 살펴보면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 작성 11.7%, 교육훈련 5.5%, 자격검정 3.9%, 직무기술서 작성 3.8%, 경력개발경로모형 설계 3.8%, 자가진단 2.2%순의 비율을 보여 전반적으로 고른 업무 활용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도 전체의 69.2%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이 68.9%,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24.8%,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6.1%로 홍보 부족에 기인하는 이유가 전체의 99.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년도의 설문 결과와 비교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한 정부의 디자인 관련 공적 지원이 향후 홍보 등을 통해 지원 내용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2017 KOREA DESIGN STATISTICAL DATA

Part 1



국내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2017 KOREA DESIGN STATISTICAL DATA



조사 개요

1 조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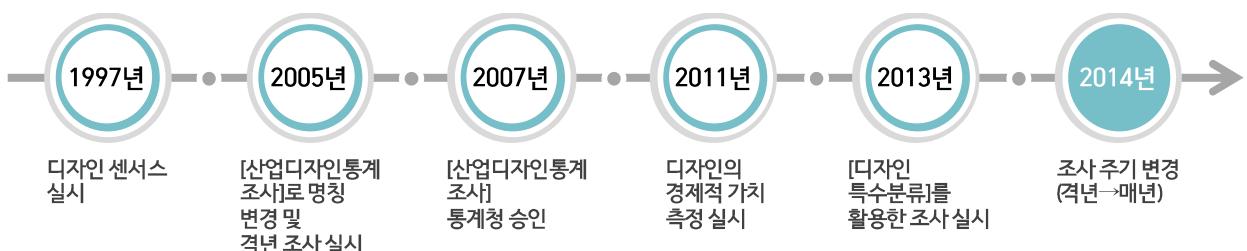
1) 조사 목적

- 디자인산업 현황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여 통계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의 디자인 정책 및 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조사 근거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 3항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 (제115026호)

3) 조사 연혁



4) 조사 기간

- 조사 기준 시점: 2016. 01. 01 ~ 2016. 12. 31
- 조사 실시 기간: 2017. 07. 18 ~ 2017. 10. 23

5) 조사 범위 및 대상

구분	상세내용
실태조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업체 디자인 활용여부 조사 • 일반업체 중 디자인활용업체 조사 • 전문 디자인업체
문헌조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랜서 현황 •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 현황

6) 실태조사 영역 조사 개요

구분	 일반업체	 전문디자인 업체	 중앙부처 및 지자체
표본추출법	이중추출법(two-phase sampling) 1차 : 디자인 활용여부 조사 - 총화추출/변형제곱근비례배분 2차 : 디자인 활용업체 실태조사 - 총화추출/변형비례배분	총화추출/ 변형비례배분	전수조사
목표표본수	1차 : 디자인 활용여부 조사 - 10,000개 업체 2차 : 디자인 활용업체 실태조사 - 1,000개 업체	600개 업체	중앙부처(17부 5처 16청) - 38개 기관 전수 지자체(행정시/자치구) - 243개 기관 전수
조사표본수	1차 : 디자인 활용여부 조사 - 10,099개 업체 2차 : 디자인 활용업체 실태조사 - 1,198개 업체	609개 업체	중앙부처(13부 4처 15청) - 32개 기관 지자체(행정시/자치구) - 239개 기관
응답대상	업체 대표 또는 과장급 이상 디자인 업무 담당자	업체 대표 또는 과장급 이상 실무자	디자인 업무담당 공무원
조사방법	방문조사 및 이메일/팩스/전화조사		

7) 조사 항목

조사 대상	조사 항목	
일반업체 디자인 활용 여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12월 기준 디자이너 종사 여부 · 최근 2년 이내 전문디자인업체 디자인개발 의뢰 경험 여부 	
디자인 활용업체 (일반업체)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일반 현황 · 디자인 투자 실적 · 디자인 위상 및 기여도 · 정부 정책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활용 현황 · 디자인 활용 수준 · 디자인 인력 현황 · 디자인 교육 현황
전문디자인업체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일반 현황 · 디자인 사업 실적 · 디자인 교육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 디자인 분야 및 인력 현황 · 디자인 해외 교류 · 정부 정책 및 지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활용 현황 · 디자인 교육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사업 발주 현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랜서 산업 규모 ·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 현황 · 디자인 수출·수입 규모

8) 주요 용어 및 개념



일반기업체 및 전문디자인업체

(1) 디자인 활용여부 확인 단계

1단계

2016년 12월 기준 귀 사에는 디자이너가 직원으로 종사하고 있었습니까?
시점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면 현재 귀 사에 디자이너가 직원으로 종사하고 있습니까?

예 ► 디자인활용업체, 실태조사 컨택 아니오 ► 2단계 질문

* 디자이너 : 디자이너로 고용된 자 중 디자인 관련 학과 전공 또는 디자인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이거나, 디자인 관련 학과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도 디자인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단계

최근 2년 이내 귀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디자인 개발을 위해 전문디자인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디자인활용업체, 실태조사 컨택 아니오 ► 3단계 질문

3단계

귀 사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신제품을 출시했거나 기존 상품의 디자인을 변경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4단계 질문 아니오 ► 조사종료, 디자인비활용업체 활용여부 조사 종료

4단계

(신제품 출시 및 디자인변경 경험이 있는 경우) 신제품 디자인 혹은 디자인 변경은 어떤 방법 (자체, 외주 등)으로 하셨습니까?

주관식 응답, 응답자의 응답을 듣고 아래 디자인 활용 구분 기준을 참고하여 디자인 활용업체 여부를 판단

(2) 전문디자인업체 용역 구분 기준

- ❖ 생산물 및 제공서비스에 관련된 디자인 용역(상품 자체 및 포장)
- ❖ 생산물의 홍보와 관련된 BI(브랜드 아이덴티티) 광고, 팜플렛 제작, 현수막 등
- ❖ 회사 CI(컴퍼니 아이덴티티), 회사 소개와 관련된 광고, 팜플렛 제작, 홈페이지, 인테리어 등 유니폼 제작

특이사항

- 건설업: 디자인과 설계를 구분하기 어려움.
(설계만 하는 경우는 디자인 외주로 보지 않음) 설계란 건물의 높이, 형태, 크기와 관련됨.
- 연구소: 보고서 작성 직원 중 제작업무 담당자가 있으나 이들을 디자이너로 호칭하지 않음.
제작업무 담당자 중 디자인 전공 출신자는 디자이너로 인정
- 디자인은 디자이너에 의해 개발된 디자인만 해당, 경력이 짧은 디자인 비전공자가 기존 디자인을 수정하여 만든 것은 디자인으로 보지 않음
- 외부 업체에 의뢰한 것은 최근 2년 이내에 의뢰한 것만 해당. 2년 이전에 의뢰한 디자인으로 계속 생산물을 만드는 경우 디자인 외주용역으로 인정 안함.
- 외부 업체는 디자인을 전공한 디자이너가 있는 업체만 해당 가령, 디자이너가 있는 인쇄업체, 출판업체에 의뢰한 경우 디자인 외주로 인정

▶ 전문디자인업체

- ❖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전문디자인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체로 인테리어디자인업체, 제품디자인업체, 시각디자인업체, 기타전문디자인업체가 전문디자인업체에 포함됨.

▶ 기업 형태

① 개인사업체

- ❖ 법인 없이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로 개인이 공동 경영하는 사업체도 여기에 포함됨.
- ❖ 회사와 제품·상품 등의 판매 계약을 맺고 개인경영주의 책임 아래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대리점, 특약점, 가맹점 등의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 ❖ 상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병회사 및 외국회사를 말함.
- ❖ 외국회사란 외국(미국 등)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 설립한 회사를 말하며 주로 국내에 설치된 외국의 지사(점), 영업소 등으로 이루어짐.

③ 회사이외 법인

- ❖ 민법 또는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외의 법인으로서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각종 공사 등을 말함.

④ 비법인 단체

- ❖ 법인격이 없는 각종 협회, 조합,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등

▶ 사업체 구분

① 단독사업체(1기업 1사업체)

- ❖ 다른 장소에 본사(점) 또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없이 한 장소에 단 하나의 사업체만 있는 경우

② 본사(점), 본부, 중앙회(1기업 다사업체)

- ❖ 동일한 경영 하에 있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1개 이상 거느리며 사업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체
- ❖ 실제로 기획, 회계, 재무, 구매, 광고, 법무 등 총괄적인 관리업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체

③ 지사(점), 출장소, 영업장(1기업 다사업체)

- ❖ 동일 경영을 총괄하는 본사 등이 별도로 있으면서 그 본사 등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있는 지사(점), 영업장, 출장소 등

▶ 종사자

① 상용근로자

- ❖ 사업체외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는 사람 또는 일정한 기간의 고용계약 없이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자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

▷ 업체 규모 구분 방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기업과 소기업을 구분하였고, 그 외 기업은 대기업으로 구분함.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정보마당(<https://www.hpe.or.kr/>)에서 제공하는 중견기업 명부를 통해 구분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 기존 방식대로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구분함.

	업종	 중기업	 소기업
제조업 외	농/임/어업	80~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광업	80~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20~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상 및 환경복원업	80~8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건설업	80~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50~1,000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운수업	80~8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	10~40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0~800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금융/보험업	80~4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부동산업/임대업	30~4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30~6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0~6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0~299인 이하	49인 이하
	교육서비스업	10~40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10~60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문화서비스업	30~6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0~60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20~1,5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20~1,5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0~1,5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120~1,5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업	120~1,5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가구 제조업	120~1,5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120~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담배 제조업	80~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80~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80~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0~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120~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0~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120~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0~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0~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0~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80~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음료 제조업	120~8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0~8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20~8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0~8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의료 경밀 공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0~8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그 밖의 제품 제조업	80~8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 사업 실적

① 매출액

- ❖ 2016년 1년간 사업 활동을 통한 수익 총액

② 인건비

- ❖ 2016년 1년간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충당금전입액 등 인건비성 비용으로 기타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수수료도 포함.

③ 연구개발비

- ❖ 연구비, 개발비, 경상개발비의 합으로 구성됨.

④ 영업이익

- ❖ 총 매출액에 영업비용을 제외한 이익을 뜻함.

▶ 디자인 관련 투자금액 및 사업비

① 디자인 인건비

- ❖ 2016년 1년간 고용된 디자이너 인건비

② 디자인 용역비

- ❖ 2016년 전문디자인업체 용역비, 프리랜서 등 고용되지 않은 인력에 지급된 인건비 포함
 - * 전문업체 용역비와 그 외 용역비를 구분해 조사함

③ 디자인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

- ❖ 2016년 구매 디자인 연구개발용 고가 기기, 장치, 컴퓨터시스템 및 응용소프트웨어 구매 및 관리 비용

④ 디자인 연구개발용 토지/건물

- ❖ 2016년 구매 디자인 연구 개발용 토지, 건물비 및 건물의 대규모 수리 등을 위한 지출액

⑤ 디자인 관련 기타 경비

- ❖ 2016년 디자인 연구에 소요되는 재료비, 유인물비, 비품구입비, 교육비, 출장비 등 기타 경비

▶ 디자이너 기준

- 디자이너로 고용된 자 중 디자인 관련학과 전공 또는 디자인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디자인 관련학과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도 디자인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디자인 분야

● 제품 디자인

전기 전자 제품디자인, 다목적 기계 및 공구 디자인, 생활/환경용품디자인, 운송기기디자인, 가구 디자인, 제조업 회사본부 디자인, 기타 제품디자인



● 시각 디자인

편집디자인, 식·의약품 패키지디자인, 비식·의약품 패키지디자인, 광고디자인(인쇄매체), 기타 시각디자인



●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영상디자인, 웹디자인, 게임디자인, 기타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 공간 디자인

건축디자인, 인테리어장식디자인, 전시 및 무대디자인, 인테리어 자재디자인, 익스테리어디자인, 조경 및 레저공간디자인, 리모델링디자인, 건설환경디자인, 토목환경디자인, 기타 인테리어 디자인



●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패션디자인, 가능성패션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잡화디자인, 기타 패션 텍스타일 디자인



● 서비스/경험 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인터렉션디자인, 기타 서비스/경험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서비스를 설계하고 전달하는 과정 전반에 사용자 중심의 리서치가 강화된 디자인 방법을 적용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디자인 분야

● 산업공예 디자인

금속공예, 도자공예, 섬유공예, 목공예, 기타공예



● 디자인 인프라(디자인 기반 기술)

디자인 모형, 디자인 연구개발, 기타 디자인 서비스



출원/등록 구분

① 출원

- 산업재산권의 등록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대해 법률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말함.

② 등록

- 출원된 서류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를 만족한 경우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함.

GD(Good Design)마크

- 우수산업디자인(GD)상품 선정제도는 1985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
현재 국내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 예정인 상품을 대상으로 조형성, 경제성, 편리성 등을 기준으로 디자인을 평가해 선정된 제품에 대해 정부에서 우수디자인상품임을 인증하여 GD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임.

디자인표준계약서

- 디자인표준계약서는 디자인 개발 용역에서 사용되는 표준계약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 6월에 고시한 계약서 양식임. 종류로는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성과보수), 인터랙티브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가 있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디자인 구분

: 공간

도시 기반시설

- 공원, 운동장, 광장, 놀이터, 집회시설, 보도, 자트리 공원, 주차장, 터널, 도로, 철로, 교량, 육교, 고가도로, 하천, 하수처리장, 산업공단, 변전소, 발전소 등

건축 및 실내환경

- 마을회관,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화국, 동사무소, 군사시설, 교도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정부행정부처 건물, 외국공관 건축물, 시민회관, 문화재, 체육관, 경기장, 공연장, 국공립 복지시설, 국공립의료시설, 보육원,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휴게소,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도로 휴게실,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유아원, 교육원, 훈련원, 연구소, 도서관, 연수원 등

■ 시설물

보행 및 운송시설물

- 보행신호등, 훙스, 방음벽, 불라드, 가드레일, 가로표식,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육교, 정류장, 자전거 정차대, 보행 유도등, 신호등, 교통차단물, 속도 억제물, 주차시설, 주차요금징수기, 공공기관 소유차량 등

편의시설물

- 벤치, 의자, 쉘터, 옥외용 테이블, 휴지통, 음수대, 재떨이, 화장실, 세면장, 매점, 무인 키오스크, 자동판매기, 신문가판대 등

관리시설물

- 맨홀, 전신주, 가로등, 신호개폐기, 전력구, 분전반, 환기구, 우체통, 소화전, 방재시설, 범죄예방장치, 신원확인장치 등

정보시설물

- 공중전화, 풍향계, 시계, 온습도계, 정보부스, 지역/관광안내시설, 시(도)계 경계석, 지자체 상징탑, 교통정보판 등

행정시설물

- 제복, 가구, 문구, 표찰, 무인 민원처리기 등

■ 이미지

정보매체

- 이정표, 교통표지판, 지역/관광 안내도, 버스노선도, 지하철노선도, 방향유도사인, 규제사인, 자동차 번호판, 각종 픽토그램, 광고판, 현수막, 포스터, 게시판, 간판, 배너, 기, 흥보영상

상징매체

- 국가 및 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상징시스템(상징사인, 증명서, 공문서, 출판물 표지, 웹페이지 등), 화폐, 주민등록증, 여권, 교통카드, 채권, 기념주화, 우표 등

환경연출

- 벽화, 수퍼그래픽, 미디어 아트, 오감연출매체(sound scape, light scape), 미술장식품

도시마스터플랜/가이드라인

- 녹지 벨트 확보를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도시별 이미지 구축을 위한 디자인 개발

2 응답자 특성

1) 일반업체 디자인 활용여부 조사

▣ 디자인 활용여부 조사 응답자 특성

		상세내용	
		사례수	%
전체		10,099	100.0
권역별	서울	2,940	29.1
	부산/울산/경남	1,399	13.9
	대구/경북	950	9.4
	인천	449	4.4
	경기	2,462	24.4
	광주/전라	724	7.2
	대전/세종/충청	893	8.8
	강원/제주	282	2.8
업종별	제품디자인	2,299	22.8
	시각디자인	882	8.7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468	4.6
	공간디자인	2,223	22.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636	6.3
	서비스/경험디자인	1,253	12.4
	산업공예디자인	863	8.5
	디자인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1,475	14.6
종사자 수	소기업	6,107	60.5
	중기업	2,660	26.3
	중견기업	646	6.4
	대기업	686	6.8

2) 일반업체 디자인활용업체 실태조사

▶ 디자인활용업체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표본	
		사례수	%
전체		1,233	100.0
권역별	서울	450	36.5
	부산/울산/경남	154	12.5
	대구/경북	101	8.2
	인천	44	3.6
	경기	275	22.3
	광주/전라	78	6.3
	대전/세종/충청	100	8.1
	강원/제주	31	2.5
업종별	제품디자인	254	20.6
	시각디자인	155	12.6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78	6.3
	공간디자인	228	18.5
	패션/텍스타일디자인	94	7.6
	서비스/경험디자인	168	13.6
	산업공예디자인	99	8.0
	디자인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157	12.7
총사자 수	소기업	726	58.9
	중기업	376	30.5
	중견기업	65	5.3
	대기업	66	5.4
2016년 매출액	10억 미만	181	14.7
	10~30억 미만	264	21.4
	30~100억 미만	312	25.3
	100~500억 미만	283	23.0
	500~1,000억 미만	66	5.4
	1,000억 이상	127	10.3

3) 전문디자인업체

▶ 전문디자인업체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표본	
		사례수	%
전체		609	100.0
권역별	서울	368	60.4
	부산/울산/경남	55	9.0
	대구/경북	38	6.2
	인천	5	0.8
	경기	54	8.9
	광주/전라	42	6.9
	대전/충청	32	5.3
	강원/제주	15	2.5
업종별	제품 디자인	175	28.7
	시각 디자인	195	32.0
	인테리어 디자인	127	20.9
	기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112	18.4
규모별	1인	75	12.3
	2~4인	234	38.4
	5~9인	167	27.4
	10~14인	70	11.5
	15인 이상	63	10.3
2016년 매출액	1억 미만	67	11.0
	1~3억 미만	151	24.8
	3~5억 미만	77	12.6
	5~10억 미만	142	23.3
	10억 이상	172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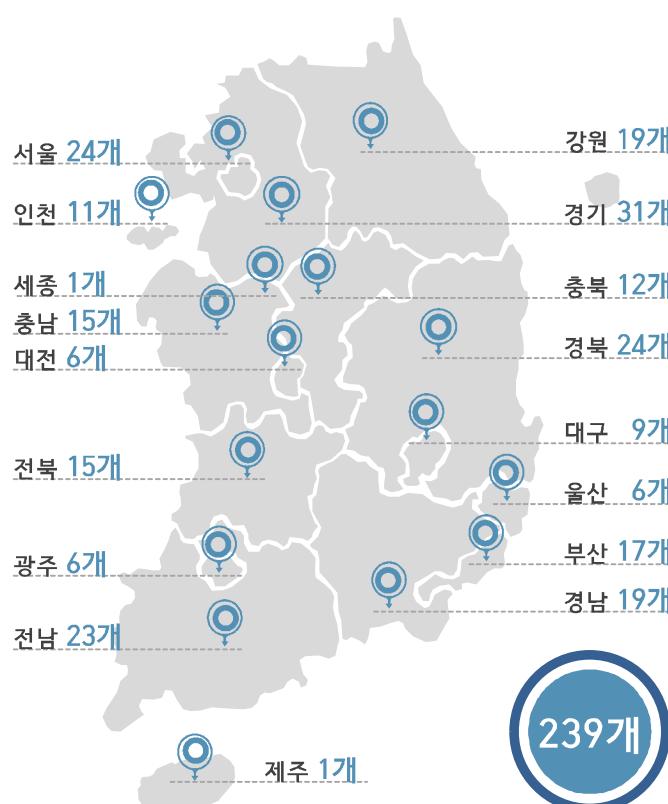
4) 중앙부처

▣ 총 38개 기관 중 32개 기관 조사 완료^①

구분	중앙부처
17부 (13부 완료)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통일부, 환경부
5처 (4처 완료)	국가보훈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16청 (15청 완료)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5) 지방자치단체

▣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39개 조사 완료^②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모집단 크기 (2016년)]

조사완료수/전체지자체수

시/도	시군구(행정구/자치구)			계
	시	군	구	
서울	1/1			23/25 24/26
부산	1/1		1/1	15/15 17/17
대구	1/1		1/1	7/7 9/9
인천	1/1		2/2	8/8 11/11
광주	1/1			5/5 6/6
대전	1/1			5/5 6/6
울산	1/1		1/1	4/4 6/6
경기	1/1	27/28	3/3	31/32
강원	1/1	7/7	11/11	19/19
충북	1/1	3/3	8/8	12/12
충남	1/1	7/8	7/7	15/16
세종	1/1			1/1
전북	1/1	6/6	8/8	15/15
전남	1/1	5/5	17/17	23/23
경북	1/1	10/10	13/13	24/24
경남	1/1	8/8	10/10	19/19
제주	1/1			1/1
계	17/17	73/75	82/82	67/69 239/243

① 법무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검찰청 미응답

국민안전처는 2017년 7월 정부 조직 개편으로 행정자치부에 흡수·통합됨

② 서울 종량구, 서울 강서구, 경기 시흥시, 충남 아산시 미응답

2017 KOREA DESIGN STATISTICAL DATA



주요 통계

1 디자인산업 규모

• 2016년 디자인 산업 규모는 16조 9,137억 원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인 투자금액 12조 411억 원^③, 전문디자인업체의 매출액 3조 3,578억 원^④, 공공부문의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2,321억 원, 프리랜서 산업규모 1조 342억 원 및 고등 교육 부문 2,485억 원의 합으로 디자인산업 규모를 추정함.

• 2016년 디자인 인력 규모는 324,277명

디자인 인력 규모는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이너 수(254,489명), 전문디자인업체 종사자 수 (18,803명), 공공부문 디자인 전담부서 직원 수(708명), 프리랜서 수(47,655명), 디자인 학과계열 대학교원 수(2,623명)의 합으로 추정함.

▶ 2016년 디자인 산업 규모 및 인력

구분	2015년		2016년		비고
	디자인 산업규모 (백만 원)	디자인 인력 (명)	디자인 산업규모 (백만 원)	디자인 인력 (명)	
일반업체	11,252,597	240,866	12,041,094	254,489	
전문디자인 업체	3,059,925	15,232 *(22,728)	3,357,819	18,803 *(29,536)	*(비디자이너 포함 총 종사자)
공공부문 (지자체, 정부부처)	271,727 *(36,709)	676	232,050 *(43,120)	708	*(공공부문 디자인용역비를 제외한 산업규모)
소계	14,584,249 *(14,349,231)	256,774 *(264,270)	15,630,964 *(15,442,034)	273,999 *(284,732)	*(비디자이너 포함 총 종사자) *(공공부문 디자인용역비를 제외한 산업규모)
프리랜서	820,990	41,214	1,034,235	47,655	
고등교육	246,359	2,690	248,517	2,623	
총계	15,651,598 *(15,416,580)	300,678 *(308,174)	16,913,716 *(16,724,786)	324,277 *(335,010)	

③ 일반업체 산업 규모 : 디자인활용업체 수(추정치) × 디자인 투자금액 평균(표본조사결과, 전문디자인업체 용역비 제외)

④ 전문디자인업 산업 규모 : 전문디자인업체 매출액 평균(표본조사결과) × 모집단 수(2015 경제총조사 전문디자인업인 업체)

1-1) 일반업체 디자인 산업 규모 및 인력

- 디자인활용업체의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은 1억 210만원, 산업 규모는 12조 411억 원으로 추정됨. 업종별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은 제품디자인이 2억 319만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시각디자인(1억 6,412만원),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1억 3,034만원), 패션/텍스타일디자인(1억 1,408만원), 서비스/경험디자인(9,375원), 공간디자인(9,369만원), 디자인인프라(6,244만원), 산업공예디자인(5,264만원) 순임.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8억 5,601만원, 중견기업 7억 1,101만원, 중기업 1억 3,586만원, 소기업 7,266만원으로 규모가 클수록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이 높음.
- 업종별로 산업 규모를 분석해 보면, 제품디자인(2조 7,501억 원)의 산업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디자인인프라(2조 3,472억 원), 서비스/경험디자인(2조 3,350억 원), 공간디자인(1조 7,593억 원), 시각디자인(1조 3,944억 원)등의 순으로 높음.

▶ 15년, 16년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인 산업 규모

(단위: 백만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5년 대비 산업규모 증감률
		디자인 활용업체 수	업체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	산업규모	디자인 활용업체 수	업체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	산업규모	
업종별	제품 디자인	12,145	220.90	2,682,897	13,535	203.19	2,750,145	▲2.5%
	시각 디자인	8,015	192.20	1,540,535	8,496	164.12	1,394,409	▼9.5%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3,994	162.08	647,310	4,849	130.34	631,983	▼2.4%
	공간 디자인	16,582	89.63	1,486,163	18,778	93.69	1,759,323	▲18.4%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4,501	120.90	544,177	5,019	114.08	572,578	▲5.2%
	서비스/경험 디자인	21,787	104.18	2,269,865	24,907	93.75	2,335,000	▲2.9%
	- 서비스디자인	12,862	58.72	755,279	14,877	51.64	768,292	▲1.7%
	산업공예 디자인	4,608	57.16	263,354	4,758	52.64	250,438	▼4.9%
	디자인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25,941	70.09	1,818,297	37,592	62.44	2,347,218	▲29.1%
규모별	소기업	81,399	83.83	6,823,779	87,729	72.66	6,374,615	▼6.6%
	중기업	13,998	109.64	1,534,817	27,758	135.86	3,771,136	▲145.7%
	중견기업	1,118	863.28	965,046	1,373	711.01	976,485	▲1.2%
	대기업	1,057	1825.16	1,928,955	1,073	856.01	918,859	▼52.4%
계		97,572	115.33	11,252,597	117,934	102.10	12,041,094	▲7.0%

- 디자인활용업체의 평균 디자이너 수는 2.16명으로 2015년(2.47명) 대비 다소 낮음. 디자이너 고용 업체의 평균 디자이너 수는 3.62명(2015년 3.93명)임.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인 인력은 254,489명으로 추정됨.
- 업종별 디자인 산업인력은 디자인인프라가 53,539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공간디자인(52,785명), 서비스/경험디자인(51,295명), 제품디자인(43,641명) 등의 순으로 많음.

▶ 15년, 16년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인 인력 규모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5년 대비 인력규모 증감률	
		평균 디자이너 수 디자이너 고용업체 대상	활용업체 전체 대상	인력규모	평균 디자이너 수 디자이너 고용업체 대상	활용업체 전체 대상		
업종별	제품 디자인	4.26	3.07	37,264	5.07	3.22	43,641	▲17.1%
	시각 디자인	4.29	2.78	22,293	3.43	2.32	19,725	▼11.5%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4.13	2.76	11,014	3.61	2.32	11,262	▲2.2%
	공간 디자인	2.82	2.77	45,958	2.83	2.81	52,785	▲14.9%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4.17	3.02	13,594	3.64	2.74	13,735	▲1.0%
	서비스/경험 디자인	4.27	2.40	52,203	4.01	2.06	51,295	▼1.7%
	- 서비스디자인	3.14	1.54	19,832	2.43	1.07	15,849	▼20.1%
	산업공예 디자인	3.51	1.78	8,191	4.06	1.79	8,507	▲3.9%
	디자인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4.79	1.94	50,348	3.45	1.42	53,539	▲6.3%
규모별	소기업	3.09	2.18	177,792	2.76	1.65	144,404	▼18.8%
	중기업	6.88	2.58	36,063	7.06	3.10	86,021	▲138.5%
	중견기업	14.48	9.73	10,881	12.95	8.72	11,976	▲10.1%
	대기업	25.38	15.26	16,131	41.34	11.26	12,087	▼25.1%
계		3.93	2.47	240,866	3.62	2.16	254,489	▲5.7%

1-2) 전문디자인업체 디자인 산업 규모 및 인력

- ❖ 전문디자인 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6억 1,895만원(2015년 6억 1,594만원)이며, 전문디자인업체의 산업 규모는 3조 3,578억 원으로 추정됨.
한편, 전문디자인업체 사업체 수는 5,425개로 2015년(4,976개) 대비 크게 증가함.
- ❖ 전문디자인업체 업종별 평균 매출액을 살펴보면, 인테리어디자인이 9억 5,9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산업규모 역시 1조 1,393억 원으로 가장 높음. 다음은 기타 패션텍스타일(6억 2,952만원), 제품디자인(5억 8,614만원), 시각디자인(4억 3,817만원) 순임.
- ❖ 산업규모는 2015년 대비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에서 44.4%로 크게 증가했으며, 그 외 다른 업종 모두 증가(제품디자인 6.7%, 시각디자인 5.6%, 인테리어디자인 3.0%)한 것으로 나타남.

▶ 15년, 16년 전문디자인업체의 디자인 산업 규모

(단위: 백만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5년 대비 산업규모 증감률
	조사 모집단 (업체 수)	평균 매출액	산업규모 (비중)	조사 모집단 (업체 수)	평균 매출액	산업규모 (비중)	
제품	1,240	586.35	727,076(23.8%)	1,324	586.14	776,049(23.1%)	▲6.7%
시각	1,889	449.32	848,760(27.7%)	2,045	438.17	896,058(26.7%)	▲5.6%
인테리어	1,083	1020.88	1,105,617(36.1%)	1,188	959.00	1,139,286(33.9%)	▲3.0%
기타 패션텍스타일	764	495.38	378,471(12.4%)	868	629.52	546,426(16.3%)	▲44.4%
계	4,976	615.94	3,059,925(100%)	5,425	618.95	3,357,819(100%)	▲9.7%

- ❖ 전문디자인업체의 종사자 수(디자이너 수 및 타 업무 종사자)는 평균 5.44명이고, 산업 인력은 29,536명으로 추정됨. 2015년(22,728명) 대비 30.0% 증가함.
디자이너 수 기준으로 보면, 평균 디자이너 수는 3.47명, 전체 디자이너 수는 18,803명으로 2015년(15,232명) 대비 2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종사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시각디자인(10,635명)으로 전체의 36.0%의 비중을 보임.
다음은 제품디자인(7,392명, 25.0%), 인테리어디자인(7,374명, 25.0%), 기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4,135명, 14.0%) 순으로 나타남.

▶ 15년, 16년 전문디자인업체의 디자인 인력 규모(종사자 기준)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5년 대비 산업인력 증감률
	조사 모집단 (업체 수)	평균 종사자 수	인력규모 (비중)	조사 모집단 (업체 수)	평균 종사자 수	인력규모 (비중)	
제품	1,240	5.02	6,226(27.4%)	1,324	5.58	7,392(25.0%)	▲18.7%
시각	1,889	4.34	8,190(36.0%)	2,045	5.20	10,635(36.0%)	▲29.8%
인테리어	1,083	4.66	5,051(22.2%)	1,188	6.21	7,374(25.0%)	▲46.0%
기타 패션텍스타일	764	4.27	3,260(14.3%)	868	4.76	4,135(14.0%)	▲26.8%
계	4,976	4.57	22,728(100%)	5,425	5.44	29,536(100%)	▲30.0%

* 2015년 경제총조사 전문디자인업 종사자 수: 22,047명

▶ 15년, 16년 전문디자인업체의 디자인 인력 규모(디자이너 기준)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5년 대비 산업인력 증감률
	조사 모집단 (업체 수)	평균 종사자 수	인력규모 (비중)	조사 모집단 (업체 수)	평균 종사자 수	인력규모 (비중)	
제품	1,240	3.31	4,106(27.0%)	1,324	3.93	5,199(27.7%)	▲26.6%
시각	1,889	3.06	5,789(38.0%)	2,045	3.56	7,283(38.7%)	▲25.8%
인테리어	1,083	2.98	3,223(21.2%)	1,188	3.21	3,809(20.3%)	▲18.2%
기타 패션텍스타일	764	2.77	2,114(13.9%)	868	2.89	2,511(13.4%)	▲18.8%
계	4,976	3.06	15,232(100%)	5,425	3.47	18,803(100%)	▲23.4%

1-3) 공공부문(중앙부처/지자체) 디자인 산업 규모 및 인력

- 공공부분은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자인 투자 규모를 조사한 결과, 중앙부처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은 700억 원, 지자체 디자인 전담부서는 1,621억 원으로 공공부문 디자인 투자 규모는 2,321억 원으로 추정됨.
- 중앙부처 디자인 전담부서 직원 수는 71명, 지자체의 디자인 전담부서 직원 수는 637명으로 공공부분 디자인 관련 인력 규모는 708명으로 추정됨.

▣ 공공부문 디자인 투자 규모 및 인력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총 합 (백만 원)	전담부서 직원 수 총 합 (명)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총 합 (백만 원)	전담부서 직원 수 총 합 (명)
중앙부처	61,793 *(486)	11	69,969 *(40)	71
지자체	209,934 *(10,937)	665	162,081 *(43,080)	637
계	271,727 *(11,423)	676	232,050 *(43,120)	708

* 괄호는 디자인 관련 예산 중 디자인 용역비 제외 금액

1-4) 프리랜서 디자이너 산업 규모 및 인력

- 프리랜서 디자이너 산업 규모 및 인력은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⑤ 결과를 활용하여 프리랜서 디자이너 수를 추정하고, 추정된 프리랜서 디자이너 수에 디자이너 임금을 곱하여 산업 규모를 산출함.
- 2016년 프리랜서 수는 47,655명(2015년 41,214명)으로 추정됨.
 - 프리랜서 수 $47,655\text{명} = \{\text{전문디자인업체 종사자 수}(29,536\text{명}) + \text{일반업체 디자이너 수}(254,489\text{명})\} \times 16.8\%$
 - * 디자이너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전체 디자이너= $39,688/236,542=16.8\%$
프리랜서 수는 2016년 지역별고용조사 결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규모로 추정함.

$$\text{프리랜서 수} \quad \text{=} \quad \frac{\text{전문디자인업체 종사자 수} & \times \text{디자이너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text{일반업체 디자이너 수 추정치}} \quad \text{전체 디자이너}$$

▶ 2016년 지역별고용조사 자영업자 현황

		2016년	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9,68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196,85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전체		236,542	

- 프리랜서 디자이너 산업 규모는 10,342억 원(2015년 8,210억 원)으로 추정됨.
 - $10,342\text{억 원} = \text{프리랜서 수 } 47,655\text{명} \times \text{프리랜서 월평균 임금 } 181\text{만원}(2016\text{년 지역별고용조사 결과}) \times 12\text{개월}$

$$\text{프리랜서 산업규모} \quad \text{=} \quad \text{프리랜서 수 추정치} \times \text{프리랜서 월 평균 임금} \times 12\text{개월}$$

구분	2015년	2016년
프리랜서 산업규모	8,210억 원	10,342억 원
프리랜서 수	41,214명	47,655명

^⑤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2016년 10월에 전국 약 19만 9천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1주간(실업자는 4주간)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여 9개도의 시군별 주요고용지표를 집계한 결과임.

1-5) 교육 부문 디자인 산업 규모 및 인력

- 교육 부문 디자인 투자금액 규모는 대학 디자인학과의 교원 임금 추정치와 디자인과 연구비 추정치의 합으로 산출됨. 교육 부문 인력 규모는 디자인 관련과의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대학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⑥ 수의 합으로 산출됨.
- 교육 부문 디자인 산업규모는 2,485억 원으로 추정됨.

교육 부문 248,517백만원	=	222,395백만원(디자인과 교수 연봉) + 26,122백만원(디자인학과 연구비)
-----------------------------	--	---

- 교육 부문 인력 규모는 2,623명으로 나타남(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결과).

▶ 15년, 16년 디자인학과 교수 연봉

구분	2015년			2016년		
	교수 연봉 평균 (백만 원)	디자인과 교원 수 (명)	디자인과 교수 연봉 추정 (백만 원)	교수 연봉 평균 (백만 원)	디자인과 교원 수 (명)	디자인과 교수 연봉 추정 (백만 원)
4년제 대학	교수	101.4	702	71,158	105.2	767
	부교수	84.6	400	33,858	87.9	350
	조교수	71.1	445	31,622	73.8	494
	전임강사	53.3	124	6,635	55.3	121
전문대학	교수	96.1	242	23,266	99.8	232
	부교수	78.4	297	23,277	81.4	261
	조교수	63.7	341	21,737	66.2	264
	전임강사	42.8	138	5,932	44.5	134
계		74.2	2,689	217,485	77.0	2,623
222,395						

* 교수 연봉 및 디자인과 교원 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⑥ 전임강사 수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아 2015년 대비 2016년 재적학생 수 증감비율로 추정한 값임

▶ 디자인학과 연구비

(단위: 백만 원)

구분		2015년 연구비	2016년 연구비
4년제 대학	중앙정부 지원	13,216	12,384
	지자체 지원	1,564	1,260
	민간 지원	7,668	5,761
	외국 지원	240	1,259
	교내 지원	4,013	3,907
	소계	26,702	23,476
전문대학	교수	2,172	2,646
계		28,874	26,122

※ 2016년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결과, 교과부, 한국연구재단

2) 디자인산업 규모 및 인력 추이

▶ 10~16년 디자인 산업 규모 추이

(단위: 백만 원)

구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일반업체	4,368,687	10,056,779	9,152,954	10,292,018	11,252,597	12,041,094
전문디자인업	1,959,626	2,499,239	2,745,643	2,990,423	3,059,925	3,357,819
공공부문	342,246	363,045	247,758	138,281 *(17,782)	271,727 *(36,709)	232,050 *(43,120)
소계	6,670,559	12,919,063	13,067,240	13,420,722 *(13,300,223)	14,584,249 *(14,349,231)	15,630,964 *(15,442,034)
프리랜서	233,282	593,268	691,968	715,641	820,990	1,034,235
고등 교육	186,168	222,970	228,917	233,758	246,359	248,517
총계	7,090,009	13,735,301	13,067,240	14,370,121 *(14,249,622)	15,651,598 *(15,416,580)	16,913,716 *(16,724,786)

- ❖ 일반업체의 경우 2010년까지는 디자인 산업 규모 추정 시 표준산업분류 대부분의 상의 제조업, 건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5개 업종으로 한정하고, 종사자수가 5인 이상, 본사 및 단독사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인 산업을 추정하였으나, 2012년부터 디자인 산업 특수분류로 구분된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추정함.
- ❖ 2013년 산업규모 추정치부터는 일반업체의 디자인 산업규모(디자인 투자 금액) 중 전문 디자인업체 용역비를 제외하고 추정함.
- ❖ 2014년 이후 공공부문(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괄호는 디자인 산업규모(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중 디자인관련 용역비를 제외한 금액임.

3) 디자인 수출/수입 규모

-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인 수입 금액 규모는 103억 원으로 추정됨.

$$\text{활용업체 수} \times \text{수입업체 비율} \times (\text{디자인 투자비 평균} \times \text{해외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

▶ 디자인 수입 금액 추정

구분	추정 활용업체 수	수입업체 비율 ^⑦	디자인 투자비 평균 (백만 원)	디자인 개발시 해외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	추정 수입 규모 (백만 원)
디자인 수입	117,934	0.11%	102.10	74.92%	10,264

- 전문디자인업체의 수출 금액 규모는 882억 원으로 추정됨.

$$\text{전문디자인업체 수} \times \text{수출업체 비율} \times (\text{매출액 평균} \times \text{매출 중 해외 고객 비중})$$

▶ 디자인 수출 금액 추정

구분	디자인전문 업체 수	수출업체 비율 ^⑧	매출액 평균 (백만 원)	매출 중 해외고객 비중	추정 수출 규모 (백만 원)
디자인 수출	5,425	6.36%	618.95	41.33%	88,205

▶ 10-16년 디자인 수입/수출 추이

구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입액	210억 원	260억 원	262억 원	192억 원	70억 원	103억 원
수출액	393억 원	568억 원	440억 원	456억 원	741억 원	882억 원

⑦ 수입업체 비율: 디자인활용업체 설문 중 외주디자인 개발-해외 업체 의뢰 비중이 1% 이상인 업체

⑧ 수출업체 비율: 디자인전문회사 설문 중 매출구성-해외 고객 비중이 1% 이상인 업체

2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03.8조로 추정됨
- 디자인인프라의 경제적 가치가 34.9조로 가장 높고, 다음은 서비스/경험디자인(29.2조), 제품디자인(14.8조), 공간디자인(13.6조)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산출 현황

디자인 특수 분류	매출액 (단위: 백만원)	디자인기여도 (단위: %)	부가가치율 (단위: %)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단위: 백만원)
제품디자인	210,959,647	26.1%	26.9%	14,783,446
시각디자인	63,278,663	32.4%	27.4%	5,614,624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21,331,289	26.2%	42.2%	2,361,357
공간디자인	110,297,513	29.2%	42.4%	13,638,161
패션/텍스타일디자인	19,905,489	35.0%	26.7%	1,861,923
서비스/경험디자인	225,274,146	22.3%	58.1%	29,153,092
산업공예디자인	20,292,123	23.7%	32.2%	1,547,611
디자인인프라	264,409,609	23.3%	56.6%	34,883,362
전체	935,748,479	-	-	103,843,576

* 매출액: 디자인특수분류 해당 업종 매출액 × 디자인활용비율 × 2014년 대비 2016년 매출액 증가율⑨

* 디자인기여도: 디자인실태조사 결과

* 부가가치율: 한국은행 자료로 추정

- 디자인인프라, 시각디자인, 공간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의 경제적 가치가 2015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5-2016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단위: 백만원)

디자인 특수 분류	2015년	2016년	15년 대비 증감률
제품디자인	14,793,627	14,783,446	▼0.1%
시각디자인	4,190,538	5,614,624	▲34.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991,666	2,361,357	▲18.6%
공간디자인	10,750,362	13,638,161	▲26.9%
패션/텍스타일디자인	1,780,060	1,861,923	▲4.6%
서비스/경험디자인	39,117,063	29,153,092	▼25.5%
산업공예디자인	1,465,438	1,547,611	▲5.6%
디자인인프라	20,091,957	34,883,362	▲73.6%
전체	94,180,711	103,843,576	▲10.3%

⑨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지표의 전산업 매출액 증가율 자료와 2015년 경제총조사의 디자인특수분류 해당 업체 매출액 총합에 디자인활용비율을 적용한 결과를 활용함. 2015년 경제총조사의 기준연도가 2014년이므로 디자인특수분류 매출액 총합에 2015년, 2016년 매출액 증가율을 적용하여 2016년 디자인특수분류 해당 업종 매출액 총합을 산출함.

3 디자인 활용률

- (전체산업 기준) 5인 이상 업종 736,254개 중 디자인활용업체 수는 117,934개로 일반업체의 디자인 활용비율은 16.0%로 나타남.
- (디자인 특수분류 기준) 디자인 특수분류에 해당되는 일반업체 350,715개의 디자인 활용비율은 33.6%로 나타남.

▶ 디자인활용업체 비율 추이

구분	2015년		2016년	
	전체산업 기준	디자인특수분류 기준	전체산업 기준	디자인특수분류 기준
디자인활용업체 비율	13.7%	29.0%	16.0%	33.6%

▶ 전체산업 기준 디자인 활용 비율

(단위: 개)

표준 산업 분류	구분	사업체 수		디자인 활용비율
		5인 이상 사업체	디자인 활용업체	
농업, 임업 및 어업		1,991	155	7.8%
광업		633	-	0.0%
제조업		150,579	31,361	20.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173	-	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211	-	0.0%
건설업		53,346	11,337	21.3%
도매 및 소매업		120,525	17,657	14.6%
운수업		21,861	1,694	7.8%
숙박 및 음식점업		93,012	-	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8,010	8,952	49.7%
금융 및 보험업		30,603	4,324	14.1%
부동산업 및 임대업		25,013	6,070	24.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전문디자인업체외)		34,291	8,907	26.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0,175	4,161	20.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중앙부처 및 지자체 제외)		5,733	106	1.8%
교육서비스업(대학제외)		39,138	9,602	24.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2,940	6,472	8.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1,427	1,787	15.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1,593	5,350	16.9%
규모별	소기업	602,395	96,453	16.0%
	중기업	128,205	19,723	15.4%
	대기업	5,654	1,758	31.1%
	계	736,254	117,934	16.0%

▶ 디자인 특수분류 기준 디자인 활용 비율

(단위: 개)

	구분	사업체 수			디자인 활용 비율 (%)
		디자인 특수분류 모집단	디자인 활용업체 (추정)	디자인 비활용업체 (추정)	
업종별	제품디자인	52,457	13,535	38,922	25.8%
	시각디자인	19,222	8,496	10,726	44.2%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7,945	4,849	3,096	61.0%
	공간디자인	73,197	18,778	54,419	25.7%
	패션/텍스타일디자인	13,004	5,019	7,985	38.6%
	서비스/경험디자인	67,423	24,907	42,516	36.9%
	산업공예디자인	18,431	4,758	13,673	25.8%
	디자인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99,036	37,592	61,444	38.0%
규모별	소기업	286,650	94,509	192,140	33.0%
	중기업	51,835	18,837	32,998	36.3%
	중견기업	9,258	3,388	5,870	36.6%
	대기업	2,972	1,199	1,773	40.3%
계		350,715	117,934	232,781	33.6%

4 디자인학과 졸업 및 취업 현황

- 대학 또는 대학원 디자인학과 총 졸업자는 24,203명(2016년 대비 1,772명 감소)으로 나타났고, 취업자는 14,688명(2016년 대비 119명 증가)으로 나타남. 취업률은 66.3%(2016년 대비 1.2%p증가)임.

▶ 대학(원) 디자인학과 졸업 및 취업 현황

(단위: 명)

구분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2017년	24,203	14,688	66.3%
2016년	25,975	14,569	65.1%
GAP	▼1,772	▲119	▲1.2%p

- 계열별/학교구분별 디자인학과 졸업 및 취업 현황

▶ 분류별 대학(원) 디자인학과 졸업 및 취업 현황

(단위: 명)

학교 구분	계열	졸업생				취업자				취업률(%)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총계	소계	22,781	1,261	161	24,203	14,378	242	68	14,688	66.3	68.0	71.6	66.3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9,889	-	-	9,889	6,625	-	-	6,625	66.3	-	-	66.3
	대학교	11,081	-	-	11,081	6,810	-	-	6,810	65.2	-	-	65.2
	산업대학	279	-	-	279	233	-	-	233	58.8	-	-	58.8
	각종대학(대학)	28	-	-	28	13	-	-	13	72.2	-	-	72.2
	일반대학원	-	1,261	161	1,422	-	242	68	310	0.0	68.0	71.6	68.7
	사이버대학(대학)	562	-	-	562	-	-	-	-	-	-	-	-
	전공대학	165	-	-	165	-	-	-	-	-	-	-	-
	기능대학	777	-	-	777	697	-	-	697	83.2	-	-	83.2
디자인 특수 분류별	디자인 일반	1,890	335	49	2,274	847	75	24	946	61.6	59.1	77.4	61.7
	제품디자인	3,554	127	13	3,694	2,183	31	10	2,224	65.1	81.6	76.9	65.4
	시각디자인	4,029	154	1	4,184	2,669	14	1	2,684	65.8	87.5	100.0	65.9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3,182	89	13	3,284	1,899	9	3	1,911	65.5	75.0	100.0	65.6
	공간디자인	3,451	110	6	3,567	2,208	23	4	2,235	68.3	88.5	57.1	68.4
	패션/텍스타일디자인	4,782	141	7	4,930	3,248	18	6	3,272	66.5	72.0	66.7	66.5
	서비스/경험디자인	251	91	8	350	80	20	2	102	64.0	74.1	100.0	66.2
	산업공예디자인	1,027	58	57	1,142	716	8	18	742	64.7	50.0	62.1	64.5
	디자인인프라	615	156	7	778	528	44	-	572	79.8	63.8	0.0	78.2

※ 한국교육개발원 자료 인용

※ 조사기준일 : 2017년 4월 1일

2017 KOREA DESIGN STATISTICAL DATA

Part 2



국제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이용자를 위하여

- ❖ 본 보고서는 해외의 디자인 관련 통계자료들을 수집해 주요 디자인 지표별로 각국의 규모 및 동향을 제시함.
-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데이터들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EU, OECD 등 국제기구, 그 외 통계사이트 및 디자인관련 기관에서 발표된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수집됨.
- ❖ 공인기관 및 단체에서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록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음.
- ❖ 환율은 1USD=1,203원(2017.01.04)을 기준으로 표기함.
- ❖ 기준 단위변환 자료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작성되었음(발췌 자료는 소수점 표기 기준이 다름).
- ❖ 국가별, 조사기준별 분류체계가 달라 해당 범주에 대해 각주를 통해 설명하였음.
- ❖ 주요 용어정의는 통계표 하단에 정리하였고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 ‘-’로 표기함.
- ❖ 본 보고서는 디자인 산업의 여러 지표들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을 비교하여 지표별 규모 및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국가별로 디자인 분류기준, 조사 기준이 상이해 단순 비교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요국들의 디자인 관련 통계의 규모 파악에 의의가 있음.

2017 KOREA DESIGN STATISTICAL DATA



요약본

1 디자인 산업규모

1. 디자인전문서비스 시장규모

(순위기준: 2015년 / 단위: \$ 백만)

NO.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	미국	25,760	27,500	29,450	32,330	34,770	-
2	영국	6,581.61	6,433.22	7,516.59	8,366.21	-	-
3	이탈리아	3,978	4,001.92	4,364.88	4,586.40	-	-
4	호주	3,637.7 ('12-'13)	3,653.9 ('13-'14)	3,829.0 ('14-'15)	3,933.5 ('15-'16)	-	-
5	독일	3,039.09	3,319.89	3,484.31	3740.67	-	-
6	한국	2,077.51	2,282.33	2,485.80	2,543.58	2,791.20	-
7	프랑스	2,354.56	2,178.80	1,912.77	2,008.24	-	-
8	스웨덴	1,405.61	1,466.04	1,582.95	1,782.27	-	-
9	인도	989	1,026	1,186	1,232	-	-
10	스페인	811.20	845.52	933.92	1,056.64	-	-

2. 디자인 고용인 1인당 매출액

(순위기준: 2014년 / 단위: \$)

NO.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	호주	166,080	175,100	173,240	-	-	-
2	스웨덴	156,208	160,368	156,728	167,024	-	-
3	룩셈부르크	120,744	128,232	156,312	142,480	-	-
4	덴마크	142,584	147,784	153,192	160,680	-	-
5	노르웨이	144,872	145,288	140,400	129,480	-	-
6	영국	154,544	139,984	138,840	180,440	-	-
7	한국	100,111.09	99,469.60	116,458.41	-	-	-
8	아일랜드	102,336	94,224	110,656	119,704	-	-
9	스페인	81,016	86,216	103,480	106,704	-	-
10	이탈리아	88,920	89,336	93,808	94,848	-	-

3. 디자인 전문기업 수

(순위기준: 2015년 / 단위: 개)

NO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	미국	29,700	29,880	30,451	30,929	31,358	-
2	이탈리아	28,408	27,450	29,065	29,201	-	-
3	독일	20,464	21,530	23,083	26,170	-	-
4	프랑스	27,846	29,508	34,228	25,994	-	-
5	영국	18,669	19,919	20,606	21,772	-	-
6	네덜란드	10,827	13,893	15,971	19,130	-	-
7	호주	13,884 (‘12-‘13)	13,987 (‘13-‘14)	13,920 (‘14-‘15)	14,098 (‘15-‘16)	-	-
8	스웨덴	13,118	12,846	13,054	13,153	-	-
9	폴란드	6,184	6,899	7,768	8,635	-	-
10	스페인	5,815	5,425	5,113	5,509	-	-
11	한국	3,982	4,573	4,535	4,976	5,425	-

2 디자인 인력

1. 디자인 인력 수

(순위기준: 2015년 / 단위: 명)

NO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	미국	101,088	105,996	109,349	114,972	117,503	-
2	영국	41,602	42,850	53,208	51,509	-	-
3	독일	37,151	40,226	43,505	48,842	-	-
4	이탈리아	44,723	44,790	46,526	47,216	-	-
5	프랑스	29,740	31,392	34,459	27,065	-	-
6	한국	20,752	22,945	21,345	22,728	29,536	-
7	호주	22,081 ('12-'13)	22,001 ('13-'14)	21,868 ('14-'15)	22,705 ('15-'16)	-	-
8	네덜란드	14,167	11,250	12,021	15,899	-	-
9	폴란드	9,450	10,145	11,756	13,990	-	-
10	스페인	10,016	9,809	9,026	10,128	-	-

2. 디자인 인력 성장률

(단위: %)

순위	2012		2013		2014		2015	
	국가	성장률	국가	성장률	국가	성장률	국가	성장률
1	라트비아	50.4	라트비아	22.2	리투아니아	56.3	네덜란드	32.3
2	에스토니아	29.8	슬로베니아	11.1	슬로바키아	53.2	라트비아	26.3
3	네덜란드	23.3	리투아니아	9.7	라트비아	37.1	에스토니아	25.1
4	프랑스	23.0	루마니아	8.7	크로아티아	30.6	헝가리	22.1
5	리투아니아	22.1	독일	8.3	영국	24.2	키프로스	20.2
6	룩셈부르크	20.2	불가리아	8.1	헝가리	17.2	루마니아	19.9
7	영국	19.4	에스토니아	7.8	키프로스	17.1	폴란드	19.0
8	헝가리	11.8	폴란드	7.4	폴란드	15.9	슬로베니아	13.7
9	독일	11.4	룩셈부르크	6.8	포르투갈	13.8	포르투갈	13.0
10	슬로베니아	9.4	프랑스	5.6	불가리아	9.2	독일	12.3

3 디자인 활용률

1. 디자인 성숙도

(단위: %)

국가	기준연도	디자인 성숙도 비율 (디자인 활용 사다리 기준, 덴마크 디자인센터)					
		단계 1 : 디자인 미활용	활용수준				
			단계 2 : 스타일링	단계 3 : 과정	단계 4 : 전략	소계	
오스트리아	2012	27	31	33	9	73	
에스토니아	2013	55	18	20	7	45	
한국	2016	84				16.0	

2. 디자인 활용수준

(단위: %)

국가	디자인은 기업전략이 핵심요소	디자인은 기업의 개발 작업의 핵심요소는 아니지만 필수적	디자인은 최종 마무리로 사용되어 최종제품의 외관 및 매력을 향상시킴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디자인이 사용되지 않음
UK	22	20	13	10	33
룩셈부르크	18	26	15	12	28
네덜란드	18	14	11	15	40
스위스	18	16	17	15	32
독일	17	17	14	17	33
몰타	17	39	13	4	27
오스트리아	17	18	22	16	26
덴마크	15	16	13	19	32
아일랜드	14	17	15	15	36
루마니아	14	15	13	16	40

2017 KOREA DESIGN STATISTICAL DATA



국제 디자인산업 통계

1 디자인 산업규모⁽¹⁾

1. 디자인 시장규모

(단위: \$ 백만)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2,077.51	2,282.33	2,485.80	2,543.58	2,791.20	-
미국	25,760	27,500	29,450	32,330	34,770	-
일본	3,338.47	2,964.36	2,754.05	-	-	-
인도	989	1,026	1,186	1,232	-	-
호주	3,637.7 ('12-'13)	3,653.9 ('13-'14)	3,829.0 ('14-'15)	3,933.5 ('15-'16)	-	-
EU(28개국)	20,727.61	21,298.36	23,128.97	25,414.75	-	-
벨기에	336.96*	439.92*	375.44*	477.36*	-	-
불가리아	23.24*	26.82*	38.74*	38.74*	-	-
체코	-	-	83.51	118.85*	-	-
덴마크	768.55*	832.04*	885.99*	947.91*	-	-
독일	3,039.09	3,319.89	3,484.31	3,779.36*	-	-
에스토니아	22.88*	26.00*	38.48*	41.60*	-	-
아일랜드	178.88*	338.94	415.58	496.08	-	-
그리스	57.20*	54.08*	53.66	24.65	-	-
스페인	811.20*	845.52*	933.92*	1,056.64*	-	-
프랑스	2,354.56*	2,178.80*	1,912.77	2,008.24*	-	-
크로아티아	38.86*	43.35*	51.25*	51.69	-	-
이탈리아	3,978*	4,001.92*	4,364.88*	4,586.40*	-	-
키프로스	10.40*	8.32*	8.32*	8.32*	-	-
라트비아	22.15	32.66	27.04	27.04*	-	-
리투아니아	10.71	15.70	20.80	23.92*	-	-
룩셈부르크	30.16*	34.32*	45.76*	49.92*	-	-
헝가리	37.72*	53.84*	63.73*	65.86*	-	-
몰타	-	-	-	9.36*	-	-
네덜란드	-	-	-	-	-	-
오스트리아	168.48*	169.52*	192.40*	191.36*	-	-
폴란드	362.13*	499.16*	467.71*	630.45*	-	-
포르투갈	154.96*	168.38	205.92*	223.60*	-	-
루마니아	54.50	62.30	75.30	97.96*	-	-
슬로베니아	37.44*	37.44*	42.64*	53.04*	-	-
슬로바키아	56.16*	26*	37.44*	33.28*	-	-
핀란드	186.16*	184.18	203.84*	224.64*	-	-
스웨덴	1,405.61*	1,466.04*	1,582.95*	1,782.27*	-	-
영국	6,581.61*	6,433.22*	7,516.59*	8,366.21*	-	-
아이슬란드	-	-	-	22.39*	-	-
노르웨이	538.51	560.25	579.59	665.99*	-	-
스위스	-	-	-	1,308.65*	-	-
마케도니아	0.62	0.93*	2.33*	2.69*	-	-
터키	62.75*	70.85*	71.11*	-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0.42	-	-	1.98	-	-
총계	57,132.59	59,356.98	63,486.85	67,455.53	-	-

*출처: 1) 한국: 2013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2016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2017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유럽 디자인전문서비스 통계자료(KIDP, 2016)

2) 미국: Anything Research: 2017 Premium Report on Specialized Design Services(Anything Research, 2017)

3) 일본: 일본 디자인산업 통계자료 (2016.03)

4) 인도: Statista(www.statista.com, 2016)

5) 호주: IBISWorld Industry Report M6924: Specialized Design Services in Australia (2016.04)

6) 유럽: Structural and Demographic Business Statistics(OECD, 2017.10.13),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Eurostat, 2017.10.12.) ※ 출처가 OECD인 경우 *표시

(1) 본 장의 '디자인 산업'의 범위는 'Specialized Design Service(전문디자인서비스)'에 해당하며(북미산업분류시스템 코드. NAICS Code 5414), 전문적인 디자인 서비스(건축, 엔지니어링 및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제외)를 제공하는 산업 그룹을 의미함.

2. 디자인 시장규모 순위

(단위: \$ 백만)

순위	2012		2013		2014		2015	
	국가	매출액	국가	매출액	국가	매출액	국가	매출액
1	미국	25,760	미국	27,500	미국	29,450	미국	32,330
2	영국	6,581.61*	영국	6,433.22*	영국	7,516.59*	영국	8,366.21*
3	이탈리아	3,978*	이탈리아	4,001.92*	이탈리아	4,364.88*	이탈리아	4,586.40*
4	일본	3,338.47	독일	3,319.89	독일	3,484.31	독일	3,779.36*
5	독일	3,039.09	일본	2,964.36	일본	2,754.05	한국	2,543.58
6	프랑스	2,354.56*	한국	2,282.33	한국	2,485.80	프랑스	2,008.24*
7	한국	2,077.51	프랑스	2,178.80*	프랑스	1,912.77	스웨덴	1,782.27*
8	스웨덴	1,405.61*	스웨덴	1,466.04*	스웨덴	1,582.95*	인도	1,232
9	인도	989	인도	1,026	인도	1,186	스페인	1,056.64*
10	스페인	811.20*	스페인	845.52*	스페인	933.92*	덴마크	94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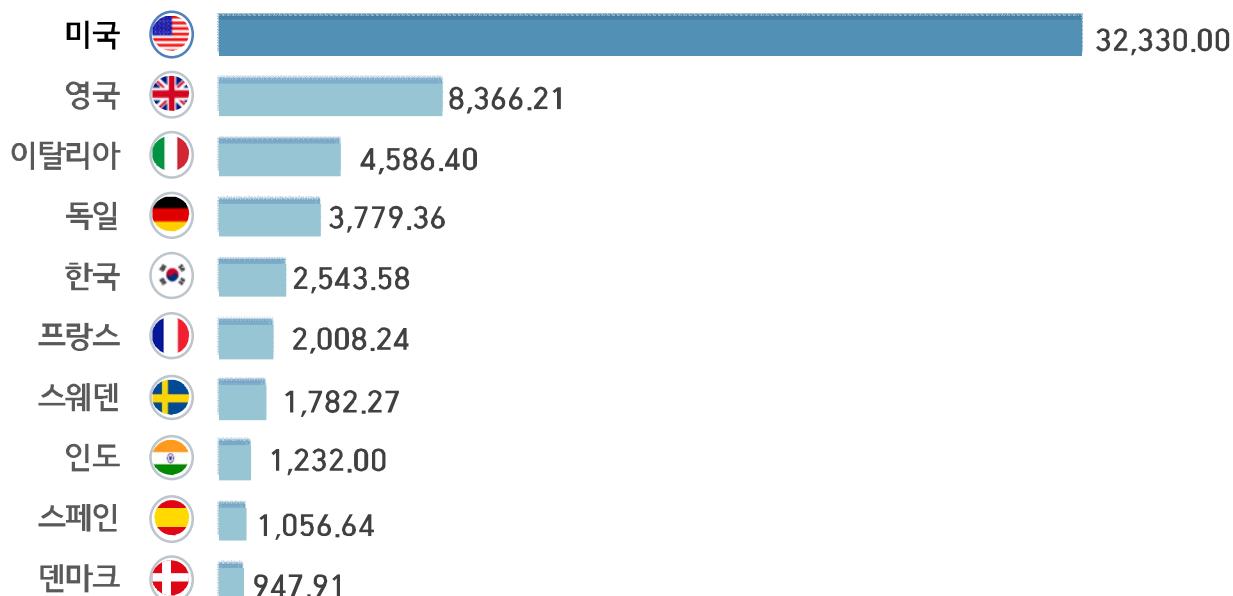
*출처: 1) 한국: 2013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2016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2017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유럽 디자인전문서비스 통계자료(KIDP, 2016)

2) 미국: Anything Research: 2017 Premium Report on Specialized Design Services(Anything Research, 2017)

3) 일본: 일본 디자인산업 통계자료 (2016.03)

4) 인도: Statista(www.statista.com, 2016)

5) 유럽: Structural and Demographic Business Statistics(OECD, 2017.10.13),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Eurostat, 2017.10.12.) ※ 출처가 OECD인 경우 *표시



디자인 시장규모 순위(2015 기준)

3. 디자인 고용인 1인당 매출액

(단위: \$)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100,111.09	99,469.60	116,458.41	?	?	-
호주	166,080 ('12-'13)	175,100 ('13-'14)	173,240 ('14-'15)	-	-	-
EU(28개국)						
벨기에	69,056	88,088	80,496	89,960	-	-
불가리아	19,448	21,008	27,664	26,832	-	-
체코	-	-	36,920	41,392	-	-
덴마크	142,584	147,784	153,192	160,680	-	-
독일	81,848	82,576	80,080	76,544	-	-
에스토니아	35,048	37,336	52,624	45,968	-	-
아일랜드	102,336	94,224	110,656	119,704	-	-
그리스	24,024	22,464	22,464	23,192	-	-
스페인	81,016	86,216	103,480	106,704	-	-
프랑스	79,144	69,368	55,536	93,600	-	-
크로아티아	27,560	29,744	26,728	32,240	-	-
이탈리아	88,920	89,336	93,808	94,848	-	-
키프로스	33,072	32,448	27,976	30,160	-	-
라트비아	38,688	46,696	28,184	22,048	-	-
리투아니아	19,656	26,104	22,152	23,504	-	-
룩셈부르크	120,744	128,232	156,312	142,480	-	-
헝가리	19,032	26,208	25,480	21,632	-	-
몰타	-	-	-	-	-	-
네덜란드	-	-	-	-	-	-
오스트리아	70,200	68,952	76,752	-	-	-
폴란드	34,840	44,616	36,192	34,840	-	-
포르투갈	31,304	32,032	34,424	33,904	-	-
루마니아	24,752	26,104	29,952	30,056	-	-
슬로베니아	35,048	31,928	33,384	36,400	-	-
슬로바키아	95,784	44,200	80,288	97,344	-	-
핀란드	71,240	66,456	72,592	79,248	-	-
스웨덴	156,208	160,368	156,728	167,024	-	-
영국	154,544	139,984	138,840	180,440	-	-
아이슬란드	-	-	-	-	-	-
노르웨이	144,872	145,288	140,400	129,480	-	-
스위스	-	-	-	-	-	-
마케도니아	-	-	-	-	-	-
터키	-	-	-	-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5,808	-	-	19,448	-	-

*출처: 1) 한국: 2013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2014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2015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2) 호주: IBISWorld Industry Report M6924: Specialized Design Services in Australia (2016.04)

3) 유럽: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Eurostat, 2017.10.12)

4. 디자인 전문기업 수

(단위: 개)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3,982	4,573	4,535	4,976	5,425	-
미국	29,700	29,880	30,451	30,929	31,358	-
일본	9,080	-	9,010	-	-	-
호주	16,787	17,490	17,817	18,153	-	-
칠레	-	39	-	-	-	-
이스라엘	6,331	6,668	7,033	7,295	-	-
EU(28개국)	153,567	161,962	176,999	179,597	-	-
벨기에	3,655*	3,900*	3,462*	3,626	-	-
불가리아	554*	586*	667*	730	-	-
체코	-	-	2,353	2,399	-	-
덴마크	3,056*	3,135*	3,310*	3,331	-	-
독일	20,464	21,530	23,083	26,170	-	-
에스토니아	437*	511*	573*	642	-	-
아일랜드	1,381*	2,615	2,611	2,714	-	-
그리스	1,203*	1,165*	1,166*	765	-	-
스페인	5,815*	5,425*	5,113*	5,509	-	-
프랑스	27,846*	29,508*	34,228	25,994	-	-
크로아티아	805*	822*	859*	885	-	-
이탈리아	28,408*	27,450*	29,065*	29,201	-	-
키프로스	220*	214*	223*	251	-	-
라트비아	309	378	441	532	-	-
리투아니아	206	267	610	769	-	-
룩셈부르크	181*	195*	213*	226	-	-
헝가리	1,234*	1,160*	1,466*	2,030	-	-
몰타	-	-	-	-	-	-
네덜란드	10,827	13,893	15,971	19,130	-	-
오스트리아	1,507*	1,540*	1,542*	1,558	-	-
폴란드	6,184*	6,899*	7,768*	8,635	-	-
포르투갈	3,335*	3,631	4,030*	4,555	-	-
루마니아	901	945	1,080	1,308	-	-
슬로베니아	869*	1,001*	1,100*	1,249	-	-
슬로바키아	370*	393*	399*	405	-	-
핀란드	2,013*	2,034	2,006*	2,058	-	-
스웨덴	13,118*	12,846*	13,054*	13,153	-	-
영국	18,669*	19,919*	20,606*	21,772	-	-
아이슬란드	-	-	-	-	-	-
노르웨이	3,849	3,969	4,181	4,706	-	-
스위스	-	-	-	-	-	-
마케도니아	41*	46*	54*	68	-	-
터키	1,572*	1,738*	1,813*	-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8	-	-	68	-	-
총계	224,917	226,365	251,893	245,79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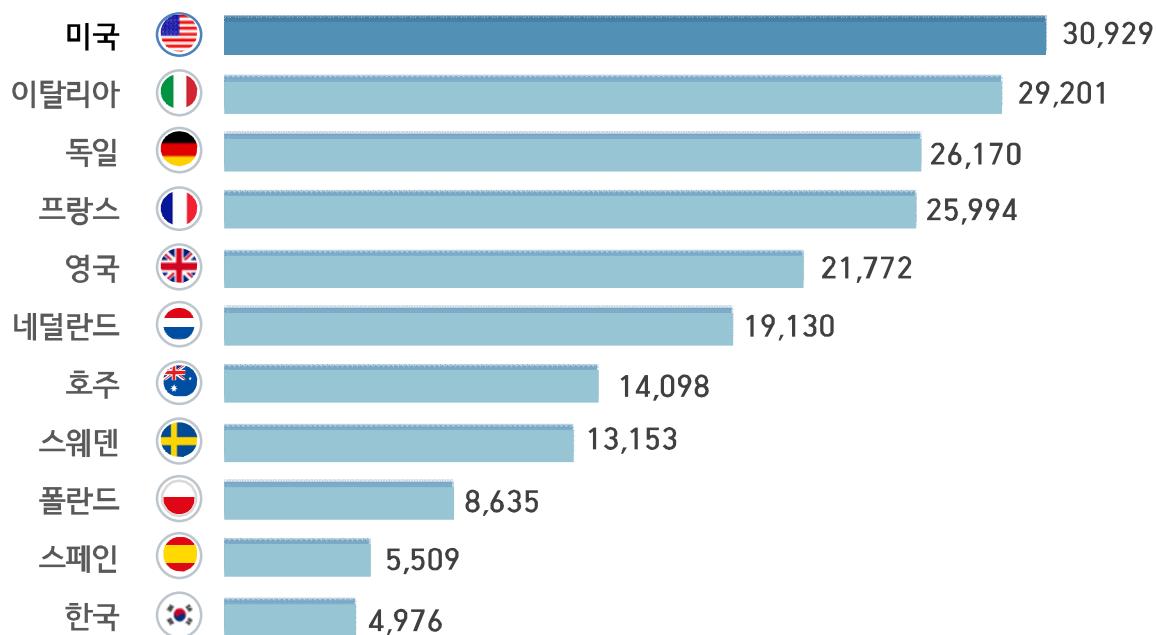
*출처: 1) 유럽: Structural and Demographic Business Statistics(OECD, 2017.10.13),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Eurostat, 2017.10.12) ※출처가 OECD인 경우 *표시

2) 호주, 칠레, 이스라엘: Structural and Demographic Business Statistics(OECD, 2017.10.13.)

3) 미국: Anything Research: 2017 Premium Report on Specialized Design Services(Anything Research, 2017)

4) 한국: 2011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2013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2016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2017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5) 일본: 일본 디자인산업 통계자료(일본 경제산업성, 2016.03)



주요국 디자인전문기업 수 비교(2015 기준)

5. 디자인 고용 임금 및 급여

(단위: \$ 백만)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355.92	354	-	-	-	-
미국	5,059	5,200	5,559	-	-	-
브라질	28.12	27.50	40.17	-	-	-
콜롬비아			0.59	-	-	-
이스라엘	115.67	122.74	126.98	139.43	-	-
EU(28개국)	3,315.08	3413.39	3,489.05			
벨기에	34.32	39.52	33.28	-	-	-
불가리아	5.36	5.96	5.96	-	-	-
체코	7.16	6.93	7.88	-	-	-
덴마크	150.11	166.53	172.32	-	-	-
독일	422.24	514.8	570.96	-	-	-
에스토니아	4.16	4.16	4.16	-	-	-
아일랜드	53.04	-	-	-	-	-
그리스	3.12	8.32	6.24	-	-	-
스페인	146.64	136.24	133.12	-	-	-
프랑스	443.04	400.4	-	-	-	-
크로아티아	6.35	6.97	8.67	-	-	-
이탈리아	465.92	525.2	538.72	-	-	-
키프로스	5.2	3.12	3.12	-	-	-
라트비아	2.08	4.16	5.2	-	-	-
리투아니아	3.12	3.12	4.16	-	-	-
룩셈부르크	7.28	7.28	8.32	-	-	-
헝가리	5.64	6.67	7.40	-	-	-
몰타	-	-	-			
네덜란드	-	-	-			
오스트리아	19.76	21.84	24.96	-	-	-
폴란드	34.19	33.37	49.78	-	-	-
포르투갈	31.2	-	38.48	-	-	-
루마니아	7.59	3.04	5.06	-	-	-
슬로베니아	5.2	-	5.2	-	-	-
슬로바키아	3.12	3.12	11.44	-	-	-
핀란드	36.4	-	40.56	-	-	-
스웨덴	282.20	299.27	329.37	-	-	-
영국	1,130.64	1,213.37	1,474.69	-	-	-
노르웨이	122.01	139.84	151.08	-	-	-
스위스	321.40	406.51	433.55	-	-	-
마케도니아	-	-	-	-	-	-
터키	7.58	10.98	8.63	-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	-	-	-	-

*출처: Structural and Demographic Business Statistics(OECD, 2017.10.13)

6. 디자인 고용인 1인당 총 부가가치

(단위: \$ 백만)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U(28개국)	-	-	-	-	-	-
벨기에	89.13	116.90	101.71	159.64	-	-
불가리아	15.29	15.6	18.41	18.30	-	-
체코	-	-	39.83	47.74	-	-
덴마크	68.64	76.54	79.25	79.66	-	-
독일	113.78	118.14	103.17	99.11	-	-
에스토니아	15.29	9.67	14.98	20.90	-	-
아일랜드	79.66	85.49	116.06	117.52	-	-
그리스	37.96	20.28	37.34	-	-	-
스페인	109.2	129.58	148.62	137.70	-	-
프랑스	108.99	110.66	108.16*	111.18*	-	-
크로아티아	14.04	14.77	12.79	15.91	-	-
이탈리아	112.32	109.82	119.81	119.91	-	-
키프로스	30.06	36.82	21.74	23.4	-	-
라트비아	10.19	10.30	10.50	9.98	-	-
리투아니아	8.22	12.38	11.75	14.56	-	-
룩셈부르크	66.66	83.2	105.56	54.91	-	-
헝가리	10.71	13.10	13.52	15.18	-	-
몰타	-	-	-	-	-	-
네덜란드	-	-	-	-	-	-
오스트리아	91.21	93.81	85.07	-	-	-
폴란드	31.10	47.32	34.32	35.05	-	-
포르투갈	23.92	24.86	26.94	28.18	-	-
루마니아	7.49	12.79	8.74	7.49	-	-
슬로베니아	28.6	37.65	45.97	55.64	-	-
슬로바키아	49.4	23.92	22.05	26	-	-
핀란드	74.36	-	65.73	65	-	-
스웨덴	87.98	87.88	92.66	97.97	-	-
영국	80.18	82.47	78.10	113.67	-	-
아이슬란드	-	-	-	-	-	-
노르웨이	110.97	107.74	99.53	91.83	-	-
스위스	-	-	-	-	-	-
마케도니아	3.74	3.85	5.72	7.07	-	-
터키	-	-	-	-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9.78*	-	-	17.16	-	-

*Note: *는 잠정(provisional)치

*출처: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Eurostat, 2017.10.12)

2 디자인^⑫ 인력

1. 디자인 인력 수

(단위: 명)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20,752	22,945	21,345	22,728	29,536	-
미국	101,088	105,996	109,349	114,972	117,503	-
일본	-	-	-	-	-	-
호주	22,081 ('12-'13)	22,001 ('13-'14)	21,868 ('14-'15)	22,705 ('15-'16)	-	-
EU(28개국)	-	-	-	-	-	-
벨기에	4,876	4,987	4,671	4,619	-	-
불가리아	1,061	1,147	1,252	1,282	-	-
체코	-	-	2,264	2,397	-	-
덴마크	4,815	5,021	5,160	5,297	-	-
독일	37,151	40,226	43,505	48,842	-	-
에스토니아	645	695	736	921	-	-
아일랜드	3,542	3,599	3,754	4,146	-	-
그리스	2,392	2,392	2,394	1,062	-	-
스페인	10,016	9,809	9,026	10,128	-	-
프랑스	29,740	31,392	34,459	27,065	-	-
크로아티아	1,254	1,289	1,684	1,604	-	-
이탈리아	44,723	44,790	46,526	47,216	-	-
키프로스	327	245	287	345	-	-
라트비아	573	700	960	1,212	-	-
리투아니아	547	600	938	1,134	-	-
룩셈부르크	250	267	290	309	-	-
헝가리	1,901	1,918	2,248	2,744	-	-
몰타	-	-	-	-	-	-
네덜란드	14,167	11,250	12,021	15,899	-	-
오스트리아	2,393	2,460	2,511	-	-	-
폴란드	9,450	10,145	11,756	13,990	-	-
포르투갈	5,015	5,252	5,975	6,751	-	-
루마니아	2,201	2,392	2,517	3,017	-	-
슬로베니아	1,064	1,182	1,286	1,462	-	-
슬로바키아	587	596	913	897	-	-
핀란드	2,619	2,769	2,812	2,818	-	-
스웨덴	9,000	9,200	9,666	10,042	-	-
영국	41,602	42,850	53,208	51,509	-	-
아이슬란드	-	-	-	-	-	-
노르웨이	3,717	3,857	4,128	4,632	-	-
스위스	-	-	-	-	-	-
마케도니아	-	-	-	-	-	-
터키	-	-	-	-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8	-	-	100	-	-
총계	379,577	391,972	419,509	431,845	-	-

*Note: 일본(디자이너 수)을 제외한 수치는 디자인전문서비스 종사자 수

*출처: 1) 미국: Anything Research: 2017 Premium Report on Specialized Design Services(Anything Research, 2017)

2) 호주: IBISWorld Industry Report M6924: Specialised Design Services in Australia(IBISWorld, 2016.04)

3) 일본: 일본 디자인산업 통계자료(2016.03)

4) 한국: 2013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2015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2016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2017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5) 유럽: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Eurostat, 2017.10.12.)

⑫ 본 장의 ‘디자인 산업’의 범위는 ‘Specialized Design Service(전문디자인서비스)’에 해당하며(북미산업분류시스템 코드. NAICS Code 5414), 전문적인 디자인 서비스(건축, 엔지니어링 및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제외)를 제공하는 산업 그룹을 의미함.

2. 디자인 인력 성장률

(단위: %)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	2.5	3.5	5.5	7.8	-
미국	1.9	4.9	3.2	5.1	2.2	
EU(28개국)					-	-
벨기에	2.1	2.3	-6.3	-1.1	-	-
불가리아	4.7	8.1	9.2	2.4	-	-
체코	6.2	-0.1	3.3	5.9	-	-
덴마크	4.1	4.3	2.8	2.7	-	-
독일	11.4	8.3	8.2	12.3	-	-
에스토니아	29.8	7.8	5.9	25.1	-	-
아일랜드	7.7	1.6	4.3	10.4	-	-
그리스	-3.7	0.0	0.1	-	-	-
스페인	-14.2	-2.1	-8.0	12.2	-	-
프랑스	23.0	5.6	-	-	-	-
크로아티아	3.8	2.8	30.6	-4.8	-	-
이탈리아	2.4	0.1	3.9	1.5	-	-
키프로스	-27.3	-25.1	17.1	20.2	-	-
라트비아	50.4	22.2	37.1	26.3	-	-
리투아니아	22.1	9.7	56.3	20.9	-	-
룩셈부르크	20.2	6.8	8.6	6.6	-	-
헝가리	11.8	0.9	17.2	22.1	-	-
몰타	-	-	-	-	-	-
네덜란드	23.3	-20.6	6.9	32.3	-	-
오스트리아	3.2	2.8	2.1	-	-	-
폴란드	7.9	7.4	15.9	19.0	-	-
포르투갈	0.7	4.7	13.8	13.0	-	-
루마니아	1.7	8.7	5.2	19.9	-	-
슬로베니아	9.4	11.1	8.8	13.7	-	-
슬로바키아	3.5	1.5	53.2	-1.8	-	-
핀란드	2.4	-	-	0.2	-	-
스웨덴	3.6	2.2	5.1	3.9	-	-
영국	19.4	3.0	24.2	-3.2	-	-
아이슬란드	-	-	-	-	-	-
노르웨이	1.1	3.8	7.0	12.2	-	-
스위스	-	-	-	-	-	-
마케도니아	-	-	-	-	-	-
터키	-	-	-	-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2.0*	-	-	-	-	-

*Note: *는 잠정(provisional)치

*출처: 1) 한국: 2017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2) 미국: Anything Research: 2017 Premium Report on Specialized Design Services(Anything Research, 2017)

3) 유럽: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Eurostat, 2017.10.12)

3 디자인 역량

1. 디자인 생산가치

(단위: \$ 백만)

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U(28개국)						
벨기에	323.75	424.32	346.22	390.94	-	-
불가리아	20.28	23.30	33.49	33.18	-	-
체코	-	-	79.46	94.64	-	-
덴마크	669.45	616.51	724.36	641.47	-	-
독일	2,623.30	2,952.46	2,938.62	3,149.74	-	-
에스토니아	22.36	26.00	39.21	42.64	-	-
아일랜드	197.18	213.62	287.56	335.71	-	-
그리스	57.41	54.08	51.27	21.94	-	-
스페인	751.09	773.97	829.19	1,043.85	-	-
프랑스	2,227.99	2,049.01	1,888.74	2,455.65	-	-
크로아티아	31.72	34.01	40.66	44.51	-	-
이탈리아	3,844.57	4,050.59	4,442.36	4,537.94	-	-
키프로스	10.82	7.90	8.01	10.40	-	-
라트비아	21.53	32.55	26.52	26.94	-	-
리투아니아	9.67	14.25	18.82	24.75	-	-
룩셈부르크	20.07	28.08	35.05	47.01	-	-
헝가리	26.10	31.20	35.05	40.87	-	-
몰타	-	-	-	-	-	-
네덜란드	-	-	-	-	-	-
오스트리아	136.03	139.15	139.26	-	-	-
폴란드	293.07	442.94	406.12	433.16	-	-
포르투갈	137.07	142.79	178.36	195.73	-	-
루마니아	50.65	81.95	57.30	83.62	-	-
슬로베니아	34.53	35.67	40.46	49.19	-	-
슬로바키아	47.32	19.24	55.95	79.66	-	-
핀란드	188.45	186.89	207.48	162.97	-	-
스웨덴	1,276.81	1,346.38	1,407.95	1,495.83	-	-
영국	5,864.77	5,789.58	7,150.73	8,120.84	-	-
아이슬란드	-	-	-	-	-	-
노르웨이	516.46	555.05	566.70	581.88	-	-
스위스	-	-	-	-	-	-
마케도니아	0.52	0.62	1.14	1.66	-	-
터키	-	-	-	-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0.42	-	-	1.87	-	-

*출처: 유럽 디자인전문서비스 통계자료(KIDP, 2016),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Eurostat, 2017.10.12)

*생산가치(Production Value): 생산 된 특정 상품의 생산량에 대한 물질적 또는 금전적 가치(Oxford dictionary)

4 디자인 인증

1. WIPO 산업디자인 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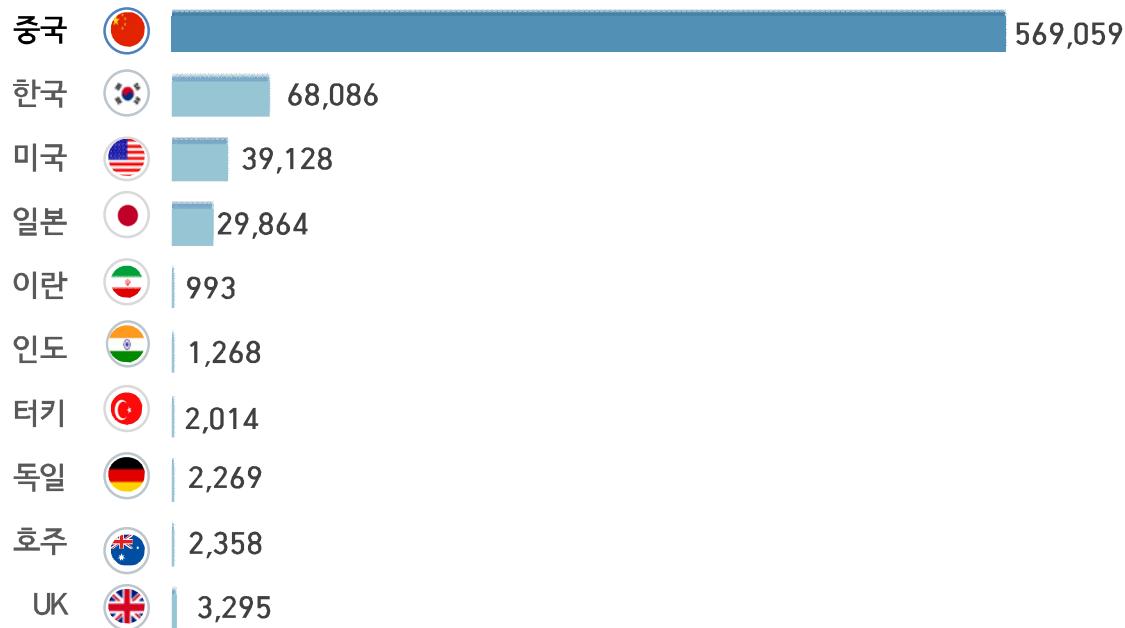
(단위: 건)

순위 (15 기준)	국가	국가 코드	연도별 등록건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	중국	CN	657,582	659,563	564,555	569,059	-	-
2	한국	KR	63,135	66,940	64,574	68,086	-	-
3	미국	US	32,799	36,034	35,378	39,128	-	-
4	일본	JP	32,391	31,125	29,738	29,864	-	-
5	이란	IR	3,759	4,825	8,864	11,856	-	-
6	인도	IN	8,545	8,497	9,309	10,290	-	-
7	터키	TR	9,526	10,083	10,251	10,133	-	-
8	독일	DE	6,414	6,543	7,392	7,301	-	-
9	호주	AU	6,549	6,912	6,597	7,024	-	-
10	UK	GB	4,916	5,209	5,084	6,472	-	-
11	브라질	BR	6,563	6,847	6,590	6,039	-	-
12	캐나다	CA	5,362	5,346	5,767	5,846	-	-
13	프랑스	FR	4,339	4,123	4,782	5,022	-	-
14	러시아	RU	4,640	4,994	5,184	4,929	-	-
15	태국	TH	3,481	3,802	4,077	4,461	-	-
16	멕시코	MX	4,137	4,011	4,080	3,999	-	-
17	인도네시아	ID	4,612	4,259	3,731	3,972	-	-
18	스위스	CH	2,856	2,948	2,725	2,794	-	-
19	홍콩	HK	2,552	2,336	2,453	2,769	-	-
20	우크라이나	UA	2,428	4,472	3,254	2,702	-	-
21	베트남	VN	1,812	2,095	2,311	2,445	-	-
22	싱가포르	SG	2,160	2,393	2,305	2,348	-	-
23	스페인	ES	1,677	1,890	1,842	1,987	-	-
24	이탈리아	IT	1,441	1,733	1,434	1,977	-	-
25	남아프리카공화국	ZA	2,361	2,237	1,973	1,960	-	-
26	이집트	EG	1,865	1,982	2,147	1,958	-	-
27	말레이시아	MY	2,082	2,053	1,882	1,762	-	-
28	아르헨티나	AR	1,574	1,465	1,384	1,581	-	-
29	이스라엘	IL	1,549	1,349	1,380	1,538	-	-
30	방글라데시	BD	1,198	1,232	1,379	1,376	-	-
31	모로코	MA	1,209	1,142	1,168	1,341	-	-
32	뉴질랜드	NZ	1,402	1,186	1,285	1,329	-	-
33	노르웨이	NO	1,192	1,283	1,216	1,246	-	-
34	필리핀	PH	1,225	1,376	1,348	1,103	-	-
35	폴란드	PL	1,377	1,358	1,188	1,071	-	-
36	사우디아라비아	SA	-	692	677	824	-	-
37	아랍에미리트	AE	459	540	804	813	-	-
38	콜롬비아	CO	490	766	577	718	-	-
39	베네룩스	BX	92	75	72	650	-	-
40	오스트리아	AT	1,051	841	881	576	-	-
41	튀니지	TN	315	544	485	549	-	-
42	스웨덴	SE	572	502	437	536	-	-
43	파키스탄	PK	494	457	558	489	-	-
44	스리랑카	LK	394	359	-	457	-	-
45	모나코	MC	384	444	391	439	-	-
46	마케도니아	MK	421	440	324	406	-	-
47	칠레	CL	538	762	465	402	-	-
48	포르투갈	PT	430	400	451	395	-	-
49	몰도바	MD	324	399	300	385	-	-
50	조지아	GE	278	327	286	371	-	-

*Note: 2015년 이후 업데이트 이루어지지 않음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http://ipstats.wipo.int/ipstatv2/index.htm?tab=industrial>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 November 2016)

(단위: 건)



WIPO 산업디자인출원 Top 10(2015 기준)

2. WIPO 상표출원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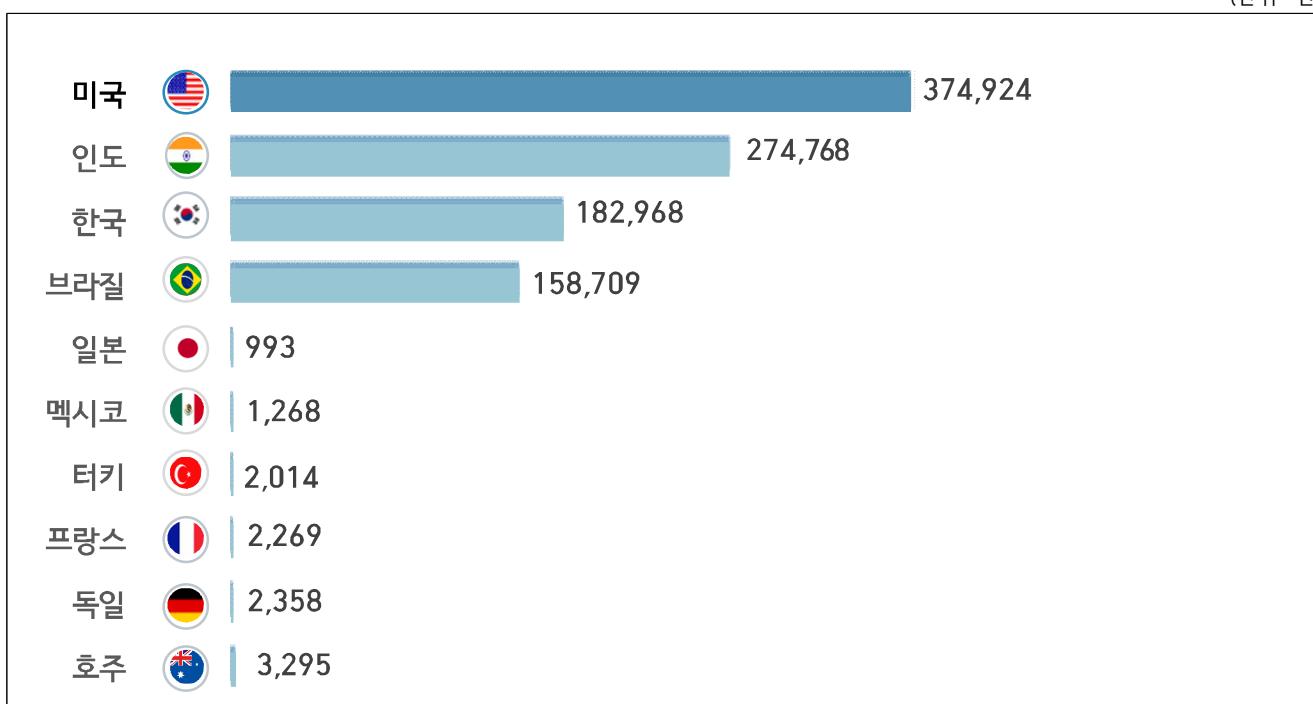
순위 (`15 기준)	국가	국가 코드	연도별 등록건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	미국	US	313,322	323,338	342,570	374,924	-	-
2	인도	IN	190,851	202,818	223,751	274,768	-	-
3	한국	KR	141,836	157,139	160,306	182,968	-	-
4	브라질	BR	151,711	163,422	157,016	158,709	-	-
5	일본	JP	119,263	116,139	124,615	144,832	-	-
6	멕시코	MX	105,828	104,362	109,930	120,425	-	-
7	터키	TR	110,602	107,215	111,228	109,549	-	-
8	프랑스	FR	89,869	89,413	90,956	94,898	-	-
9	독일	DE	64,592	64,495	70,878	72,782	-	-
10	호주	AU	62,757	61,729	64,648	70,729	-	-
11	아르헨티나	AR	60,170	55,295	58,486	66,278	-	-
12	이란	IR	28,856	38,967	55,400	62,927	-	-
13	러시아	RU	62,203	63,016	60,541	58,567	-	-
14	UK	GB	42,912	50,004	54,792	57,869	-	-
15	스페인	ES	47,050	49,691	52,762	53,103	-	-
16	캐나다	CA	50,110	49,819	51,028	52,461	-	-
17	태국	TH	44,963	46,097	45,661	52,344	-	-
18	인도네시아	ID	62,455	60,983	46,452	47,544	-	-
19	베트남	VN	33,762	35,628	38,315	42,542	-	-
20	이탈리아	IT	39,568	40,621	40,194	39,753	-	-
21	홍콩	HK	35,530	37,092	40,063	39,179	-	-
22	남아프리카공화국	ZA	34,604	36,070	35,418	36,973	-	-
23	말레시아	MY	31,876	32,225	34,571	35,923	-	-
24	칠레	CL	33,831	33,564	31,869	31,857	-	-
25	우크라이나	UA	31,257	33,357	26,379	30,982	-	-
26	스위스	CH	28,506	28,868	29,023	29,970	-	-
27	파키스탄	PK	19,665	20,822	25,267	28,056	-	-
28	콜롬비아	CO	32,030	25,924	25,687	27,976	-	-
29	페루	PE	25,295	25,258	25,258	26,354	-	-
30	필리핀	PH	20,816	23,041	26,016	26,320	-	-
31	베네룩스	BX	24,459	23,753	23,126	24,608	-	-
32	싱가포르	SG	19,263	20,032	21,291	21,362	-	-
33	중국	CN	1,618,428	1,847,936	2,104,404	21,087	-	-
34	뉴질랜드	NZ	18,196	18,906	20,296	20,715	-	-
35	이집트	EG	18,047	17,429	19,259	20,128	-	-
36	포르투갈	PT	16,661	16,981	19,666	18,502	-	-
37	폴란드	PL	16,842	17,095	16,420	15,452	-	-
38	노르웨이	NO	14,059	14,644	14,933	15,023	-	-
39	코스타리카	CR	11,963	-	12,361	13,600	-	-
40	마카오	MO	9,581	10,084	12,287	13,140	-	-
41	쿠웨이트	KW	-	-	-	13,051	-	-
42	엘살바도르	SV	7,496	7,524	7,036	11,449	-	-
43	시리아	SY	1,598	1,226	1,238	11,386	-	-
44	모로코	MA	10,740	10,871	11,240	11,126	-	-
45	스웨덴	SE	11,127	10,360	9,858	10,131	-	-
46	도미니카공화국	DO	-	9,413	9,738	10,049	-	-
47	루마니아	RO	10,335	11,468	10,488	10,034	-	-
48	체코	CZ	11,033	10,895	10,122	9,971	-	-
49	스리랑카	LK	9,116	8,825	-	9,415	-	-
50	방글라데시	BD	11,429	11,581	11,541	9,322	-	-

*Note: 2015년 이후 업데이트 이루어지지 않음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http://ipstats.wipo.int/ipstatv2/index.htm?tab=trademark>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 November 2016)

(단위: 건)



WIPO 상표출원 Top 10(2015 기준)

3. ICT(정보통신기술) 및 시청각*관련 디자인 등록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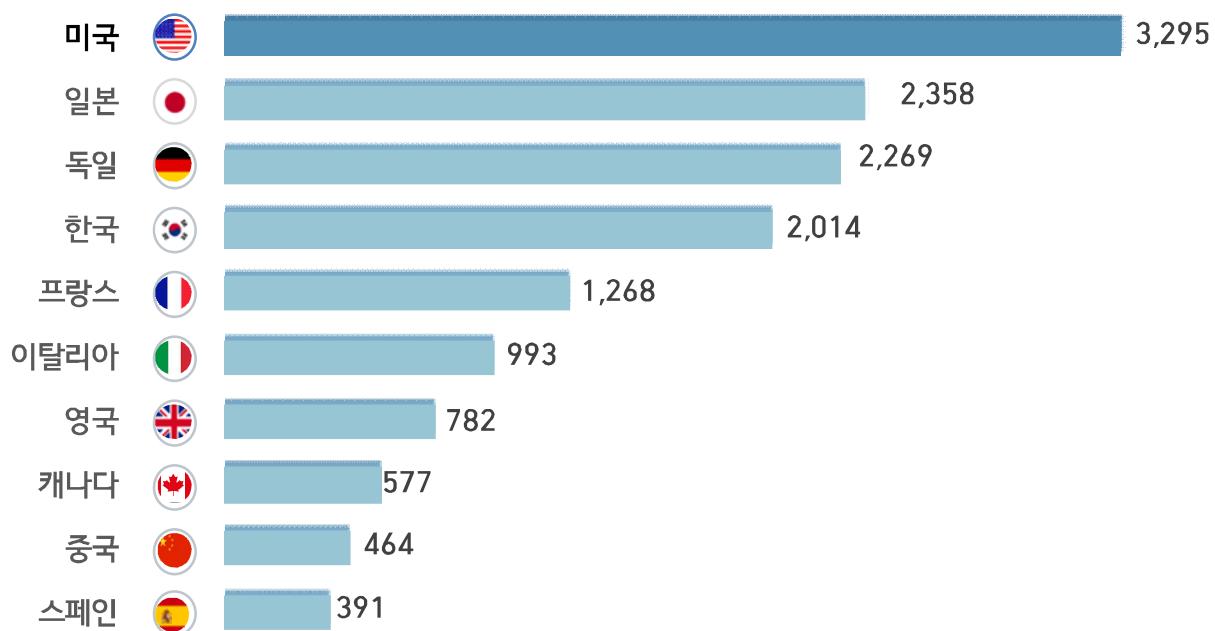
순위	국가	연도별 등록건수 (2010-2012)	순위	국가	연도별 등록건수 (2010-2012)
1	미국	3,295	11	스웨덴	380
2	일본	2,358	12	오스트리아	284
3	독일	2,269	13	핀란드	282
4	한국	2,014	14	네덜란드	259
5	프랑스	1,268	15	덴마크	187
6	이탈리아	993	16	폴란드	145
7	영국	782	17	벨기에	131
8	캐나다	577	18	스위스	129
9	중국	464	19	룩셈부르크	72
10	스페인	391	20	오스트레일리아	68

*시청각(audio-visual): 시각과 청각을 위주로 하는 오디오나 비디오의 신호 정보, 또는 음향 기기나 영상 기기 등 전달 매체. 오디오나 비디오, 홈시어터(Home Theater) 시스템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가전 음향기기를 통칭하는 의미로도 사용(IT 용어사전)

*Note: 2012년 이후 업데이트 이루어지지 않음

*출처: ICT and audiovisual-related designs, 2010-12: Registered Community designs, top 20 applicants, in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3, OECD Publishing. doi: 10.1787/sti_scoreboard-2013-graph185-en. (OECD, 2013)

(단위: 건)



연도별 등록건수(2010-2012) Top 10

5 디자인 활용률

1. 디자인 성숙도

(단위: %)

국가	기준연도	디자인 성숙도 비율 (디자인 활용 사다리 기준, 덴마크 디자인센터)					
		단계 1 : 디자인 미활용	활용				소계
			단계 2 : 스타일링	단계 3 : 과정	단계 4 : 전략		
오스트리아	2012	27	31	33	9	73	
에스토니아	2013	55	18	20	7	45	
한국	2016	84%				16.0%	

*Note: 한국 외 업데이트 이루어지지 않음

*출처: Design Policy Monitor 2015, p.11(SEE Platform, 2015.01.15), 2016 산업디자인통계조사(KI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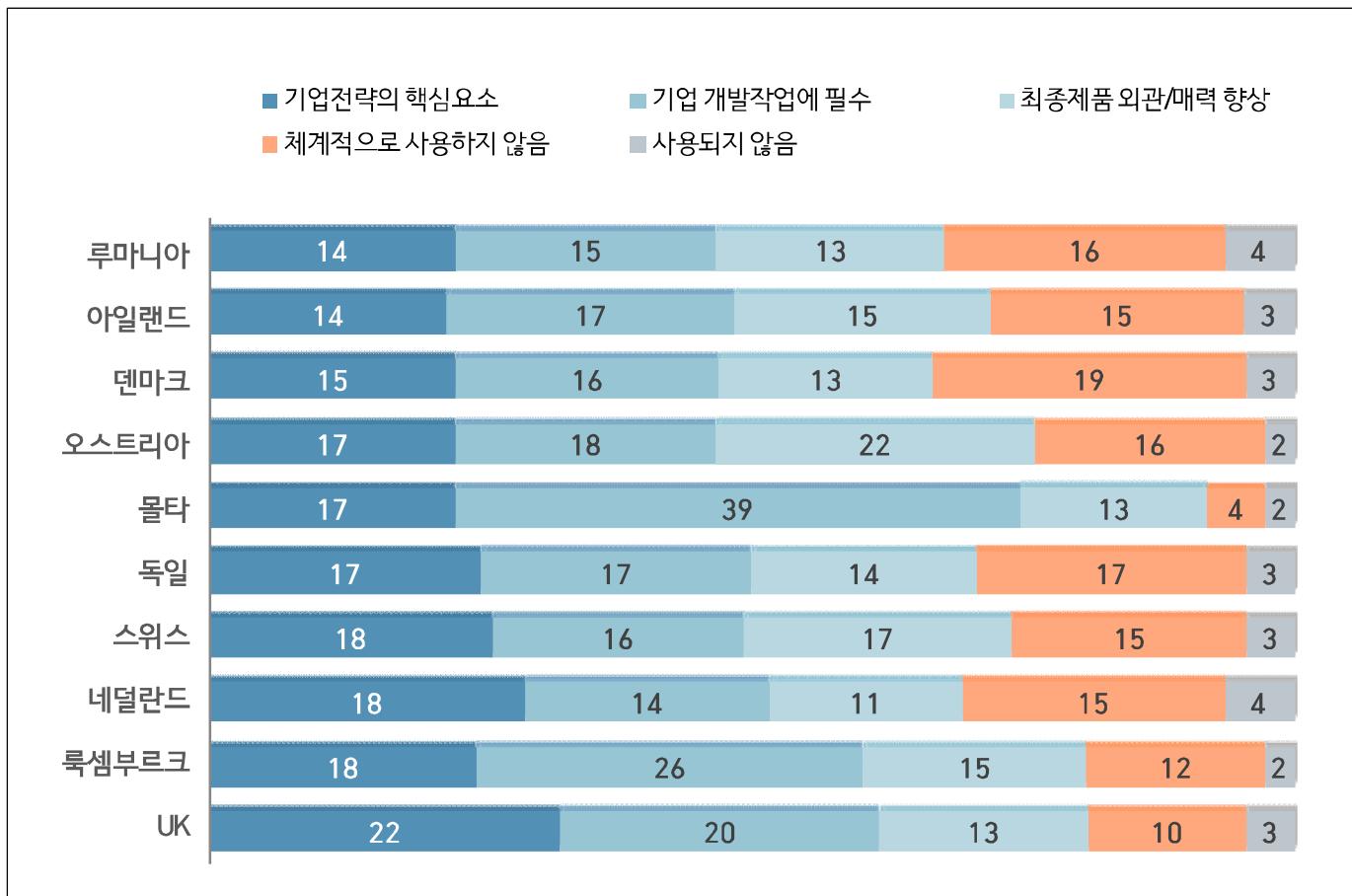
2. 디자인 활용수준

(단위: %)

국가	디자인은 기업전략이 핵심요소	디자인은 기업의 개발 작업의 핵심요소는 아니지만 필수적	디자인은 최종 마무리로 사용되어 최종제품의 외관 및 매력을 향상시킴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디자인이 사용되지 않음
UK	22	20	13	10	33
룩셈부르크	18	26	15	12	28
네덜란드	18	14	11	15	40
스위스	18	16	17	15	32
독일	17	17	14	17	33
몰타	17	39	13	4	27
오스트리아	17	18	22	16	26
덴마크	15	16	13	19	32
아일랜드	14	17	15	15	36
루마니아	14	15	13	16	40

*Note: 업데이트 이루어지지 않음

*출처: The Design Economy: The Value of design to the UK, p.38 (Design Council, 2015)



6 디자인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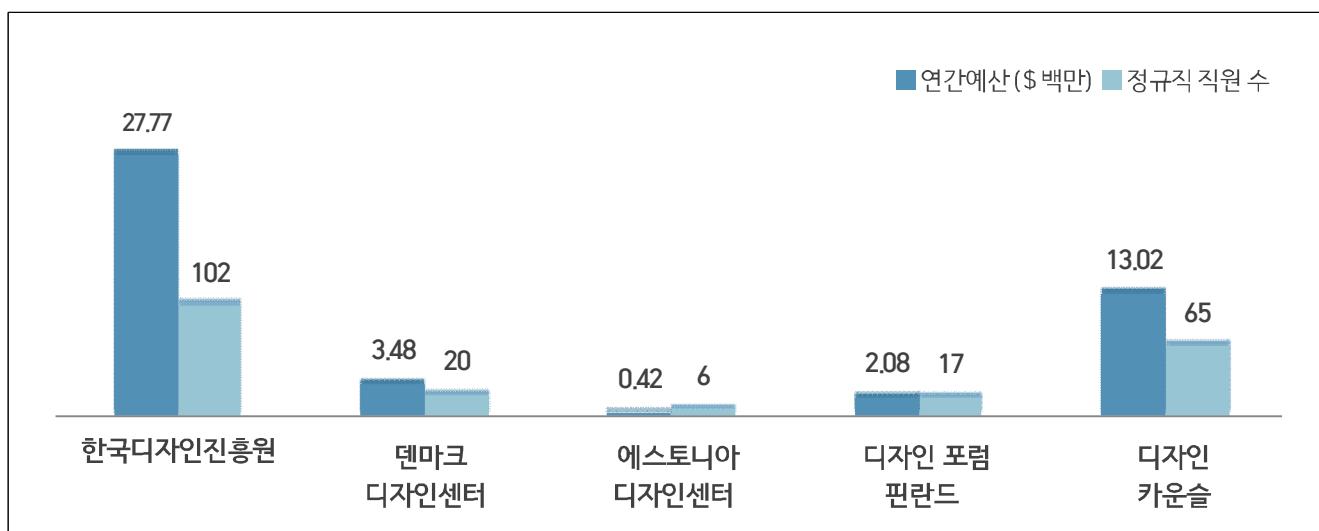
1) 디자인 기관

1.1) 디자인센터 지출

국가 (지역)	기준연도	디자인센터명	연간예산 (\$백만)	정규직 직원 수	공공 / 민간 자금비율
한국	2013	한국디자인진흥원	27.77	102	-
덴마크	2012	덴마크 디자인센터	3.48	20	· 공공자금 50% · 민간자금 50%
에스토니아	2012	에스토니아 디자인센터	0.42	6	· 공공자금 80% · 민간자금 20%
핀란드	2012	디자인 포럼 핀란드	2.08	17	· 공공자금 50% · 민간자금 45% · 기타자금 5%
UK	2012	디자인 카운슬	13.02	65	· 공공자금 80% · 기타자금 20%

*Note: 업데이트 이루어지지 않음

*출처: 1) All Public Information in One (2014),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management information website
2) Design Policy Monitor 2012, p.33 (SEE platform, 2012)



1.2. 지역 디자인센터 지출

(기준연도: 2012)

국가 (지역)	디자인센터명	연간예산 (\$백만)	정규직 직원 수	공공 / 민간 자금비율
벨기에 (플랜더스)	디자인 플랜더스	1.87	총합: 4.16	· 공공자금 100%
	플랜더스 인 셰이프	0.83		
	Designregio Kortrijk	0.73		
	디자인허브 림버그	0.73		
아일랜드 (BMW지역)	디자인혁신센터	-	2	· 공공자금 100%
폴란드 (실레지아)	디자인 실레지아	0.59	7	· 공공자금 71% (33% City + 38% EU) · 민간자금 29%
UK (웨일스)	디자인 웨일스	0.69	7	· 공공자금 100%

*Note: 업데이트 이루어지지 않음

*출처: Design Policy Monitor 2012, p.34 (SEE platform, 2012)

2) 디자인 지원·홍보 프로그램

2.1) 디자인 지원프로그램 운영비용 및 연간 참가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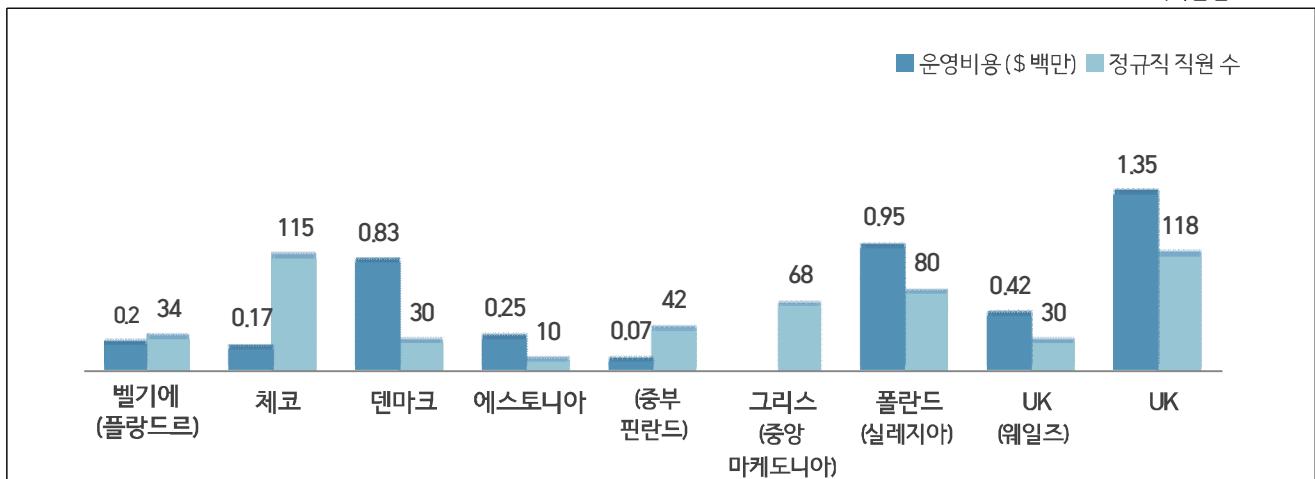
(기준연도: 2012)

국가 (지역)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운영비용 (\$백만)	연간 참가자 수 (명)
벨기에 (플랑드르)	중소기업 월렛 및 서비스 디자인 해결책	2009-	0.2	34
체코	수출을 위한 디자인	2008-2012	0.17	115
덴마크	디자인 부스트 및 디자인 360°	2010-2012	0.83	30
에스토니아 (중부 핀란드)	디자인 불도저 서비스 디자인 툴킷	2012-2014 2010-2012	0.25 0.07	10 42
그리스 (중앙 마케도니아)	기업의 외향적 경쟁력	2011-	-	68
폴란드 (실레지아)	디자인 실레지아	2010-	0.95	80
UK (웨일즈)	서비스 디자인 프로그램	2010-2013	0.42	30
UK	디자인 리더쉽	2002-	1.35	118

*Note: 업데이트 이루어지지 않음

*출처: Design Policy Monitor 2012, p.28 (SEE platform, 2012)

(기준연도: 2012)



2.2) 디자인 홍보프로그램 운영비용

(기준연도: 2012/ 단위: \$ 백만)

국가 (지역)	디자인 홍보 프로그램* 운영비용	디자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용
벨기에 (플랑드르)	0.12	0.2
체코	-	0.17
덴마크	1.46	0.83
에스토니아	0.14	0.25
핀란드 (중부 핀란드)	18.51 0.1	0.07 -
폴란드 (실레지아)	0.11	0.95
UK (웨일즈)	0.04	0.42
UK	0.12	1.35

*Note: 업데이트 이루어지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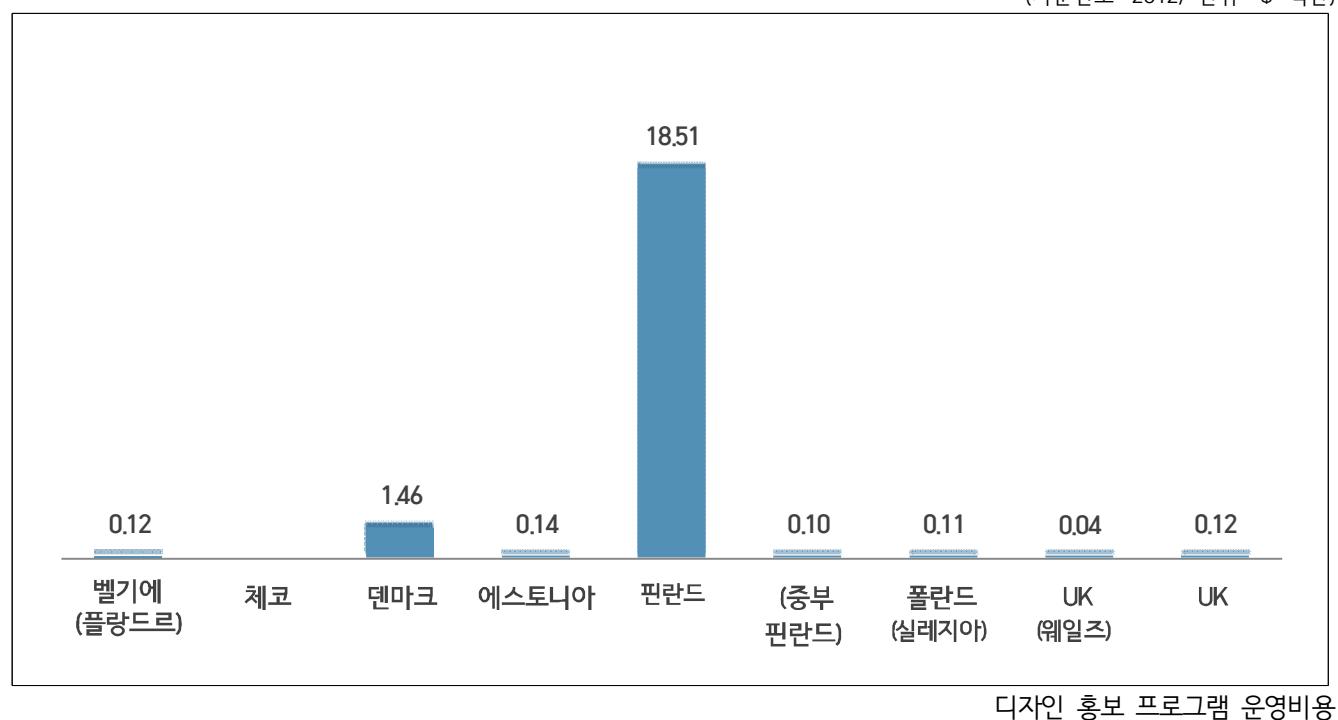
*디자인 홍보프로그램: 디자인 홍보활동은 유럽전역에서 디자인 지원프로그램보다 널리 퍼져 있음. 그러나 거의 모든 EU국가에서 디자인 홍보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전역의 디자인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프로그램 예시: 디자인 어워드, 디자인 주간, 디자인 전시회, 디자인 컨퍼런스 및 인식 캠페인 등)

**디자인 지원프로그램: 디자인 지원 프로그램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기존의 제품 디자인 지원이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디자인 중재기구는 민간 및 공공부문에 서비스 디자인 지원을 제공하고 기업이 디자인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는 보조금을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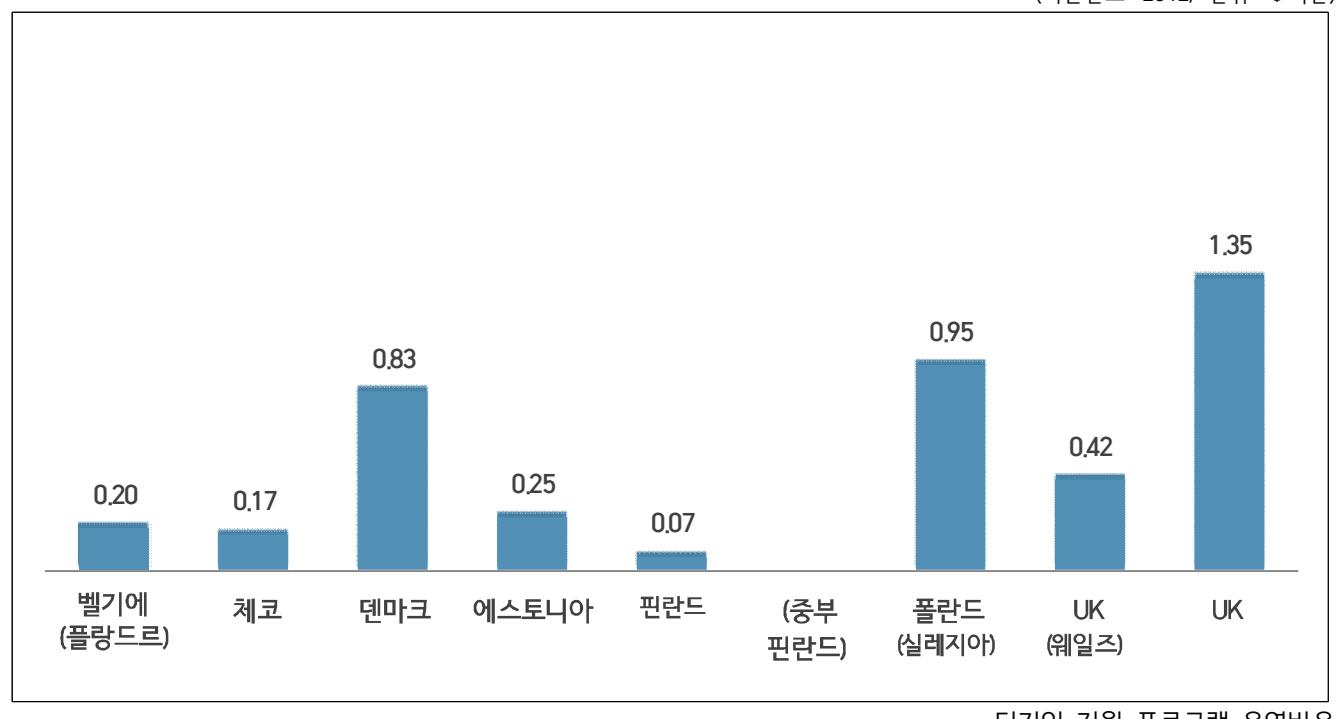
*출처: Design Policy Monitor 2012, p.30 (SEE platform, 2012)

(기준연도: 2012/ 단위: \$ 백만)



디자인 흥보 프로그램 운영비용

(기준연도: 2012/ 단위: \$ 백만)



디자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용

7 디자인 교육

1. TOP 50 디자인스쿨

순위	대학	국가
1	Royal College of Art	UK
2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미국
3	Parsons School of Design at The New School	미국
4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RISD)	미국
5	Pratt Institute	미국
6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UK
= 7	Politecnico di Milano	멕시코
= 7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SAIC)	미국
9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미국
10	Stanford University	미국
11	University of Oxford	UK
12	Yale University	미국
13	Aalto University	핀란드
14	Carnegie Mellon University	미국
15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UK
16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미국
17	RMIT University	호주
18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미국
19	The Glasgow School of Art	영국
20	Columbia University	미국
21	School of Visual Arts (SVA)	미국
22	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	미국
23	New York University (NYU)	미국
24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UNAM)	멕시코
25	Tsinghua University	중국
26	Tongji University	중국
27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홍콩
28	The University of Melbourne	호주
= 29	Seoul National University	한국
= 29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호주
= 31	Design Academy Eindhoven	네덜란드
= 31	Universidad de Buenos Aires (UBA)	아르헨티나
33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SW Sydney)	호주
34	Monash University	호주
35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	싱가폴
36	Loughborough University	UK
37	Peking University	중국
38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Chile (UC)	칠레
39	Universidad de Palermo (UP)	아르헨티나
40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NTU)	싱가폴
41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QUT)	호주
= 42	Cornell University	미국
= 42	The University of Sydney	호주
= 42	Universidade de São Paulo	브라질
45	Princeton University	미국
46	Instituto Tecnológico y de Estudios Superiores de Monterrey	멕시코
47	Konstfack University College of Arts, Crafts and Design	스웨덴
48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호주
= 49	Ravensbourne	영국
= 49	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	미국

*출처: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2017

(<https://www.topuniversities.com/university-rankings/university-subject-rankings/2017/art-design>)

2017 KOREA DESIGN STATISTICAL DATA

3장

주요 산업동향



1. 디지털 사회 혁신(Digital Social Innovation)

-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의 융합에 의한 초지능화, 초연결화 시대를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 및 사회 시스템 변혁을 초래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에 직면
- EU에서는 디지털 혁신으로 유럽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간 디지털 정책을 연결하고 통합하고자 'Digitising European Industry' 이니셔티브를 마련·추진 중(European Commission)
 - 제품 및 서비스의 디지털화로 향후 5년간 유럽에서 연간 총 매출액이 1,100 억 유로가 넘을 것으로 추산
 -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 세계 타 지역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전통적인 산업, 중소기업이 뒤쳐져 있고 지역 간 디지털화에 큰 격차
 - 유럽 산업의 디지털화 방안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연구 및 공공기관이 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파트너쉽과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와 지역 이니셔티브 연결 및 투자 증진
 - 디지털 혁신 촉진(370억 유로), 디지털 혁신 허브 구축(55억 유로), 차세대 전자부품 생산라인 구축(63억 유로), 유럽 클라우드 이니셔티브(European Cloud Initiative)(67억 유로) 등 최대 500억 유로의 공공 및 민간 투자
- 영국 등 유럽에서는 디지털 도구를 통하여 사회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기술의 잠재력 실현을 위해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al Innovation, DSI)에 대해 연구
 - 유럽 전역에서 건강, 자본, 교육, 고용, 민주주의, 난민 통합, 환경 등 사회적 과제의 창의적 해결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조직 운영
 - DSI는 '사용자 및 커뮤니티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사회 요구와 인터넷의 부상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속도로 지식과 솔루션을 공동으로 만드는 사회적 및 협업 혁신 유형'을 의미(Nesta, 2014)
 - DSI 분야의 5가지 구분: 공유경제/협력적 소비경제(Collaborative Economy), 새로운 생산방식 (NewWays of Making), 개방 민주주의(Open Democracy), 인식향상 네트워크(Awareness network), 개방 접근(Open Access)(EU, 2015)
 - 시민들이 사회 문제 해결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을 돋는 정부 지원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 대중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한 단계 더 나은 사회로 성장
 - 4가지 주요 필요기술: 개방형 데이터, 개방형 하드웨어, 개방형 네트워크, 개방된 지식(Nesta, 2017)
 - 공공부문과 시민사회의 자금 및 기술 이용가능성, 접근가능성과 DSI 도입에 있어 실무자와 사용자 참여를 통한 성장과 지속 가능성 탐구
- 디지털 사회혁신을 위한 실천적 방법론으로 리빙랩(living lab)과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 대두
 - 유럽에서 리빙랩은 사용자 참여 기반의 새로운 기술개발 모델 및 사회개발 방식으로 사용자와 생산자가 협력해서 혁신을 창출하는 실험실을 의미
 - 핀란드 'Lutakko Living Lab'은 JAMK University와 함께 기업, 지역민, 공공기관, 관광객 등이 모두 참여해 주거지역의 사용자 중심 혁신, 개발 및 학습 환경을 개발
 - 메이커들의 공동 창작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는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CNC기계 등 다양한 제조 장비, 기술을 제공해 대중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창업 초기 인큐베이터 및 가속화하는 역할

- 메이커스페이스는 팹랩(Fab Lab), 테크숍(Tech shop)의 형태로 제품의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상업화 시키고 있음
 - 테크숍은 세계 최초의 오픈소스 DIY 워크샵 및 제작스튜디오로 교육, 도구, 소프트웨어 및 공간을 제공하며 기업가, 예술가, 제작자, 교사,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작업하는 지역사회 기반 창의 공간 체인으로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등 9개 지역에서 운영
 - '제작 실험실(Fabrication Laboratory)'의 약자인 팹랩은 2004년 MIT 닐 거센필드(Neil Gershenfeld) 교수의 팹랩을 필두로 현재 미국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 110개 이상이 설립되어 운영 중
- 혁신과 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 플랫폼: 홍콩과학기술산업단지 (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Corporation, HKSTP)
- 홍콩을 혁신 및 기술 개발 허브로 변화시키려는 목표로 도시경제 다각화 및 성장, 여러 산업 분야의 고용기회 확대, STEM에 대한 재능 및 관심 촉진을 위한 역동적이고 유연한 플랫폼
 - Science Park, InnoCentre 및 Industrial Estates로 구성되어 최첨단 시설과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 과학 기술 회사의 성장 가속화와 아이디어 혁신 및 개척이 가능하도록 지원(R&D 사무실, 인프라, 시장주도형 연구소 및 전문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술센터)
 - 현재 600개 이상의 기술 기업들과 약 13,000명의 기술 인력이 Science Park에 입주해 바이오, 로보틱스, 스마트 시티에 대한 연구와 상용화 노력
 - HKSTP 외에 사이버포트(CyberPort)도 핀테크(FinTech), 빅데이터 등 관련 기업 900여개가 모여 있는 스타트업의 요람으로써 테스트룸, 개발 및 컨설팅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개방과 협력을 위한 공용 공간 제공
- ## 2. 디자인을 통한 산업·지역 파트너쉽
- 영국 Design Council에서 발표된 정책제안서 'Design: Delivering a new approach to growth' (2017.04.)에 따르면 디자인 청사진으로 다양한 분야, 조직, 기관 및 여러 이해관계자가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제공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
- 디자인 강점 개발의 측
 - : ① 과학, 연구 및 혁신 투자, ② 기술 개발, ③ 기반시설 업그레이드, ④ 사업 시작 및 성장 지원, ⑤ 조달 개선, ⑥ 무역 및 내부투자 촉진, ⑧ 서계를 선도하는 분야 육성, ⑨ 전지역적 성장 촉진, ⑩ 산업 및 지역 맞춤형 기관 설립
 -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 전략의 5가지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디자인 통합
 - : ① 사람, ② 아이디어, ③ 장소, ④ 기술, ⑤ 분야
- 미국의 NEA(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에서는 세계 경제에서 미국 제조업이 성공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산업디자인 전략 제시
- 중소제조기업(SMM)은 대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업디자인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음에도 자금부족, 디자인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결여로 디자인 가치에 대한 이점을 누리지 못함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조기업, 정부기관, 대학, 디자인회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파트너쉽으로 중소제조기업 성장 지원

- 4가지 파트너쉽 모델: ① 보조금 보델, ② 인턴쉽 모델, ③ 추천 모델, ④ 네트워킹/교육모델
- 네트워킹/ 교육모델은 중소 제조기업에게 산업디자인의 가치를 전달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메이드인 시카고 프로그램(Made in Chicago)’ 및 ‘디자인 잼(Design Jam)’이 대표적 사례
 - 메이드인 시카고프로그램
: 제조업체와 디자이너가 대학식 온라인포털을 통해 연결돼 디자이너는 아이디어, 프로토타입 또는 제작하려는 제품을 게시하고 제조기업은 이 제품을 생산하며 제조 매치 메이킹, 디자이너 라운드 테이블 실시
 - 디자인 잼
: 시카고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인 디자인 잼에서는 디자이너, 학생 및 기업들이 제조기업의 역량과 기능을 파악한 다음 제조업체의 기존기계에서 생산 가능한 제품을 제안, 제품개발자에게는 제조혁신 및 산업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 방법 습득

3. 인공지능(AI)와 자동화를 다루는 윤리적 문제 및 정책

- 영국은 AI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의회에서 2017년 1월 APPG AI(인공지능에 관한 의회 교섭단체)를 설립하고 의사결정, 자동화된 추론 및 자율시스템,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업계 표준과 문제 다룸
 - AI가 영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직, 규제, 건강, 에너지, 보험, 컨설팅, 금융, 법률 및 지식집약적 비즈니스 서비스를 포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규제해야하며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논의
 - 또한, EU에서는 개인데이터 사용의 사생활, 경제 및 사회 영향을 감안해 시민들이 개인데이터들을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 실용적인 도구를 개발하고 법률, 경제, 비즈니스 모델, 기술 및 사회적 맥락에서 어떤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연구
 - 영국은 표준화, 자동화된 특허 IP 비즈니스 모델 ‘Due Diligence 2.0’를 통해 지적 재산 자본주의 시대의 효과적인 IP교환 실현
-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논쟁도 ‘자동화의 위험’에 집중
 - 교육, 건강관리 및 광범위한 공공부문 직종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건설 및 농업과 같은 분야의 일부 저숙련 직무가 과거에 가정했던 것보다 노동시장 성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
 - 대인관계 기술을 포함하여 고차원 인지기술, 시스템 기술 등 미래 트렌드에 맞추어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출현 예측(Nesta, 2017)
 - 영국 피어슨 상관계수에서 가장 중요한 O*NET(미국 노동부의 직업정보 네트워크) 직무 기능 10가지
: 판단과 의사 결정(Judgment and Decision Making), 아이디어의 유창성(Fluency of Ideas),
능동학습(Active Learning), 학습전략(Learning Strategies), 독창성(Originality),
시스템 평가(Systems Evaluation), 연역적 추리(Deductive Reasoning),
복잡한 문제 해결(Complex Problem Solving), 시스템 분석(Systems Analysis), 모니터링(Monitoring)

참고문헌

Big Innovation Centre(2017), Patent Due Diligence 2.0

Nesta(2017), WHAT NEXT FOR DIGITAL SOCIAL INNOVATION?

Nesta(2017), THE FUTURE OF SKILLS: EMPLOYMENT IN 2030

NEA(2017), INDUSTRIAL DESIGN: A Competitive Edge for U.S. Manufacturing Success in the Global Economy

Design Council(2017), Design: Delivering a new approach to growth

<https://www.hkstp.org/en/>

<http://www.biginnovationcentre.com>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policies/digitising-european-industry>

<http://www.openlivinglabs.eu/livinglab/humantech-livinglab>

<http://www.techshop.ws/>

2017 KOREA DESIGN STATISTICAL DATA

Part 3



국내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결과

2017 KOREA DESIGN STATISTICAL DATA



1장

일반업체

part
3
국내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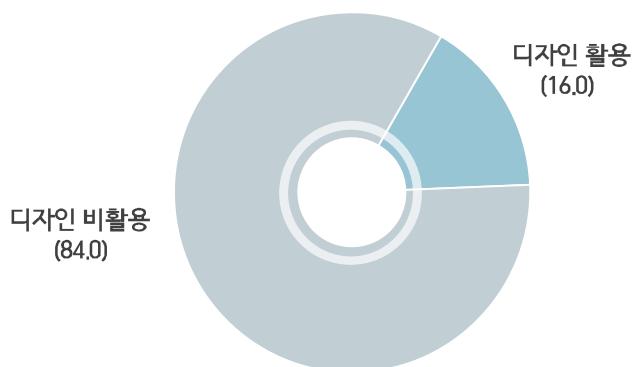
디자인 활용업체

1 디자인활용업체 비율

- (전체산업 기준) 일반업체 중 디자이너 종사자를 보유했거나 전문디자인업체에 최근 2년 내 디자인 개발을 의뢰한 경험 등으로 디자인을 활용한 비율은 16.0%로 나타남. 그 외 84.0%는 디자이너 종사자 및 최근 2년간 디자인 개발을 의뢰한 경험이 없음.

디자인 활용 여부

(단위: %)



- 권역별로 분석해 보면, 서울(21.9%)의 디자인 활용여부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대구/경북 (15.6%)이 뒤를 이음.

▶ 권역별 디자인 활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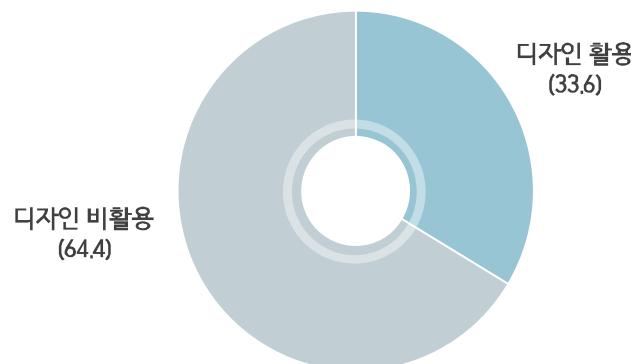
(단위: %)

구분	디자인 활용	디자인 비활용
일반업체	16.0	84.0
권 역 별	서울	21.9
	부산/울산/경남	14.6
	대구/경북	15.6
	인천	11.1
	경기	15.1
	광주/전라	12.6
	대전/충청	13.7
	강원/제주	14.6

- (디자인 특수분류 기준) 디자인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일반 업체 중 디자이너를 보유했거나, 최근 2년 이내 디자인 개발 의뢰 경험이 있는 디자인활용업체 비율은 33.6%로 나타남. 그 외 64.4%는 디자이너를 보유하지 않았고 최근 2년간 디자인 개발 의뢰 경험도 없음.

디자인 활용 여부

(단위: %)



- 업종별로는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61.0%)의 디자인 활용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은 시각디자인(44.2%), 패션/텍스타일디자인(38.6%), 디자인인프라(3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공간디자인(25.7%)와 제품디자인(25.8%)은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임.

▶ 업종별 디자인 활용여부

(단위: %)

업종별	구분	디자인 활용	디자인 비활용
	일반업체	33.6	64.4
제품디자인		25.8	74.2
시각디자인		44.2	55.8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61.0	39.0
공간디자인		25.7	74.3
패션/텍스타일디자인		38.6	61.4
서비스/경험디자인		36.9	63.1
산업공예디자인		25.8	74.2
디자인인프라		38.0	62.0

- 권역별로 분석해 보면, 서울(41.6%)의 디자인 활용률이 가장 높고, 다음은 강원/제주(37.9%), 경기(32.1%) 등의 순으로 높음.
-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디자인 활용률은 40.3%로 가장 높고, 다음은 중견기업(36.6%), 중기업(36.3%), 소기업(33.0%)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 디자인 활용여부

(단위: %)

구분		디자인 활용	디자인 비활용
일반업체		33.6	64.4
권 역 별	서울	41.6	58.4
	부산/울산/경남	31.9	68.1
	대구/경북	29.9	70.1
	인천	26.6	73.4
	경기	32.1	67.9
	광주/전라	27.1	72.9
	대전/충청	30.7	69.3
	강원/제주	37.9	62.1
규 모 별	대기업	40.3	59.7
	중견기업	36.6	63.4
	중기업	36.3	63.7
	소기업	33.0	6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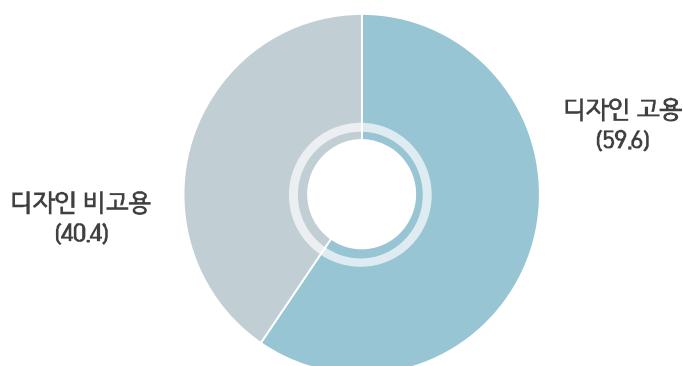
2 디자인 활용 현황

1) 디자이너 고용 여부

- 디자인활용업체 중 디자이너를 고용한 업체(2016년 12월 기준)는 59.6%로 나타났고,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업체는 40.4%로 나타남.

디자인 고용 여부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자이너 고용 비율은 공간디자인(99.2%)이 가장 높고, 다음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75.2%), 시각디자인(67.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이너 고용 여부

(단위: %)

업종별	구분	디자이너 고용	
		디자이너 고용	디자이너 비고용
활용업체	제품디자인	63.6	36.4
	시각디자인	67.6	32.4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64.4	35.6
	공간디자인	99.2	0.8
	패션/텍스타일디자인	75.2	24.8
	서비스/경험디자인	51.3	48.7
	산업공예디자인	44.1	55.9
	디자인인프라	41.3	58.7

-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69.5%), 대전/충청(63.2%), 대구/경북(61.6%) 등의 순으로 디자이너 고용 비율이 높고, 강원/제주(39.5%)의 고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견기업이 67.3%로 가장 높고, 다음은 중기업(65.0%), 대기업(64.2%), 소기업(57.7%) 순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 고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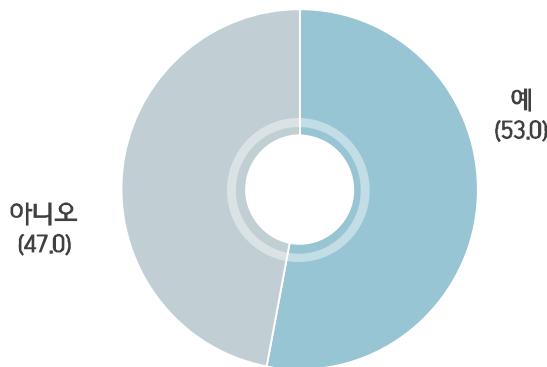
(단위: %)

구분		디자이너 고용	디자이너 비고용
활용업체		59.6	40.4
권 역 별	서울	69.5	30.5
	부산/울산/경남	46.6	53.4
	대구/경북	61.6	38.4
	인천	50.1	49.9
	경기	56.4	43.6
	광주/전라	50.2	49.8
	대전/충청	63.2	36.8
	강원/제주	39.5	60.5
규 모 별	대기업	64.2	35.8
	중견기업	67.3	32.7
	중기업	65.0	35.0
	소기업	57.7	42.3
외 주	외주용역 있음	23.7	76.3
	외주용역 없음	100.0	0.0

2) 전문디자인업체 용역 의뢰 경험 여부

- ▶ 디자인활용업체 중 최근 2년 이내 전문디자인업체에 디자인 개발 외주 용역 경험이 있는 업체 비율은 53.0%로 나타남.

전문디자인업체 용역 의뢰 경험 여부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최근 2년 이내 디자인 개발 외주용역 경험이 있는 업체 비율은 디자인 인프라(68.0%)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서비스/경험디자인(64.4%), 산업공예디자인(64.0%), 시각디자인(59.4%) 등의 순으로 높음. 한편, 공간디자인(9.4%)은 디자인 개발 외주용역 경험 비율이 타업종 대비 낮게 나타남.

▷ 업종별 전문디자인업체 용역 의뢰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활용업체		53.0	47.0
업종별	제품디자인	48.1	51.9
	시각디자인	59.4	40.6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50.1	49.9
	공간디자인	9.4	90.6
	패션/텍스타일디자인	41.9	58.1
	서비스/경험디자인	64.4	35.6
	산업공예디자인	64.0	36.0
	디자인인프라	68.0	32.0

-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문디자인업체 용역 의뢰 경험이 있는업체의 비율은 강원/제주(75.0%), 부산/울산/경남(64.9%), 인천(58.2%) 등의 순으로 높음.
- 규모별로는 대기업(55.3%), 소기업(53.1%), 중기업(52.8%), 중견기업(50.1%) 등의 순임.

▶ 권역별/규모별/고용별 전문디자인업체 용역 의뢰 경험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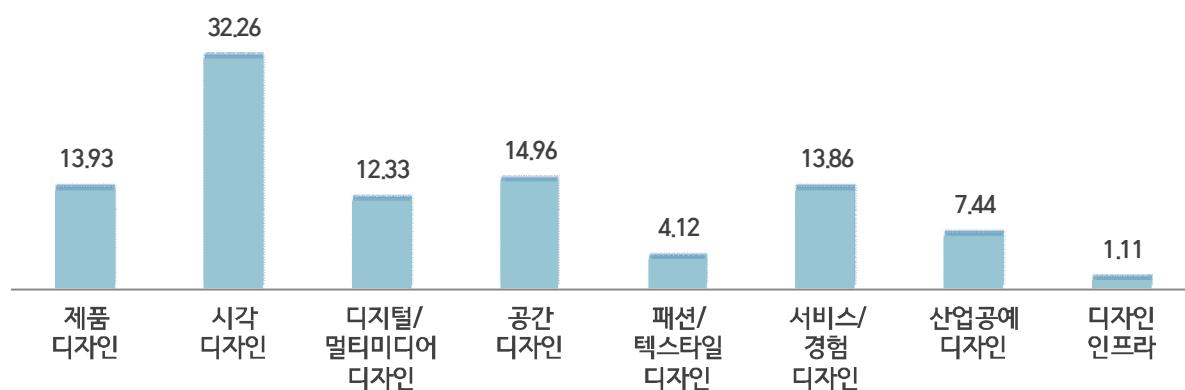
구분		예	아니오
활용업체		53.0	47.0
권 역 별	서울	48.5	51.5
	부산/울산/경남	64.9	35.1
	대구/경북	52.9	47.1
	인천	58.2	41.8
	경기	49.6	50.4
	광주/전라	56.0	44.0
	대전/충청	48.5	51.5
	강원/제주	75.0	25.0
규 모 별	대기업	55.3	44.7
	중견기업	50.1	49.9
	중기업	52.8	47.2
	소기업	53.1	46.9
고 용	디자이너 고용	21.1	78.9
	디자이너 비고용	100.0	0.0

3) 디자인 활용 분야

- 주요 디자인 활용분야(중복응답 기준)는 '시각디자인'이 32.26%로 가장 높고, 다음은 '공간디자인'(14.96%), '제품디자인'(13.93%), '서비스/경험디자인'(13.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디자인 활용 분야

(단위: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시각디자인'은 강원/제주(55.51%), 대구/경북(42.74%) 등의 순으로 높고, '공간디자인'은 서울(17.73%), 부산/울산/경남(16.88%) 등의 순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각디자인'은 소기업(34.56%)에서 높고, '제품디자인'은 대기업(35.1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활용 분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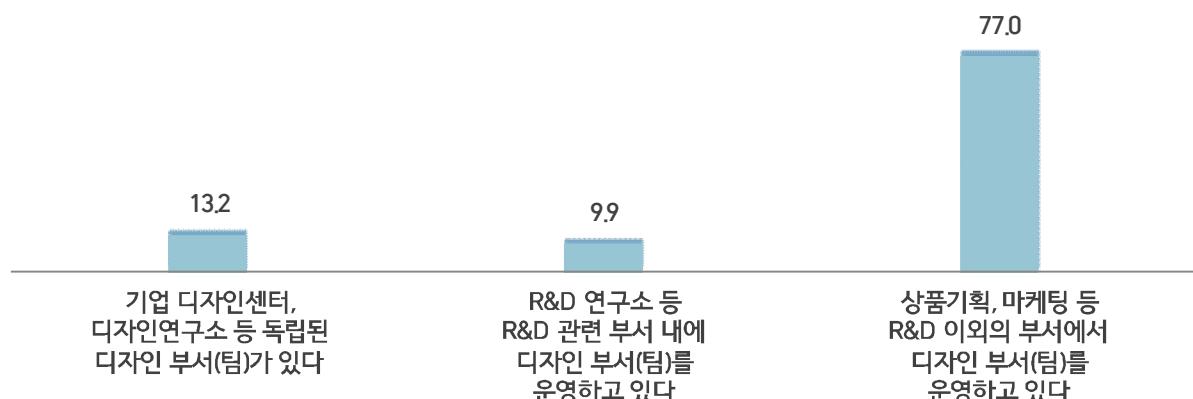
구분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디자인	공간 디자인	패션/ 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 경험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활용업체		13.93	32.26	12.33	14.96	4.12	13.86	7.44	1.11
권역별	서울	10.48	30.33	17.74	17.73	6.51	9.22	6.21	1.78
	부산/울산/경남	12.27	41.08	5.35	16.88	0.33	14.36	9.73	0.00
	대구/경북	15.47	42.74	12.29	6.97	1.57	12.35	3.18	5.44
	인천	20.65	21.56	3.99	15.75	3.61	32.96	1.34	0.13
	경기	19.81	30.13	9.42	12.32	4.43	11.54	12.29	0.07
	광주/전라	10.50	23.90	16.97	12.43	2.85	27.87	5.44	0.04
	대전/충청	22.19	22.62	6.95	16.96	4.26	20.75	6.26	0.00
	강원/제주	2.18	55.51	7.27	13.41	0.00	17.21	4.42	0.00
규모별	대기업	35.19	21.21	2.66	12.94	3.68	24.31	0.00	0.00
	중견기업	14.41	26.54	12.76	8.38	2.11	22.00	13.50	0.29
	중기업	20.02	25.70	13.18	15.38	3.34	17.76	4.54	0.08
	소기업	11.73	34.56	12.17	14.95	4.40	12.37	8.35	1.46
고용	디자이너 고용	19.28	23.00	17.51	24.95	5.36	6.67	2.12	1.12
	디자이너 비고용	6.04	45.92	4.69	0.23	2.28	24.47	15.29	1.08
외주	외주용역 있음	8.62	43.32	8.32	2.93	2.90	20.31	11.95	1.65
	외주용역 없음	19.91	19.80	16.85	28.52	5.48	6.59	2.36	0.49

4) 디자인 부서 형태

- 디자인 부서의 형태로는 'R&D 이외 부서 디자인 부서(팀) 운영'이 77.0%로 가장 높고, '독립된 디자인 부서(팀)'(13.2%)와 'R&D 관련 부서 내 디자인 부서(팀)''(9.9%)는 상대적으로 낮음.

디자인 부서 형태

(단위: %, 중복응답)



- 업종별로 살펴보면, 'R&D 이외 부서 디자인 부서(팀) 운영'은 서비스/경험디자인(92.9%), 디자인인프라(91.7%)에서 높고, '독립된 디자인 부서(팀)'는 공간디자인(35.7%), 'R&D 관련 부서 내 디자인 부서(팀)'는 산업공예디자인(45.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디자인 부서 형태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기업 디자인센터, 디자인연구소 등 독립된 디자인 부서(팀)가 있다	R&D 연구소 등 R&D 관련 부서 내에 디자인 부서(팀)를 운영하고 있다	상품기획, 마케팅 등 R&D 이외의 부서에서 디자인 부서(팀)를 운영하고 있다
활용업체	13.2	9.9	77.0
업종별	제품디자인	18.9	21.8
	시각디자인	11.6	2.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2	14.6
	공간디자인	35.7	4.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21.2	7.8
	서비스/경험디자인	0.9	6.2
	산업공예디자인	0.0	45.6
	디자인인프라	0.6	7.7

- ❖ 모든 권역에서 'R&D 이외 부서 디자인 부서(팀) 운영'이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강원/제주(100.0%)에서 높게 나타남.
'독립된 디자인 부서(팀)'은 인천(44.6%), 'R&D 관련 부서 내 디자인 부서(팀)'은 광주/전라
(19.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규모별로 살펴보면, 'R&D 이외 부서 디자인 부서(팀) 운영'은 소기업(80.1%)에서 가장 높고,
대기업의 경우 '독립된 디자인 부서(팀)''(33.7%)과 'R&D 관련 부서 내 디자인 부서(팀)'
(47.3%)가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부서 형태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기업 디자인센터, 디자인연구소 등 독립된 디자인 부서(팀)가 있다	R&D 연구소 등 R&D 관련 부서 내에 디자인 부서(팀)를 운영하고 있다	상품기획, 마케팅 등 R&D 이외의 부서에서 디자인 부서(팀)를 운영하고 있다
활용업체		13.2	9.9	77.0
권 역 별	서울	13.2	8.6	78.2
	부산/울산/경남	12.6	11.0	76.4
	대구/경북	3.8	13.0	83.2
	인천	44.6	0.0	55.4
	경기	16.7	14.3	69.0
	광주/전라	0.0	19.1	80.9
	대전/충청	9.4	3.6	87.1
	강원/제주	0.0	0.0	100.0
규 모 별	대기업	33.7	47.3	16.5
	중견기업	12.3	25.8	62.0
	중기업	15.6	12.0	72.5
	소기업	11.8	8.0	80.1
외 주	외주용역 있음	8.0	15.0	76.9
	외주용역 없음	14.3	8.7	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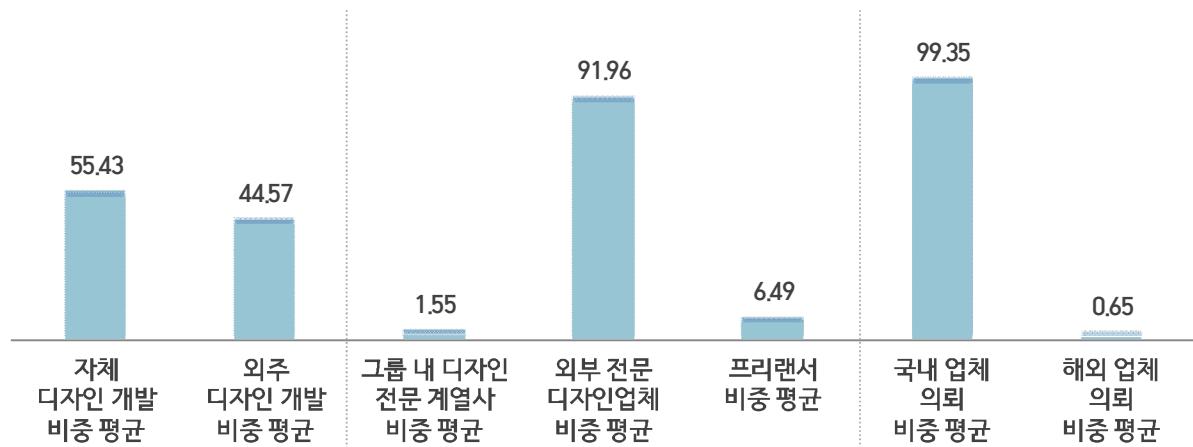
5) 디자인 개발 비중

5-1) 디자인 개발 비중(건 수 기준)

- 디자인 개발 시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디자인활용업체 평균 55.43%, '외주 디자인 개발'은 44.57%로 나타남. '외주 디자인 개발'의 경우 '국내 업체 의뢰'(99.35%)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디자인 개발 비중(건 수 기준)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공간디자인(95.72%)에서 가장 높고,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은 디자인인프라(61.3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디자인 개발 비중(건 수 기준)

(단위: %)

구분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	그룹 내 디자인 전문 계열사 비중	외부 전문 디자인업체 비중	프리랜서 비중	국내업체 의뢰 비중	해외업체 의뢰 비중
활용업체	55.43	44.57	1.55	91.96	6.49	99.35	0.65
업종별	제품디자인	59.31	40.69	3.05	88.21	8.73	99.71
	시각디자인	59.40	40.60	2.81	80.24	16.95	99.99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59.54	40.46	0.00	82.50	17.50	99.87
	공간디자인	95.72	4.28	6.29	86.91	6.80	100.0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72.01	27.99	0.00	92.49	7.51	98.13
	서비스/경험디자인	45.33	54.67	0.18	99.58	0.24	98.09
	산업공예디자인	41.95	58.05	0.61	99.39	0.00	100.00
	디자인인프라	38.67	61.33	1.84	90.76	7.40	99.85

- 권역별로 살펴보면,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서울(64.20%)에서 가장 높고,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은 강원/제주(64.1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중견기업(60.62%), 대기업(59.08%), 중기업(57.91%), 소기업(54.52%) 순의 비중을 보임.

▷ 권역별/규모별/고용별 디자인 개발 비중(건 수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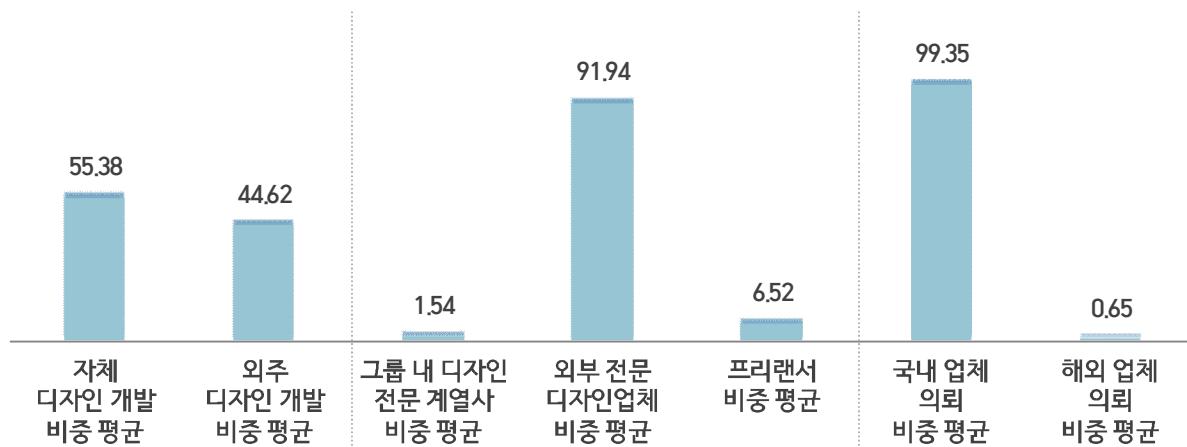
구분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	그룹 내 디자인 전문 계열사 비중	외부 전문 디자인 업체 비중	프리랜서 비중	국내 업체 의뢰 비중	해외 업체 의뢰 비중
활용업체		55.43	44.57	1.55	91.96	6.49	99.35	0.65
권 역 별	서울	64.20	35.80	3.18	90.02	6.80	99.61	0.39
	부산/울산/경남	43.88	56.12	1.24	96.57	2.20	100.00	0.00
	대구/경북	57.98	42.02	1.15	95.57	3.28	100.00	0.00
	인천	47.81	52.19	3.10	96.90	0.00	100.00	0.00
	경기	53.51	46.49	0.53	83.24	16.23	99.97	0.03
	광주/전라	46.74	53.26	0.00	98.98	1.02	100.00	0.00
	대전/충청	56.23	43.77	0.00	95.96	4.04	99.99	0.01
	강원/제주	35.89	64.11	0.00	98.51	1.49	89.92	10.08
규 모 별	대기업	59.08	40.92	6.60	87.35	6.05	94.63	5.37
	중견기업	60.62	39.38	7.31	90.59	2.09	98.45	1.55
	중기업	57.91	42.09	0.49	95.45	4.06	99.71	0.29
	소기업	54.52	45.48	1.73	90.94	7.33	99.31	0.69
고 용	디자이너 고용	93.01	6.99	3.37	85.37	11.26	99.70	0.30
	디자이너 비고용	0.00	100.00	0.98	94.01	5.01	99.24	0.76

5-2) 디자인 개발 비중(비용 기준)

- 디자인 개발 비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55.38%,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은 44.62%로 나타남. 외주 디자인 개발 방법으로 '외부 전문 디자인업체' 비중이 91.94%, '국내 업체 의뢰' 비중이 99.35%로 높게 나타남.

디자인 개발 비중(비용 기준)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공간디자인(95.96%)에서 가장 높고,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은 디자인 인프라(61.6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디자인 개발 비중(비용 기준)

(단위: %)

구분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	그룹 내 디자인 전문 계열사 비중	외부 전문 디자인업체 비중	프리랜서 비중	국내 업체 의뢰 비중	해외 업체 의뢰 비중
활용업체	55.38	44.62	1.54	91.94	6.52	99.35	0.65
업종별	제품디자인	59.22	40.78	3.06	87.69	9.25	99.72
	시각디자인	59.51	40.49	2.81	80.30	16.89	99.99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59.89	40.11	0.00	83.09	16.91	99.87
	공간디자인	95.96	4.04	6.29	86.91	6.80	100.0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71.90	28.10	0.00	92.49	7.51	98.13
	서비스/경험디자인	45.31	54.69	0.16	99.60	0.24	98.09
	산업공예디자인	41.92	58.08	0.61	99.39	0.00	100.00
	디자인인프라	38.40	61.60	1.83	90.76	7.40	99.85

- 권역별로 살펴보면,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서울(64.04%)에서 가장 높고,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은 강원/제주(64.1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중견기업(60.71%), 대기업(59.09%), 중기업(57.99%), 소기업(54.43%) 순의 비중을 보임.

▷ 권역별/규모별/고용별 디자인 개발 비중(비용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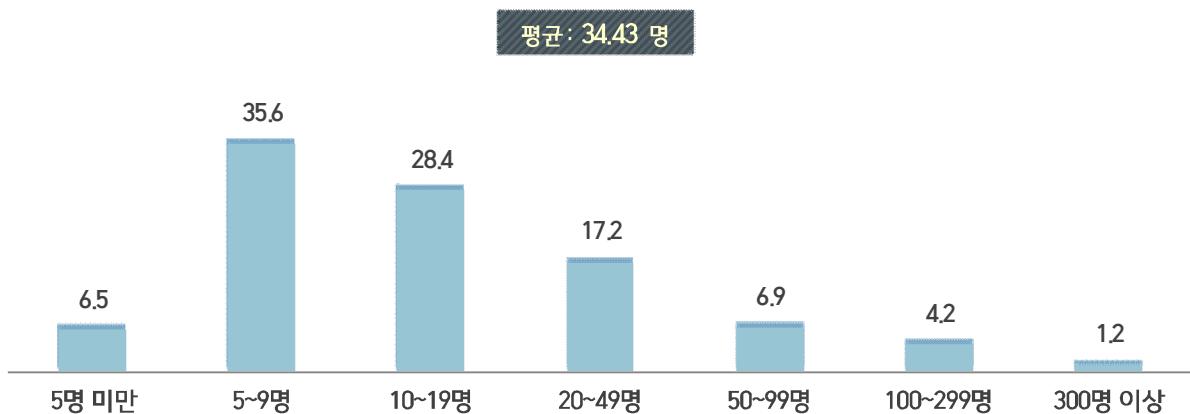
구분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	그룹 내 디자인 전문 계열사 비중	외부 전문 디자인 업체 비중	프리랜서 비중	국내 업체 의뢰 비중	해외 업체 의뢰 비중
활용업체		55.38	44.62	1.54	91.94	6.52	99.35	0.65
권 역 별	서울	64.04	35.96	3.16	89.98	6.86	99.61	0.39
	부산/울산/경남	43.93	56.07	1.24	96.56	2.20	100.00	0.00
	대구/경북	57.97	42.03	1.15	95.57	3.28	100.00	0.00
	인천	47.81	52.19	3.10	96.90	0.00	100.00	0.00
	경기	53.59	46.41	0.53	83.24	16.23	99.97	0.03
	광주/전라	46.74	53.26	0.00	98.98	1.02	100.00	0.00
	대전/충청	56.10	43.90	0.00	95.87	4.13	99.99	0.01
	강원/제주	35.89	64.11	0.00	98.51	1.49	89.92	10.08
규 모 별	대기업	59.09	40.91	6.12	87.83	6.05	94.63	5.37
	중견기업	60.71	39.29	7.26	91.09	1.65	98.46	1.54
	중기업	57.99	42.01	0.49	95.42	4.09	99.71	0.29
	소기업	54.43	45.57	1.73	90.91	7.36	99.31	0.69
고 용	디자이너 고용	92.93	7.07	3.34	85.41	11.24	99.70	0.30
	디자이너 비고용	0.00	100.00	0.98	93.97	5.05	99.24	0.76

6) 직원 수

- 디자인활용업체의 총 종사자 수는 업체 평균 34.4명으로 나타남.
 '5~9명' 종사자 고용 업체가 35.6%로 가장 많고,
 다음은 '10~19명'(28.4%), '20~49명'(1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디자인활용업체 직원 수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품디자인의 평균 종사자 수가 82.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디자인인프라(32.5명), 서비스/경험디자인(29.2명),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27.8명),
 시각디자인(27.0명) 등의 순임.

▶ 업종별 디자인활용업체 직원 수

(단위: %)

구분		5명 미만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평균 (명)
활용업체		6.5	35.6	28.4	17.2	6.9	4.2	1.2	34.4
업종별	제품디자인	1.8	25.2	29.5	23.8	11.4	5.9	2.4	82.8
	시각디자인	8.7	39.4	25.3	18.2	3.7	3.0	1.7	27.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3.2	33.9	35.4	17.1	7.8	1.3	1.2	27.8
	공간디자인	1.3	48.7	26.4	15.3	5.0	2.5	0.8	22.4
	패션/텍스타일디자인	1.8	44.0	33.4	14.6	4.5	1.5	0.2	18.3
	서비스/경험디자인	4.6	36.5	25.5	21.4	7.1	4.2	0.8	29.2
	산업공예디자인	9.7	34.7	31.2	13.1	8.7	1.5	1.1	24.0
	디자인인프라	12.2	30.6	29.7	13.6	6.7	5.9	1.2	32.5

- 권역별로는, 종사자 수는 인천(46.5명)이 가장 많고, 다음은 서울(39.7명), 경기(37.1명) 등의 순임.
- 디자이너 고용업체(35.5명)가 디자이너 비고용업체(32.8명)보다 종사자 수가 많고, 외주 용역업체(42.8명)가 외주 용역을 주지 않는 업체(25.0명)보다 많음.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활용업체 직원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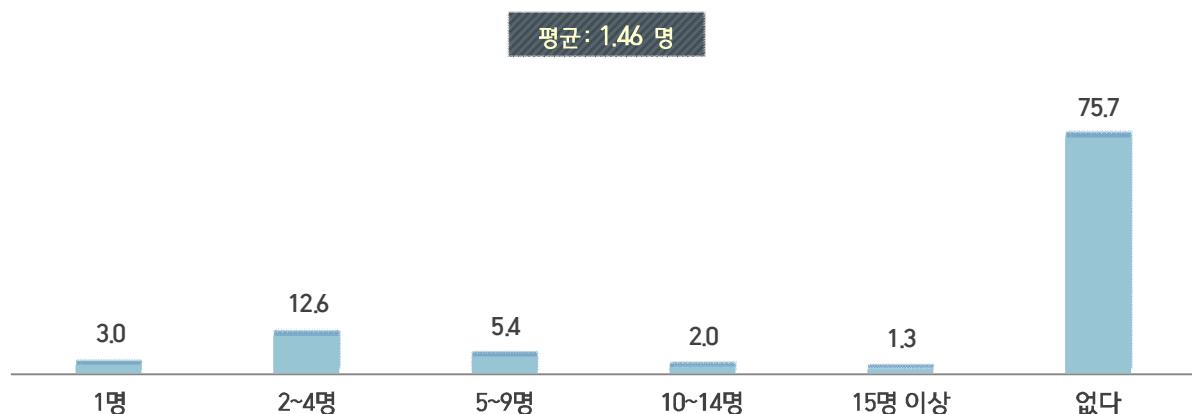
구분		5명 미만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평균(명)
활용업체		6.5	35.6	28.4	17.2	6.9	4.2	1.2	34.4
권 역 별	서울	4.2	33.7	32.4	17.6	6.6	3.9	1.6	39.7
	부산/울산/경남	14.3	33.2	21.2	16.1	8.4	6.1	0.7	30.8
	대구/경북	1.5	34.7	32.6	17.1	8.5	4.8	0.8	26.8
	인천	18.7	10.8	38.6	19.9	1.6	6.8	3.6	46.5
	경기	3.7	38.4	26.5	20.8	5.5	4.3	0.8	37.1
	광주/전라	5.7	40.5	27.3	12.5	10.0	3.9	0.1	26.0
	대전/충청	4.4	45.2	21.9	15.2	8.3	2.9	2.1	31.0
	강원/제주	26.2	38.1	23.8	8.3	2.5	0.9	0.2	12.2
규 모 별	대기업	0.0	0.0	0.0	0.0	15.4	58.4	26.1	782.0
	중견기업	0.0	0.0	0.0	6.4	16.6	50.1	27.0	259.4
	중기업	0.2	11.9	24.5	32.9	20.5	7.3	2.7	56.1
	소기업	8.7	44.1	30.4	12.6	2.3	1.9	0.0	14.9
고 용	디자이너 고용	1.7	39.6	31.0	17.1	6.5	3.0	1.1	35.5
	디자이너 비고용	13.6	29.7	24.6	17.3	7.3	6.1	1.4	32.8
외 주	외주용역 있음	11.5	31.1	24.0	17.6	9.1	5.1	1.5	42.8
	외주용역 없음	0.8	40.7	33.4	16.7	4.3	3.2	0.8	25.0

6-1) 디자인 부서 직원 수

-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인 부서 직원 수는 업체 평균 1.46명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2~4명'이 12.6%, '5~9명'이 5.4%로 나타났으며,
디자인 부서 직원이 '없다'는 75.7%로 높게 나타남.

디자인활용업체 디자인 부서 직원 수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공간디자인(2.92명)이 가장 높고, 다음은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2.62명), 패션/텍스타일디자인(2.25명) 등의 순으로 높음.

▶ 업종별 디자인활용업체 디자인 부서 직원 수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3.0	12.6	5.4	2.0	1.3	75.7	1.46
업종별	제품디자인	6.6	20.7	3.0	1.8	0.6	67.3	1.59
	시각디자인	5.9	27.6	4.5	2.0	0.5	59.5	1.4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7.6	18.5	12.0	2.3	3.9	55.8	2.62
	공간디자인	2.7	8.7	11.3	3.7	2.9	70.6	2.92
	패션/텍스타일디자인	4.0	28.2	7.4	1.1	2.5	56.8	2.25
	서비스/경험디자인	1.2	4.1	6.8	2.1	1.5	84.2	1.22
	산업공예디자인	0.7	13.0	2.7	0.6	0.0	83.0	0.64
	디자인인프라	1.8	11.0	1.9	1.3	0.4	83.6	0.71

- 권역별로는 서울이 2.56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대구/경북(1.51명), 인천(1.26명), 경기(0.92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종사자 수가 많은 사업체일수록 높은 디자인 부서 직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활용업체 디자인 부서 직원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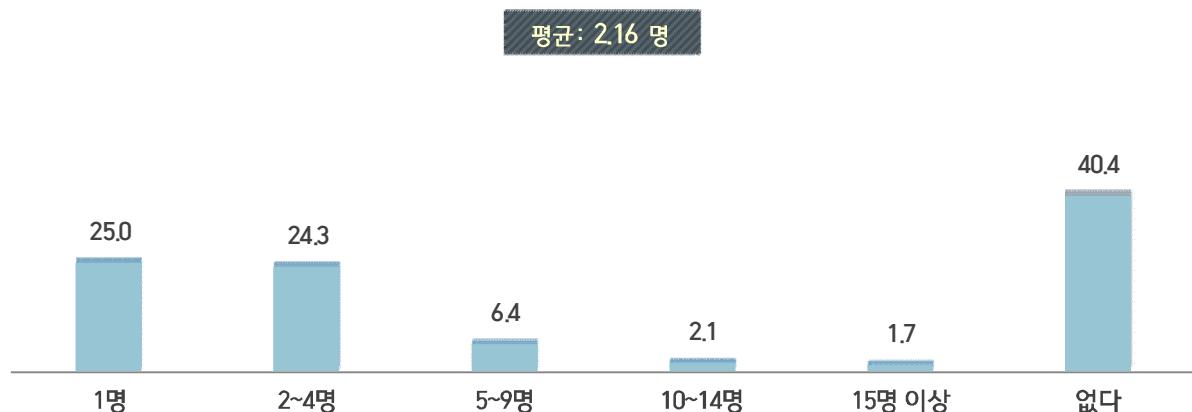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3.0	12.6	5.4	2.0	1.3	75.7	1.46
권 역 별	서울	4.4	17.3	9.9	2.9	2.6	62.8	2.56
	부산/울산/경남	2.8	6.2	1.8	1.7	0.5	87.1	0.62
	대구/경북	0.9	21.0	2.2	4.3	0.5	71.2	1.51
	인천	6.6	8.6	8.2	2.7	0.8	73.1	1.26
	경기	1.8	12.5	4.9	0.9	0.3	79.6	0.92
	광주/전라	0.8	4.2	1.3	0.3	0.4	92.9	0.63
	대전/충청	0.7	6.2	0.6	0.9	1.2	90.3	0.50
	강원/제주	7.2	4.5	0.0	0.1	0.1	88.2	0.24
규 모 별	대기업	0.0	15.1	1.3	4.5	10.2	68.8	9.27
	중견기업	0.0	6.1	4.3	5.9	15.9	67.9	9.33
	중기업	2.4	11.8	6.1	6.5	2.3	70.9	2.56
	소기업	3.2	12.9	5.3	0.4	0.6	77.5	0.89
외 주	외주용역 있음	1.7	3.9	0.8	1.2	0.8	91.6	0.66
	외주용역 없음	4.4	22.4	10.6	2.8	1.8	57.8	2.36

6-2) 디자이너 수

-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이너 수 평균은 2.16명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1명'은 25.0%, '2~4명'은 24.3%로 활용업체의 절반가량이 디자이너를 1명 또는 2~4명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디자인활용업체 디자이너 수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품디자인이 3.22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공간디자인(2.81명), 패션/텍스타일디자인(2.7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활용업체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25.0	24.3	6.4	2.1	1.7	40.4	2.16
업종별	제품디자인	0.0	47.5	9.3	4.8	2.0	36.4
	시각디자인	27.0	28.6	9.2	0.4	2.5	32.4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26.5	22.9	10.4	3.0	1.6	35.6
	공간디자인	51.0	38.9	5.8	2.7	0.7	2.81
	패션/텍스타일디자인	36.1	23.1	12.6	1.1	2.3	24.8
	서비스/경험디자인	24.8	18.2	3.1	3.3	1.9	48.7
	산업공예디자인	0.0	29.8	11.0	2.5	0.7	55.9
	디자인인프라	22.2	11.4	5.4	0.5	1.8	58.7

-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12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대구/경북(2.35명), 인천(1.93명), 대전/충청(1.87명), 경기(1.82명) 등의 순으로 높음.
-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많은 디자이너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기업은 11.2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활용업체 디자이너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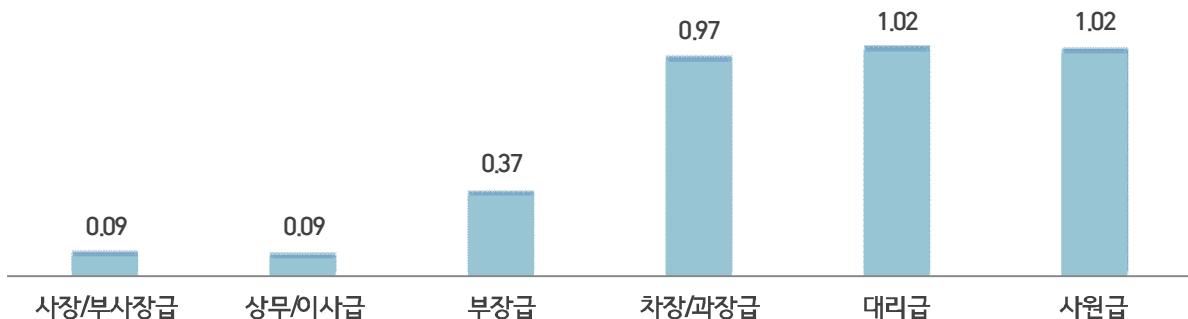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25.0	24.3	6.4	2.1	1.7	40.4	2.16
권 역 별	서울	26.4	28.5	7.9	3.4	3.3	30.5	3.12
	부산/울산/경남	24.2	18.6	2.5	0.8	0.5	53.4	1.14
	대구/경북	19.6	27.0	9.3	5.2	0.5	38.4	2.35
	인천	22.5	17.3	6.0	3.5	0.9	49.9	1.93
	경기	20.2	26.7	7.7	1.2	0.6	43.6	1.82
	광주/전라	32.5	14.8	1.9	0.3	0.7	49.8	1.09
	대전/충청	29.6	24.0	7.4	0.0	2.1	36.8	1.87
	강원/제주	30.6	8.8	0.0	0.0	0.1	60.5	0.64
규 모 별	대기업	5.3	20.0	16.7	7.5	14.7	35.8	11.26
	중견기업	23.4	18.1	3.4	0.6	21.8	32.7	8.72
	중기업	26.0	24.8	5.4	5.2	3.6	35.0	3.10
	소기업	25.0	24.3	6.7	1.1	0.6	42.3	1.65
외 주	외주용역 있음	12.7	6.8	2.1	0.4	1.7	76.3	0.97
	외주용역 없음	38.9	44.1	11.3	4.1	1.7	0.0	3.49

6-2-1) 직급별 디자이너 수

- 직급별 디자이너 수를 살펴보면, '대리급'(1.02명)과 '사원급'(1.02명), '차장/과장급'(0.97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디자인활용업체 직급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리급' 디자이너 수는 산업공예디자인(1.45명), 제품디자인(1.33명), 서비스/경험디자인(1.29명) 등의 순으로 높고, '사원급' 디자이너 수는 패션/텍스타일디자인(1.74명), 디자인인프라(1.63명),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1.59명) 등의 순으로 높음.

▶ 업종별 디자인활용업체 직급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사장/ 부사장급	상무/이사급	부장급	차장/과장급	대리급	사원급
활용업체		0.09	0.09	0.37	0.97	1.02	1.02
업 종 별	제품디자인	0.22	0.08	0.47	1.49	1.33	0.93
	시각디자인	0.00	0.02	0.39	0.73	1.09	1.21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06	0.10	0.41	0.62	0.84	1.59
	공간디자인	0.15	0.13	0.38	0.95	0.74	0.49
	패션/텍스타일디자인	0.11	0.07	0.26	0.57	0.88	1.74
	서비스/경험디자인	0.04	0.13	0.51	1.34	1.29	0.70
	산업공예디자인	0.03	0.00	0.31	1.56	1.45	0.71
	디자인인프라	0.03	0.04	0.22	0.60	0.93	1.63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리급'은 서울(1.25명), 인천(1.14명), 경기(1.02명) 등의 순으로 높고, '사원급'은 서울(1.35명), 대구/경북(1.50명), 대전/충청(1.13명) 등의 순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견기업에서 '대리급'(4.60명)과 '사원급'(3.24명), '차장/과장급'(3.79명)이 상대적으로 많고, '부장급'은 대기업(1.34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활용업체 직급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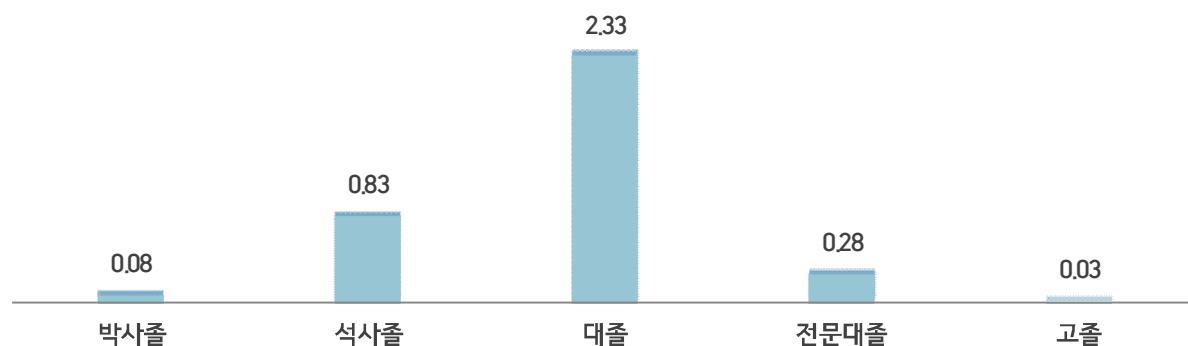
구분		사장/ 부사장급	상무/이사급	부장급	차장/과장급	대리급	사원급
활용업체		0.09	0.09	0.37	0.97	1.02	1.02
권 역 별	서울	0.07	0.12	0.44	1.16	1.25	1.35
	부산/울산/경남	0.04	0.07	0.38	0.68	0.73	0.53
	대구/경북	0.10	0.06	0.26	1.11	0.79	1.50
	인천	0.00	0.16	0.49	0.98	1.14	1.06
	경기	0.15	0.05	0.38	0.90	1.02	0.62
	광주/전라	0.06	0.08	0.18	0.81	0.82	0.23
	대전/충청	0.19	0.07	0.18	0.74	0.64	1.13
	강원/제주	0.00	0.01	0.49	0.28	0.44	0.39
규 모 별	대기업	0.00	0.27	1.34	2.96	4.03	2.31
	중견기업	0.00	0.27	1.05	3.79	4.60	3.24
	중기업	0.02	0.14	0.50	1.42	1.55	1.13
	소기업	0.12	0.06	0.30	0.74	0.72	0.92
외 주	외주용역 있음	0.02	0.07	0.47	0.94	1.16	1.13
	외주용역 없음	0.11	0.09	0.35	0.98	0.98	0.99

6-2-2) 학력별 디자이너 수

- 평균 디자이너 수를 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대졸' 디자이너가 평균 2.33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석사졸'(0.83명), '전문대졸'(0.28명) 등의 순임.

디자인활용업체 학력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졸' 디자이너 수는 제품디자인(3.22명)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서비스/경험디자인(2.81명), 패션/텍스타일디자인(2.65명) 등의 순으로 높음. '석사졸'은 산업공예디자인(1.39명), 시각디자인(1.15명), 제품디자인(0.94명) 등의 순임.

▷ 업종별 디자인활용업체 학력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박사졸	석사졸	대졸	전문대졸	고졸 이하
업종별	활용업체	0.08	0.83	2.33	0.28	0.03
	제품디자인	0.18	0.94	3.22	0.16	0.03
	시각디자인	0.03	1.15	2.20	0.06	0.0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20	0.70	2.32	0.16	0.22
	공간디자인	0.06	0.72	1.76	0.27	0.02
	패션/텍스타일디자인	0.04	0.86	2.65	0.07	0.01
	서비스/경험디자인	0.07	0.55	2.81	0.55	0.03
	산업공예디자인	0.02	1.39	2.40	0.25	0.00
	디자인인프라	0.08	0.95	2.11	0.32	0.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졸' 디자이너 수의 평균이 모든 권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서울(2.89명), 인천(2.20명), 대구/경북(2.19명) 등의 순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졸' 디자이너 수는 중견기업(10.13명)에서 가장 높고, '석사졸' 디자이너 수는 대기업(2.02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활용업체 학력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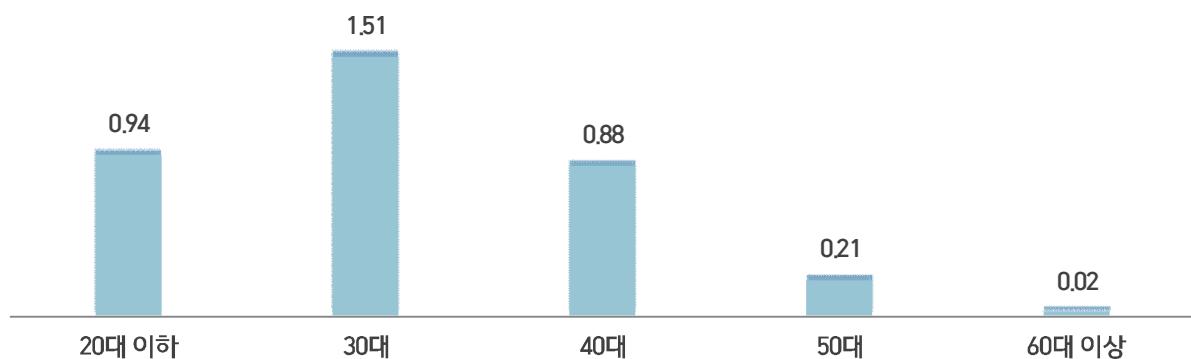
구분		박사졸	석사졸	대졸	전문대졸	고졸 이하
활용업체		0.08	0.83	2.33	0.28	0.03
권 역 별	서울	0.05	0.94	2.89	0.46	0.04
	부산/울산/경남	0.00	0.64	1.72	0.07	0.01
	대구/경북	0.12	1.26	2.19	0.23	0.03
	인천	0.25	1.27	2.20	0.09	0.03
	경기	0.11	0.71	2.12	0.17	0.01
	광주/전라	0.18	0.47	1.33	0.20	0.00
	대전/충청	0.12	0.64	2.07	0.12	0.00
	강원/제주	0.00	0.36	1.07	0.12	0.06
규 모 별	대기업	0.08	2.02	7.62	1.11	0.08
	중견기업	0.01	1.88	10.13	0.90	0.03
	중기업	0.10	0.92	3.20	0.51	0.04
	소기업	0.08	0.76	1.81	0.18	0.02
외 주	외주용역 있음	0.12	0.64	2.68	0.31	0.03
	외주용역 없음	0.07	0.88	2.24	0.28	0.03

6-2-3) 연령별 디자이너 수

- 연령별 디자이너 수를 살펴본 결과, '30대' 디자이너가 평균 1.51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20대 이하'(0.94명), '40대'(0.88명), '50대'(0.21명), '60대 이상'(0.02명) 순임.

디자인활용업체 연령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업종별로 살펴보면, '30대' 디자이너 수는 제품디자인(2.28명)에서 가장 높고, 이어 시각디자인(1.91명),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1.83명) 등의 순임. '20대 이하'는 패션/텍스타일디자인(1.53명),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1.26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디자인활용업체 연령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업종별	활용업체	0.94	1.51	0.88	0.21	0.02
	제품디자인	0.95	2.28	0.96	0.29	0.05
	시각디자인	0.63	1.91	0.82	0.07	0.0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26	1.83	0.42	0.10	0.00
	공간디자인	0.64	0.95	0.92	0.28	0.04
	패션/텍스타일디자인	1.53	1.37	0.57	0.14	0.02
	서비스/경험디자인	1.04	1.67	1.02	0.26	0.02
	산업공예디자인	0.56	1.62	1.60	0.28	0.00
	디자인인프라	1.15	1.41	0.75	0.13	0.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30대' 디자이너 수는 인천(1.89명)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서울(1.77명), 대구/경북(1.51명) 등의 순으로 높음.
- 규모별로 연령별 디자이너 수 평균을 살펴보면, '20대 이하'와 '30대' 모두 중견기업 (각각 3.75명, 6.23명), '40대', '50대'는 대기업(각각 2.68명, 0.70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활용업체 연령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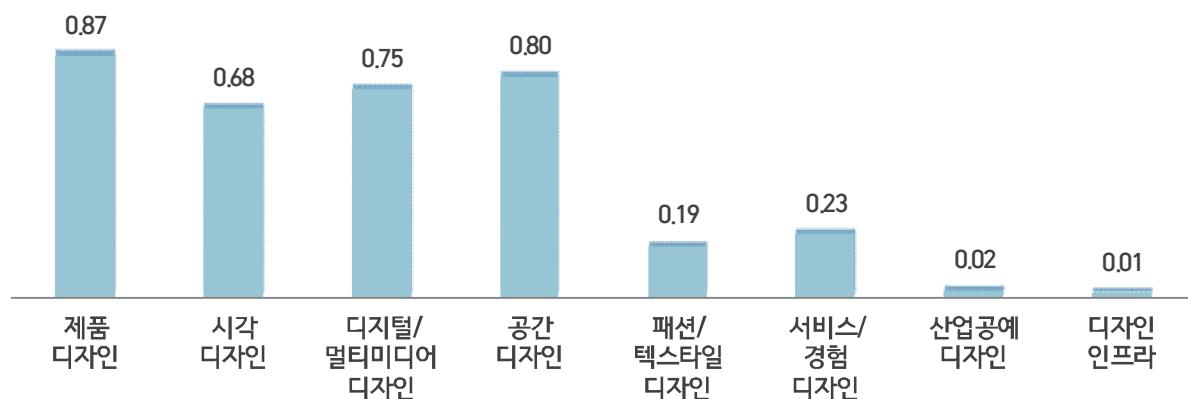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활용업체		0.94	1.51	0.88	0.21	0.02
권 역 별	서울	1.29	1.77	1.09	0.22	0.02
	부산/울산/경남	0.56	1.07	0.62	0.17	0.02
	대구/경북	1.41	1.51	0.72	0.18	0.00
	인천	0.82	1.89	0.93	0.20	0.00
	경기	0.54	1.56	0.81	0.17	0.03
	광주/전라	0.57	0.87	0.50	0.20	0.04
	대전/충청	0.57	1.10	0.84	0.40	0.05
	강원/제주	0.13	1.00	0.30	0.18	0.00
규 모 별	대기업	2.69	4.83	2.68	0.70	0.02
	중견기업	3.75	6.23	2.44	0.48	0.04
	중기업	1.26	2.04	1.28	0.18	0.01
	소기업	0.74	1.19	0.68	0.21	0.03
외 주	외주용역 있음	0.97	1.71	0.94	0.14	0.02
	외주용역 없음	0.93	1.45	0.86	0.23	0.02

6-2-4)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를 살펴본 결과, '제품디자인'(0.87명), '공간디자인'(0.80명),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0.75명), '시각디자인'(0.68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디자인활용업체 영역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권역별로 살펴보면, '제품디자인' 분야 디자이너 수는 인천(2.27명)에서 가장 많고, 이어 대구/경북(1.58명), 경기(1.28명), 대전/충청(1.21명) 등의 순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제품디자인' 분야는 규모가 클수록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과 '공간디자인' 분야의 경우 중견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활용업체 영역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공간 디자인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활용업체	0.87	0.68	0.75	0.80	0.19	0.23	0.02	0.01
권역별	서울	0.57	0.88	1.22	1.23	0.34	0.10	0.03
	부산/울산/경남	0.61	0.70	0.19	0.81	0.02	0.07	0.04
	대구/경북	1.58	0.80	0.53	0.12	0.07	0.63	0.00
	인천	2.27	0.47	0.06	0.91	0.13	0.00	0.00
	경기	1.28	0.52	0.60	0.45	0.11	0.14	0.02
	광주/전라	0.44	0.25	0.59	0.65	0.02	0.20	0.00
	대전/충청	1.21	0.25	0.11	0.28	0.09	0.96	0.05
	강원/제주	0.19	0.87	0.00	0.38	0.00	0.18	0.00
규모별	대기업	5.90	0.69	0.21	1.89	2.13	0.09	0.00
	중견기업	2.80	1.79	2.77	2.74	2.22	0.54	0.00
	중기업	1.47	0.56	0.59	1.50	0.24	0.36	0.03
	소기업	0.56	0.70	0.78	0.50	0.10	0.17	0.02
외주	외주용역 있음	1.13	1.03	0.49	0.77	0.15	0.12	0.04
	외주용역 없음	0.80	0.59	0.82	0.80	0.20	0.26	0.02

6-2-5)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 디자인활용업체 남자 종사자 수는 23.02명, 여자 종사자 수는 11.42명으로 남자 종사자 수가 높게 나타남. 반면, 여자 디자이너 종사자 수는 1.15명으로 남자 디자이너 종사자 수(1.00명) 대비 높음.

디자인활용업체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업종별로 살펴보면, '남자 종사자'의 경우 제품디자인(65.85명)에서 가장 높고, '남자 디자이너' 역시 제품디자인(1.95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여자 디자이너'의 경우 패션/텍스타일디자인(2.39명), 시각디자인(1.67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활용업체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남자 종사자 수	여자 종사자 수	디자인 부서 남자 종사자 수	디자인 부서 여자 종사자 수	디자이너 남자 종사자 수	디자이너 여자 종사자 수
활용업체	23.02	11.42	0.76	0.70	1.00	1.15
업종별						
제품디자인	65.85	16.96	0.98	0.61	1.95	1.28
	13.52	13.46	0.47	0.93	0.65	1.67
	16.25	11.71	1.38	1.25	1.02	1.30
	17.26	5.18	1.99	0.93	1.92	0.89
	7.86	10.43	0.28	1.98	0.35	2.39
	17.95	11.27	0.64	0.58	1.03	1.03
	18.26	5.74	0.33	0.31	1.00	0.78
	19.48	13.00	0.25	0.45	0.35	1.07

- 권역별로 분석해 보면, '남자 디자이너'는 서울(1.31명)에서 가장 많고, 인천(1.11명), 대구/경북(1.07명), 경기(0.98명) 등의 순임. '여자 디자이너' 역시 서울(1.81명)에서 가장 많고, 대구/경북(1.28명), 대전/충청(1.0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클수록 전반적으로 남녀 디자이너 모두 높은 특징을 보이는 한편, '여자 디자이너'는 중견기업(5.45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활용업체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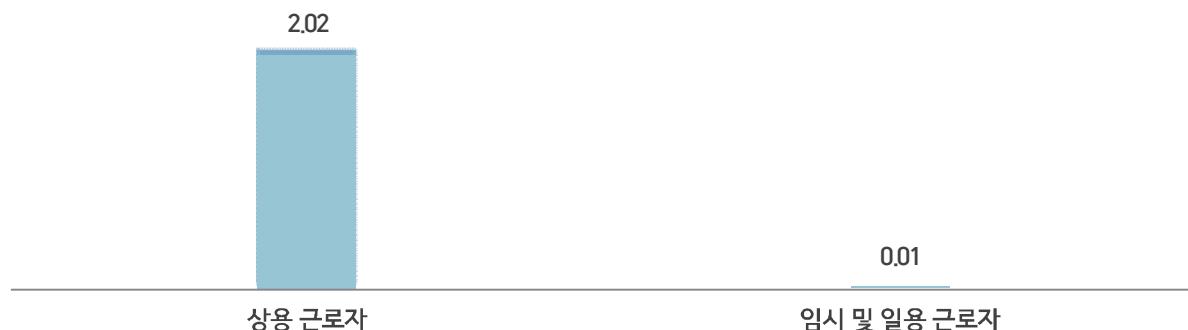
구분		남자 종사자 수	여자 종사자 수	디자인 부서 남자 종사자 수	디자인 부서 여자 종사자 수	디자이너 남자 종사자 수	디자이너 여자 종사자 수
활용업체		23.02	11.42	0.76	0.70	1.00	1.15
권 역 별	서울	25.99	13.67	1.24	1.32	1.31	1.81
	부산/울산/경남	23.07	7.70	0.42	0.20	0.60	0.53
	대구/경북	18.68	8.12	0.53	0.98	1.07	1.28
	인천	32.30	14.24	0.98	0.28	1.11	0.81
	경기	23.89	13.22	0.55	0.37	0.98	0.84
	광주/전라	15.62	10.37	0.46	0.17	0.64	0.45
	대전/충청	22.01	8.97	0.34	0.16	0.84	1.02
	강원/제주	7.97	4.26	0.17	0.07	0.37	0.27
규 모 별	대기업	620.99	161.01	5.09	4.18	6.26	5.00
	중견기업	171.69	87.84	5.52	3.81	3.27	5.45
	중기업	34.41	21.73	1.35	1.21	1.34	1.76
	소기업	9.77	5.14	0.45	0.45	0.80	0.85
고 용	디자이너 고용	23.91	11.64	1.28	1.17	1.68	1.94
	디자이너 비고용	21.70	11.10	0.00	0.00	0.00	0.00
외 주	외주용역 있음	29.57	13.20	0.37	0.29	0.42	0.56
	외주용역 없음	15.64	9.43	1.20	1.16	1.66	1.83

6-2-6) 근로자 형태별 디자이너 수

- 근로자 형태별로 디자이너 현황을 살펴본 결과, '상용근로자'가 2.02명,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평균 0.01명으로 나타남.

디자인활용업체 근로자 형태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디자이너는 공간디자인(4.71명)에서 가장 많고, 다음은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3.47명), 패션/텍스타일디자인(2.44명) 등의 순임.

▶ 업종별 디자인활용업체 근로자 형태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업종별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활용업체	수	활용업체	수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상용근로자	2.02	임시 및 일용근로자	0.01
	시각디자인		1.78		0.0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69		0.01
	공간디자인		3.47		0.13
	패션/텍스타일디자인		4.71		0.00
	서비스/경험디자인		2.44		0.05
	서비스/경험디자인		1.52		0.00
	산업공예디자인		0.99		0.00
	디자인인프라		1.05		0.01

- 권역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디자이너 수는 서울(3.05명)에서 가장 많고, 다음은 대구/경북(1.88명), 경기(1.54명), 인천(1.5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는 '상용근로자' 디자이너 수가 대기업에서 9.9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중견기업(7.75명)이 뒤를 이음.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활용업체 근로자 형태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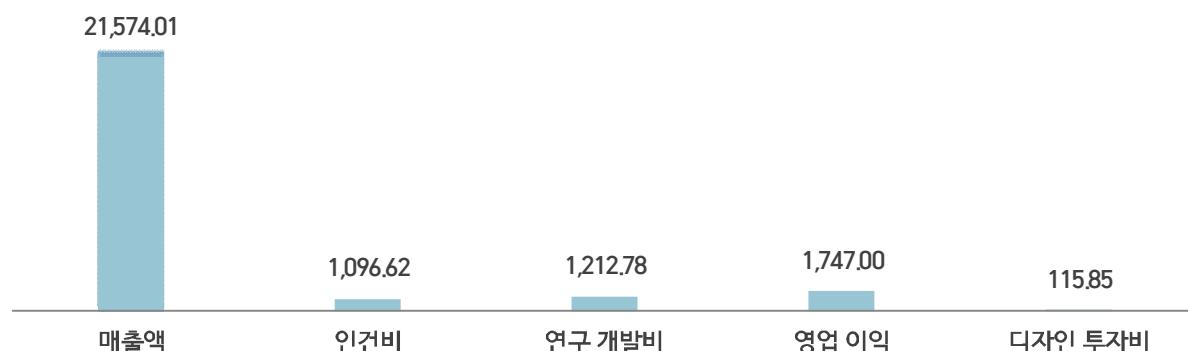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활용업체		2.02	0.01
권 역 별	서울	3.05	0.02
	부산/울산/경남	1.16	0.02
	대구/경북	1.88	0.00
	인천	1.54	0.00
	경기	1.54	0.01
	광주/전라	1.36	0.00
	대전/충청	1.49	0.00
	강원/제주	0.59	0.00
규 모 별	대기업	9.93	0.04
	중견기업	7.75	0.04
	중기업	2.99	0.00
	소기업	1.52	0.01
외 주	외주용역 있음	0.82	0.02
	외주용역 없음	3.37	0.00

7) 2016년 재무 및 투자 현황

- 디자인활용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215억 7,401만원으로 나타났고, 평균 인건비는 10억 9,662만원, 평균 연구개발비는 12억 1,278만원, 평균 영업이익은 17억 4,700만원으로 나타남.
- 한편,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은 1억 1,585만원으로 나타남.

2016년 재무 및 투자 현황

(단위: 백만 원)



- 업종별로 살펴보면, '매출액'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287억 5,590만원), 제품디자인(240억 1,079만원) 등의 순으로 높고, '인건비'는 제품디자인(14억 7,532만원), 공간디자인(14억 6,910만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2016년 재무 및 투자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매출액	인건비	연구개발비	영업 이익	디자인 투자비
활용업체	21,574.01	1,096.62	1,212.78	1,747.00	115.85
업종별	제품디자인	24,010.79	1,475.32	1,525.31	1,214.29
	시각디자인	17,942.76	757.58	605.81	1,616.91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3,742.28	676.49	427.56	351.21
	공간디자인	18,132.23	1,469.10	318.06	277.76
	패션/텍스타일디자인	28,755.90	1,130.07	2,045.82	3,939.77
	서비스/경험디자인	19,050.48	646.67	453.41	2,598.44
	산업공예디자인	14,380.95	863.31	835.23	453.92
	디자인인프라	8,953.13	371.04	231.88	379.35
					80.66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매출액'은 경기(287억, 5,590만원)가 가장 높고, 이어 서울(240억 1,079만원), 부산/울산/경남(179억 4,276만원) 등의 순임.
 '디자인 투자비'는 서울(1억 5,438만원), 대구/경북(1억 3,857만원), 대전/충청(1억 3,331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모든 재무 및 투자 현황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 '매출액'의 경우 디자이너 고용 업체(251억 8,554만원)와 디자인 외주용역 업체(308억 1,545만원), '디자인 투자비'는 디자이너 고용 업체(1억 8,070만원)가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2016년 재무 및 투자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매출액	인건비	연구개발비	영업 이익	디자인 투자비
활용업체		21,574.01	1,096.62	1,212.78	1,747.00	115.85
권 역 별	서울	24,010.79	1,475.32	1,525.31	1,214.29	154.38
	부산/울산/경남	17,942.76	757.58	605.81	1,616.91	73.35
	대구/경북	13,742.28	676.49	427.56	351.21	138.57
	인천	18,132.23	1,469.10	318.06	277.76	108.24
	경기	28,755.90	1,130.07	2,045.82	3,939.77	100.60
	광주/전라	19,050.48	646.67	453.41	2,598.44	40.66
	대전/충청	14,380.95	863.31	835.23	453.92	133.31
	강원/제주	8,953.13	371.04	231.88	379.35	42.89
규 모 별	대기업	1,078,791.04	31,983.11	81,308.48	87,267.76	897.83
	중견기업	191,757.83	9,365.19	6,754.78	9,530.92	785.81
	중기업	27,992.00	1,734.57	1,125.65	3,278.44	166.77
	소기업	3,943.46	387.41	173.57	76.25	79.68
고 용	디자이너 고용	25,185.54	1,237.67	1,957.68	1,526.64	180.70
	디자이너 비고용	16,246.48	888.54	113.95	2,066.77	20.18
외 주	외주용역 있음	30,815.45	1,382.03	1,539.15	2,932.89	91.01
	외주용역 없음	11,160.12	774.99	845.01	411.90	143.85

7-1) 2016년 디자인 투자금액

- 세부항목별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디자이너 인건비'가 8,823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디자인업체 용역비'(1,375만원), '그 외 디자인 용역비'(847만원), '디자인 관련 기타 경상비'(229만원), '디자인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189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16년 디자인 투자금액

(단위: 백만 원)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자이너 인건비'는 제품디자인(1억 8,268만원)에서 가장 높고, 이어 시각디자인(1억 5,009만원),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1억 2,113만원) 등의 순임. '디자인업체 용역비'는 시각디자인(3,336만원),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2,103만원), 제품디자인(1,4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 2016년 디자인 투자금액

(단위: 백만 원)

구분	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업체 용역비	그 외 디자인 용역비	디자인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	디자인 연구개발용 토지/건물	디자인 디자이너 교육비	디자인 지식재산권 구입·관리비	디자인 관련 기타경상비
활용업체	88.23	13.75	8.47	1.89	0.42	0.70	0.16	2.29
업종별	제품디자인	182.68	14.00	19.30	0.18	0.00	0.21	0.03
	시각디자인	150.09	33.36	7.08	1.32	0.00	0.81	0.37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21.13	21.03	4.71	0.00	0.00	0.00	3.33
	공간디자인	82.90	4.49	2.85	1.04	0.52	2.27	0.01
	패션/텍스타일디자인	92.51	4.88	7.01	1.61	0.15	1.33	0.06
	서비스/경험디자인	82.24	9.39	9.39	1.82	0.00	0.01	0.29
	산업공예디자인	45.30	3.99	4.27	0.32	0.00	1.67	0.00
	디자인인프라	47.49	18.22	8.31	3.58	1.03	0.41	0.00
								1.63

- 권역별로 살펴보면, '디자이너 인건비'는 서울(1억 2,811만원)에서 가장 높고, '디자인업체 용역비'는 대전/충청(4,916만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디자이너 인건비'는 규모가 클수록 높은 특징을 보이고, '디자인업체 용역비'는 중견기업(7,480만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2016년 디자인 투자금액

(단위: 백만 원)

구분		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업체 용역비	그 외 디자인 용역비	디자인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	디자인 연구개발용 토지/건물	디자인 디자이너 교육비	디자인 지식재산권 구입·관리비	디자인 관련 기타경상비
활용업체		88.23	13.75	8.47	1.89	0.42	0.70	0.16	2.29
권 역 별	서울	128.11	10.64	9.04	1.08	0.35	1.45	0.38	3.55
	부산/울산/경남	52.39	10.75	7.28	0.75	0.00	0.04	0.09	1.95
	대구/경북	96.82	19.06	7.22	12.30	0.00	0.98	0.04	2.15
	인천	91.20	7.56	7.06	0.76	0.00	0.38	0.03	1.25
	경기	80.71	10.22	7.10	0.81	0.01	0.13	0.01	1.61
	광주/전라	29.17	6.98	2.74	0.66	0.00	0.41	0.00	0.70
	대전/충청	54.62	49.16	22.54	2.03	3.80	0.24	0.00	0.92
	강원/제주	30.59	8.57	1.10	0.50	0.00	0.02	0.00	2.12
규 모 별	대기업	824.96	41.83	21.04	1.36	0.00	1.78	0.00	6.87
	중견기업	663.56	74.80	31.82	3.75	0.00	2.89	0.47	8.51
	중기업	110.36	30.92	17.17	1.68	1.41	1.73	0.03	3.69
	소기업	63.20	7.02	5.20	1.93	0.12	0.33	0.19	1.70
고 용	디자이너 고용	148.04	13.55	10.06	3.17	0.70	1.17	0.26	3.84
	디자이너 비고용	0.00	14.04	6.14	0.00	0.00	0.00	0.00	0.00
외 주	외주용역 있음	48.81	25.61	14.37	0.65	0.55	0.26	0.02	0.84
	외주용역 없음	132.64	0.38	1.83	3.28	0.27	1.20	0.31	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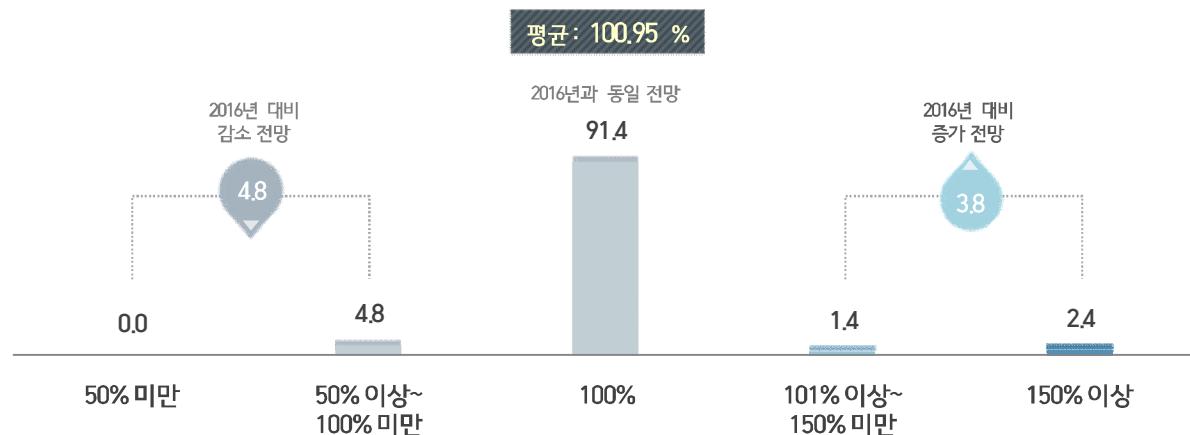
8) 2017년 재무 및 투자 전망^⑬

8-1) 2017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 2016년 대비 2017년 디자인투자금액 전망은 평균 100.95%로 나타남.

2017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단위: %)



- 업종별로는 공간디자인(103.11%)이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비스/경험디자인(97.89%)은 부정적인 전망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2017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단위: %)

업종별	구분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10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평균
		활용업체	0.0	4.8	91.4	1.4	2.4
	제품디자인	0.0	0.0	97.6	1.3	1.1	101.44
	시각디자인	0.3	0.5	92.7	3.0	3.6	102.86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0	0.0	99.4	0.6	0.0	100.18
	공간디자인	0.0	0.0	95.9	0.3	3.8	103.11
	패션/텍스타일디자인	0.0	3.7	89.3	2.6	4.4	101.89
	서비스/경험디자인	0.0	8.0	90.5	0.0	1.6	97.89
	산업공예디자인	0.0	0.0	100.0	0.0	0.0	100.00
	디자인인프라	0.0	9.2	85.3	2.8	2.7	101.38

⑬ 2016년과 같으면 100%, 2016년 보다 증가하면 100%초과, 2016년 보다 감소하면 100% 미만으로 작성
예를 들어 2016년의 절반 수준이면 50%, 2배 증가했으면 200% 등으로 작성

- 권역별로 살펴본 결과, 대구/경북(103.37%)에서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98.62%)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함.
- 디자이너 고용 여부로 살펴보면, 디자이너를 고용한 업체(102.49%)의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2017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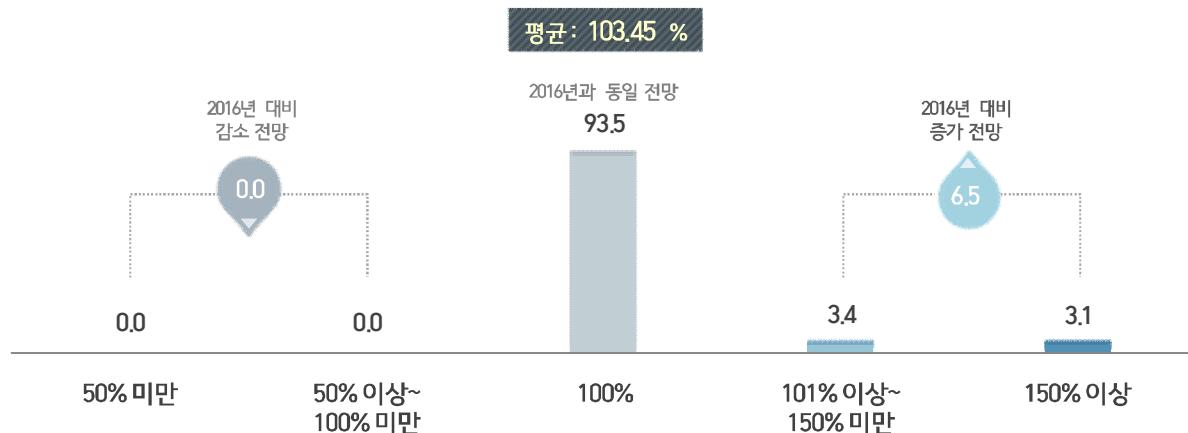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0%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활용업체		0.0	4.8	91.4	1.4	2.4	100.95
권 역 별	서울	0.0	6.3	87.8	1.6	4.3	102.54
	부산/울산/경남	0.0	3.9	94.2	0.3	1.7	100.58
	대구/경북	0.0	5.5	90.1	0.8	3.7	103.37
	인천	0.0	0.0	100.0	0.0	0.0	100.00
	경기	0.0	5.2	91.6	2.5	0.7	98.62
	광주/전라	0.3	2.5	95.9	0.7	0.7	99.52
	대전/충청	0.0	1.7	95.9	1.4	1.0	100.29
	강원/제주	0.0	4.3	93.5	2.3	0.0	99.41
규 모 별	대기업	0.0	0.3	94.5	0.7	3.7	101.75
	중견기업	0.0	0.0	96.6	3.2	0.2	100.55
	중기업	0.1	2.5	92.4	2.3	2.7	101.74
	소기업	0.0	5.7	90.9	1.1	2.3	100.70
고 용	디자이너 고용	0.0	0.1	95.9	1.3	2.7	102.49
	디자이너 비고용	0.1	11.8	84.6	1.7	1.9	98.68
외 주	외주용역 있음	0.0	9.1	86.2	1.9	2.8	100.23
	외주용역 없음	0.0	0.0	97.2	0.9	1.9	101.76

8-2) 2017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⑭

- 2017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은 103.45% 수준으로 2016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범주별로 살펴보면, '2016년과 동일 전망'이 93.5%를 차지했고,
'2016년 대비 증가 전망' (100%초과)은 6.5%로 나타남.

2017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2017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을 증가 또는 유지로 한 가운데, 패션/텍스타일디자인(109.29%), 시각디자인(107.57%)이 다른 업종 대비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2017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0%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활용업체	0.0	0.0	93.5	3.4	3.1	103.45
업종별	제품디자인	0.0	0.0	94.8	3.4	1.7
	시각디자인	0.0	0.0	85.8	5.9	8.3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0	0.0	63.3	32.5	4.3
	공간디자인	0.0	0.0	96.4	0.4	3.3
	패션/텍스타일디자인	0.0	0.0	83.7	8.9	7.4
	서비스/경험디자인	0.0	0.0	97.6	2.4	0.0
	산업공예디자인	0.0	0.0	99.3	0.2	0.6
	디자인인프라	0.0	0.0	96.4	0.3	3.3
						103.37

^⑭ 2016년과 같으면 100%, 2016년 보다 증가하면 100%초과, 2016년 보다 감소하면 100% 미만으로 작성
예를 들어 2016년의 절반 수준이면 50%, 2배 증가했으면 200% 등으로 작성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디자이너 고용 전망이 증가 또는 유지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서울(105.64%)에서 다른 권역 대비 긍정적인 전망이 높음.
- 규모별로는 중기업(104.38%)과 소기업(103.21%)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외주 디자인 개발을 하는 업체(105.82%)의 디자이너 고용 전망이 더욱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2017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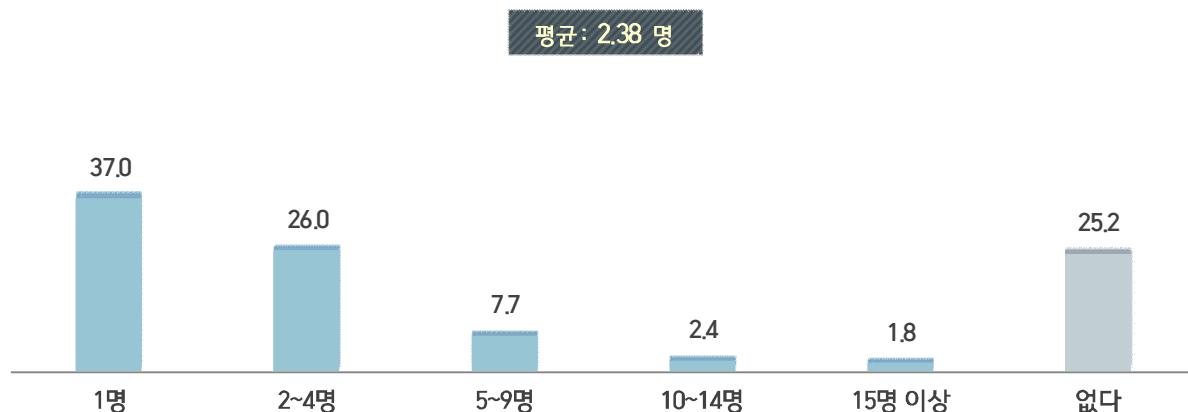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0%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활용업체		0.0	0.0	93.5	3.4	3.1	103.45
권역별	서울	0.0	0.0	90.2	4.9	4.9	105.64
	부산/울산/경남	0.0	0.0	97.2	0.3	2.4	102.15
	대구/경북	0.0	0.0	96.8	2.5	0.7	101.48
	인천	0.0	0.0	97.6	2.4	0.0	100.49
	경기	0.0	0.0	95.1	2.4	2.4	102.63
	광주/전라	0.0	0.0	98.6	0.0	1.4	100.69
	대전/충청	0.0	0.0	98.5	0.0	1.5	100.77
	강원/제주	0.0	0.0	76.0	24.0	0.0	102.65
규모별	대기업	0.0	0.0	96.7	2.1	0.0	100.18
	중견기업	0.0	0.0	95.5	4.2	0.3	100.71
	중기업	0.0	0.0	93.6	2.4	4.0	104.38
	소기업	0.0	0.0	93.4	3.8	2.8	103.21
외주	외주용역 있음	0.0	0.0	88.2	6.0	5.8	105.82
	외주용역 없음	0.0	0.0	94.9	2.8	2.4	102.81

8-3) 2017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

- 디자인활용업체의 2017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는 평균 2.38명으로 전망됨.
세부 항목별로는 '1명'이 37.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2~4명'(26.0%)이 뒤를 이음. 한편, '없다'는 25.2%로 나타남.

2017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공간디자인에서 3.74명으로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이 가장 높고,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에서 1.01명으로 디자이너 고용 전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업종별 2017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37.0	26.0	7.7	2.4	1.8	25.2	2.38
업종별							
제품디자인	32.6	30.6	5.3	1.3	0.4	29.7	1.56
시각디자인	27.8	16.4	5.3	1.3	0.0	49.2	1.24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2.2	16.7	7.7	0.0	0.1	63.3	1.01
공간디자인	33.1	26.7	12.3	3.6	3.5	20.8	3.74
패션/텍스타일디자인	46.5	25.4	9.1	0.6	1.1	17.3	2.19
서비스/경험디자인	48.4	36.4	8.9	2.5	3.6	0.3	2.96
산업공예디자인	42.8	46.5	6.0	1.2	0.0	3.5	2.17
디자인인프라	40.0	16.7	3.3	3.1	0.3	36.7	1.50

-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3.14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광주/전라(2.50명), 인천(2.26명), 대구/경북(2.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 가운데, 중견기업이 8.2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2017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37.0	26.0	7.7	2.4	1.8	25.2	2.38
권 역 별	서울	32.5	26.4	10.8	2.8	3.2	24.2	3.14
	부산/울산/경남	36.5	18.7	6.0	3.6	1.0	34.2	1.75
	대구/경북	36.4	20.0	4.8	5.3	0.8	32.8	2.13
	인천	42.6	18.0	15.3	0.2	1.6	22.3	2.26
	경기	34.0	30.6	7.9	0.9	0.1	26.5	1.73
	광주/전라	57.5	27.1	2.2	1.9	2.8	8.5	2.50
	대전/충청	44.1	31.6	0.1	1.6	0.0	22.6	1.36
	강원/제주	60.2	16.6	0.0	0.0	0.0	23.1	1.09
규 모 별	대기업	17.6	34.5	8.4	10.0	19.7	8.6	7.77
	중견기업	32.3	17.7	2.0	8.2	12.2	27.6	8.22
	중기업	33.1	30.7	9.9	7.1	2.6	16.5	3.82
	소기업	38.7	24.3	7.0	0.5	1.0	28.4	1.69
외 주	외주용역 있음	51.8	18.5	1.7	4.0	1.3	22.7	2.11
	외주용역 없음	33.0	28.0	9.3	2.0	1.9	25.8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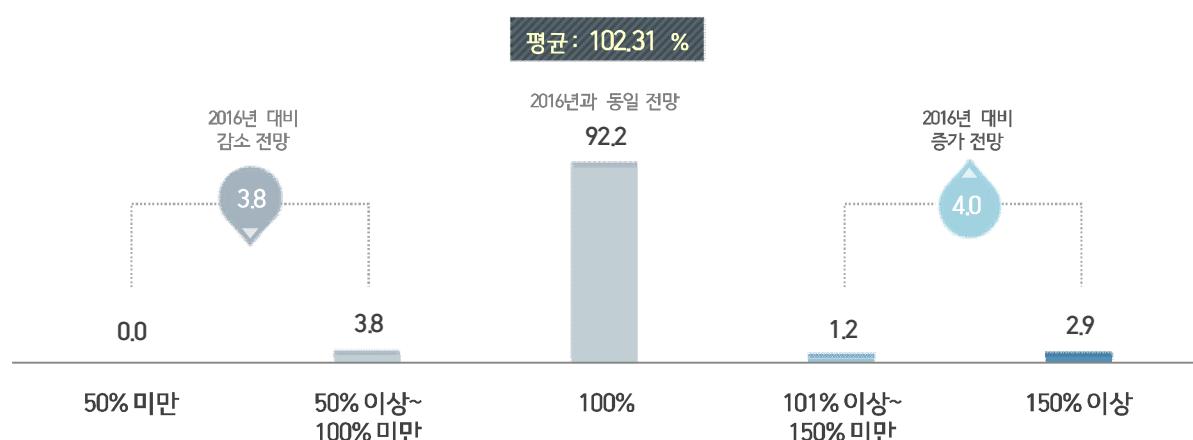
9) 2018년 재무 및 투자 전망^⑯

9-1) 2018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 2016년 대비 2018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은 평균 102.31% 수준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범주별로 살펴보면, '2016년과 동일할 것이다'는 전망(100%)이 92.2%로 가장 높은 가운데, '2016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4.0%, '2016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3.8%로 나타남.

2018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유지 및 증가 전망을 하는 가운데, 패션/텍스타일디자인(106.82%)이 더욱 높게 나타남.

▶ 업종별 2018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0%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업종별	활용업체	0.0	3.8	92.2	1.2	2.9	102.31
	제품디자인	0.0	1.0	95.4	2.1	1.4	101.92
	시각디자인	0.3	0.8	91.9	3.4	3.6	103.58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0	0.0	99.4	0.6	0.0	100.18
	공간디자인	0.0	0.0	94.6	0.3	5.1	103.89
	패션/텍스타일디자인	0.0	3.7	84.4	3.6	8.3	106.82
	서비스/경험디자인	0.0	2.4	96.4	0.0	1.2	100.18
	산업공예디자인	0.0	0.0	100.0	0.0	0.0	100.00
	디자인인프라	0.0	9.2	86.2	1.4	3.2	102.75

⑯ 2016년과 같으면 100%, 2016년 보다 증가하면 100%초과, 2016년 보다 감소하면 100% 미만으로 작성
예를 들어 2016년의 절반 수준이면 50%, 2배 증가했으면 200% 등으로 작성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105.07%)에서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했으며, 그 다음은 대구/경북(103.39%)이 뒤를 이음.
- ❖ 규모별로는 중견기업(103.90%)과 중기업(103.34%)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으로 나타남.
- ❖ 디자이너 고용 업체(104.03%)가 디자이너 비고용 업체(99.76%) 대비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2018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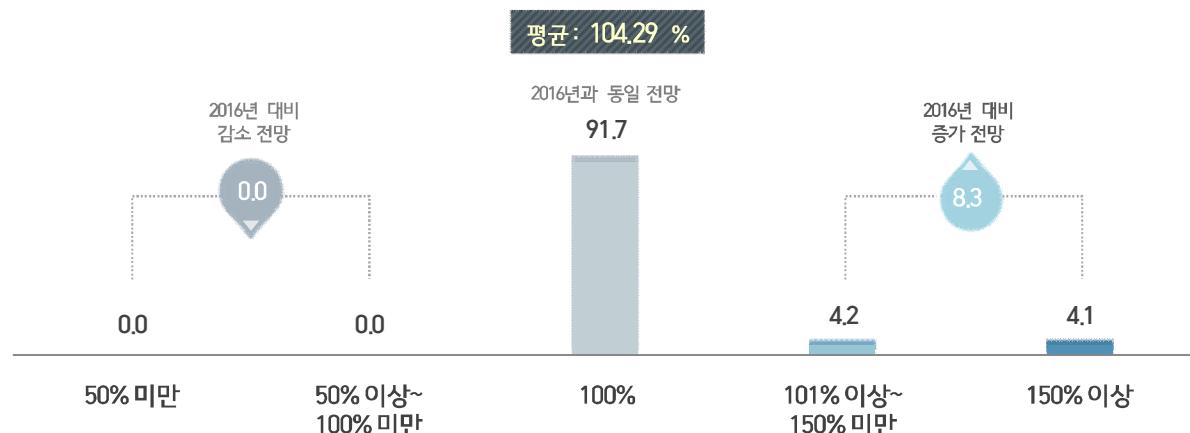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0%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활용업체		0.0	3.8	92.2	1.2	2.9	102.31
권 역 별	서울	0.0	4.3	89.5	1.6	4.6	105.07
	부산/울산/경남	0.0	4.2	94.5	0.3	1.1	100.46
	대구/경북	0.0	5.4	90.1	0.8	3.7	103.39
	인천	0.0	0.0	96.3	2.5	1.3	101.52
	경기	0.0	3.8	92.7	.9	2.6	100.40
	광주/전라	0.3	2.4	95.5	0.7	1.1	99.33
	대전/충청	0.0	1.4	96.2	1.4	1.0	100.46
	강원/제주	0.0	4.3	93.5	2.3	0.0	100.26
규 모 별	대기업	0.0	0.0	93.8	0.7	4.7	102.50
	중견기업	0.0	2.2	88.2	3.4	6.2	103.90
	중기업	0.1	0.8	92.9	2.6	3.6	103.34
	소기업	0.0	4.8	92.0	0.7	2.6	101.95
고 용	디자이너 고용	0.0	0.1	94.7	1.6	3.6	104.03
	디자이너 비고용	0.1	9.2	88.4	0.6	1.8	99.76
외 주	외주용역 있음	0.0	7.1	88.8	1.3	2.8	102.05
	외주용역 없음	0.0	0.0	96.0	1.0	3.0	102.59

9-2)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⑯

- 2016년 대비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은 104.52% 수준으로 2016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범주별로는 '2016년과 동일 전망'(100%)이 91.7%,
'2016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8.3%로 나타남.

2018년 디자이너 고용전망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110.23%)과 시각디자인(109.43%) 등에서 긍정적 전망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2018년 디자이너 고용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0%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활용업체		0.0	0.0	91.7	4.2	4.1	104.29
업종별	제품디자인	0.0	0.0	93.3	4.5	2.1	103.28
	시각디자인	0.0	0.0	82.6	9.1	8.3	109.43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0	0.0	66.3	29.4	4.3	110.23
	공간디자인	0.0	0.0	92.5	1.3	6.2	104.7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0.0	0.0	83.9	5.7	10.3	110.17
	서비스/경험디자인	0.0	0.0	95.2	4.8	0.0	100.60
	산업공예디자인	0.0	0.0	99.4	0.0	0.6	100.55
	디자인인프라	0.0	0.0	96.4	0.3	3.3	103.38

⑯ 2016년과 같으면 100%, 2016년 보다 증가하면 100%초과, 2016년 보다 감소하면 100% 미만으로 작성
예를 들어 2016년의 절반 수준이면 50%, 2배 증가했으면 200% 등으로 작성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증가 또는 유지 전망을 한 가운데, 서울(106.35%)과 경기(104.49%)에서 다른 권역 대비 긍정적인 전망을 함.
- 외주 디자인 개발을 하는 업체(107.03%)의 전망이 외주 디자인 용역을 하지 않은 업체(103.56%) 대비 긍정적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2017년 디자이너 고용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0%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활용업체		0.0	0.0	91.7	4.2	4.1	104.29
권 역 별	서울	0.0	0.0	88.2	5.9	5.9	106.35
	부산/울산/경남	0.0	0.0	96.0	1.6	2.4	103.39
	대구/경북	0.0	0.0	96.5	2.7	0.7	101.52
	인천	0.0	0.0	95.0	5.0	0.0	100.86
	경기	0.0	0.0	92.2	2.8	5.0	104.49
	광주/전라	0.0	0.0	97.7	0.9	1.4	100.78
	대전/충청	0.0	0.0	97.7	0.0	2.3	101.13
	강원/제주	0.0	0.0	76.0	24.0	0.0	102.65
규 모 별	대기업	0.0	0.0	86.3	3.7	8.8	104.97
	중견기업	0.0	0.0	85.9	9.1	4.9	105.68
	중기업	0.0	0.0	91.2	2.3	6.4	105.65
	소기업	0.0	0.0	92.1	4.8	3.2	103.77
외 주	외주용역 있음	0.0	0.0	86.2	7.2	6.6	107.03
	외주용역 없음	0.0	0.0	93.2	3.4	3.4	103.56

9-3) 2018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

- 디자인활용업체의 2018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는 평균 2.43명으로 전망됨.
항목별로는 '1명'이 36.7%로 가장 높고, 다음은 '2~4명'(26.3%), '5~9명'(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디자이너 고용자가 '없다'는 전망은 24.9%로 나타남.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8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은 공간디자인에서 3.88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서비스/경험디자인(2.99명)이 뒤를 이음.

▶ 업종별 2018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36.7	26.3	7.8	2.4	1.9	24.9	2.43
업종별	제품디자인	33.1	32.0	5.3	1.0	0.4	1.56
	시각디자인	27.8	18.0	5.3	1.3	0.0	1.3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9.2	16.7	7.7	0.0	0.1	0.98
	공간디자인	32.9	25.5	13.2	3.7	3.9	3.88
	패션/텍스타일디자인	44.8	30.9	6.6	0.6	1.1	2.21
	서비스/경험디자인	48.4	36.4	8.9	2.5	3.6	2.99
	산업공예디자인	42.6	46.5	6.0	1.2	0.0	2.17
	디자인인프라	40.0	16.7	3.4	3.1	0.3	1.50

- 권역별로 살펴보면, 2018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은 서울(3.19명)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광주/전라(2.57명), 인천(2.29명), 대구/경북(2.13명) 등의 순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견기업(8.75명), 대기업(8.56명)의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2018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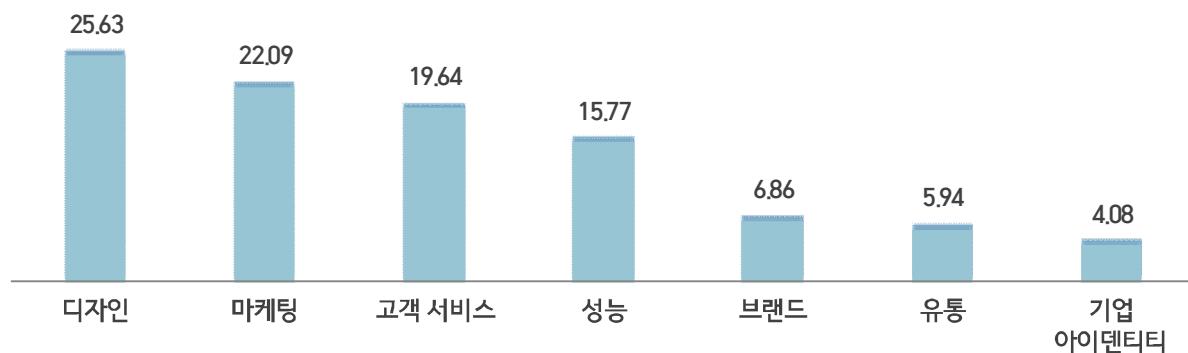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36.7	26.3	7.8	2.4	1.9	24.9	2.43
권역별	서울	31.8	26.7	11.0	2.5	3.5	24.5	3.19
	부산/울산/경남	36.5	20.0	6.0	3.6	1.0	32.9	1.78
	대구/경북	36.4	20.0	4.8	5.3	.8	32.7	2.13
	인천	45.1	18.0	15.3	0.2	1.6	19.7	2.29
	경기	33.8	30.8	8.2	1.4	0.1	25.8	1.79
	광주/전라	57.5	27.1	2.2	1.9	2.8	8.5	2.57
	대전/충청	44.8	31.6	0.1	1.6	0.0	21.9	1.36
	강원/제주	60.2	16.6	0.0	0.0	0.0	23.1	1.09
규모별	대기업	11.9	40.2	8.4	10.0	19.7	8.6	8.56
	중견기업	32.5	13.1	6.6	8.2	12.2	27.4	8.75
	중기업	33.5	30.4	9.9	7.0	3.0	16.2	3.88
	소기업	38.3	24.9	7.1	0.5	1.0	28.2	1.71
외주	외주용역 있음	50.7	20.4	1.7	3.8	1.3	22.1	2.18
	외주용역 없음	33.0	27.8	9.4	2.0	2.0	25.7	2.49

10) 제품판매 영향 요소별 비중

-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별 비중을 살펴보면, '디자인'이 25.63%로 가장 높고, 다음은 '마케팅'(22.09%), '고객서비스'(19.64%), '성능'(15.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제품판매 영향 요소별 비중

(단위: %)



- 업종별로는 '디자인'의 비중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35.03%), 시각디자인(32.38%), 공간디자인(29.16%) 등의 순으로 높음.

▶ 업종별 제품판매 영향 요소별 비중

(단위: %)

구분	디자인	마케팅	고객서비스	성능	브랜드	유통	기업 아이덴티티
활용업체	25.63	22.09	19.64	15.77	6.86	5.94	4.08
업종별							
제품디자인	26.05	27.10	5.10	28.52	8.28	3.19	1.77
	32.38	14.17	12.23	12.16	12.77	12.30	3.99
	26.23	15.99	48.60	3.60	3.65	0.74	1.19
	29.16	10.00	29.49	18.36	4.17	5.57	3.25
	35.03	6.66	7.14	23.23	18.04	6.44	3.45
	22.27	42.15	14.98	12.41	2.08	4.56	1.55
	23.69	11.45	4.96	41.80	5.65	10.06	2.39
	23.31	19.03	24.51	10.20	8.60	6.66	7.69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비중은 서울(29.53%)에서 가장 높고, 이어 대구/경북(28.03%), 대전/충청(27.41%) 등의 순임.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비중은 중기업(28.43%)이 가장 높은 반면, 중견기업은 19.94%로 상대적으로 낮음.
- ❖ 디자이너를 고용한 업체(33.96%)의 '디자인' 요소 비중이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업체(13.32%) 대비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제품판매 영향 요소별 비중

(단위: %)

구분		디자인	마케팅	고객서비스	성능	브랜드	유통	기업 아이덴티티
활용업체		25.63	22.09	19.64	15.77	6.86	5.94	4.08
권 역 별	서울	29.53	18.11	22.43	11.55	7.17	5.49	5.72
	부산/울산/경남	20.56	26.36	17.71	17.58	6.33	6.17	5.28
	대구/경북	28.03	22.32	11.36	19.19	8.20	6.52	4.38
	인천	19.67	29.16	26.26	14.87	5.29	3.76	0.98
	경기	20.75	22.83	20.43	19.23	7.45	7.33	1.98
	광주/전라	26.16	30.02	17.38	14.86	4.44	4.83	2.31
	대전/충청	27.41	23.18	17.12	18.18	6.03	5.21	2.86
	강원/제주	26.65	18.09	17.12	21.90	7.27	5.83	3.14
규 모 별	대기업	24.33	33.41	7.80	21.78	8.10	3.88	0.71
	중견기업	19.94	7.86	40.12	16.34	7.77	4.83	3.14
	중기업	28.43	21.12	19.16	13.85	7.82	6.09	3.53
	소기업	24.84	22.49	19.62	16.29	6.53	5.93	4.31
고 용	디자이너 고용	33.96	14.64	20.23	14.39	7.11	6.48	3.18
	디자이너 비고용	13.32	33.09	18.78	17.80	6.49	5.12	5.40
외 주	외주용역 있음	19.03	28.43	18.36	17.20	6.83	5.43	4.72
	외주용역 없음	33.05	14.96	21.09	14.15	6.89	6.50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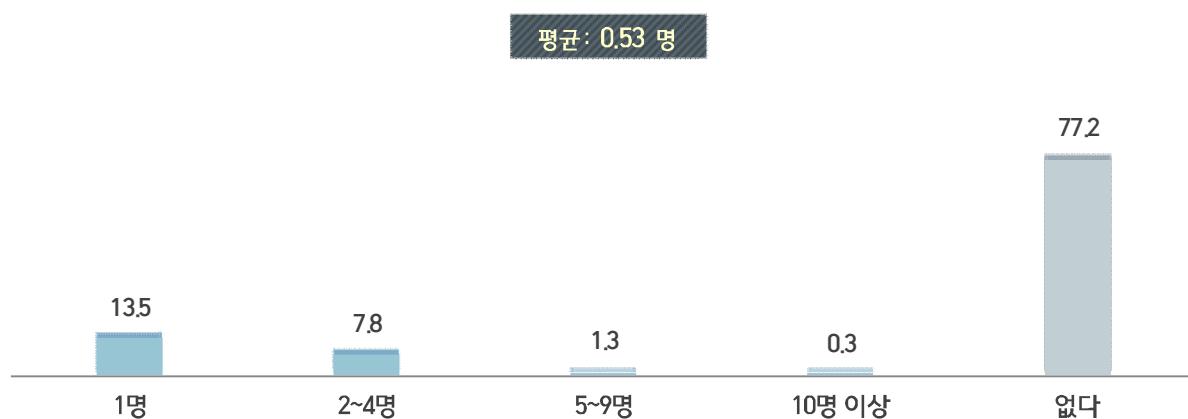
3 디자인 인력

1) 구인 디자이너 수

- 디자인활용업체의 구인 디자이너 수는 평균 0.53명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1명'(13.5%), '2~4명'(7.8%), '5~9명'(1.3%), '10명 이상'(0.3%) 등의 순임. 한편, 구인 디자이너가 '없다'는 업체 비율은 77.2%로 나타남.

디자인활용업체 구인 디자이너 수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적정 디자이너 수는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0.96명)에서 가장 많고, 다음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0.83명), 제품디자인(0.7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 적정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13.5	7.8	1.3	0.3	77.2	0.53
업종별	제품디자인	12.0	3.6	0.3	0.1	84.1
	시각디자인	23.0	12.7	0.5	0.0	63.8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6.0	13.7	7.7	0.1	62.5
	공간디자인	8.7	9.1	1.8	0.8	79.6
	패션/텍스타일디자인	21.5	13.0	0.4	1.4	63.6
	서비스/경험디자인	9.5	10.2	2.0	0.0	78.3
	산업공예디자인	15.1	2.9	0.0	0.0	82.1
	디자인인프라	17.2	2.8	0.0	0.0	80.0
	평균	13.5	7.8	1.3	0.3	0.53

- 권역별로 구인 디자이너 수를 살펴보면, 서울(0.79명)이 가장 많고, 다음은 경기(0.46명), 대구/경북(0.38명), 인천(0.34명) 등의 순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7.89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중견기업(1.65명)이 뒤를 이음.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적정 디자이너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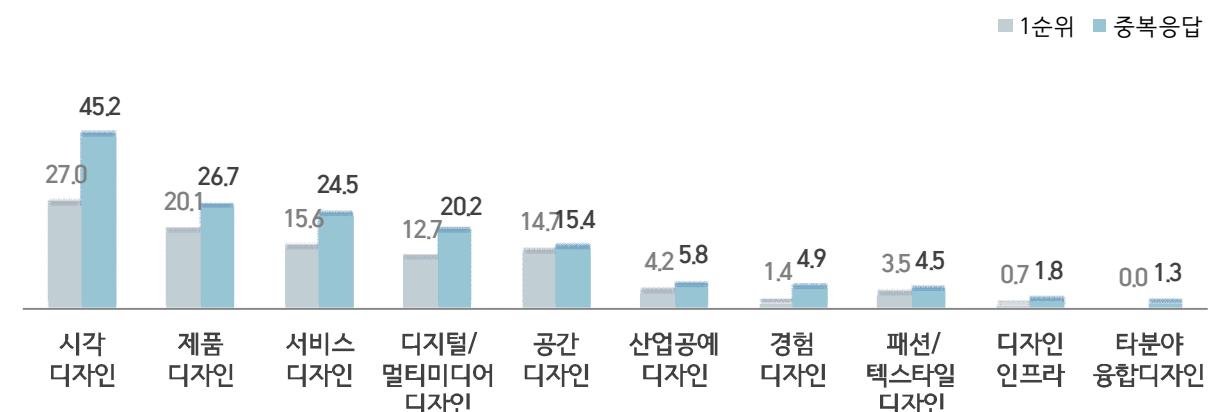
구분		1명	2~4명	5~9명	10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13.5	7.8	1.3	0.3	77.2	0.53
권 역 별	서울	18.7	9.4	2.0	0.6	69.4	0.79
	부산/울산/경남	7.1	4.5	1.0	0.0	87.4	0.23
	대구/경북	18.1	9.9	0.0	0.0	72.0	0.38
	인천	10.1	8.3	0.0	0.0	81.7	0.34
	경기	9.8	8.5	1.1	0.1	80.7	0.46
	광주/전라	0.8	3.9	2.1	0.9	92.3	0.28
	대전/충청	6.3	3.5	0.0	0.0	90.2	0.13
	강원/제주	23.7	4.0	0.0	0.0	72.3	0.32
규 모 별	대기업	8.4	27.2	3.1	2.3	58.9	7.89
	중견기업	9.6	5.2	6.6	5.7	72.9	1.65
	중기업	9.6	10.3	1.2	0.8	78.1	0.62
	소기업	15.0	6.7	1.2	0.0	77.1	0.37
외 주	외주용역 있음	18.8	5.3	0.9	0.3	74.7	0.71
	외주용역 없음	12.1	8.4	1.4	0.3	77.8	0.48

2)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

-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중복응답 기준)는 '시각디자인'(45.2%)이 가장 높고, 다음은 '제품디자인'(26.7%), '서비스디자인(24.5%),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20.2%), '공간디자인'(15.4%) 등의 순임.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

(단위: %)



※ 모름/무응답 : 0.0%

-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각디자인'은 시각디자인(92.7%)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디자인인프라(57.7%), 제품디자인(55.9%), 서비스/경험디자인(55.0%) 등의 순임. '제품디자인'은 제품디자인(54.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공간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경험디자인	패션/텍스타일디자인	디자인인프라	타분야융합디자인
활용업체		45.2	26.7	24.5	20.2	15.4	5.8	4.9	4.5	1.8	1.3
업종별	제품디자인	55.9	54.5	10.2	7.0	1.1	0.0	0.4	0.0	0.0	0.4
	시각디자인	92.7	39.6	1.6	17.3	2.7	1.1	2.0	0.0	3.2	1.1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0	1.2	0.0	93.1	4.5	0.0	1.2	0.0	0.0	0.0
	공간디자인	5.7	14.4	11.5	15.1	85.8	0.6	3.5	0.0	4.5	1.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12.1	28.7	6.5	0.0	1.2	0.0	1.8	90.5	3.1	0.6
	서비스/경험디자인	55.0	3.3	52.6	49.3	0.1	0.9	3.3	0.0	0.0	0.0
	산업공예디자인	16.1	34.0	3.2	0.0	5.3	57.4	1.0	11.2	0.1	3.2
	디자인인프라	57.7	37.6	31.1	4.8	3.0	9.9	10.4	0.7	2.3	2.8

- 권역별로는 '시각디자인'은 강원/제주(67.4%)에서 높고, '제품디자인'은 강원/제주(30.9%), 경기(30.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각디자인'은 대기업이 49.6%로 높은 반면, 중견기업(33.9%)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업체(57.7%)와 디자인 외주를 주는 업체(57.5%)는 '시각디자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디지털/ 멀티 미디어 디자인	공간 디자인	산업공 예 디자인	경험 디자인	패션/ 텍스타 일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타분야 융합 디자인
활용업체		45.2	26.7	24.5	20.2	15.4	5.8	4.9	4.5	1.8	1.3
권 역 별	서울	44.7	23.3	19.0	22.4	18.8	3.9	5.2	7.5	1.5	1.9
	부산/울산/경남	52.8	29.2	23.8	17.0	17.6	8.0	10.9	0.6	2.2	0.0
	대구/경북	52.5	28.1	20.9	19.8	7.0	3.6	6.4	1.6	6.8	0.6
	인천	41.3	28.8	40.3	5.2	17.4	1.7	4.1	3.6	0.0	0.0
	경기	41.5	30.5	25.5	15.7	12.5	10.2	0.7	4.3	0.7	0.2
	광주/전라	40.2	23.5	41.3	29.7	12.7	3.9	3.5	3.3	1.0	0.0
	대전/충청	33.0	27.3	31.1	24.8	15.2	8.2	4.8	4.3	1.4	1.8
	강원/제주	67.4	30.9	24.6	18.1	13.4	0.2	6.3	0.0	2.8	12.0
규 모 별	대기업	49.6	40.8	25.3	15.0	13.9	0.0	0.0	3.7	0.0	1.3
	중견기업	33.9	30.5	25.7	20.0	11.3	13.5	0.2	2.2	2.9	0.0
	중기업	42.1	29.2	31.8	22.7	15.6	4.3	4.3	3.1	0.9	0.3
	소기업	46.3	25.7	22.2	19.5	15.4	6.3	5.3	5.0	2.1	1.7
고 용	디자이너 고용	36.7	26.5	15.7	26.4	25.4	2.7	2.2	5.5	2.8	0.7
	디자이너 비고용	57.7	27.1	37.6	11.1	0.7	10.5	9.0	3.1	0.4	2.2
외 주	외주용역 있음	57.5	26.3	32.6	15.7	3.8	8.5	7.8	3.6	1.6	2.2
	외주용역 없음	31.3	27.2	15.5	25.3	28.5	2.9	1.7	5.6	2.1	0.4

3) 2016년 신규 채용한 디자이너 수(경력/신입)

- 디자이너 고용 디자인활용업체가 2016년 신규 채용한 '경력' 디자이너 수는 평균 0.22명, '신입' 디자이너 수는 평균 0.24명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경력' 디자이너 채용 수는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이 0.59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0.39명)이 뒤를 이음. '신입' 디자이너 채용 수 역시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0.53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2016년 신규 채용한 디자이너 수(경력/신입)

(단위: %)

구분	경력						신입						
	1명	2~4명	5~9명	10명 이상	없다	평균(명)	1명	2~4명	5~9명	10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11.0	2.9	0.3	0.2	85.7	0.22	10.8	4.0	0.5	0.2	84.5	0.24	
업종별	제품디자인	10.1	1.7	0.0	0.0	88.1	0.14	6.0	1.2	0.0	0.0	92.7	0.09
	시각디자인	16.7	3.1	0.5	0.0	79.7	0.25	23.6	3.0	0.0	0.0	73.4	0.3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6.5	7.3	5.1	0.0	71.1	0.59	4.6	16.7	1.9	0.1	76.7	0.53
	공간디자인	8.4	3.4	0.3	0.5	87.4	0.27	12.2	5.9	0.3	0.6	81.1	0.35
	패션/텍스타일디자인	19.3	5.2	0.1	0.4	74.9	0.39	18.8	4.1	0.3	0.2	76.5	0.32
	서비스/경험디자인	13.2	3.7	0.0	0.0	83.1	0.21	8.6	2.7	1.7	0.0	87.0	0.23
	산업공예디자인	4.6	0.0	0.0	0.0	95.4	0.05	13.8	1.2	0.0	0.0	85.1	0.16
	디자인인프라	8.2	1.0	0.0	0.0	90.8	0.12	7.8	2.6	0.0	0.0	89.7	0.13

- ❖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력' 디자이너 채용 수는 서울이 0.33명으로 높고, 다음은 대구/경북(0.24명)이 높게 나타남. '신입' 디자이너 채용 역시 서울이 0.37명으로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경력' 디자이너 채용은 중견기업(0.82명), '신입' 디자이너 채용은 대기업(0.59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2016년 신규 채용한 디자이너 수(경력/신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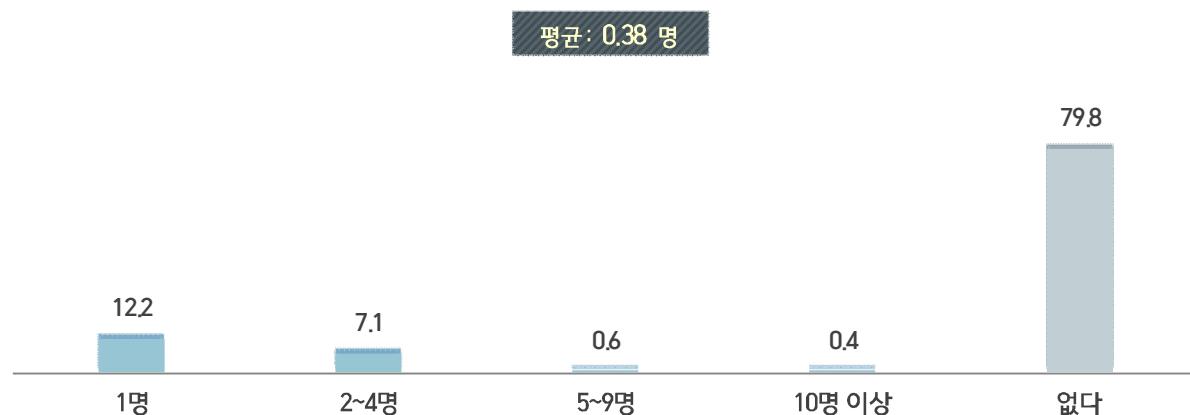
구분		경력						신입					
		1명	2~4명	5~9명	10명 이상	없다	평균(명)	1명	2~4명	5~9명	10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11.0	2.9	0.3	0.2	85.7	0.22	10.8	4.0	0.5	0.2	84.5	0.24
권역별	서울	14.9	4.3	0.3	0.4	80.0	0.33	13.1	6.3	0.8	0.4	79.3	0.37
	부산/울산/경남	6.0	3.3	0.0	0.0	90.7	0.13	7.8	1.0	0.0	0.0	91.2	0.10
	대구/경북	22.4	0.7	0.0	0.0	76.8	0.24	14.1	0.0	0.0	0.0	85.9	0.14
	인천	1.8	5.0	0.0	0.0	93.2	0.12	16.5	1.6	0.0	0.0	81.8	0.20
	경기	8.5	1.3	0.0	0.0	90.2	0.11	11.4	3.8	0.4	0.0	84.3	0.22
	광주/전라	1.4	0.0	3.0	0.0	95.6	0.16	0.8	3.9	0.9	0.0	94.5	0.13
	대전/충청	4.1	1.9	0.0	0.0	94.0	0.12	5.1	1.9	0.0	0.0	93.1	0.09
	강원/제주	0.0	4.0	0.0	0.0	96.0	0.08	5.8	0.0	0.0	0.0	94.2	0.06
규모별	대기업	23.0	4.9	0.0	1.1	69.8	0.55	29.8	5.9	2.7	0.0	60.4	0.59
	중견기업	5.2	6.8	8.0	0.9	79.0	0.82	6.0	8.6	4.7	0.9	79.8	0.56
	중기업	11.0	3.1	0.1	0.5	85.3	0.29	10.6	5.3	0.0	0.6	83.4	0.32
	소기업	10.9	2.7	0.3	0.0	86.1	0.18	10.7	3.4	0.6	0.0	85.4	0.21
외주	외주용역 있음	16.3	2.5	0.9	0.0	80.2	0.28	4.6	4.5	0.3	0.0	90.5	0.16
	외주용역 없음	9.5	3.0	0.2	0.2	87.1	0.21	12.5	3.9	0.5	0.2	83.0	0.27

4) 2016년 퇴사한 디자이너 수

- 2016년 퇴사한 디자이너 수 평균은 0.38명으로 나타남. 범주별로는 '1명'(12.2%), '2~4명'(7.1%), '5~9명'(0.6%), '10명 이상'(0.4%) 순으로 나타났으며, '없다'는 79.8%로 높게 나타남.

퇴사한 디자이너 수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퇴직한 디자이너 수는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이 0.92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0.87명), 시각디자인(0.50명), 공간디자인(0.43명), 서비스/경험디자인(0.35명) 등의 순으로 높음.

▶ 업종별 퇴사한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12.2	7.1	0.6	0.4	79.8	0.38
업종별	제품디자인	12.0	2.0	0.0	0.0	0.17
	시각디자인	33.5	6.6	0.0	0.1	0.5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21.0	16.5	0.8	2.2	0.92
	공간디자인	6.6	8.4	0.7	0.9	0.43
	패션/텍스타일디자인	27.7	21.2	0.3	0.4	0.87
	서비스/경험디자인	10.4	4.7	1.8	0.0	0.35
	산업공예디자인	14.0	1.7	0.0	0.0	0.17
	디자인인프라	6.6	5.8	0.0	0.0	0.22

- 권역별 퇴사 디자이너 수는 서울이 0.55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대구/경북(0.46명), 경기(0.28명), 인천(0.22명) 등의 순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퇴직 디자이너 수가 1.24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중견기업(0.96명)이 뒤를 이음.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퇴사한 디자이너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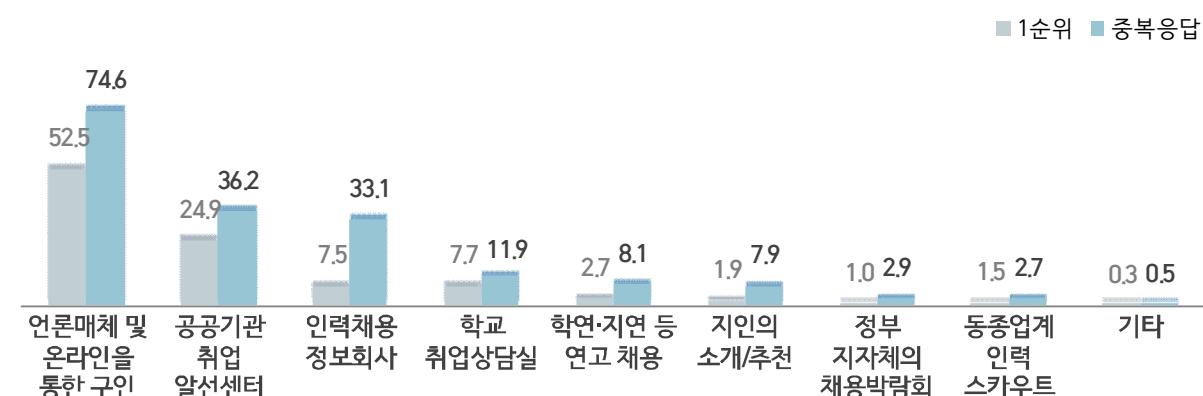
구분		1명	2~4명	5~9명	10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12.2	7.1	0.6	0.4	79.8	0.38
권역별	서울	15.5	9.6	1.1	0.6	73.2	0.55
	부산/울산/경남	11.2	1.0	0.6	0.0	87.2	0.16
	대구/경북	14.3	11.2	0.0	0.0	74.5	0.46
	인천	11.6	4.1	0.0	0.0	84.3	0.22
	경기	11.5	5.4	0.0	0.5	82.6	0.28
	광주/전라	2.2	4.1	0.9	0.0	92.9	0.20
	대전/충청	5.1	6.6	0.0	0.0	88.3	0.20
	강원/제주	5.5	0.2	0.0	0.3	94.1	0.09
규모별	대기업	4.4	21.4	3.1	1.9	68.0	1.24
	중견기업	8.4	12.2	4.7	1.4	73.3	0.96
	중기업	7.0	9.0	0.5	0.6	82.9	0.41
	소기업	14.2	6.1	0.5	0.2	79.0	0.35
외주	외주용역 있음	17.5	4.9	0.6	0.1	76.9	0.34
	외주용역 없음	10.7	7.7	0.6	0.4	80.6	0.39

5)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

-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는(중복응답 기준)
 ‘언론매체 및 온라인을 통한 구인’이 74.6%로 가장 높고,
 다음은 ‘공공기관 취업 알선센터’(36.2%), ‘인력채용 정보회사’(33.1%) 등의 순임.
 1순위 응답 역시 ‘언론매체 및 온라인을 통한 구인’이 52.5%로 높음.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언론매체 및 온라인을 통한 구인’은 제품디자인(96.6%)이 가장 높고,
 다음은 시각디자인(86.1%),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85.1%), 공간디자인(81.0%) 순임.
 ‘공공기관 취업 알선센터’는 제품디자인(47.3%), 공간디자인(41.8%) 등의 순으로 높음.

▶ 업종별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언론매체 및 온라인을 통한 구인	공공기관 취업 알선센터	인력채용 정보회사	학교 취업상담실	학연·지연 등 연고 채용	지인의 소개/추천	정부 지자체의 채용박람회	동종업계 인력 스카우트
활용업체		74.6	36.2	33.1	11.9	8.1	7.9	2.9	2.7
업종별	제품디자인	96.6	47.3	17.4	1.1	0.5	4.9	0.0	0.0
	시각디자인	86.1	24.6	15.1	9.3	27.6	4.9	2.8	0.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85.1	0.0	8.0	23.9	3.1	11.4	0.0	6.1
	공간디자인	81.0	41.8	39.6	3.4	4.9	9.8	0.0	1.9
	패션/텍스타일디자인	70.5	33.9	28.5	10.9	10.3	19.6	8.0	6.8
	서비스/경험디자인	68.1	35.1	70.1	9.8	9.9	1.7	3.5	1.7
	산업공예디자인	73.6	12.4	44.6	8.9	6.9	11.3	1.7	7.7
	디자인인프라	54.9	39.6	14.6	28.9	8.0	9.4	6.8	4.5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언론매체 및 온라인을 통한 구인'은 강원/제주(87.7%)가 가장 높고, 대구/경북(81.7%), 경기(81.6%) 등의 순으로 높으며, '공공기관 취업 알선센터'는 인천(54.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규모별로는 '언론매체 및 온라인을 통한 구인'은 대기업(83.4%), 중견기업(86.6%)이 중소기업(소기업 : 75.6%, 중기업 : 70.9%)에 비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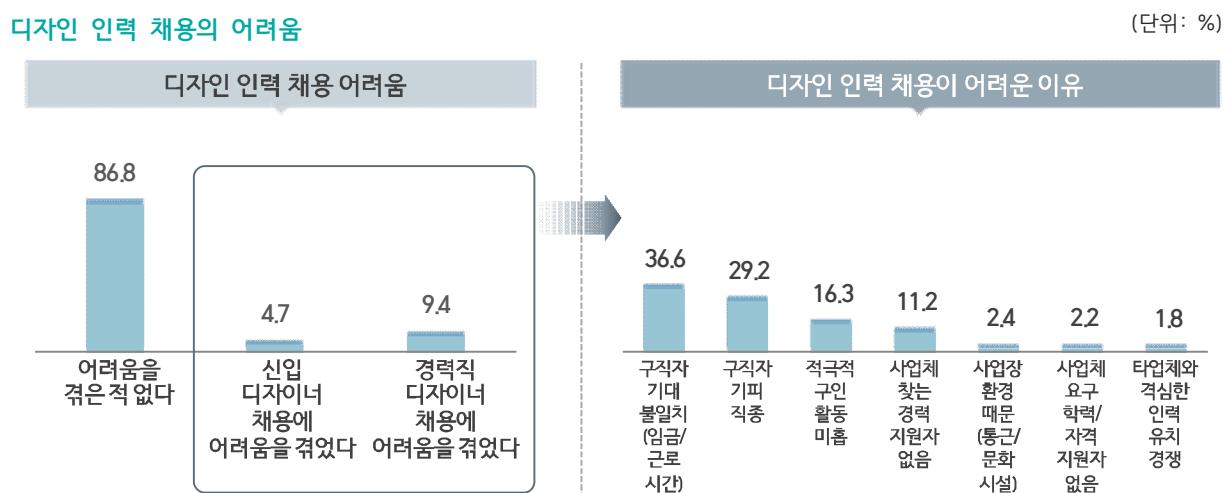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언론매체 및 온라인을 통한 구인	공공기관 취업 알선센터	인력채용 정보회사	학교 취업상담실	학연·지연 등 연고 채용	지인의 소개/추천	정부 지자체의 채용박람회	동종업계 인력 스카우트	
활용업체	74.6	36.2	33.1	11.9	8.1	7.9	2.9	2.7	
권역별	서울	72.7	28.7	36.0	18.9	8.6	5.7	4.7	2.9
	부산/울산/경남	75.2	45.7	21.0	6.6	10.1	9.6	0.4	1.7
	대구/경북	81.7	37.4	30.4	9.1	0.7	13.5	2.0	4.3
	인천	76.4	54.9	11.1	5.0	6.8	20.3	0.0	0.0
	경기	81.6	38.9	28.7	4.7	5.3	11.9	2.6	0.9
	광주/전라	57.6	44.9	45.8	8.4	21.6	5.3	0.0	0.0
	대전/충청	69.0	45.9	43.1	1.4	6.1	1.1	1.6	9.0
	강원/제주	87.7	29.1	29.3	29.4	9.8	5.2	0.0	0.0
규모별	대기업	83.4	65.9	30.1	0.8	0.0	6.1	1.0	1.1
	중견기업	86.6	15.8	26.0	38.8	0.0	10.2	0.0	0.0
	중기업	70.9	50.6	34.1	10.6	6.0	4.7	3.0	1.4
	소기업	75.6	31.0	32.8	12.0	9.0	9.0	2.9	3.2
외주	외주용역 있음	73.4	32.7	33.0	16.0	4.7	8.3	6.2	3.1
	외주용역 없음	74.9	37.1	33.1	10.8	9.0	7.7	1.9	2.6

6)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

- 디자인 인력 채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는 기업이 86.8%의 비율로 높고, '신입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업은 4.7%,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겼었다'는 9.4%로 나타남.
- 디자인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는 '구직자 기대 불일치(임금/근로시간 부족)'(36.6%), '구직자 기피 직종'(2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신입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31.8%),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은 시각디자인(23.7%)에서 높게 나타남.
- 디자인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 중 '구직자 기대 불일치'는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100.0%)에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

(단위: %)

구분	디자인 인력 채용 어려움			디자인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						
	어려움을 겪은 적 없다	신입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겼었다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겼었다	구직자 기대 불일치(임금/근로시간)	구직자 기피 직종	적극적 구인활동 미흡	사업체를 찾는 경력지원자 없음	사업장 환경 때문(통근/문화시설)	사업체 요구 학력/자격 지원자 없음	사업체와 격심한 인력유치 경쟁
활용업체	86.8	4.7	9.4	36.6	29.2	16.3	11.2	2.4	2.2	1.8
업종별	제품디자인	94.2	0.0	5.7	29.6	0.0	0.0	11.3	23.1	35.5
	시각디자인	62.7	18.7	23.7	32.5	39.8	14.3	8.0	3.3	0.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85.4	8.0	8.5	100.0	0.0	0.0	0.0	0.0	0.0
	공간디자인	93.8	1.1	5.4	10.4	3.7	38.4	40.7	0.0	6.8
	패션/텍스타일디자인	58.4	31.8	15.3	55.3	26.0	11.5	5.7	0.0	0.0
	서비스/경험디자인	94.7	0.0	5.3	45.2	0.5	49.7	0.0	0.0	0.0
	산업공예디자인	96.4	1.5	2.1	0.0	18.9	81.1	0.0	0.0	0.0
	디자인인프라	82.6	3.3	14.1	29.6	51.3	6.7	9.5	1.5	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신입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업체는 대구/경북(11.2%)에서 높고, '경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인천(26.8%), 대구/경북(23.0%)에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경력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대기업(16.9%), 중견기업(20.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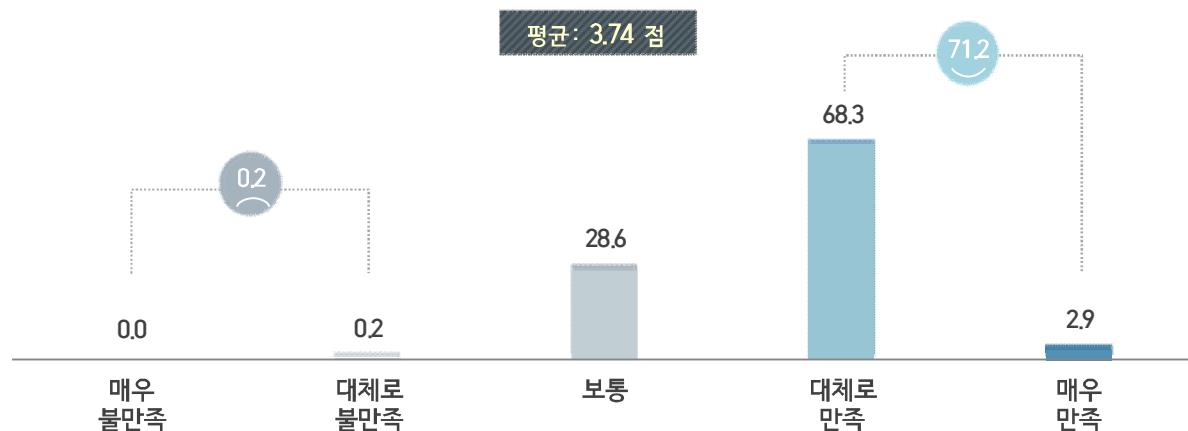
구분	디자인 인력 채용 어려움			디자인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							
	어려움을 겪은 적 없다	신입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겹었다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겹었다	구직자 기대 불일치 (임금/근로시간)	구직자 기피 직종	적극적 구인활동 미흡	사업체를 찾는 경력지원자 없음	사업장 환경 때문 (통근/문화시설)	사업체 요구 학력/자격 지원자 없음	타업체와 격심한 인력유치 경쟁	
활용업체	86.8	4.7	9.4	36.6	29.2	16.3	11.2	2.4	2.2	1.8	
권역별	서울	87.4	4.8	9.4	48.5	12.5	23.1	10.4	1.2	1.5	2.1
	부산/울산/경남	88.7	0.9	10.5	20.0	14.4	15.4	42.4	3.1	0.0	4.9
	대구/경북	66.5	11.2	23.0	17.0	64.6	4.3	6.3	0.0	7.6	0.1
	인천	67.5	8.1	26.8	13.8	66.3	4.6	7.5	7.8	0.0	0.0
	경기	88.4	5.6	6.4	45.5	13.0	22.7	8.9	7.0	0.0	2.8
	광주/전라	99.1	0.9	0.0	0.0	0.0	100.0	0.0	0.0	0.0	0.0
	대전/충청	90.7	3.2	6.0	41.7	58.3	0.0	0.0	0.0	0.0	0.0
	강원/제주	97.3	0.0	2.7	100.0	0.0	0.0	0.0	0.0	0.0	0.0
규모별	대기업	74.7	7.3	16.9	0.0	13.0	43.1	0.0	0.0	18.7	25.3
	중견기업	74.4	5.8	20.1	0.0	4.8	42.6	41.3	0.0	11.3	0.0
	중기업	89.6	2.1	9.1	47.8	14.9	18.8	7.8	4.2	0.0	6.6
	소기업	86.2	5.5	9.2	35.7	34.3	14.1	11.4	2.0	2.1	0.0
외주	외주용역 있음	78.7	10.1	13.3	30.7	37.9	18.5	2.9	3.1	3.4	2.8
	외주용역 없음	89.0	3.2	8.3	39.6	24.7	15.1	15.5	2.0	1.6	1.3

7)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최근 3년간 고용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4점을 보임. 범주별로 살펴보면, '만족'은 71.2%(매우 : 2.9% + 대체로 : 68.3%), '보통'은 28.6%, '불만족'은 0.2%(매우 : 0.0% + 대체로 : 0.2%)로 나타남.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 불만족 이유: 실무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100.0%)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자인인프라(3.86점), 제품디자인(3.85점), 서비스/경험디자인(3.85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공간디자인(3.58점), 패션/텍스타일디자인(3.54점), 산업공예디자인(3.52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업종별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만족	평균(점)
활용업체		0.0	0.2	0.2	28.6	68.3	2.9	71.2	3.74
업종별	제품디자인	0.0	0.0	0.0	16.4	82.1	1.5	83.6	3.85
	시각디자인	0.0	0.8	0.8	30.1	65.3	3.9	69.2	3.72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0	0.0	0.0	28.6	69.3	2.0	71.4	3.73
	공간디자인	0.0	0.5	0.5	46.0	48.6	4.9	53.6	3.58
	패션/텍스타일디자인	0.0	0.0	0.0	46.5	53.3	0.2	53.5	3.54
	서비스/경험디자인	0.0	0.0	0.0	17.1	81.2	1.7	82.9	3.85
	산업공예디자인	0.0	0.0	0.0	49.5	48.8	1.7	50.5	3.52
	디자인인프라	0.0	0.0	0.0	16.5	80.7	2.8	83.5	3.86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3.86점)의 만족도가 높고, 다음은 서울(3.76점), 인천(3.75점), 광주/전라(3.74점), 경기(3.73점), 대구/경북(3.7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고용 인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특징을 보인 가운데, 대기업은 4.0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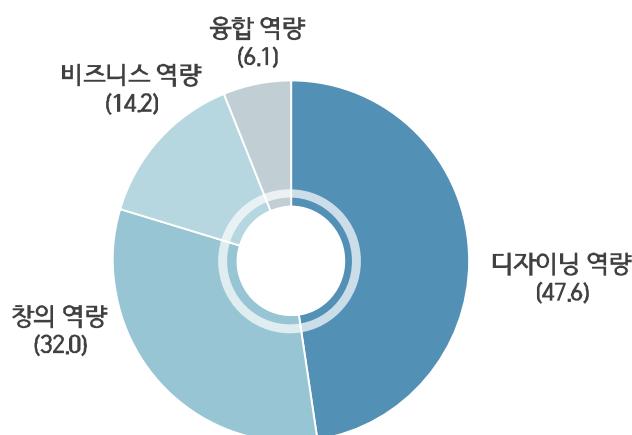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만족	평균(점)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활용업체		0.0	0.2	0.2	28.6	68.3	2.9	71.2	3.74
권 역 별	서울	0.0	0.1	0.1	26.0	71.6	2.3	73.8	3.76
	부산/울산/경남	0.0	0.0	0.0	42.0	53.8	4.2	58.0	3.62
	대구/경북	0.0	0.0	0.0	30.3	67.0	2.7	69.7	3.72
	인천	0.0	0.0	0.0	30.7	63.9	5.4	69.3	3.75
	경기	0.0	0.6	0.6	28.3	68.1	3.0	71.1	3.73
	광주/전라	0.0	0.0	0.0	30.5	64.6	4.9	69.5	3.74
	대전/충청	0.0	0.0	0.0	17.1	79.7	3.2	82.9	3.86
	강원/제주	0.0	0.0	0.0	48.8	51.2	0.0	51.2	3.51
규 모 별	대기업	0.0	0.0	0.0	11.1	74.3	13.4	87.7	4.02
	중견기업	0.0	0.0	0.0	19.5	74.0	6.6	80.5	3.87
	중기업	0.0	0.5	0.5	22.9	72.0	4.6	76.6	3.81
	소기업	0.0	0.1	0.1	31.1	66.7	2.1	68.8	3.71
외 주	외주용역 있음	0.0	0.3	0.3	35.0	62.7	2.0	64.7	3.66
	외주용역 없음	0.0	0.2	0.2	26.9	69.8	3.1	72.9	3.76

4 디자인 교육

1)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을 살펴보면, '디자이닝 역량'이 47.6%로 가장 높고, 다음은 '창의 역량'(32.0%), '비즈니스 역량'(14.2%), '융합 역량'(6.1%)의 순으로 높음.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과 산업공예디자인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디자이닝 역량'에 높은 응답을 보임. '창의 역량'은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66.8%)과 산업공예디자인(52.7%)에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단위: %)

구분		디자이닝 역량	창의 역량	비즈니스 역량	융합 역량
활용업체		47.6	32.0	14.2	6.1
업종별	제품디자인	44.8	35.5	16.4	3.2
	시각디자인	74.6	16.6	6.1	2.7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58.8	41.2	0.0	0.0
	공간디자인	42.5	36.0	11.7	9.7
	패션/텍스타일디자인	71.5	15.4	7.8	5.4
	서비스/경험디자인	41.8	32.4	14.2	11.6
	산업공예디자인	38.6	57.6	3.8	0.0
	디자인인프라	43.2	29.4	25.0	2.4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디자이닝 역량’은 강원/제주(58.4%), 인천(53.2%), 서울(51.5%) 등에서, ‘창의 역량’은 대전/충청(38.9%), 인천(37.9%), 광주/전라(37.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디자이닝 역량’은 중기업(61.3%), ‘창의 역량’은 대기업(29.4%), 중견기업(29.7%), ‘비즈니스 역량’은 대기업(25.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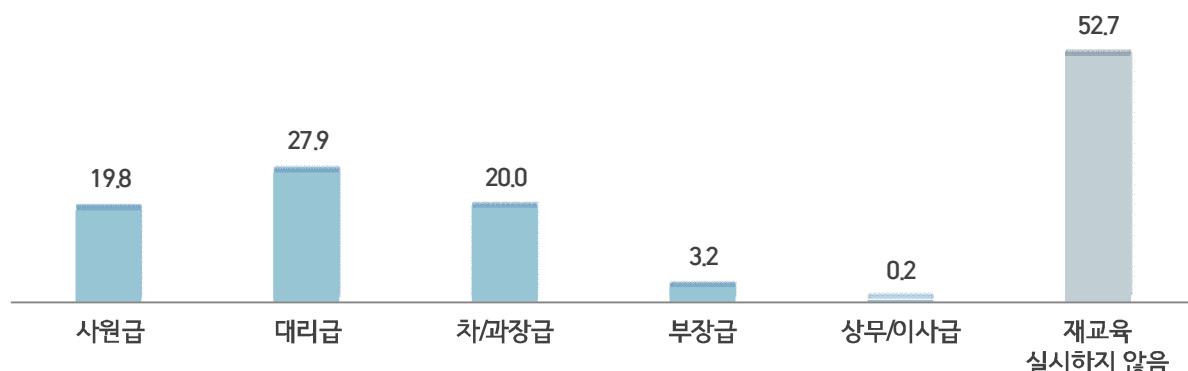
(단위: %)

구분		디자이닝 역량	창의 역량	비즈니스 역량	융합 역량
활용업체		47.6	32.0	14.2	6.1
권역별	서울	51.5	30.7	12.2	5.5
	부산/울산/경남	47.3	32.2	17.6	2.9
	대구/경북	45.5	35.5	16.9	2.1
	인천	53.2	37.9	1.6	7.3
	경기	49.6	29.6	12.4	8.4
	광주/전라	39.1	37.9	18.0	4.9
	대전/충청	26.6	38.9	25.7	8.8
	강원/제주	58.4	18.0	5.4	18.2
규모별	대기업	43.2	29.4	25.0	2.4
	중견기업	51.6	29.7	17.2	0.4
	중기업	61.3	25.8	1.6	11.3
	소기업	41.5	28.5	22.0	8.0
외주	외주용역 있음	48.8	26.7	14.2	10.3
	외주용역 없음	47.3	33.5	14.3	5.0

2) 디자인 재교육을 받은 직원 직급

- 디자인 재교육을 받은 직원 직급은 ‘대리급’이 27.9%로 가장 높고, 다음은 ‘차/과장급’(20.0%), ‘사원급’(1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디자인 재교육을 받은 직원 직급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리급’은 산업공예디자인(57.3%)에서 가장 높고, 이어 디자인인프라(37.2%),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28.4%) 등의 순으로 높음. ‘차/과장급’의 경우 산업공예디자인(65.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 재교육을 받은 직원 직급

(단위: %, 증복응답)

구분		사원급	대리급	차/과장급	부장급	상무/이사급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활용업체		19.8	27.9	20.0	3.2	0.2	52.7
업종별	제품디자인	3.4	7.0	5.6	4.0	0.0	86.3
	시각디자인	11.4	14.9	14.0	2.4	0.0	72.2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51.5	28.4	10.8	6.8	0.0	12.2
	공간디자인	13.3	25.1	25.5	1.9	0.9	54.7
	패션/텍스타일디자인	20.6	18.8	19.1	0.6	0.0	61.1
	서비스/경험디자인	16.1	38.5	29.1	2.3	0.0	48.6
	산업공예디자인	12.6	57.3	65.1	0.0	0.0	26.0
	디자인인프라	37.4	37.2	12.1	5.6	0.0	37.4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재교육을 받은 '대리급'은 서울(33.8%), 경기(30.0%), 인천(28.2%), '차/과장급'은 경기(26.8%), 인천(22.2%), '사원급'은 대구/경북(32.4%), 서울(26.5%), 강원/제주(21.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리급'과 '사원급'은 중견기업(각각 66.5%, 41.9%)에서 높고, '차/과장급'은 중기업(20.5%), 소기업(20.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재교육을 받은 직원 직급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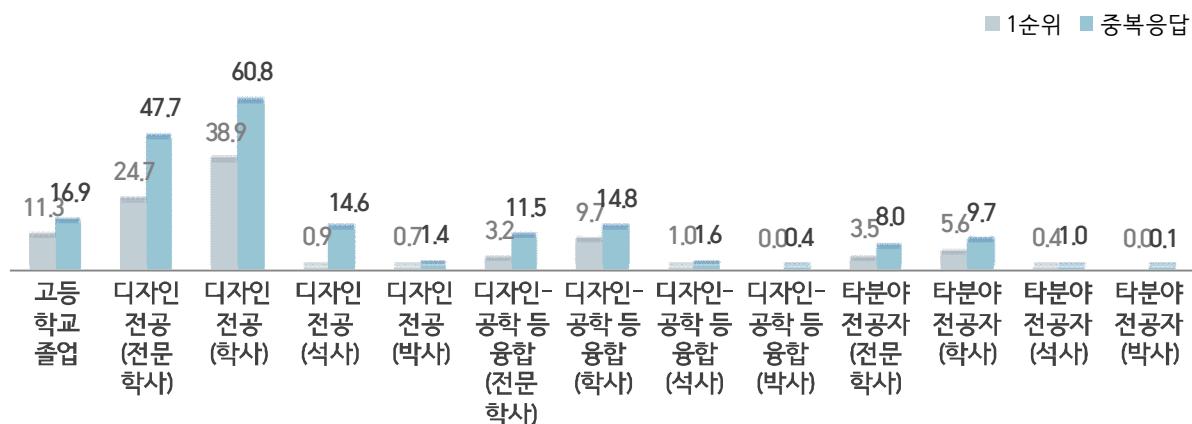
구분		사원급	대리급	차/과장급	부장급	상무/이사급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활용업체		19.8	27.9	20.0	3.2	0.2	52.7
권역별	서울	26.5	33.8	17.8	3.9	0.3	48.3
	부산/울산/경남	16.9	17.4	19.3	6.8	0.0	47.7
	대구/경북	32.4	25.3	18.7	1.6	0.0	49.8
	인천	11.3	28.2	22.2	5.4	0.0	56.0
	경기	10.0	30.0	26.8	3.0	0.5	52.3
	광주/전라	4.9	21.8	21.9	0.0	0.0	69.2
	대전/충청	13.2	16.2	16.9	0.0	0.0	68.4
	강원/제주	21.2	15.7	14.7	0.2	0.0	63.0
규모별	대기업	34.5	42.9	4.8	0.0	0.0	55.2
	중견기업	41.9	66.5	17.9	3.2	0.0	13.9
	중기업	22.3	43.7	20.5	2.2	0.9	41.5
	소기업	18.4	21.4	20.1	3.6	0.0	57.3
외주	외주용역 있음	20.1	29.5	11.9	2.7	0.0	55.9
	외주용역 없음	19.8	27.5	22.2	3.3	0.3	51.8

3)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

-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중복응답 기준)은, '디자인 전공 학사'가 60.8%로 가장 높고, 다음은 '디자인 전공 전문학사'(47.7%)가 높게 나타남.
- 1순위 기준 역시 '디자인 전공 학사'(38.9%), '디자인 전공 전문학사'(24.7%)가 높음.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전공 학사'의 경우 시각디자인(82.3%)에서 높고, 이어 산업공예디자인(76.3%), 패션/텍스타일디자인(77.1%) 순으로 나타남.
- '디자인 전공 전문학사'는 패션/텍스타일디자인(84.3%), 시각디자인(83.4%), 산업공예디자인(79.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고등학교 졸업자	디자인 전공				디자인, 공학 등 융합 전공자				디자인이 아닌 타분야 전공자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활용업체	16.9	47.7	60.8	14.6	1.4	11.5	14.8	1.6	0.4	8.0	9.7	1.0	0.1
업종별	제품디자인	1.1	31.9	47.7	13.0	0.0	39.4	41.6	1.1	0.0	3.5	3.7	0.0
	시각디자인	16.0	83.4	82.3	1.8	0.0	1.1	1.9	0.0	0.0	2.8	2.1	0.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33.2	57.5	61.9	4.4	0.0	0.0	0.0	0.0	0.0	0.0	0.0	0.0
	공간디자인	0.6	18.8	42.6	13.2	1.7	30.4	44.0	4.8	0.0	7.8	8.6	0.3
	패션/텍스타일디자인	22.1	84.3	77.1	5.6	0.2	2.9	2.3	0.0	0.0	0.0	0.1	0.0
	서비스/경험디자인	9.0	22.4	65.6	36.5	0.9	0.9	2.1	3.3	0.0	26.3	26.7	4.6
	산업공예디자인	13.9	79.6	76.3	7.1	0.0	.5	1.5	1.0	0.0	7.6	7.6	0.0
	디자인인프라	33.7	66.3	62.2	7.6	2.8	5.5	7.3	0.0	1.4	0.8	5.5	0.3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전공 학사'의 경우 '대전/충청'(69.3%), 대구/경북(67.8%), 서울(65.2%), '디자인 전공 전문 학사'는 대구/경북(54.7%), 강원/제주(52.4%), 인천(52.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견기업 84.6%가 '디자인 전공 학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분야 전공 전문학사'의 경우 대기업(34.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디자이너를 고용한 업체에서 '디자인 전공 학사'(69.3%), '디자인 전공 석사'(21.1%)를 선호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업체는 '디자인 전공 전문학사'(56.6%), '고등학교 졸업자'(34.55)를 선호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고등학교 졸업자	디자인 전공				디자인, 공학 등 융합 전공자				디자인이 아닌 타분야 전공자				
		전문 학사	학사	석사	박사	전문 학사	학사	석사	박사	전문 학사	학사	석사	박사	
활용업체	16.9	47.7	60.8	14.6	1.4	11.5	14.8	1.6	0.4	8.0	9.7	1.0	0.1	
권역별	서울	12.4	46.0	65.2	17.5	0.5	9.5	14.9	0.7	0.0	7.8	10.9	0.5	0.0
	부산/울산/경남	28.8	41.4	51.8	8.9	0.8	13.2	12.5	2.1	0.0	13.7	14.0	3.4	0.0
	대구/경북	10.6	54.7	67.8	24.8	0.0	14.3	8.8	0.6	0.0	3.8	8.5	0.7	0.0
	인천	19.1	52.3	40.7	3.4	0.0	17.8	24.7	0.0	0.0	17.7	16.6	0.1	0.0
	경기	18.4	48.5	61.1	11.4	3.5	11.3	15.8	1.3	2.1	6.4	7.5	0.9	0.0
	광주/전라	20.8	49.6	45.2	18.4	2.0	6.6	13.9	3.9	0.0	12.2	8.2	2.4	1.2
	대전/충청	12.7	50.8	69.3	11.4	0.0	19.7	13.8	5.4	0.0	3.7	3.4	0.0	0.0
	강원/제주	23.5	52.4	61.0	7.2	6.0	9.8	26.8	2.8	0.0	0.0	7.9	0.0	0.0
규모별	대기업	25.4	18.2	33.5	15.0	0.3	28.2	25.8	3.3	0.0	34.0	14.1	0.3	0.0
	중견기업	0.0	58.5	84.6	16.6	0.0	9.2	6.5	5.4	0.0	1.0	1.5	0.0	0.0
	중기업	10.3	35.3	58.2	18.5	3.4	17.0	19.9	2.7	1.8	9.3	13.2	2.5	0.4
	소기업	19.1	51.8	61.5	13.3	0.8	9.6	13.2	1.2	0.0	7.3	8.6	0.6	0.0
고용	디자이너 고용	5.0	41.6	69.3	21.1	0.8	16.2	21.9	2.6	0.0	3.0	3.9	0.0	0.0
	디자이너 비고용	34.5	56.6	48.1	4.9	2.2	4.7	4.5	0.2	1.1	15.2	18.2	2.6	0.2
외주	외주용역 있음	28.5	53.5	55.7	9.2	1.7	5.1	7.0	0.7	0.8	12.5	14.7	2.0	0.2
	외주용역 없음	3.8	41.1	66.5	20.6	1.0	18.8	23.7	2.6	0.0	2.8	4.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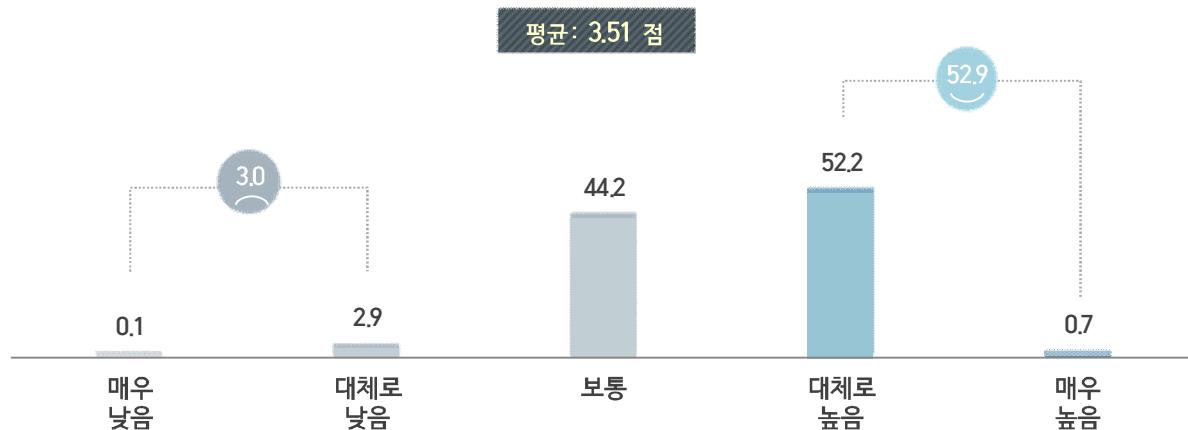
4)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5점 만점)는 평균 3.51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높음'은 52.9%(매우 : 0.7% + 대체로 : 52.2%), '보통'은 44.2%, '낮음'은 3.0%(매우 : 0.1% + 대체로 : 2.9%)로 나타남.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단위: %)



• 업종별로 디자인 교육 기여도를 살펴본 결과, 제품디자인(3.74점),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3.73점), 패션/텍스타일디자인(3.5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각디자인(3.26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기여도를 보임.

▶ 업종별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단위: %)

업종별	구분	평균(점)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음	낮음	보통	대체로 높음	매우 높음	높음	
	활용업체	0.1	2.9	3.0	44.2	52.2	0.7	52.9	3.51
	제품디자인	0.0	1.5	1.5	24.5	72.5	1.5	74.0	3.74
	시각디자인	0.7	8.5	9.2	55.2	34.8	0.8	35.5	3.26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0	0.0	0.0	29.7	67.1	3.2	70.3	3.73
	공간디자인	0.0	4.0	4.0	42.0	53.0	1.0	54.0	3.51
	패션/텍스타일디자인	0.0	0.2	0.2	42.6	56.6	0.6	57.2	3.58
	서비스/경험디자인	0.0	4.9	4.9	61.2	33.9	0.0	33.9	3.29
	산업공예디자인	0.0	0.6	0.6	42.5	57.0	0.0	57.0	3.56
	디자인인프라	0.0	0.3	0.3	43.0	56.7	0.0	56.7	3.56

- 권역별로 살펴보면, 인천(3.87점)에서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경기(3.59점), 대구/경북(3.58점), 부산/울산/경남(3.51점) 등의 순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3.79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중기업(3.60점), 중견기업(3.52점), 소기업(3.47점)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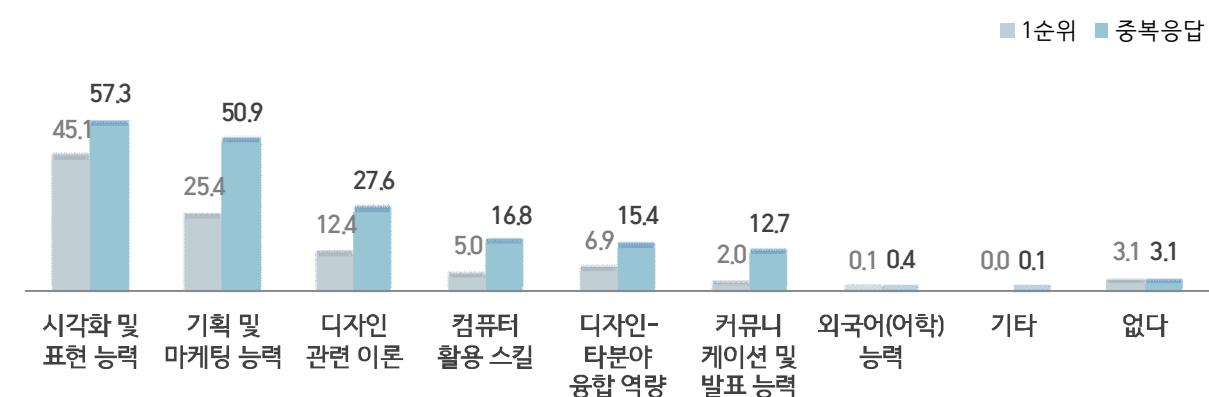
구분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음	낮음	보통	대체로 높음	매우 높음	높음	평균(점)
활용업체		0.1	2.9	3.0	44.2	52.2	0.7	52.9	3.51
권 역 별	서울	0.1	2.7	2.8	46.8	49.7	0.7	50.4	3.48
	부산/울산/경남	0.0	5.1	5.1	39.6	54.7	0.6	55.3	3.51
	대구/경북	0.0	5.7	5.7	30.8	63.4	0.0	63.5	3.58
	인천	0.0	0.0	0.0	20.3	72.8	6.9	79.7	3.87
	경기	0.0	1.0	1.0	40.1	57.9	0.9	58.8	3.59
	광주/전라	0.0	0.0	0.0	58.9	41.1	0.0	41.1	3.41
	대전/충청	0.0	6.0	6.0	53.2	40.8	0.0	40.8	3.35
	강원/제주	0.0	3.7	3.7	48.6	47.4	0.3	47.7	3.44
규 모 별	대기업	0.0	0.4	0.4	23.1	72.5	2.8	75.3	3.79
	중견기업	0.0	7.5	7.5	32.8	59.4	0.3	59.7	3.52
	중기업	0.2	4.0	4.2	32.5	61.7	1.6	63.3	3.60
	소기업	0.0	2.5	2.5	48.8	48.4	0.3	48.7	3.47
외 주	외주용역 있음	0.0	5.3	5.3	44.6	49.2	0.9	50.1	3.46
	외주용역 없음	0.1	2.3	2.3	44.1	53.0	0.6	53.6	3.52

5)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 시급히 보강되어야 할 대학 디자인 전공 교육(중복응답 기준)으로 '시각화 및 표현 능력'(57.3%), '기획 및 마케팅 능력'(50.9%), '디자인 관련 이론'(27.6%)등의 순으로 높고, 1순위 기준 역시 '시각화 및 표현 능력'(45.1%), '기획 및 마케팅 능력'(25.4%), '디자인 관련 이론'(1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각화 및 표현 능력'은 제품디자인(86.7%)에서 가장 높고, 시각디자인(62.2%), 산업공예디자인(5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기획 및 마케팅 능력'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83.6%), 서비스/경험디자인(70.3%) 등에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시각화 및 표현 능력	기획 및 마케팅 능력	디자인 관련 이론	컴퓨터 활용 스킬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	외국어(어학) 능력	기타
활용업체		57.3	50.9	27.6	16.8	15.4	12.7	0.4	0.1
업종별	제품디자인	86.7	38.4	17.2	32.0	12.8	2.0	0.1	0.5
	시각디자인	62.2	52.3	20.0	18.0	25.3	6.3	1.3	0.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47.3	28.4	3.2	5.1	15.7	0.0	0.0	0.0
	공간디자인	55.6	44.9	39.0	13.0	23.2	13.9	0.5	0.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54.6	83.6	4.7	13.2	19.2	2.2	1.6	0.0
	서비스/경험디자인	42.9	70.3	34.4	15.3	11.6	21.3	0.0	0.0
	산업공예디자인	59.4	27.5	65.9	41.2	3.0	1.2	0.0	0.0
	디자인인프라	55.5	48.3	22.3	13.4	7.8	19.0	0.0	0.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시각화 및 표현 능력'은 인천(77.5%), 대구/경북(66.3%), '기획 및 마케팅 능력'은 부산/울산/경남(57.2%), 서울(56.8%), 대전/충청(56.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시각화 및 표현 능력'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고, '기획 및 마케팅 능력'은 중견기업(54.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디자인 외주 용역을 주는 업체에서 '기획 및 마케팅 능력'(57.8%)이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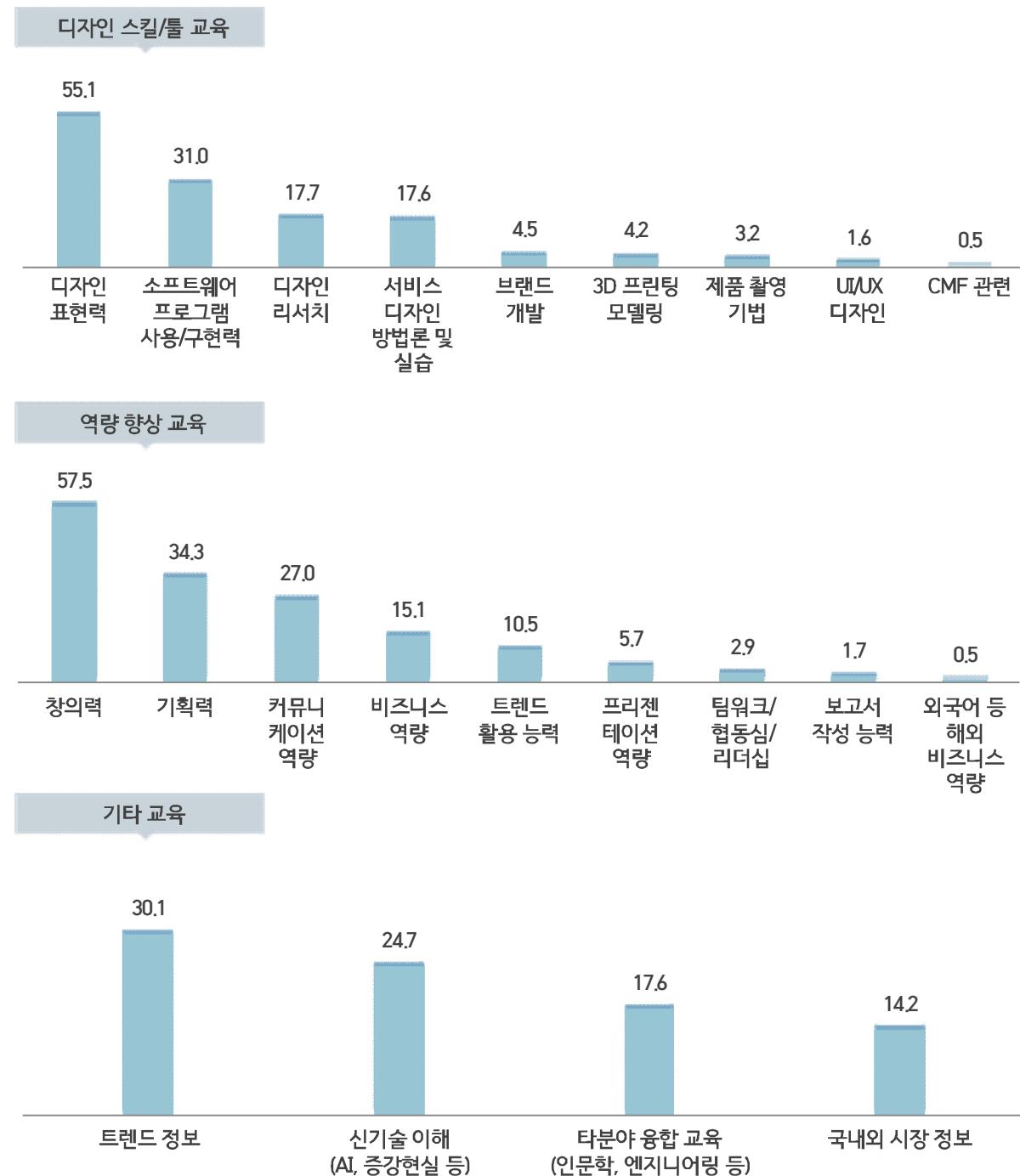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시각화 및 표현 능력	기획 및 마케팅 능력	디자인 관련 이론	컴퓨터 활용 스킬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	외국어 (어학) 능력	기타
활용업체		57.3	50.9	27.6	16.8	15.4	12.7	0.4	0.1
권역별	서울	55.8	56.8	25.3	12.0	16.5	12.1	0.4	0.0
	부산/울산/경남	58.0	57.2	26.3	22.3	17.1	6.7	0.0	0.0
	대구/경북	66.3	40.1	40.3	12.3	24.4	10.1	0.0	0.0
	인천	77.5	41.0	15.5	35.9	8.1	5.4	0.0	2.5
	경기	58.2	42.2	24.3	24.6	13.6	12.8	0.8	0.0
	광주/전라	59.7	43.4	30.2	9.1	6.5	20.2	0.0	0.0
	대전/충청	45.3	56.0	37.6	24.1	7.7	21.0	0.0	0.0
	강원/제주	57.2	40.1	29.2	6.0	30.3	15.0	0.3	0.0
규모별	대기업	74.9	50.8	9.8	17.5	30.5	10.3	3.3	0.0
	중견기업	61.9	54.4	6.4	19.1	11.9	8.9	1.1	0.0
	중기업	55.6	50.9	26.7	17.5	11.8	20.9	0.5	0.2
	소기업	57.6	50.8	28.6	16.4	16.6	9.9	0.2	0.0
외주	외주용역 있음	50.7	57.8	21.1	15.1	16.4	13.0	0.4	0.0
	외주용역 없음	59.0	49.0	29.4	17.2	15.2	12.6	0.3	0.1

6)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

-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을 조사한 결과, [디자인 스킬/툴 교육]은 '디자인 표현력'(55.1%),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31.0%) 등, [역량 향상 교육]은 '창의력' (57.5%), '기획력'(34.3%), '커뮤니케이션 역량'(27.0%) 등, [기타교육]은 '트렌드 정보'(30.1%), '신기술 이해'(2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 (단위: %)



- 업종별로 필요한 재교육을 살펴본 결과, [디자인 스킬/툴 교육]은 서비스/경험디자인과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 표현력'이 가장 높음. [역량향상 교육]에서는 패션/텍스타일디자인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창의력'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_디자인 스킬/툴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자인 표현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	디자인 리서치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및 실습	브랜드 개발	3D 프린팅 모델링	제품 촬영 기법	UI/UX 디자인	CMF 관련
활용업체		55.1	31.0	17.7	17.6	4.5	4.2	3.2	1.6	0.5
업종별	제품디자인	83.8	14.7	46.3	2.9	1.2	0.6	2.0	0.6	2.0
	시각디자인	59.7	33.6	30.3	0.7	15.7	4.0	2.4	0.0	0.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8.0	20.4	51.3	0.0	0.0	0.0	0.0	7.0	0.0
	공간디자인	67.3	23.0	6.3	15.9	0.9	2.8	2.1	0.1	0.6
	패션/텍스타일디자인	75.4	10.7	31.3	2.3	31.0	8.4	0.6	0.1	0.8
	서비스/경험디자인	30.4	85.1	0.0	65.3	0.0	2.0	2.4	1.7	0.0
	산업공예디자인	38.4	2.9	1.5	11.4	15.3	7.4	10.0	0.0	0.0
	디자인인프라	48.2	14.8	17.4	2.8	3.3	8.9	6.6	4.0	0.0

▶ 업종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_역량 향상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창의력	기획력	커뮤니케이션 역량	비즈니스 역량	트렌드 활용 능력	프레젠테이션 역량	팀워크/협동심/리더십	보고서 작성 능력	외국어 등 해외 비즈니스 역량
활용업체		57.5	34.3	27.0	15.1	10.5	5.7	2.9	1.7	0.5
업종별	제품디자인	81.6	36.6	41.4	10.7	3.7	0.6	0.4	0.3	0.6
	시각디자인	68.5	24.5	18.7	12.2	34.1	9.1	2.5	1.0	0.5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63.0	16.3	5.2	11.1	0.0	0.0	0.0	0.0	0.1
	공간디자인	57.0	36.6	34.3	19.3	10.9	12.5	2.6	2.2	0.3
	패션/텍스타일디자인	55.9	66.1	14.3	5.9	21.3	4.1	23.5	0.6	0.2
	서비스/경험디자인	49.8	41.4	19.0	21.3	5.8	5.9	0.0	0.1	1.7
	산업공예디자인	58.7	25.9	7.5	0.0	1.9	9.1	1.2	0.0	0.0
	디자인인프라	46.3	25.0	30.1	13.4	9.4	0.0	2.8	4.5	0.0

▶ 업종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_기타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트렌드 정보	신기술 이해	타분야 융합 교육	국내외 시장 정보
활용업체		30.1	24.7	17.6	14.2
업종별	제품디자인	47.7	57.4	35.2	5.9
	시각디자인	25.3	14.0	23.6	26.4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3.1	3.9	0.0	8.8
	공간디자인	39.2	27.1	25.0	13.4
	패션/텍스타일디자인	54.1	19.4	5.6	35.4
	서비스/경험디자인	16.6	26.8	10.8	10.8
	산업공예디자인	8.8	22.6	17.6	5.2
	디자인인프라	24.9	11.8	9.0	15.3

- 권역별로는 [디자인 스킬/툴 교육]에 대해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디자인 표현력'이 가장 높고, [역량향상 교육]에 대해서는 모든 권역에서 '창의력'이 높은 비율을 보임. 한편, [기타 교육]의 '트렌드 정보'는 부산/울산/경남(44.5%), 대구/경북(42.5%)에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스킬/툴 교육]의 '디자인 표현력'과 [역량 향상 교육]의 '창의력'은 규모가 클수록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고, [기타 영역]의 '트렌트 정보'(54.7%)와 '신기술 이해'(55.4%)는 대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_디자인 스킬/툴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자인 표현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	디자인 리서치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및 실습	브랜드 개발	3D 프린팅 모델링	제품 촬영 기법	UI/UX 디자인	CMF 관련
활용업체	55.1	31.0	17.7	17.6	4.5	4.2	3.2	1.6	0.5
권역별	서울	51.9	29.0	19.8	12.0	4.0	3.2	4.7	1.4
	부산/울산/경남	53.6	36.8	22.5	17.4	4.3	8.0	1.2	6.7
	대구/경북	53.8	39.4	17.1	17.4	3.5	0.9	0.1	0.0
	인천	86.7	12.3	8.9	7.1	18.2	0.0	0.0	4.5
	경기	64.1	23.9	18.4	16.0	4.2	8.0	1.2	1.7
	광주/전라	49.2	41.3	5.9	41.5	2.7	4.0	2.7	0.0
	대전/충청	52.3	29.2	13.3	31.1	6.9	0.9	2.7	0.0
	강원/제주	46.1	64.9	11.3	32.0	3.0	0.0	18.5	0.0
규모별	대기업	73.6	30.2	35.9	12.9	11.0	0.5	1.3	4.6
	중견기업	63.2	23.4	13.8	17.6	1.2	3.4	0.0	1.2
	중기업	50.0	36.3	21.7	22.7	2.3	6.5	4.2	1.4
	소기업	56.6	29.2	16.1	15.8	5.3	3.4	3.0	0.4
외주	외주용역 있음	53.8	32.8	15.5	19.3	7.2	1.3	7.0	3.6
	외주용역 없음	55.5	30.5	18.3	17.1	3.8	4.9	2.2	1.1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_역량 향상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창의력	기획력	커뮤니케이션 역량	비즈니스 역량	트렌드 활용 능력	프레젠테이션 역량	팀워크/협동심/리더십	보고서 작성 능력	외국어 등 해외 비즈니스 역량
활용업체	57.5	34.3	27.0	15.1	10.5	5.7	2.9	1.7	0.5
권역별	서울	57.4	35.2	23.9	13.8	13.0	6.6	3.6	3.1
	부산/울산/경남	53.2	27.2	38.1	16.9	16.2	6.3	2.1	0.0
	대구/경북	50.2	39.9	22.6	24.6	0.5	0.0	3.0	0.0
	인천	82.1	37.9	27.6	6.2	19.7	6.2	0.0	0.0
	경기	57.3	32.7	38.9	13.6	8.5	5.6	3.5	1.5
	광주/전라	54.9	32.4	25.9	15.3	6.7	1.7	1.4	0.0
	대전/충청	63.8	32.5	10.5	17.0	7.2	9.0	1.1	0.0
	강원/제주	68.8	50.1	12.2	10.8	3.1	6.4	0.0	0.3
규모별	대기업	87.0	51.1	30.3	1.4	10.3	2.6	8.1	0.9
	중견기업	51.8	31.3	18.8	16.2	8.9	14.0	31.7	6.2
	중기업	62.3	35.1	30.6	16.0	9.2	5.3	1.9	1.0
	소기업	55.6	33.8	25.9	14.9	10.9	5.7	2.6	1.9
외주	외주용역 있음	64.2	42.4	18.9	15.4	14.1	9.1	2.4	4.4
	외주용역 없음	55.7	32.1	29.2	15.0	9.5	4.8	3.0	1.0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_기타 교육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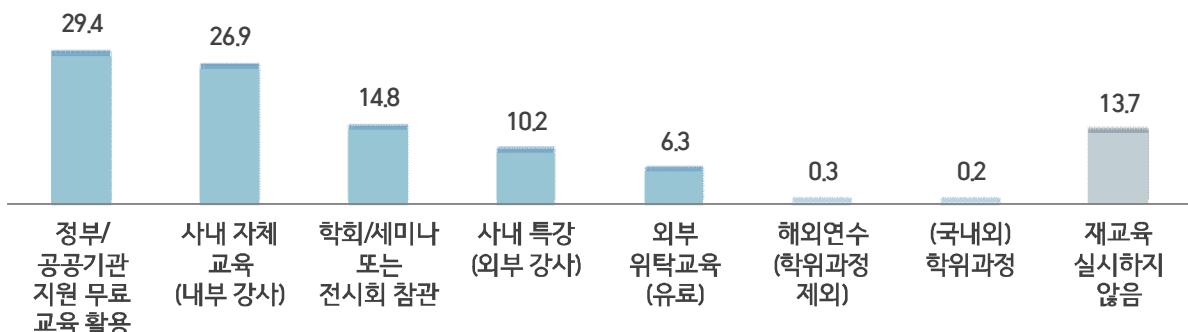
구분	트렌드 정보	신기술 이해	타분야 융합 교육	국내외 시장 정보
활용업체	30.1	24.7	17.6	14.2
권역별	서울	25.6	18.2	16.7
	부산/울산/경남	44.5	32.1	20.7
	대구/경북	42.5	29.6	14.3
	인천	32.3	18.4	40.2
	경기	27.0	36.9	15.9
	광주/전라	20.1	21.5	17.4
	대전/충청	37.7	19.9	20.0
	강원/제주	33.4	23.9	17.9
규모별	대기업	54.7	55.4	37.6
	중견기업	18.3	19.8	15.5
	중기업	29.2	30.2	16.0
	소기업	30.4	22.5	18.0
외주	외주용역 있음	35.7	17.5	22.3
	외주용역 없음	28.7	26.7	16.4

7)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으로는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29.4%), '사내 자체 교육(내부강사)'(26.9%)가 높고, 다음은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14.8%), '사내 특강(외부 강사)'(10.2%) 등의 순임. 한편, '재교육에 관심 없음'은 13.7%로 나타남.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은 서비스/경험디자인(72.0%),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는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82.8%), '학회/세미나, 전시회 참관'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41.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구분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사내 자체 교육 (내부강사)	학회/세미나, 전시회 참관	사내 특강 (외부강사)	외부 위탁교육 (유료)	해외연수 (학위과정 제외)	(국내외) 학위과정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활용업체	29.4	26.9	14.8	10.2	6.3	0.3	0.2	13.7	
업종별	제품디자인	32.3	3.2	32.0	9.6	0.8	0.5	0.0	22.5
	시각디자인	13.2	18.7	9.4	5.5	7.2	1.7	0.8	46.5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0	82.8	0.0	8.4	0.0	0.0	0.0	12.2
	공간디자인	32.0	40.9	1.6	12.0	3.6	0.0	0.6	10.3
	패션/텍스타일디자인	12.2	11.7	41.7	5.3	24.4	1.5	0.0	9.3
	서비스/경험디자인	72.0	18.7	0.3	8.9	0.0	0.0	0.0	0.1
	산업공예디자인	2.9	73.4	2.3	12.5	2.6	0.0	0.0	6.2
	디자인인프라	9.2	19.2	33.4	12.2	14.7	0.0	0.0	14.4

- 권역별로 살펴보면,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은 광주/전라(53.9%),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는 대구/경북(40.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는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은 대기업(36.6%), 중기업(33.9%), '학회/세미나, 전시회 참관'은 중견기업(46.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구분		정부/ 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사내 자체 교육 (내부강사)	학회/ 세미나, 전시회 참관	사내 특강 (외부강사)	외부 위탁교육 (유료)	해외연수 (학위과정 제외)	(국내외) 학위과정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활용업체		29.4	26.9	14.8	10.2	6.3	0.3	0.2	13.7
권 역 별	서울	22.8	30.7	16.3	12.9	4.3	0.4	0.1	14.5
	부산/울산/경남	23.9	30.5	6.9	11.8	10.1	0.1	0.0	18.0
	대구/경북	27.8	40.8	11.4	2.9	11.8	0.0	0.0	9.8
	인천	32.6	27.4	15.5	13.1	0.0	0.0	0.0	11.4
	경기	26.9	21.6	20.9	12.2	3.7	0.7	0.9	14.9
	광주/전라	53.9	17.8	18.0	0.9	1.9	0.0	0.0	7.5
	대전/충청	48.5	13.6	6.6	6.0	17.6	0.0	0.0	8.7
	강원/제주	63.1	7.1	3.1	0.3	6.5	0.0	0.0	20.0
규 모 별	대기업	36.6	3.1	25.9	18.8	0.4	6.4	0.0	7.5
	중견기업	9.1	21.8	46.1	13.6	3.5	1.9	0.0	10.4
	중기업	33.9	22.0	17.4	15.3	7.7	0.6	0.0	4.6
	소기업	28.0	29.1	13.2	8.2	5.9	0.1	0.3	17.1
외 주	외주용역 있음	25.5	25.7	12.7	9.4	11.5	0.1	0.3	17.5
	외주용역 없음	30.4	27.2	15.4	10.4	4.9	0.3	0.2	12.7

8)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 디자이너를 재교육하는 방법으로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가 33.4%로 가장 높고, 그 외 교육 방법 비율은 10% 이하로 낮게 나타남. 한편,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은 52.7%로 높게 나타남.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는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82.8%), 산업공예디자인(72.5%)에서 높고,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22.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구분		사내 자체 교육 (내부강사)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외부 위탁교육 (유료)	사내 특강 (외부강사)	정부/ 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해외연수 (학위과정 제외)	(국내외) 학위과정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활용업체		33.4	8.0	4.0	3.6	2.9	0.2	0.1	52.7
업종별	제품디자인	4.0	6.7	1.2	4.9	0.9	0.3	0.0	86.3
	시각디자인	7.2	12.7	6.0	1.8	2.3	0.0	0.8	72.2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82.8	0.0	0.0	9.3	0.0	0.0	0.0	12.2
	공간디자인	41.9	0.9	2.1	1.6	0.7	0.0	0.0	54.7
	패션/텍스타일디자인	9.8	22.5	9.3	2.5	4.9	3.1	0.0	61.1
	서비스/경험디자인	48.7	2.7	0.0	1.7	0.0	0.0	0.0	48.6
	산업공예디자인	72.5	0.0	0.0	1.5	0.0	0.0	0.0	26.0
	디자인인프라	27.2	19.3	10.5	7.0	9.6	0.0	0.0	37.4

- 권역별로는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를 활용하는 비율이 대구/경북(45.9%)에서 높고, 다음은 부산/울산/경남(38.0%), 경기(36.5%), 서울(34.5%) 등의 순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는 대기업(22.4%) 보다는 중견기업(40.6%), 중기업(40.6%)의 활용 비중이 더욱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구분		사내 자체 교육 (내부강사)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외부 위탁교육 (유료)	사내 특강 (외부강사)	정부/ 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해외연수 (학위과정 제외)	(국내외) 학위과정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활용업체		33.4	8.0	4.0	3.6	2.9	0.2	0.1	52.7
권 역 별	서울	34.5	10.1	2.5	5.1	4.5	0.2	0.1	48.3
	부산/울산/경남	38.0	1.0	12.6	0.6	0.9	0.0	0.0	47.7
	대구/경북	45.9	6.5	1.4	0.1	5.3	0.5	0.0	50.0
	인천	26.9	7.2	0.0	4.2	5.7	0.0	0.0	56.0
	경기	36.5	7.3	2.6	5.0	0.0	0.4	0.0	52.3
	광주/전라	26.0	2.1	1.4	0.0	1.4	0.0	0.0	69.2
	대전/충청	14.5	11.5	10.8	3.5	2.3	0.0	0.0	68.4
	강원/제주	16.0	18.3	2.8	0.3	0.0	0.0	0.0	63.0
규 모 별	대기업	22.4	12.7	5.7	12.3	0.5	4.6	0.0	56.8
	중견기업	40.6	44.3	5.4	8.4	7.4	0.0	0.0	13.9
	중기업	40.6	7.5	6.5	6.9	1.9	0.6	0.0	41.5
	소기업	30.9	7.5	3.1	2.3	3.2	0.0	0.1	57.3
외 주	외주용역 있음	27.7	9.5	7.7	2.4	2.0	0.4	0.3	55.9
	외주용역 없음	34.9	7.7	3.1	4.0	3.1	0.2	0.0	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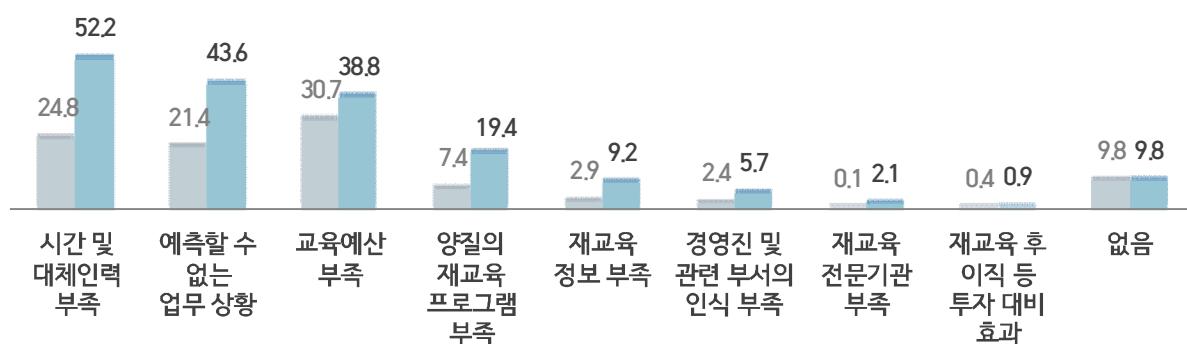
9)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중복응답 기준)은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52.2%),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43.6%), '교육예산 부족'(38.8%)의 순으로 나타남. 1순위 기준 결과는 '교육예산 부족'(30.7%),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24.8%),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21.4%) 등의 순으로 높음.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 1순위 ■ 중복응답



-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은 서비스/경험디자인(75.6%), 시각디자인(73.0%)에서 높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제품디자인(73.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	교육예산 부족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재교육 정보 부족	경영진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	재교육 전문기관 부족	재교육 후 이직 등 투자 대비 효과
활용업체		52.2	43.6	38.8	19.4	9.2	5.7	2.1	0.9
업종별	제품디자인	41.5	73.1	53.9	5.2	2.8	4.9	0.6	0.3
	시각디자인	73.0	41.3	48.1	3.2	5.5	6.6	0.7	0.7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6.9	2.0	15.7	8.1	3.1	0.0	3.1	0.0
	공간디자인	61.2	62.8	33.4	19.2	7.1	4.6	1.6	0.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45.2	58.6	70.6	2.8	5.1	15.5	0.2	0.6
	서비스/경험디자인	75.6	11.4	10.6	55.5	30.0	10.8	5.9	0.2
	산업공예디자인	51.4	25.5	59.4	19.9	17.4	12.8	1.2	0.0
	디자인인프라	31.2	38.9	51.1	10.1	0.7	0.7	1.4	3.3

- 권역별로 살펴보면,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은 강원/제주(69.0%), 부산/울산/경남(60.2%)에서 높고,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은 인천(69.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는 '중기업'(51.3%), '소기업'(53.2%)에서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이 높게 나타났고,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은 대기업(67.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	예측할 수 없는 업무상황	교육예산 부족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재교육 정보 부족	경영진 및 관련 부서의 인식부족	재교육 전문기관 부족	재교육 후 이직 등 투자 대비 효과
활용업체		52.2	43.6	38.8	19.4	9.2	5.7	2.1	0.9
권역별	서울	54.1	40.0	36.7	21.6	6.7	3.2	1.3	1.9
	부산/울산/경남	60.2	50.5	43.8	20.1	6.3	2.8	0.0	0.0
	대구/경북	54.8	51.7	48.9	10.5	10.1	5.7	6.4	0.0
	인천	50.9	69.8	53.4	5.6	5.9	0.0	0.0	0.0
	경기	43.5	42.9	40.5	16.8	7.9	9.4	3.7	0.2
	광주/전라	55.8	32.6	25.7	22.2	21.8	2.0	3.1	0.0
	대전/충청	43.1	48.7	43.4	20.7	16.1	14.4	1.1	0.5
	강원/제주	69.0	45.4	14.2	30.7	18.2	18.2	0.0	0.0
규모별	대기업	32.2	67.4	51.3	10.3	19.1	5.2	6.2	3.9
	중견기업	26.2	49.6	13.4	51.0	9.0	6.2	1.6	0.0
	중기업	51.3	43.9	40.2	20.8	8.6	5.0	3.8	3.4
	소기업	53.2	43.1	38.7	18.5	9.3	5.9	1.4	0.0
외주	외주용역 있음	54.5	36.8	46.6	15.6	9.7	6.5	3.5	2.0
	외주용역 없음	51.5	45.5	36.8	20.4	9.1	5.5	1.7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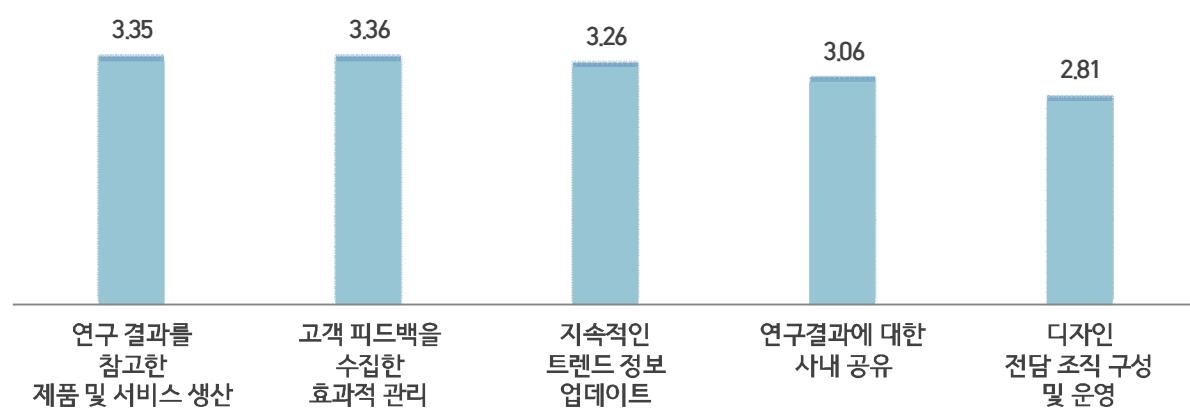
5 디자인 역량

1) 디자인 수준 - 공감

- 디자인 공감에 있어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인 수준(5점 만점)을 살펴보면, '고객 피드백을 수집한 효과적 관리'(3.36점), '연구 결과를 참고한 제품 및 서비스 생산'(3.35점)이 다른 항목 대비 높게 나타남. 반면, '디자인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은 2.81점으로 가장 낮음.

디자인 수준 - 공감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공감]에 있어서는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2) 업종별 디자인 수준 - 공감

(단위: %)

구분	연구 결과를 참고한 제품 및 서비스 생산	고객 피드백을 수집한 효과적 관리	지속적인 트렌드 정보 업데이트	연구결과에 대한 사내 공유	디자인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	
활용업체	3.35	3.36	3.26	3.06	2.81	
업종별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공간디자인 패션/텍스타일디자인 서비스/경험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디자인인프라	3.59 3.21 3.97 3.25 3.02 3.55 3.82 3.13	3.15 3.23 4.03 3.25 3.26 3.38 3.83 3.37	3.37 2.96 4.08 2.99 3.26 3.32 3.51 3.23	3.06 2.86 3.97 2.50 3.03 3.23 3.05 3.15	2.69 2.52 3.83 2.53 3.34 2.63 2.07 3.05

- ❖ 권역별로 살펴보면, '고객 피드백을 수집한 효과적 관리'와 '연구결과를 참고한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은 '대전/충청'(각각 3.51점, 3.49점)에서 높고, '디자인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은 인천(3.09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고객 피드백을 수집한 효과적 관리'는 중기업(3.45점), '연구결과를 참고한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은 대기업(3.61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디자이너를 고용한 기업의 [공감] 부분의 디자인 수준이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기업보다 높은 특징을 보임.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수준 - 공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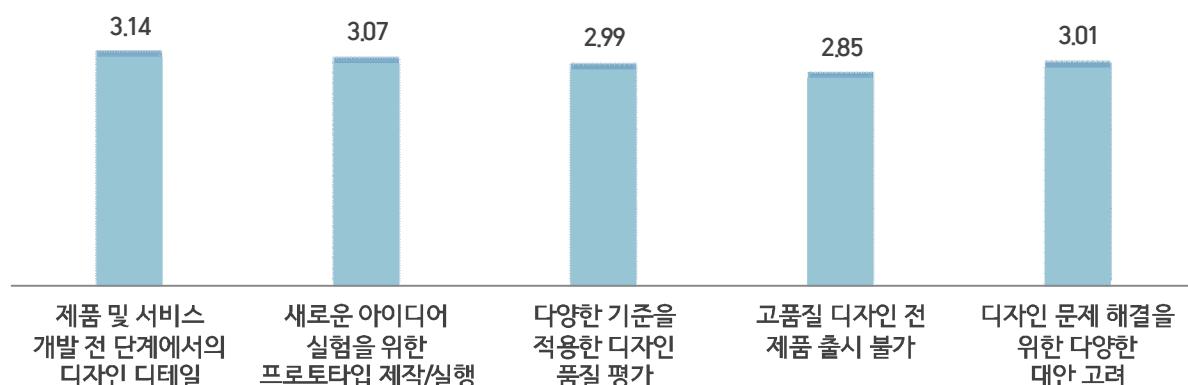
구분	연구 결과를 참고한 제품 및 서비스 생산	고객 피드백을 수집한 효과적 관리	지속적인 트렌드 정보 업데이트	연구결과에 대한 사내 공유	디자인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
활용업체	3.35	3.36	3.26	3.06	2.81
권 역 별	서울	3.43	3.44	3.27	3.12
	부산/울산/경남	3.33	3.36	3.26	3.11
	대구/경북	3.25	3.12	3.18	3.09
	인천	3.35	3.42	3.31	3.17
	경기	3.32	3.29	3.25	2.95
	광주/전라	3.34	3.34	3.24	2.94
	대전/충청	3.49	3.51	3.38	3.16
	강원/제주	2.90	3.06	3.05	2.73
규 모 별	대기업	3.61	3.10	3.32	3.01
	중견기업	3.36	3.23	3.21	3.13
	중기업	3.46	3.45	3.32	3.22
	소기업	3.32	3.33	3.24	3.00
고 용	디자이너 고용	3.48	3.48	3.36	3.14
	디자이너 비고용	3.17	3.18	3.10	2.93
외 주	외주용역 있음	3.24	3.26	3.18	3.02
	외주용역 없음	3.48	3.47	3.34	3.10

2) 디자인 수준 - 능력

- ▶ 디자인 능력에 있어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인 수준(5점 만점)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전 단계에서의 디자인 디테일'(3.14점)이 높고, 다음은 '새로운 아이디어 실험을 위한 프로토타입 제작/실행'(3.07점), '디자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 고려'(3.01점) 등의 순임.

디자인 수준 - 능력

(단위: %)



- ▶ [공감] 부문과 마찬가지로 [능력] 항목 모두에서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이 높게 나타남. 그 외 업종별로 살펴보면,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에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전 단계에서의 디자인 디테일'(3.52점)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디자인 수준 - 능력

(단위: %)

구분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전 단계에서의 디자인 디테일	새로운 아이디어 실험을 위한 프로토타입 제작/실행	다양한 기준을 적용한 디자인 품질 평가	고품질 디자인 전 제품 출시 불가	디자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 고려
활용업체	3.14	3.07	2.99	2.85	3.01
업종별	제품디자인	3.10	2.81	2.83	3.01
	시각디자인	3.15	2.93	3.07	3.14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4.08	3.99	4.06	4.04
	공간디자인	2.89	2.77	2.72	2.31
	패션/텍스타일디자인	3.52	3.20	3.20	3.29
	서비스/경험디자인	3.30	3.26	2.99	2.71
	산업공예디자인	2.45	2.72	2.35	2.23
	디자인인프라	3.08	3.12	3.06	2.96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전 단계에서의 디자인 디테일'과 '새로운 아이디어 실험을 위한 프로토타입 제작/실행'은 인천(각각 3.45점, 3.27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전 단계에서의 디자인 디테일'은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새로운 아이디어 실험을 위한 프로토타입 제작/실행'은 중견기업(3.19점), 중기업(3.16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디자이너를 고용한 기업이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기업보다 모든 [능력] 분야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수준 - 능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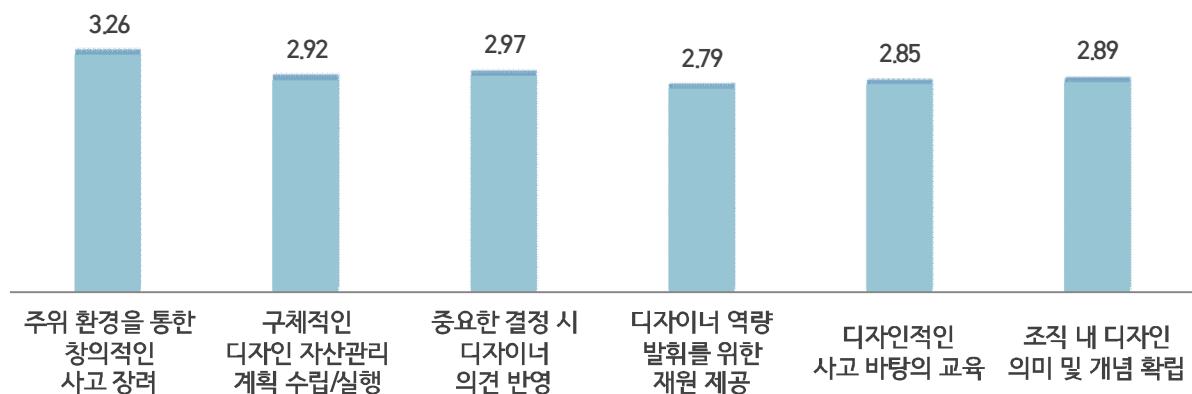
구분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전 단계에서의 디자인 디테일	새로운 아이디어 실험을 위한 프로토타입 제작/실행	다양한 기준을 적용한 디자인 품질 평가	고품질 디자인 전 제품 출시 불가	디자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 고려
활용업체		3.14	3.07	2.99	2.85	3.01
권역별	서울	3.31	3.18	3.13	2.96	3.10
	부산/울산/경남	3.00	2.96	2.89	2.72	2.97
	대구/경북	2.98	2.97	2.86	2.82	2.94
	인천	3.45	3.27	2.87	2.79	3.02
	경기	3.05	2.97	2.93	2.85	2.95
	광주/전라	3.03	3.05	2.84	2.69	2.92
	대전/충청	3.04	3.08	3.01	2.86	3.01
	강원/제주	3.05	2.95	2.81	2.60	2.85
규모별	대기업	3.48	3.02	3.11	3.12	3.12
	중견기업	3.20	3.19	2.89	2.94	2.99
	중기업	3.22	3.16	3.08	2.90	3.02
	소기업	3.11	3.04	2.96	2.83	3.00
고용	디자이너 고용	3.31	3.22	3.11	2.97	3.18
	디자이너 비고용	2.89	2.85	2.80	2.68	2.75
외주	외주용역 있음	3.03	2.96	2.89	2.78	2.89
	외주용역 없음	3.26	3.19	3.09	2.93	3.14

3) 디자인 수준 - 문화

- 디자인 문화에 대한 수준(5점 만점)은 '주위 환경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 장려'가 3.2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중요한 결정 시 디자이너 의견 반영'(2.97점), '구체적인 디자인 자산관리 계획 수립/실행'(2.9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디자인 수준 - 문화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디자인 문화 항목에서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위 환경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 장려'는 서비스/경험디자인(3.61점), '구체적인 디자인 자산관리 계획 수립/실행'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3.27점)에서 다소 높음.

▶ 업종별 디자인 수준 - 문화

(단위: %)

구분		주위 환경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 장려	구체적인 디자인 자산관리 계획 수립/실행	중요한 결정 시 디자이너 의견 반영	디자이너 역량 발휘를 위한 재원 제공	디자인적인 사고 바탕의 교육	조직 내 디자인 의미 및 개념 확립
활용업체		3.26	2.92	2.97	2.79	2.85	2.89
업종별	제품디자인	3.04	2.81	2.77	2.65	2.67	2.74
	시각디자인	3.05	3.01	2.99	2.83	2.59	2.7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4.09	3.89	4.11	3.87	3.94	3.94
	공간디자인	2.94	2.83	3.06	2.43	2.66	2.69
	패션/텍스타일디자인	3.25	3.27	3.53	3.32	3.04	3.29
	서비스/경험디자인	3.61	2.70	2.85	2.90	2.88	2.87
	산업공예디자인	3.25	2.33	2.06	1.79	2.35	2.00
	디자인인프라	3.20	3.02	2.97	2.86	2.95	3.04

- 권역별로 살펴보면, '주위 환경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 장려'는 광주/전라(3.38점), '중요한 결정 시 디자이너 의견 반영'은 인천(3.16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주위 환경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 장려'는 중견기업(3.56점)에서 높고, '중요한 결정 시 디자이너 의견 반영'은 대기업(3.04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수준 - 문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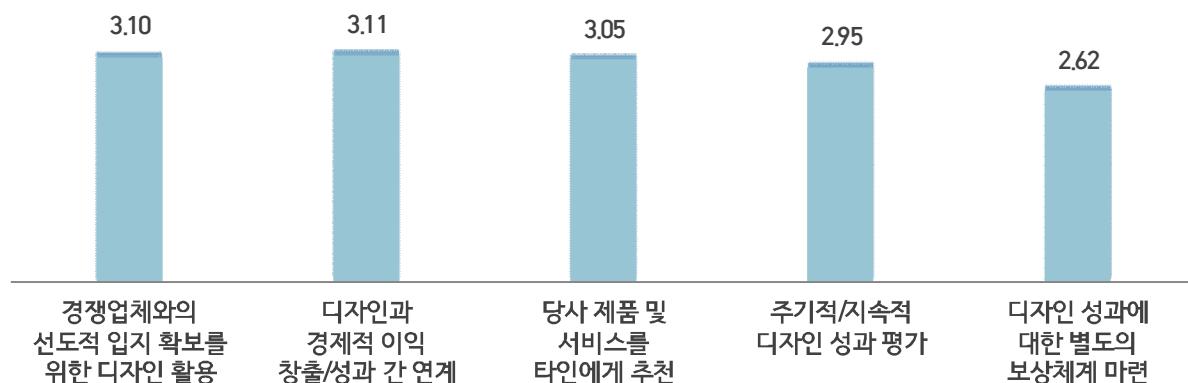
구분		주위 환경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 장려	구체적인 디자인 자산관리 계획 수립/실행	중요한 결정 시 디자이너 의견 반영	디자이너 역량 발휘를 위한 재원 제공	디자인적인 사고 바탕의 교육	조직 내 디자인 의미 및 개념 확립
활용업체		3.26	2.92	2.97	2.79	2.85	2.89
권 역 별	서울	3.30	3.05	3.10	2.91	2.98	3.04
	부산/울산/경남	3.18	2.76	2.87	2.78	2.84	2.82
	대구/경북	3.33	2.71	2.84	2.79	2.73	2.74
	인천	3.30	3.14	3.16	2.89	2.77	2.77
	경기	3.27	2.89	2.84	2.62	2.66	2.81
	광주/전라	3.38	2.80	2.95	2.74	2.96	2.87
	대전/충청	3.19	2.96	2.99	2.79	2.79	2.80
	강원/제주	2.68	2.71	2.91	2.65	2.97	2.85
규 모 별	대기업	3.29	2.74	3.04	2.86	2.94	3.03
	중견기업	3.56	3.05	2.99	2.70	3.02	2.78
	중기업	3.39	2.93	2.96	2.81	2.91	2.96
	소기업	3.21	2.91	2.97	2.79	2.83	2.87
고 용	디자이너 고용	3.35	3.02	3.14	2.87	2.90	2.97
	디자이너 비고용	3.13	2.76	2.72	2.67	2.78	2.78
외 주	외주용역 있음	3.19	2.83	2.83	2.76	2.82	2.83
	외주용역 없음	3.34	3.02	3.13	2.82	2.89	2.96

4) 디자인 수준 - 성과

- ❖ 디자인 성과 항목에 대한 디자인활용업체의 수준(5점 만점)을 살펴보면, '디자인과 경제적 이익 창출/성과 간 연계'(3.11점), '경쟁업체와의 선도적 입지 확보를 위한 디자인 활용'(3.10점)에서 다른 항목 대비 높게 나타남.

디자인 수준 - 성과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은 '디자인과 경제적 이익 창출/성과 간 연계'(4.06점), '주기적/지속적 디자인 성과 평가'(4.01점)에서 다른 항목 대비 높고, 그 외 업종별로는 '디자인과 경제적 이익 창출/성과 간 연계'는 패션/텍스타일디자인(3.52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디자인 수준 - 성과

(단위: %)

구분	경쟁업체와의 선도적 입지 확보를 위한 디자인 활용	디자인과 경제적 이익 창출/성과 간 연계	당사 제품 및 서비스를 타인에게 추천	주기적/지속적 디자인 성과 평가	디자인 성과에 대한 별도의 보상체계 마련
활용업체	3.10	3.11	3.05	2.95	2.62
업종별	제품디자인	2.89	2.87	2.85	2.82
	시각디자인	3.08	3.22	3.18	2.92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3.99	4.06	3.96	4.01
	공간디자인	2.78	2.84	2.49	2.6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3.58	3.52	3.55	3.45
	서비스/경험디자인	3.40	3.16	3.21	2.99
	산업공예디자인	2.47	2.44	3.36	2.34
	디자인인프라	3.04	3.17	3.05	3.02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디자인과 경제적 이익 창출/성과 간 연계'와 '경쟁업체와의 선도적 입지 확보를 위한 디자인 활용'은 서울(각각 3.24점, 3.22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디자인과 경제적 이익 창출/성과 간 연계'와 '경쟁업체와의 선도적 입지 확보를 위한 디자인 활용' 모두 대기업(각각 3.40점, 3.46점)에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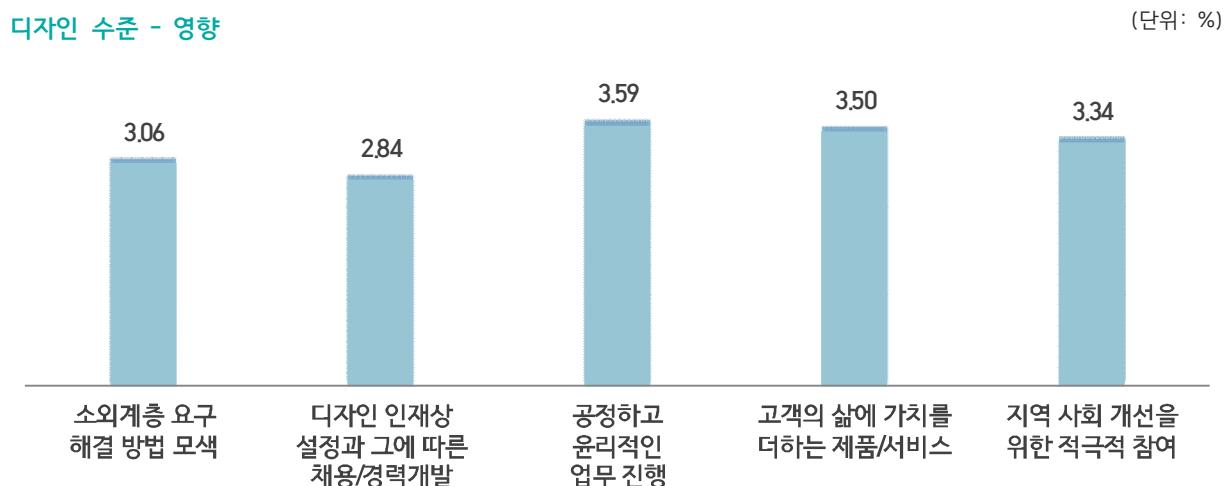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수준 - 성과

(단위: %)

구분		경쟁업체와의 선도적 입지 확보를 위한 디자인 활용	디자인과 경제적 이익 창출/성과 간 연계	당사 제품 및 서비스를 타인에게 추천	주기적/지속적 디자인 성과 평가	디자인 성과에 대한 별도의 보상체계 마련
활용업체		3.10	3.11	3.05	2.95	2.62
권 역 별	서울	3.22	3.24	3.14	3.04	2.68
	부산/울산/경남	3.01	2.96	3.05	2.86	2.64
	대구/경북	3.08	2.96	2.89	2.76	2.60
	인천	3.21	3.23	2.91	3.01	2.75
	경기	2.97	3.12	3.04	2.93	2.54
	광주/전라	3.09	3.11	2.96	2.90	2.43
	대전/충청	3.03	2.91	3.00	2.89	2.70
	강원/제주	3.04	2.87	3.04	3.06	2.72
규 모 별	대기업	3.40	3.46	3.20	3.00	2.95
	중견기업	3.11	3.03	3.29	3.07	2.74
	중기업	3.21	3.22	3.08	2.96	2.59
	소기업	3.06	3.07	3.04	2.94	2.63
고 용	디자이너 고용	3.19	3.20	3.10	3.02	2.68
	디자이너 비고용	2.96	2.96	2.98	2.85	2.55
외 주	외주용역 있음	3.05	3.05	3.05	2.92	2.57
	외주용역 없음	3.16	3.17	3.06	2.99	2.69

5) 디자인 수준 - 영향

- ▶ 디자인 영향에 대한 디자인활용업체의 수준(5점 만점)을 살펴보면,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 진행’(3.59점), ‘고객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제품/서비스’(3.50점), ‘지역 사회 개선을 위한 적극적 참여’(3.34점) 등의 순으로 높음.



- ▶ 업종별로 살펴보면,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 진행’은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3.96점), ‘고객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제품/서비스’는 ‘서비스/경험디자인(4.10점)에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 수준 - 영향

(단위: %)

구분	소외계층 요구 해결 방법 모색	디자인 인재상 설정과 그에 따른 채용/경력개발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 진행	고객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제품/서비스	지역 사회 개선을 위한 적극적 참여
활용업체	3.06	2.84	3.59	3.50	3.34
업종별	제품디자인	3.25	3.24	3.65	3.79
	시각디자인	3.02	2.90	3.29	3.16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3.95	4.05	3.96	4.06
	공간디자인	2.03	2.14	3.57	2.86
	패션/텍스타일디자인	3.07	3.08	3.71	3.61
	서비스/경험디자인	3.19	2.62	3.88	4.10
	산업공예디자인	3.12	2.43	3.61	3.56
	디자인인프라	3.30	3.06	3.40	3.30
					3.48

- ❖ 권역별로 살펴보면,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 진행'은 강원/제주(3.81점), '고객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제품/서비스'는 광주/전라(3.63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는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 진행'과 '고객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제품/서비스' 모두 대기업(각각 3.98점, 3.76점)에서 높음.
- ❖ 디자인 영향에 있어서는 디자이너 고용 업체보다 디자이너 비고용 업체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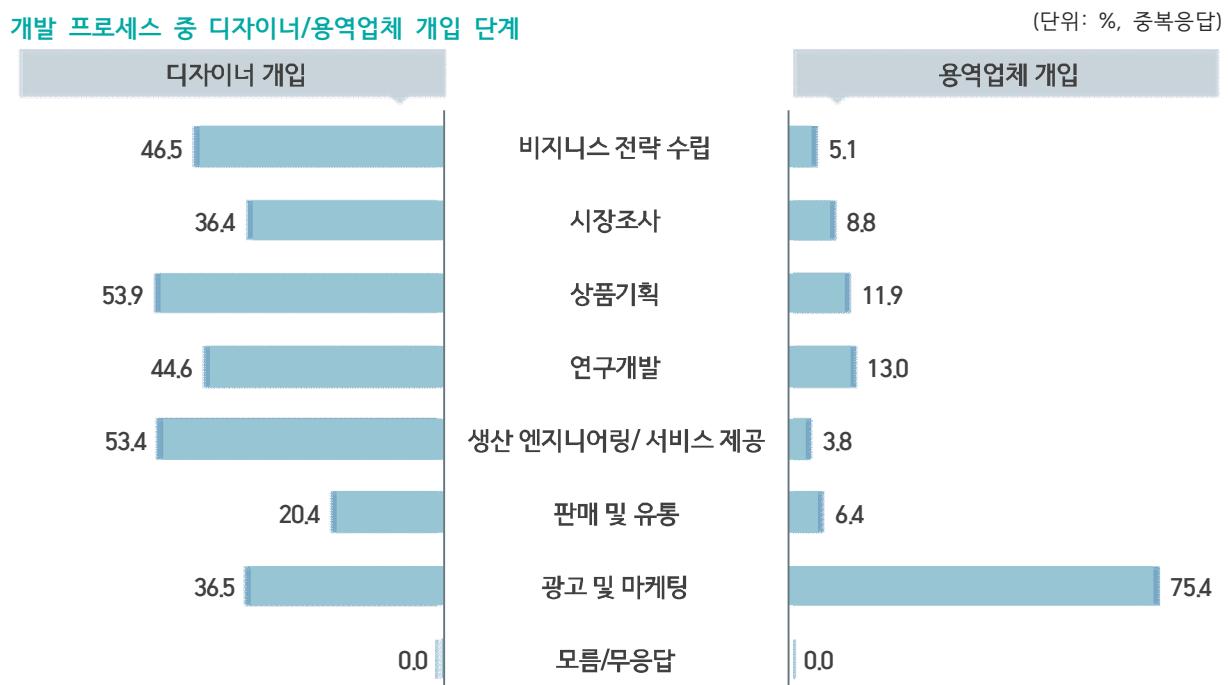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수준 - 영향

(단위: %)

구분		소외계층 요구 해결 방법 모색	디자인 인재상 설정과 그에 따른 채용/경력개발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 진행	고객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제품/서비스	지역 사회 개선을 위한 적극적 참여
활용업체		3.06	2.84	3.59	3.50	3.34
권 역 별	서울	3.09	2.99	3.67	3.58	3.40
	부산/울산/경남	2.86	2.66	3.54	3.47	3.31
	대구/경북	3.03	2.74	3.48	3.43	3.27
	인천	3.14	2.97	3.61	3.22	3.08
	경기	3.13	2.80	3.57	3.45	3.36
	광주/전라	3.01	2.71	3.65	3.63	3.38
	대전/충청	2.96	2.76	3.32	3.34	3.09
	강원/제주	3.34	2.86	3.81	3.44	3.52
규 모 별	대기업	3.08	2.90	3.98	3.76	3.63
	중견기업	3.16	2.82	3.58	3.45	3.56
	중기업	3.10	2.80	3.61	3.58	3.51
	소기업	3.05	2.86	3.58	3.47	3.28
고 용	디자이너 고용	2.90	2.80	3.58	3.42	3.15
	디자이너 비고용	3.29	2.91	3.61	3.62	3.62
외 주	외주용역 있음	3.24	2.90	3.60	3.59	3.57
	외주용역 없음	2.86	2.78	3.58	3.40	3.08

6)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용역업체 개입 단계

- 개발 프로세스에 개입하는 단계를 살펴보면(중복응답 기준), 디자이너의 경우 '상품기획' (53.9%), '생산 엔지니어링/서비스 제공'(53.4%)이 높고, 전문디자인 용역업체의 경우 '광고 및 마케팅'(75.4%)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이너 개입 단계로는 '상품 기획'은 제품디자인(94.9%), 패션/텍스타일디자인(94.1%), '생산 엔지니어링/서비스 제공'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92.7%)에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 개입 단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비즈니스 전략 수립	시장 조사	상품 기획	연구 개발	생산 엔지니어링/서비스 제공	판매 및 유통	광고 및 마케팅
활용업체	46.5	36.4	53.9	44.6	53.4	20.4	36.5
업종별	제품디자인	42.1	68.6	94.9	85.6	54.8	33.4
	시각디자인	27.5	35.3	57.1	64.3	7.1	18.3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33.7	16.1	53.9	33.4	16.0	23.4
	공간디자인	49.7	38.4	51.7	57.7	77.2	26.8
	패션/텍스타일디자인	78.3	95.0	94.1	92.7	47.7	18.4
	서비스/경험디자인	74.0	17.3	20.7	8.8	87.2	14.8
	산업공예디자인	48.5	37.0	45.9	34.7	59.2	32.0
	디자인인프라	24.2	22.2	51.3	20.3	21.4	9.2
							49.2

- 업종별 용역업체 개입 단계로는 시각디자인과 공간디자인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광고 및 마케팅'이 높게 나타남. 한편, '연구 개발'은 시각디자인(64.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개발 프로세스 중 용역업체 개입 단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비즈니스 전략 수립	시장 조사	상품 기획	연구 개발	생산 엔지니어링/서비스 제공	판매 및 유통	광고 및 마케팅
활용업체		5.1	8.8	11.9	13.0	3.8	6.4	75.4
업종별	제품디자인	17.8	33.0	11.4	10.4	5.5	15.3	89.6
	시각디자인	4.5	2.7	14.3	64.3	0.0	21.0	11.7
	디자털/멀티미디어디자인	12.9	10.5	10.3	2.4	8.8	6.4	95.1
	공간디자인	10.3	20.0	20.1	45.2	9.6	0.0	16.3
	패션/텍스타일디자인	1.1	0.0	5.5	31.7	1.1	1.5	64.3
	서비스/경험디자인	5.5	11.3	6.9	1.9	5.7	3.2	83.7
	산업공예디자인	1.2	1.4	1.4	19.4	0.8	10.1	87.4
	디자인인프라	1.5	2.8	15.9	6.9	2.7	3.7	80.7

- 디자이너 개입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상품 기획'은 인천(75.3%), 대기업(75.8%), '생산엔지니어링/서비스 제공'은 광주/전라(79.4%)에서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 개입 단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비즈니스 전략 수립	시장 조사	상품 기획	연구 개발	생산 엔지니어링/서비스 제공	판매 및 유통	광고 및 마케팅
활용업체		46.5	36.4	53.9	44.6	53.4	20.4	36.5
권역별	서울	43.1	34.4	54.5	43.0	44.3	20.0	41.2
	부산/울산/경남	58.9	46.3	60.5	52.2	53.6	18.4	31.7
	대구/경북	53.2	42.0	57.3	44.6	54.4	21.1	30.2
	인천	57.1	60.1	75.3	71.5	59.0	24.2	25.1
	경기	44.4	40.8	56.3	50.3	57.8	24.9	39.6
	광주/전라	47.4	15.8	25.7	27.2	79.4	9.7	35.3
	대전/충청	44.4	27.1	48.7	34.0	61.1	16.3	24.4
	강원/제주	44.5	40.0	57.6	51.8	73.6	34.2	25.3
규모별	대기업	52.7	56.4	75.8	75.6	65.3	51.1	43.3
	중견기업	40.7	22.6	33.5	35.5	66.9	22.2	42.7
	중기업	44.1	30.3	51.0	41.4	60.1	11.9	34.2
	소기업	47.4	38.6	55.0	45.5	50.6	22.9	37.2
외주	외주용역 있음	53.4	46.3	58.3	46.4	40.1	22.8	38.9
	외주용역 없음	44.7	33.8	52.8	44.1	56.9	19.7	35.9

- ❖ 디자인 전문 용역업체의 개입 단계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광고 및 마케팅'은 인천(82.3%), 광주/전라(83.9%), 강원/제주(82.1%), 대기업(82.2%)에서 높고, '연구 개발'은 대전/충청(28.6%), 디자이너 고용 업체(33.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고용별 개발 프로세스 중 용역업체 개입 단계

(단위: %, 증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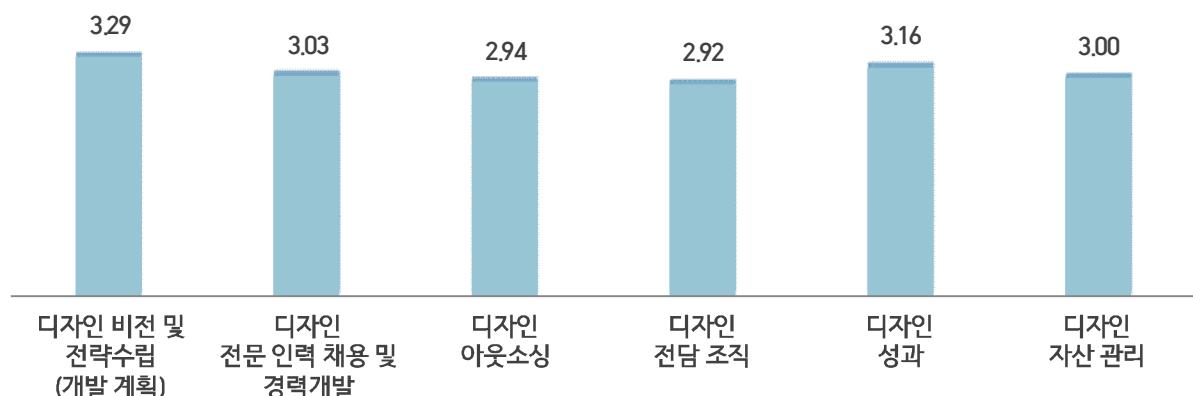
구분	비즈니스 전략 수립	시장 조사	상품 기획	연구 개발	생산 엔지니어링/서비스 제공	판매 및 유통	광고 및 마케팅
활용업체	5.1	8.8	11.9	13.0	3.8	6.4	75.4
권역별	서울	6.5	9.6	16.2	11.7	4.3	7.5
	부산/울산/경남	3.8	8.6	3.8	14.2	3.5	2.8
	대구/경북	7.3	6.8	4.7	18.9	1.7	8.7
	인천	0.0	0.1	36.2	9.9	3.2	2.2
	경기	3.8	11.3	9.2	11.7	7.4	8.9
	광주/전라	0.0	1.5	8.9	7.1	0.8	3.4
	대전/충청	8.0	18.6	18.5	28.6	2.0	9.4
	강원/제주	9.6	0.0	11.3	2.7	0.0	1.3
규모별	대기업	7.4	15.7	14.3	17.3	2.9	2.3
	중견기업	8.9	17.2	2.3	15.5	7.9	1.6
	중기업	6.4	12.8	13.4	15.2	3.9	8.7
	소기업	4.7	7.3	11.5	12.2	3.8	5.8
고용	디자이너 고용	11.8	16.2	22.3	33.1	10.5	11.8
	디자이너 비고용	3.1	6.4	8.6	6.7	1.8	4.8

7) 디자인 업무 및 활동 수준

- ❖ 디자인활용업체 내 디자인 업무 및 활동 수준을 살펴본 결과, '디자인 비전 및 전략수립(개발 계획)'(3.29점), '디자인 성과'(3.16점), '디자인 전문 인력 채용 및 경력개발'(3.03점), '디자인 자산 관리'(3.0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디자인 업무 및 활동 수준

(단위: 점)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비전 및 전략수립(개발 계획)'은 공간디자인(3.56점), 서비스/경험디자인(3.55점)에서 높고, '디자인 전문 인력 채용 및 경력개발'은 공간디자인(3.20점),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3.24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디자인 업무 및 활동 수준

(단위: 점)

구분	디자인 비전 및 전략수립 (개발 계획)	디자인 전문 인력 채용 및 경력개발	디자인 아웃소싱	디자인 전담 조직	디자인 성과	디자인 자산관리
활용업체	3.29	3.03	2.94	2.92	3.16	3.00
업종별						
제품디자인	3.48	3.10	3.21	3.16	3.06	2.98
	2.99	2.74	2.53	2.62	2.99	2.83
	3.43	3.24	2.89	3.32	3.37	3.25
	3.56	3.20	2.72	3.06	3.39	3.14
	3.23	2.83	2.64	2.79	3.01	2.88
	3.55	3.16	3.01	2.78	3.08	2.76
	2.94	2.55	2.86	2.55	2.73	2.53
	3.02	2.96	3.04	2.94	3.21	3.17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비전 및 전략수립(개발 계획)'은 대구/경북(3.44점), 서울(3.41점), 대전/충청(3.33점)에서 높고, '디자인 성과' 역시 대구/경북(3.34점), 서울(3.26점), 대전/충청(3.28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디자인 업무 및 활동 수준이 대기업에서 높게 나타남. 중기업의 경우 '디자인 비전 및 전략수립(개발 계획)’(3.61점)이 상대적으로 높음.
- ❖ 디자이너를 고용한 업체의 경우 디자인 아웃소싱을 제외한 모든 업무 및 활동 수준이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업무 및 활동 수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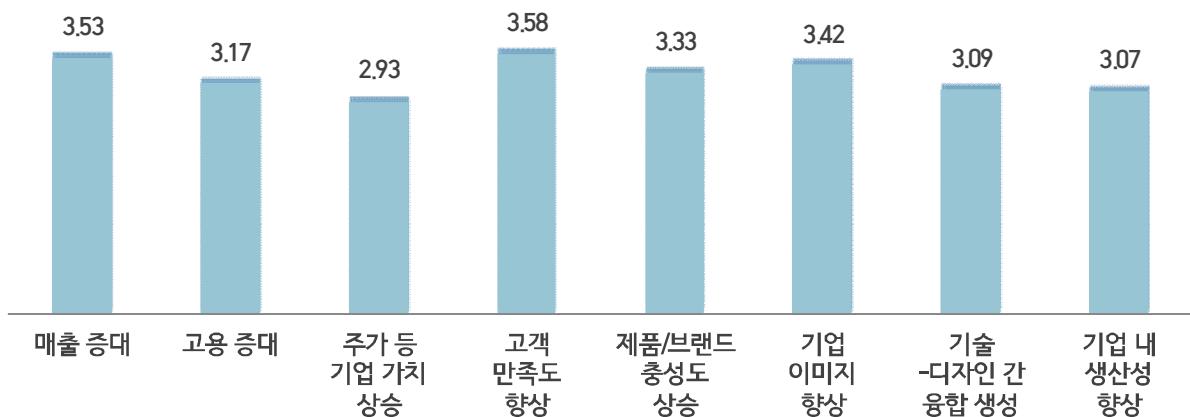
구분		디자인 비전 및 전략수립 (개발 계획)	디자인 전문 인력 채용 및 경력개발	디자인 아웃소싱	디자인 전담 조직	디자인 성과	디자인 자산관리
활용업체		3.38	2.99	2.92	2.85	3.15	2.99
권 역 별	서울	3.41	3.22	2.99	3.08	3.26	3.10
	부산/울산/경남	3.21	2.94	2.91	2.79	3.10	2.90
	대구/경북	3.44	3.03	3.02	2.97	3.34	3.00
	인천	3.29	2.91	3.04	3.15	3.16	2.94
	경기	3.18	2.92	2.90	2.89	2.99	2.96
	광주/전라	3.17	2.84	2.79	2.64	3.01	2.81
	대전/충청	3.33	2.97	2.91	2.73	3.28	3.09
	강원/제주	2.91	2.70	2.73	2.67	2.92	2.72
규 모 별	대기업	3.60	3.32	3.24	3.47	3.56	3.24
	중견기업	3.20	3.01	3.05	3.04	3.06	2.89
	중기업	3.61	3.25	3.03	3.08	3.26	3.14
	소기업	3.19	2.96	2.90	2.86	3.12	2.95
고 용	디자이너 고용	3.55	3.25	2.92	3.13	3.38	3.20
	디자이너 비고용	2.91	2.70	2.96	2.61	2.82	2.69
외 주	외주용역 있음	3.07	2.84	2.99	2.71	2.94	2.81
	외주용역 없음	3.54	3.25	2.88	3.17	3.40	3.21

8) 디자인 투자 및 활용 기여도

- 디자인활용업체 내 디자인 투자 및 활용 기여도를 살펴본 결과, '고객 만족도 향상'(3.58점), '매출 증대'(3.53점), '기업 이미지 향상'(3.4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디자인 투자 및 활용 기여도

(단위: 점)



- 업종별로 살펴보면, '고객 만족도 향상'은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3.82점), 서비스/경험디자인(3.81점), '매출 증대'는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4.05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 투자 및 활용 기여도

(단위: 점)

구분	매출증대	고용증대	주가 등 기업가치 상승	고객 만족도 향상	제품/ 브랜드 충성도 상승	기업 이미지 향상	기술- 디자인 간 융합 생성	기업 내 생산성 향상
활용업체	3.53	3.17	2.93	3.58	3.33	3.42	3.09	3.07
업종별	제품디자인	3.66	3.05	3.43	3.54	3.33	3.29	3.27
	시각디자인	3.38	3.00	2.44	3.31	3.24	3.32	2.8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4.05	3.53	3.40	3.82	3.78	3.86	3.73
	공간디자인	3.85	3.25	2.91	3.72	3.26	3.41	3.34
	패션/텍스타일디자인	3.58	3.09	2.70	3.46	3.48	3.53	2.86
	서비스/경험디자인	3.30	3.08	2.65	3.81	3.33	3.64	2.73
	산업공예디자인	3.25	2.70	2.33	3.06	2.99	2.93	2.67
	디자인인프라	3.46	3.29	3.11	3.48	3.34	3.35	3.20
								3.18

- ❖ 권역별로 살펴보면, '고객만족도 향상'은 광주/전라(3.75점), '매출 증대'는 서울(3.63점), '기업이미지 향상'은 부산/울산/경남(3.54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대기업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고객만족도 향상'(4.02점)과 '매출 증대'(3.99점)는 다른 항목 대비 큰 폭의 차이로 높은 결과를 보임.
- ❖ 모든 항목에서 디자이너를 고용한 업체가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업체보다 높은 기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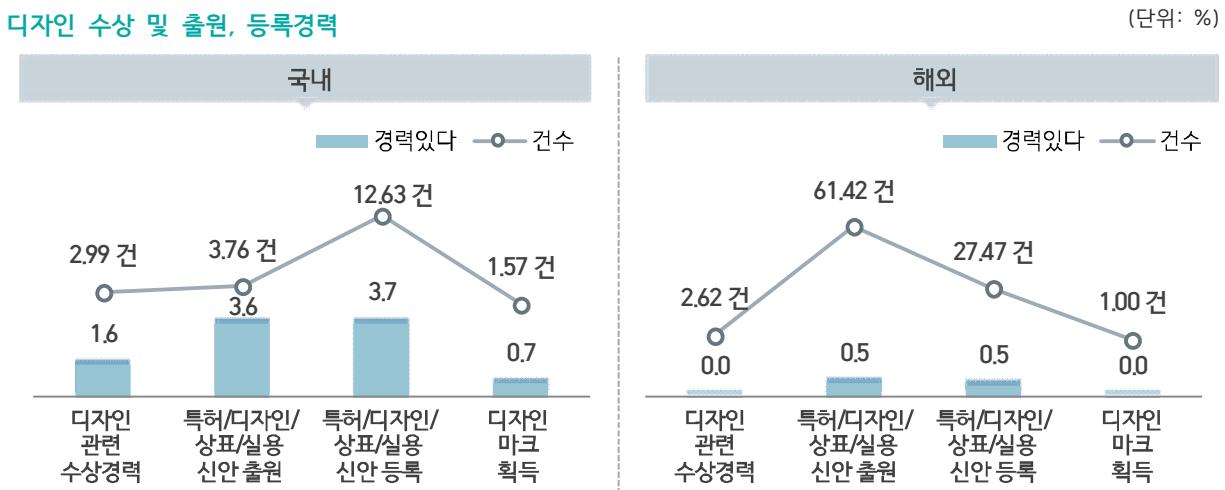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투자 및 활용 기여도

(단위: 점)

구분		매출증대	고용증대	주가 등 기업가치 상승	고객 만족도 향상	제품/ 브랜드 충성도 상승	기업 이미지 향상	기술- 디자인 간 융합 생성	기업 내 생산성 향상
활용업체		3.53	3.17	2.93	3.58	3.33	3.42	3.09	3.07
권 역 별	서울	3.63	3.34	3.10	3.64	3.41	3.51	3.20	3.21
	부산/울산/경남	3.40	3.11	2.89	3.61	3.40	3.54	3.05	2.98
	대구/경북	3.51	3.24	2.89	3.57	3.18	3.30	2.98	2.99
	인천	3.37	3.12	3.06	3.55	3.28	3.41	2.97	3.05
	경기	3.48	2.93	2.76	3.40	3.26	3.28	2.97	2.97
	광주/전라	3.45	3.21	2.75	3.75	3.30	3.43	3.00	3.01
	대전/충청	3.57	3.07	2.90	3.65	3.23	3.42	3.22	3.14
	강원/제주	3.54	3.06	2.83	3.34	3.26	3.32	2.97	2.74
규 모 별	대기업	3.99	3.32	3.59	4.02	3.62	3.79	3.34	3.22
	중견기업	3.45	3.12	2.91	3.30	3.36	3.11	3.04	3.15
	중기업	3.64	3.29	3.04	3.76	3.42	3.64	3.15	3.13
	소기업	3.49	3.13	2.89	3.52	3.29	3.36	3.06	3.05
고 용	디자이너 고용	3.78	3.30	2.94	3.68	3.39	3.54	3.28	3.30
	디자이너 비고용	3.15	2.98	2.91	3.43	3.23	3.26	2.80	2.74
외 주	외주용역 있음	3.28	3.06	2.91	3.47	3.26	3.32	2.90	2.86
	외주용역 없음	3.81	3.30	2.95	3.70	3.40	3.54	3.30	3.31

9)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경력 건수

- 국내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 경력은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등록'(3.7%),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출원'(3.6%)이 다른 경력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국내 디자인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등록'과 '국내 디자인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출원'은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각각 15.3%, 10.6%), '디자인 관련 수상'은 산업공예디자인(8.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경력

(단위: 건)

구분	국내				해외			
	디자인 관련 수상 경력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출원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마크 획득	디자인 관련 수상 경력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출원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마크 획득
활용업체	1.6	3.6	3.7	0.7	0.0	0.5	0.5	0.0
업종별	제품디자인	0.8	4.3	1.0	0.9	0.0	0.3	0.0
	시각디자인	0.1	2.6	2.3	0.1	0.1	0.0	0.1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4.2	10.6	15.3	0.0	0.1	0.1	0.2
	공간디자인	0.6	2.9	2.2	0.1	0.0	0.0	0.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0.0	3.8	4.7	0.0	0.0	1.2	1.2
	서비스/경험디자인	0.0	0.0	0.0	0.0	0.0	0.0	0.0
	산업공예디자인	8.6	4.4	4.2	1.9	0.0	0.0	0.0
	디자인인프라	2.9	5.4	6.5	1.5	0.0	1.4	1.4

- 권역별로 살펴보면, ‘국내 디자인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등록’과 ‘국내 디자인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출원’은 대전/충청(각각 7.6%, 6.3%), 서울(각각 5.3%, 5.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국내 디자인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출원’은 중견기업(7.9%)에서 다른 규모의 기업 대비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경력

(단위: 건)

구분	국내				해외			
	디자인 관련 수상 경력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출원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마크 획득	디자인 관련 수상 경력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출원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마크 획득
활용업체	1.6	3.6	3.7	0.7	0.0	0.5	0.5	0.0
권 역 별	서울	3.5	5.7	5.3	1.3	0.0	0.0	0.0
	부산/울산/경남	0.7	1.6	1.1	0.0	0.0	0.0	0.0
	대구/경북	0.1	0.9	6.2	0.5	0.0	0.0	0.0
	인천	0.8	1.3	0.0	0.0	0.0	0.0	0.0
	경기	1.0	3.5	2.6	0.3	0.0	0.2	0.3
	광주/전라	0.0	0.0	0.0	0.3	0.0	0.0	0.0
	대전/충청	0.3	6.3	7.6	0.3	0.0	5.7	5.7
	강원/제주	0.1	1.1	0.1	1.1	0.1	1.0	0.1
규 모 별	대기업	3.0	1.2	2.8	1.5	0.5	0.7	0.5
	중견기업	2.8	7.9	0.9	0.2	0.0	0.2	0.6
	중기업	2.5	3.2	3.5	2.0	0.0	0.0	0.0
	소기업	1.3	3.7	3.8	0.2	0.0	0.7	0.6
고 용	디자이너 고용	2.8	5.0	5.4	1.0	0.0	0.1	0.1
	디자이너 비고용	0.0	1.6	1.3	0.1	0.0	1.2	1.1
외 주	외주용역 있음	0.6	3.0	2.6	0.6	0.0	1.0	0.9
	외주용역 없음	2.8	4.4	5.0	0.7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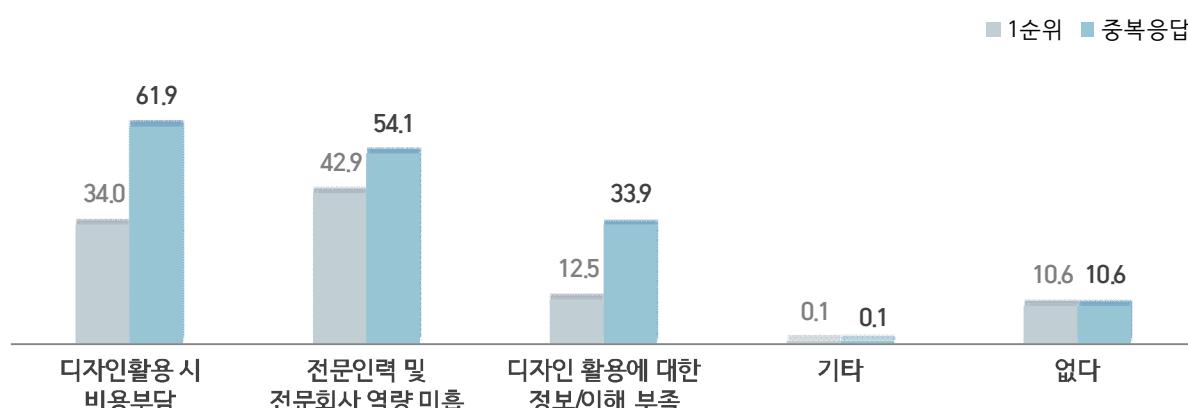
6 기타

1) 디자인 활용 시 느끼는 애로사항

- 디자인 활용 시 느끼는 애로사항(중복응답 기준)으로는 '디자인 활용 시 비용부담'(61.9%)이 가장 높고, 다음은 '전문인력 및 전문회사 역량 미흡'(54.1%), '디자인 활용에 대한 정보/이해 부족'(33.9%) 등의 순임. 1순위 기준으로는 '전문인력 및 전문회사 역량 미흡'이 42.9%로 높게 나타남.

디자인 활용 시 느끼는 애로사항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활용 시 비용 부담'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87.0%), 공간디자인(82.9%), '전문인력 및 전문회사 역량 미흡'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74.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디자인 활용 시 느끼는 애로사항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자인 활용 시 비용부담	전문인력 및 전문회사 역량 미흡	디자인 활용에 대한 정보/이해 부족	기타	없다
활용업체	61.9	54.1	33.9	0.1	10.6
업종별	제품디자인	40.6	65.5	53.7	0.5
	시각디자인	76.6	63.4	35.4	0.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6.4	10.6	3.2	0.0
	공간디자인	82.9	55.3	22.2	0.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87.0	74.1	15.7	0.0
	서비스/경험디자인	51.8	61.8	50.4	0.0
	산업공예디자인	52.6	22.3	60.2	0.0
	디자인인프라	67.5	49.1	24.3	18.2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디자인활용 시 비용부담'은 강원/제주(78.3%), '전문인력 및 전문회사 역량 미흡'은 강원/제주(74.7%)에서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디자인활용 시 비용부담'은 대기업(64.7%)과 소기업(64.2%)에서 높게 나타남.
- ❖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업체에서 디자인 활용 시 느끼는 애로사항의 비중이 높음.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활용 시 느끼는 애로사항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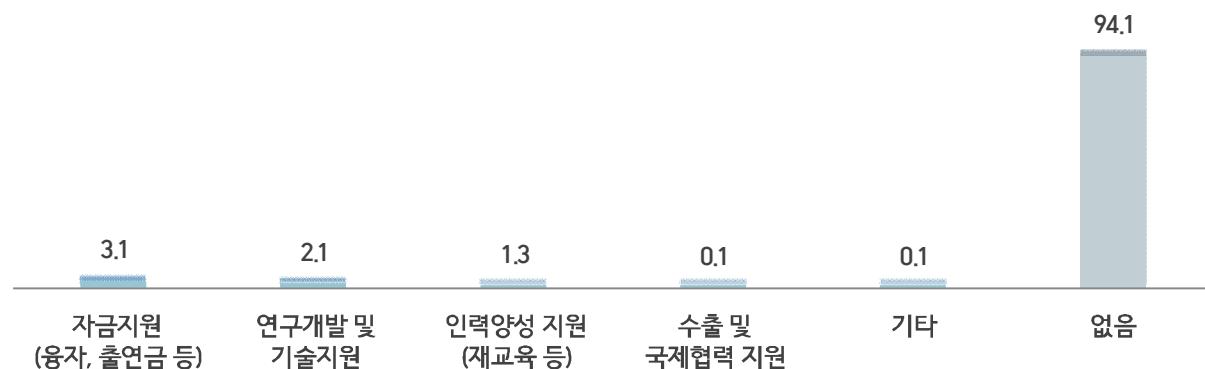
구분		디자인 활용 시 비용부담	전문인력 및 전문회사 역량 미흡	디자인 활용에 대한 정보/이해 부족	기타	없다
활용업체		61.9	54.1	33.9	0.1	10.6
권역별	서울	61.6	49.7	25.9	0.0	16.3
	부산/울산/경남	69.5	53.2	35.9	0.0	5.7
	대구/경북	66.5	65.5	34.6	0.0	4.6
	인천	66.6	62.0	19.8	0.0	3.8
	경기	58.1	55.5	42.6	0.3	10.0
	광주/전라	60.6	45.8	40.8	0.0	11.1
	대전/충청	48.0	56.2	46.1	0.0	5.1
	강원/제주	78.3	74.7	24.8	0.0	2.4
규모별	대기업	64.7	55.8	33.4	0.0	1.0
	중견기업	60.2	34.7	16.2	0.0	32.7
	중기업	54.5	60.3	38.7	0.0	10.4
	소기업	64.2	52.4	32.6	0.1	10.4
고용	디자이너 고용	56.1	57.1	31.6	0.1	13.6
	디자이너 비고용	70.5	49.7	37.2	0.0	6.1
외주	외주용역 있음	66.8	49.9	36.7	0.1	8.0
	외주용역 없음	56.4	58.8	30.7	0.0	13.5

2) 정부지원 여부

- 디자인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없음'이 94.1%로 압도적으로 높고, 정부지원 경험 비율은 '자금지원' 3.1%,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은 2.1%, '인력양성 지원'은 1.3%,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은 0.1%로 5.0% 이하 낮게 나타남.

정부지원 여부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이 낮게 나타난 가운데, '자금지원'은 산업공예디자인(6.5%),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은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5.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정부지원 여부

(단위: %)

구분	자금지원 (융자/출연금 등)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인력양성 지원 (재교육 등)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	기타	없음
활용업체	3.1	2.1	1.3	0.1	0.1	94.1
업종별	제품디자인	1.8	3.4	0.0	0.4	94.4
	시각디자인	0.8	1.1	0.1	0.5	98.2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3.3	5.2	2.6	0.0	87.8
	공간디자인	0.6	0.3	0.0	0.0	98.8
	패션/텍스타일디자인	2.0	3.0	0.5	1.0	95.9
	서비스/경험디자인	3.5	3.9	4.2	0.0	90.9
	산업공예디자인	6.5	2.5	0.0	0.0	91.0
	디자인인프라	4.8	1.1	0.9	0.0	93.9

- 모든 권역과 규모 등에서 정부 지원 경험이 낮게 나타난 가운데, '자금지원'은 강원/제주(11.4%), 소기업(3.5%),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은 강원/제주(8.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정부지원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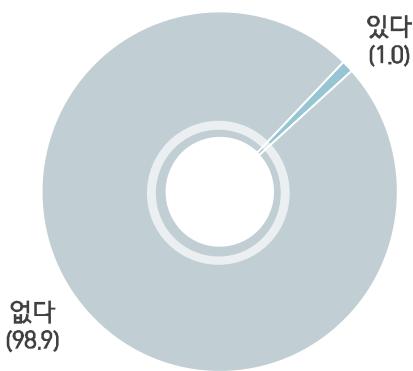
구분		자금지원 (융자/출연금 등)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인력양성 지원 (재교육 등)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	기타	없음
활용업체		3.1	2.1	1.3	0.1	0.1	94.1
권 역 별	서울	4.2	2.1	2.1	0.1	0.3	92.6
	부산/울산/경남	1.3	2.9	0.2	0.2	0.0	95.9
	대구/경북	0.8	2.0	0.4	0.6	0.0	96.3
	인천	0.0	1.3	0.0	0.0	0.0	98.7
	경기	0.6	1.5	0.9	0.0	0.0	97.0
	광주/전라	2.1	0.4	3.3	0.0	0.0	94.3
	대전/충청	8.2	2.0	0.4	0.4	0.0	89.4
	강원/제주	11.4	8.1	0.0	0.0	0.0	87.6
규 모 별	대기업	0.0	0.3	0.0	0.3	0.0	99.4
	중견기업	0.0	3.0	3.2	0.0	0.0	94.2
	중기업	2.0	2.0	2.7	0.0	0.0	94.2
	소기업	3.5	2.2	0.8	0.2	0.1	94.0
고 용	디자이너 고용	2.9	1.8	1.1	0.2	0.2	94.9
	디자이너 비고용	3.4	2.7	1.5	0.0	0.0	93.0
외 주	외주용역 있음	4.4	3.2	1.4	0.2	0.1	91.7
	외주용역 없음	1.6	0.9	1.2	0.0	0.1	96.8

3)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은 1.0%로 매우 낮게 나타남.
그 외 98.9%는 디자인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가운데, 시각디자인(5.1%), 패션/텍스타일디자인(4.2%)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활용업체		1.0	98.9
업종별	제품디자인	0.4	99.6
	시각디자인	5.1	94.9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2.0	98.0
	공간디자인	0.1	99.9
	패션/텍스타일디자인	4.2	95.8
	서비스/경험디자인	1.3	98.7
	산업공예디자인	0.2	99.8
	디자인인프라	0.3	99.7

- 모든 권역, 업체 규모, 디자이너 고용, 외주 여부 등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이 낮음.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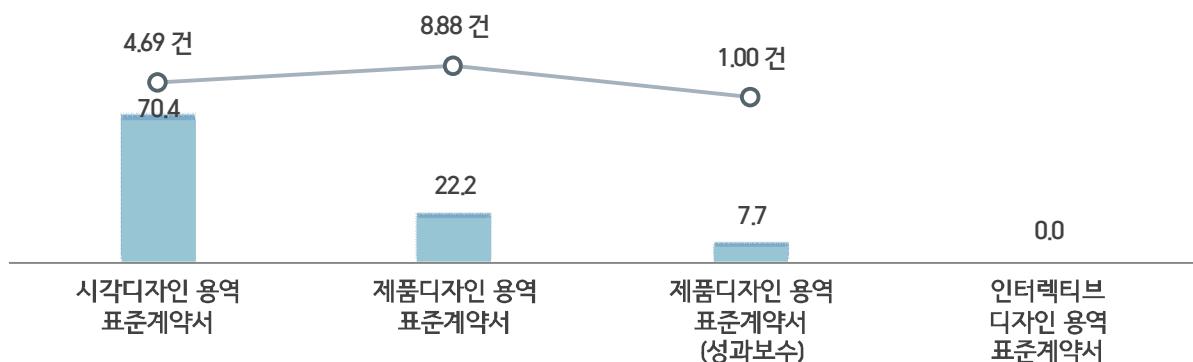
구분		있다	없다
활용업체		1.0	98.9
권 역 별	서울	1.8	98.2
	부산/울산/경남	0.7	99.3
	대구/경북	0.0	100.0
	인천	2.9	97.1
	경기	0.3	99.7
	광주/전라	0.0	100.0
	대전/충청	1.1	98.9
	강원/제주	2.2	97.8
규 모 별	대기업	1.7	97.6
	중견기업	0.0	100.0
	중기업	0.6	99.4
	소기업	1.2	98.8
고 용	디자이너 고용	1.8	98.2
	디자이너 비고용	0.0	100.0
외 주	외주용역 있음	0.7	99.3
	외주용역 없음	1.4	98.6

3-1)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 및 건수

- 활용되는 디자인표준계약서 종류로는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70.4%)가 가장 높고, 다음은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22.2%),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성과보수)'(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 및 건수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시각디자인, 공간디자인, 서비스/경험디자인, 디자인인프라에서 활용되고,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제품디자인, 패션/텍스타일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 및 건수

구분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성과보수)		인터랙티브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활용업체		70.4	4.69	22.2	8.88	7.7	1.00	0.0	-
업종별	제품디자인	0.0	-	100.0	1.00	0.0	-	0.0	-
	시각디자인	100.0	6.91	0.0	-	0.0	-	0.0	-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0	-	0.0	-	100.0	1.00	0.0	-
	공간디자인	100.0	1.00	0.0	-	0.0	-	0.0	-
	패션/텍스타일디자인	0.0	-	100.0	11.26	0.0	-	0.0	-
	서비스/경험디자인	100.0	1.98	0.0	-	0.0	-	0.0	-
	산업공예디자인	0.0	-	100.0	2.00	0.0	-	0.0	-
	디자인인프라	100.0	4.90	3.2	2.00	0.0	-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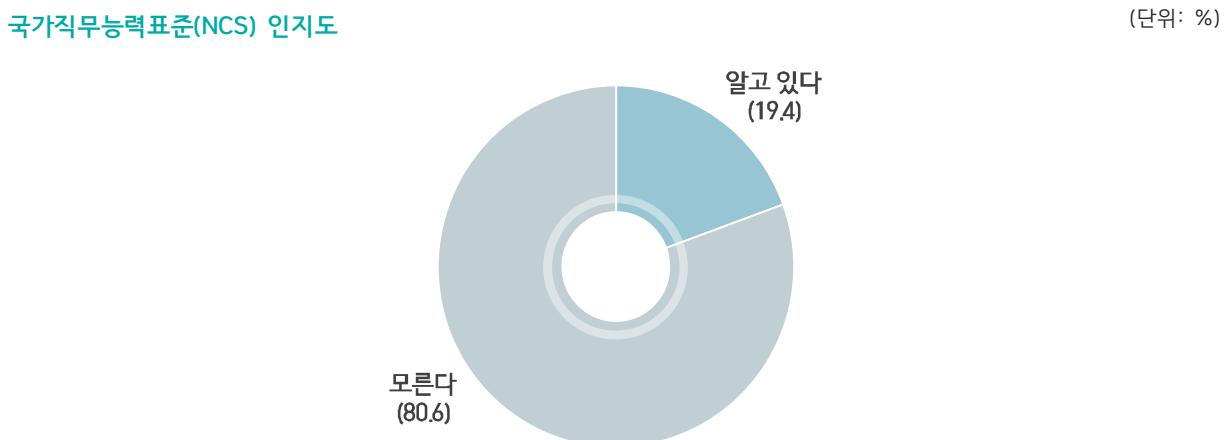
- 권역별로 살펴본 결과,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전/충청, 강원/제주,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인천, 경기, 대전/충청, 부산/울산/경남에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견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규모에서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 및 건수

구분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인터랙티브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활용업체		70.4	4.69	22.2	8.88	22.2	8.88	7.7	1.00
권역별	서울	100.0	4.31	0.5	2.00	0.5	2.00	0.0	-
	부산/울산/경남	3.3	1.00	10.4	2.00	10.4	2.00	86.3	1.00
	대구/경북	0.0	-	-	-	-	-	-	-
	인천	0.0	-	100.0	10.00	100.0	10.00	0.0	-
	경기	0.0	-	100.0	13.72	100.0	13.72	0.0	-
	광주/전라	0.0	-	-	-	-	-	-	-
	대전/충청	3.8	1.00	96.2	5.00	96.2	5.00	0.0	-
	강원/제주	100.0	8.00	0.0	-	0.0	-	0.0	-
규모별	대기업	100.0	1.20	19.7	2.00	19.7	2.00	0.0	-
	중견기업	0.0	-	0.0	-	0.0	-	0.0	-
	중기업	79.0	7.65	21.0	27.70	21.0	27.70	0.0	-
	소기업	68.5	4.20	22.4	6.12	22.4	6.12	9.1	1.00
고용	디자이너 고용	70.3	4.71	22.2	8.88	22.2	8.88	7.8	1.00
	디자이너 비고용	100.0	1.00	0.0	-	0.0	-	0.0	-
외주	외주용역 있음	88.9	5.07	11.1	1.00	11.1	1.00	0.0	-
	외주용역 없음	59.9	4.34	28.4	10.64	28.4	10.64	12.1	1.00

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알고 있다'는 업체는 19.4%로 나타남. 그 외 80.6%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알고 있다'는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26.1%), 서비스/경험디자인(26.0%), 제품디자인(23.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단위: %)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활용업체	19.4	80.6
업종별	제품디자인	23.7
	시각디자인	9.7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26.1
	공간디자인	17.8
	패션/텍스타일디자인	12.6
	서비스/경험디자인	26.0
	산업공예디자인	18.3
	디자인인프라	16.6

- ❖ 권역별로 살펴보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알고 있다'는 대구/경북(28.0%), 대전/충청(24.8%), 광주/전라(22.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규모별로는 전반적으로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높은 인지도를 보인 가운데, 인지도는 중견기업 23.2%, 대기업 26.6%로 나타남.
- ❖ 디자이너를 고용한 업체의 인지도는 23.1%로 디자이너 비고용 업체(14.0%)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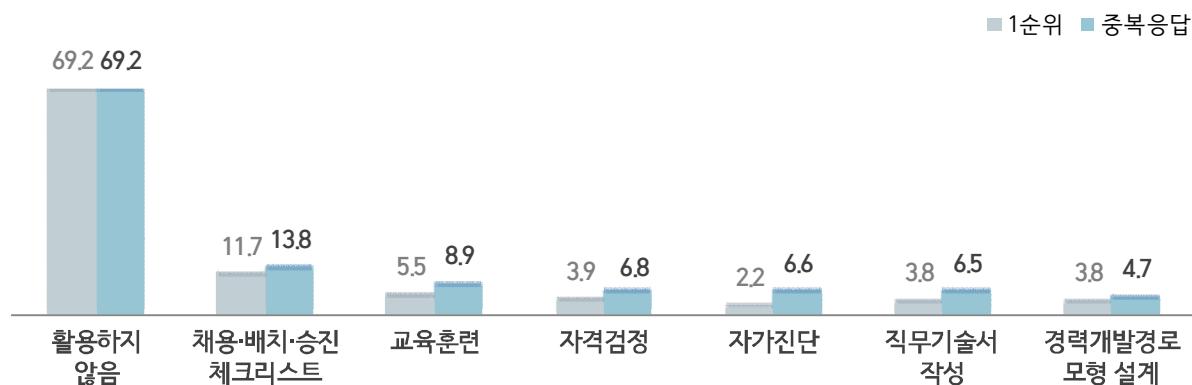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활용업체		19.4	80.6
권 역 별	서울	18.7	81.3
	부산/울산/경남	19.4	80.6
	대구/경북	28.0	72.0
	인천	14.4	85.6
	경기	16.5	83.5
	광주/전라	22.9	77.1
	대전/충청	24.8	75.2
	강원/제주	9.1	90.9
규 모 별	대기업	26.6	72.6
	중견기업	23.2	76.8
	중기업	22.8	77.2
	소기업	18.2	81.8
고 용	디자이너 고용	23.1	76.9
	디자이너 비고용	14.0	86.0
외 주	외주용역 있음	18.0	82.0
	외주용역 없음	21.0	79.0

4-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한 업무 활용도(중복응답 기준)는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13.8%), '교육훈련'(8.9%), '자격검정'(6.8%), '자기진단'(6.6%), '직무기술서 작성'(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활용하지 않음'은 69.2%로 높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는 전 업종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는 서비스/경험디자인(29.8%), 제품디자인(16.5%), '교육훈련'은 산업공예디자인(26.0%), '자격검정'은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25.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활용하지 않음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	교육훈련	자격검정	자기진단	직무기술서 작성	경력개발 경로 모형 설계	
활용업체	69.2	13.8	8.9	6.8	6.6	6.5	4.7	
업종별	제품디자인	72.4	16.5	1.7	0.0	0.1	10.5	1.3
	시각디자인	80.5	3.0	4.7	0.6	11.8	18.9	0.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34.1	0.0	0.3	25.5	41.4	0.0	0.0
	공간디자인	84.0	4.2	4.7	3.6	0.3	8.4	5.1
	패션/텍스타일디자인	99.3	0.0	0.0	0.7	0.7	0.0	0.0
	서비스/경험디자인	60.2	29.8	15.4	3.3	4.7	8.4	4.7
	산업공예디자인	74.0	0.0	26.0	17.7	2.8	5.5	0.0
	디자인인프라	70.8	8.7	8.8	11.6	8.8	1.7	8.8

- 권역별로 살펴보면,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는 광주/전라(48.7%), '교육훈련'은 대전/충청(38.6%), '자격검정'은 광주/전라(14.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지 않는 비율이 72.8%로 높은 반면, 중견기업은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24.0%), '교육훈련'(12.0%) 등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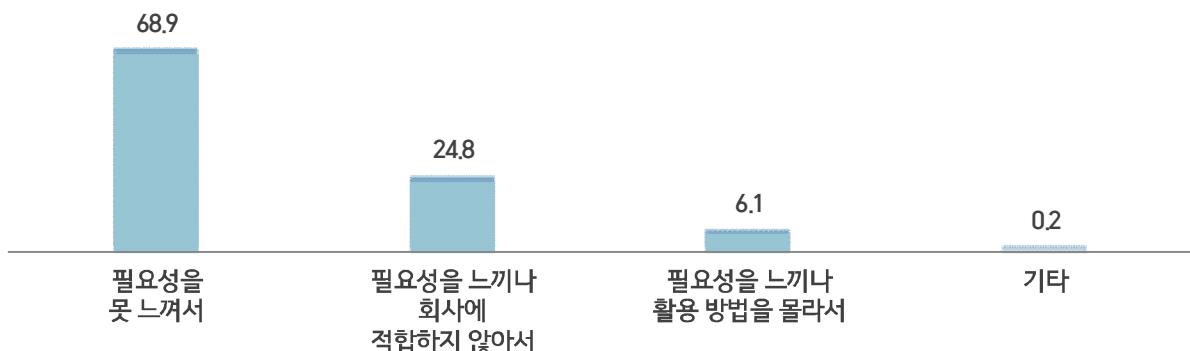
구분		활용하지 않음	채용·배치· 승진 체크리스트	교육훈련	자격검정	자기진단	직무기술서 작성	경력개발 경로 모형 설계
활용업체		69.2	13.8	8.9	6.8	6.6	6.5	4.7
권 역 별	서울	74.7	7.0	3.6	6.0	6.2	5.6	6.9
	부산/울산/경남	83.7	16.2	7.5	4.0	0.0	2.2	0.0
	대구/경북	72.1	13.6	11.4	5.9	3.3	3.8	0.0
	인천	93.5	6.5	0.8	0.0	0.0	0.0	0.0
	경기	76.8	10.6	1.6	9.2	1.7	5.3	3.0
	광주/전라	38.7	48.7	13.9	14.9	0.0	10.9	14.9
	대전/충청	47.3	12.3	38.6	4.7	24.6	16.8	1.8
	강원/제주	0.7	8.1	0.0	1.3	80.7	10.6	10.6
규 모 별	대기업	72.8	23.5	3.5	1.8	2.8	7.9	0.0
	중견기업	46.0	24.0	12.0	5.3	16.4	12.0	24.7
	중기업	64.9	23.0	8.7	8.7	2.5	5.9	4.2
	소기업	71.3	9.8	9.0	6.1	8.2	6.5	4.5
고 용	디자이너 고용	70.0	9.4	9.8	7.3	8.3	6.3	6.3
	디자이너 비고용	67.2	24.6	6.6	5.5	2.6	6.9	0.6
외 주	외주용역 있음	69.6	17.2	5.7	7.2	5.8	6.1	2.6
	외주용역 없음	68.8	10.6	12.0	6.4	7.4	6.8	6.6

4-2)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68.9%로 가장 높고, 다음은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24.8%),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6.1%) 등의 순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필요성을 못 느껴서'는 서비스/경험디자인(91.9%),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86.3%), 시각디자인(83.6%), 공간디자인(81.3%) 등의 순임.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는 제품디자인(59.3%), 디자인 인프라'(41.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	기타
활용업체	68.9	24.8	6.1	0.2
업종별	제품디자인	35.0	59.3	4.5
	시각디자인	83.6	4.6	11.8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86.3	13.7	0.0
	공간디자인	81.3	4.9	13.8
	패션/텍스타일디자인	80.2	18.6	1.3
	서비스/경험디자인	91.9	7.9	0.2
	산업공예디자인	59.1	11.4	29.5
	디자인인프라	54.5	41.4	4.1

- 권역별로 살펴보면, '필요성을 못 느껴서'는 강원/제주(100.0%), 광주/전라(90.8%), 대전/충청(90.6%) 등에서 높고,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는 인천(71.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필요성을 못 느껴서'는 중기업(86.9%)에서 높고,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는 소기업(30.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디자이너를 고용한 업체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79.4%)가 높은 반면,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업체는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48.2%)가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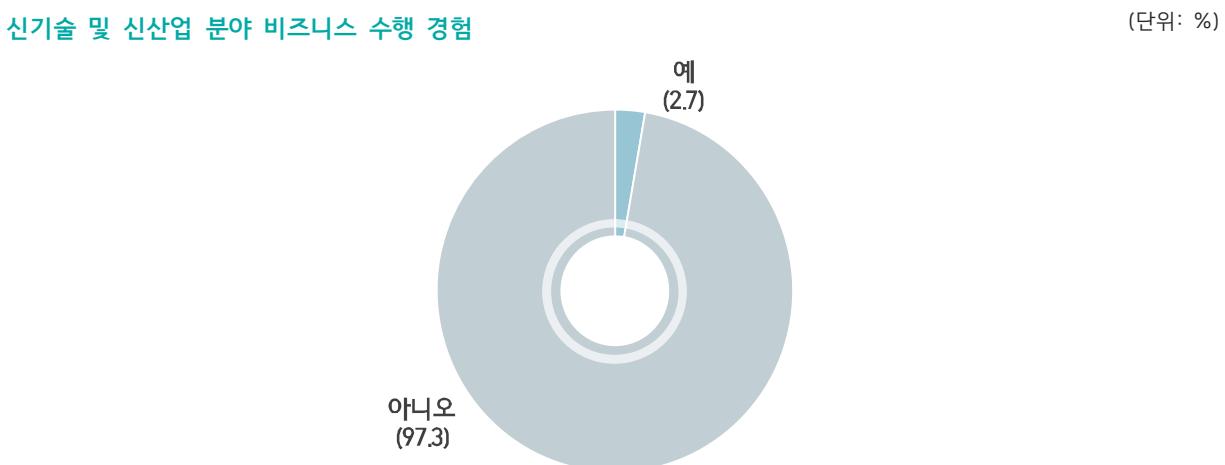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	기타
활용업체		68.9	24.8	6.1	0.2
권 역 별	서울	67.0	24.4	8.6	0.0
	부산/울산/경남	74.0	24.8	1.2	0.0
	대구/경북	76.3	15.5	8.3	0.0
	인천	5.5	71.7	16.7	6.1
	경기	60.1	36.1	3.8	0.0
	광주/전라	90.8	1.4	7.8	0.0
	대전/충청	90.6	9.4	0.0	0.0
	강원/제주	100.0	0.0	0.0	0.0
규 모 별	대기업	73.8	7.9	5.5	12.8
	중견기업	70.0	26.3	3.7	0.0
	중기업	86.9	8.8	4.3	0.0
	소기업	62.4	30.9	6.7	0.0
고 용	디자이너 고용	79.4	15.6	4.8	0.2
	디자이너 비고용	42.5	48.2	9.2	0.0
외 주	외주용역 있음	57.9	36.3	5.9	0.0
	외주용역 없음	79.7	13.7	6.2	0.3

5)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경험

-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 비즈니스를 수행한 경험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업체는 2.7%, '아니오'는 97.3%로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했는지에 대해, '예'는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7.7%), 산업공예디자인(4.5%)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경험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활용업체		2.7	97.3
업종별	제품디자인	3.8	96.1
	시각디자인	0.0	100.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7.7	92.3
	공간디자인	1.4	98.6
	패션/텍스타일디자인	1.6	98.4
	서비스/경험디자인	3.6	96.4
	산업공예디자인	4.5	95.5
	디자인인프라	2.1	97.9

- 권역별, 디자이너 고용 여부, 디자인 외주 용역 여부에 따른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경험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
-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경험이 2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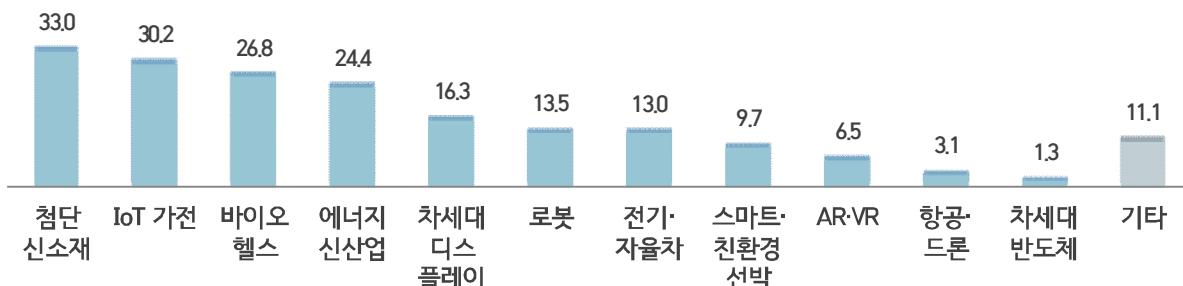
구분		예	아니오
활용업체		2.7	97.3
권 역 별	서울	3.3	96.7
	부산/울산/경남	2.6	97.4
	대구/경북	2.3	97.7
	인천	1.3	98.7
	경기	2.4	97.6
	광주/전라	2.3	97.7
	대전/충청	1.9	98.1
	강원/제주	1.7	98.3
규 모 별	대기업	22.9	76.3
	중견기업	2.2	97.8
	중기업	1.2	98.8
	소기업	2.9	97.1
고 용	디자이너 고용	1.1	98.9
	디자이너 비고용	5.0	95.0
외 주	외주용역 있음	4.3	95.7
	외주용역 없음	0.8	99.2

5-1)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분야

-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분야로는 '첨단신소재'(33.0%), 'IoT가전'(30.2%), '바이오 헬스' (26.8%), '에너지 신산업'(24.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분야

(단위: %)



* 기타 : 산업용 섬유(4.8%), IT(3.0%), 결제서비스(1.9%), 홈페이지 자체제작 솔루션(0.8), 프리미엄 소비재(0.4%), 인공지능 통번역(0.1%), 빅데이터(0.1%)

- 업종별로 살펴보면, '첨단 신소재'는 산업공예디자인(89.2%), 패션/텍스타일디자인(69.1%), 디자인인프라(64.1%), 'IoT 가전'은 디자인인프라(64.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분야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첨단 신소재	IoT 가전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	차세대 디스 플레이	로봇	전기- 자율차	스마트- 친환경 선박	AR·VR	항공 드론	차세대 반도체	기타
활용업체		33.0	30.2	26.8	24.4	16.3	13.5	13.0	9.7	6.5	3.1	1.3	11.1
업종별	제품디자인	18.9	13.1	0.0	0.0	0.0	23.7	17.6	0.0	0.0	18.9	7.9	0.0
	시각디자인	-	-	-	-	-	-	-	-	-	-	-	-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25.7	0.0	25.7	0.0	0.0	0.0	0.0	0.0	0.0	0.0	0.0	74.3
	공간디자인	32.5	23.1	0.0	0.0	0.0	44.4	0.0	0.0	0.0	0.0	0.0	0.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69.1	0.0	69.1	0.0	0.0	0.0	0.0	0.0	30.9	0.0	0.0	69.1
	서비스/경험디자인	0.0	34.3	0.0	27.2	0.0	0.0	3.5	34.3	0.0	0.0	0.0	0.8
	산업공예디자인	89.2	0.0	0.0	5.4	0.0	0.0	0.0	0.0	0.0	0.0	0.0	5.4
	디자인인프라	64.1	64.1	86.7	64.1	64.1	22.7	35.9	0.0	22.7	0.0	0.0	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첨단 신소재'는 서울, 경기, 광주/전라, 'IoT 가전'은 인천, 서울, 대구/경북, 대전/충청에서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가 진행됨.
- 규모별로 살펴보면, '첨단 신소재'는 소기업(40.9%), 'IoT 가전'은 중견기업(88.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분야

(단위: %, 증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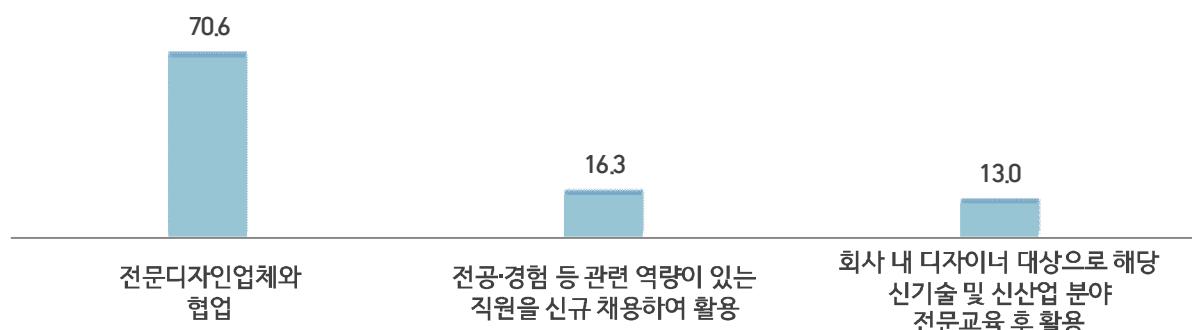
구분		첨단 신소재	IoT 가전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	차세대 디스 플레이	로봇	전기- 자율차	스마트- 친환경 선박	AR·VR	항공 드론	차세대 반도체	기타
활용업체		33.0	30.2	26.8	24.4	16.3	13.5	13.0	9.7	6.5	3.1	1.3	11.1
권 역 별	서울	42.5	57.0	48.3	35.7	35.7	21.0	12.6	0.0	12.6	6.8	0.0	8.5
	부산/울산/경남	0.0	0.0	0.0	0.0	0.0	0.0	0.0	76.2	0.0	0.0	0.0	23.8
	대구/경북	0.0	28.2	0.0	0.0	0.0	32.9	22.6	0.0	11.0	0.0	0.0	5.2
	인천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경기	42.4	0.0	16.2	37.9	0.0	8.5	0.0	0.0	0.0	0.0	0.0	11.3
	광주/전라	85.1	0.0	25.8	14.9	0.0	0.0	0.0	0.0	0.0	0.0	0.0	25.8
	대전/충청	0.0	15.4	0.0	0.0	0.0	0.0	84.6	0.0	0.0	0.0	0.0	0.0
	강원/제주	0.0	0.0	0.0	0.0	0.0	0.0	43.2	0.0	0.0	0.0	56.8	0.0
규 모 별	대기업	0.0	0.0	0.0	85.9	0.0	0.0	12.6	0.0	0.0	0.0	0.0	1.5
	중견기업	0.0	88.1	0.0	0.0	0.0	0.0	0.0	0.0	0.0	0.0	0.0	11.9
	중기업	0.0	31.2	0.0	12.9	0.0	0.0	44.5	0.0	0.0	0.0	0.0	11.4
	소기업	40.9	32.2	33.2	20.2	20.2	16.7	9.1	12.1	8.1	3.9	1.6	12.0
고 용	디자이너 고용	12.5	8.8	12.5	0.0	0.0	22.2	20.4	0.0	0.0	0.0	0.0	36.1
	디자이너 비고용	39.6	37.0	31.4	32.2	21.5	10.7	10.6	12.9	8.6	4.1	1.7	3.1
외 주	외주용역 있음	34.8	32.5	27.6	28.3	18.9	11.2	15.1	11.3	7.6	3.6	1.5	7.2
	외주용역 없음	21.8	15.4	21.8	0.0	0.0	27.4	0.0	0.0	0.0	0.0	0.0	35.4

5-2)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활용

-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활용 방안은 '전문디자인업체와 협업'(70.6%), '전공·경험 등 관련 역량이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활용'(16.3%), '회사 내 디자이너 대상으로 해당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전문 교육 후 활용'(13.0%) 순으로 높게 나타남.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활용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문디자인업체와 협업'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100.0%), 서비스/경험디자인 (96.1%), 산업공예디자인(94.6%), 디자인인프라(86.7%) 등의 순으로 높음.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활용

(단위: %)

구분	전문디자인업체와 협업	전공경험 등 관련 역량이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활용	회사 내 디자이너 대상으로 해당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전문교육 후 활용
활용업체	70.6	16.3	13.0
업종별	제품디자인	46.1	32.9
	시각디자인	-	-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0	51.4
	공간디자인	55.6	0.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100.0	0.0
	서비스/경험디자인	96.1	3.9
	산업공예디자인	94.6	5.4
	디자인인프라	86.7	13.3

- 권역별로는 인천, 대전/충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전문디자인업체와 협업'이 높은 비중을 보임. 규모별로는 중기업과 대기업에서 '전문디자인업체와 협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강원/제주(100.0%), 광주/전라(85.1%), 대기업(98.5%)에서 더욱 높음.
- '전공·경험 등 관련 역량이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활용'은 대전/충청(61.1%), 중기업(45.0%), 디자이너 고용 업체(38.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활용

(단위: %)

구분		전문디자인업체와 협업	전공경험 등 관련 역량이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활용	회사 내 디자이너 대상으로 해당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전문교육 후 활용
활용업체		70.6	16.3	13.0
권 역 별	서울	76.4	13.5	10.2
	부산/울산/경남	76.2	0.0	23.8
	대구/경북	67.1	32.9	0.0
	인천	0.0	0.0	100.0
	경기	71.2	18.8	10.1
	광주/전라	85.1	14.9	0.0
	대전/충청	0.0	61.1	38.9
	강원/제주	100.0	0.0	0.0
규 모 별	대기업	98.5	1.5	0.0
	중견기업	11.9	0.0	88.1
	중기업	22.4	45.0	32.6
	소기업	74.9	14.2	10.8
고 용	디자이너 고용	13.1	38.8	48.1
	디자이너 비고용	89.2	9.1	1.7
외 주	외주용역 있음	82.1	15.5	2.5
	외주용역 없음	0.0	21.8	78.2

5-3)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필요 인력/현원

-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필요 인력은 평균 1.56명.
디자이너 현원은 1.22명, 2018년 채용 예정은 0.26명으로 나타남.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필요 인력/현원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자이너 필요 인력'은 제품디자인(4.32명),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4.15명)에서 높고, '디자이너 현원'은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4.67명), '2018년 채용 예정'은 공간디자인(1.33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필요 인력/현원

(단위: %)

구분	디자이너 필요인력	디자이너 현원	2018년 채용 예정
활용업체	1.56	1.22	0.26
업종별	제품디자인	4.32	0.67
	시각디자인	-	-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4.15	4.67
	공간디자인	0.00	1.33
	패션/텍스타일디자인	1.00	0.00
	서비스/경험디자인	0.38	0.00
	산업공예디자인	0.00	0.00
	디자인인프라	0.87	1.72

- 권역별로는 '디자이너 필요 인력'은 인천(3.00명), 강원/제주(2.84명), '디자이너 현원'은 대전/충청(8.09명), 인천(3.00명), 2018년 채용 예정은 광주/전라(0.41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는 '디자이너 필요인력'은 소기업(1.82명), '디자이너 현원'은 중기업(4.70명), '2018년 채용 예정'은 소기업(0.30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필요 인력/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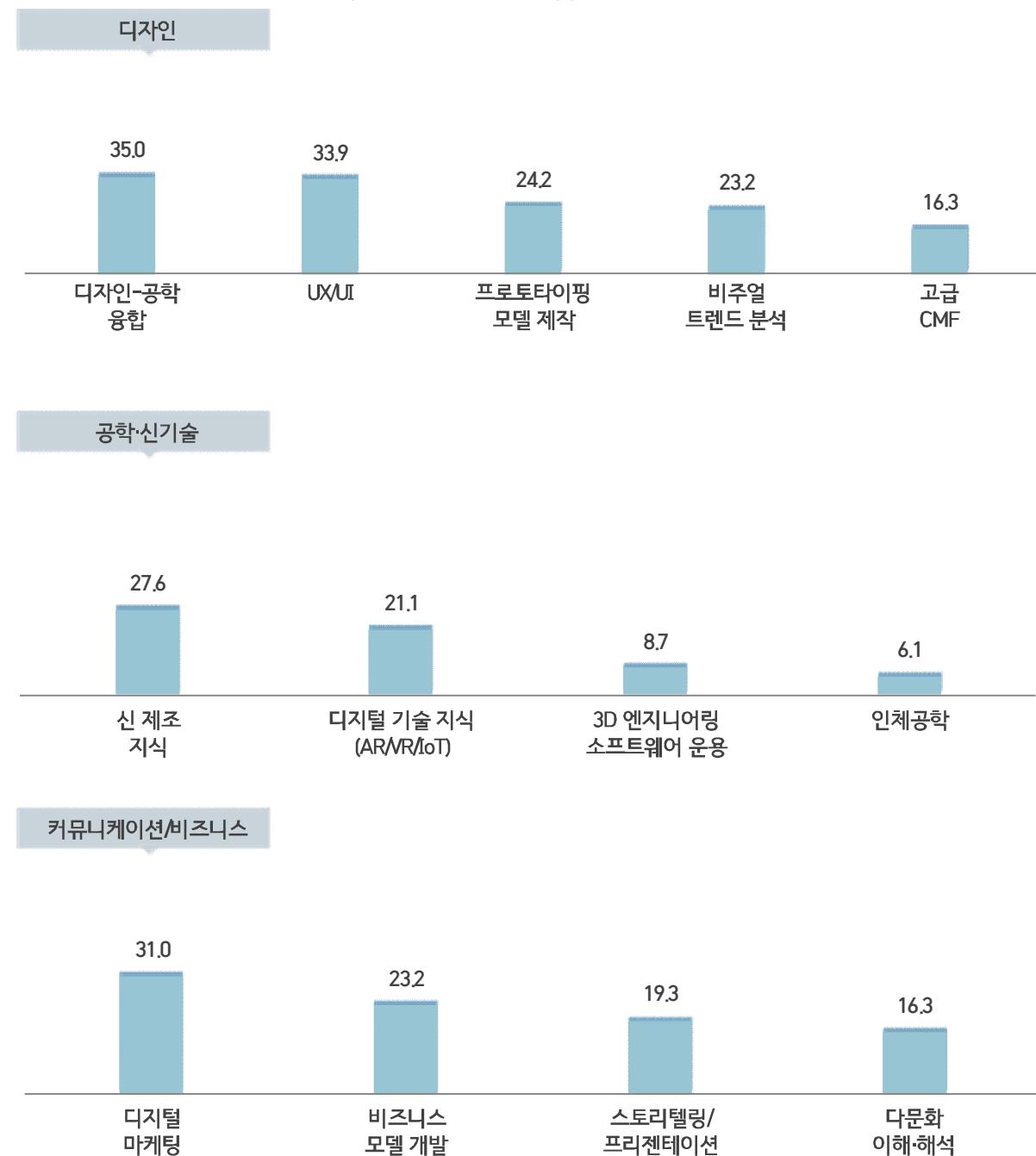
(단위: %)

구분		디자이너 필요인력	디자이너 현원	2018년 채용 예정
활용업체		1.56	1.22	0.26
권 역 별	서울	1.87	0.42	0.25
	부산/울산/경남	0.76	1.19	0.76
	대구/경북	1.34	0.68	0.00
	인천	3.00	3.00	0.00
	경기	1.90	1.81	0.09
	광주/전라	0.41	0.00	0.41
	대전/충청	0.39	8.09	0.00
	강원/제주	2.84	0.00	0.00
규 모 별	대기업	0.01	0.00	0.01
	중견기업	0.88	0.88	0.00
	증기업	0.75	4.70	0.09
	소기업	1.82	0.88	0.30
고 용	디자이너 고용	2.61	4.99	0.54
	디자이너 비고용	1.22	0.00	0.17
외 주	외주용역 있음	1.38	0.67	0.16
	외주용역 없음	2.66	4.57	0.82

5-4)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

-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에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을 살펴보면, [디자인] 분야에서는 '디자인-공학 융합'(35.0%)과 'UX/UI'(33.9%), [공학·신기술]에서는 '신 제조 지식'(27.6%), [커뮤니케이션/비즈니스]에서는 '디지털 마케팅'(31.0%)이 높게 나타남.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 (단위: %)



- 업종별로 필요한 재교육을 살펴본 결과, '디자인-공학 융합'은 디자인 인프라(86.7%), '신 제조 지식'은 산업공예디자인(77.6%), '디지털 마케팅'은 디자인 인프라(86.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_디자인 스킬/툴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자인-공학 융합	UX/UI	프로토타이핑 모델 제작	비주얼 트렌드 분석	고급 CMF
활용업체		35.0	33.9	24.2	23.2	16.3
업 종 별	제품디자인	57.4	9.7	18.9	18.9	0.0
	시각디자인	-	-	-	-	-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7.0	41.6	25.7	25.7	0.0
	공간디자인	0.0	0.0	0.0	0.0	0.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69.1	0.0	69.1	30.9	0.0
	서비스/경험디자인	3.5	35.1	0.0	0.0	0.0
	산업공예디자인	0.0	17.0	0.0	0.0	0.0
	디자인인프라	86.7	64.1	64.1	64.1	64.1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_역량 향상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신 제조 지식	디지털 기술 지식(AR/VR/IoT)	3D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운용	인체공학
활용업체		27.6	21.1	8.7	6.1
업 종 별	제품디자인	42.6	9.7	19.3	7.9
	시각디자인	-	-	-	-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0	25.7	0.0	25.7
	공간디자인	32.5	67.5	0.0	0.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0.0	0.0	30.9	69.1
	서비스/경험디자인	23.7	37.7	3.5	0.0
	산업공예디자인	77.6	0.0	5.4	0.0
	디자인인프라	22.7	0.0	13.3	0.0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_기타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지털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개발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	다문화 이해·해석
활용업체		31.0	23.2	19.3	16.3
업 종 별	제품디자인	9.7	29.8	0.0	0.0
	시각디자인	-	-	-	-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0	7.0	25.7	0.0
	공간디자인	0.0	0.0	0.0	0.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0.0	30.9	0.0	0.0
	서비스/경험디자인	24.5	0.0	0.0	0.0
	산업공예디자인	5.4	5.4	0.0	0.0
	디자인인프라	86.7	64.1	64.1	64.1

- 권역별로는 [디자인]의 '디자인-공학 융합'은 인천, 강원/제주, [공학·신기술]의 '신 제조 지식'은 인천, [커뮤니케이션/비즈니스]의 '디지털 마케팅'은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디자인]의 '디자인-공학 융합'은 중견기업, 강원/제주, [공학·신기술]의 '신 제조 지식'과 [커뮤니케이션/비즈니스]의 '디지털 마케팅'은 대기업에서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 _디자인 스킬/툴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자인-공학 융합	UX/UI	프로토타이핑 모델 제작	비주얼 트렌드 분석	고급 CMF
활용업체	35.0	33.9	24.2	23.2	16.3
권역별	서울	56.9	42.3	42.5	42.5
	부산/울산/경남	0.0	76.2	0.0	0.0
	대구/경북	0.0	0.0	0.0	11.0
	인천	100.0	0.0	0.0	0.0
	경기	8.5	19.8	16.2	16.2
	광주/전라	25.8	17.3	25.8	0.0
	대전/충청	38.9	0.0	0.0	0.0
	강원/제주	100.0	0.0	0.0	0.0
규모별	대기업	12.6	1.5	0.0	0.0
	중견기업	88.1	11.9	0.0	0.0
	중기업	32.6	0.0	0.0	0.0
	소기업	36.9	41.8	29.9	28.8
외주	외주용역 있음	18.7	26.8	12.5	12.5
	외주용역 없음	40.3	36.2	27.9	26.7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
_역량 향상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신 제조 지식	디지털 기술 지식(AR/VR/IoT)	3D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운용	인체공학
활용업체		27.6	21.1	8.7	6.1
권역별	서울	19.4	29.7	0.0	0.0
	부산/울산/경남	0.0	23.8	0.0	0.0
	대구/경북	5.2	28.2	33.6	0.0
	인천	100.0	0.0	0.0	0.0
	경기	62.1	8.5	10.4	16.2
	광주/전라	42.0	14.9	14.9	25.8
	대전/충청	23.5	0.0	61.1	0.0
	강원/제주	56.8	0.0	0.0	56.8
규모별	대기업	85.9	0.0	0.0	0.0
	중견기업	0.0	0.0	0.0	0.0
	중기업	28.2	28.3	45.0	0.0
	소기업	22.2	22.5	4.9	7.5
외주	외주용역 있음	5.3	34.7	26.9	12.5
	외주용역 없음	34.7	16.8	2.8	4.0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
_기타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지털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개발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	다문화 이해·해석
활용업체		31.0	23.2	19.3	16.3
권역별	서울	48.3	37.5	35.7	35.7
	부산/울산/경남	0.0	0.0	0.0	0.0
	대구/경북	27.9	43.9	0.0	0.0
	인천	0.0	100.0	0.0	0.0
	경기	37.1	2.0	16.2	0.0
	광주/전라	0.0	0.0	0.0	0.0
	대전/충청	0.0	0.0	0.0	0.0
	강원/제주	0.0	56.8	0.0	0.0
규모별	대기업	87.4	0.0	0.0	0.0
	중견기업	11.9	0.0	0.0	0.0
	중기업	3.5	23.7	0.0	0.0
	소기업	29.3	25.6	24.0	20.2
외주	외주용역 있음	6.5	8.7	12.5	0.0
	외주용역 없음	38.8	27.8	21.5	21.5

2017 KOREA DESIGN STATISTICAL DATA

2장

전문디자인업체

part
3
국내
산업
디자인
통계
조사
결과



전문디자인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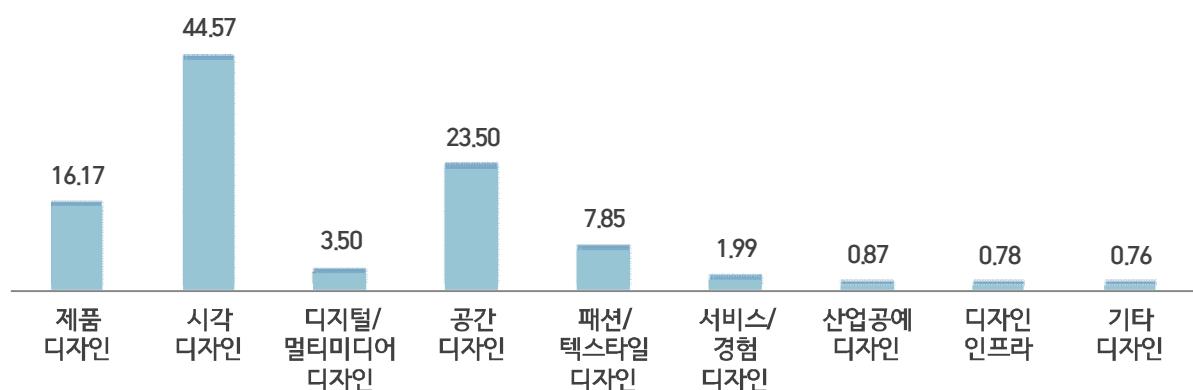
1 디자인 활용 현황

1) 전문디자인업체의 서비스 분야

- 전문디자인업체에서 주로 서비스하는 디자인 분야를 살펴본 결과, '시각디자인'(44.57%)이 가장 많고, 이어 '공간디자인'(23.50%), '제품디자인'(16.17%), '패션/텍스타일디자인'(7.8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전문디자인업체의 주요 서비스 분야

(단위: %)



- 각 업종별로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시각디자인'은 시각디자인(78.75%)과 '공간디자인'은 인테리어디자인(78.75%)에서 더욱 높음.

2) 업종별 전문디자인업체의 주요 서비스 분야

(단위: %)

구분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지털/ 멀티 미디어 디자인	공간 디자인	패션/ 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 경험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기타 디자인
전문디자인업체		16.17	44.57	3.50	23.50	7.85	1.66	0.34	0.87	0.78
업종별	제품디자인	46.76	32.24	1.40	9.09	2.73	2.00	0.72	2.02	2.26
	시각디자인	4.62	78.75	5.65	6.58	0.32	1.79	0.16	0.75	0.16
	인테리어디자인	5.06	12.60	1.48	78.75	0.30	1.03	0.02	0.03	0.27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11.97	26.59	4.42	9.69	43.74	1.65	0.60	0.56	0.67

- 주로 서비스하는 디자인 분야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시각디자인' 분야를 가장 많이 서비스 하고 있었으며, 특히 강원/제주(72.10%)와 광주/전라(60.68%)에서 가장 높음. 한편, '제품디자인'은 인천(49.04%)에서 다른 권역 대비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사업체 규모 단위에서 '시각디자인'이 주요 서비스 분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1인' 규모의 경우 49.78%로 가장 높음.
- 매출 구성별로 보면,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와 매출이 반반인 업체에서는 '시각디자인' 분야를 가장 많이 서비스하는 것으로 나타남. '공간디자인' 분야는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43.71%)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전문디자인업체의 주요 서비스 분야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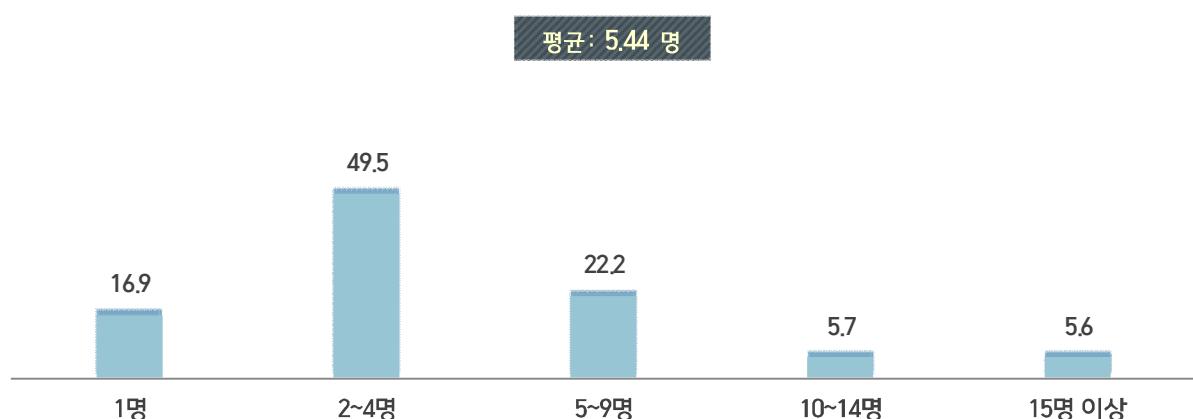
구분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자인/ 멀티 미디어 디자인	공간 디자인	패션/ 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 경험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기타 디자인
전문디자인업체		16.17	44.57	3.50	23.50	7.85	1.66	0.34	0.87	0.78
권 역 별	서울	15.87	40.35	3.97	24.30	10.69	2.00	0.44	0.44	1.09
	부산/울산/경남	15.40	50.17	1.15	25.02	7.42	0.00	0.82	0.00	0.00
	대구/경북	9.07	43.46	2.07	35.99	1.44	0.17	0.17	4.65	0.95
	인천	49.04	38.15	0.82	11.17	0.00	0.82	0.00	0.00	0.00
	경기	26.51	36.15	5.23	18.24	8.98	0.90	0.00	2.26	0.38
	광주/전라	8.49	60.68	3.59	20.83	1.82	3.91	0.07	0.49	0.07
	대전/충청	22.55	55.64	2.62	17.04	0.00	1.20	0.00	0.17	0.62
	강원/제주	2.55	72.10	1.51	19.96	0.00	0.92	0.00	2.33	0.63
규 모 별	1인	9.61	49.78	2.39	19.66	16.66	0.26	0.26	1.31	0.05
	2~4인	19.27	46.76	3.32	20.57	6.93	0.63	0.05	1.19	0.90
	5~9인	15.16	37.67	3.90	31.41	4.50	4.38	0.90	0.25	0.94
	10~14인	15.78	44.99	1.80	26.76	5.55	2.29	0.00	0.00	1.31
	15인 이상	13.15	36.40	8.61	26.24	4.97	3.52	1.19	0.13	0.76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17.32	46.72	2.87	20.45	7.75	1.85	0.32	1.03	0.78
	기타매출 50%↑	9.06	30.26	7.20	43.71	8.74	0.40	0.42	0.00	0.21
	반반	29.55	38.41	0.00	27.62	0.00	0.00	0.00	0.00	4.42

2) 직원 수

- 전문디자인업체의 총 종사자 수는 업체 평균 5.44명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2~4명'이 4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9명'(22.2%), '1명'(16.9%), '10~14명'(5.7%), '15명 이상'(5.6%)의 순으로 나타남.

직원 수

(단위: %)



- 모든 전문디자인 업종에서 '2~4명' 규모 업체 비율이 가장 높고,
종사자 수가 '1명'인 업체는 기타 패션/텍스타일디자인(24.6%),
'5~9명' 업체는 인테리어디자인(29.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인테리어디자인의 평균 종사자수는 6.21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 업종별 직원 수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16.9	49.5	22.2	5.7	5.6	5.44
업종별	제품디자인	12.7	52.4	23.8	6.6	4.5	5.58
	시각디자인	16.9	52.0	19.9	6.0	5.2	5.20
	인테리어디자인	16.1	40.7	29.9	7.2	6.1	6.21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24.6	51.4	14.6	1.5	7.9	4.76

- 권역별 전문디자인업체 종사자 수는 대구/경북(7.58명)이 가장 높고, 서울(5.81명), 부산/울산/경남(5.75명)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강원/제주(2.95명)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매출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매출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가 13.10명으로 가장 높고,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6.49명),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5.28명)의 순임.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직원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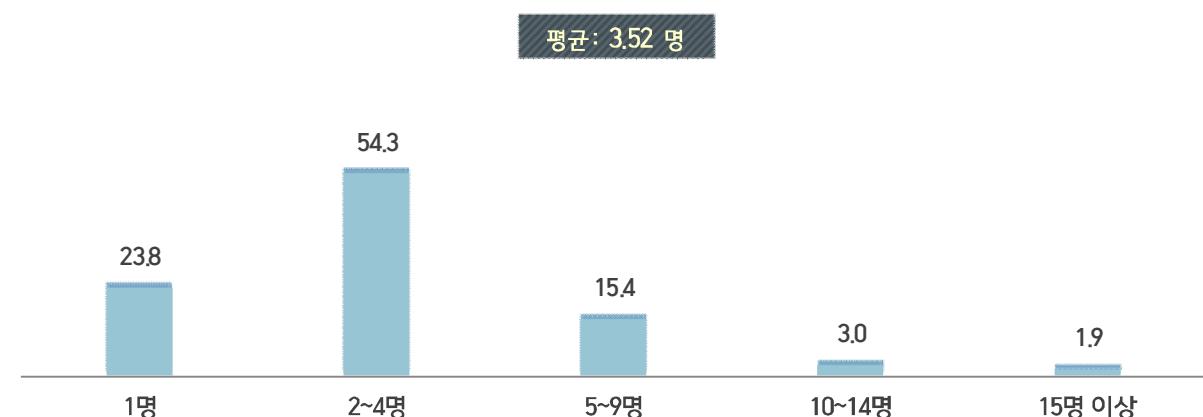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16.9	49.5	22.2	5.7	5.6	5.44
권 역 별	서울	13.7	48.8	24.2	6.1	7.3	5.81
	부산/울산/경남	23.8	44.3	19.5	7.2	5.2	5.75
	대구/경북	12.9	45.7	22.2	7.7	11.4	7.58
	인천	53.4	26.8	11.6	8.2	0.0	3.33
	경기	18.2	54.2	19.5	4.6	3.6	5.36
	광주/전라	15.9	57.8	20.9	5.4	0.0	3.86
	대전/충청	30.5	49.5	18.2	1.8	0.0	3.29
	강원/제주	25.6	55.5	16.7	2.2	0.0	2.95
규 모 별	1인	100.0	0.0	0.0	0.0	0.0	1.00
	2~4인	0.0	100.0	0.0	0.0	0.0	2.91
	5~9인	0.0	0.0	100.0	0.0	0.0	6.31
	10~14인	0.0	0.0	0.0	100.0	0.0	11.59
	15인 이상	0.0	0.0	0.0	0.0	100.0	31.47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14.0	52.7	22.4	6.0	5.0	5.28
	기타매출 50%↑	33.6	30.7	21.4	4.9	9.4	6.49
	반반	22.4	22.4	27.7	0.0	27.6	13.10

2-1) 디자인 부서 직원 수

- 디자인 부서 내 총 종사자 수는 업체 평균 3.52명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2~4명'이 5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명'(23.8%), '5~9명'(15.4%),
'10~14명'(3.0%), '15명 이상'(1.9%) 순으로 높음.

디자인 부서 직원 수

(단위: %)



※ 없음 : 1.5%

-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디자인 부서 종사자 수는 제품디자인(4.04명),
시각디자인(3.53명), 인테리어디자인(3.30명),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3.02명)의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 부서 직원 수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23.8	54.3	15.4	3.0	1.9	3.52
업종별	제품디자인	16.7	59.9	17.5	4.0	2.0	4.04
	시각디자인	20.6	55.0	15.1	2.9	2.6	3.53
	인테리어디자인	28.7	49.1	19.0	2.4	0.3	3.3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35.6	51.3	8.0	2.6	2.5	3.02

- 권역별 디자인 부서 평균 종사자 수는 서울(3.89명), 대구/경북(3.85명), 인천(3.33명)의 순으로 높았으며, 강원/제주(2.32명)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클수록 전문디자인업체의 디자인 부서 종사자 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5인 이상 규모 업체의 디자인 부서 종사자 수는 평균 12.78명으로 나타남.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3.71명),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2.99명)의,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2.53명)의 순서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부서 직원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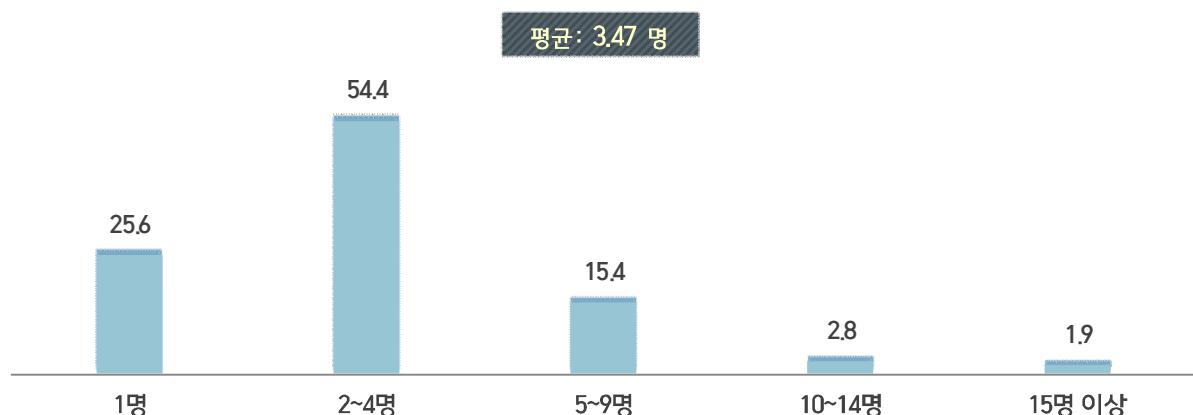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23.8	54.3	15.4	3.0	1.9	3.52
권 역 별	서울	18.7	56.8	16.6	3.6	2.7	3.89
	부산/울산/경남	29.6	47.8	18.9	1.7	2.0	3.21
	대구/경북	16.5	63.5	12.8	5.6	1.7	3.85
	인천	53.4	26.8	11.6	8.2	0.0	3.33
	경기	37.3	47.2	11.1	2.8	1.5	2.90
	광주/전라	28.2	58.4	8.4	1.5	0.0	2.79
	대전/충청	30.5	45.1	19.3	0.7	0.0	2.88
	강원/제주	38.6	47.8	13.5	0.0	0.0	2.32
규 모 별	1인	98.3	0.0	0.0	0.0	0.0	0.98
	2~4인	11.1	87.8	0.0	0.0	0.0	2.46
	5~9인	7.4	37.8	51.8	0.0	0.0	4.43
	10~14인	0.0	16.5	47.7	35.8	0.0	7.69
	15인 이상	0.0	26.5	21.5	17.6	34.4	12.78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20.8	56.1	16.5	3.4	2.1	3.71
	기타매출 50%↑	42.3	44.7	8.3	1.4	1.1	2.53
	반반	22.4	50.0	27.7	0.0	0.0	2.99

2-2) 디자이너 수

- 전문디자인업체의 디자이너 수는 평균 3.47명인 것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분석해 보면, '2~4명'이 5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명'(25.6%), '5~9명' (15.4%), '10~14명'(2.8%), '15명 이상'(1.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디자이너 수

(단위: %)



- 업종별 디자이너 수는 제품디자인이 평균 3.9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각디자인(3.56명), 인테리어디자인(3.21명),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2.89명)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25.6	54.4	15.4	2.8	1.9	3.47
업종별	제품디자인	17.6	59.2	17.5	3.8	2.0	3.93
	시각디자인	22.1	57.4	15.4	2.5	2.6	3.56
	인테리어디자인	29.2	49.1	19.4	2.0	0.3	3.21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40.9	47.4	6.6	2.6	2.5	2.89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디자이너 수가 평균 3.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구/경북(3.81명), 인천(3.33명), 부산/울산/경남(3.16명) 등의 순을 보인 가운데, 강원/제주는 2.23명으로 평균 디자이너 수가 가장 낮음.
- ❖ 규모별로 디자이너 수를 살펴보면, 규모가 커짐에 따라 디자이너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5인 이상 규모는 평균 12.48명의 디자이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3.65명),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2.53명),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2.11명)의 순서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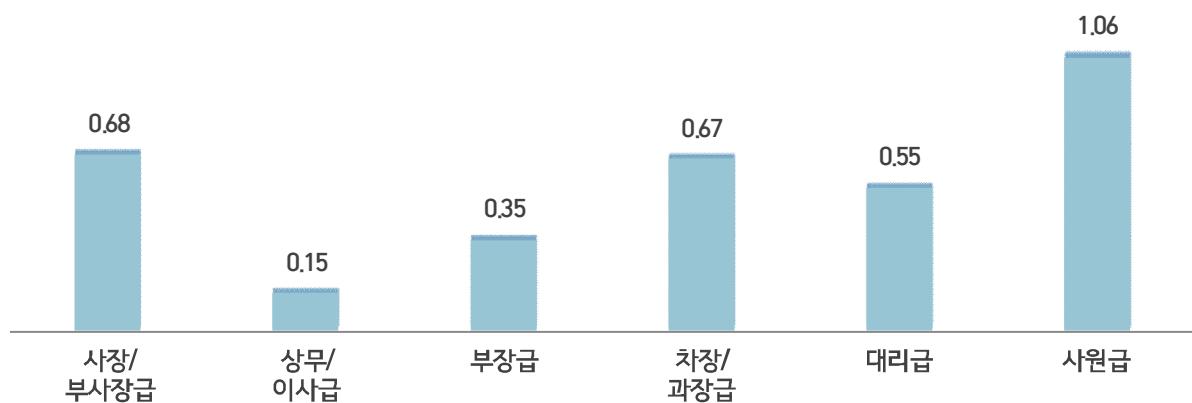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25.6	54.4	15.4	2.8	1.9	3.47
권 역 별	서울	20.4	57.0	16.6	3.3	2.7	3.84
	부산/울산/경남	32.0	45.3	18.9	1.7	2.0	3.16
	대구/경북	16.5	64.3	13.1	4.4	1.7	3.81
	인천	53.4	26.8	11.6	8.2	0.0	3.33
	경기	40.2	45.7	10.2	2.3	1.5	2.73
	광주/전라	28.2	62.0	8.4	1.5	0.0	2.79
	대전/충청	34.8	45.1	19.3	0.7	0.0	2.81
	강원/제주	38.6	47.8	13.5	0.0	0.0	2.23
규 모 별	1인	100.0	0.0	0.0	0.0	0.0	1.00
	2~4인	13.6	86.4	0.0	0.0	0.0	2.41
	5~9인	8.1	40.4	51.5	0.0	0.0	4.42
	10~14인	1.4	16.5	51.1	31.0	0.0	7.38
	15인 이상	0.0	29.6	18.3	17.6	34.4	12.48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22.0	56.4	16.4	3.1	2.1	3.65
	기타매출 50%↑	44.3	43.6	9.7	1.4	1.1	2.53
	반반	44.7	44.2	11.1	0.0	0.0	2.11

2-2-1) 직급별 디자이너 수

- 전문디자인업체의 직급별 평균 디자이너 수는 '사원급'이 1.06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장/부사장급'(0.68명), '차장/과장급'(0.67명), '대리급'(0.55명) 등의 순임.

직급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원급'은 제품디자인(1.18명), 시각디자인(1.14명)에서 가장 높고, 인테리어디자인은 0.88명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모든 업종에서 '상무/이사급'의 디자이너 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한편, '대리급'은 제품디자인(0.69명)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업종별 직급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사장/부사장급	상무/이사급	부장급	차장/과장급	대리급	사원급
전문디자인업체		0.68	0.15	0.35	0.67	0.55	1.06
업종별	제품디자인	0.78	0.18	0.37	0.73	0.69	1.18
	시각디자인	0.67	0.12	0.37	0.73	0.54	1.14
	인테리어디자인	0.60	0.16	0.38	0.61	0.58	0.88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0.68	0.13	0.27	0.50	0.35	0.97

- 권역별로 살펴보면, '사원급'은 인천(1.26명)과 서울(1.17명), 대구/경북(1.17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제주(0.48명)는 '사원급' 디자이너를 상대적으로 적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사장/부사장급'은 인천(0.88명)에서, '대리급'은 대구/경북(0.79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상무/이사급'을 제외하고 모든 직급의 디자이너 수가 디자인 매출이 높은 업체에서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직급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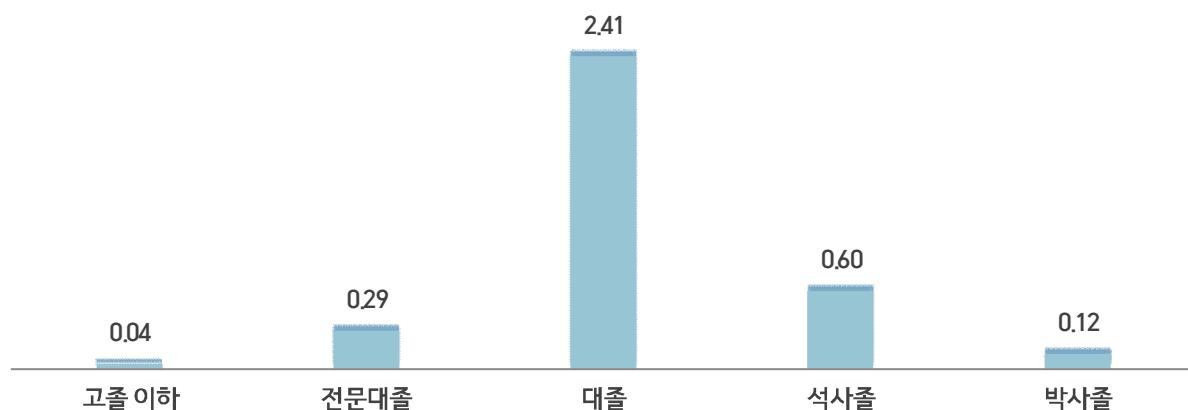
구분		사장/ 부사장급	상무/ 이사급	부장급	차장/ 과장급	대리급	사원급
전문디자인업체		0.68	0.15	0.35	0.67	0.55	1.06
권 역 별	서울	0.72	0.16	0.39	0.78	0.62	1.17
	부산/울산/경남	0.49	0.10	0.30	0.59	0.56	1.14
	대구/경북	0.64	0.03	0.40	0.77	0.79	1.17
	인천	0.88	0.20	0.08	0.55	0.36	1.26
	경기	0.68	0.09	0.26	0.48	0.39	0.82
	광주/전라	0.72	0.20	0.29	0.43	0.41	0.74
	대전/충청	0.59	0.09	0.36	0.43	0.43	0.91
	강원/제주	0.71	0.37	0.22	0.33	0.12	0.48
규 모 별	1인	0.79	0.02	0.05	0.06	0.00	0.08
	2~4인	0.77	0.08	0.25	0.39	0.34	0.57
	5~9인	0.54	0.25	0.52	0.92	0.73	1.44
	10~14인	0.48	0.29	0.86	1.71	1.40	2.64
	15인 이상	0.32	0.51	1.04	2.82	2.53	5.26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0.70	0.15	0.38	0.71	0.58	1.12
	기타매출 50%↑	0.59	0.09	0.19	0.42	0.42	0.83
	반반	0.22	0.39	0.28	0.66	0.11	0.44

2-2-2) 학력별 디자이너 수

- 학력별 디자이너 수 평균을 살펴보면, '대졸'이 2.41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석사'(0.60명), '전문대졸업'(0.29), '박사'(0.12명), '고졸이하'(0.04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학력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대졸' 디자이너 수가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제품디자인(2.90명)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한편, '전문대졸업' 디자이너 수는 제품디자인(0.46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학력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전문디자인업체	0.04	0.29	2.41	0.60	0.12
업종별	제품디자인	0.05	0.46	2.90	0.44
	시각디자인	0.04	0.25	2.45	0.70
	인테리어디자인	0.05	0.20	2.23	0.6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0.02	0.28	1.78	0.64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대졸' 디자이너 수가 가장 많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2.83명), 서울(2.70명)에서 가장 높았음. 반면 강원/제주는 1.38명으로 '대졸' 디자이너를 상대적으로 낮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 보면,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대졸' 디자이너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대졸' 디자이너 수가 높게 나타남. 15인 이상의 경우 '대졸' 디자이너 수가 평균 8.68명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학력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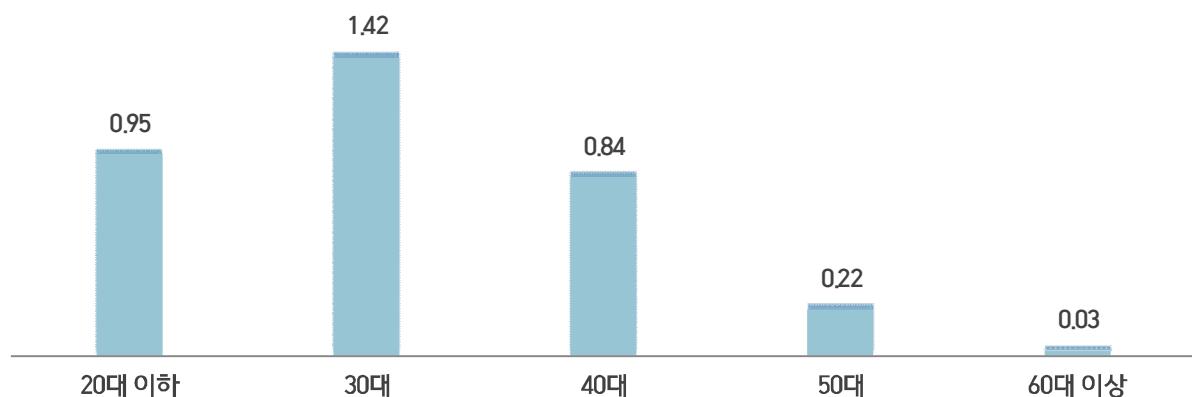
구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석사졸	박사졸
전문디자인업체		0.04	0.29	2.41	0.60	0.12
권 역 별	서울	0.03	0.30	2.70	0.71	0.10
	부산/울산/경남	0.06	0.30	2.22	0.45	0.14
	대구/경북	0.06	0.29	2.83	0.63	0.01
	인천	0.00	0.00	2.45	0.89	0.00
	경기	0.01	0.22	1.68	0.68	0.15
	광주/전라	0.12	0.41	1.77	0.38	0.11
	대전/충청	0.06	0.28	2.08	0.12	0.26
	강원/제주	0.00	0.21	1.38	0.36	0.28
규 모 별	1인	0.03	0.17	0.47	0.24	0.09
	2~4인	0.03	0.24	1.73	0.31	0.10
	5~9인	0.04	0.36	3.06	0.81	0.14
	10~14인	0.14	0.50	5.28	1.34	0.12
	15인 이상	0.09	0.69	8.68	2.73	0.28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0.05	0.29	2.57	0.62	0.12
	기타매출 50%↑	0.02	0.31	1.57	0.53	0.10
	반반	0.00	0.22	1.55	0.33	0.00

2-2-3) 연령별 디자이너 수

- 전문디자인업체의 연령별 디자이너 수 평균을 살펴보면, '30대'의 디자이너 수 평균이 1.4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 '20대 이하'(0.95명), '40대'(0.84명), '50대'(0.22명), '60대 이상'(0.03명)의 순으로 높음.

연령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30대' 디자이너 수가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제품디자인(1.61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20대 이하' 디자이너는 제품디자인(1.23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연령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문디자인업체		0.95	1.42	0.84	0.22	0.03
업종별	제품디자인	1.23	1.61	0.85	0.21	0.02
	시각디자인	1.06	1.35	0.92	0.22	0.02
	인테리어디자인	0.77	1.36	0.83	0.21	0.04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0.53	1.38	0.68	0.26	0.03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과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30대' 디자이너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서울(1.65명), 부산/울산/경남(1.38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20대 이하' 디자이너 수는 인천(1.34명)과 부산/울산/경남(1.10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40대' 디자이너 수는 강원/제주(1.03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업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20대 이하'와 '30대', '40대' 디자이너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 '20대 이하'(1.03명) '30대'(1.48명), '40대'(0.87명)의 디자이너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50대' 디자이너 수는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에서 0.45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연령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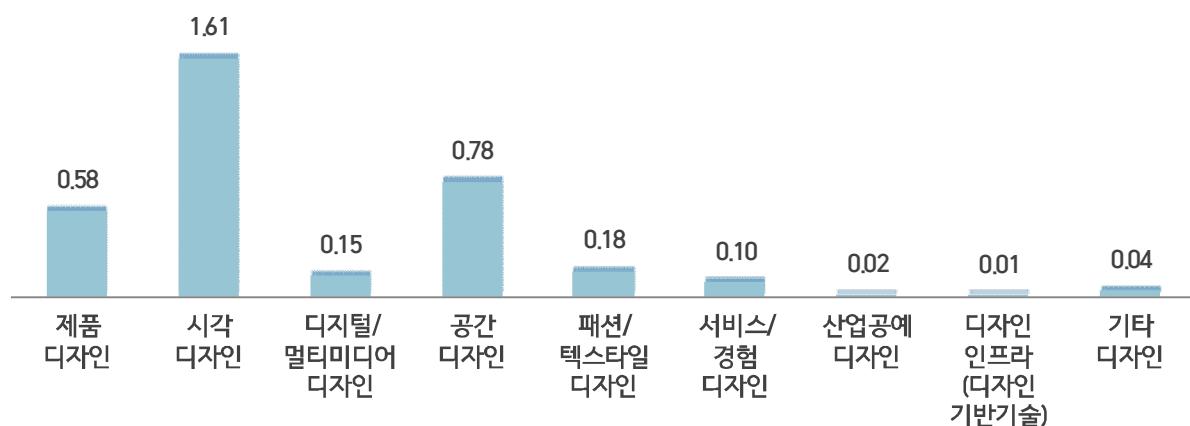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문디자인업체		0.95	1.42	0.84	0.22	0.03
권 역 별	서울	1.03	1.65	0.92	0.22	0.02
	부산/울산/경남	1.10	1.38	0.58	0.04	0.06
	대구/경북	1.14	1.27	0.97	0.44	0.00
	인천	1.34	1.11	0.88	0.00	0.00
	경기	0.61	1.27	0.56	0.23	0.05
	광주/전라	0.76	0.87	0.79	0.33	0.04
	대전/충청	0.82	0.97	0.84	0.17	0.00
	강원/제주	0.49	0.56	1.03	0.15	0.00
규 모 별	1인	0.03	0.33	0.51	0.08	0.06
	2~4인	0.55	0.94	0.71	0.20	0.01
	5~9인	1.28	1.87	0.93	0.32	0.03
	10~14인	2.85	2.82	1.39	0.28	0.05
	15인 이상	4.11	5.77	2.20	0.38	0.02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1.03	1.48	0.87	0.24	0.03
	기타매출 50%↑	0.55	1.17	0.67	0.12	0.02
	반반	0.22	0.77	0.66	0.45	0.00

2-2-4)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 디자인 영역별로 전문디자인업체의 디자이너 수를 살펴보면, ‘시각디자인’ 영역 디자이너 수가 평균 1.61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간디자인’(0.78명), ‘제품디자인’(0.58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각 업종별로 해당 영역의 디자이너 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업종별로 보면 ‘시각디자인’ 분야 디자이너 수는 시각디자인에서 2.79명으로 가장 많은 디자이너 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공간디자인	패션/텍스타일디자인	서비스/경험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디자인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기타디자인
전문디자인업체		0.58	1.61	0.15	0.78	0.18	0.10	0.02	0.01	0.04
업종별	제품디자인	1.75	1.49	0.07	0.33	0.04	0.11	0.04	0.04	0.05
	시각디자인	0.15	2.79	0.22	0.20	0.00	0.12	0.02	0.00	0.07
	인테리어디자인	0.18	0.46	0.07	2.47	0.00	0.04	0.00	0.00	0.0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0.36	0.64	0.17	0.52	1.05	0.10	0.01	0.00	0.04

- ❖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시각디자인' 분야 디자이너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서울(1.77명)에서 높게 나타남.
'제품디자인' 영역은 인천(1.50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시각디자인' 영역 디자이너 수가 가장 높았으며, 규모가 클수록 '시각디자인' 디자이너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공간디자인' 디자이너의 수는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1.33명)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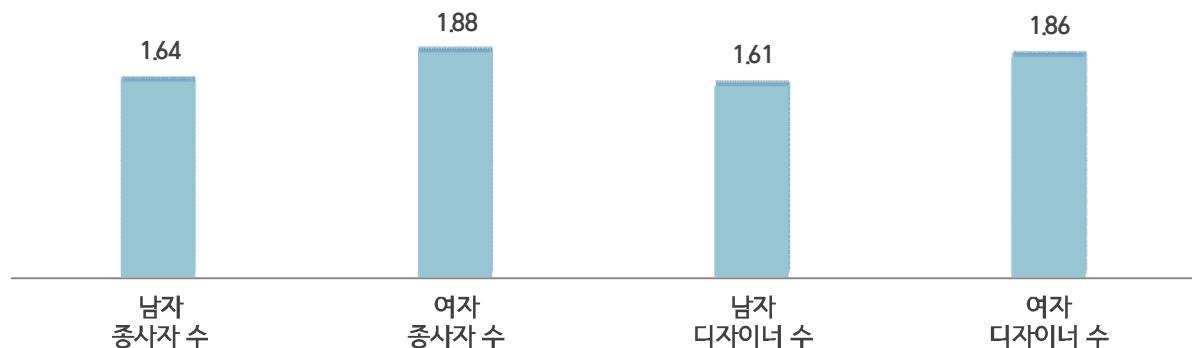
구분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자인/ 멀티 미디어 디자인	공간 디자인	패션/ 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 경험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디자인 기반기술)	기타 디자인
전문디자인업체		0.58	1.61	0.15	0.78	0.18	0.10	0.02	0.01	0.04
권역별	서울	0.53	1.77	0.16	0.94	0.24	0.12	0.00	0.02	0.06
	부산/울산/경남	0.78	1.52	0.04	0.65	0.08	0.06	0.00	0.00	0.03
	대구/경북	0.46	1.75	0.31	1.03	0.14	0.02	0.09	0.00	0.00
	인천	1.50	1.67	0.08	0.00	0.00	0.08	0.00	0.00	0.00
	경기	0.90	0.80	0.16	0.42	0.25	0.05	0.05	0.00	0.10
	광주/전라	0.29	1.68	0.11	0.48	0.02	0.15	0.05	0.00	0.00
	대전/충청	0.80	1.52	0.04	0.43	0.00	0.02	0.00	0.00	0.00
	강원/제주	0.10	1.43	0.06	0.49	0.00	0.09	0.06	0.00	0.00
규모별	1인	0.08	0.50	0.03	0.19	0.17	0.00	0.01	0.00	0.02
	2~4인	0.47	1.23	0.06	0.44	0.13	0.02	0.02	0.02	0.02
	5~9인	0.80	1.78	0.11	1.28	0.15	0.20	0.01	0.00	0.07
	10~14인	1.48	3.58	0.20	1.69	0.11	0.27	0.02	0.02	0.02
	15인 이상	1.34	5.72	1.35	2.61	0.80	0.44	0.00	0.00	0.22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0.64	1.79	0.13	0.71	0.19	0.11	0.02	0.01	0.04
	기타매출 50%↑	0.29	0.60	0.23	1.24	0.10	0.02	0.00	0.00	0.06
	반반	0.39	0.39	0.00	1.33	0.00	0.00	0.00	0.00	0.00

2-2-5)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 전문디자인업체의 종사자 수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여자 종사자 수는 평균 1.88명, 남자 종사자수는 평균 1.64명으로 여자 종사자 수가 남자 종사자 수 대비 높게 나타남. 반면, 디자이너 수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여자 디자이너 수는 평균 1.86명, 남자 디자이너 수는 평균 1.61명으로 여자 디자이너 수 역시 남자 디자이너 수 대비 높음.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업종별 종사자 성별은, 제품디자인(2.06명),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1.56명)에서 남자 종사자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시각디자인과 인테리어디자인에서는 여자종사자 수가 높게 나타남. 한편, 시각디자인에서 남녀 성별 종사자 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디자이너의 경우, 시각디자인(2.09명)과 인테리어디자인(1.71명)에서 여자 디자이너 수가 남자 디자이너 수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남자 종사자 수	여자 종사자 수	남자 디자이너 수	여자 디자이너 수
전문디자인업체	1.64	1.88	1.61	1.86
업종별	제품디자인	2.06	1.98	2.00
	시각디자인	1.45	2.08	1.47
	인테리어디자인	1.55	1.75	1.49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1.56	1.46	1.49

- ❖ 권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경기와 대전/충청,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평균 여자 종사자 수가 평균 남자 종사자 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구/경북에서 평균 여자 종사자수가 2.2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디자이너의 경우 경기와 대전/충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여자 디자이너수가 남자 디자이너 수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경북(2.29명)과 인천(2.11명)에서 여자 디자이너 수가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나누어 분석하면, 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남자 종사자수와 여자 종사자 수의 평균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15인 이상의 규모에서는 여자 종사자 수 및 디자이너 수가 남성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대비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남자 종사자 수	여자 종사자 수	남자 디자이너 수	여자 디자이너 수
전문디자인업체		1.64	1.88	1.61	1.86
권 역 별	서울	1.84	2.06	1.80	2.04
	부산/울산/경남	1.32	1.89	1.31	1.85
	대구/경북	1.56	2.29	1.53	2.29
	인천	1.22	2.11	1.22	2.11
	경기	1.54	1.36	1.45	1.28
	광주/전라	1.20	1.59	1.19	1.59
	대전/충청	1.49	1.38	1.44	1.37
	강원/제주	1.03	1.29	1.03	1.20
규 모 별	1인	0.64	0.35	0.65	0.35
	2~4인	1.09	1.36	1.06	1.34
	5~9인	2.15	2.27	2.14	2.27
	10~14인	3.54	4.16	3.34	4.04
	15인 이상	5.54	7.24	5.39	7.09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1.73	1.98	1.70	1.95
	기타매출 50%↑	1.15	1.38	1.10	1.43
	반반	1.28	1.71	1.06	1.05

2-2-6) 근로자 형태별 디자이너 수

- 전문디자인업체의 근로자 형태별 평균 디자이너 수는 '상용근로자'가 평균 3.37명,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0.15명으로 나타남.

전문디자인업체 근로자형태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평균 상용근로자의 디자이너 수는 제품디자인에서 3.94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시각디자인(3.35명), 인테리어디자인(3.17명),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2.85명)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 전문디자인업체 근로자형태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전문디자인업체		3.37	0.15
업종별	제품디자인	3.94	0.10
	시각디자인	3.35	0.18
	인테리어디자인	3.17	0.14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2.85	0.17

- ❖ 권역별로 디자인업체 디자이너 수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수는 대구/경북이 평균 3.81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서울(3.70명), 부산/울산/경남(3.11명) 등의 순임. 반면, 강원/제주는 2.14명으로 가장 적은 종사자 수를 보임.
- ❖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상용근로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5인 이상 기업의 경우 '상용근로자' 수가 12.19명으로 나타남.
- ❖ 매출 구성별로는, '상용근로자' 수 평균이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 3.56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2.45명),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2.33명)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전문디자인업체 근로자형태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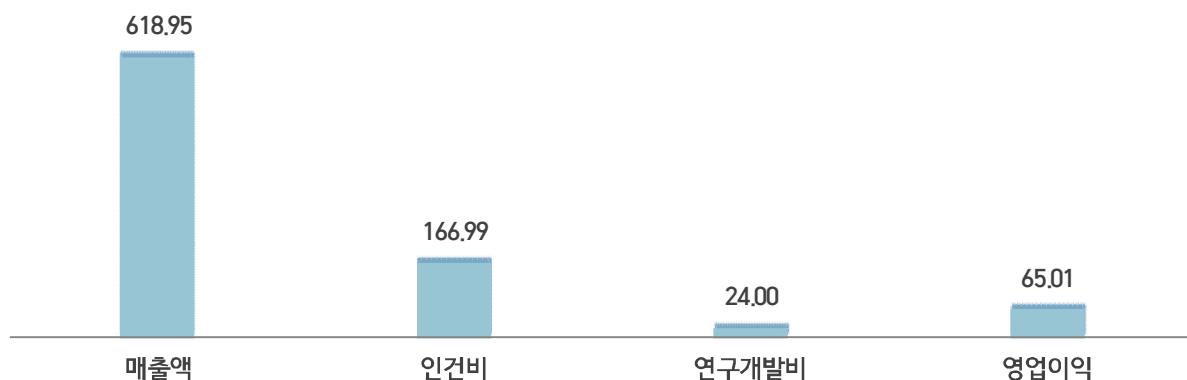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전문디자인업체		3.37	0.15
권 역 별	서울	3.70	0.20
	부산/울산/경남	3.11	0.10
	대구/경북	3.81	0.04
	인천	3.33	0.00
	경기	2.77	0.13
	광주/전라	2.71	0.07
	대전/충청	2.84	0.03
	강원/제주	2.14	0.18
규 모 별	1인	0.97	0.01
	2~4인	2.33	0.12
	5~9인	4.20	0.22
	10~14인	7.65	0.04
	15인 이상	12.19	0.6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3.56	0.16
	기타매출 50%↑	2.45	0.08
	반반	2.33	0.66

3) 2016년 재무 및 투자 현황

- 전문디자인업체의 2015년 '매출액'은 평균 6억 1,895만원임.
 '인건비'는 평균 1억 6,699만원, '연구개발비'는 평균 2,400만원, '영업이익'은 평균 6,501만원으로 나타남.

2016년 재무 및 투자 현황

(단위: 백만 원)



- 업종별 살펴본 결과, 평균 '매출액'은 인테리어디자인이 9억 5,900만원으로 가장 높고,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6억 2,952만원), 제품디자인(5억 8,614만원), 시각디자인(4억 3,817만원) 순서로 나타남.

▶ 업종별 2016년 재무 및 투자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매출액	인건비	연구개발비	영업이익
전문디자인업체		618.95	166.99	24.00	65.01
업종별	제품디자인	586.14	161.39	32.88	58.94
	시각디자인	438.17	156.45	17.94	55.78
	인테리어디자인	959.00	195.58	16.33	85.03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629.52	161.25	35.25	68.6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평균 ‘연구개발비’와 ‘영업이익’을 제외한 투자 현황에서 서울이 가장 높은 액수를 보인 가운데, 서울은 평균 ‘매출액’ 7억 6,890만원, ‘인건비’ 1억 9,563만원을 보임. ‘연구개발비’와 ‘영업이익’은 대구/경북(각각 29.24만원, 81.18만원)에서 가장 높음.
- ❖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클수록 모든 재무 및 투자 현황에서 높은 액수를 보임.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모든 재무 및 투자 현황에 대해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 가장 높은 액수를 보임. ‘연구개발비’는 디자인과 기타매출이 비슷한 업체에서 2,657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6년 재무 및 투자 현황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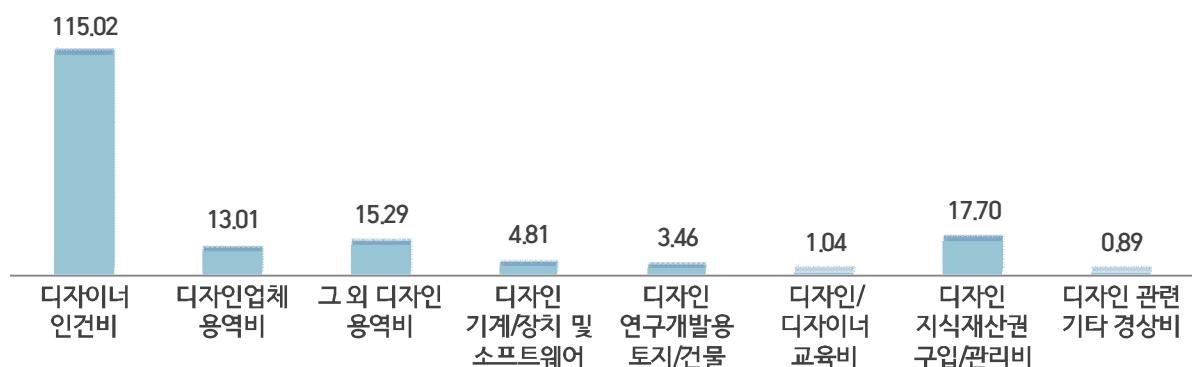
구분		매출액	인건비	연구개발비	영업이익
권 역 별	전문디자인업체	618.95	166.99	24.00	65.01
	서울	768.90	195.63	24.94	77.03
	부산/울산/경남	472.11	150.05	24.91	53.15
	대구/경북	673.49	182.04	29.24	81.18
	인천	266.50	109.14	17.53	42.48
	경기	391.70	124.60	25.84	34.99
	광주/전라	379.10	118.12	24.48	47.55
	대전/충청	294.07	88.82	13.61	44.81
	강원/제주	298.43	100.02	10.32	35.35
규 모 별	1인	151.53	45.70	4.06	28.26
	2~4인	356.08	96.09	15.18	45.37
	5~9인	726.90	200.72	34.09	92.25
	10~14인	1,570.09	401.35	49.10	137.32
	15인 이상	2,947.77	784.94	96.39	167.73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552.65	163.86	25.14	62.92
	기타매출 50%↑	1085.20	197.24	18.44	84.34
	반반	760.16	171.48	26.57	71.48

3-1) 2016년 디자인 투자금액

- 전문디자인업체의 2016년 디자인 투자금액은 평균 ‘디자이너 인건비’가 1억 1,502만원으로 가장 높음. 이어 ‘디자인 지식재산권 구입/관리비’(1,770만원), ‘그 외 디자인업체 용역비’(1,529만원), ‘디자인업체 용역비’(1,301만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2016년 디자인 사업비

(단위: 백만 원)



- 업종별 디자인 사업비 항목을 보면, ‘디자이너 인건비’ 평균은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1억 1,639만원), 제품디자인(1억 1,093만원), 인테리어디자인(1억 1,070만원), 시각디자인(1억 163만원)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디자인 관련 기타경상비’는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8,633만원)에서, ‘디자인업체 용역비’는 인테리어디자인(2,471만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2016년 디자인 사업비

(단위: 백만 원)

구분		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업체 용역비	그 외 디자인 용역비	디자인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	디자인 연구개발용 토지/건물	디자인/디자이너 교육비	디자인 지식재산권 구입/관리비	디자인 관련 기타 경상비
전문디자인업체		115.02	13.01	15.29	4.81	3.46	1.04	17.70	0.89
업종별	제품디자인	132.12	24.89	15.02	6.94	1.58	0.88	21.96	1.82
	시각디자인	116.55	7.72	17.94	4.32	4.68	0.86	10.00	0.99
	인테리어디자인	100.68	17.26	10.95	4.27	1.01	0.42	8.52	0.15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106.22	4.73	14.04	4.04	6.18	2.59	45.68	0.32

- ❖ 권역별 디자인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평균 '디자이너 인건비'는 서울(1억 3,472만원)과 인천(1억 2,090만원)에서 가장 높고, 대전/충청과 강원/제주(7,060만원)에서 가장 낮은 액수를 보임. '디자인업체 용역비'는 서울(1,582만원)과 광주/전라(1,574만원)에서 높게 나타남. '디자인 지식재산권 구입/관리비 평균'과 '그 외 디자인용역비'는 서울에서 가장 높음.
- ❖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클수록 대부분의 디자인 사업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이너 인건비'는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 1억 2,093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6년 디자인 사업비

(단위: 백만 원)

구분		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업체 용역비	그 외 디자인 용역비	디자인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	디자인 연구개발용 토지/건물	디자인 디자이너 교육비	디자인 지식재산권 구입 관리비	디자인 관련 기타 경상비
전문디자인업체		115.02	13.01	15.29	4.81	3.46	1.04	17.70	0.89
권 역 별	서울	134.72	15.82	16.64	6.00	4.70	1.32	23.76	0.81
	부산/울산/경남	103.40	6.71	7.73	1.56	1.18	0.56	6.94	1.06
	대구/경북	106.10	8.35	16.91	3.62	2.50	1.23	15.34	0.95
	인천	120.90	0.00	23.25	11.62	0.00	0.00	0.41	0.00
	경기	81.47	12.47	23.28	1.74	1.99	0.26	8.23	1.01
	광주/전라	84.42	15.74	12.45	7.32	2.85	1.29	11.80	1.49
	대전/충청	70.60	4.58	4.68	1.75	0.32	0.15	12.27	0.63
	강원/제주	70.60	6.31	14.71	3.66	3.46	0.74	7.25	0.61
규 모 별	1인	29.45	4.77	4.00	1.70	0.81	0.03	4.27	0.15
	2~4인	72.31	6.75	12.83	2.92	3.72	0.68	13.63	0.60
	5~9인	153.04	25.07	23.11	5.89	5.10	2.08	23.31	0.91
	10~14인	256.51	34.13	25.82	5.66	2.75	1.85	46.65	3.98
	15인 이상	467.21	27.05	38.51	28.70	4.66	2.79	61.11	2.67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120.93	11.80	15.91	4.72	3.45	0.82	18.53	0.96
	기타매출 50%↑	89.31	20.88	11.02	5.83	4.16	2.44	15.37	0.60
	반반	69.15	21.16	52.21	6.84	1.66	1.66	9.33	0.83

3-2)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

-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은 연차가 높을수록 높아졌으며, '10년차 디자이너'는 3,878만원, '5년차 디자이너'는 2,925만원, '3년차 디자이너'는 2,489만원, '신입 디자이너'는 1,980만원으로 나타남.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 (단위: 만원)



- 업종별 디자이너 평균 연봉은 '신입 디자이너'와 '10년차 디자이너'의 경우 인테리어디자인(각각 2,021만원, 3,903만원)에서 높고, '3년차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2,524만원), '5년차 디자이너'는 제품디자인(2,953만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

(단위: 만원)

구분	신입 디자이너	3년차 디자이너	5년차 디자이너	10년차 디자이너
전문디자인업체	1,980.05	2,488.62	2,924.52	3,877.59
업종별	제품디자인	1,997.71	2,468.34	2,952.87
	시각디자인	1,940.83	2,479.36	2,951.37
	인테리어디자인	2,020.89	2,501.51	3,902.49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1,989.58	2,523.72	3,839.69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년차의 디자이너에 대해 인천에서 가장 높은 연봉 평균을 보임. 서울의 '10년차 디자이너' 평균 연봉은 4,653만원으로 나타난 반면, 대전/충청은 3,597만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 규모별로는 1인 업체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평균 연봉이 높음.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10년차 디자이너'를 제외한 모든 년차의 디자이너 연봉이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10년차 디자이너' 평균 연봉은 디자인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 3,891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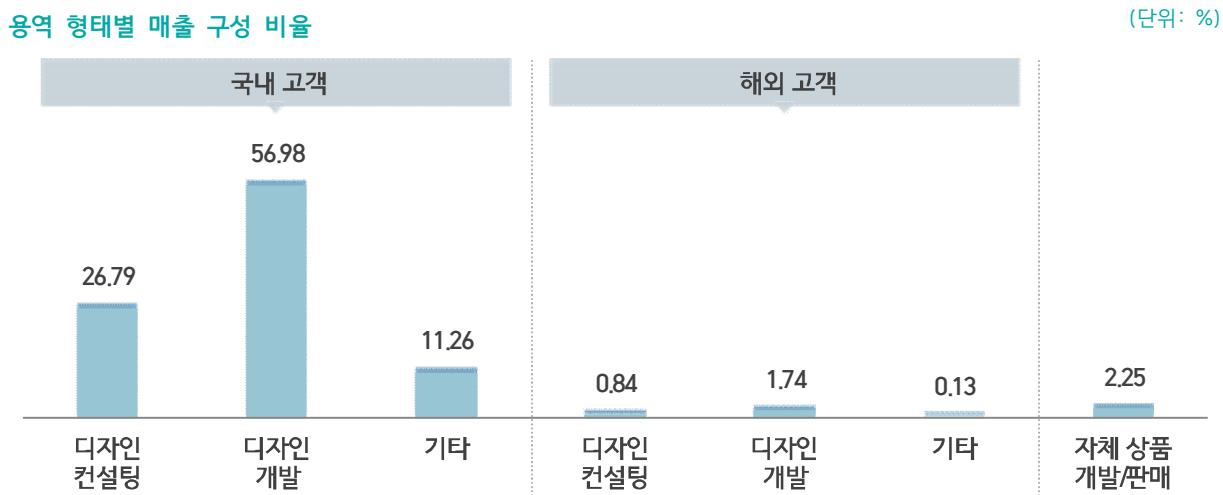
(단위: 만원)

구분		신입 디자이너	3년차 디자이너	5년차 디자이너	10년차 디자이너
전문디자인업체		1,980.05	2,488.62	2,924.52	3,877.59
권 역 별	서울	2,019.89	2,546.16	2,973.79	3,936.94
	부산/울산/경남	1,958.87	2,404.09	2,788.99	3,776.12
	대구/경북	1,838.13	2,313.80	2,755.06	3,775.32
	인천	2,344.19	2,762.08	3,679.79	4,652.91
	경기	2,077.54	2,619.73	3,082.54	3,906.99
	광주/전라	1,872.46	2,324.63	2,791.62	3,771.56
	대전/충청	1,806.07	2,296.94	2,715.50	3,596.22
	강원/제주	1,822.32	2,355.23	2,824.32	3,847.09
규 모 별	1인	1,984.63	2,515.91	2,907.43	3,902.91
	2~4인	1,949.66	2,450.36	2,868.37	3,776.93
	5~9인	1,989.64	2,504.57	2,985.15	3,964.33
	10~14인	2,037.87	2,528.95	3,024.81	4,001.44
	15인 이상	2,137.06	2,639.06	3,129.08	4,218.93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1,966.16	2,478.05	2,920.37	3,890.50
	기타매출 50%↑	2,081.67	2,559.57	2,983.11	3,823.07
	반반	1,784.40	2,326.86	2,664.41	3,677.35

3-3) 용역 형태별 매출구성

3-3-1) 용역 형태별 매출구성 비율

- 용역 형태별 매출구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의 비중이 95.04%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해외 용역’의 비율은 2.71%로 낮은 비중을 차지함.
 그 외‘자체 상품 개발/판매’의 비율은 2.25%로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국내 디자인 개발용역’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특히 ‘국내 고객-디자인 개발’의 경우 제품디자인(62.53%)에서 가장 높음.
 한편, ‘자체 상품 개발/판매’의 비중은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6.6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비율

(단위: %)

업종별	구분	국내 고객			해외 고객			자체 상품 개발/판매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개발	기타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개발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전문디자인업체	26.79	56.98	11.26	0.84	1.74	0.13	2.25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28.62	62.53	1.59	0.94	2.01	0.00	4.30
시각디자인	시각디자인	29.01	58.94	9.80	0.19	1.51	0.23	0.32
인테리어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25.75	44.73	28.79	0.10	0.34	0.16	0.12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20.30	60.89	5.16	3.22	3.80	0.02	6.6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국내 고객-디자인 컨설팅’의 경우 강원/제주(37.25%), 부산/울산/경남(35.8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 고객-디자인 개발’은 대전/충청(68.12%), 광주/전라(65.5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자체 상품 개발/판매’의 비중은 서울(2.72%), 부산/울산/경남(2.57%)이 다른 권역 대비 높았으며, 대전/충청과 강원/제주는 0.00%로 자체 상품 개발/판매 비중이 매우 낮음.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규모에서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10~14인(63.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자체 상품 개발/판매’의 비중은 1인(6.93%), 15인 이상(5.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매출 구성별로는, 디자인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와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에서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의 비중이 높았으며,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의 경우 ‘국내 기타 용역’에서 78.80%로 높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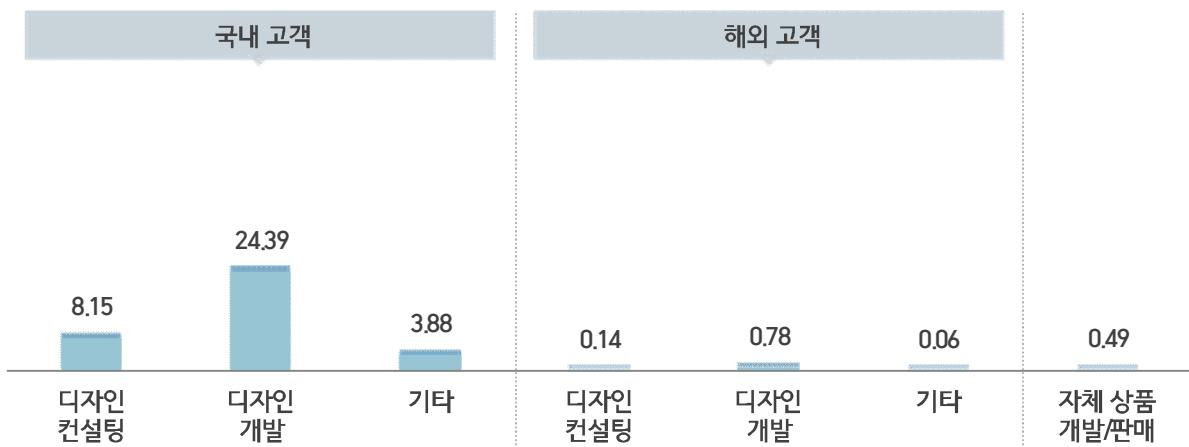
(단위: %)

구분	국내 고객			해외 고객			자체 상품 개발/판매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개발	기타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개발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26.79	56.98	11.26	0.84	1.74	0.13	2.25	
권역별	서울	27.52	56.06	9.99	1.00	2.49	0.21	2.72
	부산/울산/경남	35.80	51.02	9.40	0.23	0.93	0.04	2.57
	대구/경북	33.04	54.28	11.23	0.00	0.26	0.00	1.19
	인천	17.48	82.52	0.00	0.00	0.00	0.00	0.00
	경기	20.02	60.27	15.16	2.07	0.42	0.00	2.06
	광주/전라	14.87	65.56	17.10	0.00	0.00	0.00	2.47
	대전/충청	23.07	68.12	4.99	0.76	3.05	0.00	0.00
	강원/제주	37.25	35.48	27.27	0.00	0.00	0.00	0.00
규모별	1인	16.68	55.29	19.01	1.07	1.02	0.00	6.93
	2~4인	30.62	58.17	7.60	0.70	2.11	0.17	0.63
	5~9인	26.43	57.79	11.85	1.22	0.64	0.00	2.06
	10~14인	20.54	63.45	11.46	0.25	3.46	0.62	0.22
	15인 이상	30.64	41.98	17.96	0.53	3.22	0.06	5.62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30.76	65.30	0.83	0.98	1.98	0.00	0.14
	기타매출 50%↑	0.57	3.71	78.80	0.00	0.24	0.95	15.74
	반반	24.98	25.02	38.81	0.00	0.00	0.00	11.19

3-3-2) 용역 형태별 매출구성 건수

- 용역의 형태에 따른 매출구성 건수는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이 평균 24.3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국내 디자인 컨설팅'(8.15건)이 뒤를 이음.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건수 (단위: 건)



- 업종별로 살펴보면,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과 '국내 디자인 컨설팅 용역'은 시각디자인(각각 40.85건, 11.89건)에서 높고, '국내 기타 용역'은 인테리어디자인(7.02건)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건수

(단위: 건)

업종별	구분	국내 고객			해외 고객			자체 상품 개발/판매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개발	기타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개발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8.15	24.39	3.88	0.14	0.78	0.06	0.49
	제품디자인	4.90	19.94	0.40	0.11	0.52	0.00	0.45
	시각디자인	11.89	40.85	5.63	0.06	0.55	0.15	0.07
	인테리어디자인	5.22	5.54	7.02	0.02	0.12	0.00	0.02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8.31	18.22	0.73	0.52	2.64	0.02	2.19

- 권역별로 살펴보면,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은 대전/충청(41.81건)에서 가장 높고, 이어 인천(32.63건), 대구/경북(30.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국내 디자인 컨설팅 용역'은 부산/울산/경남(12.40건), 강원/제주(11.26건)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과 '국내 디자인 컨설팅' 모두 15인 이상 업체(각각 34.45건, 10.49건)에서 다른 규모 대비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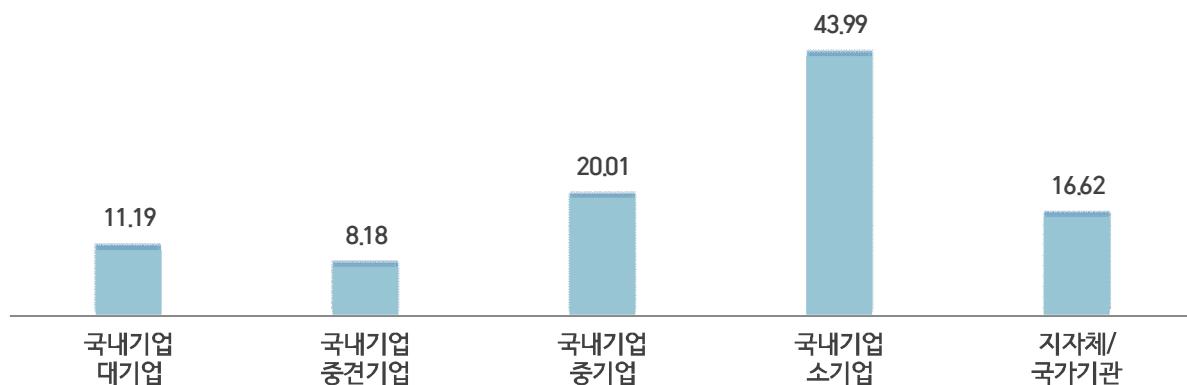
구분		국내 고객			해외 고객			자체 상품 개발/판매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개발	기타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개발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8.15	24.39	3.88	0.14	0.78	0.06	0.49
권역별	서울	8.46	24.92	3.73	0.14	1.20	0.10	0.56
	부산/울산/경남	12.40	21.11	1.92	0.19	0.53	0.04	0.02
	대구/경북	6.26	30.28	1.57	0.00	0.23	0.00	0.05
	인천	1.70	32.63	0.00	0.00	0.00	0.00	0.00
	경기	5.64	17.21	1.84	0.41	0.33	0.00	0.52
	광주/전라	4.15	19.42	4.79	0.00	0.00	0.00	1.52
	대전/충청	9.30	41.81	5.25	0.07	0.14	0.00	0.00
	강원/제주	11.26	9.35	19.33	0.00	0.00	0.00	0.00
규모별	1인	5.17	22.95	3.88	0.11	0.58	0.00	1.42
	2~4인	9.35	19.77	3.39	0.10	0.55	0.06	0.31
	5~9인	7.00	33.99	3.93	0.21	1.15	0.00	0.10
	10~14인	8.71	21.54	1.55	0.12	1.19	0.00	0.16
	15인 이상	10.49	34.45	10.24	0.32	1.55	0.56	1.2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9.52	28.55	0.77	0.16	0.87	0.04	0.03
	기타매출 50%↑	0.54	1.27	24.46	0.00	0.38	0.22	3.63
	반반	3.43	10.74	13.77	0.00	0.00	0.00	0.45

3-4) 매출액 기준 고객 비중

- 매출액 기준으로 고객 구성 비중을 분석하면, 국내기업 기준 '소기업' 비중이 43.99%로 가장 높고, 다음은 '중기업'(20.01), '지자체, 국가기관'(16.62%), '대기업'(11.19%), '중견기업'(8.18%)의 순으로 나타남.

매출액 기준 고객 비중

(단위: %)



- 업종별 고객 비중은 모든 업종에서 '소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인테리어디자인(56.83%)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한편, '중기업'의 비중은 제품디자인(23.04%), '지자체/국가기관'은 시각디자인(23.1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매출액 기준 고객 비중

(단위: %)

구분		국내기업_ 대기업	국내기업_ 중견기업	국내기업_ 중기업	국내기업_ 소기업	지자체/_ 국가기관
전문디자인업체		11.19	8.18	20.01	43.99	16.62
업종별	제품디자인	11.43	8.51	23.04	40.18	16.84
	시각디자인	12.98	8.33	19.57	36.01	23.11
	인테리어디자인	7.11	8.86	17.32	56.83	9.88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12.37	6.35	20.22	50.82	10.23

- ❖ 권역별 고객비중은 인천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소기업'이 가장 높은 가운데, 부산/울산/경남(55.94%), 경기(52.17%), 강원/제주(52.08%) 등의 순을 보임. 한편, '중기업' 비중은 인천(42.64%)에서, '대기업'의 경우 서울(16.04%)에서, '지자체, 국가기관'은 광주/전라(45.39%)에서 다른 권역 대비 높음.
- ❖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업체에서 '소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 매출구성별로 살펴보면, 구성에 관계없이 모든 업체에서 '소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64.24%)에서 더욱 높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매출액 기준 고객 비중

(단위: %)

구분		국내기업_ 대기업	국내기업_ 중견기업	국내기업_ 중기업	국내기업_ 소기업	지자체/ 국가기관
전문디자인업체		11.19	8.18	20.01	43.99	16.62
권 역 별	서울	16.04	10.56	22.28	41.20	9.92
	부산/울산/경남	1.41	4.61	20.16	55.94	17.88
	대구/경북	8.20	9.51	15.23	42.61	24.45
	인천	0.00	1.16	42.64	41.65	14.55
	경기	8.95	7.93	16.25	52.17	14.70
	광주/전라	0.00	1.24	12.21	41.16	45.39
	대전/충청	3.32	4.53	26.63	40.41	25.10
	강원/제주	10.44	0.00	1.61	52.08	35.87
규 모 별	1인	2.45	2.08	16.13	69.98	9.36
	2~4인	11.11	8.25	20.44	43.10	17.10
	5~9인	13.15	12.34	19.52	33.69	21.31
	10~14인	13.68	6.27	29.30	29.75	21.00
	15인 이상	27.30	10.95	19.93	31.43	10.39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12.10	8.24	21.21	40.94	17.51
	기타매출 50%↑	4.47	8.52	13.01	64.24	9.76
	반반	27.62	0.00	11.19	37.98	2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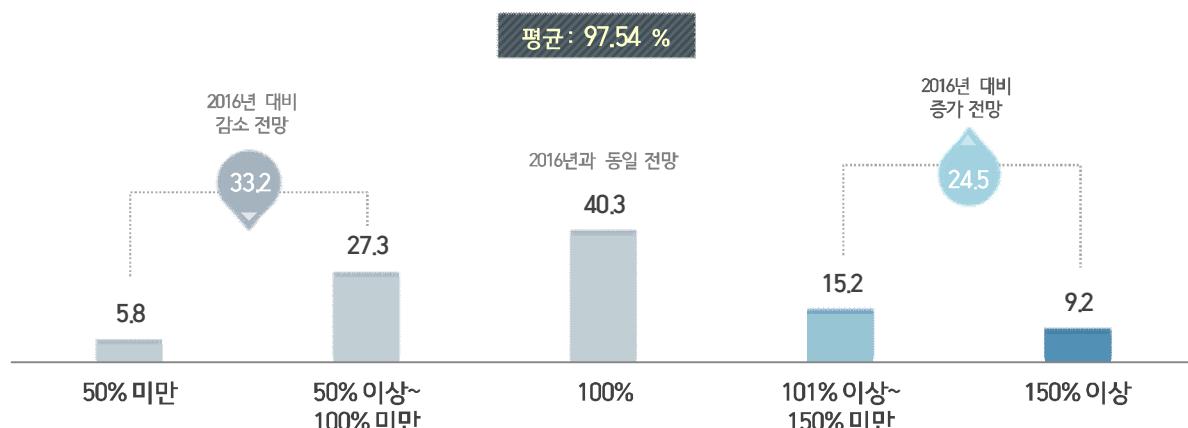
4) 2017년 재무 및 투자 전망

4-1) 2017년 매출액 전망

- 2016년 대비 2017년 매출액을 전망^⑦ 한 결과, 2017년 매출액은 2016년의 평균 97.54% 수준으로 2016년에 비해 약간 감소될 것으로 전망함.
범주별로 보면, '2016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전망(100%)이 40.3%로 가장 높았고,
'2016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33.2%,
'2016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24.5%로 나타남.

2017년 매출액 전망

(단위: %)



※ 모름/무응답 : 2.0%

- 업종별 2017년 매출액 전망은 제품디자인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2016년 대비 감소를 전망한 반면, 제품디자인(100.88%)에서는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업종별 2017년 매출액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5.8	27.3	40.3	15.2	9.2	97.54
업종별	제품디자인	2.6	31.2	37.0	15.6	11.3	100.88
	시각디자인	8.1	24.5	38.0	18.9	8.3	95.72
	인테리어디자인	7.1	24.7	45.6	14.3	6.5	95.77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3.8	31.6	43.8	7.5	12.2	99.15

⑦ 2016년과 같으면, 100%, 2016년 보다 증가하면 100%초과, 2016년 보다 감소하면 100% 미만으로 작성
예를 들어 2016년의 절반 수준이면 50%, 2배 증가했으면 200% 등으로 작성

- 권역별 매출액 전망 평균을 비교해 보면, 강원/제주(101.07%)는 2017년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인천(79.50%)에서는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함.
-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전망은 5인~9인의 업체(106.29%)에서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10~14인 업체(100.75%) 역시 긍정적 전망을 보임. 반면, 나머지 업체의 경우는 2017년 매출액을 부정적으로 전망함.
- 매출 구성별 매출액 전망을 보면,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113.82%)는 2017년 매출액 증가를 전망한 반면,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98.73%)와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89.51%)에서는 부정적 전망치를 보임.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7년 매출액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1.5	27.3	57.0	11.2	3.0	95.18
권 역 별	서울	4.7	26.8	42.2	15.0	10.0	98.58
	부산/울산/경남	7.5	21.2	48.7	8.9	11.1	98.90
	대구/경북	6.2	34.8	39.7	12.4	3.3	94.11
	인천	26.8	26.8	26.6	19.8	0.0	79.50
	경기	6.5	30.5	30.5	24.9	6.5	94.47
	광주/전라	5.6	36.1	32.9	12.7	9.0	94.97
	대전/충청	4.4	27.7	38.6	13.6	9.8	98.07
	강원/제주	16.4	7.2	41.3	22.8	12.4	101.07
규 모 별	1인	8.9	34.8	36.7	9.4	10.2	93.50
	2~4인	7.3	28.1	39.4	14.9	7.5	94.68
	5~9인	.4	21.4	45.6	16.3	13.9	106.29
	10~14인	2.9	24.6	40.7	24.5	5.7	100.75
	15인 이상	8.2	23.8	38.7	22.2	7.2	97.31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5.5	26.3	41.7	15.9	9.4	98.73
	기타매출 50%↑	7.1	38.9	33.6	12.3	7.4	89.51
	반반	0.0	0.0	55.8	27.6	16.6	11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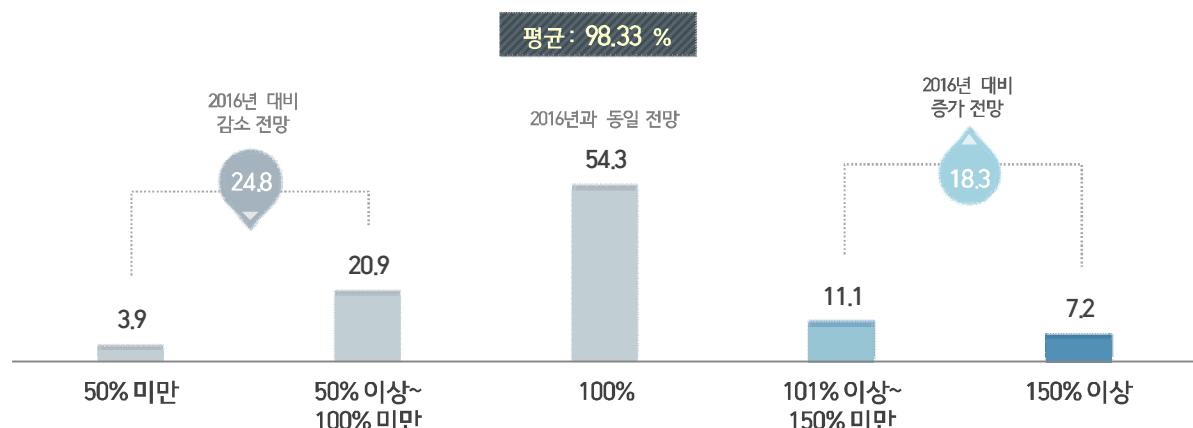
4-2) 2017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

▣ 2016년 대비 2017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은 평균 98.33%수준으로 2016년에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범주별로는, '2016년과 동일 전망'(100%)이 54.3%로 가장 높은 가운데,
 '2016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24.8%,
 '2016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18.3%로 나타남.

2017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

(단위: %)



※ 모름/무응답 : 2.6%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품디자인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 사업비의 감소를 전망한 가운데, 인테리어디자인(97.41%),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97.22%), 시각디자인(96.59%)의 전망치 순을 보임.
 제품디자인의 경우 102.58%로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2017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3.9	20.9	54.3	11.1	7.2	98.33
업종별	제품디자인	2.4	24.8	46.3	12.9	10.9	102.58
	시각디자인	5.0	20.5	52.1	13.3	6.3	96.59
	인테리어디자인	4.0	16.0	62.7	9.9	4.4	97.41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3.4	22.6	60.3	4.9	7.7	97.22

-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제주(100.58%)와 서울(100.36%)에서 2017년 디자인 사업비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광주/전라(93.19%)에서 가장 부정적 전망을 보임.
- 규모별 디자인 사업비 전망은 1인 사업체와 2~4인 사업체에서 각각 95.36%와 95.76%로 부정적인 전망을 한 반면, 5~9인(104.23%), 10~14인(104.15%), 15인 이상(100.79%)업체에서는 디자인 사업비 증가를 전망함.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사업체가 부정적인 전망을 한 가운데,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99.18%),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95.52%),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9%)의 순서로 사업비를 전망 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7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3.9	20.9	54.3	11.1	7.2	98.33
권 역 별	서울	2.6	20.0	57.1	9.9	8.1	100.36
	부산/울산/경남	7.5	18.3	53.4	7.2	11.1	97.80
	대구/경북	3.5	24.3	52.2	16.4	0.0	95.16
	인천	0.0	26.8	53.4	19.8	0.0	98.26
	경기	7.4	20.4	52.7	12.8	5.6	93.20
	광주/전라	2.8	31.7	40.2	17.7	4.1	93.19
	대전/충청	4.4	23.3	51.7	9.3	5.5	97.10
	강원/제주	9.2	7.2	55.5	13.5	12.4	100.58
규 모 별	1인	4.7	21.0	60.8	6.8	6.0	95.36
	2~4인	4.9	24.6	50.1	10.8	6.5	95.76
	5~9인	0.2	14.3	62.6	11.2	8.6	104.23
	10~14인	2.4	16.9	46.8	23.1	8.1	104.15
	15인 이상	9.1	18.9	46.3	14.8	11.0	100.79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3.5	20.2	56.0	11.5	7.2	99.18
	기타매출 50%↑	5.4	28.0	47.3	9.3	8.9	95.52
	반반	0.0	22.4	50.0	27.6	0.0	9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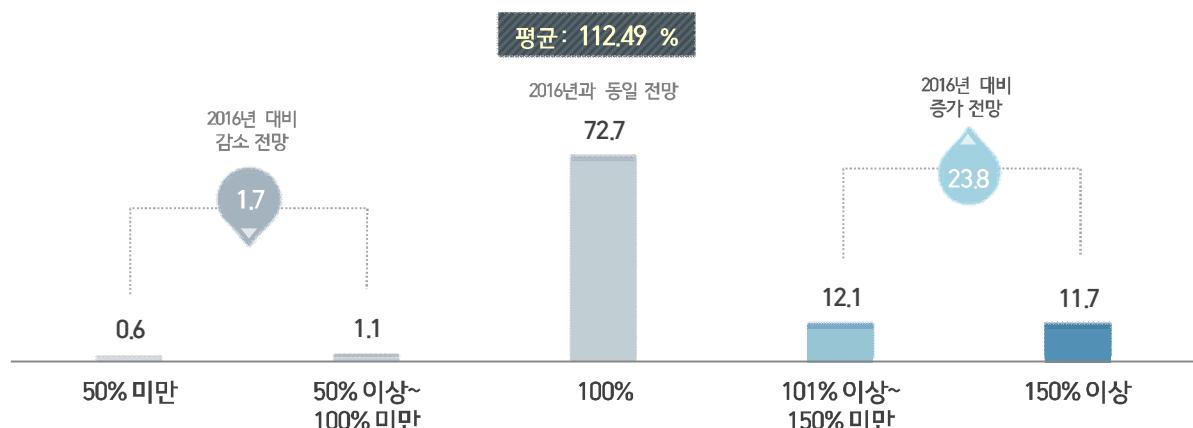
4-3) 2017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 2016년 대비 2017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은 평균 112.49%수준으로 2016년에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범주별로 살펴보면, '2016년과 동일 전망'(100%)이 72.7%로 압도적인 가운데, '2016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1.7%, '2016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23.8%로 나타남.

2017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 모름/무응답 : 1.8%

▣ 업종별 디자이너 고용 전망은 모든 업종에서 고용 증가를 전망한 가운데, 시각디자인(115.20%)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남.

▶ 업종별 2017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0.6	1.1	72.7	12.1	11.7	112.49
업종별	제품디자인	0.0	0.9	73.8	17.4	5.7
	시각디자인	0.9	0.8	72.4	12.2	11.5
	인테리어디자인	0.0	0.0	72.0	12.7	14.4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1.6	3.8	72.6	3.0	17.8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고용 증가를 전망한 가운데, 대구/경북(140.75%), 부산/울산/경남(117.50%), 대전/충청(115.88%)등의 순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업체 종사자 규모에 따르면, 모든 규모의 사업체에서 긍정적으로 전망한 가운데, 10~14인 업체에서 123.21%로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했고, 5~9인 업체(112.75%), 2~4인 업체(112.40%) 등의 순으로 고용 증가를 전망함.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매출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133.99%)에서 2017년 디자이너 고용을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7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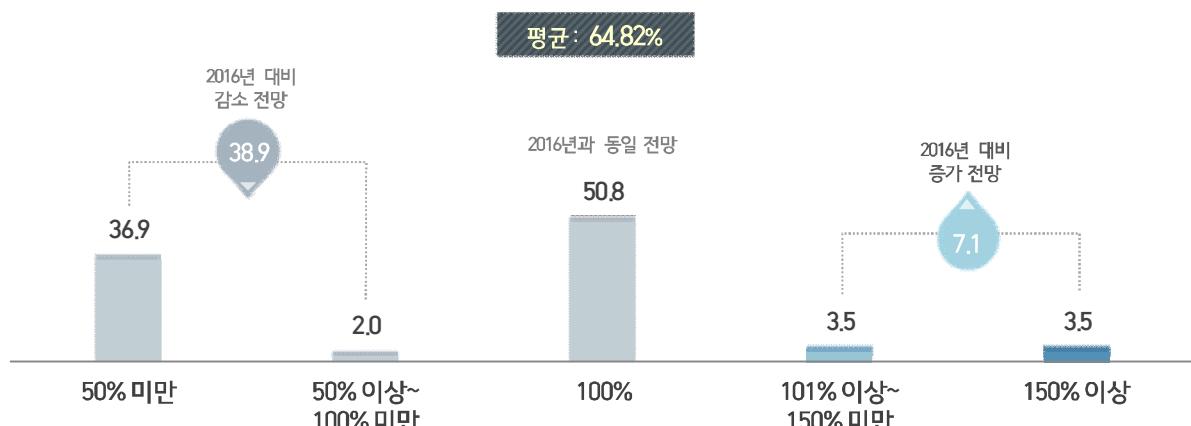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0.6	1.1	72.7	12.1	11.7	112.49
권 역 별	서울	1.0	1.2	73.4	12.8	10.3	109.07
	부산/울산/경남	0.0	0.0	64.3	13.6	19.7	117.50
	대구/경북	0.9	0.0	83.1	14.1	2.0	140.75
	인천	0.0	0.0	80.2	19.8	0.0	103.96
	경기	0.0	1.8	81.1	4.8	11.3	109.04
	광주/전라	0.0	3.6	66.4	12.2	14.2	112.99
	대전/충청	0.0	0.0	65.7	8.7	19.8	115.88
	강원/제주	0.0	0.0	68.0	18.5	13.5	109.51
규 모 별	1인	0.0	0.0	89.8	0.0	10.2	109.35
	2~4인	0.6	2.1	77.3	4.8	12.0	112.40
	5~9인	0.4	0.4	61.1	27.0	10.8	112.75
	10~14인	0.0	0.0	46.8	34.9	16.7	123.21
	15인 이상	4.1	0.0	52.4	30.7	12.8	110.99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0.7	1.1	74.4	13.1	9.9	111.28
	기타매출 50%↑	0.0	1.4	70.2	7.4	20.3	116.33
	반반	0.0	0.0	50.0	11.1	39.0	133.99

4-4) 2017년 연구개발비 전망

- 2016년 대비 2017년 연구개발비 전망은 평균 64.82%수준으로 낮게 나타나, 2016년에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범주별로 살펴보면, '2016년과 동일 전망'(100%)이 50.8%로 가장 높았으며, '2016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38.9%, '2016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7.1%로 나타남.

2017년 연구개발비 전망

(단위: %)



※ 모름/무응답 : 3.2%

- 업종별 2017년 연구개발비 전망은 모든 업종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품디자인(82.59%)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전망되었으며, 인테리어디자인(44.03%)은 2017년 연구개발비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함.

▶ 업종별 2017년 연구개발비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36.9	2.0	50.8	3.5	3.5	64.82
업종별	제품디자인	23.2	2.1	59.6	4.5	7.2
	시각디자인	38.6	2.4	47.7	4.9	3.8
	인테리어디자인	53.7	0.0	38.7	1.9	0.4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30.5	3.8	61.3	1.1	70.1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모든 권역에서 2017년 연구개발비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한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41.99%)에서 부정적 전망치를 보임. 광주/전라(71.27%)에서 가장 적은 감소치를 전망함.
- ❖ 업체 종사자 규모별 연구개발비 전망 역시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연구개발비 감소를 전망한 가운데, 15인(75.90%)이 가장 적은 감소폭을 전망함.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는 54.3%로 가장 낮은 전망치를 보임.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6년 연구개발비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36.9	2.0	50.8	3.5	3.5	64.82
권 역 별	서울	36.2	2.4	51.1	4.2	3.3	65.56
	부산/울산/경남	31.7	0.0	62.0	1.8	2.0	69.99
	대구/경북	56.1	0.0	40.3	0.0	0.0	41.99
	인천	53.4	0.0	38.4	8.2	0.0	48.23
	경기	37.4	1.8	52.4	1.8	5.5	65.20
	광주/전라	31.9	3.6	51.0	3.4	6.4	71.27
	대전/충청	31.7	3.4	38.2	7.8	6.2	70.62
	강원/제주	42.9	0.0	57.1	0.0	0.0	57.11
규 모 별	1인	51.0	0.0	44.4	3.3	1.3	50.99
	2~4인	34.8	3.3	51.8	4.0	2.5	65.72
	5~9인	30.5	1.4	55.9	2.0	6.3	73.03
	10~14인	45.9	1.2	37.8	6.4	4.9	57.11
	15인 이상	28.0	1.1	54.6	3.8	6.8	75.90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35.0	2.1	53.4	3.9	3.2	66.76
	기타매출 50%↑	49.4	1.9	39.3	1.7	5.4	54.30
	반반	33.4	0.0	50.0	0.0	16.6	74.87

5) 2018년 재무 및 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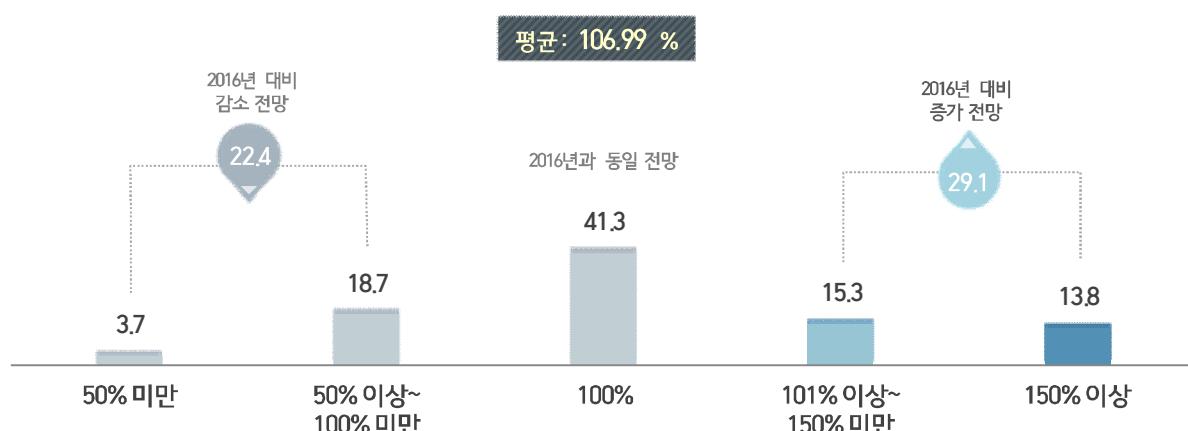
5-1) 2018년 매출액 전망

- 2016년 대비 2018년 디자인 투자 전망은 평균 106.99%수준으로 2016년에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범주별로 살펴보면, '2016년과 동일 전망'(100%)이 41.3%로 높았으며, '2016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22.4%, '2016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29.1%로 나타남.

2018년 매출액 전망

(단위: %)



* 모름/무응답 : 7.2%

- 업종별 2018년 매출액 전망은 모든 업종에서 긍정적인 가운데, 제품디자인(117.45%)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105.53%), 인테리어디자인(104.09%), 시각디자인(102.46%)의 순으로 매출액 증가를 예상함.

▶ 업종별 2018년 매출액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101%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3.7	18.7	41.3	15.3	13.8	106.99
업종별	제품디자인	3.5	18.5	30.0	17.4	23.7
	시각디자인	5.0	17.7	40.0	18.2	10.0
	인테리어디자인	3.0	18.4	51.9	12.4	9.3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1.6	21.9	47.1	9.3	105.53

- ❖ 권역별 전망은 인천과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서 매출액 증가를 전망한 가운데, 강원/제주(123.38%)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남. 인천에서는 86.03%, 경기에서는 97.93%로 부정적인 전망을 보임.
- ❖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전망은 15인 이상 업체(98.64%)를 제외한 기업에서 증가 전망을 보였으며, 5~9인 규모의 업체(115.62%)의 증가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함.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107.91%)와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102.96%)에서는 긍정적 전망을 한 반면,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98.85%)에서는 다소 낮은 전망치를 보임.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8년 매출액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3.7	18.7	41.3	15.3	13.8	106.99
권 역 별	서울	3.4	17.8	43.9	14.0	13.4	107.92
	부산/울산/경남	2.4	19.0	46.5	4.1	19.2	111.72
	대구/경북	1.6	28.8	37.3	19.9	7.0	100.29
	인천	26.8	0.0	53.4	19.8	0.0	86.03
	경기	9.4	21.9	26.7	20.7	11.0	97.93
	광주/전라	0.0	27.9	34.6	18.0	14.7	107.41
	대전/충청	4.4	12.1	40.2	22.7	14.7	106.11
	강원/제주	0.0	0.0	48.7	23.9	27.4	123.38
규 모 별	1인	4.7	24.4	41.4	15.7	12.8	103.11
	2~4인	4.4	17.4	40.2	14.1	13.8	105.97
	5~9인	.4	15.6	46.2	13.1	17.8	115.62
	10~14인	2.9	24.5	32.2	32.2	2.5	102.85
	15인 이상	8.2	19.6	40.3	16.5	12.3	98.64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4.0	16.6	42.3	16.4	14.0	107.91
	기타매출 50%↑	0.0	33.4	37.0	11.8	12.6	102.96
	반반	0.0	50.0	33.4	0.0	16.6	98.85

5-2) 2018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

- 2016년 대비 2018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은 평균 103.39%수준으로 2016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범주별로 살펴보면, '2016년과 동일 전망'(100%)이 53.5%로 가장 높았으며, '2016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18.4%, '2016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21.6%로 나타남.

2018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

(단위: %)



※ 모름/무응답 : 6.5%

- 업종별 2018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은 시각디자인(98.92%)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품디자인에서 113.22%로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함.

▶ 업종별 2018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3.2	15.3	53.5	11.6	10.0	103.39
업종별	제품디자인	1.5	15.9	43.4	13.8	19.3	113.22
	시각디자인	5.8	13.8	50.3	14.0	7.3	98.92
	인테리어디자인	2.0	13.5	63.3	9.4	5.9	101.74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1.1	20.3	62.9	5.5	7.7	101.01

- ❖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제주(113.53%), 부산/울산/경남(106.37%), 인천(104.78%), 서울(104.36%), 대전/충청(102.18%), 광주/전라(101.38%)의 순으로 2018년 디자인 사업비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99.33%), 대구/경북(95.31%)에서는 디자인 투자 감소 전망으로 나타남.
- ❖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1인 업체(96.38%)을 제외한 모든 업체에서 2018년 디자인 사업비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 가운데, 5~9인 업체에서 110.80%로 높은 전망치를 보임.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104.10%)와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103.67%)에서는 긍정적 전망을 한 반면,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68.31%)에서는 낮은 전망치를 보임.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8년 디자인 투자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3.2	15.3	53.5	11.6	10.0	103.39
권역별	서울	2.4	15.0	54.7	10.8	10.0	104.36
	부산/울산/경남	5.6	17.1	51.3	2.3	15.1	106.37
	대구/경북	3.5	19.4	52.1	15.0	4.6	95.31
	인천	0.0	0.0	80.2	19.8	0.0	104.78
	경기	5.1	15.9	49.9	16.0	7.9	99.33
	광주/전라	3.6	21.8	41.6	18.5	9.7	101.38
	대전/충청	4.4	12.1	55.1	15.6	6.9	102.18
	강원/제주	0.0	0.0	71.9	4.3	21.6	113.53
규모별	1인	6.3	17.6	60.5	8.7	6.0	96.38
	2~4인	2.8	16.7	50.9	9.7	10.6	102.74
	5~9인	0.2	9.2	60.8	12.3	11.9	110.80
	10~14인	2.4	18.2	37.6	30.7	4.2	103.03
	15인 이상	9.1	17.2	42.8	15.4	14.0	102.32
매출구성	디자인매출 50%↑	3.1	13.8	55.3	12.0	10.1	104.10
	기타매출 50%↑	2.2	23.9	45.4	11.5	11.4	103.67
	반반	0.0	72.3	27.7	0.0	0.0	68.31

5-3)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 2016년 대비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은 평균 114.53%수준으로 2016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범주별로는 '2016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전망'(100%)이 67.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2016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2.7%, '2016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25.9%로 나타남.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 모름/무응답 : 3.7%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2016년 대비 디자이너 고용 증가를 전망한 가운데, 시각디자인 분야에서 117.98%로 가장 높은 전망을 나타냄.

▶ 업종별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0.6	2.1	67.8	12.7	13.2	114.53
업종별	제품디자인	0.0	2.2	63.0	16.0	10.7	110.53
	시각디자인	0.9	1.1	69.2	13.6	12.3	117.98
	인테리어디자인	0.0	1.4	68.1	13.3	15.2	114.6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1.6	5.0	71.3	4.7	16.1	112.13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2018년 디자이너 고용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치를 보였고, 특히 대구/경북에서 146.36%로 가장 증가폭이 큼.
- ❖ 업체 종사자 규모별 디자이너 고용 전망은, 비슷한 수준으로 고용의 증가를 예상한 가운데, 2~4인 규모 업체(115.63%)에서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으로 나타남.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117.85%),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113.93%),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109.85%)의 순으로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증가를 전망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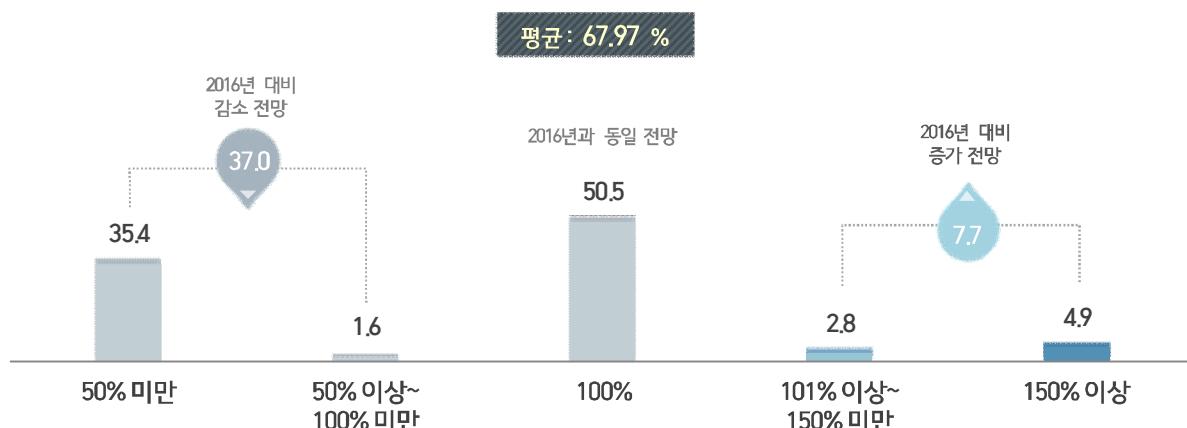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0.6	2.1	67.8	12.7	13.2	114.53
권 역 별	서울	1.0	2.8	65.2	14.4	12.5	110.74
	부산/울산/경남	0.0	0.0	67.9	11.0	17.1	117.48
	대구/경북	0.9	0.0	72.0	21.1	6.0	146.36
	인천	0.0	0.0	80.2	19.8	0.0	106.29
	경기	0.0	1.8	76.7	6.2	15.2	114.01
	광주/전라	0.0	3.6	67.6	5.7	17.0	117.03
	대전/충청	0.0	0.0	63.7	12.0	18.5	116.05
	강원/제주	0.0	0.0	83.3	9.2	3.1	104.53
규 모 별	1인	0.0	0.0	85.5	0.0	14.5	114.47
	2~4인	0.6	2.6	72.1	6.1	14.0	115.63
	5~9인	0.4	1.6	55.4	27.5	11.3	113.90
	10~14인	0.0	7.8	42.9	31.2	10.7	109.15
	15인 이상	4.1	0.0	50.8	31.5	11.8	112.94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0.7	2.2	67.9	13.6	12.4	113.93
	기타매출 50%↑	0.0	1.4	72.2	7.9	17.8	117.85
	반반	0.0	0.0	72.3	11.1	16.6	109.85

5-4) 2018년 연구개발비 전망

- 2016년 대비 2018년 연구개발비 전망은 평균 67.97%수준으로 낮게 나타나, 2016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범주별로 살펴보면, '2016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전망'(100%)이 50.5%로 가장 높았으며, '2016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37.0%, '2016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7.7%로 나타남.

2018년 연구개발비 전망

(단위: %)



- 업종별 연구개발비 전망은 모든 업종에서 부정적 전망치를 보였으며, 제품디자인(91.61%)에서 가장 적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반면, 인테리어디자인(45.94%)의 연구개발비가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업종별 2018년 연구개발비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35.4	1.6	50.5	2.8	4.9	67.97
업종별	제품디자인	19.5	0.9	58.1	2.9	10.6	91.61
	시각디자인	38.4	1.7	49.2	3.4	3.9	63.62
	인테리어디자인	52.7	0.4	37.3	2.4	1.4	45.94
	기타파션/텍스타일디자인	29.1	3.8	60.3	1.7	3.2	73.19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2017년 연구개발비 감소를 전망한 가운데, 광주/전라(75.62%)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함.
- 대구/경북과 인천의 경우 각각 43.63%, 48.23%로 낮은 전망치를 보여 2018년 연구개발비의 감소를 전망함.
- ❖ 업체 규모별 전망 역시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으며, 5~9인 업체(77.55%)와 15인 이상 업체(77.64%)에서 가장 긍정적 전망치를 보임.
- 한편, 1인 업체(52.29%)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함.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2018년 연구개발비가 감소할 것으로 모든 업체가 전망한 가운데,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 54.63%로 가장 큰 감소폭을 예상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8년 연구개발비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35.4	1.6	50.5	2.8	4.9	67.97
권역별	서울	34.1	1.5	51.0	3.5	4.4	69.23
	부산/울산/경남	31.7	0.0	62.4	1.8	1.7	69.67
	대구/경북	56.1	0.0	37.6	1.6	1.1	43.63
	인천	53.4	0.0	38.4	8.2	0.0	48.23
	경기	37.4	1.8	53.2	1.8	4.9	66.06
	광주/전라	31.9	3.6	48.8	0.0	11.5	75.62
	대전/충청	31.7	3.4	41.6	4.4	6.2	71.45
	강원/제주	37.1	0.0	50.6	0.0	12.4	73.73
규모별	1인	51.0	0.0	43.0	3.3	2.6	52.29
	2~4인	32.3	2.2	54.0	1.9	3.8	69.24
	5~9인	30.5	1.4	51.9	2.7	8.4	77.55
	10~14인	43.9	2.7	35.1	7.1	4.9	59.45
	15인 이상	27.2	0.0	52.5	4.9	7.9	77.64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33.3	1.6	53.2	2.7	4.8	70.37
	기타매출 50%↑	49.4	1.4	38.6	3.0	5.4	54.63
	반반	33.4	0.0	50.0	0.0	16.6	74.87

2 디자인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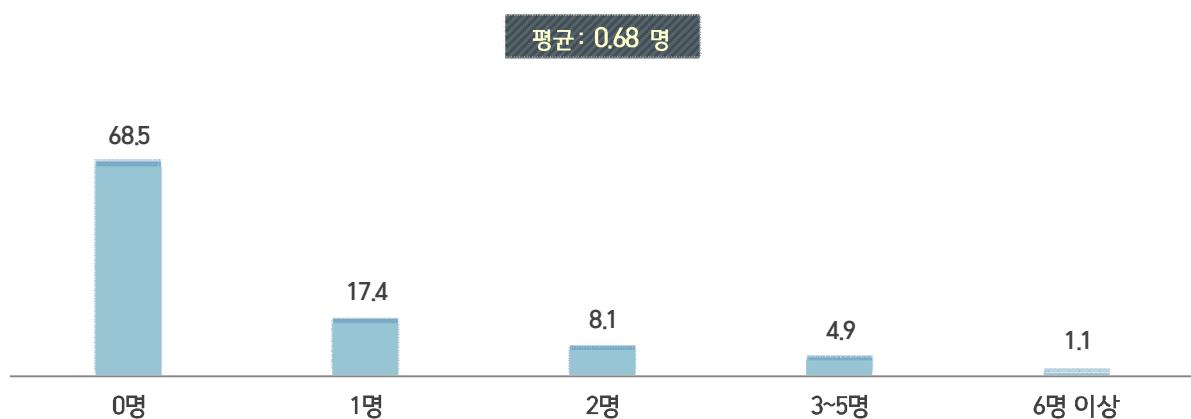
1) 구인 디자이너 수

전문디자인업체의 구인 디자이너 수는 평균 0.68명인 것으로 나타남.

범주별로는, '0명'이 68.5%로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1명'(17.4%), '2명'(8.1%), '3~5명'(4.9%), '6명 이상'(1.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구인 디자이너 수

(단위: %)



업종별 구인 디자이너 수의 평균은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1.27명), 인테리어디자인(0.60명), 시각디자인(0.58명), 제품디자인(0.50명)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 구인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0명	1명	2명	3~5명	6명 이상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68.5	17.4	8.1	4.9	1.1	0.68
업종별	제품디자인	70.4	17.3	7.0	4.9	0.3	0.50
	시각디자인	71.1	17.2	8.2	2.4	1.1	0.58
	인테리어디자인	71.4	15.3	8.3	3.8	1.2	0.6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55.8	20.6	9.2	12.0	2.4	1.27

- ❖ 권역별 구인 디자이너 수는 서울에서 0.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울산/경남(0.61명), 대구/경북(0.5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강원/제주는 0.32명으로 가장 낮은 디자이너 수를 보임.
- ❖ 규모별 구인 디자이너 수는 업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매출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에서 평균 1.00명으로 가장 구인 을 많이 했고, 기타매출이 절반 이상인 업체(0.48명)에서는 구인 디자이너 수가 상대적으로 낮음.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구인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0명	1명	2명	3~5명	6명 이상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68.5	17.4	8.1	4.9	1.1	0.68
권 역 별	서울	67.2	17.1	8.3	5.8	1.6	0.81
	부산/울산/경남	65.2	17.3	13.4	2.7	1.4	0.61
	대구/경북	70.8	20.6	5.5	1.7	1.4	0.53
	인천	80.2	0.0	8.2	11.6	0.0	0.51
	경기	77.9	9.6	4.3	8.3	0.0	0.52
	광주/전라	67.0	14.7	17.0	1.2	0.0	0.52
	대전/충청	65.0	32.8	0.0	2.2	0.0	0.39
	강원/제주	77.5	19.4	0.0	3.1	0.0	0.32
규 모 별	1인	92.4	7.6	0.0	0.0	0.0	0.08
	2~4인	77.0	12.1	7.9	2.9	0.0	0.38
	5~9인	51.1	34.4	9.0	5.2	0.4	0.77
	10~14인	32.2	22.2	25.4	15.9	4.3	1.65
	15인 이상	27.7	21.0	13.5	23.8	14.1	3.75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67.0	18.5	8.1	5.1	1.2	0.71
	기타매출 50%↑	79.5	8.9	7.3	3.7	0.6	0.48
	반반	39.0	22.4	38.7	0.0	0.0	1.00

2)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

-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를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시각디자인’ 영역 디자이너가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공간디자인’(32.1%),
 ‘제품디자인’(30.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1순위 선택도 시각디자인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 보면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을 제외한 업종에서 해당 디자인 분야 전문가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

(단위: %)

구분		시각 디자인	공간 디자인	제품 디자인	디지털/멀티 미디어 디자인	패션/ 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경험 디자인
전문디자인업체		59.6	32.1	30.9	10.1	8.0	4.6	3.4
업 종 별	제품디자인	54.8	21.4	65.3	7.7	3.1	7.1	3.6
	시각디자인	87.7	16.1	24.2	15.5	1.1	4.9	3.3
	인테리어디자인	29.1	83.5	9.2	5.4	0.4	3.0	1.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42.6	15.5	23.8	7.5	42.1	2.2	6.6

구분		디자인 인프라	산업공예 디자인	타분야 융합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설계	디자인 기획	환경 디자인	도시 및 교통 계획
전문디자인업체		2.7	2.4	2.2	0.2	0.2	0.2	0.1	0.1
업 종 별	제품디자인	4.2	3.8	2.3	0.9	0.0	0.0	0.0	0.0
	시각디자인	0.8	2.3	1.1	0.0	0.0	0.0	0.4	0.0
	인테리어디자인	3.5	1.0	1.0	0.0	1.0	1.0	0.0	0.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3.6	2.6	6.0	0.0	0.0	0.0	0.0	0.6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시각디자인’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대전/충청(74.5%), 광주/전라(73.4%), 인천(73.2%) 등의 순서로 나타남. ‘공간디자인’의 경우 대구/경북(39.3%), 부산/울산/경남(38.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체의 규모에서 ‘시각디자인’을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로 응답함. ‘공간디자인’의 경우 15인 이상의 업체(40.2%)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매출 구성별 결과 역시 매출 구성과 관계없이 ‘시각디자인’ 분야가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라고 응답한 가운데,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의 경우 8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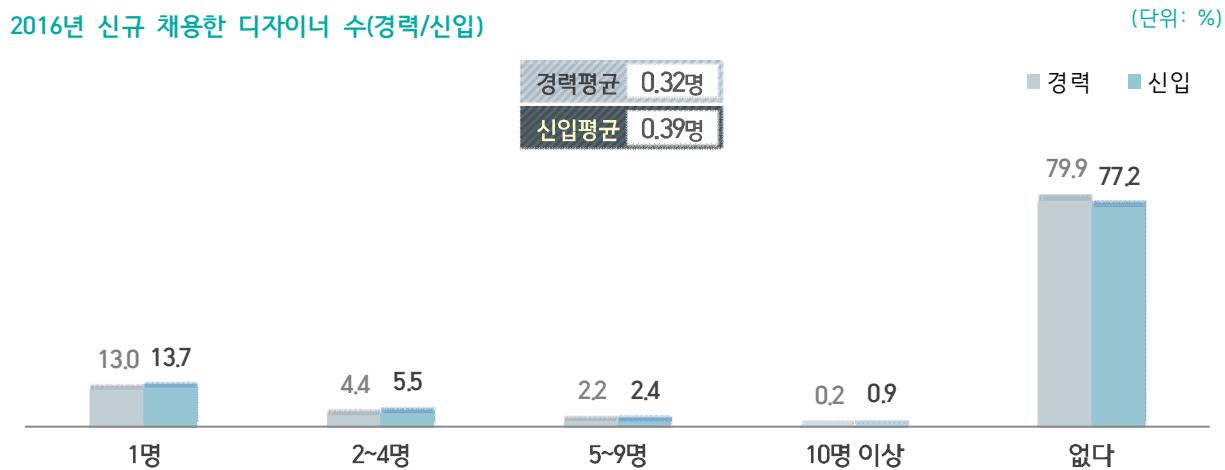
(단위: %)

구분		디자인 인프라	산업공예 디자인	타분야 융합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설계	디자인 기획	환경 디자인
전문디자인업체		59.6	32.1	30.9	10.1	8.0	4.6	3.4
권 역 별	서울	54.0	31.8	31.2	9.8	10.2	4.3	3.3
	부산/울산/경남	57.3	38.8	26.3	11.7	10.4	3.9	3.9
	대구/경북	56.7	39.3	18.4	13.3	1.4	4.6	0.8
	인천	73.2	38.4	53.6	8.2	0.0	0.0	0.0
	경기	65.3	20.1	37.5	6.2	8.2	9.4	5.1
	광주/전라	73.4	35.2	33.9	7.2	4.5	4.9	4.5
	대전/충청	74.5	30.3	38.3	15.1	0.0	3.4	4.6
	강원/제주	87.0	36.0	13.5	14.8	0.0	0.0	0.0
규 모 별	1인	58.0	28.1	18.1	6.7	16.3	5.3	5.7
	2~4인	61.1	30.0	35.6	10.1	6.5	2.2	2.7
	5~9인	55.4	37.5	31.1	10.9	5.3	9.5	4.1
	10~14인	58.1	32.4	35.2	12.7	8.3	3.6	2.6
	15인 이상	69.0	40.2	22.5	14.5	6.3	4.6	0.9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61.1	29.8	31.9	10.5	8.0	4.8	3.7
	기타매출 50%↑	46.2	45.5	23.2	7.5	8.3	2.2	2.2
	반반	88.9	38.7	39.0	0.0	0.0	22.4	0.0

구분		디자인 인프라	산업공예 디자인	타분야 융합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설계	디자인 기획	환경 디자인	도시 및 교통 계획
전문디자인업체		2.7	2.4	2.2	0.2	0.2	0.2	0.1	0.1
권역별	서울	4.3	1.4	2.4	0.4	0.4	0.0	0.0	0.2
	부산/울산/경남	0.0	2.7	5.2	0.0	0.0	0.0	0.0	0.0
	대구/경북	0.0	6.1	1.1	0.0	0.0	0.0	0.0	0.0
	인천	0.0	0.0	0.0	0.0	0.0	0.0	0.0	0.0
	경기	0.0	8.2	0.0	0.0	0.0	0.0	0.0	0.0
	광주/전라	2.8	2.4	0.0	0.0	0.0	0.0	1.7	0.0
	대전/충청	0.0	0.0	1.5	0.0	0.0	3.4	0.0	0.0
	강원/제주	0.0	0.0	5.8	0.0	0.0	0.0	0.0	0.0
규모별	1인	1.1	4.0	2.1	0.0	0.0	0.0	0.0	0.0
	2~4인	3.2	2.6	2.6	0.4	0.4	0.4	0.0	0.0
	5~9인	3.2	1.2	1.3	0.0	0.0	0.0	0.6	0.0
	10~14인	2.2	0.0	3.4	0.0	0.0	0.0	0.0	0.0
	15인 이상	1.2	2.7	1.2	0.0	0.0	0.0	0.0	1.6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2.3	2.6	2.1	0.3	0.0	0.3	0.2	0.1
	기타매출 50%↑	5.4	1.7	3.2	0.0	1.7	0.0	0.0	0.0
	반반	0.0	0.0	0.0	0.0	0.0	0.0	0.0	0.0

3) 2016년 신규 채용한 디자이너 수(경력/신입)

- 전문디자인업체의 신규 채용 경력 디자이너 수 평균은 0.39명, 신입 디자이너 수 평균은 0.32명으로 경력 채용과 신입 채용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범주별로는, 경력 디자이너와 신규 디자이너 모두 '1명'(각 13.0%, 13.7%) 채용이 가장 많음.



* 모름/무응답 : 0.4%

- 업종별 신규 채용 경력 디자이너 수는 경력과 신입 각각 평균 0.40명, 0.46명으로 시각디자인에서 타 업종 대비 채용이 높음. 기타 패션/텍스타일디자인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경력 디자이너보다 신입 디자이너의 채용이 많음.

▶ 업종별 2016년 신규 채용한 디자이너 수(경력/신입)

(단위: %)

업종	구분	경력 디자이너						신입 디자이너					
		1명	2명	3~5명	6명 이상	없다	평균 (명)	1명	2명	3~5명	6명 이상	없다	평균 (명)
	전문디자인업체	13.0	4.4	2.2	0.2	79.9	0.32	13.7	5.5	2.4	0.9	77.2	0.39
	제품디자인	15.7	5.1	1.7	0.0	77.5	0.31	10.6	5.8	3.8	0.6	79.2	0.41
	시각디자인	11.1	6.4	2.7	0.4	78.6	0.40	19.5	4.3	2.3	1.3	71.9	0.46
	인테리어디자인	16.4	1.8	0.8	0.0	81.0	0.22	11.2	8.9	1.9	0.3	77.7	0.37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8.5	2.4	3.6	0.0	85.0	0.25	8.6	3.0	1.1	1.1	85.7	0.25

- 권역별 신규 채용 경력 디자이너 수는 인천이 0.78명으로 타 권역 대비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강원/제주(0.75명), 광주/전라(0.47명)가 뒤를 이음. 신규 채용 신입 디자이너 수는 강원/제주(0.76명)에서 가장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신규 채용한 경력 디자이너와 신입 디자이너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6년 신규 채용한 디자이너 수(경력/신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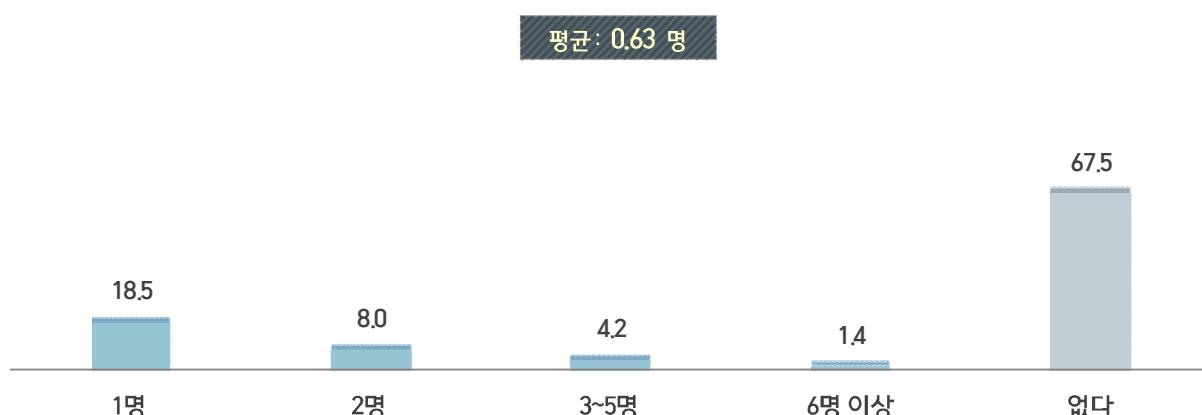
구분		경력 디자이너						신입 디자이너					
		1명	2명	3~5명	6명 이상	없다	평균 (명)	1명	2명	3~5명	6명 이상	없다	평균 (명)
전문디자인업체		13.0	4.4	2.2	0.2	79.9	0.32	13.7	5.5	2.4	0.9	77.2	0.39
권역별	서울	13.7	3.4	2.5	0.3	79.4	0.34	13.9	5.7	2.6	0.9	76.3	0.42
	부산/울산/경남	7.3	3.1	1.4	0.0	88.3	0.18	12.6	6.1	2.8	0.0	78.5	0.33
	대구/경북	25.2	1.1	0.0	0.0	73.7	0.27	25.0	6.5	1.9	0.8	65.7	0.52
	인천	26.8	8.2	11.6	0.0	53.4	0.78	0.0	0.0	0.0	0.0	100.0	0.00
	경기	6.9	5.8	0.0	0.0	87.3	0.19	8.9	1.7	3.1	1.0	85.2	0.28
	광주/전라	18.1	12.1	1.7	0.0	68.1	0.47	10.4	10.2	0.0	0.0	79.4	0.31
	대전/충청	10.0	2.8	0.0	0.0	87.2	0.16	16.6	2.8	3.4	0.0	77.2	0.32
	강원/제주	0.0	12.4	13.5	0.0	74.1	0.75	12.4	4.3	0.0	9.2	74.1	0.76
규모별	1인	0.0	0.0	0.0	0.0	100.0	0.00	4.0	0.0	0.0	1.1	94.9	0.10
	2~4인	12.4	2.0	0.9	0.0	84.2	0.20	13.3	3.5	1.1	0.6	81.0	0.27
	5~9인	18.4	8.9	3.2	0.0	69.5	0.46	20.1	5.7	2.0	0.0	72.2	0.38
	10~14인	28.1	17.5	3.2	0.0	51.2	0.73	24.2	28.0	7.1	1.2	39.5	1.14
	15인 이상	20.5	8.6	15.0	2.9	51.7	1.33	11.4	15.3	17.2	6.9	47.9	1.65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13.7	4.6	2.4	0.2	79.1	0.34	14.0	5.2	2.6	1.1	76.9	0.41
	기타매출 50%↑	10.7	3.8	1.7	0.0	83.8	0.23	12.8	8.0	0.6	0.0	78.6	0.31
	반반	0.0	11.1	0.0	0.0	88.9	0.22	0.0	0.0	11.1	0.0	88.9	0.33

4) 2016년 퇴사한 디자이너 수

- 2016년 퇴사한 디자이너 수는 평균 0.63명으로 나타남.
범주별로는 '1명'(18.5%), '2명'(8.0%), '3~5명'(4.2%), '6명 이상'(1.4%) 순임.
전문디자인업체의 67.5%는 퇴직한 디자이너 수가 '없다'고 응답함.

2015년 퇴사한 디자이너 수

(단위: %)



※ 모름/무응답 : 0.4%

- 업종별 퇴사 디자이너 수는 시각디자인(0.71명)과 제품디자인(0.69명)에서 높음.
이어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0.55명), 인테리어디자인(0.47명)의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 2016년 퇴사한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1명	2명	3~5명	6명 이상	없다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18.5	8.0	4.2	1.4	67.5	0.63
업종별	제품디자인	18.6	10.5	4.4	1.1	65.2	0.69
	시각디자인	23.0	7.0	5.0	1.6	62.6	0.71
	인테리어디자인	14.4	9.0	2.5	0.5	73.5	0.47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13.5	5.1	4.5	2.2	74.1	0.55

- 권역별로 분석해보면, 2016년 퇴사한 디자이너 수는 강원/제주에서 평균 1.48명으로 가장 높고, 서울(0.69명), 대구/경북(0.62명)에서도 높게 나타남. 한편, 대전/충청은 0.26명으로 퇴사 디자이너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퇴사 디자이너 수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출구성별로는 비슷한 수준이나,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 퇴직한 디자이너 수가 0.65명으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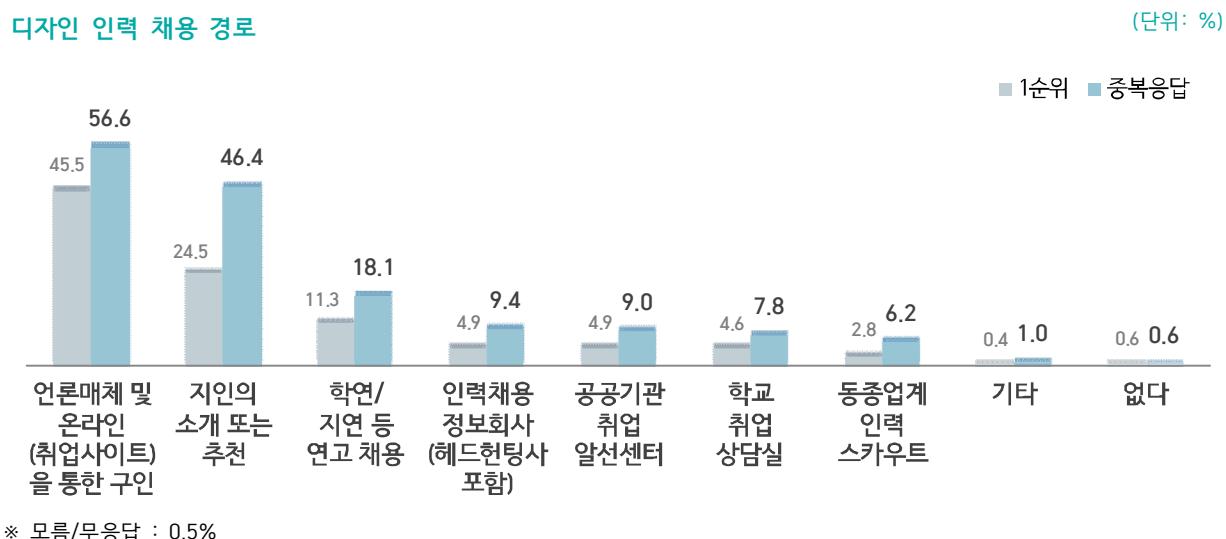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6년 퇴사한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1명	2명	3~5명	6명 이상	없다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18.5	8.0	4.2	1.4	67.5	0.63
권 역 별	서울	17.6	9.5	4.8	1.6	65.9	0.69
	부산/울산/경남	17.3	9.0	3.9	1.4	68.4	0.57
	대구/경북	25.3	7.6	2.7	0.8	63.6	0.62
	인천	0.0	8.2	11.6	0.0	80.2	0.51
	경기	15.3	5.4	1.6	0.0	77.7	0.33
	광주/전라	29.3	8.4	2.3	0.0	60.1	0.57
	대전/충청	19.0	2.0	0.7	0.0	78.2	0.26
	강원/제주	12.4	0.0	16.7	9.2	61.7	1.48
규 모 별	1인	5.7	0.0	1.7	1.1	91.6	0.17
	2~4인	20.7	6.4	1.3	0.9	70.0	0.46
	5~9인	23.5	12.6	6.6	0.0	57.3	0.72
	10~14인	23.5	23.1	17.2	2.0	34.2	1.53
	15인 이상	13.2	13.0	15.5	10.6	46.3	2.23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19.3	8.4	4.0	1.5	66.7	0.65
	기타매출 50%↑	15.3	7.2	5.9	0.9	70.7	0.56
	반반	0.0	0.0	11.1	0.0	88.9	0.55

5)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

-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중복응답 기준)로는 '언론매체 및 온라인(취업사이트)'(56.6%)이 가장 높고, 다음은 '지인의 소개 또는 추천'(46.4%), '학연/지연 등 연고 채용'(18.1%), '인력채용 정보회사(헤드헌팅사 포함)'(9.4%) 등의 순임.



- 업종별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를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언론매체 및 온라인(취업사이트)', '지인의 소개 또는 추천'이 높게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언론매체 및 온라인(취업사이트)을 통한 구인	지인의 소개 또는 추천	학연/지연 등 연고 채용	인력채용 정보회사(헤드헌팅사 포함)	공공기관 취업 알선센터	학교 취업 상담실	동종업계 인력 스카우트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56.6	46.4	18.1	9.4	9.0	7.8	6.2	1.0
업종별	제품디자인	56.2	50.9	21.0	9.4	10.0	6.2	6.8	0.2
	시각디자인	59.4	39.6	18.0	11.9	10.3	9.0	5.0	1.1
	인테리어디자인	54.2	50.2	19.1	5.7	5.9	7.5	4.9	1.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53.8	50.4	12.6	8.6	8.8	8.1	10.0	2.2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61.9%), 대전/충청(58.1%), 부산/울산/경남(54.5%), 경기(50.5%), 광주/전라(50.2%)에서 '언론매체 및 온라인(취업사이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강원/제주(81.4%), 인천(53.4%), 대구/경북(53.3%)에서는 '지인의 소개 또는 추천'이 주된 채용 경로인 것으로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 규모를 제외한 모든 업체에서 '언론매체 및 온라인(취업사이트)'이 주된 채용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응답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1인 규모 업체의 경우 '지인의 소개 또는 추천'의 비율이 57.2%로 높게 나타남.
- ❖ 매출 구성별로는, 모든 업체가 '언론매체 및 온라인(취업사이트)'을 주된 경로로 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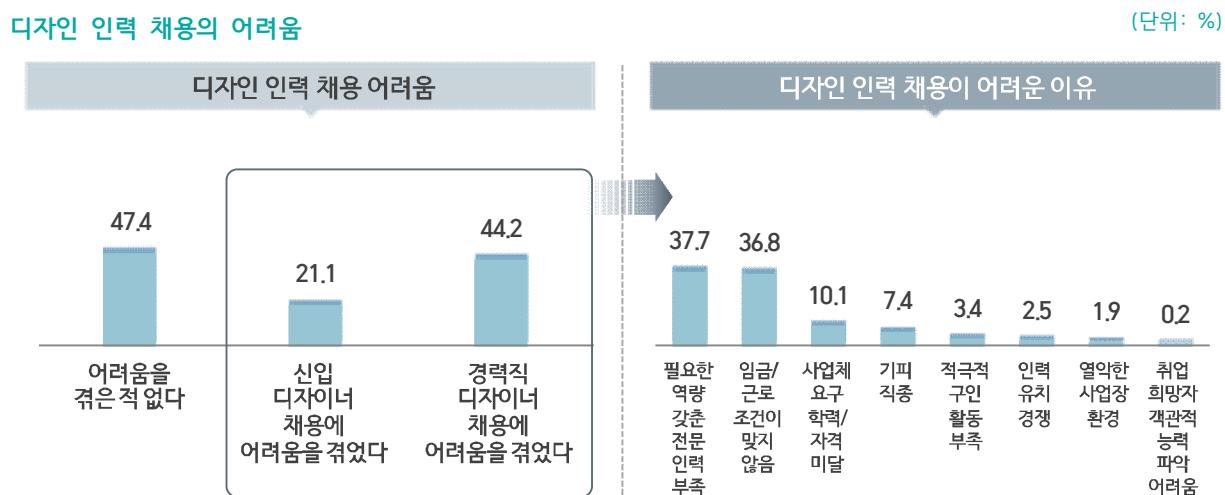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언론매체 및 온라인(취업사이트)을 통한 구인	지인의 소개 또는 추천	학연/지연 등 연고 채용	인력채용 정보회사(헤드헌팅사 포함)	공공기관 취업 알선센터	학교 취업 상담실	동종업계 인력 스키우트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56.6	46.4	18.1	9.4	9.0	7.8	6.2	1.0
권역별	서울	61.9	46.2	14.0	10.5	6.8	5.6	6.8	0.9
	부산/울산/경남	54.5	41.2	22.7	5.7	10.2	12.0	0.7	3.1
	대구/경북	45.9	53.3	24.5	1.6	3.1	17.7	9.0	0.8
	인천	46.6	53.4	26.8	0.0	11.6	0.0	0.0	0.0
	경기	50.5	48.7	18.5	14.1	11.4	5.1	7.5	1.8
	광주/전라	50.2	30.0	22.0	6.5	21.5	9.9	6.5	0.0
	대전/충청	58.1	47.5	32.2	14.5	4.4	15.1	5.0	0.0
	강원/제주	22.0	81.4	24.3	0.0	27.4	7.5	5.8	0.0
규모별	1인	25.0	57.2	19.9	7.0	3.3	11.2	10.4	1.7
	2~4인	55.0	52.8	19.5	8.9	8.8	6.7	3.7	0.4
	5~9인	69.4	35.1	15.5	13.2	11.7	7.6	7.0	2.1
	10~14인	82.5	24.8	11.6	4.9	11.0	12.1	12.0	2.0
	15인 이상	89.4	24.4	17.7	10.7	14.7	4.1	7.0	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57.0	46.6	17.0	8.7	9.4	8.2	5.8	1.2
	기타매출 50%↑	55.0	44.5	27.4	11.9	8.1	4.8	7.0	0.0
	반반	50.0	77.6	0.0	22.4	0.0	0.0	27.6	0.0

6)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

-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은 '겪은 적 없다'의 비율이 47.4%의 비율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 중 '경력직 디자이너'의 경우 44.2%, '신입 디자이너'의 경우 21.1%의 비율을 보임.
디자인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필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부족'(37.7%),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맞지 않음'(36.8%) 등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 없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시각디자인의 경우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49.2%로 높게 나타남. '필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부족'의 경우 제품디자인(43.7%), '임금/근로 조건이 맞지 않음'은 인테리어디자인(40.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

(단위: %)

구분	디자인 인력 채용 어려움			디자인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								
	어려움을 겪은 적 없다	신입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겹쳤다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겹쳤다	필요역량 갖춘전문 인력부족	임금/근로 조건이 맞지않음	사업체 요구 학력/자격미달	기피 직종	적극적 구인활동 부족	인력유치 경쟁	열악한 사업장 환경	취업 희망자 능력파악 어려움	
전문디자인업체	47.4	21.1	44.2	37.7	36.8	10.1	7.4	3.4	2.5	1.9	0.2	
업종별	제품디자인	47.8	22.3	40.9	43.7	30.6	13.2	3.1	3.6	2.1	2.5	0.8
	시각디자인	40.8	23.9	49.2	36.6	38.5	12.3	5.6	3.1	1.3	2.5	0.0
	인테리어디자인	54.9	19.6	40.3	37.4	40.3	5.3	9.5	0.9	6.7	0.0	0.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52.4	14.6	42.6	31.2	37.7	4.4	17.3	7.1	1.2	1.2	0.0

- ❖ 권역별로 어려움을 분석하면, 부산/울산/경상(57.8%), 강원/제주(50.3%), 서울(50.0%), 경기(45.5%) 권역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 없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91.8%), 대구/경북(59.4%), 광주/전라(52.8%), 대전/충청(48.7%)은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 시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높게 나타남. 어려움의 이유에 대해서는 '필요한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부족'에 대해 강원/제주(87.4%)와 인천(87.3%)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임금/근로조건이 맞지 않음'에 대해 경기(4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이상 업체에서 규모가 커질수록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10~14인 규모의 업체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부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58.8%로 높게 나타남.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48.7%)에서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에 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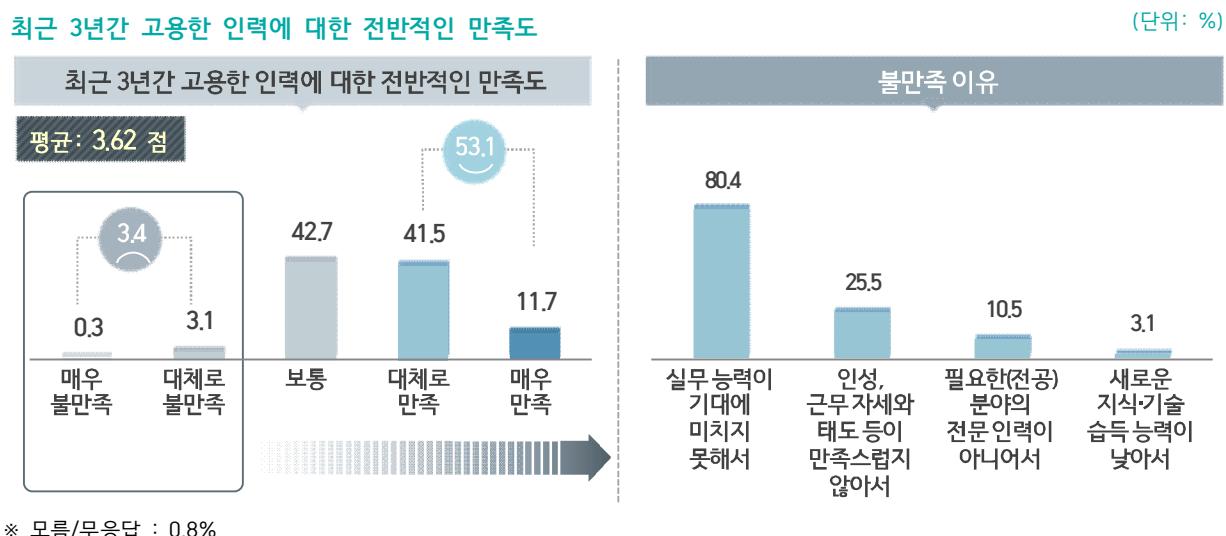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

(단위: %)

구분	디자인 인력 채용 어려움			디자인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							
	여려움을 겪은 적 없다	신입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겹었다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겹었다	필요역량 갖춘전문 인력부족	임금/근로 조건이 맞지않음	사업체 요구 학력/자격미달	기피 직종	적극적 구인활동 부족	인력유치 경쟁	열악한 사업장 환경	취업 힘드는 능력파악 어려움
전문디자인업체	47.4	21.1	44.2	37.7	36.8	10.1	7.4	3.4	2.5	1.9	0.2
권역별	서울	50.0	21.6	41.9	32.8	38.1	10.6	9.3	2.9	4.2	2.0
	부산/울산/경남	57.8	13.6	34.1	29.9	38.5	12.5	7.4	9.2	0.0	0.0
	대구/경북	36.6	13.0	59.4	53.0	34.7	5.2	3.4	1.2	0.0	2.5
	인천	8.2	26.8	91.8	87.3	0.0	0.0	12.7	0.0	0.0	0.0
	경기	45.5	25.3	42.6	24.8	49.1	7.9	8.6	1.8	2.0	5.8
	광주/전라	35.0	26.8	52.8	48.8	26.7	15.4	5.6	3.5	0.0	0.0
	대전/충청	42.5	15.5	48.7	40.2	44.2	8.0	0.0	7.6	0.0	0.0
	강원/제주	50.3	31.3	46.6	87.4	6.3	6.3	0.0	0.0	0.0	0.0
규모별	1인	56.6	12.8	39.4	41.0	41.0	0.0	11.7	6.3	0.0	0.0
	2~4인	51.6	21.7	38.8	37.6	40.4	10.8	5.6	3.3	1.2	1.2
	5~9인	37.9	22.1	54.1	33.8	31.4	14.6	8.9	1.3	4.8	4.4
	10~14인	32.1	25.6	54.2	58.8	18.2	10.7	8.0	3.0	1.2	0.0
	15인 이상	36.3	32.1	56.2	23.8	45.5	7.4	4.2	6.9	8.5	2.5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47.0	22.1	44.0	39.9	35.6	10.6	6.2	3.2	2.2	2.0
	기타매출 50%↑	46.9	15.7	48.7	21.3	44.1	6.2	16.8	5.3	4.9	1.4
	반반	72.3	0.0	27.7	40.0	60.0	0.0	0.0	0.0	0.0	0.0

7)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62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만족'(대체로 만족: 41.5% + 매우 만족: 11.7%) 응답이 53.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불만족'(매우 불만족: 0.3% + 대체로 불만족: 3.1%) 응답 비율은 42.7%로 나타남. 불만족의 이유로는 '실무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80.4%), '인성, 근무 자세와 태도 등이 만족스럽지 않아서'(25.5%) 등이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고용 인력 전반적 만족도는 모든 업종에서 비슷하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이 3.6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시각디자인(3.63점), 제품디자인(3.61점), 시각디자인(3.56점)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만족	평균(점)
전문디자인업체		0.3	3.1	3.4	42.7	41.5	11.7	53.1	3.62
업종별	제품디자인	0.9	3.2	4.1	42.4	40.7	12.8	53.5	3.61
	시각디자인	0.0	3.4	3.4	42.0	41.7	11.8	53.5	3.63
	인테리어디자인	0.0	3.0	3.0	46.1	42.4	8.5	50.9	3.56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0.5	2.7	3.2	39.8	40.9	13.8	54.7	3.66

- 권역별 만족도는 서울(3.70점), 강원/제주(3.67점), 대구/경북(3.57점) 등의 순위를 보였으며, 인천(3.27점)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15인 이상(3.91점), 10~14인(3.87점), 5~9인(3.74점), 2~4인(3.61점), 1인(3.29점)의 순을 보임.
- 매출 구성에 따른 만족도는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가 3.7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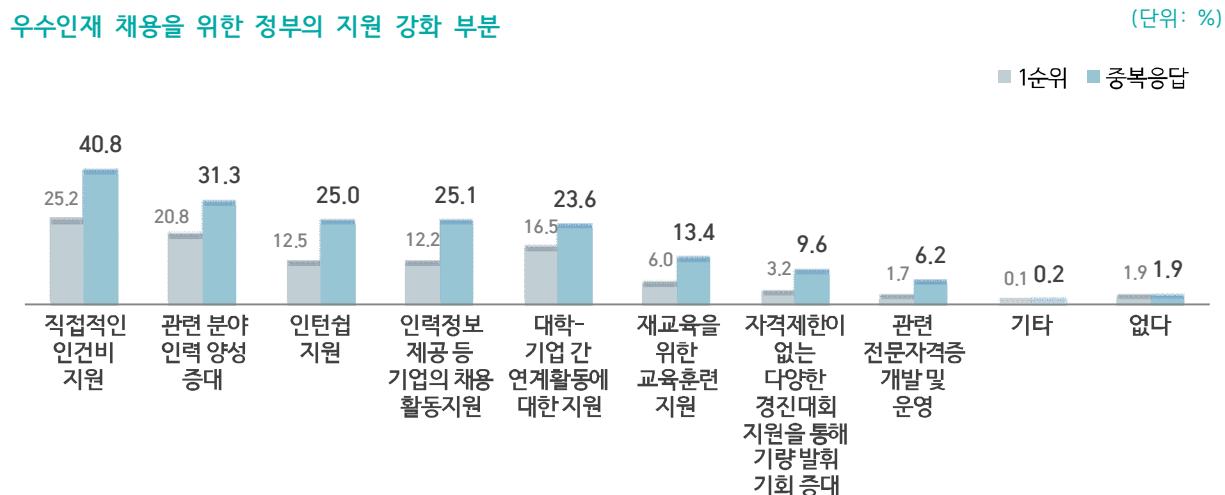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점)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전문디자인업체		0.3	3.1	3.4	42.7	41.5	11.7	53.1	3.62
권역별	서울	0.1	2.2	2.4	40.9	39.2	16.1	55.3	3.70
	부산/울산/경남	2.5	2.2	4.7	50.5	35.5	9.3	44.8	3.47
	대구/경북	0.0	3.3	3.3	41.4	50.5	4.7	55.3	3.57
	인천	0.0	0.0	0.0	73.2	26.8	0.0	26.8	3.27
	경기	0.0	4.1	4.1	47.7	44.0	4.2	48.2	3.48
	광주/전라	0.0	7.8	7.8	37.1	46.7	8.5	55.1	3.56
	대전/충청	0.0	6.8	6.8	45.0	46.1	2.0	48.2	3.43
	강원/제주	0.0	0.0	0.0	38.9	55.3	5.8	61.1	3.67
규모별	1인	0.0	4.0	4.0	63.4	27.5	2.4	29.9	3.29
	2~4인	0.6	3.3	3.9	44.5	37.7	13.6	51.3	3.61
	5~9인	0.0	3.0	3.0	31.4	53.6	11.4	65.0	3.74
	10~14인	0.0	3.2	3.2	20.8	62.0	14.1	76.0	3.87
	15인 이상	0.0	0.0	0.0	30.6	48.0	21.4	69.4	3.91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0.4	3.6	4.0	43.2	41.0	11.5	52.5	3.60
	기타매출 50%↑	0.0	0.6	0.6	39.3	44.9	11.6	56.4	3.70
	반반	0.0	0.0	0.0	44.7	44.2	11.1	55.3	3.66

8)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 부분

-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 부분(중복응답 기준)은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이 40.8%로 가장 높고, 다음은 ‘관련 분야 인력 양성 증대’(31.3%),
 ‘인턴쉽 지원’(25.0%), ‘인력정보 제공 등 기업의 채용활동지원’(25.1%),
 ‘대학-기업 간 연계활동에 대한 지원’(23.6%) 등의 순임.



- 업종별로 살펴보면,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시각디자인(42.5%)과 인테리어디자인(53.4%)에서 높고, ‘관련 분야 인력 양성 증대’에 대해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44.3%),
 ‘인턴쉽 지원’은 제품디자인(37.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 부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관련 분야 인력 양성 증대	인턴쉽 지원	인력정보 제공 등 기업의 채용 활동지원	대학-기업 간 연계 활동에 대한 지원	재교육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다양한 경진대회 지원을 통해 기량발휘 기회 증대	관련 전문자격증 개발 및 운영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40.8	31.3	25.0	25.1	23.6	13.4	9.6	6.2	0.2
업종별	제품디자인	30.9	28.3	37.0	15.8	29.4	21.5	7.8	9.3	0.6
	시각디자인	42.5	31.6	22.3	28.1	20.4	11.9	7.1	4.1	0.0
	인테리어디자인	53.4	24.9	21.1	33.2	17.4	9.9	10.2	3.4	0.5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34.9	44.3	18.7	21.3	30.5	9.4	17.1	10.1	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권역에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가장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인천(65.0%)에서 더욱 높음. 한편, 광주/전라에서는 ‘인력정보 제공 등 기업의 채용활동지원’(35.3%) 강화가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14인 이하의 기업에서는 ‘관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이 가장 높고, 15인 이상 규모는 ‘관련 분야 인력 양성 증대’가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 부분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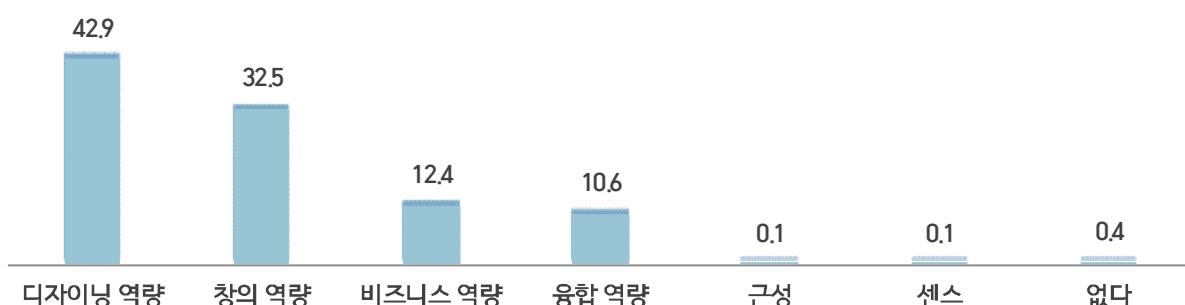
구분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관련 분야 인력 양성 증대	인턴쉽 지원	인력정보 제공 등 기업의 채용 활동지원	대학 기업 간 연계 활동에 대한 지원	재교육을 위한 교育훈련 지원	다양한 경진대회 지원 통해 기량 발휘 기회 증대	관련 전문 자격증 개발 및 운영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40.8	31.3	25.0	25.1	23.6	13.4	9.6	6.2	0.2
권 역 별	서울	41.8	35.4	24.1	25.5	22.7	11.2	10.1	6.0	0.2
	부산/울산/경남	29.6	31.7	28.8	28.8	23.3	21.1	10.1	2.7	0.0
	대구/경북	39.4	29.2	25.2	16.0	26.6	11.3	7.3	3.5	1.6
	인천	65.0	26.8	38.4	26.6	8.2	8.2	0.0	0.0	0.0
	경기	50.2	20.3	21.8	21.4	19.5	21.1	6.3	9.5	0.0
	광주/전라	34.7	30.0	17.0	38.3	19.7	12.1	14.9	11.0	0.6
	대전/충청	42.3	17.2	37.1	19.9	35.3	14.7	3.8	7.8	0.0
	강원/제주	35.8	29.6	31.7	15.2	36.6	12.4	13.0	0.0	0.0
규 모 별	1인	47.0	23.9	16.0	23.0	19.1	13.3	12.2	9.4	0.0
	2~4인	39.4	31.8	27.6	25.6	23.9	13.2	8.6	4.5	0.2
	5~9인	40.8	34.6	25.4	22.7	24.8	13.7	9.0	6.3	0.7
	10~14인	42.1	33.5	30.9	31.7	23.8	15.7	8.4	8.8	0.0
	15인 이상	34.2	35.0	22.0	30.3	29.2	12.1	13.0	8.1	0.0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40.7	32.6	26.2	23.9	22.9	13.9	9.1	6.7	0.3
	기타매출 50%↑	39.9	25.5	19.0	31.9	25.2	10.9	11.8	1.7	0.0
	반반	66.6	33.4	16.6	33.4	0.0	0.0	50.0	0.0	0.0

3 디자인 교육

1)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을 조사한 결과, '디자이닝 역량'이 42.9%로 가장 높고, '창의 역량'(32.5%), '비즈니스 역량'(12.4%), '융합 역량'(10.6%)등의 항목으로 나타남.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단위: %)



* 모름/무응답 : 0.9%

- 업종별 필요 역량은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디자이닝 역량'이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시각디자인(50.2%)에서 높게 나타남. '창의 역량'은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40.9%), '비즈니스 역량'은 인테리어디자인(20.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2) 업종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단위: %)

구분		디자이닝 역량	창의 역량	비즈니스 역량	융합 역량	근성	센스
전문디자인업체		42.9	32.5	12.4	10.6	0.1	0.1
업 종 별	제품디자인	41.5	41.4	10.2	5.5	0.4	0.0
	시각디자인	50.2	27.0	9.2	11.8	0.0	0.0
	인테리어디자인	39.4	26.1	20.9	12.1	0.0	0.5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32.5	40.9	11.6	13.9	0.0	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디자이닝 역량’을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전/충청(61.4%)에서 높게 나타남. ‘창의 역량’의 경우 인천(61.8%)과 강원/제주(38.8%)에서 타 권역 대비 높은 비율을 보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디자이닝 역량’에 가장 높은 필요도를 준 가운데, 특히 15인 이상 기업의 경우 55.9%로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단위: %)

구분		디자이닝 역량	창의 역량	비즈니스 역량	융합 역량	근성	센스
전문디자인업체		42.9	32.5	12.4	10.6	0.1	0.1
권 역 별	서울	40.8	34.5	12.5	10.2	0.0	0.0
	부산/울산/경남	50.0	26.1	9.5	11.9	0.0	0.0
	대구/경북	46.4	32.8	3.8	17.1	0.0	0.0
	인천	38.2	61.8	0.0	0.0	0.0	0.0
	경기	40.1	28.0	22.9	7.0	1.0	1.1
	광주/전라	42.4	34.9	9.2	13.5	0.0	0.0
	대전/충청	61.4	21.4	7.8	9.4	0.0	0.0
	강원/제주	25.9	38.8	23.6	11.6	0.0	0.0
규 모 별	1인	41.2	29.8	15.0	10.4	0.0	0.0
	2~4인	43.8	34.0	11.5	9.2	0.2	0.2
	5~9인	37.9	33.9	13.6	14.0	0.0	0.0
	10~14인	47.1	27.3	18.4	7.2	0.0	0.0
	15인 이상	55.9	27.6	1.7	14.8	0.0	0.0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42.9	34.4	12.1	10.0	0.1	0.0
	기타매출 50%↑	46.9	22.2	12.9	11.8	0.0	0.0
	반반	77.6	0.0	0.0	0.0	0.0	0.0

2)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 디자인 전공 외 필요한 인력의 전공 분야(중복응답 기준)는 '상경계열'이 29.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공학'(20.9%)이 뒤를 이음. '없다'의 응답은 31.4%의 비율로 나타남.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단위: %)



※ 모름/무응답 : 2.3%

- 업종별 필요 전공 분야는 인테리어디자인을 제외한 업종에서 '상경계열'을 가장 필요한 인력의 분야로 꼽은 가운데, 제품디자인(39.1%)에서 가장 높음. 인테리어디자인의 경우 '공학'이 32.9%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단위: %)

구분		상경계열	공학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타	없다
전문디자인업체		29.6	20.9	9.4	3.0	1.5	3.4	31.4
업종별	제품디자인	39.1	32.6	5.1	4.7	2.7	1.7	15.6
	시각디자인	28.3	9.8	11.7	2.6	0.8	4.5	39.7
	인테리어디자인	20.8	32.9	9.4	1.9	2.0	2.5	30.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30.1	12.8	10.1	2.7	0.6	4.5	38.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권역에서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가운데, 인천이 80.2%로 높게 나타남. '상경계열'의 경우 대전/충청(39.7%), 부산/울산/경남(39.0%), 경기(34.6%) 등의 순임.
- ❖ 규모별로 살펴보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상경계열'과 '공학'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 매출구성별로는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의 31.6%가 '공학'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단위: %)

구분		상경계열	공학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타	없다
전문디자인업체		29.6	20.9	9.4	3.0	1.5	3.4	31.4
권 역 별	서울	27.8	21.0	11.6	3.3	0.8	3.4	30.4
	부산/울산/경남	39.0	14.7	5.1	0.0	0.0	6.1	32.7
	대구/경북	26.8	14.6	11.7	0.0	9.7	8.3	30.5
	인천	8.2	0.0	11.6	0.0	0.0	0.0	80.2
	경기	34.6	28.1	2.9	2.2	2.3	1.0	28.9
	광주/전라	28.3	17.8	2.8	7.6	2.8	1.7	38.9
	대전/충청	39.7	32.3	3.4	4.2	0.0	0.0	22.5
	강원/제주	11.2	16.4	25.6	0.0	0.0	5.8	41.0
규 모 별	1인	25.8	17.0	10.4	0.0	0.0	6.1	37.4
	2~4인	27.3	19.8	9.4	3.4	1.9	2.7	34.2
	5~9인	32.4	22.2	9.8	4.1	2.0	2.8	27.7
	10~14인	39.8	24.3	7.2	6.8	0.0	1.2	21.4
	15인 이상	39.3	33.9	6.4	0.0	1.6	5.9	13.3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30.8	19.2	9.2	3.1	1.5	3.3	32.6
	기타매출 50%↑	22.5	31.6	10.9	1.7	1.7	3.3	25.4
	반반	16.6	22.4	0.0	0.0	0.0	27.6	33.4

3)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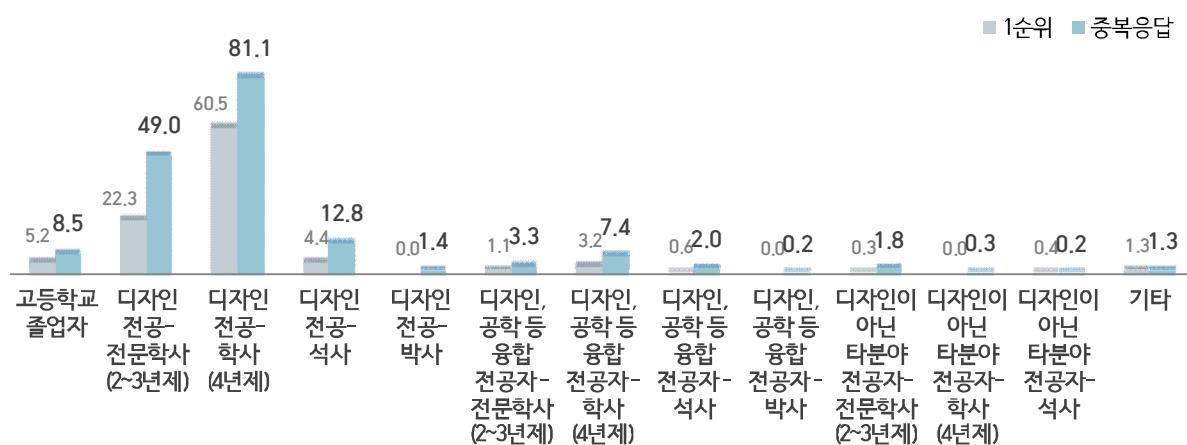
»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중복응답 기준)은

'디자인전공-학사(4년제)'의 비율이 81.1%로 가장 높고,

이어 '디자인전공-전문학사(2~3년제)'(49.0%), '고등학교 졸업자'(8.5%) 등의 순임.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전공-학사(4년제)'를 꼽은 응답이 가장 높고,

제품디자인에서 비율이 84.9%로 더욱 높음.

'디자인, 공학 등 융합 전공자'는 제품디자인에서 타 업종 대비 높은 비율을 보임.

▶ 업종별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고등 학교 졸업자	디자인 전공				디자인 공학 등 융합 전공자				디자인이 아닌 타분야 전공자		
			전문학사 (2~3년제)	학사 (4년제)	석사	박사	전문학사 (2~3년제)	학사 (4년제)	석사	박사	전문학사 (2~3년제)	학사 (4년제)	석사
전문디자인업체		8.5	49.0	81.1	12.8	1.4	3.3	7.4	2.0	0.2	1.8	0.3	0.2
업 종 별	제품디자인	6.5	48.1	84.9	12.7	0.9	5.8	14.6	2.3	0.0	1.0	0.0	0.0
	시각디자인	11.0	47.2	80.4	9.6	0.4	3.5	5.9	2.4	0.0	3.0	0.8	0.0
	인테리어디자인	7.4	58.3	78.1	17.4	3.4	2.4	5.5	0.0	1.0	1.0	0.0	0.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7.1	41.6	80.8	14.4	1.7	0.0	2.2	3.1	0.0	1.6	0.0	1.1

- ❖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디자인 전공-학사(4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전/충청(87.3%), 서울(82.8%), 경기(80.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강원/제주의 경우 ‘디자인 전공-전문학사(2~3년제)’를 73.5%가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디자인 전공-학사(4년제)’를 가장 선호하는 교육 수준으로 응답한 가운데 10~14인 규모의 기업에서 92.1%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임. 한편, 1인 규모 기업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선호도가 18.7%로 다른 규모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함.
- ❖ 매출 구성별 결과는 모든 업체가 ‘디자인전공-학사(4년제)’, ‘디자인전공-전문학사(2~3년제)’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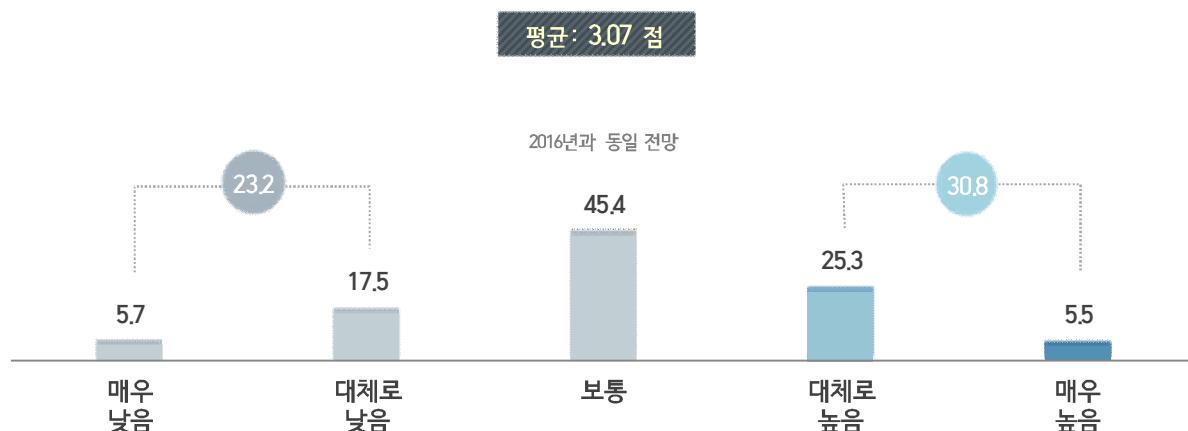
구분	고등 학교 졸업자	디자인 전공				디자인 공학 등 융합 전공자				디자인이 아닌 타분야 전공자		
		전문학사 (2~3년제)	학사 (4년제)	석사	박사	전문학사 (2~3년제)	학사 (4년제)	석사	박사	전문학사 (2~3년제)	학사 (4년제)	석사
전문디자인업체	8.5	49.0	81.1	12.8	1.4	3.3	7.4	2.0	0.2	1.8	0.3	0.2
권역별	서울	6.5	49.8	82.8	13.2	1.1	1.4	5.2	1.8	0.0	1.4	0.0
	부산/울산/경남	8.9	42.4	76.9	7.6	2.0	4.2	7.8	1.1	0.0	7.5	0.0
	대구/경북	12.9	55.4	76.5	15.1	0.0	8.3	12.3	1.1	0.0	0.0	0.0
	인천	26.6	19.8	73.4	0.0	0.0	26.8	0.0	0.0	0.0	0.0	0.0
	경기	19.0	54.8	80.6	7.5	2.3	3.7	7.8	2.3	0.0	0.0	0.0
	광주/전라	9.3	40.5	79.9	22.8	0.0	5.3	6.4	0.0	2.8	4.2	0.0
	대전/충청	0.0	38.3	87.3	16.2	5.4	3.4	24.8	1.5	0.0	0.0	4.4
	강원/제주	12.4	73.5	64.6	5.8	0.0	11.4	2.2	15.1	0.0	0.0	0.0
규모별	1인	18.7	41.1	73.7	10.4	1.1	4.3	6.0	1.1	1.3	1.1	1.7
	2~4인	7.9	53.1	81.2	10.4	0.4	4.0	5.3	1.4	0.0	1.3	0.0
	5~9인	5.5	45.5	81.1	17.5	4.0	1.0	12.3	2.8	0.0	3.6	0.0
	10~14인	2.3	55.9	92.1	22.1	0.0	2.0	5.6	2.5	0.0	0.0	0.0
	15인 이상	0.9	43.4	90.6	13.6	1.6	4.4	11.8	6.2	0.0	3.9	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8.4	47.5	82.6	12.3	1.0	3.7	6.9	2.1	0.0	1.5	0.0
	기타매출 50%↑	9.7	54.5	71.5	19.2	2.4	1.2	7.5	1.0	1.7	4.0	0.0
	반반	11.1	77.6	88.9	0.0	0.0	0.0	22.4	0.0	0.0	0.0	0.0

4)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 대학 디자인 교육 실제 디자인 업무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07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보통'의 비율은 45.4%로 가장 높고,
'높음'(대체로 : 25.3% + 매우 : 5.5%)은 30.8%,
'낮음'(대체로 : 17.5% + 매우 : 5.7%)은 23.2%로 나타남.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단위: %)



- 업종별 디자인 업무 기여도는 인테리어디자인에서 3.1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시각디자인(3.09점), 제품디자인(3.06점),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2.94점)의 순임.

▷ 업종별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단위: %)

구분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음	낮음	보통	평균(점)	
						대체로 높음	매우 높음
전문디자인업체		5.7	17.5	23.2	45.4	25.3	5.5
업종별	제품디자인	8.1	14.7	22.8	48.2	21.6	7.4
	시각디자인	4.0	19.3	23.3	43.4	27.8	4.5
	인테리어디자인	3.0	15.7	18.8	49.6	26.2	5.4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9.8	19.8	29.6	40.3	23.9	5.0

- ❖ 권역별 디자인 업무 기여도는 대전/충청(3.32점), 강원/제주(3.16점)에서 가장 높고, 인천(2.87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임.
- ❖ 규모별로 살펴보면, 10~14인(3.26점), 5~9인 및 15인 이상(3.18점), 1인(3.05점), 2~4인(3.00점)의 순의 디자인 업무 기여도를 보임.
- ❖ 매출 구성별 결과로는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가 3.2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3.10점), 디자인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3.06점)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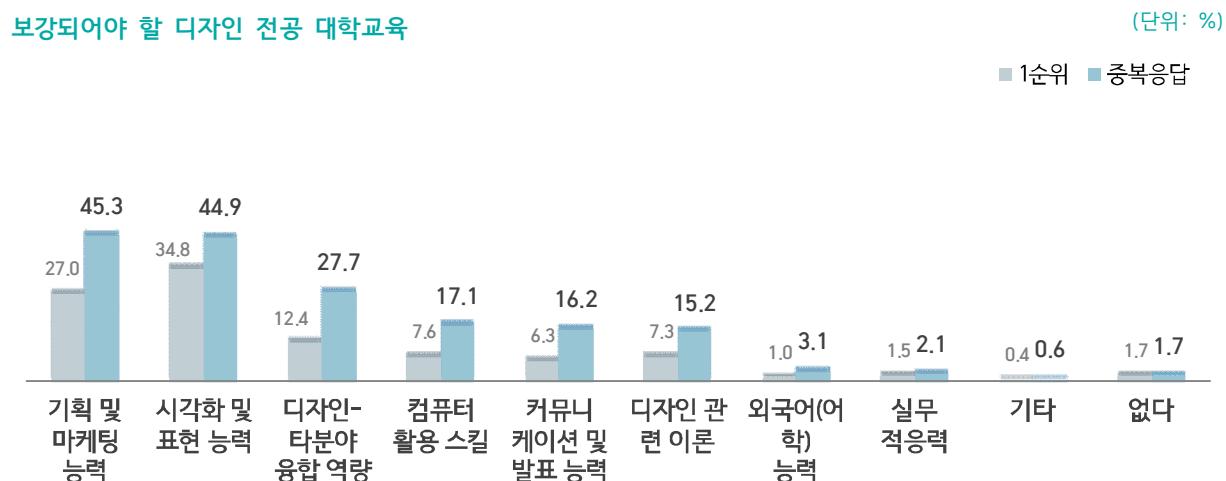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단위: %)

구분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음	낮음	보통			높음	평균(점)
						대체로 높음	매우 높음		
전문디자인업체		5.7	17.5	23.2	45.4	25.3	5.5	30.8	3.07
권역별	서울	5.2	17.7	22.9	45.2	24.8	6.1	30.9	3.09
	부산/울산/경남	8.0	17.1	25.2	44.5	30.4	0.0	30.4	2.97
	대구/경북	0.0	20.3	20.3	54.0	23.6	2.2	25.8	3.08
	인천	19.8	26.8	46.6	26.6	0.0	26.8	26.8	2.87
	경기	9.7	12.5	22.3	49.1	24.1	4.5	28.6	3.01
	광주/전라	9.2	19.8	29.0	43.4	23.0	4.5	27.6	2.94
	대전/충청	3.4	17.4	20.8	32.9	36.5	9.8	46.3	3.32
	강원/제주	0.0	15.1	15.1	61.1	16.4	7.5	23.9	3.16
규모별	1인	6.4	17.8	24.1	43.6	25.2	5.4	30.6	3.05
	2~4인	7.1	21.1	28.2	42.4	23.6	5.8	29.4	3.00
	5~9인	2.1	13.9	16.0	51.3	26.5	4.8	31.2	3.18
	10~14인	2.4	10.8	13.2	51.7	28.8	6.3	35.1	3.26
	15인 이상	9.3	5.2	14.5	48.0	32.6	4.9	37.4	3.18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6.1	17.8	23.9	45.7	24.6	5.7	30.3	3.06
	기타매출 50%↑	4.7	16.8	21.4	44.4	25.3	5.2	30.5	3.10
	반반	0.0	0.0	0.0	72.4	27.6	0.0	27.6	3.28

5)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중복응답 기준)은 '기획 및 마케팅 능력'(45.3%)이 가장 높고, 다음은 '시각화 및 표현 능력'(44.9%),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 (27.7%), '컴퓨터 활용 스킬'(2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획 및 마케팅 능력'은 제품디자인(47.7%)과 인테리어디자인(45.9%)에서 높고, '시각화 및 표현 능력'은 시각디자인(55.4%)과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41.8%)에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기획 및 마케팅 능력	시각화 및 표현 능력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	컴퓨터 활용 스킬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	디자인 관련 이론	외국어 (영어) 능력	실무 적응력
전문디자인업체		45.3	44.9	27.7	17.1	16.2	15.2	3.1	2.1
업종별	제품디자인	47.7	40.7	35.9	20.6	18.5	14.5	4.3	2.4
	시각디자인	50.1	55.4	20.7	13.6	16.2	10.6	1.1	1.5
	인테리어디자인	45.9	34.0	29.3	18.7	14.2	16.5	3.0	2.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29.8	41.8	29.8	17.6	15.4	25.0	5.9	3.4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권역에서 '기획 및 마케팅 능력'과 '시각화 및 표현 능력'이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기획 및 마케팅 능력'은 2~4인(48.9%), 5~9인(50.0%), 15인 이상 업체(45.1%)에서 높고, '시각화 및 표현 능력'은 1인(41.1%)와 10~14인(49.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매출 구성별로는,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에서 '시각화 및 표현 능력'(55.3%)에 높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단위: %, 총복용답)

구분		기획 및 마케팅 능력	시각화 및 표현 능력	디자인 +분야 융합 역량	컴퓨터 활용 스킬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	디자인 관련 이론	외국어 (영어) 능력	실무 적응력
전문디자인업체		45.3	44.9	27.7	17.1	16.2	15.2	3.1	2.1
권 역 별	서울	41.8	47.1	27.5	16.0	16.3	16.3	3.7	1.2
	부산/울산/경남	51.5	47.2	27.5	22.2	12.3	8.0	0.7	4.9
	대구/경북	34.3	35.1	16.6	16.7	16.6	38.0	3.6	0.0
	인천	46.6	100.0	0.0	0.0	0.0	26.8	0.0	0.0
	경기	49.1	37.3	24.5	16.3	21.7	12.4	2.7	7.5
	광주/전라	58.1	42.9	29.5	24.9	12.8	9.2	0.0	3.6
	대전/충청	52.5	34.4	52.1	17.1	13.0	7.6	3.4	0.0
	강원/제주	54.0	55.4	16.1	9.0	27.6	7.2	5.8	0.0
규 모 별	1인	28.5	41.1	33.4	15.3	14.0	14.9	2.1	6.4
	2~4인	48.9	47.0	26.1	16.2	18.1	15.0	2.3	1.5
	5~9인	50.0	43.1	30.2	14.1	12.5	13.8	5.3	1.3
	10~14인	45.8	49.6	17.5	33.0	26.6	10.8	2.5	0.0
	15인 이상	45.1	40.6	25.7	26.3	10.5	26.9	4.5	0.8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47.3	46.1	26.9	16.6	16.7	14.7	3.1	1.5
	기타매출 50%↑	37.2	38.3	28.4	20.0	13.1	18.5	3.5	3.6
	반반	27.7	55.3	22.4	22.4	0.0	5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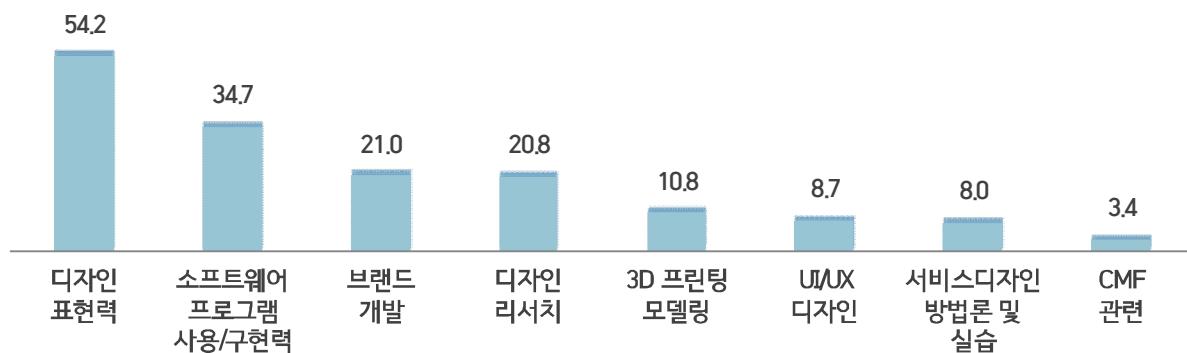
6)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

(1) 디자인 스킬/툴 교육

- 디자인 스킬/툴 교육 중 필요한 재교육으로 ‘디자인 표현력’(54.2%),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34.7%)이 높게 나타남.

디자인 스킬/툴 교육

(단위: %, 중복응답)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표현력’은 시각디자인(62.6%)에서 높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은 제품디자인(47.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_디자인 스킬/툴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자인 표현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	브랜드 개발	디자인 리서치	3D 프린팅 모델링	UI/UX 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및 실습	CMF 관련
전문디자인업체		54.2	34.7	21.0	20.8	10.8	8.7	8.0	3.4
업종별	제품디자인	56.2	47.2	31.8	27.6	22.5	14.3	15.5	7.0
	시각디자인	62.9	33.1	22.6	22.2	7.7	8.1	7.6	3.1
	인테리어디자인	49.5	28.0	13.8	16.6	7.4	7.0	5.0	2.5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37.2	28.5	10.8	12.6	4.8	3.6	1.7	0.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표현력'은 인천(88.4%), 강원/제주(77.8%),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은 경기(47.4%), 대전/충청(40.3%)에서 다른 권역 대비 높음.
- ❖ '디자인 표현력'은 종사자 10인 이상(10~14인 : 62.4%, 15인 이상 : 61.5%)에서 높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은 15인 이상(47.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_디자인 스킬/툴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자인 표현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	브랜드 개발	디자인 리서치	3D 프린팅 모델링	UI/UX 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및 실습	CMF 관련
전문디자인업체		54.2	34.7	21.0	20.8	10.8	8.7	8.0	3.4
권역별	서울	50.3	34.8	15.7	19.4	8.9	8.1	6.4	2.9
	부산/울산/경남	55.7	34.8	18.5	21.2	12.2	10.6	11.5	3.9
	대구/경북	65.8	30.3	25.7	14.9	3.5	7.8	1.9	5.8
	인천	88.4	35.0	8.2	8.2	61.8	35.0	35.0	8.2
	경기	54.7	47.4	20.2	16.3	10.8	11.7	5.5	2.7
	광주/전라	57.1	28.1	40.4	29.2	16.1	8.8	17.9	1.7
	대전/충청	56.2	40.3	43.6	26.8	15.2	5.6	10.5	9.0
	강원/제주	77.8	5.3	25.9	40.0	18.2	4.3	9.2	0.0
규모별	1인	44.6	25.5	14.9	11.4	8.2	4.3	4.3	0.0
	2~4인	58.7	39.7	24.4	23.1	11.1	8.9	6.7	2.8
	5~9인	47.7	28.5	20.3	21.4	11.3	10.8	11.7	5.6
	10~14인	62.4	30.4	21.5	31.6	11.2	11.8	11.6	12.3
	15인 이상	61.5	47.1	12.1	14.8	13.2	7.9	12.4	2.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54.7	35.3	21.3	21.4	11.5	8.5	8.1	3.6
	기타매출 50%↑	52.7	29.6	19.9	13.7	6.6	8.6	7.6	3.1
	반반	44.2	27.7	0.0	39.0	0.0	22.4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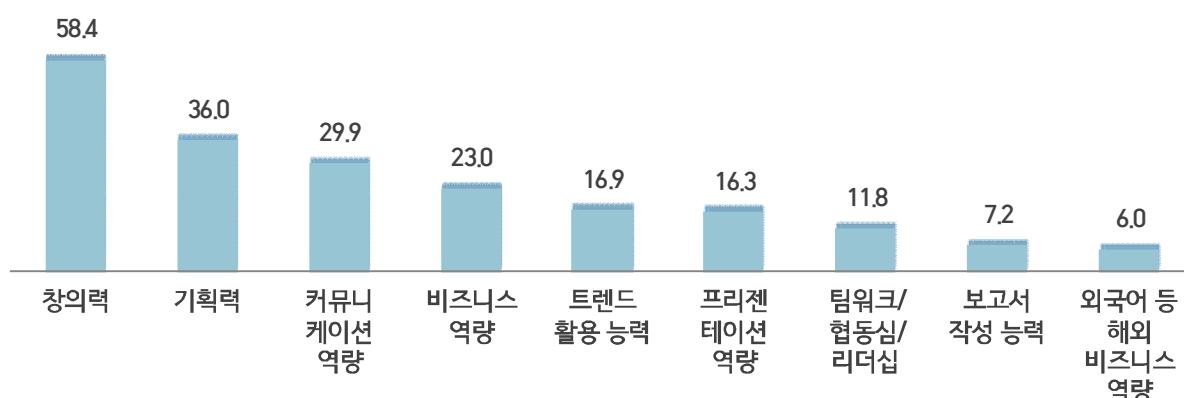
(2) 역량 향상 교육

❖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향상 교육으로 ‘창의력’(58.4%)이 가장 높음.

다음은 ‘기획력’(36.0%), ‘커뮤니케이션 역량’(29.9%), ‘비즈니스 역량’(2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역량 향상 교육

(단위: %, 중복응답)



❖ 업종별로 살펴보면, ‘창의력’은 제품디자인(66.7%),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64.1%)에서 높고, ‘기획력’은 제품디자인(45.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_역량 향상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창의력	기획력	커뮤니케이션 역량	비즈니스 역량	트렌드 활용 능력	프리젠테이션 역량	팀워크/협동심/리더십	보고서 작성 능력	외국어 등 해외 비즈니스 역량
전문디자인업체		58.4	36.0	29.9	23.0	16.9	16.3	11.8	7.2	6.0
업종별	제품디자인	66.7	45.9	34.1	17.8	17.6	20.2	11.3	10.5	8.6
	시각디자인	59.7	34.5	32.5	21.3	11.5	15.6	13.4	6.3	3.1
	인테리어디자인	42.9	28.4	25.6	26.9	27.4	18.2	13.0	7.8	6.8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64.1	34.6	22.9	29.5	13.9	9.3	7.3	3.1	7.6

- 권역별로 살펴보면, '창의력'은 강원/제주(79.3%), 인천(73.4%) 등의 순으로 높고, '기획력'은 광주/전라(50.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2~4인 규모의 전문디자인업체에서 '창의력'(65.4%)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획력'은 규모가 클수록 높은 특징을 보임.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_역량 향상 교육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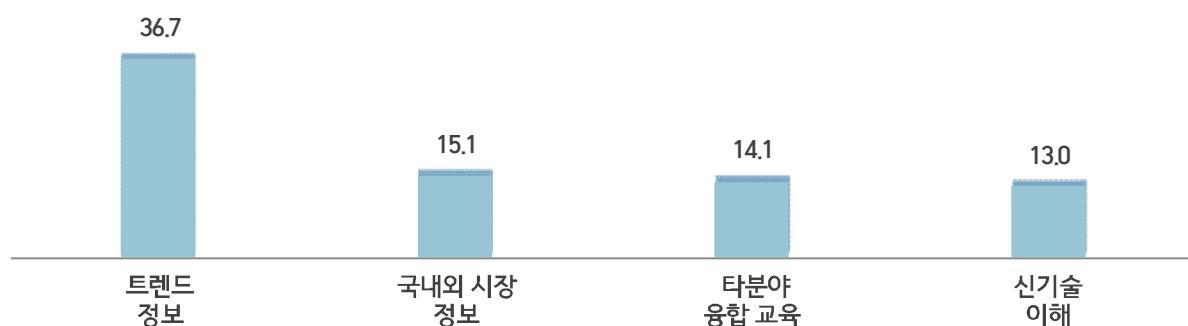
구분		창의력	기획력	커뮤니케이션 역량	비즈니스 역량	트렌드 활용 능력	프로젝트에 대한 역량	팀워크/ 협동심/ 리더십	보고서 작성 능력	외국어 등 해외비즈니스 역량
전문디자인업체		58.4	36.0	29.9	23.0	16.9	16.3	11.8	7.2	6.0
권 역 별	서울	56.1	34.7	28.1	27.2	15.1	15.7	11.9	5.8	7.5
	부산/울산/경남	60.1	25.6	26.7	15.3	27.0	13.4	17.0	8.9	2.5
	대구/경북	63.0	32.8	31.7	9.6	17.3	17.4	5.5	7.0	9.9
	인천	73.4	19.8	46.6	35.0	8.2	8.2	8.2	8.2	0.0
	경기	54.4	45.4	30.0	15.3	14.1	7.8	8.4	3.7	4.5
	광주/전라	61.6	50.5	31.6	21.9	16.9	18.0	12.0	10.5	0.0
	대전/충청	63.2	28.5	39.7	27.4	20.5	22.3	10.2	12.4	6.8
	강원/제주	79.3	50.4	38.0	9.2	20.7	45.9	22.8	18.5	0.0
규 모 별	1인	47.8	21.1	24.5	24.2	13.6	5.7	7.0	0.0	9.0
	2~4인	65.4	36.6	32.7	24.0	16.0	18.2	11.0	5.9	5.0
	5~9인	51.5	40.5	26.5	21.7	18.8	16.5	13.6	12.1	6.5
	10~14인	60.2	42.8	40.6	17.6	20.1	23.0	15.4	16.3	2.9
	15인 이상	54.2	50.4	24.1	20.5	23.0	24.2	22.5	10.9	6.7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61.7	37.3	30.8	23.9	15.1	17.7	11.6	7.7	6.0
	기타매출 50%↑	42.2	26.3	23.9	15.3	26.2	9.9	14.5	1.9	7.4
	반반	39.0	39.0	16.6	0.0	27.6	0.0	0.0	0.0	0.0

(3) 기타 교육

- ❖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기타 교육으로는 '트렌드 정보'(36.7%)가 가장 높고, 다음은 '국내외 시장 정보'(15.1%), '타분야 융합 교육'(14.1%), '신기술 이해'(13.0%)의 순을 보임.

기타 교육

(단위: %, 중복응답)



- ❖ 업종별로 살펴보면, '트렌드 정보'는 제품디자인(59.6%)에서 가장 높고, '국내외 시장 정보'는 인테리어디자인(26.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_기타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트렌드 정보	국내외 시장 정보	타분야 융합 교육	신기술 이해
전문디자인업체		36.7	15.1	14.1	13.0
업종별	제품디자인	59.6	19.4	18.2	22.1
	시각디자인	27.7	8.5	10.3	5.5
	인테리어디자인	34.0	26.7	18.4	16.5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26.8	8.0	10.7	12.2

- ❖ 권역별로 살펴보면, ‘트렌드 정보’는 대전/충청(55.6%)에서 높고, 그 다음은 대구/경북(47.4%)이 뒤를 이음. ‘국내외 시장 정보’는 인천(53.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트렌드 정보’는 2~4인(42.3%), 10~14인(40.6%)에서 높고, ‘국내외 시장 정보’는 전반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_기타 교육

(단위: %, 증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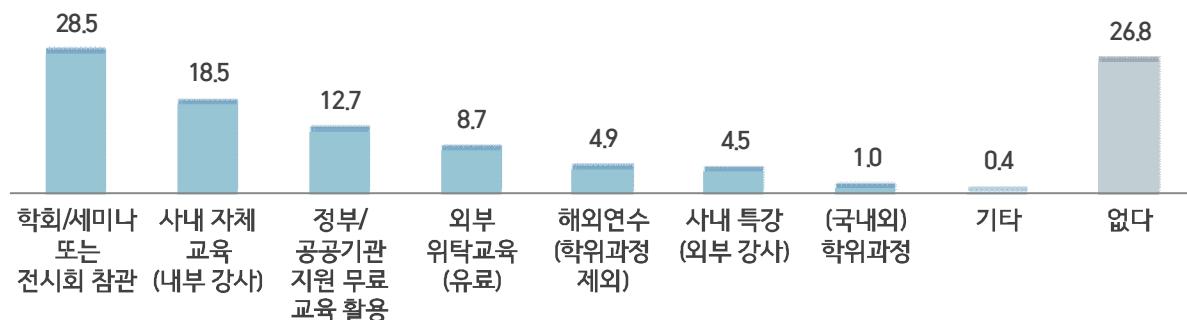
구분		트렌드 정보	국내외 시장 정보	타분야 융합 교육	신기술 이해
전문디자인업체		36.7	15.1	14.1	13.0
권 역 별	서울	35.3	13.7	12.6	11.0
	부산/울산/경남	34.6	11.4	8.4	27.1
	대구/경북	47.4	14.8	23.1	13.8
	인천	26.8	53.4	0.0	0.0
	경기	30.0	12.9	11.1	17.0
	광주/전라	38.1	14.9	18.5	14.3
	대전/충청	55.6	25.9	25.3	10.7
	강원/제주	30.0	25.4	18.4	0.0
규 모 별	1인	21.4	10.9	15.7	14.0
	2~4인	42.3	15.4	11.8	12.5
	5~9인	35.3	14.9	15.1	12.1
	10~14인	40.6	18.3	15.0	11.3
	15인 이상	35.6	21.8	24.0	20.5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37.0	14.8	13.7	13.1
	기타매출 50%↑	36.4	17.2	11.8	11.8
	반반	16.6	0.0	22.4	50.0

7)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으로는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이 28.5%로 가장 높고, 다음은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18.5%),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12.7%), '외부 위탁교육(유료)'(8.7%) 등의 순으로 높음.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은 제품디자인(35.9%)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시각디자인(28.8%),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27.1%) 등의 순으로 높음. '사내 자체 교육'의 경우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12.4%)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 업종별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구분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사내 자체 교육 (내부 강사)	정부/ 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외부 위탁교육 (유료)	해외연수 (학위과정 제외)	사내 특강 (외부 강사)	(국내외) 학위과정	기타	없다
전문디자인업체		28.5	18.5	12.7	8.7	4.9	4.5	1.0	0.4	26.8
업종별	제품디자인	35.9	20.5	15.5	13.5	4.4	4.6	0.9	0.4	19.5
	시각디자인	28.8	19.6	11.9	4.8	2.4	5.5	1.5	0.8	31.8
	인테리어디자인	20.7	18.6	14.1	10.9	7.9	1.4	0.0	0.0	33.7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27.1	12.4	8.4	7.8	7.2	6.4	1.5	0.0	16.5

- 권역별로 살펴보면,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은 강원/제주(55.3%)에서 높고, '사내 자체 교육'은 광주/전라(25.4%), 대전/충청(25.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은 2~4인(32.7%)에서 높고, '사내 자체 교육'은 5~9인(29.4%)에서 다른 규모 대비 높음.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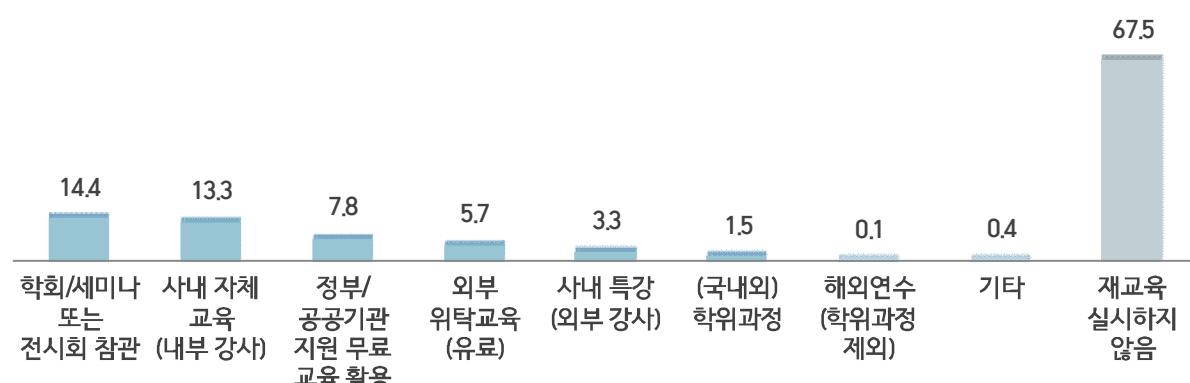
구분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사내 자체 교육 (내부 강사)	정부/ 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외부 위탁교육 (유료)	해외연수 (학위과정 제외)	사내 특강 (외부 강사)	(국내외) 학위과정	기타	없다
전문디자인업체		28.5	18.5	12.7	8.7	4.9	4.5	1.0	0.4	26.8
권 역 별	서울	27.8	17.2	10.3	10.6	5.9	5.0	1.3	0.5	24.9
	부산/울산/경남	31.8	14.7	11.9	8.3	2.4	3.6	0.0	0.0	31.4
	대구/경북	18.1	10.8	21.1	13.7	3.6	2.2	0.0	0.0	40.7
	인천	38.4	8.2	19.8	0.0	0.0	0.0	0.0	0.0	53.4
	경기	20.8	25.2	19.7	9.5	0.0	1.8	0.0	1.0	28.0
	광주/전라	31.2	25.4	16.4	0.0	1.2	7.2	0.0	0.0	27.6
	대전/충청	34.3	25.5	16.6	3.0	12.7	6.9	4.4	0.0	19.2
	강원/제주	55.3	16.7	0.0	0.0	5.8	0.0	0.0	0.0	22.2
규 모 별	1인	16.5	9.5	9.6	5.0	5.3	1.7	1.7	0.0	48.9
	2~4인	32.7	15.5	11.6	9.5	5.1	3.3	1.4	0.8	24.0
	5~9인	29.2	29.4	16.9	7.2	5.4	6.1	0.0	0.0	21.7
	10~14인	25.6	26.2	19.5	14.3	0.0	8.1	0.0	0.0	12.5
	15인 이상	28.0	20.8	7.3	14.0	4.5	14.2	1.2	0.0	18.9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30.5	19.5	13.4	8.5	4.7	4.9	0.9	0.4	23.3
	기타매출 50%↑	12.7	10.3	7.4	11.3	6.9	1.4	0.0	0.0	48.6
	비반	0.0	50.0	0.0	0.0	0.0	11.1	0.0	0.0	50.0

8)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 2016년에 전문디자인업체에서 실시한 재교육 방법으로는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14.4%),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13.3%),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은 67.5%로 높게 나타남.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중복응답)



※ 모름/무응답 : 0.9%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제품디자인에서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을 다른 업종 대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중복응답)

구분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	정부/공공 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외부 위탁교육 (유료)	사내 특강(외부 강사)	(국내외) 학위과정	해외연수 (학위과정 제외)	기타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전문디자인업체		14.4	13.3	7.8	5.7	3.3	1.5	0.1	0.4	67.5
업 종 별	제품디자인	23.2	18.7	11.8	10.2	5.5	0.0	0.2	0.4	54.2
	시각디자인	14.7	13.8	8.2	3.5	4.2	1.7	0.0	0.8	65.9
	인테리어디자인	10.1	7.1	5.5	5.4	0.3	2.0	0.3	0.0	80.1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5.9	12.3	3.9	4.2	1.8	2.7	0.0	0.0	74.3

- 권역별로 살펴보면,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은 광주/전라(23.9%), 대전/충청(23.3%),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는 광주/전라(29.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전반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활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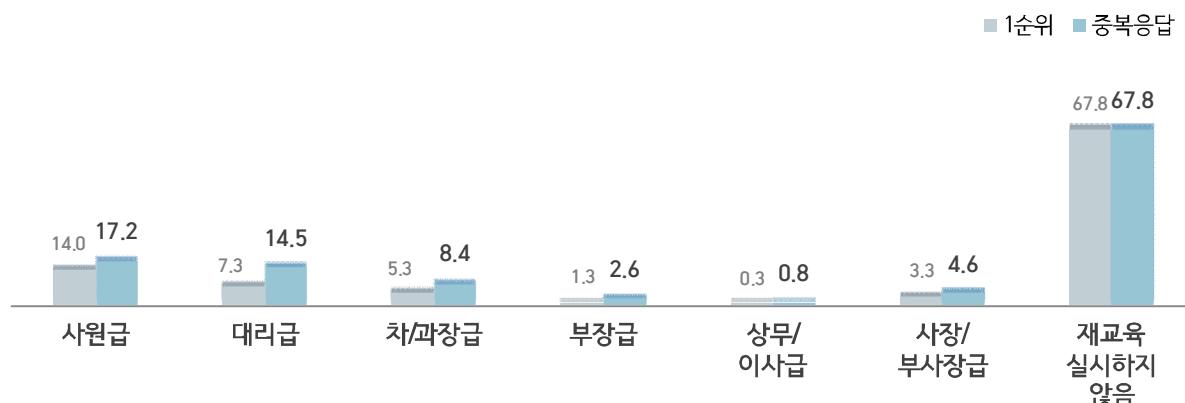
구분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	정부/공공 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외부 위탁교육(유료)	사내 특강(외부 강사)	(국내외) 학위과정	해외연수(학위과정 제외)	기타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전문디자인업체		14.4	13.3	7.8	5.7	3.3	1.5	0.1	0.4	67.5
권 역 별	서울	13.2	13.5	5.8	6.7	2.7	1.5	0.2	0.5	66.7
	부산/울산/경남	14.6	14.9	15.1	6.1	4.0	0.0	0.0	0.0	68.3
	대구/경북	10.4	1.4	16.1	1.9	2.2	1.1	0.0	0.0	74.0
	인천	11.6	11.6	8.2	0.0	0.0	0.0	0.0	0.0	80.2
	경기	8.9	6.1	4.1	5.5	2.9	0.0	0.0	1.0	82.2
	광주/전라	23.9	29.5	6.6	0.0	2.7	0.0	0.0	0.0	53.9
	대전/충청	23.3	13.2	10.6	6.4	7.7	4.4	0.0	0.0	62.0
	강원/제주	18.2	9.2	15.1	9.2	9.2	0.0	0.0	0.0	63.4
규 모 별	1인	6.3	5.7	0.0	3.7	0.0	1.7	0.0	0.0	85.6
	2~4인	12.9	10.7	6.9	4.7	1.7	1.2	0.0	0.8	71.5
	5~9인	20.1	20.9	14.3	8.5	5.7	2.6	0.0	0.0	54.2
	10~14인	23.1	16.5	12.2	6.8	7.3	0.0	0.8	0.0	51.9
	15인 이상	20.5	25.3	9.2	8.2	13.2	1.2	1.3	0.0	45.9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15.5	13.7	8.8	5.2	3.8	1.0	0.1	0.4	66.7
	기타매출 50%↑	5.4	9.4	1.8	9.1	0.0	3.1	0.0	0.0	76.0
	반반	0.0	50.0	0.0	0.0	0.0	0.0	0.0	0.0	50.0

8-1) 디자인 재교육을 받은 직원 직급

- 2016년에 재교육을 받은 직원 직급은 '사원급'(17.2%), '대리급'(14.5%), '차/과장급'(8.4%), '사장/부사장급'(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중복응답)



※ 모름/무응답 : 0.7%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제품디자인에서 각 직급별 재교육 비율이 다른 업종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사원급	대리급	차과장급	부장급	상무/이사급	사장/부사장급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전문디자인업체		17.2	14.5	8.4	2.6	0.8	4.6	67.8
업종별	제품디자인	27.3	24.3	8.7	3.5	0.6	4.6	54.2
	시각디자인	16.8	13.4	11.9	2.6	1.1	5.4	65.9
	인테리어디자인	10.6	8.4	3.8	1.5	0.4	3.0	80.1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11.5	10.2	5.8	2.5	1.1	4.5	75.9

- 권역별로 살펴보면, '사원급', '대리급'은 광주/전라(각각 24.2%, 24.2%)에서 높고, '차/과장급'은 대구/경북(11.7%), 대전/충청(1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각 디자이너 직급별 재교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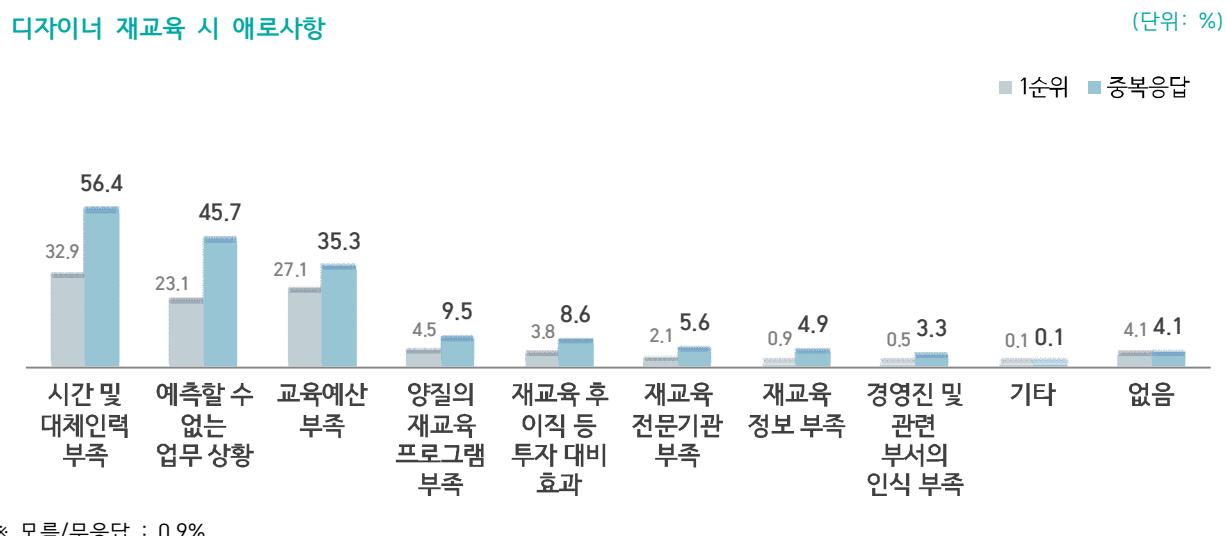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사원급	대리급	차/과장급	부장급	상무/이사급	사장/부사장급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전문디자인업체		17.2	14.5	8.4	2.6	0.8	4.6	67.8
권역별	서울	17.9	15.6	8.8	2.1	0.9	3.1	67.0
	부산/울산/경남	21.5	13.8	6.6	2.2	1.0	5.5	68.3
	대구/경북	16.0	10.3	11.7	0.0	0.0	4.6	74.0
	인천	19.8	19.8	0.0	0.0	0.0	0.0	80.2
	경기	5.2	4.7	6.2	1.0	1.4	4.5	83.1
	광주/전라	24.2	24.2	6.5	7.8	1.2	7.8	53.9
	대전/충청	18.9	12.4	10.0	4.4	0.0	3.4	62.0
	강원/제주	9.2	12.4	9.2	5.8	0.0	24.3	63.4
규모별	1인	2.7	0.0	0.0	1.7	0.0	8.3	85.6
	2~4인	13.1	11.9	7.9	2.7	0.9	3.3	71.9
	5~9인	28.4	23.1	9.7	2.1	1.0	6.7	54.6
	10~14인	36.2	31.8	11.2	0.8	2.4	0.8	51.9
	15인 이상	32.9	28.5	29.3	7.3	0.0	0.0	45.9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18.8	15.1	8.8	2.7	0.6	4.1	67.0
	기타매출 50%↑	8.4	9.7	4.4	0.0	0.0	8.5	76.0
	반반	11.1	11.1	16.6	0.0	39.0	0.0	50.0

9)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중복응답 기준)으로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56.4%)이 가장 높고, 다음은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45.7%), ‘교육예산 부족’(35.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 분석하면,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은 제품디자인(62.9%), 인테리어디자인(60.3%)에서 높고,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은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52.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	교육예산 부족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재교육 후 이직 등 투자 대비 효과	재교육 전문기관 부족	재교육 정보 부족	경영진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
전문디자인업체		56.4	45.7	35.3	9.5	8.6	5.6	4.9	3.3
업종별	제품디자인	62.9	49.1	32.1	16.4	11.1	6.4	5.8	2.4
	시각디자인	56.4	39.7	29.0	7.2	8.2	7.9	5.0	3.6
	인테리어디자인	60.3	47.5	40.0	5.9	5.8	3.5	2.9	5.4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41.4	52.2	48.3	9.2	9.4	2.0	6.1	1.1

- 권역별로 살펴보면,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은 부산/울산/경남(64.2%), 대전/충청(60.9%)에서 높고,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은 대구/경북(62.5%)에서 다른 권역 대비 높음.
-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은 5~9인(61.4%), 10~14인(61.9%)에서 높고,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은 규모가 클수록 높은 특징을 보임.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	교육예산 부족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재교육 후 이직 등 투자 대비 효과	재교육 전문기관 부족	재교육 정보 부족	경영진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
전문디자인업체		56.4	45.7	35.3	9.5	8.6	5.6	4.9	3.3
권 역 별	서울	57.3	44.0	34.5	11.0	9.6	5.2	5.6	2.9
	부산/울산/경남	64.2	44.3	26.7	5.8	9.3	6.1	2.5	5.6
	대구/경북	51.4	62.5	32.1	6.8	1.7	1.9	0.0	6.9
	인천	46.6	0.0	38.2	26.6	26.8	0.0	0.0	0.0
	경기	47.2	48.2	41.1	4.4	13.0	3.2	3.2	3.6
	광주/전라	59.1	40.8	35.9	13.7	3.6	9.8	6.4	4.5
	대전/충청	60.9	55.3	40.2	5.8	4.4	5.8	10.8	0.0
	강원/제주	43.2	44.7	49.6	5.8	3.1	18.5	0.0	0.0
규 모 별	1인	41.9	33.9	36.3	10.2	9.0	4.7	9.5	0.8
	2~4인	59.2	42.4	36.9	8.8	10.3	5.8	4.1	2.7
	5~9인	61.4	55.6	32.3	7.8	6.0	6.1	3.7	4.5
	10~14인	61.9	56.8	32.5	13.8	5.6	5.5	2.5	9.2
	15인 이상	50.5	60.4	32.5	15.6	5.3	5.7	5.8	5.5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57.8	46.8	34.2	10.3	9.0	5.8	4.3	3.8
	기타매출 50%↑	50.8	42.5	43.7	3.3	2.9	4.7	5.2	0.7
	반반	77.6	27.7	27.6	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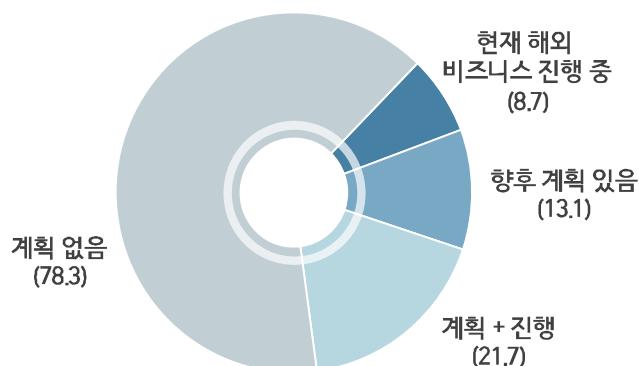
4 디자인 역량

1) 해외 비즈니스 및 진출 여부

- 해외 비즈니스 및 진출에 대해 ‘현재 비즈니스 진행 중이면서, 향후 계획 중인’ 비율은 21.7%, ‘현재 비즈니스 진행 중’은 8.7%, ‘향후 계획 있음’은 13.1%로 나타남. 한편, ‘계획 없음’은 78.3%로 높게 나타남.

해외 비즈니스 및 진출 여부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현재 해외 비즈니스를 ‘진행 중이면서 계획 중’인 업체는 제품디자인(33.6%)과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33.6%)에서 높고, ‘현재 해외 비즈니스 진행 중’은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16.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해외 비즈니스 및 진출 여부

(단위: %)

구분		계획 + 진행	현재 해외 비즈니스 진행 중	향후 계획 있음	계획 없음
전문디자인업체		21.7	8.7	13.1	78.3
업종별	제품디자인	33.6	13.8	19.7	66.4
	시각디자인	15.6	5.8	9.9	84.4
	인테리어디자인	10.4	2.5	8.0	89.6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33.6	16.2	17.4	66.4

- 권역별로 살펴보면, 해외 비즈니스 ‘진행 및 계획’ 중인 업체는 인천(53.4%)에서 가장 높고, ‘현재 해외 비즈니스 진행 중’은 서울(12.2%), 경기(12.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전문디자인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해외 비즈니스 ‘진행 및 계획’ 중인 업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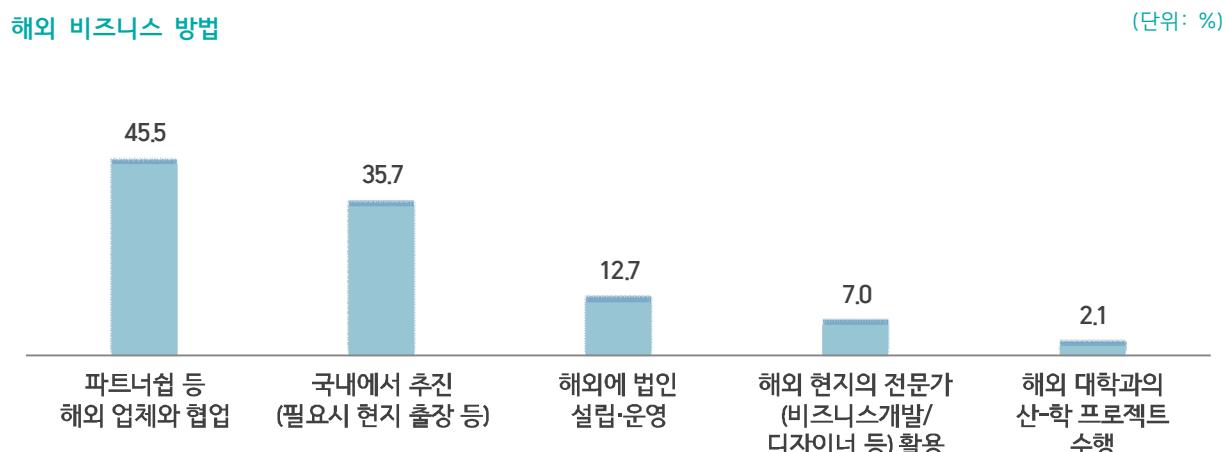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해외 비즈니스 및 진출 여부

(단위: %)

구분		계획 + 진행	현재 해외 비즈니스 진행 중	향후 계획 있음	계획 없음
전문디자인업체		21.7	8.7	13.1	78.3
권 역 별	서울	25.0	12.2	12.8	75.0
	부산/울산/경남	12.6	3.6	9.0	87.4
	대구/경북	13.6	3.0	10.6	86.4
	인천	53.4	0.0	53.4	46.6
	경기	25.3	12.7	12.6	74.7
	광주/전라	12.0	0.0	12.0	88.0
	대전/충청	18.2	0.0	18.2	81.8
	강원/제주	18.2	0.0	18.2	81.8
규 모 별	1인	17.3	9.5	7.8	82.7
	2~4인	19.9	6.5	13.4	80.1
	5~9인	26.2	9.5	16.7	73.8
	10~14인	25.7	13.8	12.0	74.3
	15인 이상	29.6	17.2	12.3	70.4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22.5	8.8	13.7	77.5
	기타매출 50%↑	18.8	9.9	8.9	81.2
	반반	39.0	0.0	39.0	61.0

1-1) 해외 비즈니스 방법

- 해외 비즈니스 방법으로는 '파트너쉽 등 해외 업체와 협업'(45.5%)이 가장 높고, 다음은 '국내에서 추진(필요 시 현지 출장 등)’(35.7%), ‘해외에 법인 설립·운영’(12.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 해외 비즈니스 방법을 살펴보면, '파트너쉽 등 해외 업체와 협업'은 시각디자인(53.7%)에서 높고, 그 다음은 제품디자인(46.0%) 뒤를 이음. '국내에서 추진'은 제품디자인(42.4%),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37.0%)에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해외 비즈니스 방법

(단위: %)

구분	파트너쉽 등 해외 업체와 협업	국내에서 추진	해외에 법인 설립·운영	해외 현지의 전문가 활용	해외 대학과의 산학 프로젝트 수행
전문디자인업체	45.5	35.7	12.7	7.0	2.1
업종별	제품디자인	46.0	42.4	11.6	0.0
	시각디자인	53.7	27.7	24.6	6.1
	인테리어디자인	39.4	19.7	0.0	41.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39.2	37.0	6.9	6.9

- 권역별로 살펴보면, '파트너쉽 등 해외 업체와 협업'은 부산/울산/경남(81.0%), '국내에서 추진'은 경기(60.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파트너쉽 등 해외 업체와 협업'은 전반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해외 비즈니스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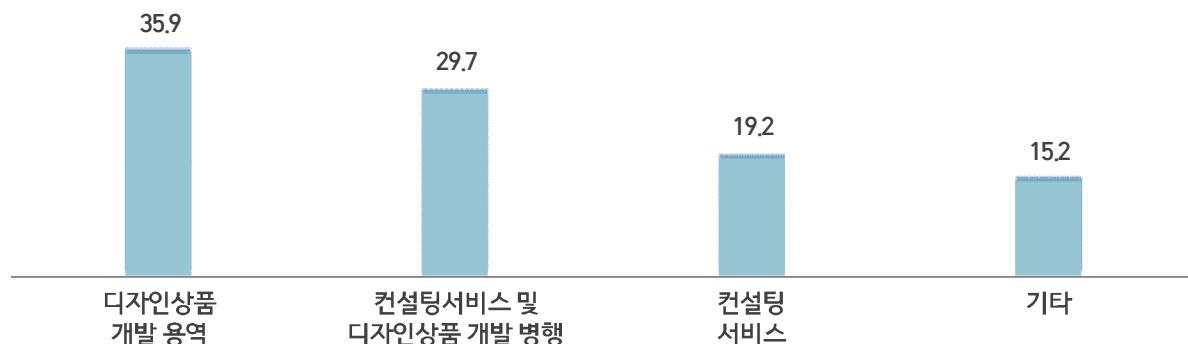
구분		파트너쉽 등 해외 업체와 협업	국내에서 추진	해외에 법인 설립운영	해외 현지의 전문가 활용	해외 대학교와 산학 프로젝트 수행
전문디자인업체		45.5	35.7	12.7	7.0	2.1
권 역 별	서울	47.7	32.9	10.0	6.9	2.6
	부산/울산/경남	81.0	0.0	60.1	41.1	0.0
	대구/경북	62.9	37.1	0.0	0.0	0.0
	인천	-	-	-	-	-
	경기	21.6	60.6	17.8	0.0	0.0
	광주/전라	-	-	-	-	-
	대전/충청	-	-	-	-	-
	강원/제주	-	-	-	-	-
규 모 별	1인	38.8	50.0	0.0	0.0	11.2
	2~4인	48.1	30.6	13.0	16.6	0.0
	5~9인	39.9	37.4	19.0	3.7	0.0
	10~14인	52.5	41.4	6.1	0.0	0.0
	15인 이상	54.6	20.6	24.8	0.0	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42.5	39.4	11.1	8.2	2.4
	기타매출 50%↑	63.4	14.2	22.4	0.0	0.0
	비반	-	-	-	-	-

1-2) 해외 비즈니스 주력 분야

- 해외 비즈니스 주력 분야로는 '디자인상품 개발 용역'(35.9%)이 가장 높고, 다음은 '컨설팅서비스 및 디자인상품 개발 병행'(29.7%), '컨설팅서비스'(19.2%), '기타'(15.2%) 순임.

해외 비즈니스 주력 분야

(단위: %)



* 기타 : 상품판매(6.8%), 플랫폼서비스(3.3%), 업무협약(2.6%), 제조(2.6%)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자인상품 개발 용역'은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52.2%)에서 높고, '컨설팅서비스 및 디자인상품 개발 병행'은 인테리어디자인(59.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해외 비즈니스 주력 분야

(단위: %)

구분		디자인상품 개발 용역	컨설팅서비스 및 디자인상품 개발 병행	컨설팅 서비스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35.9	29.7	19.2	15.2
업종별	제품디자인	31.0	30.4	22.6	16.0
	시각디자인	33.1	28.4	19.2	19.3
	인테리어디자인	0.0	59.0	41.0	0.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52.2	23.7	10.3	13.8

- 권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81.0%)에서 ‘디자인상품 개발 용역’이 상대적으로 높고, ‘컨설팅서비스 및 디자인상품 개발 병행’은 서울(32.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전반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디자인상품 개발 용역’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 가운데, 10~14인 규모는 53.6%, 15인 이상 규모는 53.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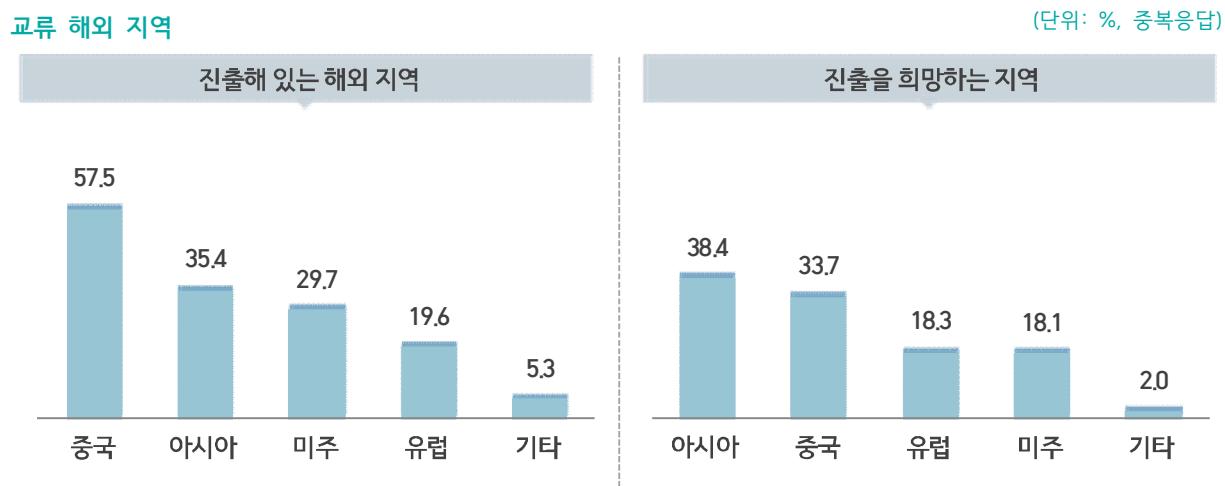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해외 비즈니스 주력 분야

(단위: %)

구분		디자인상품 개발 용역	컨설팅서비스 및 디자인상품 개발 병행	컨설팅 서비스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35.9	29.7	19.2	15.2
권 역 별	서울	36.3	32.5	16.4	14.8
	부산/울산/경남	81.0	19.0	0.0	0.0
	대구/경북	37.0	26.0	0.0	37.1
	인천	-	-	-	-
	경기	21.6	17.8	42.8	17.8
	광주/전라	-	-	-	-
	대전/충청	-	-	-	-
	강원/제주	-	-	-	-
규 모 별	1인	36.2	13.8	13.8	36.2
	2~4인	25.4	29.3	29.5	15.7
	5~9인	37.2	38.7	13.1	11.0
	10~14인	53.6	18.2	28.2	0.0
	15인 이상	53.0	47.0	0.0	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36.6	31.8	22.5	9.1
	기타매출 50%↑	31.7	17.6	0.0	50.7
	반반	-	-	-	-

1-3) 교류 해외 지역

- 교류 해외 지역 중, 진출 지역은 '중국'(57.5%), '아시아'(35.4%), '미주'(2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은 '아시아'(38.4%), '중국'(3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진출 지역] 중 '중국'은 인테리어디자인(100.0%)에서 가장 높고, '아시아'는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47.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진출 희망 지역] 중 '아시아'는 제품디자인(43.8%), '중국'은 인테리어디자인(42.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교류 해외 지역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진출해 있는 해외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중국	아시아	미주	유럽	기타	아시아	중국	유럽	미주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57.5	35.4	29.7	19.6	5.3	38.4	33.7	18.3	18.1	2.0
업종별	제품디자인	52.6	30.9	32.4	11.2	0.0	43.8	32.9	12.8	24.0
	시각디자인	55.4	32.4	41.5	22.3	13.1	38.8	28.9	17.6	11.6
	인테리어디자인	100.0	19.7	19.7	19.7	0.0	28.8	42.4	9.7	0.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56.9	47.0	18.5	28.1	6.9	33.5	36.6	32.4	24.2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진출 지역] 중 '중국'은 서울(61.8%), '아시아'는 대구/경북(74.0%), [진출 희망 지역]은 '아시아'는 광주/전라(81.1%), 부산/울산/경남(61.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규모별로 살펴보면, [진출 지역] 중 '중국'은 2~4인(74.6%), 10~14인(77.0%), '아시아'는 15인 이상(55.1%), [진출 희망 지역] 중 '아시아'는 5~9인(46.7%), '중국'은 10~14인(5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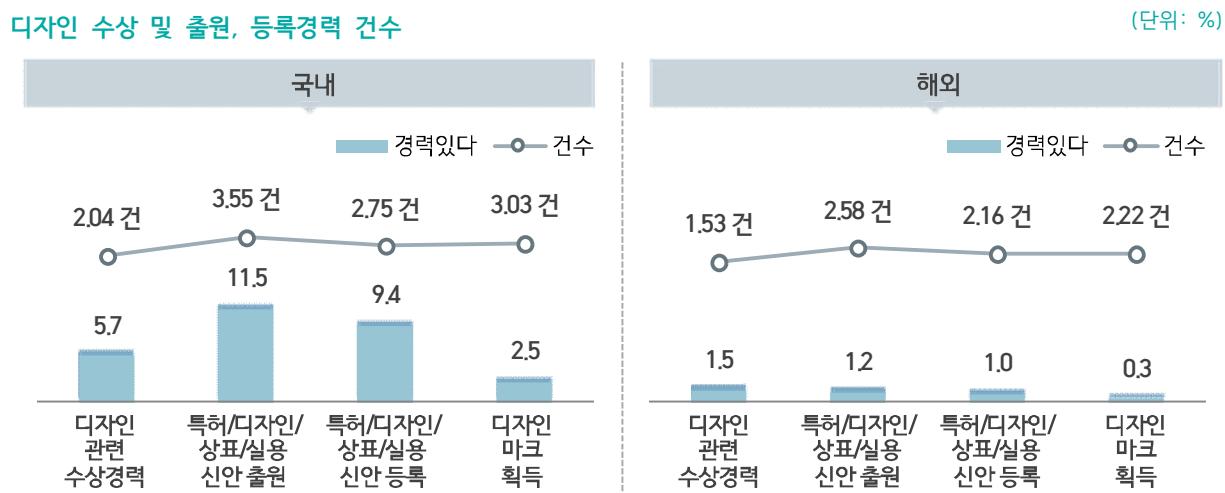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교류 해외 지역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진출해 있는 해외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중국	아시아	미주	유럽	기타	아시아	중국	유럽	미주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57.5	35.4	29.7	19.6	5.3	38.4	33.7	18.3	18.1	2.0
권역별	서울	61.8	33.5	28.0	21.7	6.7	33.8	37.4	21.4	18.2	2.0
	부산/울산/경남	39.9	38.0	62.0	39.9	0.0	61.2	32.7	19.5	24.9	0.0
	대구/경북	26.0	74.0	0.0	37.0	0.0	34.9	30.3	8.2	16.4	0.0
	인천	-	-	-	-	-	0.0	50.2	0.0	0.0	0.0
	경기	42.8	39.4	35.6	0.0	0.0	31.5	21.6	15.4	25.0	5.8
	광주/전라	-	-	-	-	-	81.1	18.9	10.2	0.0	0.0
	대전/충청	-	-	-	-	-	61.7	30.1	0.0	27.0	0.0
	강원/제주	-	-	-	-	-	50.7	17.2	32.0	0.0	0.0
규모별	1인	11.2	47.3	41.5	0.0	11.2	43.2	6.1	21.9	25.9	0.0
	2~4인	74.6	21.3	28.7	23.7	8.8	34.0	43.9	21.9	14.1	2.9
	5~9인	62.6	47.3	29.2	28.7	0.0	46.7	24.5	13.0	23.7	0.0
	10~14인	77.0	12.1	23.0	17.0	0.0	30.7	51.2	9.1	9.8	9.1
	15인 이상	51.2	55.1	20.3	20.2	0.0	34.4	38.6	17.1	15.5	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64.9	36.6	22.6	20.5	3.8	36.2	33.4	19.3	18.0	2.2
	기타매출 50%↑	14.2	28.3	71.7	14.2	14.2	61.0	26.9	7.5	14.9	0.0
	반반	-	-	-	-	-	0.0	100.0	42.6	42.6	0.0

2)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경력 건수

-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경력은 ‘국내 디자인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출원’(11.5%), ‘국내 디자인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등록’(9.4%)이 다른 경력 대비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국내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출원’은 제품디자인(23.6%)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기타패션/스타일디자인(10.8%)에서 높음.

▶ 업종별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 경력 건수

(단위: 건)

업종별	구분	국내				해외			
		디자인 관련 수상경력	특허/디자인/상표/실용 신안 출원	특허/디자인/상표/실용 신안 등록	디자인 마크획득	디자인 관련 수상경력	특허/디자인/상표/실용 신안 출원	특허/디자인/상표/실용 신안 등록	디자인 마크획득
	전문디자인업체	5.7	11.5	9.4	2.5	1.5	1.2	1.0	0.3
	제품디자인	13.5	23.6	18.6	7.1	2.4	1.4	1.1	1.0
	시각디자인	4.4	6.9	6.0	1.2	1.6	1.4	0.7	0.0
	인테리어디자인	0.5	6.4	5.8	0.5	0.5	0.0	0.0	0.5
	기타패션/스타일디자인	3.8	10.8	8.1	1.1	1.1	2.2	2.8	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국내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출원'은 광주/전라(25.3%), 강원/제주(18.2%), 대전/충청(15.3%) 등, '국내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등록'은 광주/전라(17.3%), '대구/경북(14.0%) 등의 순으로 높음.
- 대부분의 디자인 경력이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디자인 관련 수상경력'은 10~14인(14.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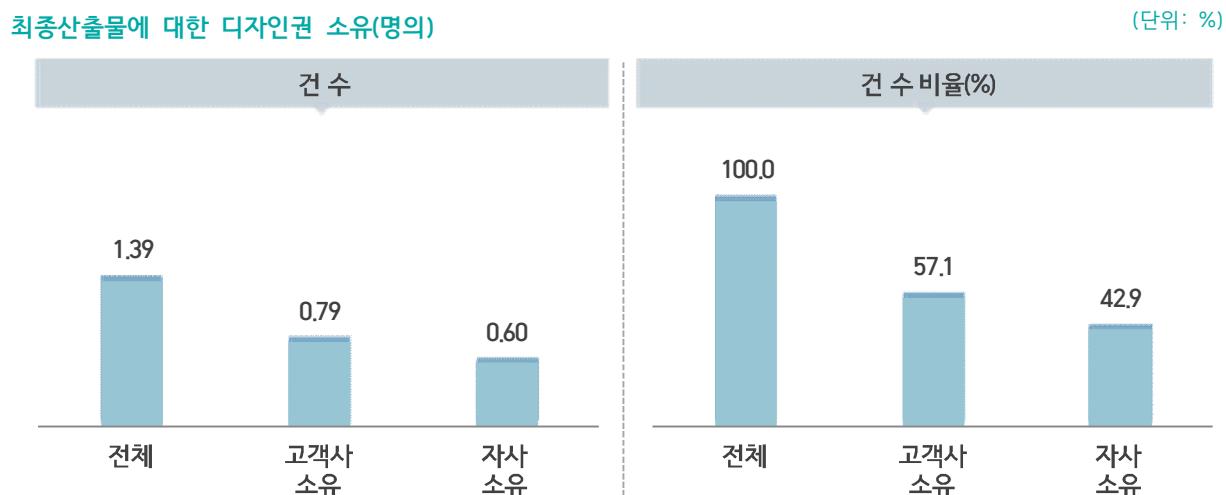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 경력 건수

(단위: 건)

구분		국내				해외			
		디자인 관련 수상경력	특허/ 디자인/ 상표/실용 신안 출원	특허/ 디자인/ 상표/실용 신안 등록	디자인 마크획득	디자인 관련 수상경력	특허/ 디자인/ 상표/실용 신안 출원	특허/ 디자인/ 상표/실용 신안 등록	디자인 마크획득
전문디자인업체		5.7	11.5	9.4	2.5	1.5	1.2	1.0	0.3
권 역 별	서울	5.0	9.7	7.5	1.6	2.4	0.3	0.9	0.6
	부산/울산/경남	9.1	11.8	10.4	7.3	0.0	3.0	2.0	0.0
	대구/경북	10.4	4.9	14.0	5.4	0.0	2.7	1.1	0.0
	인천	0.0	0.0	0.0	0.0	0.0	0.0	0.0	0.0
	경기	0.0	10.7	13.6	3.2	0.0	2.3	1.4	0.0
	광주/전라	7.9	25.3	17.3	3.4	1.2	0.9	0.9	0.0
	대전/충청	11.3	15.3	9.3	0.0	0.0	2.0	0.0	0.0
	강원/제주	0.0	18.2	0.0	0.0	0.0	5.8	0.0	0.0
규 모 별	1인	5.7	2.4	3.8	0.0	0.0	0.0	1.1	0.0
	2~4인	3.1	10.8	8.4	1.5	0.6	1.2	0.8	0.0
	5~9인	9.2	16.6	12.9	5.1	4.4	1.9	0.9	0.9
	10~14인	14.9	15.6	15.4	9.1	2.9	3.7	3.6	2.5
	15인 이상	4.8	20.6	14.7	2.0	0.9	0.0	0.0	0.0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5.7	11.3	9.3	2.5	1.4	1.1	0.8	0.4
	기타매출 50%↑	6.3	9.8	6.7	2.5	1.4	1.4	1.4	0.4
	반반	0.0	39.0	39.0	0.0	0.0	16.6	16.6	0.0

3) 최종산출물에 대한 디자인권 소유(명의)

- 최종산출물에 대한 디자인권은 전체 평균 1.39건 중 고객사에서 0.79건(57.1%), 자사에서 0.60건(42.9%) 소유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자인권의 고객사 소유 비율은 인테리어디자인(86.0%)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시각디자인(69.1%),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55.5%), 제품디자인(46.1%) 순으로 높음.

▶ 업종별 최종산출물에 대한 디자인권 소유(명의)

(단위: %)

구분	건 수			건 수 비율		
	전체	고객사 소유	자사 소유	전체	고객사 소유	자사 소유
전문디자인업체	1.39	0.79	0.60	100.0	57.1	42.9
업종별	제품디자인	3.06	1.41	1.65	100.0	46.1
	시각디자인	0.59	0.41	0.18	100.0	69.1
	인테리어디자인	0.91	0.78	0.13	100.0	86.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1.32	0.73	0.59	100.0	55.5

- 권역별로 살펴보면, 디자인권의 고객사 소유 비중은 경기(79.5%)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광주/전라(72.1%), 서울(68.0%), 강원/제주(6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는 1인 기업(6.1%)의 고객사 소유 비중이 가장 낮은 반면, 10~14인 규모(74.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 최종산출물에 대한 디자인권 소유(명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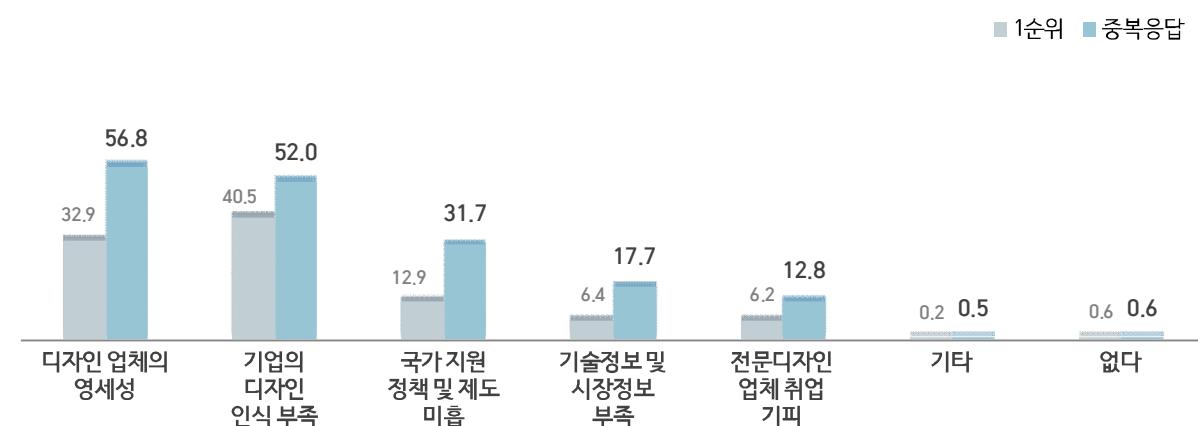
구분		고객사			자사		
		전체	고객사 소유	자사 소유	전체	고객사 소유	자사 소유
전문디자인업체		1.39	0.79	0.60	100.0	57.1	42.9
권역별	서울	1.06	0.72	0.34	100.0	68.0	32.0
	부산/울산/경남	1.48	0.77	0.71	100.0	52.2	47.8
	대구/경북	1.40	0.50	0.90	100.0	36.1	63.9
	인천	0.00	0.00	0.00	-	-	-
	경기	1.72	1.37	0.35	100.0	79.5	20.5
	광주/전라	2.10	1.51	0.59	100.0	72.1	27.9
	대전/충청	3.34	0.24	3.10	100.0	7.2	92.8
	강원/제주	0.51	0.34	0.17	100.0	65.7	34.3
권역별	1인	0.35	0.02	0.33	100.0	6.1	93.9
	2~4인	1.02	0.75	0.27	100.0	73.1	26.9
	5~9인	1.94	0.71	1.24	100.0	36.4	63.6
	10~14인	4.76	3.52	1.24	100.0	74.0	26.0
	15인 이상	2.18	1.07	1.11	100.0	49.3	50.7
매출구성	디자인매출 50%↑	1.33	0.89	0.43	100.0	67.5	32.5
	기타매출 50%↑	0.58	0.17	0.41	100.0	28.9	71.1
	반반	2.12	0.89	1.23	100.0	42.2	57.8

5 기타

1) 디자인산업 육성·발전 장애 요인

- 디자인 산업 육성·발전 장애 요인(중복응답 기준)으로는 '디자인 업체의 영세성'(56.8%), '기업의 디자인 인식 부족'(52.0%)이 높고, 다음은 '국가 지원 정책 및 제도 미흡'(31.7%),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17.7%), '전문디자인업체 취업 기피'(12.8%) 등의 순으로 높음.

디자인산업 육성·발전 장애 요인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업체의 영세성'은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72.6%), '기업의 디자인 인식 부족'은 시각디자인(62.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산업 육성·발전 장애 요인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자인 업체의 영세성	기업의 디자인 인식 부족	국가 지원 정책 및 제도 미흡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	전문디자인업체 취업 기피	기타	없음
전문디자인업체		56.8	52.0	31.7	17.7	12.8	0.5	0.6
업종별	제품디자인	53.3	52.2	35.7	21.6	16.8	1.0	0.0
	시각디자인	56.4	62.6	26.3	11.6	9.5	0.1	0.8
	인테리어디자인	49.7	40.7	35.6	21.0	16.7	1.0	0.5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72.6	42.1	32.8	21.4	9.2	0.0	1.1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업체의 영세성'은 대구/경북(70.0%), 강원/제주(70.4%), '기업의 디자인 인식 부족'은 강원/제주(82.5%), '국가 지원 정책 및 제조 미흡'은 인천(53.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종사자 수 규모가 작을수록 '디자인 업체의 영세성'이 장애요인이라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인 기업의 경우 63.2%로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산업 육성·발전 장애 요인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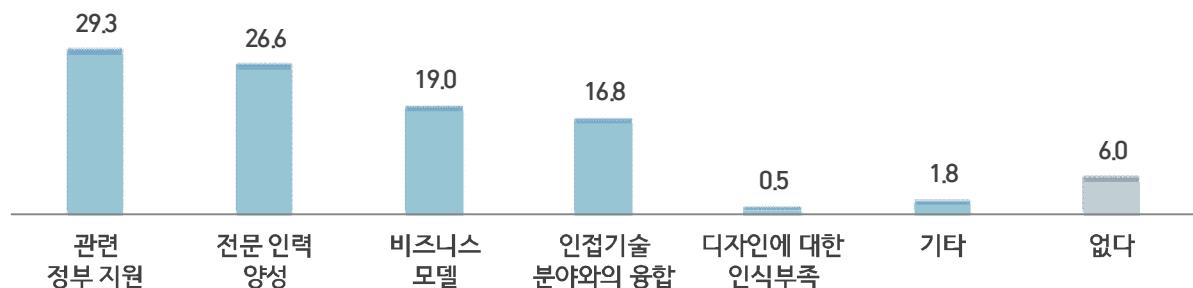
구분		디자인 업체의 영세성	기업의 디자인 인식 부족	국가 지원 정책 및 제도 미흡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	전문디자인업체 취업 기피	기타	없음
전문디자인업체		56.8	52.0	31.7	17.7	12.8	0.5	0.6
권역별	서울	53.9	47.9	34.1	17.9	14.0	0.5	1.0
	부산/울산/경남	62.3	47.2	26.6	11.4	17.1	0.0	0.0
	대구/경북	70.0	48.8	12.8	23.7	15.7	0.0	0.0
	인천	53.4	11.6	53.4	26.8	46.6	0.0	0.0
	경기	50.4	56.9	36.3	18.4	10.6	1.0	0.0
	광주/전라	68.8	63.5	22.9	17.8	5.2	1.9	0.0
	대전/충청	51.1	67.0	37.6	24.4	7.8	0.0	0.0
	강원/제주	70.4	82.5	28.5	0.0	0.0	0.0	0.0
규모별	1인	63.2	48.7	28.7	18.8	13.8	0.0	1.1
	2~4인	58.0	52.8	32.0	16.6	11.8	0.2	0.6
	5~9인	51.8	54.5	33.6	16.9	12.2	1.2	0.5
	10~14인	49.8	53.0	31.3	18.9	15.4	0.8	0.0
	15인 이상	54.0	43.9	30.5	25.9	18.3	2.0	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56.8	52.6	32.6	16.9	12.4	0.6	0.7
	기타매출 50%↑	58.4	49.4	23.3	21.1	13.8	0.0	0.0
	반반	33.4	44.2	39.0	83.4	0.0	0.0	0.0

2) 디자인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부분

- 디자인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부분으로는 '관련 정부 지원'(29.3%), '전문 인력 양성'(26.6%), '비즈니스 모델'(19.0%), '인접기술 분야와의 융합'(16.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디자인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부분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자인산업의 취약한 부분으로 '관련 정부 지원'은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34.6%), '전문 인력 양성'은 인테리어디자인(33.8%),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32.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디자인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부분

(단위: %)

구분		관련 정부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비즈니스 모델	인접기술 분야와의 융합	디자인에 대한 인식부족	기타	없음
전문디자인업체		29.3	26.6	19.0	16.8	0.5	1.8	6.0
업종별	제품디자인	29.4	21.2	22.0	20.9	0.0	1.5	4.9
	시각디자인	29.8	23.5	17.6	16.3	0.8	2.6	9.4
	인테리어디자인	24.5	33.8	18.9	17.4	0.0	1.0	4.4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34.6	32.5	17.9	10.6	1.1	1.6	1.6

- 권역별로 살펴보면, '관련 정부 지원'은 인천(65.0%), '전문 인력 양성'은 대구/경북(42.2%), '비즈니스 모델'은 부산/울산/경남(26.1%), 인천(26.8%), 강원/제주(23.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관련 정부 지원'은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4인 규모(32.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부분

(단위: %)

구분		관련 정부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비즈니스 모델	인접기술 분야와의 융합	디자인에 대한 인식부족	기타	없음
전문디자인업체		29.3	26.6	19.0	16.8	0.5	1.8	6.0
권역별	서울	26.2	28.6	19.1	18.5	0.3	2.3	5.0
	부산/울산/경남	27.4	19.1	26.1	20.8	0.0	0.0	6.6
	대구/경북	27.3	42.2	12.2	16.7	0.0	1.6	0.0
	인천	65.0	8.2	26.8	0.0	0.0	0.0	0.0
	경기	40.9	27.4	18.5	0.0	2.9	0.0	10.3
	광주/전라	32.2	24.4	18.3	19.4	0.0	1.3	4.5
	대전/충청	36.4	11.1	12.5	25.9	0.0	4.4	9.8
	강원/제주	28.8	23.1	23.9	5.8	0.0	0.0	18.5
규모별	1인	30.8	21.0	19.0	16.6	1.7	1.3	9.6
	2~4인	32.5	26.8	17.9	16.8	0.4	1.4	4.2
	5~9인	25.7	24.7	21.9	17.1	0.0	2.6	8.1
	10~14인	24.6	36.3	13.1	18.6	0.0	0.0	7.4
	15인 이상	16.3	40.2	22.7	14.0	0.0	5.9	0.9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30.7	26.5	19.4	17.0	0.5	0.5	5.3
	기타매출 50%↑	20.0	29.1	17.9	16.4	0.0	6.9	9.7
	반반	27.7	50.0	0.0	0.0	0.0	0.0	22.4

3) 디자인 개발 시 느끼는 애로사항

-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으로는 '디자인 개발비에 대한 인식이 낮음'(5.5%), '디자인 개발단가가 낮음/디자인 가격 하락'(3.5%), '전문인력이 부족함'(3.3%), '자금부족/정부의 자금지원 확대바람'(3.2%) 등이 제기됨.

▶ 디자인 개발 시 느끼는 애로사항

(단위: %)

의견 전체	% 100.0	의견 전체	% 100.0
◎ 디자인 개발 환경 미비	9.0	디자인 지식이 부족/커뮤니케이션 어려움	0.5
디자인 개발비에 대한 인식이 낮음	5.5	대형 디자인 업체의 갑질이 심함	0.4
개발기간이 촉박함	0.8	개발한 디자인을 인정해주지 않고 수정을 요청함	0.4
기술적 가치에 비해 저평가됨	0.7	고객사와 일 진행이 원활하지 않음	0.3
인식부족으로 디자인 인력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음	0.3	원청의 초기 계약과 다른 무리한 수정요청	0.3
개발 선정/발주가 안 될 때 경제적 손실이 큼	0.3	정부지원 디자인 개발로 디자인 비용을 낮게 생각함	0.3
◎ 인건비 및 디자인 단가 문제	8.1	◎ 시장 상황 및 경기침체	4.4
디자인 개발단가가 낮음/디자인 가격 하락	3.5	시장/판로개척이 어려움	1.0
디자인 개발비가 많이 들어감	1.1	소규모/영세업체가 많음	0.8
심한 경쟁으로 인한 단가인하로 디자인 퀄리티 하락	1.0	시장규모가 축소됨	0.6
인건비 지원 바람	0.9	수요시장의 영세성으로 사양화	0.5
고 퀄리티를 요구하며 단가는 낮게 책정함	0.7	경쟁력이 심함	0.3
높은 인건비로 양질의 우수인력 채용이 어려움	0.4	시장이 포화상태임	0.3
◎ 디자인 인력 및 전문성 부족	7.4	영세기업에 입찰/수주 기회가 없음	0.3
전문 인력이 부족함	3.3	◎ 디자인 저작권 문제	1.3
신규 프로젝트 진행시 창의력이 부족함	0.9	지적재산권 보호가 안 됨/디자인 도용이 많음	0.7
이직률이 높음	0.5	용역에 의한 디자인 개발시 지적재산권이 인정 안 됨	0.3
기술정보가 부족함	0.3	중국에서 디자인 카피를 많이 함	0.3
통계자료가 부족함	0.3	◎ 기타	4.3
대기업 선호로 개인회사는 인력확보가 어려움	0.3	영업활동(판매/마케팅)이 어려움	0.7
◎ 정부 지원 및 제도 미비	5.8	근무환경 열악함	0.6
자금부족/정부의 자금지원 확대바람	3.2	용역비용 미지급 또는 계약해지 하는 경우 발생함	0.6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	0.5	인식부족으로 디자인의 품질이 향상되지 않음	0.3
디자인 관련 정도가 부족함	0.4	작업강도가 높음	0.3
전문 자문기관이 있었으면	0.3	증견/중소기업 인식부족으로 디자인개발에 소극적임	0.3
◎ 고객 응대의 어려움	4.5	없음	63.8
주관성이 강해 취향을 맞추기 어려움	1.3		
디자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음	0.9		

※ 모름/무응답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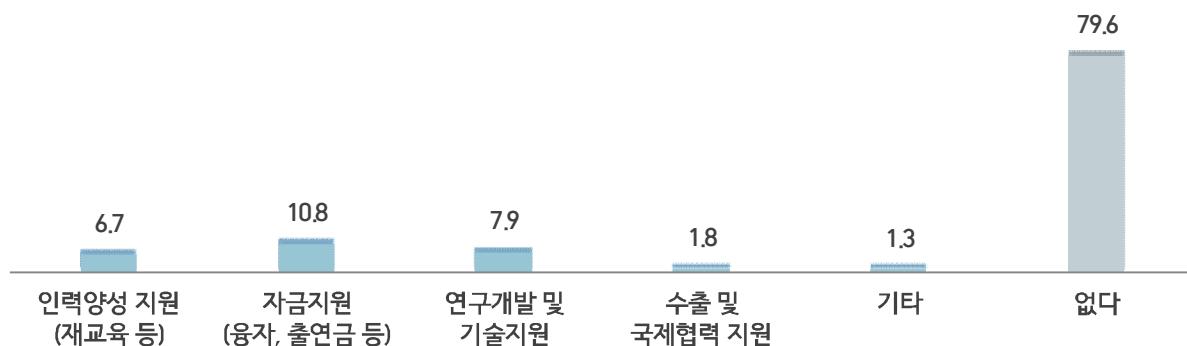
※ 비율 0.3% 이상만 제시함

4) 정부지원 여부

- 전문디자인업체가 받은 정부지원이 '없다'가 79.6%로 높게 나타났고, 수혜 받은 지원 내용은 '자금지원'(10.8%),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7.9%), '인력양성 지원'(6.7%) 등의 순임.

정부지원 여부

(단위: %, 중복응답)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지원받지 않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인테리어디자인의 정부지원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업종별 정부지원 여부

(단위: %)

구분		인력양성 지원 (재교육 등)	자금지원 (융자/ 출연금 등)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	기타	없다
전문디자인업체		6.7	10.8	7.9	1.8	1.3	79.6
업 종 별	제품디자인	10.2	14.5	19.2	2.7	0.0	68.2
	시각디자인	7.9	10.9	4.8	1.1	0.5	81.4
	인테리어디자인	2.4	6.8	2.0	0.0	2.0	89.3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4.1	10.6	6.1	4.5	3.9	79.8

- 권역별로 살펴보면, '자금지원'은 강원/제주(22.8%),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은 대전/충청(23.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는 5~9인 규모의 전문디자인업체의 '자금지원' 비율(17.0%)이 다른 규모 대비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정부지원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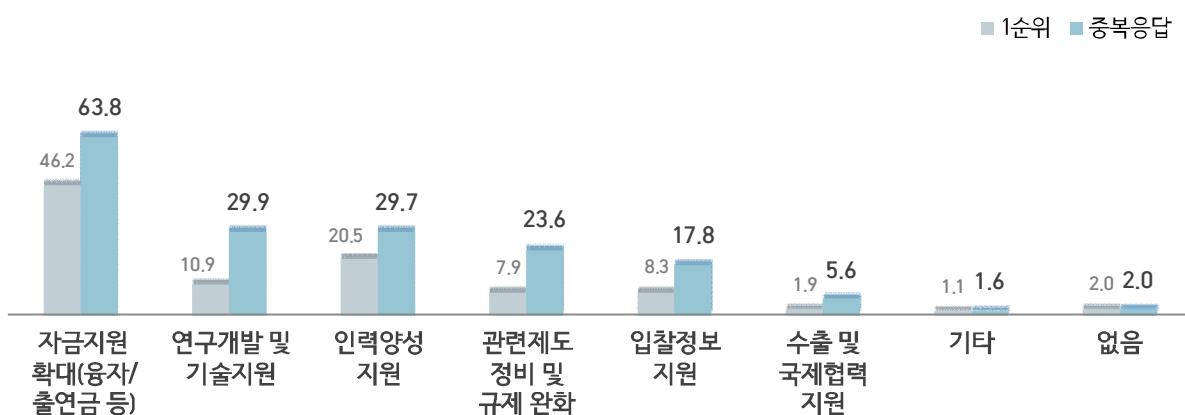
구분		인력양성 지원 (재교육 등)	자금지원 (융자/ 출연금 등)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	기타	없다
전문디자인업체		6.7	10.8	7.9	1.8	1.3	79.6
권 역 별	서울	4.7	9.4	5.3	2.2	1.5	82.5
	부산/울산/경남	9.5	13.4	12.7	2.1	0.0	75.4
	대구/경북	5.3	3.8	3.0	3.0	3.6	88.0
	인천	8.2	8.2	0.0	0.0	0.0	91.8
	경기	7.7	9.7	8.8	1.4	0.0	79.4
	광주/전라	14.6	17.4	14.8	0.0	0.0	70.0
	대전/충청	12.7	15.2	23.8	0.0	0.0	67.0
	강원/제주	0.0	22.8	0.0	0.0	5.8	71.4
규 모 별	1인	1.7	9.4	2.7	2.4	2.4	86.3
	2~4인	5.9	8.7	6.8	0.8	1.2	81.7
	5~9인	9.2	17.0	11.4	2.9	0.6	73.8
	10~14인	12.2	10.0	15.4	4.4	1.2	71.9
	15인 이상	12.7	10.8	12.3	1.1	1.6	71.9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7.1	10.6	8.5	1.4	1.0	79.0
	기타매출 50%↑	3.8	11.5	4.2	4.6	3.1	83.6
	반반	0.0	39.0	0.0	0.0	0.0	61.0

4-1)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중복응답)으로는 '자금지원 확대'가 63.8%로 가장 높고, 다음은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29.9%), '인력양성 지원'(29.7%), '관련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23.6%), '입찰정보 지원'(17.8%) 등의 순으로 높음.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자금지원 확대'가 가장 높은 가운데, 제품디자인(71.1%)과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70.5%), 인테리어디자인(69.7%)에서 시각디자인(52.9%) 대비 높게 나타남.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은 제품디자인(46.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자금지원 확대(융자/출연금 등)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인력양성 지원	관련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	입찰정보 지원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	기타	없음
전문디자인업체		63.8	29.9	29.7	23.6	17.8	5.6	1.6	2.0
업종별	제품디자인	71.1	46.9	25.1	18.5	14.2	8.8	1.2	0.2
	시각디자인	52.9	27.8	28.9	30.2	19.6	4.3	2.6	3.4
	인테리어디자인	69.7	20.1	31.5	24.0	23.2	2.5	1.5	2.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70.5	22.1	36.2	15.5	11.5	8.0	0.0	1.1

- 권역별로는, '자금지원 확대'는 인천(91.8%)에서 높고,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은 대전/충청(48.3%), 강원/제주(46.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전문디자인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음.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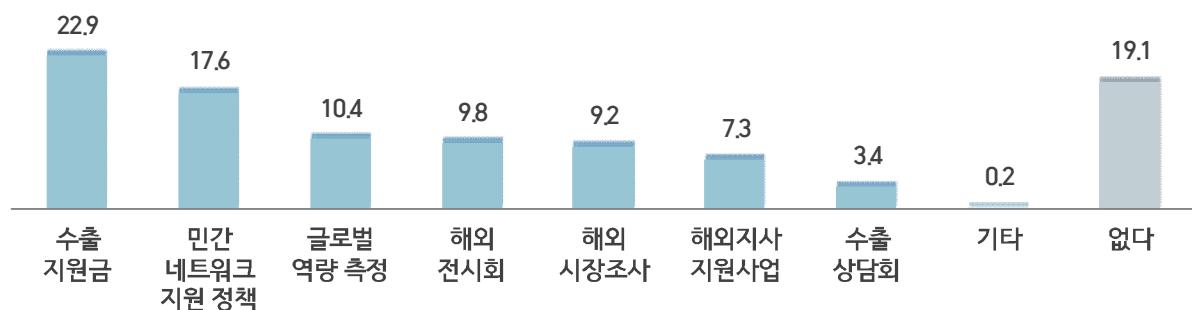
구분		자금지원 확대(융자, 출연금 등)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인력양성 지원	관련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	입찰정보 지원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	기타	없음
전문디자인업체		63.8	29.9	29.7	23.6	17.8	5.6	1.6	2.0
권역별	서울	62.1	27.1	28.7	24.9	17.5	6.4	1.8	1.7
	부산/울산/경남	67.4	28.2	23.0	33.2	12.5	5.8	1.1	1.5
	대구/경북	52.7	34.1	30.1	14.8	23.7	3.0	1.6	9.4
	인천	91.8	0.0	73.2	0.0	0.0	0.0	0.0	0.0
	경기	71.9	22.3	25.6	18.4	23.0	7.3	1.0	2.9
	광주/전라	67.1	39.7	36.5	26.5	13.9	2.8	0.0	0.0
	대전/충청	63.2	48.3	35.3	15.3	23.8	5.5	4.4	0.0
	강원/제주	66.6	46.0	38.6	22.2	11.5	0.0	0.0	0.0
규모별	1인	73.0	25.2	25.4	21.8	14.8	4.8	1.3	2.4
	2~4인	63.2	28.6	27.7	27.3	19.0	5.0	1.5	0.8
	5~9인	63.2	31.9	31.2	19.9	17.7	7.2	2.8	2.5
	10~14인	56.2	45.9	45.4	19.8	8.4	7.1	0.0	0.0
	15인 이상	52.0	30.4	39.0	15.5	25.8	5.7	0.0	10.7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63.1	30.8	30.9	23.8	17.3	6.0	1.6	1.8
	기타매출 50%↑	69.4	21.9	25.8	21.7	21.7	2.6	0.0	3.3
	반반	88.9	22.4	0.0	66.6	11.1	0.0	0.0	0.0

4-2)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 해외 시장으로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으로 '수출지원금'(22.9%)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민간 네트워크 지원 정책'(17.6%)이 뒤를 이음.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수출지원금'은 제품디자인(33.8%),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24.6%), '민간 네트워크 지원 정책'은 시각디자인(20.6%), 제품디자인(18.0%) 등의 순으로 높음.

▶ 업종별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단위: %)

구분		수출 지원금	민간 네트워크 지원 정책	글로벌 역량 측정	해외 전시회	해외 시장조사	해외지사 지원사업	수출 상담회	기타	없음
전문디자인업체		22.9	17.6	10.4	9.8	9.2	7.3	3.4	0.2	19.1
업종별	제품디자인	33.8	18.0	8.6	14.2	9.0	8.3	4.6	0.0	3.5
	시각디자인	16.8	20.6	8.6	6.3	10.8	8.0	2.0	0.0	26.8
	인테리어디자인	20.3	15.9	13.2	9.5	7.6	4.1	2.9	1.0	25.4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24.6	12.1	13.5	11.9	8.1	8.5	5.4	0.0	16.0

-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출지원금'은 인천(53.4%)에서 가장 높고, '민간 네트워크 지원 정책'은 강원/제주(48.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수출지원금'은 15인 이상 규모(35.7%), '민간네트워크 지원 정책'은 2~4인(22.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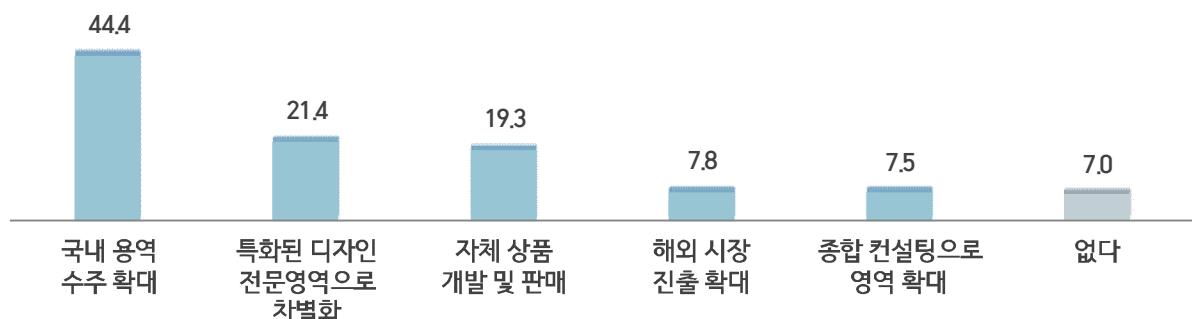
구분		수출 지원금	민간 네트워크 지원 정책	글로벌 역량 측정	해외 전시회	해외 시장조사	해외지사 지원사업	수출 상담회	기타	없음
전문디자인업체		22.9	17.6	10.4	9.8	9.2	7.3	3.4	0.2	19.1
권역별	서울	22.9	16.9	10.6	10.6	10.7	7.2	2.9	0.0	18.1
	부산/울산/경남	25.2	5.4	8.8	15.8	13.3	13.1	2.0	2.4	13.9
	대구/경북	13.5	28.1	13.5	7.6	0.8	5.5	3.6	0.0	27.4
	인천	53.4	0.0	19.8	26.8	0.0	0.0	0.0	0.0	0.0
	경기	23.6	25.6	5.2	7.9	9.0	3.2	5.6	0.0	19.8
	광주/전라	31.8	5.6	14.2	5.1	8.4	3.4	7.2	0.0	24.2
	대전/충청	23.0	19.9	13.6	7.8	1.5	13.2	0.0	0.0	21.0
	강원/제주	3.1	48.6	3.1	0.0	9.2	8.0	7.2	0.0	20.7
규모별	1인	21.5	13.5	8.2	12.0	8.0	4.4	6.8	1.3	24.4
	2~4인	20.7	22.2	9.2	11.6	9.1	6.3	2.8	0.0	18.0
	5~9인	25.9	13.9	14.9	5.1	9.7	6.5	3.5	0.0	20.5
	10~14인	22.5	12.2	13.8	5.2	13.9	16.5	0.0	0.0	15.9
	15인 이상	35.7	8.7	6.4	11.3	7.4	18.6	2.0	0.0	9.9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22.9	18.3	9.9	11.2	9.6	7.5	3.8	0.0	16.9
	기타매출 50%↑	24.0	8.9	16.3	2.1	8.4	2.5	1.6	1.7	34.6
	반반	16.6	38.7	0.0	0.0	0.0	22.4	0.0	0.0	22.4

5) 향후 매출 증대 방안

- 향후 매출 증대 방안으로는 ‘국내 용역 수주 확대’가 44.4%로 가장 높고, 다음은 ‘특화된 디자인 전문영역으로 차별화’(21.4%), ‘자체 상품 개발 및 판매’(19.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향후 매출 증대 방안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국내 용역 수주 확대’는 인테리어디자인(60.8%)이 가장 높고, ‘자체 상품 개발 및 판매’는 제품디자인(32.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향후 매출 증대 방안

(단위: %)

구분		국내 용역 수주 확대	특화된 디자인 전문영역으로 차별화	자체 상품 개발 및 판매	해외 시장 진출 확대	종합 컨설팅으로 영역 확대
전문디자인업체		44.4	21.4	19.3	7.8	7.5
업종별	제품디자인	32.7	23.2	32.8	14.4	3.4
	시각디자인	45.7	23.6	15.9	4.5	6.9
	인테리어디자인	60.8	23.4	9.0	1.9	10.5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37.0	11.0	20.7	13.5	11.1

- ❖ 권역별로 살펴보면, ‘국내 용역 수주 확대’는 인천(100.0%)에서 가장 높고, ‘특화된 디자인 전문영역으로 차별화’는 대구/경북(30.6%), 대전/충청(29.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전반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국내 용역 수주 확대’가 높은 가운데, 10~14인 규모(57.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향후 매출 증대 방안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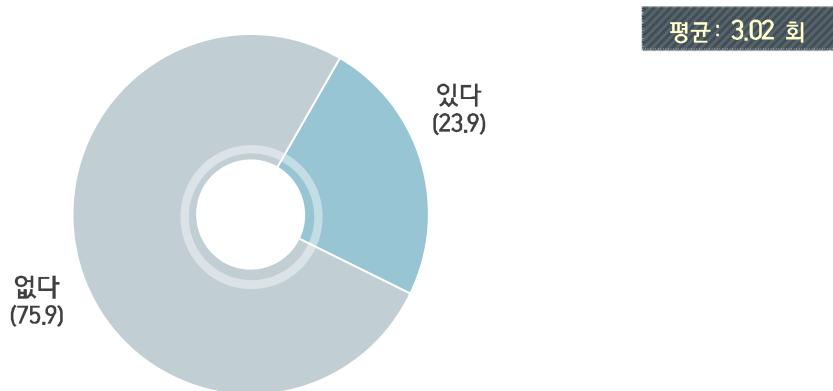
구분		국내 용역 수주 확대	특화된 디자인 전문영역으로 차별화	자체 상품 개발 및 판매	해외 시장 진출 확대	종합 컨설팅으로 영역 확대
전문디자인업체		44.4	21.4	19.3	7.8	7.5
권 역 별	서울	44.4	22.3	15.6	10.5	7.9
	부산/울산/경남	43.3	22.8	23.5	5.9	3.1
	대구/경북	43.3	30.6	19.2	0.0	4.6
	인천	100.0	26.6	0.0	0.0	0.0
	경기	33.1	14.9	27.3	12.0	6.3
	광주/전라	49.8	14.5	26.5	1.2	8.2
	대전/충청	41.3	29.7	28.1	0.0	12.2
	강원/제주	65.1	3.1	18.2	0.0	13.5
규 모 별	1인	45.3	18.3	15.6	5.8	7.6
	2~4인	44.4	21.3	20.9	6.5	8.2
	5~9인	40.2	26.4	21.5	9.3	5.9
	10~14인	57.5	17.4	11.8	8.2	6.1
	15인 이상	46.4	16.4	14.2	18.9	9.4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44.1	21.2	20.6	8.1	6.5
	기타매출 50%↑	49.2	22.2	11.7	7.5	13.7
	반반	61.0	0.0	16.6	0.0	0.0

6) 부당한 처우 경험

- 전문디자인업체 10곳 중 2곳 이상(23.9%)에서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고 있음.

부당한 처우 경험 비율 및 횟수

(단위: %)



* 모름/무응답 : 0.3%

- 업종별로 부당한 처우 경험이 비슷하게 나타난 가운데, 제품디자인(26.8%, 평균 3.48회)이 다른 업종 대비 다소 높은 비율을 보임.

▶ 업종별 부당한 처우 경험 비율 및 횟수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횟수(회)
전문디자인업체		23.9	75.9	3.02
업종별	제품디자인	26.8	73.2	3.48
	시각디자인	24.7	74.6	3.22
	인테리어디자인	20.8	79.2	2.15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21.7	78.3	2.80

- 권역별로 살펴보면, 인천(61.8%)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경기(32.7%), 서울(24.7%), 광주/전라(23.3%) 등의 순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부당한 처우 경험 비율이 높은 가운데, 1인기업의 27.1%가 부당한 처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부당한 처우 경험 비율 및 횟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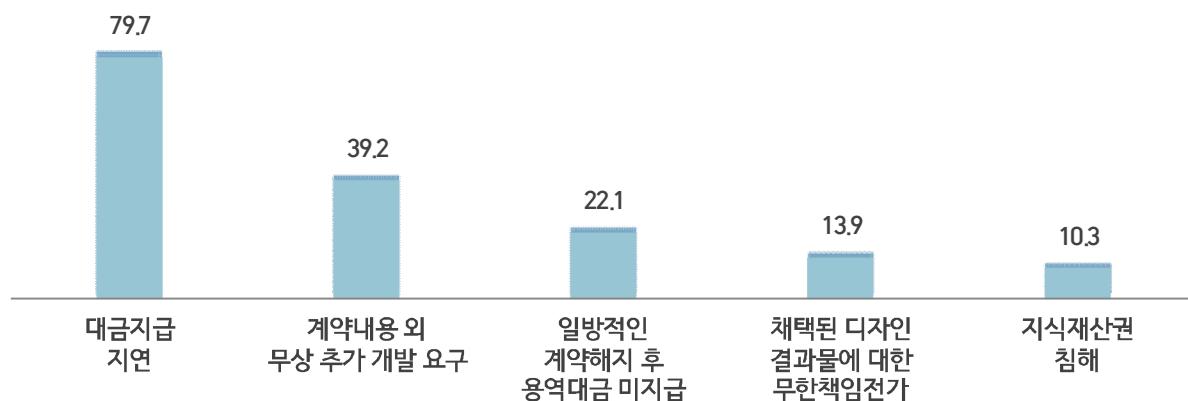
구분		있다	없다	횟수(회)
전문디자인업체		23.9	75.9	3.02
권 역 별	서울	24.7	74.8	2.61
	부산/울산/경남	19.9	80.1	2.31
	대구/경북	10.2	89.8	1.34
	인천	61.8	38.2	2.70
	경기	32.7	67.3	5.15
	광주/전라	23.3	76.7	3.07
	대전/충청	19.0	81.0	3.80
	강원/제주	21.3	78.7	3.15
규 모 별	1인	27.1	72.9	2.55
	2~4인	24.6	75.4	2.99
	5~9인	23.7	75.0	3.29
	10~14인	14.0	86.0	2.32
	15인 이상	18.4	81.6	4.61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24.2	75.4	3.05
	기타매출 50%↑	22.6	77.4	2.13
	반반	0.0	100.0	6.76

6-1) 부당한 처우 피해 유형

- 부당한 처우의 피해 유형(중복응답 기준)으로는 '대금지급 지연'(79.7%)이 가장 높고, 이어 '계약내용 외 무상 추가 개발 요구'(39.2%), '일방적인 계약해지 후 용역대금 미지급'(22.1%), '채택된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무한 책임전가'(13.9%), '지식재산권 침해'(10.3%) 등의 부당 처우 항목을 보임.

부당한 처우 피해 유형

(단위: %, 중복응답)



※ 모름/무응답 : 1.9%

-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금지급 지연'은 인테리어디자인(86.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89.7%)에서 높고, '계약내용 외 무상 추가개발 요구'는 시각디자인(55.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부당한 처우 피해 유형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대금지급 지연	계약내용 외 무상 추가 개발 요구	일방적인 계약해지 후 용역대금 미지급	채택된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무한 책임전가	지식재산권 침해
전문디자인업체	79.7	39.2	22.1	13.9	10.3
업종별	제품디자인	75.8	34.6	38.0	11.6
	시각디자인	75.8	55.2	16.0	14.6
	인테리어디자인	86.0	21.0	14.4	14.5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89.7	27.3	19.3	2.2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금지급 지연'은 인천, 대전/충청에서 높고, '계약내용 외 무상 추가 개발 요구'는 강원/제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는 15인 이상에서 '대금지급 지연'이 가장 높고, 10~14인 규모에서는 '계약내용 외 무상 추가 개발 요구'가 다른 기업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부당한 처우 피해 유형

(단위: %, 증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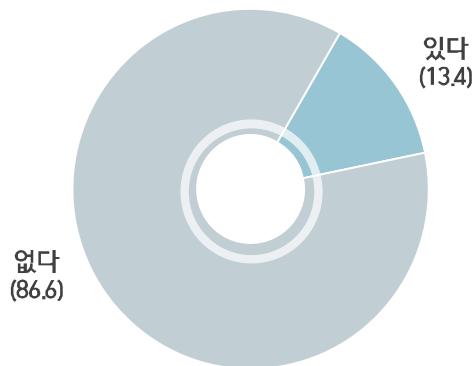
구분	대금지급 지연	계약내용 외 무상 추가 개발 요구	일방적인 계약해지 후 용역대금 미지급	채택된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무한책임전가	지식재산권 침해
전문디자인업체	79.7	39.2	22.1	13.9	10.3
권역별	서울	83.8	42.2	21.0	14.6
	부산/울산/경남	74.0	24.0	38.6	8.8
	대구/경북	56.5	37.3	15.5	10.9
	인천	100.0	13.2	13.2	0.0
	경기	74.4	31.5	18.3	15.7
	광주/전라	80.1	27.0	15.4	30.1
	대전/충청	92.2	51.8	10.8	0.0
	강원/제주	14.7	85.3	72.7	0.0
규모별	1인	93.8	16.3	19.7	4.8
	2~4인	79.7	39.1	17.2	17.2
	5~9인	65.7	56.0	31.1	13.3
	10~14인	71.1	76.2	42.2	22.9
	15인 이상	100.0	22.1	27.1	11.8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78.3	38.0	20.9	13.4
	기타매출 50%↑	86.8	40.9	34.9	19.7
	반반	-	-	-	-

7)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전문디자인업체 13.4%는 디자인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외 86.6%의 전문디자인업체는 디자인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고 있음.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품디자인(20.4%)이 가장 높고, 다음은 시각디자인(13.5%),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10.0%) 등의 순임.

▶ 업종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전문디자인업체		13.4	86.6
업종별	제품디자인	20.4	79.6
	시각디자인	13.5	86.5
	인테리어디자인	7.9	92.1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10.0	9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은 인천(61.8%)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강원/제주(24.3%), 광주/전라(21.9%) 등의 순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5~9인(21.2%) 규모에서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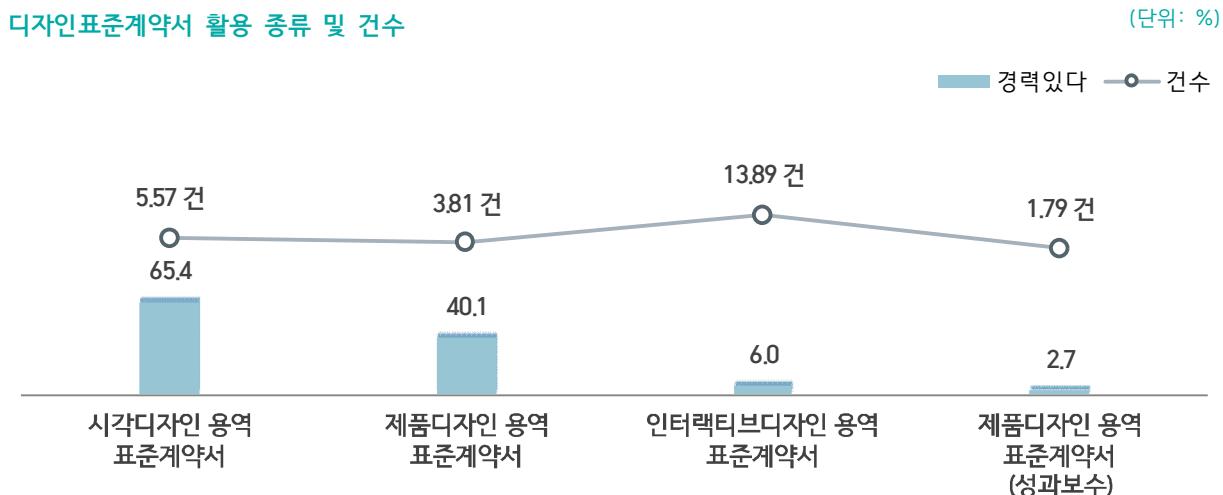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전문디자인업체		13.4	86.6
권 역 별	서울	12.6	87.4
	부산/울산/경남	16.7	83.3
	대구/경북	9.3	90.7
	인천	61.8	38.2
	경기	7.2	92.8
	광주/전라	21.9	78.1
	대전/충청	7.7	92.3
	강원/제주	24.3	75.7
규 모 별	1인	9.1	90.9
	2~4인	11.1	88.9
	5~9인	21.2	78.8
	10~14인	18.1	81.9
	15인 이상	11.2	88.8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14.3	85.7
	기타매출 50%↑	8.0	92.0
	반반	22.4	77.6

7-1)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 및 건수

-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로는 '시각디자인 용역'이 65.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제품디자인 용역'(40.1%)이 뒤를 이음. 한편, '인터랙티브디자인 용역'(6.0%), '제품디자인 용역(성과 보수)’(2.7%)의 활용도는 낮음.



* 모름/무응답 : 2.8%

-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시각디자인(88.9%)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제품디자인(55.9%),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44.0%), 인테리어디자인(42.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 및 건수

(단위: %)

구분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인터랙티브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성과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전문디자인업체	65.4	5.57	40.1	3.81	6.0	13.89	2.7	1.79
업종별	제품디자인	55.9	5.5	62.8	4.1	4.5	5.0	1.4
	시각디자인	88.9	5.9	16.4	3.6	0.0	-	-
	인테리어디자인	42.6	5.2	50.8	1.4	12.8	4.0	0.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44.0	3.7	33.6	6.0	22.4	25.5	4.9

-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제주, 대구/경북에서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전/충청에서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가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 및 건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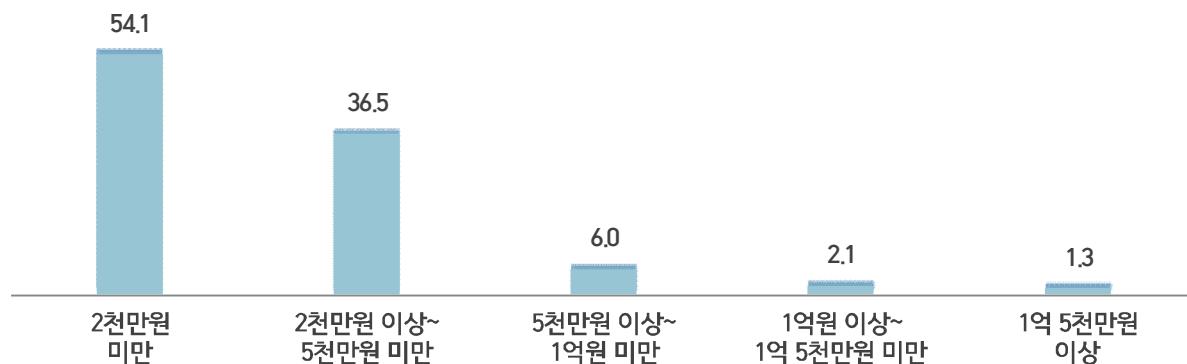
구분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인터넷티브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성과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전문디자인업체		65.4	5.57	40.1	3.81	6.0	13.89	2.7	1.79
권 역 별	서울	55.7	4.3	36.4	4.6	11.2	13.9	4.5	1.8
	부산/울산/경남	81.3	7.5	44.3	4.2	0.0	-	0.0	-
	대구/경북	91.6	4.1	40.6	2.4	0.0	-	0.0	-
	인천	56.6	38.7	56.6	9.3	0.0	-	0.0	-
	경기	60.1	4.6	46.6	1.7	0.0	-	0.0	-
	광주/전라	80.9	4.3	35.3	1.5	0.0	-	2.7	-
	대전/충청	36.2	2.7	73.3	2.2	0.0	-	0.0	-
	강원/제주	100.0	1.2	38.0	1.0	0.0	-	0.0	-
규 모 별	1인	55.4	2.3	14.5	3.0	11.7	1.0	0.0	-
	2~4인	66.8	5.4	42.0	3.0	3.3	50.0	0.0	-
	5~9인	63.3	4.8	43.3	3.5	9.4	4.5	5.8	1.9
	10~14인	72.2	12.3	66.2	8.0	0.0	-	9.2	1.0
	15인 이상	80.5	7.1	19.5	3.0	0.0	-	0.0	-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67.3	5.7	42.6	3.6	5.1	17.6	2.6	1.9
	기타매출 50%↑	49.7	4.9	4.7	5.0	17.6	1.0	4.7	1.0
	반반	0.0	-	100.0	10.0	0.0	-	0.0	-

7-2) 디자인표준계약서 평균 계약금액

- 디자인 표준계약서의 평균 계약금액은 '2천만 원 미만'이 54.1% 비율로 가장 높고, 다음은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36.5%), '5천만 원~1억 원 미만'(6.0%), '1억 원~1억 5천만 원 미만'(2.1%), '1억 5천만 원 이상'(1.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디자인표준계약서 평균 계약금액

(단위: %)



- 업종별 계약금액은 '2천만 원 미만'은 시각디자인(75.1%)에서 높고, '2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은 인테리어디자인(63.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평균 계약금액

(단위: %)

구분		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1억 5천만 원 미만	1억 5천만 원 이상
전문디자인업체		54.1	36.5	6.0	2.1	1.3
업종별	제품디자인	46.9	47.7	4.5	1.0	0.0
	시각디자인	75.1	21.3	2.6	1.0	0.0
	인테리어디자인	31.8	63.1	5.1	0.0	0.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33.6	21.6	22.4	11.2	11.2

-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에서 '2천만 원 미만' 대의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이 높고, '2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은 대전/충청, 강원/제주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계약금액이 낮을수록 작은 규모의 전문디자인 업체의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평균 계약금액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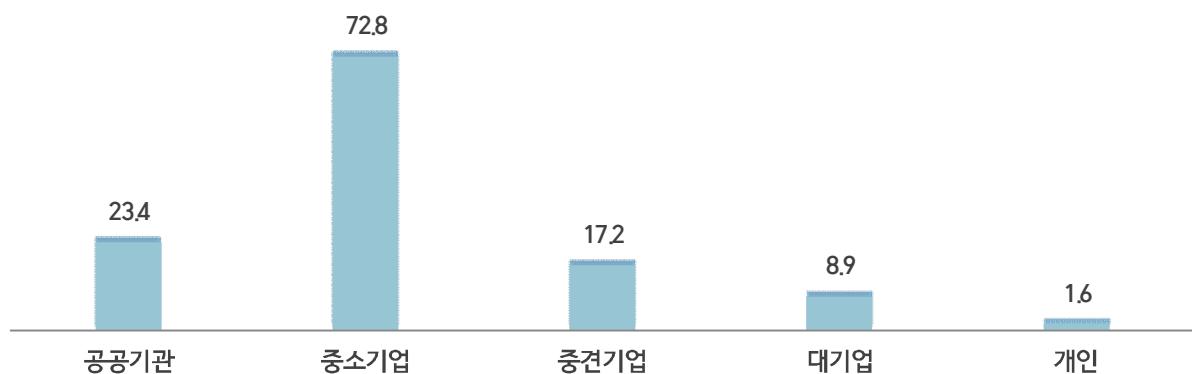
구분		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1억 5천만 원 미만	1억 5천만 원
전문디자인업체		54.1	36.5	6.0	2.1	1.3
권 역 별	서울	55.1	33.5	5.6	3.2	2.5
	부산/울산/경남	52.7	47.3	0.0	0.0	0.0
	대구/경북	54.1	37.6	0.0	8.4	0.0
	인천	13.2	43.4	43.4	0.0	0.0
	경기	91.4	8.6	0.0	0.0	0.0
	광주/전라	60.3	29.4	10.3	0.0	0.0
	대전/충청	36.2	63.8	0.0	0.0	0.0
	강원/제주	38.0	62.0	0.0	0.0	0.0
규 모 별	1인	85.5	14.5	0.0	0.0	0.0
	2~4인	56.5	26.5	10.5	3.3	3.3
	5~9인	47.3	49.9	2.8	0.0	0.0
	10~14인	22.4	64.4	8.6	4.6	0.0
	15인 이상	60.3	31.7	0.0	8.0	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50.5	39.1	6.6	2.3	1.5
	기타매출 50%↑	95.3	4.7	0.0	0.0	0.0
	반반	100.0	0.0	0.0	0.0	0.0

7-3) 디자인표준계약서 사용대상

- 디자인표준계약서 사용대상으로는(중복응답 기준) ‘중소기업’이 72.8%로 가장 높고, 다음은 ‘공공기관’(23.4%), ‘중견기업’(17.2%), ‘대기업’(8.9%) 등의 순을 보임.

디자인표준계약서 사용 대상

(단위: %, 중복응답)



- 업종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제품디자인(90.4%), 인테리어디자인(75.9%), 시각디자인(69.0%)에서 높고, ‘공공기관’은 시각디자인(35.6%),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27.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디자인표준계약서 사용 대상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공공기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개인
전문디자인업체		23.4	72.8	17.2	8.9	1.6
업종별	제품디자인	13.7	90.4	11.8	6.4	0.0
	시각디자인	35.6	69.0	13.1	2.6	0.0
	인테리어디자인	11.3	75.9	25.6	12.8	12.8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27.3	27.3	38.5	32.8	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인천과 대전/충청에서 높고, '공공기관'은 강원/제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의 기업이 4인 이하 기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기관'은 1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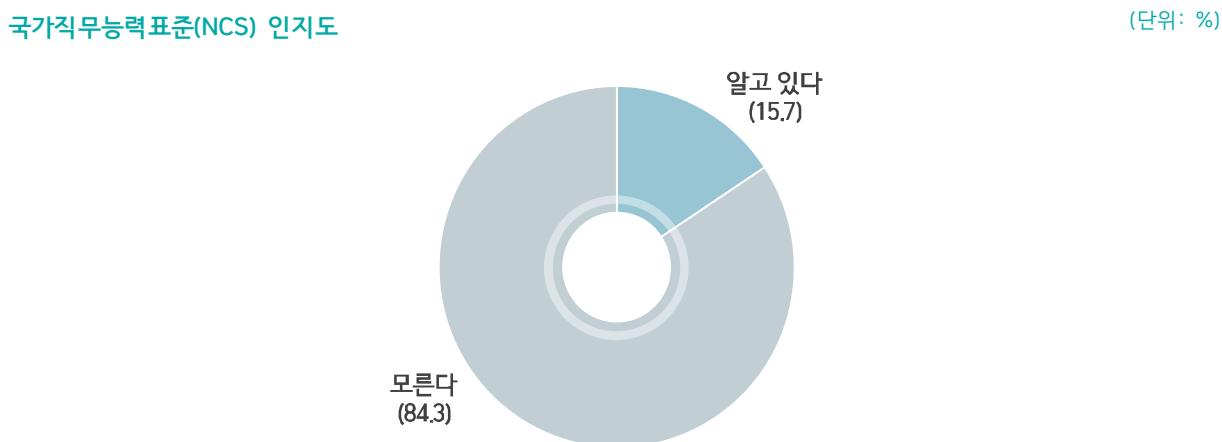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표준계약서 사용 대상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공공기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개인
전문디자인업체		23.4	72.8	17.2	8.9	1.6
권 역 별	서울	19.7	71.3	29.6	16.8	0.0
	부산/울산/경남	23.3	81.2	0.0	0.0	14.6
	대구/경북	42.1	57.9	0.0	0.0	0.0
	인천	13.2	100.0	13.2	0.0	0.0
	경기	13.6	86.4	0.0	0.0	0.0
	광주/전라	29.5	70.5	7.7	0.0	0.0
	대전/충청	0.0	100.0	0.0	0.0	0.0
	강원/제주	62.0	38.0	0.0	0.0	0.0
규 모 별	1인	36.9	69.9	0.0	11.7	0.0
	2~4인	20.9	69.4	23.0	3.3	0.0
	5~9인	22.3	78.2	17.7	15.9	0.0
	10~14인	31.0	72.8	16.0	0.0	0.0
	15인 이상	7.5	70.5	8.0	14.0	35.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23.5	73.8	19.1	8.4	0.0
	기타매출 50%↑	28.0	54.4	0.0	17.6	21.8
	반반	0.0	100.0	0.0	0.0	0.0

8)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 전문디자인업체를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해 대부분(84.3%)의 업체가 '모른다'로 나타났으며, 그 외 15.7%가 '알고 있다'로 나타남.



- 업종별 인지도는 제품디자인(22.1%)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다음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16.1%), 시각디자인(14.7%) 등의 순으로 높음.

▶ 업종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단위: %)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전문디자인업체		15.7	84.3
업종별	제품디자인	22.1	77.9
	시각디자인	14.7	85.3
	인테리어디자인	9.8	90.2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16.1	83.9

- 권역별로 살펴보면, 국가직무능력표준 인지도는 대전/충청(36.8%), 강원/제주(27.4%)에서 높은 반면, 경기(5.1%)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인지도가 높은 특징을 보이는 가운데, 15인 이상 규모에서 27.4%로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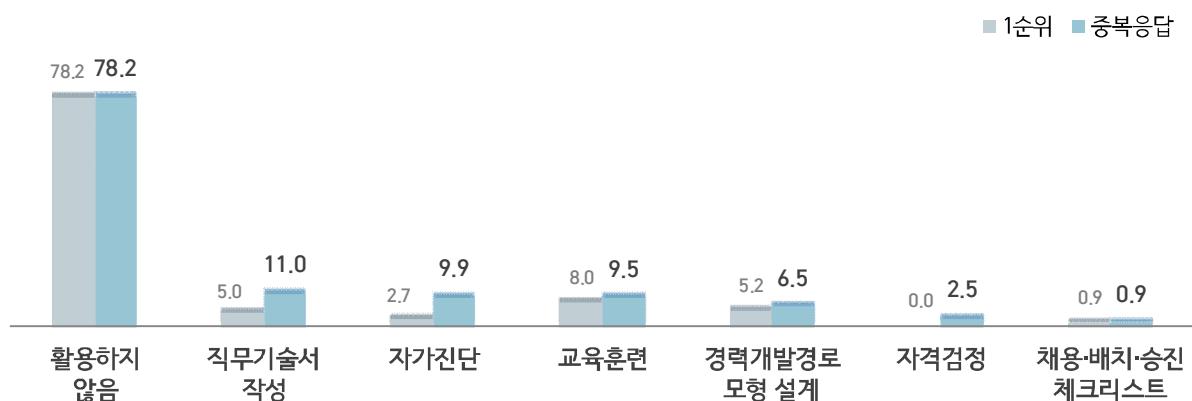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전문디자인업체		15.7	84.3
권 역 별	서울	15.7	84.3
	부산/울산/경남	12.3	87.7
	대구/경북	9.8	90.2
	인천	8.2	91.8
	경기	5.1	94.9
	광주/전라	15.5	84.5
	대전/충청	36.8	63.2
	강원/제주	27.4	72.6
규 모 별	1인	16.1	83.9
	2~4인	11.6	88.4
	5~9인	18.7	81.3
	10~14인	26.9	73.1
	15인 이상	27.4	72.6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15.6	84.4
	기타매출 50%↑	12.4	87.6
	반반	44.7	55.3

8-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다'가 78.2%로 압도적으로 높고, 그 외 '직무기술서 작성'(11.0%), '자가진단'(9.9%), '교육훈련'(9.5%) 등에 활용한다는 순으로 나타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단위: %, 중복응답)



- 업종별로 살펴보면, '직무기술서 작성'은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16.5%), 제품디자인(15.1%), '자가진단'은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17.3%), '교육훈련'은 제품디자인(16.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직무기술서 작성	자가진단	교육훈련	경력개발 경로 모형 설계	자격검정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	활용하지 않음
전문디자인업체		11.0	9.9	9.5	6.5	2.5	0.9	78.2
업종	제품디자인	15.1	6.2	16.0	14.5	5.9	2.7	68.3
	시각디자인	4.8	9.9	9.7	1.2	1.2	0.0	85.5
	인테리어디자인	10.2	10.2	0.0	0.0	0.0	0.0	89.8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16.5	17.3	3.4	6.9	0.0	0.0	73.1

- 권역별로 살펴보면, '직무기술서 작성'은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전/충청, '자가진단'은 서울, 대구/경북, 대전/충청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는 10~14인에서 '직무기술서 작성'과 '교육훈련'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자가진단'의 경우 1인 기업에서 활용도가 다소 높음.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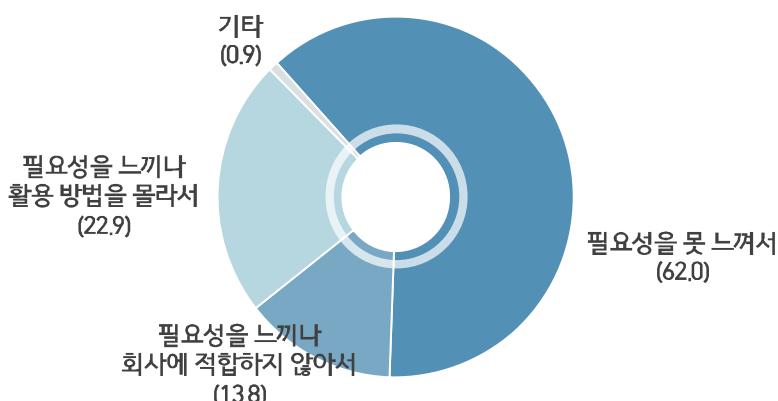
구분		직무기술서 작성	자가진단	교육훈련	경력개발 경로 모형 설계	자격검정	채용·배치· 승진 체크리스트	활용하지 않음
전문디자인업체		11.0	9.9	9.5	6.5	2.5	0.9	78.2
권 역 별	서울	14.0	10.7	7.1	4.4	0.5	0.5	80.7
	부산/울산/경남	14.2	0.0	8.7	0.0	0.0	0.0	85.8
	대구/경북	0.0	22.6	27.1	7.9	19.2	0.0	61.5
	인천	0.0	0.0	100.0	0.0	0.0	0.0	0.0
	경기	0.0	0.0	0.0	0.0	0.0	0.0	100.0
	광주/전라	0.0	0.0	11.7	11.7	0.0	0.0	88.3
	대전/충청	13.3	19.4	11.9	18.6	9.3	4.0	58.0
	강원/제주	0.0	0.0	11.4	0.0	0.0	0.0	88.6
규 모 별	1인	0.0	17.0	10.4	0.0	0.0	0.0	83.0
	2~4인	10.9	7.0	1.7	7.8	3.9	0.0	83.6
	5~9인	14.5	9.0	8.1	8.9	0.0	2.3	78.6
	10~14인	17.1	12.0	33.9	10.7	10.7	3.1	54.1
	15인 이상	15.8	8.8	16.4	3.1	0.0	0.0	72.2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11.3	7.9	8.7	7.4	2.9	1.1	78.3
	기타매출 50%↑	3.0	3.0	3.0	3.0	0.0	0.0	94.0
	반반	50.0	50.0	0.0	0.0	0.0	0.0	50.0

8-2)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62.0%로 가장 높고, 다음은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22.9%),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13.8%), '기타'(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필요성을 못 느껴서'는 인테리어디자인(74.0%)에서 높고, 다음은 시각디자인(67.3%), 제품디자인(60.2%) 등의 순으로 높음.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는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3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62.0	13.8	22.9	0.9
업 종 별	제품디자인	60.2	17.2	22.5	0.0
	시각디자인	67.3	9.2	22.5	0.0
	인테리어디자인	74.0	9.2	11.4	5.5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39.6	23.6	36.7	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필요성을 못 느껴서'는 인천, 강원/제주,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는 광주/전라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필요성을 못 느껴서'는 1인,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는 2~4인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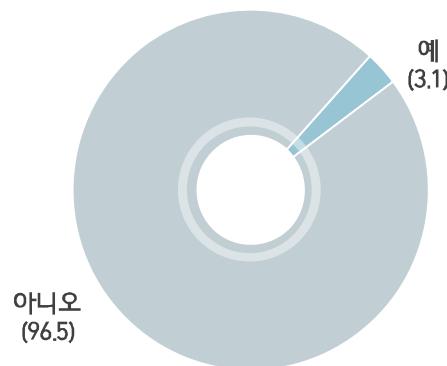
구분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62.0	13.8	22.9	0.9
권 역 별	서울	62.0	12.9	25.1	0.0
	부산/울산/경남	71.7	7.1	10.1	11.1
	대구/경북	18.3	68.0	0.0	0.0
	인천	100.0	0.0	0.0	0.0
	경기	46.6	20.5	32.8	0.0
	광주/전라	56.9	3.4	39.6	0.0
	대전/충청	76.0	24.0	0.0	0.0
	강원/제주	92.1	0.0	7.9	0.0
규 모 별	1인	67.3	12.1	18.4	2.2
	2~4인	41.0	15.9	43.1	0.0
	5~9인	33.8	30.4	35.8	0.0
	10~14인	60.1	30.9	4.5	0.0
	15인 이상	59.8	13.8	24.9	1.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78.7	18.1	3.2	0.0
	기타매출 50%↑	0.0	0.0	100.0	0.0
	반반	100.0	0.0	0.0	0.0

9) 세액공제 적용 여부

- 전문디자인업체의 3.1%가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대부분(96.5%)의 전문디자인업체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세액공제 적용 여부

(단위: %)



※ 모름/무응답 : 0.4%

-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에서 세액공제 적용에 대해 '아니오'가 90.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업종은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7.0%)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세액공제 적용 여부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전문디자인업체		3.1	96.5
업종별	제품디자인	2.3	97.7
	시각디자인	2.5	96.6
	인테리어디자인	1.9	97.7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7.0	93.0

- 모든 권역과 규모, 매출구성에서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비율이 낮게 나온 가운데, 대구/경북(6.9%)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문디자인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세액공제 적용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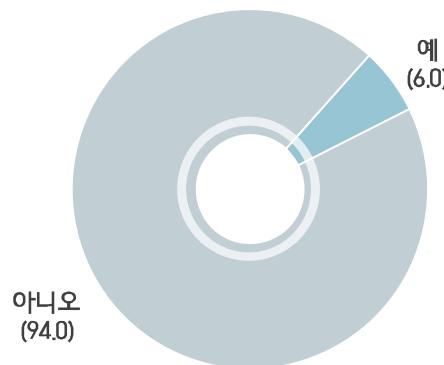
구분		예	아니오
전문디자인업체		4.5	95.5
권 역 별	서울	4.0	95.4
	부산/울산/경남	0.7	99.3
	대구/경북	6.9	92.3
	인천	0.0	100.0
	경기	2.3	97.7
	광주/전라	0.0	100.0
	대전/충청	1.5	98.5
	강원/제주	0.0	100.0
규 모 별	1인	0.0	100.0
	2~4인	2.9	97.1
	5~9인	3.7	95.0
	10~14인	4.4	94.0
	15인 이상	9.9	89.2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3.3	96.3
	기타매출 50%↑	2.1	97.2
	반반	0.0	100.0

10)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경험

-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 비즈니스를 수행한 경험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업체는 6.0%(디자인활용업체 : 2.7%), ‘아니오’는 94.0%로 나타남.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경험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한 업체는 제품디자인(14.4%)에서 가장 높고, 그 외 업종은 5% 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경험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업종별	전문디자인업체	6.0	94.0
	제품디자인	14.4	85.6
	시각디자인	3.8	96.2
	인테리어디자인	1.4	98.6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4.8	95.2

-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경험은 인천(26.8%), 광주/전라(13.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는 수행 경험이 5~9인(11.2%)과 15인 이상(16.7%)에서 다른 규모 대비 높음.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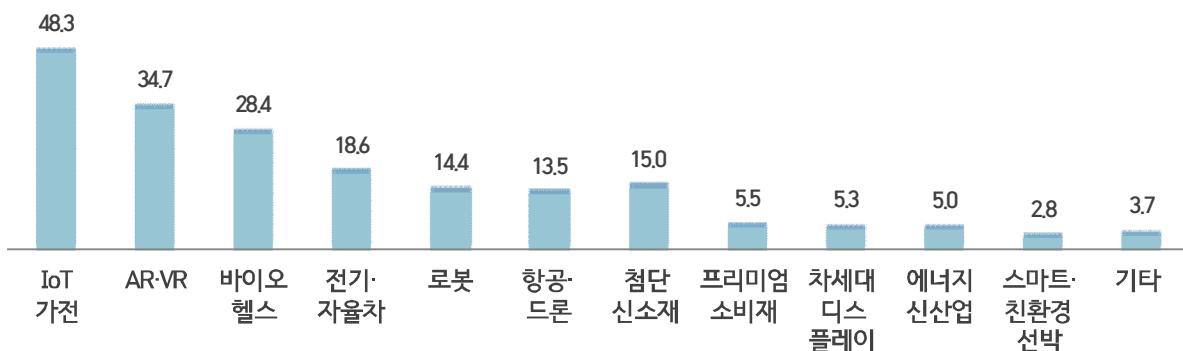
구분		예	아니오
전문디자인업체		6.0	94.0
권 역 별	서울	6.1	93.9
	부산/울산/경남	5.3	94.7
	대구/경북	3.1	96.9
	인천	26.8	73.2
	경기	4.6	95.4
	광주/전라	13.9	86.1
	대전/충청	2.2	97.8
	강원/제주	0.0	100.0
규 모 별	1인	1.3	98.7
	2~4인	3.7	96.3
	5~9인	11.2	88.8
	10~14인	9.3	90.7
	15인 이상	16.7	83.3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6.2	93.8
	기타매출 50%↑	6.0	94.0
	반반	0.0	100.0

10-1)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분야

-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분야로는 'IoT 가전'이 48.3%로 가장 높고, 다음은 'AR·VR'(34.7%), '바이오 헬스'(2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분야

(단위: %)



* 기타 : 3d프린팅 모델링(3.7%), 없음 : 1.3%, 모름/무응답(4.7%)

- 업종별로 살펴보면, 'IoT 가전'은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68.2%)에서 가장 높고, 'AR·VR'은 인테리어디자인(65.3%), 시각디자인(62.4%), '바이오 헬스'는 제품디자인(41.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분야

(단위: %, 중복응답)

구분		IoT 가전	AR·VR	바이오 헬스	전기·자율차	로봇	항공·드론	첨단신소재	프리미엄 소비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친환경 선박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48.3	34.7	28.4	18.6	14.4	13.5	15.0	5.5	5.3	5.0	2.8	3.7
업종별	제품디자인	50.2	18.5	41.7	19.8	21.4	18.1	20.7	9.4	9.0	1.4	2.7	6.3
	시각디자인	36.0	62.4	11.7	4.7	8.2	0.0	0.0	0.0	0.0	0.0	5.1	0.0
	인테리어디자인	34.7	65.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68.2	44.9	10.2	46.6	0.0	23.3	23.3	0.0	0.0	33.5	0.0	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IoT 가전'은 대구/경북(100.0%), 'AR·VR'은 광주/전라(66.7%), '바이오 헬스'는 부산/울산/경남(87.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IoT 가전'은 10~14인(58.2%), 'AR·VR'은 2~4인(52.1%) 규모에서 다른 규모 대비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분야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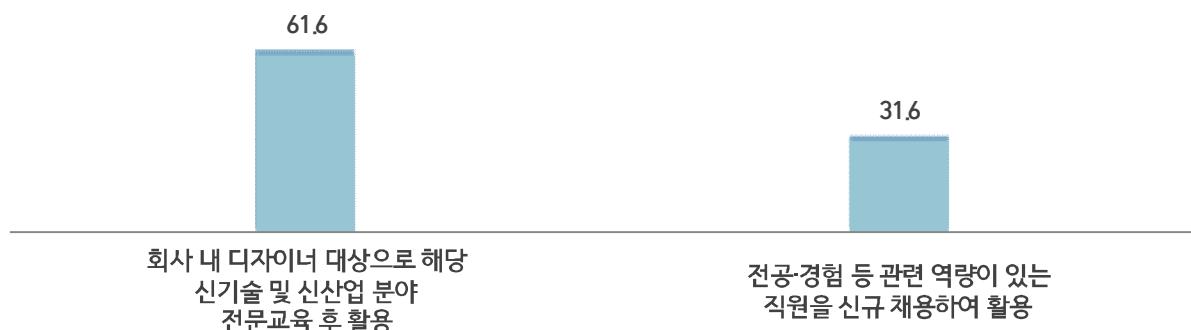
구분		IoT 가전	AR·VR	바이오 헬스	전기- 자율차	로봇	항공 드론	첨단신 소재	프리 미엄 소비재	차세대 디스 플레이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친환경 선박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48.3	34.7	28.4	18.6	14.4	13.5	15.0	5.5	5.3	5.0	2.8	3.7
권 역 별	서울	43.5	35.5	10.7	14.8	7.0	6.6	6.4	1.8	2.8	2.3	2.1	6.4
	부산/울산/경남	46.6	0.0	87.1	20.2	20.2	46.6	12.9	0.0	0.0	0.0	20.2	0.0
	대구/경북	100.0	27.1	63.5	36.5	63.5	0.0	0.0	0.0	0.0	0.0	0.0	0.0
	인천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경기	48.9	19.4	70.2	10.5	0.0	10.5	0.0	0.0	0.0	0.0	0.0	0.0
	광주/전라	66.7	66.7	40.5	36.5	24.6	29.0	36.5	20.2	20.2	16.3	0.0	0.0
	대전/충청	33.0	0.0	33.0	0.0	100.0	0.0	0.0	33.0	0.0	33.0	0.0	0.0
	강원/제주	-	-	-	-	-	-	-	-	-	-	-	-
규 모 별	1인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2~4인	45.5	52.1	47.9	21.6	12.0	23.9	21.6	12.0	12.0	9.6	0.0	12.0
	5~9인	52.4	20.4	22.6	22.8	17.5	13.0	0.0	0.0	0.0	3.1	3.9	0.0
	10~14인	58.2	32.8	30.9	9.0	21.9	9.0	0.0	9.0	9.0	9.0	0.0	0.0
	15인 이상	48.7	47.4	10.7	11.6	10.4	0.0	30.1	6.5	5.0	0.0	7.8	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55.3	25.2	32.5	21.3	16.5	15.5	17.2	6.3	6.0	5.8	3.2	4.2
	기타매출 5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반반	-	-	-	-	-	-	-	-	-	-	-	-

10-2)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활용

-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활용 방안은 ‘회사 내 디자이너 대상으로 해당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전문 교육 후 활용’이 61.6%로 ‘전공·경험 등 관련 역량이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활용’(31.6%) 대비 높게 나타남.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활용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문교육 후 활용’은 인테리어디자인(100.0%)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제품디자인(67.9%),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56.4%), 시각디자인(41.1%)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활용

(단위: %)

업종별	구분	회사 내 디자이너 대상으로 해당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전문교육 후 활용	전공·경험 등 관련 역량이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활용
		61.6	31.6
	전문디자인업체	61.6	31.6
	제품디자인	67.9	30.8
	시각디자인	41.1	39.3
	인테리어디자인	100.0	0.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56.4	33.5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문교육 후 활용'은 대구/경북, 대전/충청에서 높고, '신규 채용하여 활용'은 인천에서 높게 나타남.
- ❖ '전문교육 후 활용'은 15인 이상 전문디자인업체에서 가장 높고, '신규 채용하여 활용'은 1인 기업에서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활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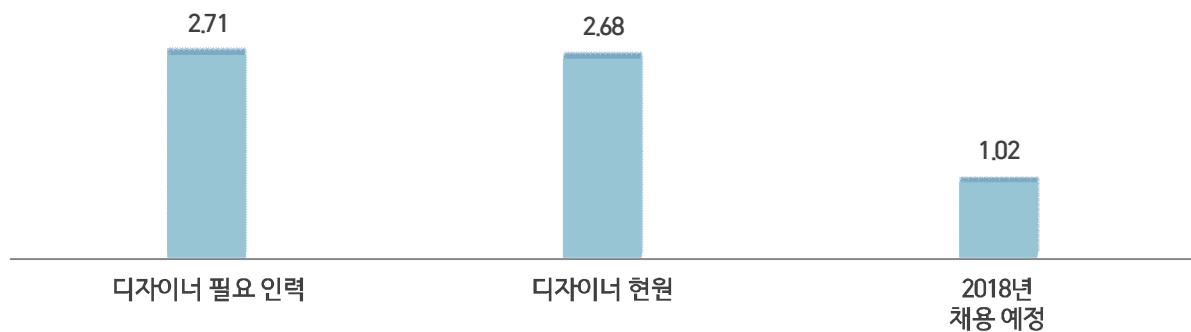
구분		회사 내 디자이너 대상으로 해당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전문교육 후 활용	전공·경험 등 관련 역량이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활용
전문디자인업체		61.6	31.6
권 역 별	서울	59.6	29.9
	부산/울산/경남	79.8	20.2
	대구/경북	100.0	0.0
	인천	0.0	100.0
	경기	40.6	59.4
	광주/전라	69.9	25.8
	대전/충청	100.0	0.0
	강원/제주	-	-
규 모 별	1인	0.0	100.0
	2~4인	72.8	12.0
	5~9인	52.0	44.8
	10~14인	67.2	23.8
	15인 이상	76.4	23.6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61.4	36.2
	기타매출 50%↑	63.0	0.0
	반반	-	-

10-3)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필요 인력/현원

-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필요 인력은 평균 2.71명.
디자이너 현원은 2.68명, 2018년 채용 예정은 1.02명으로 나타남.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필요 인력/현원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자이너 필요 인력'은 제품디자인(3.14명), '디자이너 현원'은 시각디자인(3.59명)에서 높고, '2018년 채용 예정'은 제품디자인(1.29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필요 인력/현원

(단위: %)

구분	디자이너 필요 인력	디자이너 현원	2018년 채용 예정
전문디자인업체	2.71	2.68	1.02
업종별	제품디자인	3.14	2.66
	시각디자인	2.05	3.59
	인테리어디자인	1.38	2.37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2.03	1.96

- 권역별로는 '디자이너 필요 인력'은 대구/경북, 광주/전라, '디자이너 현원'은 대구/경북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는 '디자이너 필요인력'과 '디자이너 현원'은 10~14인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필요 인력/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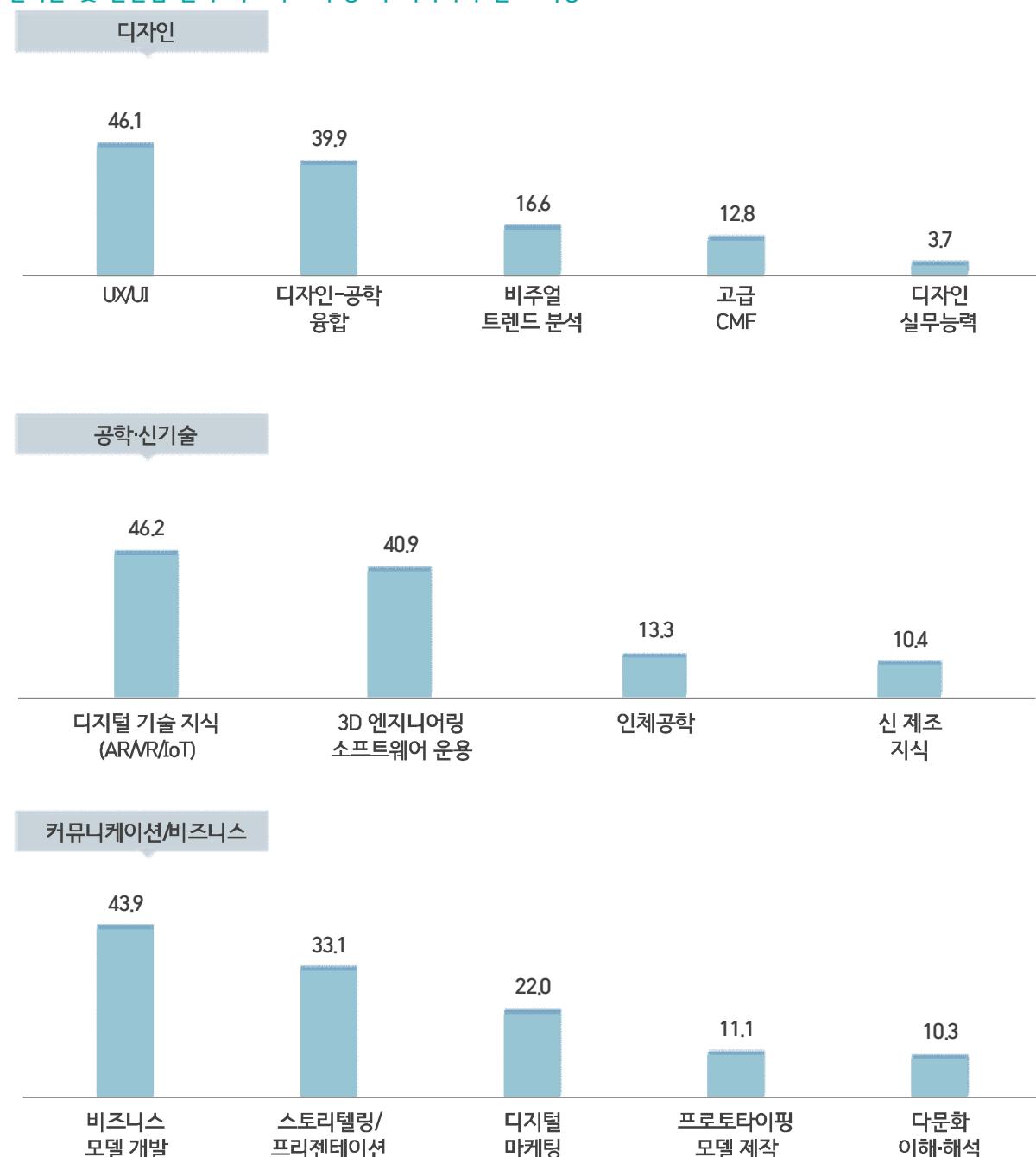
(단위: %)

구분		디자이너 필요 인력	디자이너 현원	2018년 채용 예정
전문디자인업체		2.71	2.68	1.02
권 역 별	서울	2.99	2.72	1.07
	부산/울산/경남	2.78	2.52	1.00
	대구/경북	3.91	6.01	1.91
	인천	1.00	1.00	0.00
	경기	0.31	1.96	0.40
	광주/전라	3.18	2.76	1.21
	대전/충청	2.33	2.33	1.34
	강원/제주	-	-	-
규 모 별	1인	1.00	1.00	0.00
	2~4인	2.35	1.92	0.85
	5~9인	2.75	2.95	1.19
	10~14인	3.92	4.49	1.83
	15인 이상	3.07	2.71	0.66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2.90	2.93	1.13
	기타매출 50%↑	0.87	0.18	0.00
	반반	-	-	-

10-4)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으로 [디자인]은 'UX/UI'(46.1%), [공학·신기술]은 '디지털 기술 지식'(46.2%), [커뮤니케이션/비즈니스]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43.9%)이 높게 나타남.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 (단위: %)



- 업종별로 필요한 재교육을 살펴본 결과, 'UX/UI'는 시각디자인(72.2%), '디자인-공학 융합'은 제품디자인(54.7%), '디지털 기술 지식'은 시각디자인(65.9%), 인테리어디자인(65.3%),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제품디자인(61.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_디자인 스킬/툴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UX/UI	디자인-공학 융합	비주얼 트렌드 분석	고급 CMF	디자인 실무능력
전문디자인업체		46.1	39.9	16.6	12.8	3.7
업 종 별	제품디자인	44.8	54.7	15.9	19.0	6.3
	시각디자인	72.2	12.9	4.7	0.0	0.0
	인테리어디자인	0.0	71.0	65.3	34.7	0.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21.6	10.2	23.3	0.0	0.0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_역량 향상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지털 기술 지식 (AR/VR/IoT)	3D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운용	인체공학	신 제조 지식
전문디자인업체		46.2	40.9	13.3	10.4
업 종 별	제품디자인	44.4	56.1	20.8	7.7
	시각디자인	65.9	29.0	4.7	0.0
	인테리어디자인	65.3	0.0	0.0	0.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10.2	10.2	0.0	46.6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_기타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비즈니스 모델 개발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	디지털 마케팅	프로토타이핑 모델 제작	다문화 이해·해석
전문디자인업체		43.9	33.1	22.0	11.1	10.3
업 종 별	제품디자인	61.1	41.2	25.8	19.0	13.2
	시각디자인	23.1	24.3	23.1	0.0	3.5
	인테리어디자인	0.0	63.7	0.0	0.0	34.7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21.6	0.0	11.5	0.0	0.0

- 권역별로는 [디자인]의 'UX/UI'는 부산/울산/경남, [공학·신기술]의 '디지털 기술 지식'은 대전/충청, [커뮤니케이션/비즈니스]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광주/전라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UX/UI'와 '디지털 기술 지식'은 5~9인에서 높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15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 _디자인 스킬/툴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UX/UI	디자인-공학 융합	비주얼 트렌드 분석	고급 CMF	디자인 실무능력
전문디자인업체		46.1	39.9	16.6	12.8	3.7
권 역 별	서울	46.4	43.5	11.3	9.5	0.0
	부산/울산/경남	87.1	79.8	46.6	46.6	0.0
	대구/경북	63.5	100.0	36.5	0.0	0.0
	인천	0.0	0.0	0.0	0.0	0.0
	경기	21.2	10.5	21.2	0.0	48.9
	광주/전라	46.0	13.1	20.6	20.2	0.0
	대전/충청	33.0	100.0	0.0	0.0	0.0
	강원/제주	-	-	-	-	-
규 모 별	1인	0.0	0.0	0.0	0.0	0.0
	2~4인	39.2	23.9	21.6	23.9	12.0
	5~9인	59.0	44.3	9.7	13.2	0.0
	10~14인	50.8	67.2	21.9	0.0	0.0
	15인 이상	34.1	53.7	26.2	0.0	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47.5	43.6	15.3	14.7	4.2
	기타매출 50%↑	37.0	14.4	26.0	0.0	0.0
	반반	-	-	-	-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
_역량 향상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지털 기술 지식 (AR/VR/IoT)	3D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운용	인체공학	신 제조 지식
전문디자인업체		46.2	40.9	13.3	10.4
권 역 별	서울	40.7	28.9	19.9	6.6
	부산/울산/경남	66.9	100.0	0.0	0.0
	대구/경북	27.1	72.9	36.5	0.0
	인천	0.0	100.0	0.0	0.0
	경기	21.2	10.5	0.0	0.0
	광주/전라	70.6	49.2	4.3	36.5
	대전/충청	100.0	33.0	0.0	0.0
	강원/제주	-	-	-	-
규 모 별	1인	0.0	100.0	0.0	0.0
	2~4인	51.2	63.1	12.0	21.6
	5~9인	55.0	22.1	14.8	9.1
	10~14인	32.8	45.7	40.2	0.0
	15인 이상	31.8	30.1	0.0	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43.8	41.5	15.2	11.9
	기타매출 50%↑	63.0	37.0	0.0	0.0
	비반	-	-	-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
_기타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비즈니스 모델 개발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	디지털 마케팅	프로토타이핑 모델 제작	다문화 이해·해석
전문디자인업체		43.9	33.1	22.0	11.1	10.3
권 역 별	서울	36.9	43.4	18.9	6.4	5.9
	부산/울산/경남	66.9	79.8	66.9	46.6	0.0
	대구/경북	27.1	36.5	0.0	0.0	27.1
	인천	0.0	0.0	0.0	0.0	0.0
	경기	19.4	0.0	19.4	0.0	0.0
	광주/전라	79.4	4.3	24.6	20.2	24.6
	대전/충청	33.0	0.0	0.0	0.0	67.0
	강원/제주	-	-	-	-	-
규 모 별	1인	0.0	0.0	0.0	0.0	0.0
	2~4인	47.9	23.9	23.9	23.9	12.0
	5~9인	41.7	45.9	21.1	9.0	14.0
	10~14인	69.1	49.2	0.0	0.0	0.0
	15인 이상	38.3	15.9	38.3	0.0	5.3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50.3	36.2	25.2	12.7	11.8
	기타매출 50%↑	0.0	11.5	0.0	0.0	0.0
	비반	-	-	-	-	-

2017 KOREA DESIGN STATISTICAL DATA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part
3
국내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결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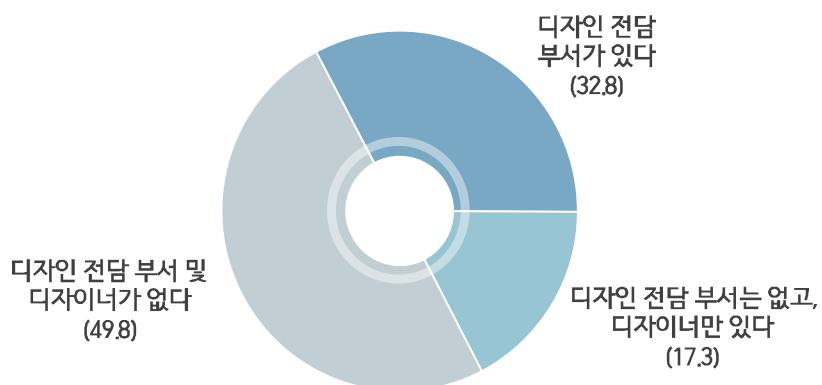
1 디자인 활용 현황

1)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여부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내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다’는 기관은 32.8%로 나타남.
 ‘디자인 전담부서는 없고, 디자이너만 있다’는 17.3%,
 ‘디자인 전담부서 및 디자이너가 없다’는 49.8%로 나타남.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여부

(단위: %)



- 정부 기관을 구분하여 분석해보면, 지자체 중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0%인 반면, 중앙부처는 9.4%로 낮은 수준을
 보임.

▶ 구분별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여부

(단위: %)

구분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다	디자인 전담부서는 없고, 디자이너만 있다	디자인 전담부서 및 디자이너가 없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32.8	17.3	49.8
구분	지자체	36.0	15.9	48.1
	중앙부처	9.4	28.1	62.5

-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다’는 시/도에서 73.3%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시/군/구에서는 33.5%로 낮게 나타남.
- 예산별로는 지자체 예산이 많을수록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다’는 비율이 높음. 지자체 예산이 5천억 원 이상인 기관은 59.8%가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지자체 예산이 2천억 원 미만인 기관은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다’의 응답이 14.3%로 낮게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여부

(단위: %)

구분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다	디자인 전담부서는 없고, 디자이너만 있다	디자인 전담부서 및 디자이너가 없다
지자체		32.8	17.3	49.8
지자체	시/도	73.3	0.0	26.7
	시/군/구	33.5	17.0	49.6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14.3	14.3	71.4
	3천억 원 미만	16.2	5.4	78.4
	5천억 원 미만	23.3	22.3	54.4
	5천억 원 이상	59.8	13.0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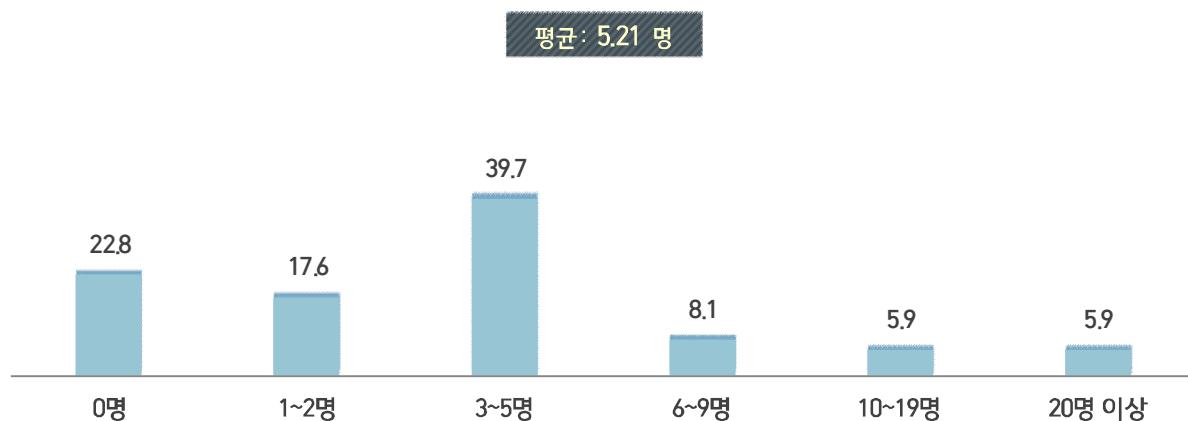
2) 직원 수

2-1)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총 직원 수

-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담부서의 총 직원 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평균 5.21명으로 나타남.
세부 항목별로는 '3~5명'이 39.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0명'(22.8%), '1~2명'(17.6%), '6~9명'(8.1%), '10~19명'(5.9%), '20명 이상'(5.9%)의 순으로 나타남.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총 직원 수

(단위: %)



- 구분별 디자인 전담부서 종사자 수는 지자체에서 '3~5명'이 43.5%로 가장 높은 반면 중앙부처에서는 '0명'이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구분별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총 직원 수

(단위: %)

구분		0명	1~2명	3~5명	6~9명	10~19명	20명 이상	평균(명)
중앙부처 및 지자체		22.8	17.6	39.7	8.1	5.9	5.9	5.21
구분	지자체	19.4	17.7	43.5	8.1	5.6	5.6	5.14
	중앙부처	58.3	16.7	0.0	8.3	8.3	8.3	5.92

- 지자체 구분별로는, 시/도 단위의 평균 디자인 전담부서 직원 수가 19.00명으로, 시/군/구 단위(평균 3.79명)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 예산별로는, 지자체 예산이 많을수록 직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5천억 원 이상이 6.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천억 원 미만(3.68명), 3천억 원 미만(평균 2.75명), 2천억 원 미만 (평균 1.50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총 직원 수

(단위: %)

구분		0명	1~2명	3~5명	6~9명	10~19명	20명 이상	평균(명)
지자체		22.8	17.6	39.7	8.1	5.9	5.9	5.21
지자체	시/도	0.0	0.0	18.2	18.2	36.4	27.3	19.00
	시/군/구	21.2	19.5	46.0	7.1	2.7	3.5	3.79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50.0	0.0	50.0	0.0	0.0	0.0	1.50
	3천억 원 미만	12.5	25.0	50.0	12.5	0.0	0.0	2.75
	5천억 원 미만	34.0	25.5	27.7	6.4	0.0	6.4	3.68
	5천억 원 이상	9.0	11.9	53.7	9.0	10.4	6.0	6.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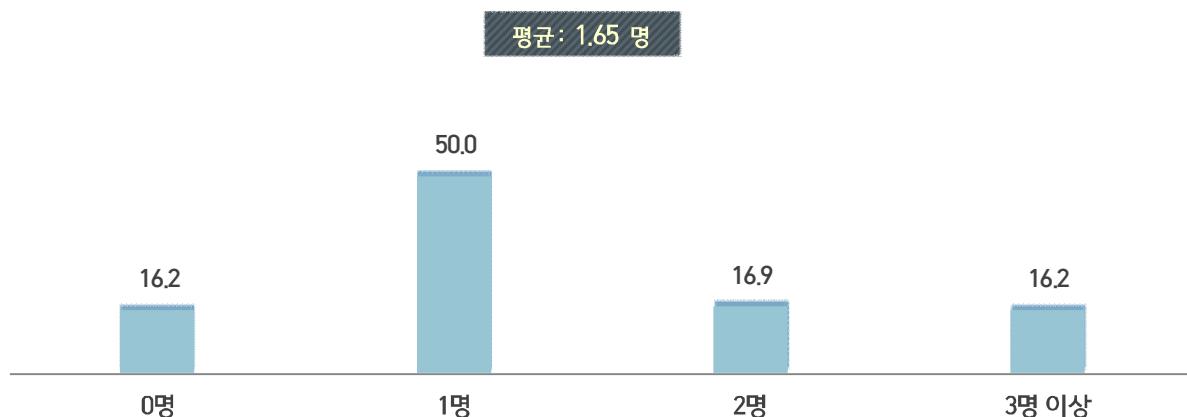
2-2)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디자이너 수

-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담부서 내 디자이너 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평균 1.65명으로 나타남.

세부 항목별로는 '1명'이 50.0%로 가장 높고, 다음은 '2명'(16.9%), '0명'(16.2%), '3명 이상'(16.2%)의 순으로 나타남.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디자이너 수

(단위: %)



* 모름/무응답 : 0.7%

- 구분별 디자인 전담부서 내 디자이너 수는 지자체에서는 평균 1.60명, 중앙부처는 평균 2.18명으로 나타남. 전담부서 유무에 따라서는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1.89명으로 나타났으며,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는 평균 1.21명으로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평균(명)
중앙부처 및 지자체		16.2	50.0	16.9	16.2	1.65
구분	지자체	16.9	48.4	17.7	16.9	1.60
	중앙부처	8.3	66.7	8.3	8.3	2.18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24.7	32.6	19.1	22.5	1.89
	디자이너만 있음	0.0	83.0	12.8	4.3	1.21

- 지자체 구분별로는, 시/도 단위의 평균 디자인 전담부서 디자이너 수가 3.91명으로, 시/군/구 단위(평균 1.38)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예산별로 살펴보면, 5천억 원 이상이 1.9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천억 원 미만 (평균 1.50명), 3천억 원 미만(평균 1.38명), 5천억 원 미만(평균 1.13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디자이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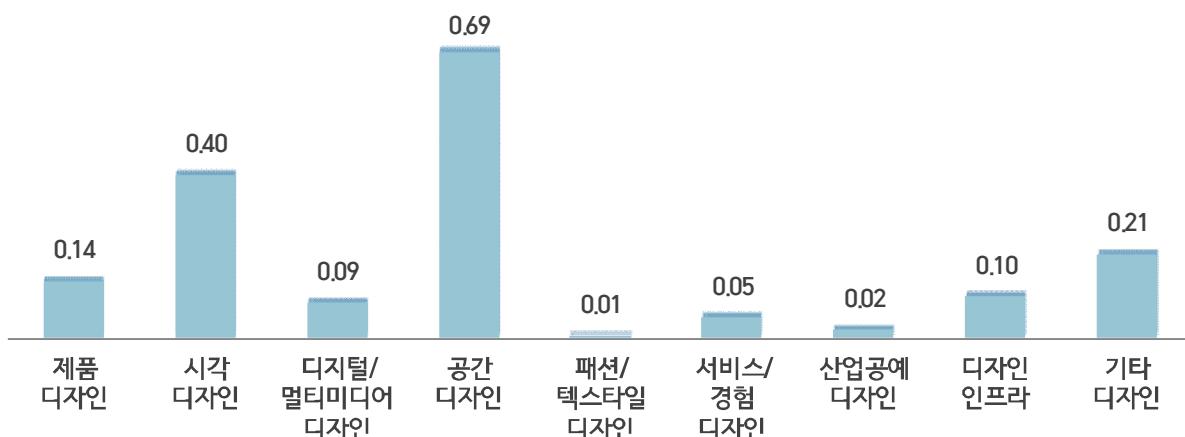
(단위: %)

구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평균(명)
지자체		16.2	50.0	16.9	16.2	1.65
지자체	시/도	9.1	18.2	27.3	45.5	3.91
	시/군/구	17.7	51.3	16.8	14.2	1.38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0.0	50.0	50.0	0.0	1.50
	3천억 원 미만	25.0	62.5	0.0	12.5	1.38
	5천억 원 미만	21.3	55.3	14.9	8.5	1.13
	5천억 원 이상	13.4	41.8	20.9	23.9	1.97

2-2-1)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공간디자인’ 분야에서 0.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디자인’(0.40명), ‘기타디자인’(0.21명), ‘제품디자인(0.1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구분별 디자이너 수는 중앙부처는 ‘기타디자인’ 영역에서 1.17명으로 가장 많은 디자이너 수를 보였으며, 지자체는 ‘공간디자인’ 분야에 0.76명으로 가장 많은 디자이너 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전담부서 유무에 따라서는, 전담부서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간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많은 수의 디자이너를 보임.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공간디자인	패션/텍스타일디자인	서비스/경험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디자인인프라	기타디자인
중앙부처 및 지자체		0.14	0.40	0.09	0.69	0.01	0.05	0.02	0.10	0.21
구분	지자체	0.15	0.43	0.02	0.76	0.01	0.06	0.02	0.04	0.11
	중앙부처	0.00	0.08	0.75	0.00	0.00	0.00	0.00	0.75	1.17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0.18	0.45	0.02	0.82	0.01	0.06	0.01	0.13	0.28
	디자이너만 있음	0.06	0.30	0.21	0.45	0.00	0.04	0.04	0.04	0.06

- 지자체 구분별로는, 지자체 구분과 관계없이 ‘공간디자인’ 분야의 디자이너 수가 시/도는 1.82명, 시/군/구는 0.6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시/도와 시/군/구 모두 ‘시각디자인’ 분야의 디자이너 수가 각각 0.82명과 0.39명으로 2번째 순위로 나타남.
- 예산별 결과 역시 ‘공간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많은 디자이너 수가 나타난 가운데, 3천억 원 미만은 1.25명, 5천억 원 미만은 0.43명, 5천억 원 이상은 0.94명으로 나타남. 2천억 원 미만의 경우 ‘시각디자인’, ‘공간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분야에서 모두 0.50명으로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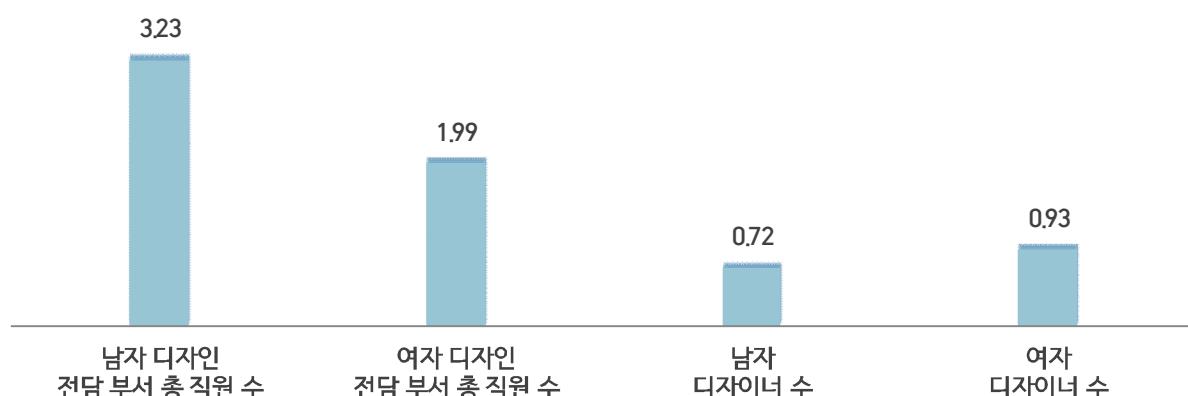
구분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공간 디자인	패션/ 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 경험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기타 디자인
지자체		0.14	0.40	0.09	0.69	0.01	0.05	0.02	0.10	0.21
지자체	시/도	0.55	0.82	0.09	1.82	0.00	0.18	0.09	0.18	0.18
	시/군/구	0.12	0.39	0.02	0.65	0.01	0.04	0.02	0.03	0.11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0.00	0.50	0.00	0.50	0.00	0.00	0.50	0.00	0.00
	3천억 원 미만	0.00	0.00	0.13	1.25	0.00	0.00	0.00	0.00	0.00
	5천억 원 미만	0.09	0.34	0.00	0.43	0.02	0.06	0.02	0.04	0.13
	5천억 원 이상	0.22	0.54	0.03	0.94	0.00	0.06	0.01	0.04	0.12

2-2-2)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담부서의 총 직원 수과 디자이너 수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디자인 전담부서 내 '남자 총 직원 수'는 3.23명으로 '여자 총 직원 수'(1.99명)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디자이너 수는 '여자'가 0.93명, '남자'가 0.72명으로 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지자체, 중앙부처 구분에 관계없이 디자인 전담부서 '남자 직원 수'는 3.23명(지자체)과 3.25명(중앙부처), '여자 직원 수는' 1.92명(지자체)과 2.67명(중앙부처)으로 모두 남자직원이 많은 것으로 나왔으며, '남자 디자이너 수'는 0.70명(지자체)과 0.91명(중앙부처), '여자 디자이너 수'는 0.90명(지자체)과 1.27명(중앙부처)으로 여자 디자이너 수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구분별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남자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	여자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	남자 디자이너 수	여자 디자이너 수
중앙부처 및 지자체	3.23	1.99	0.72	0.93
구분	지자체	3.23	1.92	0.70
	중앙부처	3.25	2.67	0.91

- ❖ 지자체 구분별로는, 시/도 단위의 평균 디자인 전담부서 직원 수가 '남자' 12.82명, '여자' 6.18명으로, 시/군/구 단위('남자' 2.29명, '여자' 1.50명)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와 관계없이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디자이너 수는 여자가 남자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예산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는 남녀 모두 5천억 원 이상(각각 4.10명, 2.45명)에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5천억 원 미만(각각 2.32명, 1.38명)으로 나타남. 디자이너 수의 경우에도 남녀 모두 5천억 원 이상에서 각각 0.93명, 1.0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남자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	여자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	남자 디자이너 수	여자 디자이너 수
지자체		3.23	1.99	0.72	0.93
지자체	시/도	12.82	6.18	1.91	2.00
	시/군/구	2.29	1.50	0.58	0.80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1.00	0.50	0.50	1.00
	3천억 원 미만	1.75	1.00	0.88	0.50
	5천억 원 미만	2.32	1.38	0.36	0.77
	5천억 원 이상	4.10	2.45	0.93	1.04

3) 2016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3-1) 2016년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3-1-1) 디자인 용역비

-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기관의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중 디자인 용역비는 평균 14억 1,301만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1억 원 미만'의 비율이 32.6%로 가장 높고, 다음은 '1억~3억 미만'(27.0%), '5억~10억 미만'(13.5%), '3억~5억 미만'(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16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 디자인 용역비

(단위: %)



※ 모름/무응답 : 1.1%

- 정부기관을 구분해 살펴보면, 중앙부처의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은 평균 225억 1,333만원으로 지자체(6억 6,829만원) 대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지자체의 경우 '1억 원 미만'의 예산 비율이 33.7%로 가장 높은 반면, 중앙부처의 경우 '20억~50억 미만'이 66.7%, '50억 이상'이 33.3%의 비율을 보임.

▶ 구분별 2016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 디자인 용역비

(단위: %)

구분		1억 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20억 미만	20억~50억 미만	50억 이상	평균 (백만 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32.6	27.0	9.0	13.5	6.7	6.7	3.4	1,413.01
구분	지자체	33.7	27.9	9.3	14.0	7.0	4.7	2.3	668.29
	중앙부처	0.0	0.0	0.0	0.0	0.0	66.7	33.3	22,513.33

- 지자체 구분별로 살펴보면, 시/도의 2016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중 디자인 용역비는 평균 13억 8,530만원으로 시/군/구(5억 7,269만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예산별로는 2천억 원 미만의 평균은 3억 원, 3천억 원 미만은 2억 4,933만원, 5천억 원 미만은 2억 3,133만원, 5천억 원 이상은 9억 1,587만원으로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2016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 디자인 용역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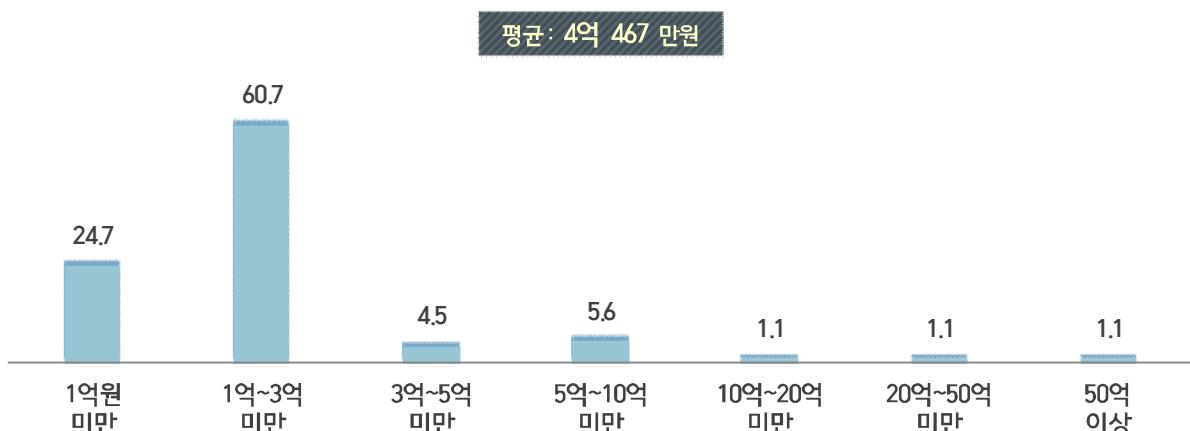
구분		1억 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20억 미만	20억~50억 미만	50억 이상	평균 (백만 원)
지자체		32.6	27.0	9.0	13.5	6.7	6.7	3.4	1,413.01
지자체	시/도	18.2	27.3	0.0	9.1	27.3	0.0	9.1	1,385.30
	시/군/구	36.0	28.0	10.7	14.7	4.0	5.3	1.3	572.69
지자체예산	2천억 원 미만	0.0	0.0	100.0	0.0	0.0	0.0	0.0	300.00
	3천억 원 미만	50.0	16.7	16.7	16.7	0.0	0.0	0.0	249.33
	5천억 원 미만	37.5	33.3	4.2	20.8	4.2	0.0	0.0	231.33
	5천억 원 이상	30.9	27.3	9.1	10.9	9.1	7.3	3.6	915.87

3-1-2) 인건비

- ▶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기관의 디자인 전담부서 인건비는 평균 4억 467만원임. 인건비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1억~3억 미만'의 비율이 6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억 원 미만'(24.7%), '5억~10억 미만'(5.6%), '3억~5억 미만'(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16년 디자인 전담부서 인건비

(단위: %)



※ 모름/무응답 : 1.1%

- ▶ 정부기관별 디자인 전담부서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평균 4억 1,866만원으로 중앙부처(833만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지자체의 경우 '1억~3억 미만'의 비율이 6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중앙부처의 경우 '1억 원 미만'(100%)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분별 2016년 디자인 전담부서 인건비

(단위: %)

구분	1억 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20억 미만	20억~50억 미만	50억 이상	평균 (백만 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24.7	60.7	4.5	5.6	1.1	1.1	1.1	404.67
구분	지자체	22.1	62.8	4.7	5.8	1.2	1.2	418.66
	중앙부처	100.0	0.0	0.0	0.0	0.0	0.0	8.33

- 지자체 구분별 디자인 전담부서 인건비는 시/도에서 평균 8,220만원으로 시/군/구(1억 5,685만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 예산별로는 2천억 원 미만의 평균은 1억 2,500만원, 3천억 원 미만은 1억 5,767만원, 5천억 원 미만은 1억 4,292만원, 5천억 원 이상은 5억 7,565만원으로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2016년 디자인 전담부서 인건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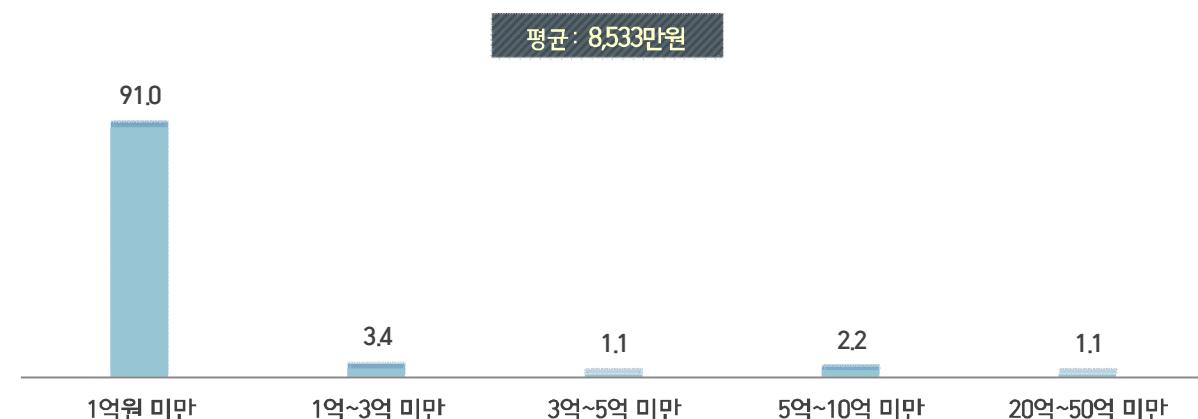
구분		1억 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20억 미만	20억~50억 미만	50억 이상	평균 (백만 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24.7	60.7	4.5	5.6	1.1	1.1	1.1	404.67
지 자 체	시/도	0.0	36.4	9.1	18.2	9.1	9.1	9.1	2,382.20
	시/군/구	25.3	66.7	4.0	4.0	0.0	0.0	0.0	156.85
지 자 체 예 산	2천억 원 미만	0.0	100.0	0.0	0.0	0.0	0.0	0.0	125.00
	3천억 원 미만	0.0	100.0	0.0	0.0	0.0	0.0	0.0	157.67
	5천억 원 미만	37.5	54.2	4.2	4.2	0.0	0.0	0.0	142.92
	5천억 원 이상	18.2	61.8	5.5	7.3	1.8	1.8	1.8	575.65

3-1-3)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기관 고용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 평균은 8,533만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1억 원 미만'의 비율이 91.0%로 압도적이었고, 다음은 '1억~3억 미만'(3.4%), '5억~10억 미만'(2.2%), '3억~5억 미만'(1.1%), '20억~50억 미만'(1.1%)의 순으로 나타남.

2016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단위: %)



※ 모름/무응답 : 1.1%

- 정부기관별 디자인 전담부서 내 고용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 예산은 지자체에서 8,816만원으로 중앙부처(500만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지자체의 경우 '1억 원 미만'의 비율이 90.7%로 가장 높았고, 중앙부처의 경우 '1억 원 미만'의 비율이 100.0%을 차지해 모든 예산이 1억 원 미만으로 나타남.

▶ 구분별 2016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단위: %)

구분		1억 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20억~50억 미만	평균 (백만 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91.0	3.4	1.1	2.2	1.1	85.33
구분	지자체	90.7	3.5	1.2	2.3	1.2	88.16
	중앙부처	100.0	0.0	0.0	0.0	0.0	5.00

- 지자체 구분별 고용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 예산은 시/도에서 평균 4억 5,480만원으로 시/군/구(3,928만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 예산별로 살펴보면, 2천억 원 미만의 평균은 0억 원, 3천억 원 미만은 1,167만원, 5천억 원 미만은 1,375만원, 5천억 원 이상은 1억 3,137만원으로 나타남. 5천억 원 이상을 제외한 규모의 정부기관에서 '1억 원 미만'의 비율이 100%를 차지해 모든 예산이 1억 원 미만으로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2016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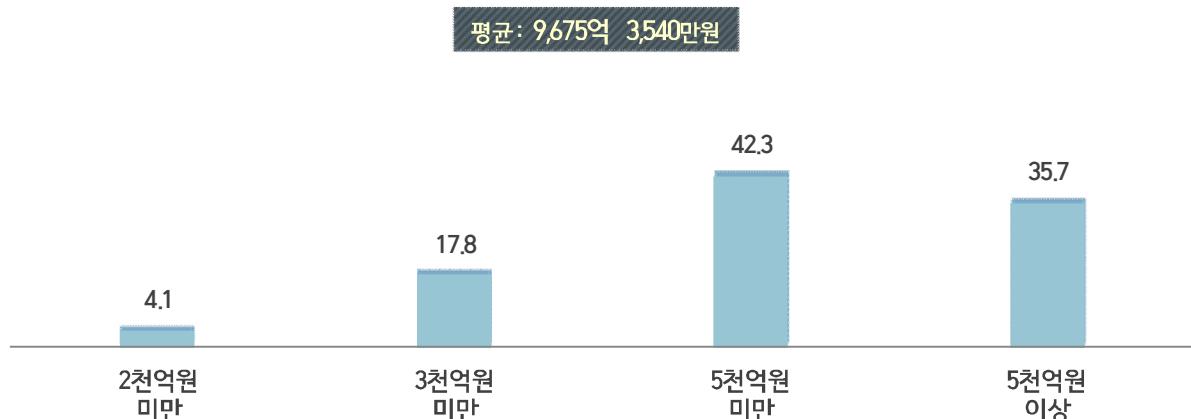
구분		1억 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20억~50억 미만	평균 (백만 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91.0	3.4	1.1	2.2	1.1	85.33
지 자 체	시/도	72.7	9.1	0.0	0.0	9.1	454.80
	시/군/구	93.3	2.7	1.3	2.7	0.0	39.28
지 자 체 예 산	2천억 원 미만	100.0	0.0	0.0	0.0	0.0	0.00
	3천억 원 미만	100.0	0.0	0.0	0.0	0.0	11.67
	5천억 원 미만	100.0	0.0	0.0	0.0	0.0	13.75
	5천억 원 이상	85.5	5.5	1.8	3.6	1.8	131.37

3-1-4) 지방자치단체 예산

- 2016년 지자체 예산의 평균은 9,675억 3,540만원으로 나타남.
세부항목별로는 '5천억 원 미만'이 42.3%로 가장 높고, 다음은 '5천억 원 이상'(35.7%), '3천억 원 미만'(1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16년 지자체 예산

(단위: %)



- 전담부서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지자체 예산 평균이 1조 6,039억 2,50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담부서별 2016년 지자체 예산

(단위: %)

구분	2천억 원 미만	3천억 원 미만	5천억 원 미만	5천억 원 이상	평균(백만 원)
지자체	4.1	17.8	42.3	35.7	967,535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1.0	8.1	36.4	1,603,925
	디자이너만 있음	8.8	11.8	55.9	535,171
	없음	5.6	28.7	43.5	520,293

-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시/도의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의 평균은 7조 1,016억 4,24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 예산 평균은 5,020억 49만원으로 나타남.

▶ 전담부서별 2016년 지자체 예산

(단위: %)

구분	2천억 원 미만	3천억 원 미만	5천억 원 미만	5천억 원 이상	평균(백만 원)
지자체	4.1	17.8	42.3	35.7	967,535
지자체	시/도	0.0	0.0	0.0	7,101,642
	시/군/구	4.5	19.2	45.5	50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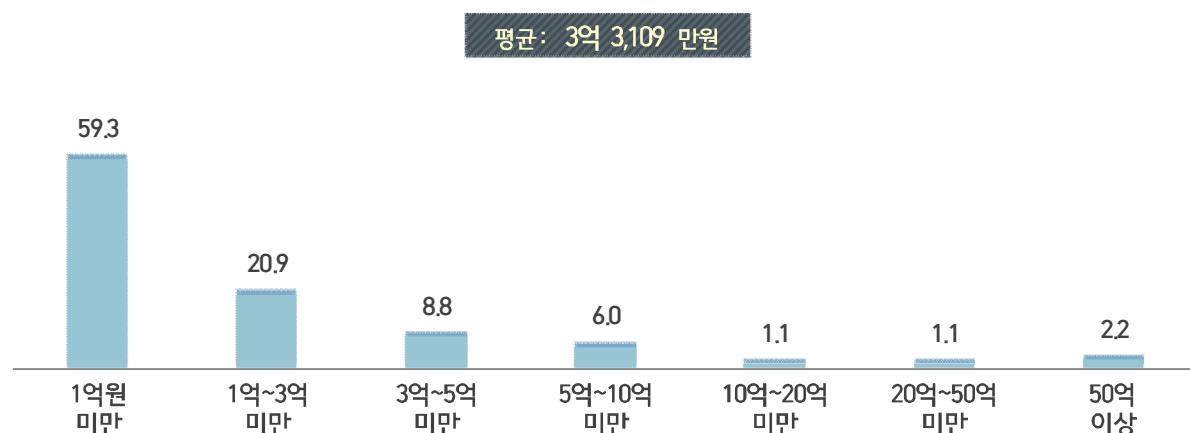
3-2) 2016년 디자인 전담부서 미보유 기관

3-2-1) 디자인 용역비

-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정부기관의 사업비 예산 중 디자인 용역비는 평균 3억 3,109만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1억 원 미만'의 비율이 5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억~3억'(20.9%), '3억~5억 미만'(8.8%), '5억~10억 미만'(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디자인 전담부서 미보유 기관 사업비 예산 - 디자인 용역비

(단위: %)



※ 모름/무응답 : 0.5%

- 정부기관을 구분해 살펴보면, 지자체의 디자인 용역비는 평균 3억 8,191만원으로 중앙부처(6,472만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전담부서 미보유 기관 사업비 예산 - 디자인 용역비

(단위: %)

구분		1억 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20억 미만	20억~50억 미만	50억 이상	평균 (백만 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59.3	20.9	8.8	6.0	1.1	1.1	2.2	331.09
구분	지자체	54.9	22.2	9.8	7.2	1.3	1.3	2.6	381.91
	중앙부처	82.8	13.8	3.4	0.0	0.0	0.0	0.0	64.72

- 지자체 구분별로 살펴보면, 시/군/구의 2016년 디자인 사업비 예산 중 디자인 용역비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는 평균 3억 8,682만원으로 시/도(2억 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예산별로는 2천억 원 미만의 평균은 2억 1,917만원, 3천억 원 미만은 6억 6,810만원, 5천억 원 미만은 3억 1,762만원, 5천억 원 이상은 3억 367만원으로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전담부서 미보유 기관 사업비 예산 - 디자인 용역비

(단위: %)

구분		1억 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20억 미만	20억~50억 미만	50억 이상	평균 (백만 원)
지자체		59.3	20.9	8.8	6.0	1.1	1.1	2.2	331.09
지자체	시/도	50.0	0.0	25.0	25.0	0.0	0.0	0.0	200.00
	시/군/구	55.0	22.8	9.4	6.7	1.3	1.3	2.7	386.82
지자체예산	2천억 원 미만	50.0	33.3	0.0	16.7	0.0	0.0	0.0	219.17
	3천억 원 미만	61.3	22.6	3.2	6.5	0.0	0.0	6.5	668.10
	5천억 원 미만	58.2	19.0	12.7	5.1	1.3	1.3	2.5	317.62
	5천억 원 이상	43.2	27.0	10.8	10.8	2.7	2.7	0.0	303.67

3-2-2) 인건비

-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정부기관의 사업비 예산 중 인건비는 평균 1,245만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1억 원 미만'의 비율이 97.2%로 압도적이었고, 다음은 '1억~3억 미만'(1.7%)의 비율을 보임.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 사업비 예산 - 인건비 (단위: %)



* 모름/무응답 : 1.1%

- 정부기관을 구분해 살펴보면, 지자체의 인건비 예산은 평균 1,274만원으로 중앙부처(1,093만원) 대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지자체와 중앙부처 모두 '1억 원 미만'의 비율이 각각 96.7%, 100%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 사업비 예산 - 디자인 인건비

(단위: %)

구분	1억 원 미만	1억~3억 미만	평균 (백만 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97.2	1.7	12.45
구분	지자체	96.7	2.0
	중앙부처	100.0	0.0

- 지자체 구분별로 살펴보면, 시/도의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의 인건비 예산은 0원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시/군/구의 인건비 예산은 1,309만원으로 나타남.
지자체 예산별로는, 예산 규모와 관계없이 '1억 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2천억 원 미만의 평균은 1,583만원, 3천억 원 미만은 1,145만원,
5천억 원 미만은 1,437만원, 5천억 원 이상은 971만원으로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 디자인 사업비 예산 - 디자인 인건비

(단위: %)

구분		1억 원 미만	1억~3억 미만	평균 (백만 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97.2	1.7	12.45
지자체	시/도	100.0	0.0	0.00
	시/군/구	96.6	2.0	13.09
지자체예산	2천억 원 미만	100.0	0.0	15.83
	3천억 원 미만	96.8	3.2	11.45
	5천억 원 미만	97.4	2.6	14.37
	5천억 원 이상	94.6	0.0	9.71

3-2-3)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정부기관의 디자인 사업비 예산 중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는 평균 1,350만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1억 원 미만'의 비율이 94.5%로 압도적이었고, 다음은 '1억~3억 미만'(3.8%), '5억~10억 미만'(0.5%)의 순으로 나타남.

디자인 전담부서 미보유 기관 디자인 사업비 예산 -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단위: %)



※ 모름/무응답 : 1.1%

- 정부기관을 구분해 살펴보면, 지자체의 디자인 사업비 예산 중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는 평균 1,480만원으로 중앙부처(672만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지자체와 중앙부처 모두 '1억 원 미만'의 비율이 각각 93.5%와 10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전담부서 미보유 기관 디자인 사업비 예산 -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단위: %)

구분	1억 원 미만	1억~3억 미만	5억~10억 미만	평균 (백만 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94.5	3.8	0.5	13.50
구분	지자체	93.5	4.6	14.80
	중앙부처	100.0	0.0	6.72

- 지자체 구분별로 살펴보면, 시/도의 2016년 디자인 사업비 예산 중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평균은 2,900만원으로 시/군/구(1,441만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 예산별로는, 예산 규모와 관계없이 '1억 원 미만'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가운데, 2천억 원 미만의 평균은 0만원, 3천억 원 미만은 1,658만원, 5천억 원 미만은 977만원, 5천억 원 이상은 2,711만원으로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전담부서 미보유 기관 디자인 사업비 예산 -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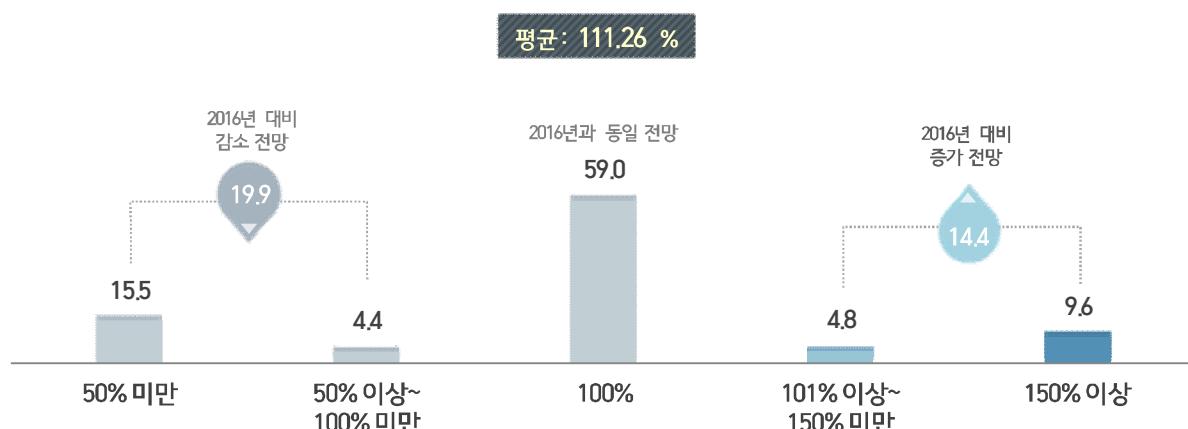
구분		1억 원 미만	1억~3억 미만	5억~10억 미만	평균 (백만 원)
지자체		94.5	3.8	0.5	13.50
지자체	시/도	75.0	25.0	0.0	29.00
	시/군/구	94.0	4.0	0.7	14.41
지자체예산	2천억 원 미만	100.0	0.0	0.0	0.00
	3천억 원 미만	90.3	9.7	0.0	16.58
	5천억 원 미만	97.5	2.5	0.0	9.77
	5천억 원 이상	86.5	5.4	2.7	27.11

4) 2017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전망

- 2016년 대비 2017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전망은 평균 111.26% 수준으로 2016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범주별로 살펴보면, '2016년과 동일할 것이다'는 전망(100%)이 59.0%로 가장 높은 가운데, '2016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14.4%, '2016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19.9%로 나타남.

2017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전망

(단위: %)



※ 모름/무응답 : 6.6%

- 정부기관을 구분해 살펴보면, 지자체의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전망은 113.98%으로 증가 전망을 내놓은 반면, 중앙부처는 88.56%로 감소를 예상함.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기관에서만 154.72%로 증가를 예상하는 전망치를 보임.

▶ 구분별/전담부서별 2017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중앙부처 및 지자체		15.5	4.4	59.0	4.8	9.6	111.26
구분	지자체	15.5	4.6	59.0	5.0	10.5	113.98
	중앙부처	15.6	3.1	59.4	3.1	3.1	88.56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9.0	6.7	56.2	7.9	15.7	154.72
	디자이너만 있음	4.3	8.5	76.6	4.3	2.1	95.56
	없음	23.7	1.5	54.8	3.0	8.1	86.98

- 지자체 구분별로 살펴보면, 시/군/구는 115.64%로 2017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의 증가를 전망한 반면, 시/도(90.60%)는 예산집행금액의 감소를 전망함.
- 지자체 예산별로는, 5천억 원 이상(155.26%)만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증가를 전망한 가운데, 2천억 원 미만(88.57%), 3천억 원 미만(86.94), 5천억 원 미만(87.84%)에서는 감소를 전망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2017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지자체		15.5	4.4	59.0	4.8	9.6	111.26
지자체	시/도	13.3	6.7	66.7	6.7	6.7	90.60
	시/군/구	15.6	4.5	58.5	4.9	10.7	115.64
지자체예산	2천억 원 미만	14.3	0.0	85.7	0.0	0.0	88.57
	3천억 원 미만	16.2	2.7	64.9	2.7	5.4	86.94
	5천억 원 미만	20.4	4.9	54.4	3.9	10.7	87.84
	5천억 원 이상	9.8	5.4	59.8	7.6	13.0	155.26

5) 2017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 2016년 대비 2017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전망은 평균 102.45% 수준으로 2016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범주별로 살펴보면, '2016년과 동일 할 것이다'는 전망(100%)이 87.7%로 가장 높은 가운데, '2016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9.6%, '2016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2.6%로 나타남.

2017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전망

(단위: %)



- 정부기관을 구분해 살펴보면, 지자체와 중앙부처 모두 2017년 디자이너 고용의 증가를 전망한 가운데, 지자체(102.70%)의 전망치가 중앙부처(100.00%)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남.
전담부서의 유무별로는,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기관의 경우 99.55%로 고용의 감소를 전망한 반면,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106.82%) 증가를 전망한 것으로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2017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중앙부처 및 지자체	2.6	0.0	87.7	0.9	8.8	102.45
구분	지자체	2.9	0.0	86.5	1.0	9.6
	중앙부처	0.0	0.0	100.0	0.0	100.00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4.5	0.0	88.1	1.5	6.0
	디자이너만 있음	0.0	0.0	87.2	0.0	12.8

- 지자체 구분별로 살펴보면, 시/도에서는 평균 100%로 고용에 대해 기존의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군/구(103.00%)에서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지자체 예산별 결과, 2천억 원 미만(100%)은 유지, 3천억 원 미만(83.33%)에서는 감소 전망을 한 반면, 5천억 원 미만(104.17%), 5천억 원 미만(103.93%)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2017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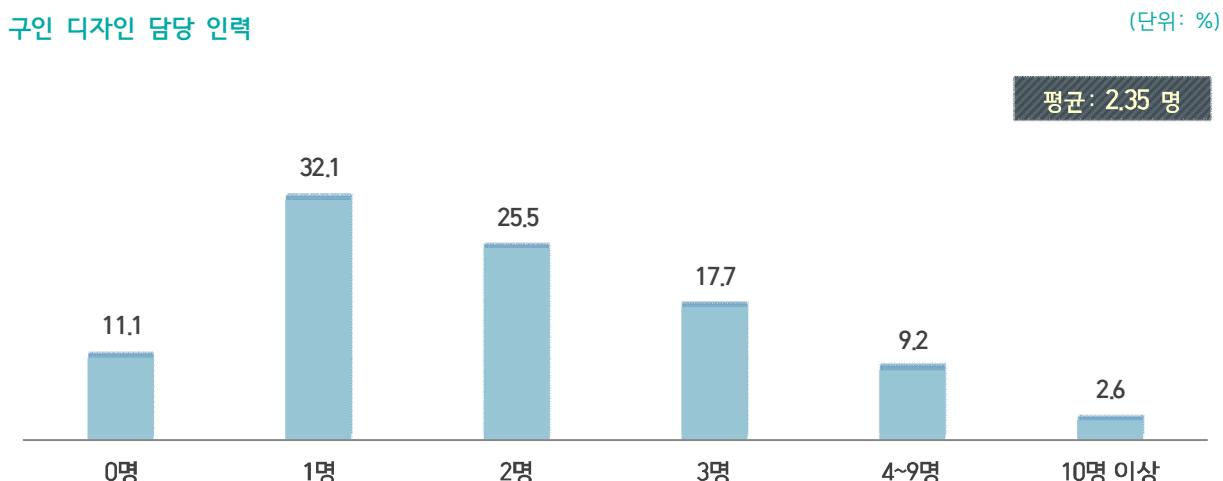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지자체		2.6	0.0	87.7	0.9	8.8	102.45
지자체	시/도	0.0	0.0	100.0	0.0	0.0	100.00
	시/군/구	3.2	0.0	85.1	1.1	10.6	103.00
지자체예산	2천억 원 미만	0.0	0.0	100.0	0.0	0.0	100.00
	3천억 원 미만	16.7	0.0	83.3	0.0	0.0	83.33
	5천억 원 미만	5.3	0.0	78.9	0.0	15.8	104.17
	5천억 원 이상	0.0	0.0	91.4	1.7	6.9	103.93

2 디자인 인력

1) 구인 디자이너 수

- 구인 디자이너 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2.35명으로 나타남. 범주별로는 '1명'(32.1%), '2명'(25.5%), '3명'(17.7%), '0명'(11.1%), '4~9명'(9.2%), '10명 이상'(2.6%)의 순으로 나타남.



* 모름/무응답 : 1.8%

- 정부기관 구분별 적정 디자이너 수는 지자체의 경우 평균 2.26명으로 중앙부처(평균 3.03명)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남.
전담부서별로는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평균 3.82명으로 적정 인력 수치가 가장 많았으며,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는 평균 2.06명,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는 평균 1.46명으로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구인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0명	1명	2명	3명	4~9명	10명 이상	평균(명)
중앙부처 및 지자체		11.1	32.1	25.5	17.7	9.2	2.6	2.35
구분	지자체	10.0	31.8	25.1	19.7	10.0	2.1	2.26
	중앙부처	18.8	34.4	28.1	3.1	3.1	6.3	3.03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6.7	16.9	25.8	22.5	20.2	6.7	3.82
	디자이너만 있음	2.1	42.6	21.3	27.7	4.3	2.1	2.06
	없음	17.0	38.5	26.7	11.1	3.7	0.0	1.46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도 단위의 적정 디자이너 수는 평균 6.14명으로 시/군/구(평균 2.01명) 대비 높은 수치를 보임.
예산별 적정 인력은 5천억 원 이상(평균 3.08명), 2천억 원 미만(평균 2.14명), 5천억 원 미만(평균 1.74명), 3천억 원 미만(평균 1.73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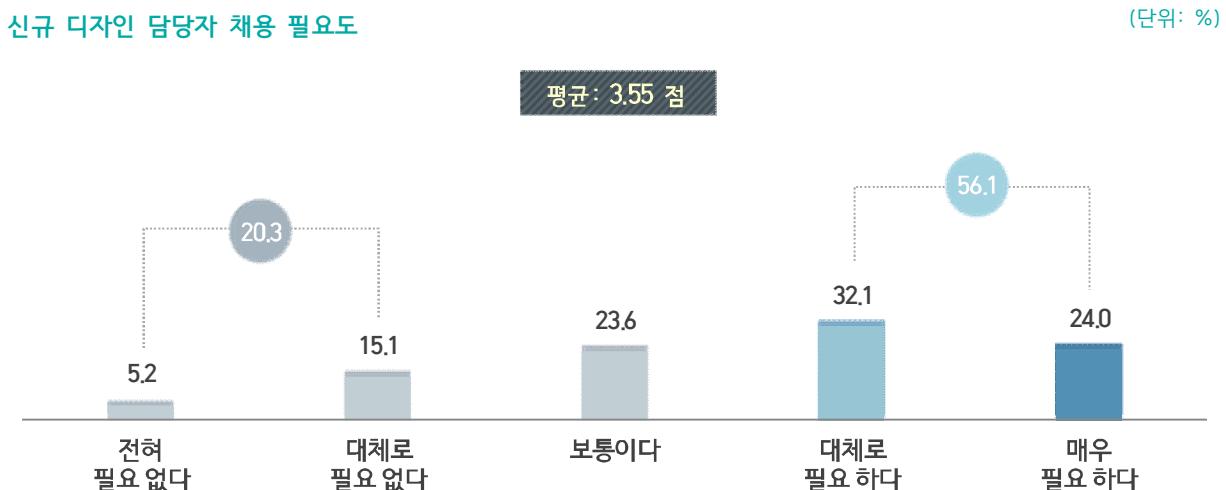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구인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0명	1명	2명	3명	4~9명	10명 이상	평균(명)
지자체		11.1	32.1	25.5	17.7	9.2	2.6	2.35
지자체	시/도	6.7	13.3	20.0	6.7	26.7	20.0	6.14
	시/군/구	10.3	33.0	25.4	20.5	8.9	0.9	2.01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0.0	14.3	57.1	28.6	0.0	0.0	2.14
	3천억 원 미만	18.9	37.8	13.5	18.9	10.8	0.0	1.73
	5천억 원 미만	11.7	37.9	28.2	15.5	5.8	0.0	1.74
	5천억 원 이상	5.4	23.9	23.9	23.9	15.2	5.4	3.08

2) 신규 디자인 담당자 채용 필요도

- 신규 디자인 담당자 채용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55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56.1%(대체로 : 32.1% + 매우 : 24.0%)로 높고, '필요 없다'는 20.3%(대체로 : 15.1% + 전혀 : 5.2%)로 나타남. '보통이다'는 23.6%의 비율을 보임.



- 구분별 디자인 담당자 채용 필요도는 지자체에서 평균 3.63점으로 중앙부처(평균 2.94점) 대비 높게 나타남. 전담부서 유무에 따른 채용 필요도는,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평균 3.9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평균 3.51점),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평균 3.33점)의 순으로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신규 디자인 담당자 채용 필요도

(단위: %)

구분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필요 하다	평균(점)
		전혀 필요 없다	대체로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5.2	15.1	20.3	23.6	32.1	24.0	56.1	3.55		
구분	지자체	3.8	15.5	19.2	21.3	33.1	26.4	59.4	3.63		
	중앙부처	15.6	12.5	28.1	40.6	25.0	6.3	31.3	2.94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2.2	7.9	10.1	19.1	39.3	31.5	70.8	3.90		
	디자이너만 있음	8.5	17.0	25.5	21.3	21.3	31.9	53.2	3.51		
	없음	5.9	19.3	25.2	27.4	31.1	16.3	47.4	3.33		

- 지자체 규모별 신규 디자인 담당자 채용 필요도는 시/도 단위에서 평균 3.87점으로 시/군/구 단위(평균 3.61점)에 비해 다소 높은 필요도를 보임.
예산별로는 전반적으로 예산 단위가 커짐에 따라 채용 필요도가 커지는 가운데,
5천억 원 이상의 단위에서는 평균 3.82점으로 높음.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신규 디자인 담당자 채용 필요도

(단위: %)

구분		전혀 필요 없다	대체로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평균(점)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지자체		5.2	15.1	20.3	23.6	32.1	24.0	56.1	3.55
지자체	시/도	0.0	13.3	13.3	20.0	33.3	33.3	66.7	3.87
	시/군/구	4.0	15.6	19.6	21.4	33.0	25.9	58.9	3.61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0.0	42.9	42.9	14.3	28.6	14.3	42.9	3.14
	3천억 원 미만	2.7	27.0	29.7	24.3	24.3	21.6	45.9	3.35
	5천억 원 미만	5.8	13.6	19.4	22.3	32.0	26.2	58.3	3.59
	5천억 원 이상	2.2	10.9	13.0	19.6	38.0	29.3	67.4	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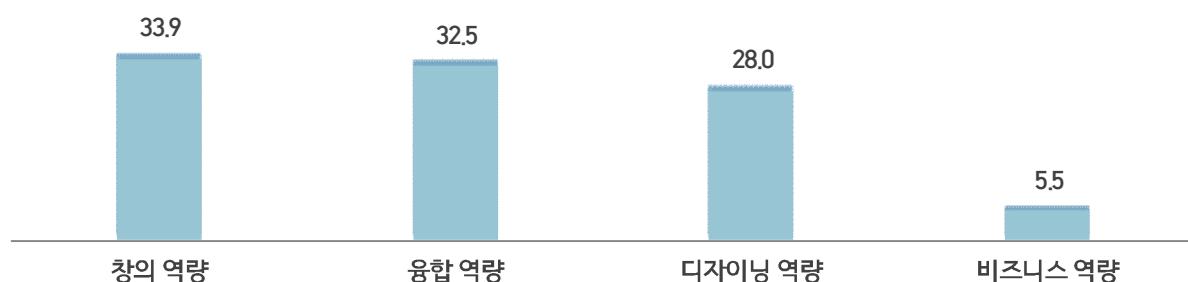
3 디자인 교육

1)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을 조사한 결과, 33.9%가 '창의 역량'이라는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융합역량'(32.5%), '디자이닝 역량'(28.0%), '비즈니스 역량'(5.5%)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보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단위: %)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는 '융합 역량'(34.3%)을 가장 필요 역량으로 뽑은 반면, 중앙부처는 '디자이닝 역량'(46.9%)을 가장 필요 역량으로 응답함. 다음 필요 역량으로는 지자체는 중앙부처 모두 '창의 역량'(각각 33.9%, 34.4%)을 꼽음.
- 전담부서별로는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융합 역량'(41.6%)을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뽑은 반면,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 '창의 역량'(43.7%)으로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단위: %)

구분		창의 역량	융합 역량	디자이닝 역량	비즈니스 역량
중앙부처 및 지자체		33.9	32.5	28.0	5.5
구분	지자체	33.9	34.3	25.5	6.3
	중앙부처	34.4	18.8	46.9	0.0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27.0	41.6	23.6	7.9
	디자이너만 있음	19.1	38.3	38.3	4.3
	없음	43.7	24.4	27.4	4.4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도 단위에서 '융합 역량'이 53.3%로 디자이너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꼽힌 가운데, 시/군/구에서는 '창의역량'(35.3%)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예산별로는 2천억 원 미만에서는 '디자이닝 역량'이 7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3천억 원 미만의 예산 단위에서는 '창의 역량'(51.4%)을 디자이너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나타남. 5천억 원 미만과 5천억 원 이상에서는 모두 '융합역량'이 각각 35.0%, 40.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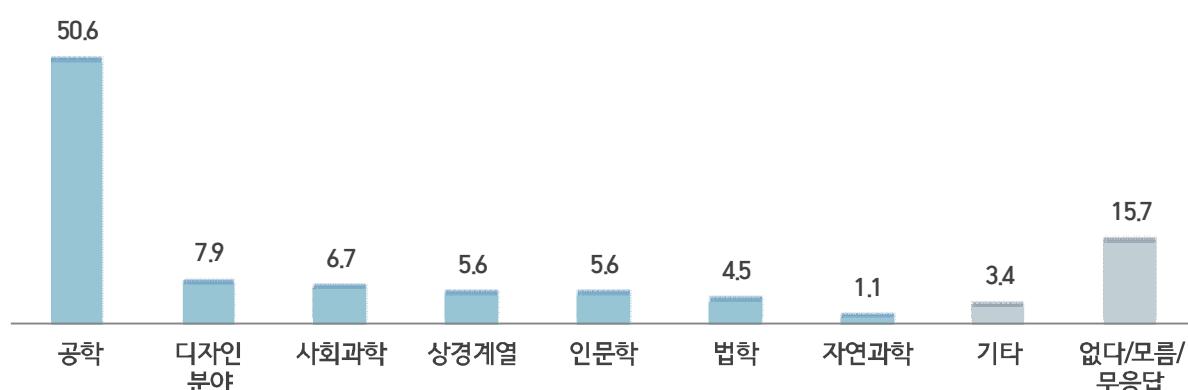
구분		창의 역량	융합 역량	디자이닝 역량	비즈니스 역량
지자체		33.9	32.5	28.0	5.5
지자체	시/도	13.3	53.3	20.0	13.3
	시/군/구	35.3	33.0	25.9	5.8
지자체예산	2천억 원 미만	28.6	0.0	71.4	0.0
	3천억 원 미만	51.4	24.3	18.9	5.4
	5천억 원 미만	29.1	35.0	29.1	6.8
	5천억 원 이상	32.6	40.2	20.7	6.5

2)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 필요한 인력의 전공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학' 분야가 5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 '디자인분야'(7.9%), '사회과학'(6.7%), '상경계열'(5.6%), '인문학'(5.6%), '법학'(4.5%), '자연과학'(1.1%)의 순서로 나타남. '기타'는 3.4%, '없다/모름/무응답'은 15.7%로 나타남.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단위: %)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에서는 '공학'(51.2%), 중앙부처에서는 '법학'(66.7%) 분야의 인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중앙부처의 경우 '공학'과 '법학'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0.0%의 응답률을 보여, '상경계열', '사회과학' 등의 전공 분야 인재에 대한 필요도는 낮게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단위: %)

구분		공학	디자인분야	사회과학	상경계열	인문학	법학	자연과학	기타
중앙부처 및 지자체		50.6	7.9	6.7	5.6	5.6	4.5	1.1	3.4
구분	지자체	51.2	8.1	7.0	5.8	5.8	2.3	1.2	3.5
	중앙부처	33.3	0.0	0.0	0.0	0.0	66.7	0.0	0.0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구분에서 ‘공학’ 전공의 인재에 대한 필요 비중이 높은 가운데, 시/도(54.5%) 단위 응답률이 시/군/구(50.7%) 단위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예산별 결과 역시 모든 예산 단위에서 ‘공학’ 전공 인재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2천억 원 미만에서는 100.0%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임. ‘디자인분야’ 전공의 경우 5천억 원 미만의 예산 단위에서 20.8%의 필요도를 보임.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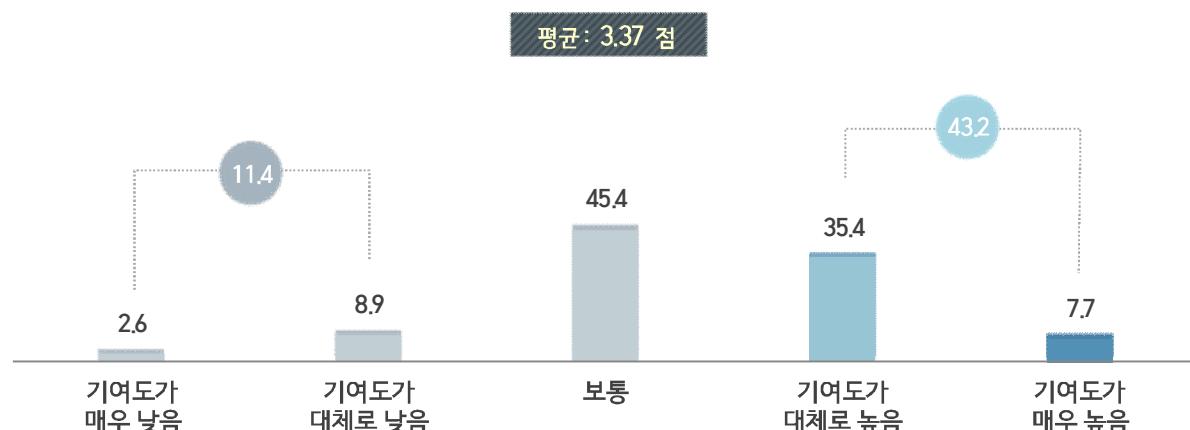
구분		공학	디자인 분야	사회과학	상경계열	인문학	법학	자연과학	기타
지자체		50.6	7.9	6.7	5.6	5.6	4.5	1.1	3.4
지자체	시/도	54.5	9.1	18.2	0.0	0.0	9.1	0.0	0.0
	시/군/구	50.7	8.0	5.3	6.7	6.7	1.3	1.3	4.0
지자체예산	2천억 원 미만	100.0	0.0	0.0	0.0	0.0	0.0	0.0	0.0
	3천억 원 미만	83.3	0.0	0.0	0.0	0.0	0.0	0.0	0.0
	5천억 원 미만	50.0	20.8	4.2	4.2	0.0	0.0	0.0	4.2
	5천억 원 이상	47.3	3.6	9.1	7.3	9.1	3.6	1.8	3.6

3) 대학 디자인 교육의 기여도

- 대학 디자인 교육의 기여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3.37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보통'의 응답이 45.4%로 가장 많았으며,
'기여도가 높음'('대체로 높음': 35.4% + '매우 높음': 7.7%)의 응답이 43.2%,
'기여도가 낮음'('대체로 낮음': 8.9% + '매우 낮음': 2.6%)의 응답 비율은 11.4%를 차지함.

대학 디자인 교육의 기여도

(단위: %)



- 정부기관 구분별 대학 디자인 교육의 기여도는 지자체에서 평균 3.36점, 중앙부처에서 평균 3.44점으로 비슷한 기여도 수준을 보임.
전담부서별로 살펴보면, 딜라이너만 있는 경우 평균 3.47점으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다음은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평균 3.37점),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평균 3.33점)의 순으로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대학 디자인 교육의 기여도

(단위: %)

구분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음	낮음	보통	대체로 높음	매우 높음	높음	평균(점)
중앙부처 및 지자체		2.6	8.9	11.4	45.4	35.4	7.7	43.2	3.37
구분	지자체	2.9	9.6	12.6	43.9	35.6	7.9	43.5	3.36
	중앙부처	0.0	3.1	3.1	56.3	34.4	6.3	40.6	3.44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2.2	12.4	14.6	41.6	33.7	10.1	43.8	3.37
	디자이너만 있음	4.3	8.5	12.8	31.9	46.8	8.5	55.3	3.47
	없음	2.2	6.7	8.9	52.6	32.6	5.9	38.5	3.33

- 지자체 규모별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는 시/도에서 평균 3.40점, 시/군/구에서 3.36점으로 비슷한 기여도를 보임.
 예산별로 살펴보면, 2천억 원 미만을 제외하고 ‘보통’의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2천억 원 미만에서는 ‘대체로 높음’의 응답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2천억 원 미만과 3천억 원 미만은 3.43점, 5천억 원 이상은 3.34점인 가운데
 5천억 원 미만은 3.35점으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임.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대학 디자인 교육의 기여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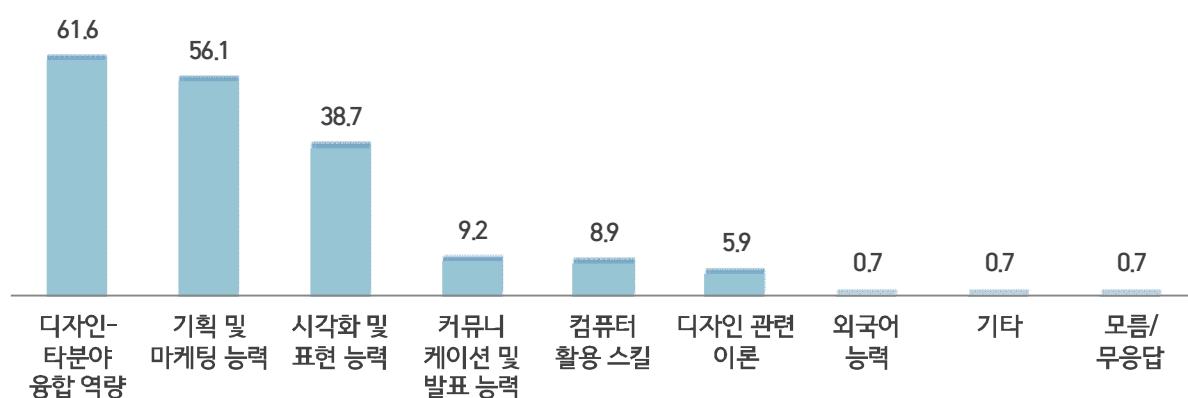
구분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음	낮음	보통			높음	평균(점)
						대체로 높음	매우 높음		
지자체		2.6	8.9	11.4	45.4	35.4	7.7	43.2	3.37
지자체	시/도	0.0	6.7	6.7	60.0	20.0	13.3	33.3	3.40
	시/군/구	3.1	9.8	12.9	42.9	36.6	7.6	44.2	3.36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0.0	14.3	14.3	28.6	57.1	0.0	57.1	3.43
	3천억 원 미만	0.0	10.8	10.8	43.2	37.8	8.1	45.9	3.43
	5천억 원 미만	4.9	9.7	14.6	39.8	36.9	8.7	45.6	3.35
	5천억 원 이상	2.2	8.7	10.9	50.0	31.5	7.6	39.1	3.34

4)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 보강되어야 할 대학 디자인 전공을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이 61.6%로 가장 높고, 다음은 '기획 및 마케팅 능력'(56.1%), '시각화 및 표현 능력'(38.7%),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9.2%), '컴퓨터 활용 스킬'(8.9%) 등이 보강되어야 할 전공으로 조사됨.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단위: %, 중복응답)



- 정부기관 구분별로는, 지자체에서는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이 65.3%로 가장 보강되어야 할 전공으로 뽑았으며, 중앙부처에서는 '시각화 및 표현능력'(62.5%)을 뽑음.
- 전담부서별로는,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 기관과 디자이너만 있는 기관에서 '디자인-타분야 융합역량'을 각각 73.0%, 61.7%로 가장 보강되어야 할 전공으로 꼽음.

▶ 구분별/전담부서별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	기획 및 마케팅 능력	시각화 및 표현 능력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능력	컴퓨터 활용 스킬	디자인 관련 이론	외국어 능력	기타
중앙부처 및 지자체		61.6	56.1	38.7	9.2	8.9	5.9	0.7	0.7
구분	지자체	65.3	55.6	35.6	9.2	7.9	6.7	0.4	0.8
	중앙부처	34.4	59.4	62.5	9.4	15.6	0.0	3.1	0.0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73.0	59.6	30.3	16.9	5.6	4.5	1.1	1.1
	디자이너만 있음	61.7	53.2	36.2	10.6	12.8	6.4	0.0	2.1
	없음	54.1	54.8	45.2	3.7	9.6	6.7	0.7	0.0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구분에서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의 비중이 다른 전공 대비 높은 가운데, 시/도(80.0%) 단위 응답률이 시/군/구(64.3%) 단위 대비 높게 나타남.
- 예산별 결과는 2천억 원 미만에서는 '기획 및 마케팅 능력'이 57.1%로, 3천억 원 미만에서는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과 '기획 및 마케팅 능력'이 모두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5천억 원 미만과 5천억 원 이상에서는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이 각각 69.9%, 64.1%로 가장 보강이 필요한 대학 디자인 전공으로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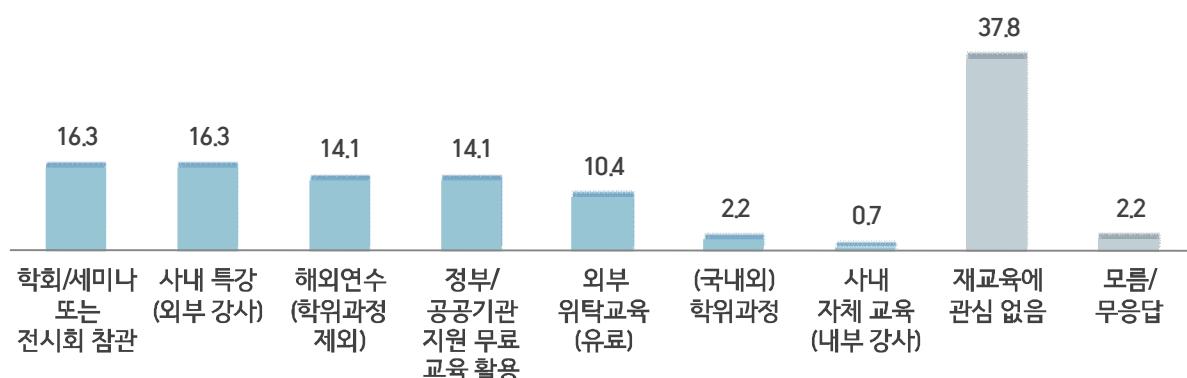
구분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	기획 및 마케팅 능력	시각화 및 표현 능력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능력	컴퓨터 활용 스킬	디자인 관련 이론	외국어 능력	기타
지자체		61.6	56.1	38.7	9.2	8.9	5.9	0.7	0.7
지자체	시/도	80.0	73.3	33.3	6.7	0.0	0.0	0.0	0.0
	시/군/구	64.3	54.5	35.7	9.4	8.5	7.1	0.4	0.9
지자체예산	2천억 원 미만	42.9	57.1	42.9	14.3	28.6	0.0	0.0	0.0
	3천억 원 미만	59.5	59.5	45.9	2.7	8.1	8.1	0.0	0.0
	5천억 원 미만	69.9	51.5	35.0	8.7	4.9	6.8	0.0	1.0
	5천억 원 이상	64.1	58.7	31.5	12.0	9.8	6.5	1.1	1.1

5)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을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16.3%가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과 '사내특강 (외부 강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해외연수(학위과정제외)'와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이 14.1%, '외부 위탁교육(유료)'가 10.4%의 선호도(활용도)를 보임.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중복응답)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의 경우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방법을 17.7%로 가장 선호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경우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과

'외부 위탁교육(유료)'(18.2%)를 가장 선호(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담부서별로는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20.5%)의 선호도(활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중복응답)

구분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사내 특강 (외부 강사)	해외연수 (학위과정 제외)	정부/ 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외부 위탁교육 (유료)	(국내외) 학위과정	사내 자체 교육 (내부 강사)	재교육에 관심 없음
중앙부처 및 지자체		16.3	16.3	14.1	14.1	10.4	2.2	0.7	37.8
구분	지자체	17.7	16.9	15.3	13.7	9.7	2.4	0.8	35.5
	중앙부처	0.0	9.1	0.0	18.2	18.2	0.0	0.0	63.6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20.5	18.2	13.6	13.6	8.0	2.3	1.1	35.2
	디자이너만 있음	8.5	12.8	14.9	14.9	14.9	2.1	0.0	42.6
	없음	-	-	-	-	-	-	-	-

-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도 단위에서는 27.3%가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과 ‘사내 특강(외부 강사)’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으로 가장 선호(많이 활용)하는 가운데, ‘(국내외)학위과정’과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은 0.0%의 비율을 보임. 시/군/구 단위에서는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16.8%)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으로 가장 선호(많이 활용)함.
- ❖ 예산별로는 2천억 원 미만과 5천억 원 미만에서 ‘해외연수(학위과정 제외)’가 각각 50.0%, 21.3%로 선호(활용)도가 높게 나타났고, 3천억 원 미만에서는 ‘정부/공공기관지원 무료교육 활용’(37.5%), 5천억 원 이상에서는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25.4%)의 선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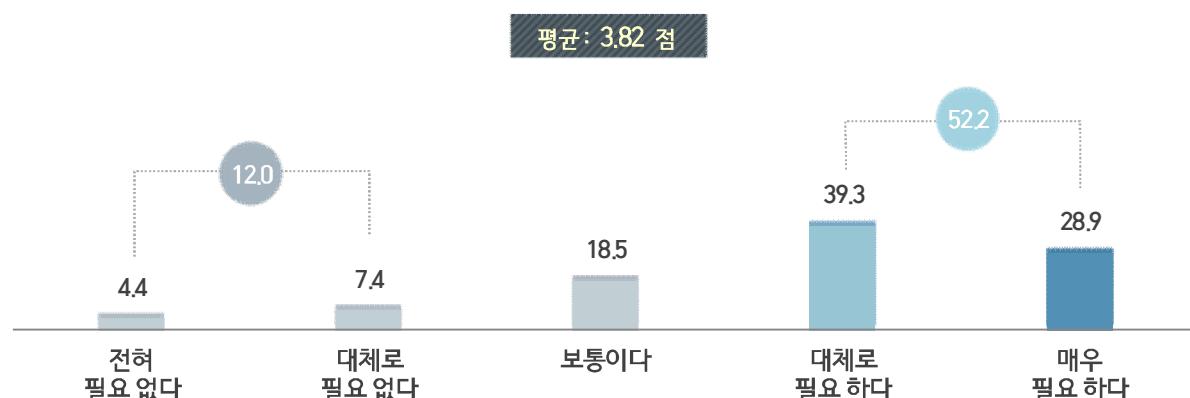
구분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사내 특강 (외부 강사)	해외연수 (학위과정 제외)	정부/ 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외부 위탁교육 (유료)	(국내외) 학위과정	사내 자체 교육 (내부 강사)	재교육에 관심 없음
지자체		16.3	16.3	14.1	14.1	10.4	2.2	0.7	37.8
지 자 체	시/도	27.3	27.3	9.1	9.1	9.1	0.0	0.0	27.3
	시/군/구	16.8	15.9	15.9	14.2	9.7	2.7	0.9	36.3
지 자 체 예 산	2천억 원 미만	0.0	0.0	50.0	0.0	0.0	0.0	0.0	50.0
	3천억 원 미만	0.0	12.5	0.0	37.5	0.0	0.0	0.0	50.0
	5천억 원 미만	10.6	12.8	21.3	14.9	6.4	4.3	2.1	40.4
	5천억 원 이상	25.4	20.9	11.9	10.4	13.4	1.5	0.0	29.9

6) 디자인 교육 필요도

- 디자인 교육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82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필요하다'('대체로 필요하다'): 39.3% + '매우 필요하다': 28.9%)는 응답이 52.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필요 없다'('대체로 필요 없다': 7.4% + '전혀 필요 없다': 4.4%)라고 응답한 비율은 12.0%로 나타남.

직원 디자인 교육 필요도

(단위: %)



※ 모름/무응답 : 1.5%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와 중앙부처 모두 평균 3.82점의 필요도를 보임.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평균 3.87점으로 나타나, 디자이너만 있는 부서(평균 3.72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직원 디자인 교육 필요도

(단위: %)

구분		필요도				보통 이다	필요 하다	평균(점)	
		전혀 필요 없다	대체로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대체로 필요하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4.4	7.4	12.0	18.5	39.3	28.9	69.2	3.82
구분	지자체	4.8	7.3	12.3	16.9	41.1	28.2	70.5	3.82
	중앙부처	0.0	9.1	9.1	36.4	18.2	36.4	54.5	3.82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3.4	5.7	9.3	15.9	47.7	25.0	74.4	3.87
	디자이너만 있음	6.4	10.6	17.0	23.4	23.4	36.2	59.6	3.72
	없음	-	-	-	-	-	-	-	-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도 단위에서는 평균 4.27점으로 시/군/구 단위(평균 3.77점)과 비교하여 높은 필요도를 보임.
예산별 직원 디자인 교육 필요도는 3천억 원 미만(평균 4.13점), 2천억 원 미만(평균 4.00점), 5천억 원 이상(평균 3.97점), 5천억 원 미만(평균 3.53점)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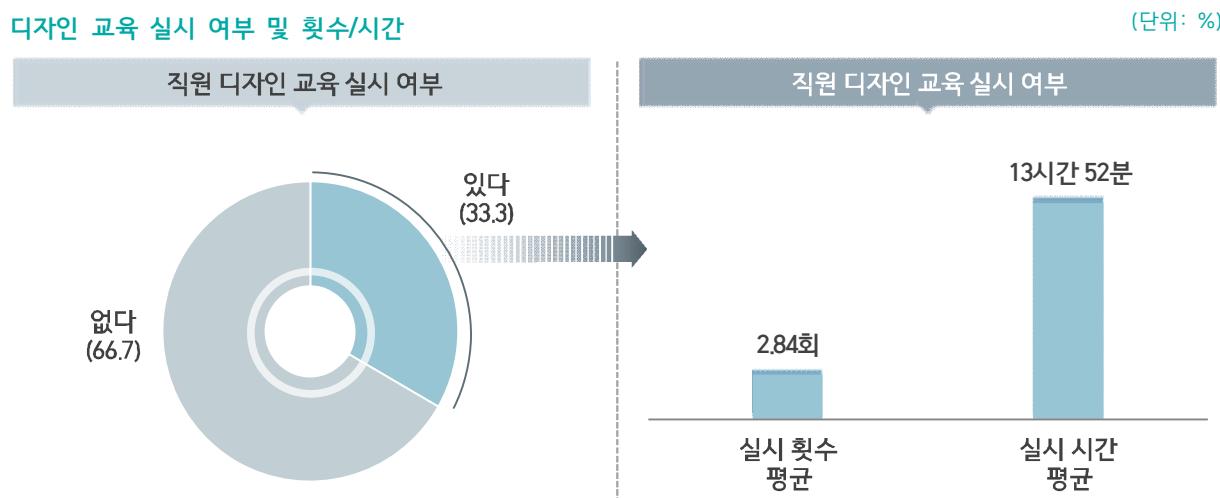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직원 디자인 교육 필요도

(단위: %)

구분		전혀 필요 없다	대체로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평균(점)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지자체		4.4	7.4	12.0	18.5	39.3	28.9	69.2	3.82
지자체	시/도	0.0	0.0	0.0	0.0	72.7	27.3	100.0	4.27
	시/군/구	5.3	8.0	13.5	18.6	38.1	28.3	67.6	3.77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0.0	0.0	0.0	50.0	0.0	50.0	50.0	4.00
	3천억 원 미만	0.0	12.5	12.5	0.0	50.0	37.5	87.5	4.13
	5천억 원 미만	6.4	10.6	17.8	25.5	31.9	21.3	55.6	3.53
	5천억 원 이상	4.5	4.5	9.0	11.9	47.8	31.3	79.1	3.97

7)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및 횟수/시간

- 디자인 교육을 실시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의 비율이 33.3%로 나타남.
직원 디자인 교육을 실시한 기관을 대상으로 횟수 및 시간을 조사한 결과, 교육 '실시 시간'은 평균 13시간 52분으로 나타났고, '실시 횟수'는 평균 2.84회로 나타남.



- 정부기관 구분별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는 '있다'의 응답이 지자체(34.7%)에서 중앙부처(18.2%) 대비 높게 나타남. 직원 디자인 교육 횟수 평균은 지자체는 2.26번, 중앙부처는 15.50번이었으며, 교육 시간 평균은 지자체 9.63시간, 중앙부처 105.00시간으로 나타남.
- 전담부서별로는 전담부서의 유무와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의 교육 실시 정도를 보인 반면, 교육 시간의 경우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17.30시간)가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7.00시간)에 비해 높은 시간을 보임.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및 횟수/시간

(단위: %)

구분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횟수/시간	
	있다	없다	횟수 평균	시간 평균
중앙부처 및 지자체	33.3	66.7	2.84	13.87
구분	지자체	34.7	2.26	9.63
	중앙부처	18.2	15.50	105.00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34.1	3.17	17.30
	디자이너만 있음	31.9	2.20	7.00
	없음	-	-	-

-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직원 디자인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의 응답은 시/도 단위(36.4%)가 시/군/구(34.5%) 단위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남. 교육 시간의 평균 또한 시/도(11.25시간) 단위에서 시/군/구(9.46시간) 단위 대비 높게 나타남.
- ❖ 예산별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천억 원 미만(50.0%), 5천억 원 이상(38.8%), 5천억 원 미만(29.8%), 3천억 원 미만(25.0%)의 순으로 나타남.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횟수는 3천억 원 미만(3.00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시 시간 역시 3천억 원 미만(11시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및 횟수/시간

(단위: %)

구분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횟수/시간	
		있다	없다	횟수 평균	시간 평균
지자체		33.3	66.7	2.84	13.87
지자체	시/도	36.4	63.6	2.00	11.25
	시/군/구	34.5	65.5	2.28	9.46
지자체예산	2천억 원 미만	50.0	50.0	1.00	4.00
	3천억 원 미만	25.0	75.0	3.00	11.00
	5천억 원 미만	29.8	70.2	2.57	8.50
	5천억 원 이상	38.8	61.2	2.08	10.35

7-1) 실시한 디자인 교육 분야

- 실시한 디자인 교육 분야를 살펴본 결과(중복응답 기준), '공공디자인'이 1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유니버설 디자인'(8.1%), '셉테드디자인'(6.7%), '도시디자인'(3.0%), '전시회 및 박람회 참관'(3.0%)의 순서로 나타남. 그 외에도 '경관디자인', '디자인 우수지역 탐방', '세미나 참석', '환경디자인' 등의 분야에 대한 교육이 실시됨.

▶ 실시한 디자인 교육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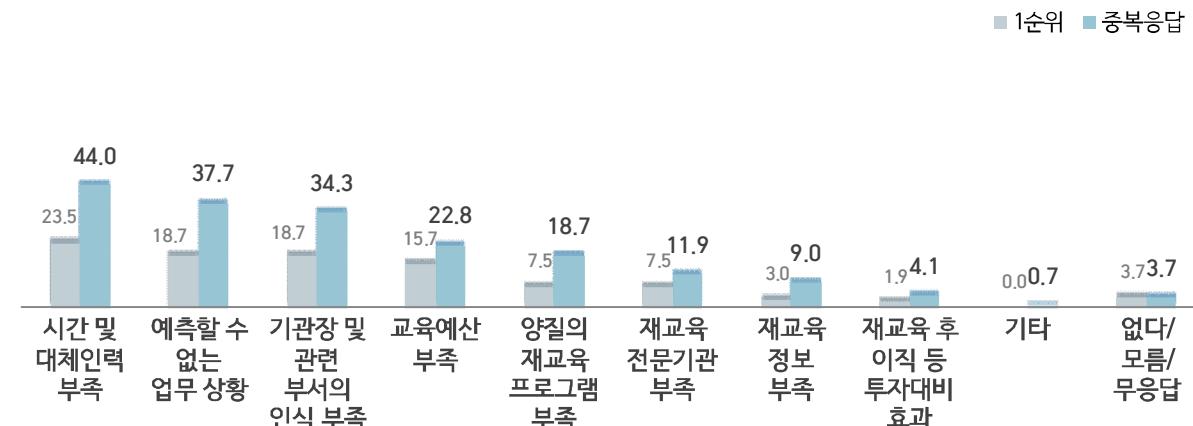
(단위: %, 중복응답)

구 분	비율
공공디자인	14.1
유니버설 디자인	8.1
셉테드 디자인(범죄예방)	6.7
도시디자인	3.0
전시회 및 박람회 참관	3.0
경관디자인	2.2
디자인 우수지역 탐방	2.2
세미나 참석	2.2
환경디자인	2.2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1.5
색채교육	1.5
서비스디자인	1.5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무료교육 활용	1.5
도시브랜드	0.7
도시재생	0.7
디자인 보호법	0.7
디자인 트렌드	0.7
디자이노믹스	0.7
도시문화	0.7
옥외광고물 관련	0.7
저작권 홍보	0.7
지역환경 개선 사례	0.7
국제포럼	0.7
직무교육	0.7
없음	63.7

8)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44.0%가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을 꼽았고, 다음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37.7%), '기관장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34.3%), '교육예산 부족'(2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1순위 응답 역시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이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와 중앙부처 모두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을 각각 42.6%, 54.8%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음. 다음 애로사항 또한 공통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각각 36.3%, 48.4%)으로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	기관장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	교육예산 부족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재교육 전문기관 부족	재교육 정보 부족	재교육 후 아직 등 투자대비 효과	기타
중앙부처 및 지자체		44.0	37.7	34.3	22.8	18.7	11.9	9.0	4.1	0.7
구분	지자체 중앙부처	42.6 54.8	36.3 48.4	35.9 22.6	22.8 22.6	19.0 16.1	12.2 9.7	10.1 0.0	4.2 3.2	0.8 0.0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44.3	27.3	37.5	23.9	20.5	15.9	15.9	3.4	0.0
	디자이너만 있음	40.4	34.0	44.7	23.4	21.3	12.8	4.3	4.3	2.1
	없음	45.1	45.9	28.6	21.8	16.5	9.0	6.0	4.5	0.8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도 단위에서는 '기관장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을 46.7%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다음은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33.3%)을 꼽음. 시/군/구 단위에서는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을 43.7%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36.9%)을 꼽음.
- 예산별로는 2천억 원 미만을 제외한 모든 예산 단위에서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으며, 2천억 원 미만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과 '기관장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에 42.9%의 높은 비율을 보임.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총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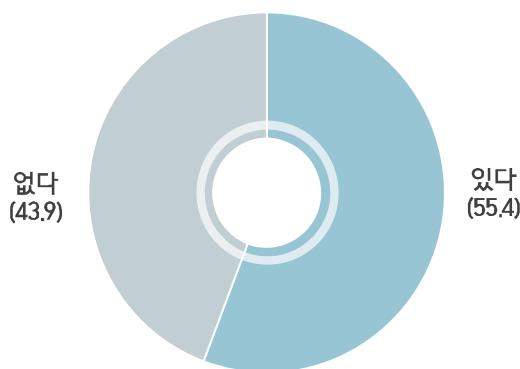
구분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	기관장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	교육예산 부족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재교육 전문기관 부족	재교육 정보 부족	재교육 후 이직 등 투자대비 효과	기타
지자체		44.0	37.7	34.3	22.8	18.7	11.9	9.0	4.1	0.7
지자체	시/도	26.7	26.7	46.7	13.3	33.3	20.0	13.3	0.0	0.0
	시/군/구	43.7	36.9	35.1	23.4	18.0	11.7	9.9	4.5	0.9
지자체예산	2천억 원 미만	14.3	42.9	42.9	0.0	28.6	0.0	14.3	14.3	0.0
	3천억 원 미만	45.9	43.2	35.1	18.9	10.8	18.9	5.4	5.4	0.0
	5천억 원 미만	43.1	38.2	36.3	26.5	15.7	9.8	10.8	2.9	0.0
	5천억 원 이상	42.9	30.8	35.2	22.0	25.3	13.2	11.0	4.4	2.2

4 기타

1)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 정부기관의 공공디자인에 대해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이 ‘있다’는 55.4%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절반가량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단위: %)



* 모름/무응답 : 0.7%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이 ‘있다’는 지자체가 58.6%로 중앙부처(31.3%) 대비 높게 나타남.
전담부서별로 살펴보면, 전담부서 있거나 디자이너만 있는 정부기관의 경우에 비율 높음.

▶ 구분별/전담부서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55.4	43.9
구분	지자체	58.6	41.4
	중앙부처	31.3	62.5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84.3	14.6
	디자이너만 있음	66.0	34.0
	없음	32.6	66.7

- 지자체 구분별로 살펴보면, 시/도와 시/군/구 모두 가이드라인 및 마스터플랜이 ‘있다’가 높은 가운데, 특히 시/도는 80.0%로 시/군/구(57.1%) 대비 높음.
- 지자체 예산별로는 5천억 원 이상 예산 규모를 제외한 경우 ‘없다’가 ‘있다’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5천억 원 이상 예산 규모에서는 ‘있다’의 비율이 84.8%로 높게 나타남. 또한 예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있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지자체		55.4	43.9
지 자 체	시/도	80.0	20.0
	시/군/구	57.1	42.9
지 자 체 예 산	2천억 원 미만	28.6	71.4
	3천억 원 미만	29.7	70.3
	5천억 원 미만	47.6	52.4
	5천억 원 이상	84.8	15.2

2) 디자인 예산 집행방법별 비율

- 디자인 관련 예산 집행 시 기관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하는 비중은 기관 평균 90.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반면, 산하기관을 통해 발주하는 비율은 평균 7.51%, 그 외 기타 발주 비율은 평균 1.89%로 낮게 나타남.

디자인 예산 집행방법별 비율

(단위: %)



- 모든 지자체 구분과 디자인 전담부서 구분에서 '기관 직접 용역 발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지자체(93.01%)와 전담부서가 있는 기관(93.29%)에서 높게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예산 집행 방법별 비율

(단위: %)

구분		기관 직접 용역 발주 비중 평균	산하기관을 통해 발주 비중 평균	기타 발주 비중 평균
중앙부처 및 지자체		90.26	7.51	1.89
구분	지자체	93.01	5.45	1.30
	중앙부처	69.63	22.96	6.25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93.29	5.65	1.01
	디자이너만 있음	87.44	12.56	0.00
	없음	88.90	6.93	3.12

- 지자체 구분별로 살펴보면, 지자체 구분과 관계없이 ‘기관 직접 용역 발주’의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시/군/구는 94.31%, 시/도는 72.50%의 비중을 보임.
‘산하기관을 통해 발주’ 비중은 시/도에서 19.17%로 시/군/구(4.58%) 대비 높게 나타남.
- 지자체 예산별 결과 역시 ‘기관 직접 용역 발주’의 비중이 90.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2천억 원 미만과 3천억 원 미만에서 98.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산하기관을 통해 발주’하는 비중은 5천억 원 이상 예산 기관에서 6.79%로 다른 예산 규모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예산 집행 방법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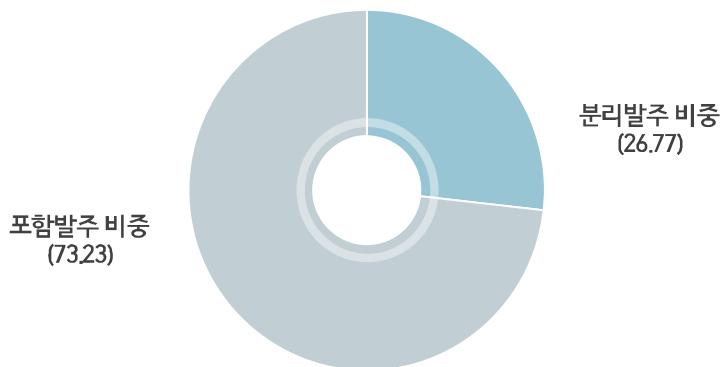
구분		기관 직접 용역 발주 비중 평균	산하기관을 통해 발주 비중 평균	기타 발주 비중 평균
지자체		90.26	7.51	1.89
지 자 체	시/도	72.50	19.17	6.67
	시/군/구	94.31	4.58	0.94
지 자 체 예 산	2천억 원 미만	98.57	0.00	1.43
	3천억 원 미만	98.57	1.03	0.31
	5천억 원 미만	92.12	6.12	1.46
	5천억 원 이상	91.48	6.79	1.52

3) 디자인 사업 발주방법별 비율

- 공공디자인이 포함된 사업을 발주할 경우, 설계·시공 등과 디자인산업 부분을 포함하여 발주하는 ‘포함발주’ 비중이 평균 73.23%로 ‘분리 발주’(26.77%)보다 높게 나타남.

디자인 사업 발주방법별 비율

(단위: %)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포함발주’의 비중이 ‘분리발주’ 비중을 앞서는 가운데, 특히 ‘포함발주’ 비중은 중앙부처(78.80%)에서 지자체(75.5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전담부서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전담부서 유무와 관계없이 ‘포함 발주’의 비중이 60.0%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전담부서와 디자이너가 없는 정부기관의 경우 80.52%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사업 발주방법별 비율

(단위: %)

구분		분리발주 비중 평균	포함발주 비중 평균
중앙부처 및 지자체		26.77	73.23
구분	지자체	27.48	72.52
	중앙부처	21.20	78.80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34.12	65.88
	디자이너만 있음	30.48	69.52
	없음	19.48	80.52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구분에서 '포함발주'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시/도 단위는 59.09%, 시/군/구 단위는 73.32%로 나타남.
예산별로도 모든 예산 단위에서 '포함 발주'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3천억 원 미만의 경우 87.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사업 발주방법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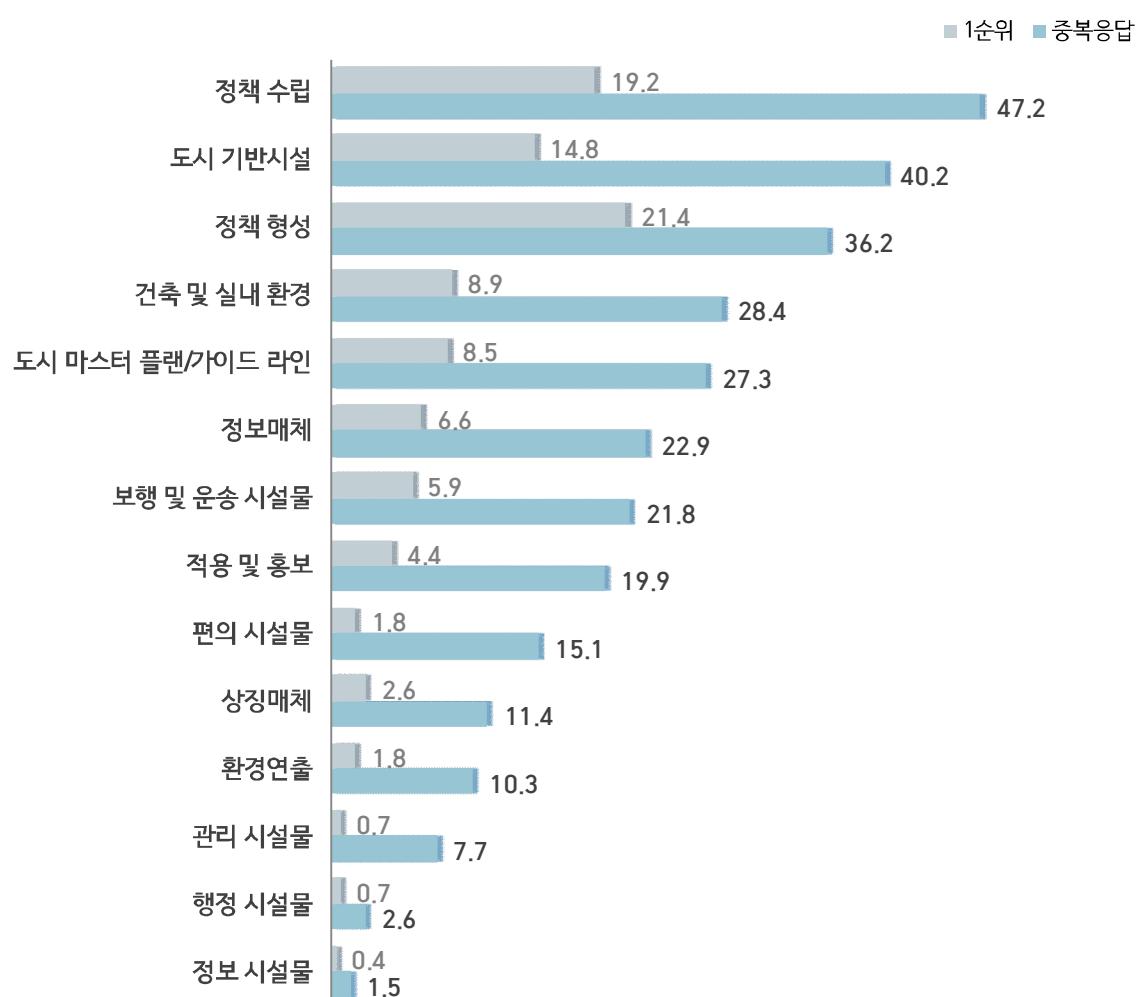
구분		분리발주 비중 평균	포함발주 비중 평균
지자체		26.77	73.23
지 자 체	시/도	40.91	59.09
	시/군/구	26.68	73.32
지 자 체 예 산	2천억 원 미만	17.14	82.86
	3천억 원 미만	12.69	87.31
	5천억 원 미만	28.47	71.53
	5천억 원 이상	32.32	67.68

4) 공공디자인사업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

- 공공디자인사업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을 살펴본 결과(중복응답 기준), '정책 수립'이 47.2%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도시기반시설'(40.2%), '정책 형성'(36.2%), '건축 및 실내 환경'(28.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1순위 응답 기준에서는 '정책 형성'(21.4%), '정책 수립'(19.2%), '도시 기반시설'(14.8%) 등 의 순으로 나타남.

공공디자인사업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

(단위: %)



※ 모름/무응답 : 1.1%

-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는 '정책 수립'(48.5%)을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았으며, 다음은 '도시 기반시설'(41.4%), '정책 형성'(35.6%)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중앙부처는 '정책 형성'(40.6%)을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았으며, '정책 수립'(37.5%), '적용 및 홍보'(3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전담부서별로 살펴보면, 전담부서와 디자이너가 있는 기관의 경우 '정책 수립'을 각각 57.3%, 53.2%로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은 반면,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의 경우 '도시 기반시설'(40.7%)을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았음.

▶ 구분별/전담부서별 공공디자인사업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

(단위: %, 총복응답)

구분		정책 수립	도시 기반시설	정책 형성	건축 및 실내 환경	도시 마스터 플랜/ 가이드라인	정보매체	보행 및 운송 시설물
중앙부처 및 지자체		47.2	40.2	36.2	28.4	27.3	22.9	21.8
구분	지자체	48.5	41.4	35.6	29.3	30.5	21.8	22.6
	중앙부처	37.5	31.3	40.6	21.9	3.1	31.3	15.6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57.3	41.6	39.3	28.1	34.8	18.0	19.1
	디자이너만 있음	53.2	36.2	42.6	23.4	27.7	21.3	17.0
	없음	38.5	40.7	31.9	30.4	22.2	26.7	25.2

구분		적용 및 홍보	편의 시설물	상징매체	환경연출	관리 시설물	행정 시설물	정보 시설물
중앙부처 및 지자체		19.9	15.1	11.4	10.3	7.7	2.6	1.5
구분	지자체	18.0	15.1	10.5	11.3	7.1	2.1	1.7
	중앙부처	34.4	15.6	18.8	3.1	12.5	6.3	0.0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19.1	14.6	4.5	11.2	4.5	2.2	1.1
	디자이너만 있음	21.3	12.8	17.0	10.6	4.3	8.5	4.3
	없음	20.0	16.3	14.1	9.6	11.1	0.7	0.7

-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도 단위에서는 '정책 수립'(53.3%)을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았으며, '정책 형성'(40.0%), '도시 기반시설'(33.3%), '도시 마스터플랜/가이드라인'(33.3%), '정보 매체'(3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시/군/구 단위에서는 '정책 수립'(48.2%)을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음.
- ❖ 예산별로는 3천억 원 미만을 제외하고는 '정책 수립'이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혔으며, 3천억 원 미만에서는 '도시 기반시설'(56.8%)이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공공디자인사업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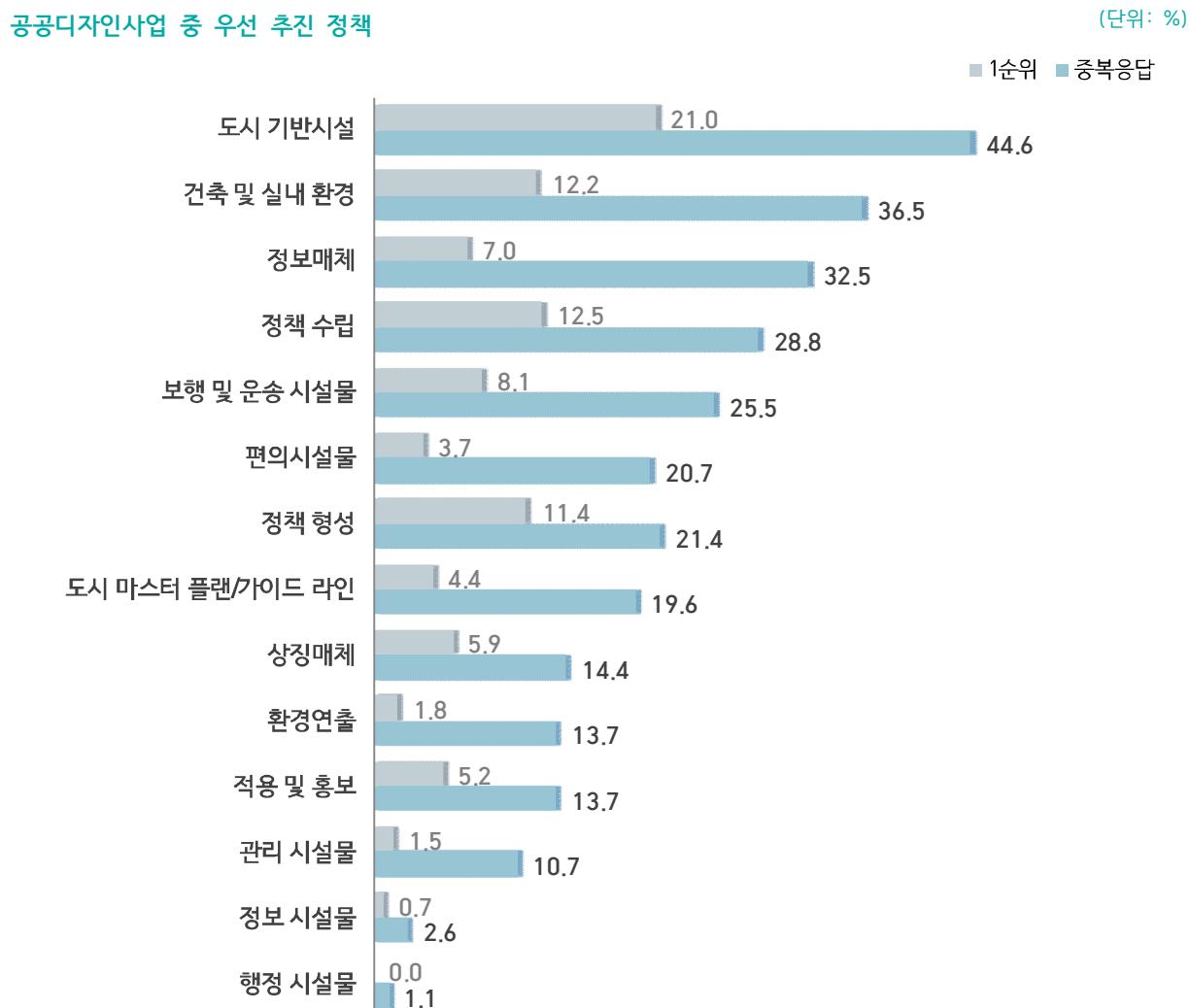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정책 수립	도시 기반시설	정책 형성	건축 및 실내 환경	도시 마스터 플랜/ 가이드라인	정보매체	보행 및 운송 시설물
지자체		47.2	40.2	36.2	28.4	27.3	22.9	21.8
지자체	시/도	53.3	33.3	40.0	20.0	33.3	33.3	26.7
	시/군/구	48.2	42.0	35.3	29.9	30.4	21.0	22.3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71.4	42.9	42.9	28.6	0.0	28.6	0.0
	3천억 원 미만	35.1	56.8	24.3	40.5	27.0	21.6	32.4
	5천억 원 미만	49.5	45.6	35.9	22.3	29.1	22.3	22.3
	5천억 원 이상	51.1	30.4	39.1	32.6	35.9	20.7	20.7

구분		적용 및 홍보	편의 시설물	상징매체	환경연출	관리 시설물	행정 시설물	정보 시설물
지자체		19.9	15.1	11.4	10.3	7.7	2.6	1.5
지자체	시/도	20.0	6.7	13.3	13.3	6.7	0.0	0.0
	시/군/구	17.9	15.6	10.3	11.2	7.1	2.2	1.8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28.6	28.6	0.0	28.6	0.0	0.0	0.0
	3천억 원 미만	8.1	16.2	13.5	10.8	8.1	0.0	2.7
	5천억 원 미만	20.4	13.6	10.7	10.7	7.8	2.9	1.0
	5천억 원 이상	18.5	15.2	9.8	10.9	6.5	2.2	2.2

4-1)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

-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을 살펴본 결과(중복응답 기준), '도시기반시설'이 44.6%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건축 및 실내 환경'(36.5%), '정보매체' (32.5%), '정책 수립'(28.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1순위 기준으로는 '도시 기반시설'(21.0%), '정책 수립(12.5%), '건축 및 실내 환경'(12.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는 '도시 기반시설'(47.3%)을 우선 추진 정책으로 꼽았으며, 다음은 '건축 및 실내 환경'(37.7%), '정보매체'(32.2%) 등의 정책이 나타남. 한편, 중앙부처는 '정책 형성'(37.5%)과 '적용 및 홍보'(37.5%)를 우선 추진 정책으로 꼽았으며, 다음은 '정보 매체'(34.4%)와 '정책 수립'(34.4%), '건축 및 실내 환경'(28.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전담부서별로 살펴보면, 전담부서가 있는 기관의 경우와 디자이너만 있는 기관의 경우 '도시기반시설'(각각 56.2%, 42.6%)을 우선 추진 정책으로 꼽은 가운데,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의 경우 '도시 기반시설'과 '건축 및 실내 환경'이 37.8%로 우선 추진 정책으로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

(단위: %, 총복용답)

구분		도시 기반시설	건축 및 실내 환경	정보매체	정책 수립	보행 및 운송 시설물	편의 시설물	정책 형성
중앙부처 및 지자체		44.6	36.5	32.5	28.8	25.5	20.7	21.4
구분	지자체	47.3	37.7	32.2	28.0	26.8	21.8	19.2
	중앙부처	25.0	28.1	34.4	34.4	15.6	12.5	37.5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56.2	34.8	30.3	37.1	28.1	18.0	21.3
	디자이너만 있음	42.6	36.2	29.8	31.9	21.3	21.3	21.3
	없음	37.8	37.8	34.8	22.2	25.2	22.2	21.5

구분		도시 마스터 플랜/ 가이드 라인	상징매체	환경연출	적용 및 홍보	관리 시설물	정보 시설물	행정 시설물
중앙부처 및 지자체		19.6	14.4	13.7	13.7	10.7	2.6	1.1
구분	지자체	21.8	13.8	14.2	10.5	10.5	2.9	0.8
	중앙부처	3.1	18.8	9.4	37.5	12.5	0.0	3.1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23.6	4.5	15.7	12.4	9.0	1.1	0.0
	디자이너만 있음	27.7	19.1	12.8	19.1	8.5	4.3	4.3
	없음	14.1	19.3	12.6	12.6	12.6	3.0	0.7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구분에서 '도시 기반 시설'이 높은 가운데, 시/도 단위(46.7%) 대비 시/군/구 단위(47.3%)가 높음. 예산별로는 2천억 원 미만을 제외한 모든 예산 단위에서 '도시 기반시설'의 응답률이 높은 가운데, 2천억 원 미만에서는 '정책 수립'이 57.1%로 우선 추진 정책으로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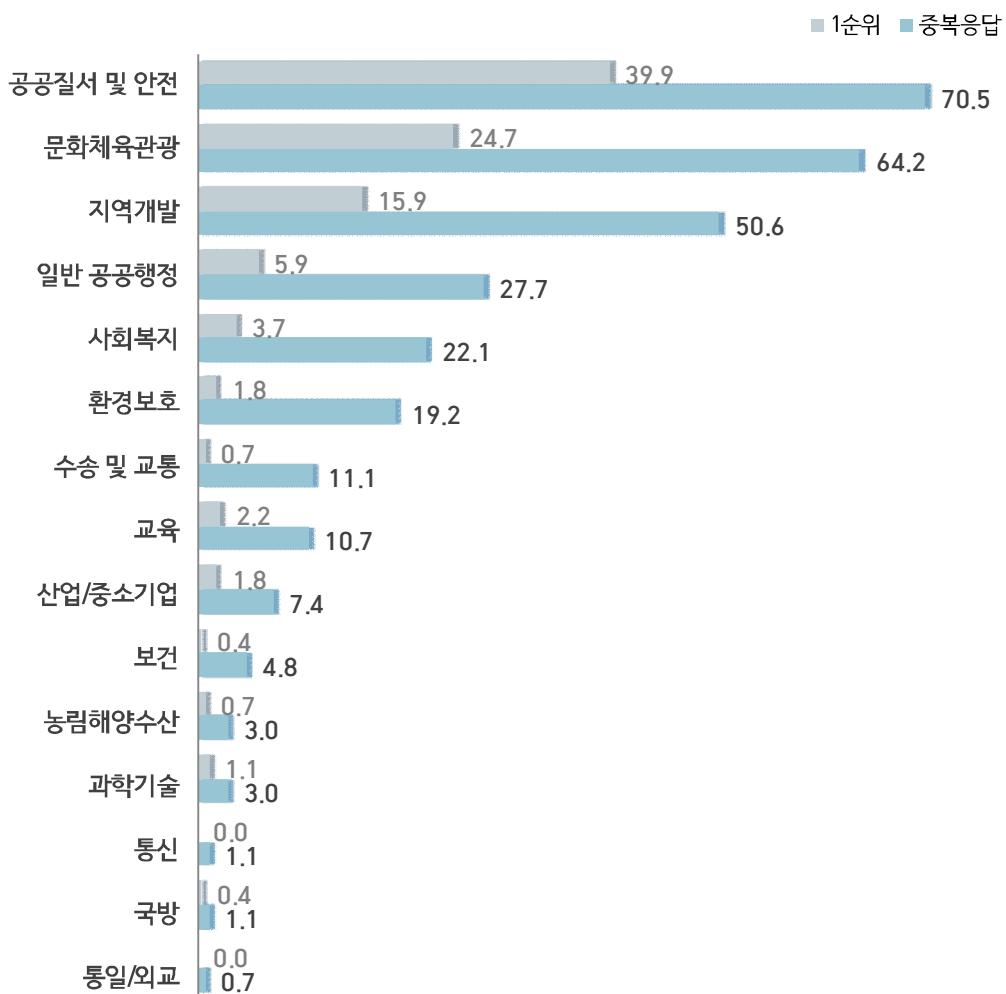
구분		도시 기반시설	건축 및 실내 환경	정보매체	정책 수립	보행 및 운송 시설물	편의 시설물	정책 형성
지자체		44.6	36.5	32.5	28.8	25.5	20.7	21.4
지자체	시/도	46.7	20.0	46.7	33.3	20.0	13.3	13.3
	시/군/구	47.3	38.8	31.3	27.7	27.2	22.3	19.6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42.9	42.9	28.6	57.1	0.0	28.6	42.9
	3천억 원 미만	54.1	48.6	21.6	21.6	27.0	21.6	16.2
	5천억 원 미만	51.5	34.0	35.9	27.2	26.2	22.3	16.5
	5천억 원 이상	40.2	37.0	32.6	29.3	29.3	20.7	21.7

구분		도시 마스터 플랜/ 가이드 라인	상징매체	환경연출	적용 및 홍보	관리 시설물	정보 시설물	행정 시설물
지자체		19.6	14.4	13.7	13.7	10.7	2.6	1.1
지자체	시/도	40.0	20.0	6.7	13.3	6.7	0.0	0.0
	시/군/구	20.5	13.4	14.7	10.3	10.7	3.1	0.9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0.0	0.0	28.6	28.6	0.0	0.0	0.0
	3천억 원 미만	21.6	16.2	10.8	8.1	10.8	2.7	0.0
	5천억 원 미만	20.4	18.4	15.5	8.7	11.7	3.9	1.9
	5천억 원 이상	25.0	8.7	13.0	12.0	9.8	2.2	0.0

5)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

-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을 살펴본 결과(중복응답 기준), ‘공공질서 및 안전’이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문화체육관광’(64.2%), ‘지역개발’(50.6%), ‘일반 공공행정’(27.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1순위 기준 역시 비슷한 순위를 보임.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 (단위: %)



* 모름/무응답 : 0.7%

- 지자체는 '공공질서 및 안전'을 72.8%로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은 가운데, 다음은 '문화체육관광'(64.9%), '지역 개발'(54.8%) 등의 정책이 나타남. 중앙부처는 '문화체육관광'(59.4%)을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았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53.1%), '사회복지'(43.8%) 등의 정책이 나타남.
- 전담부서별로는, 전담부서 유무와 관계없이 '공공질서 및 안전'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 기관의 경우 76.4%로 더욱 높게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체육 관광	지역개발	일반 공공행정	사회복지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교육
중앙부처 및 지자체		70.5	64.2	50.6	27.7	22.1	19.2	11.1	10.7
구분	지자체	72.8	64.9	54.8	29.3	19.2	19.2	11.3	9.6
	중앙부처	53.1	59.4	18.8	15.6	43.8	18.8	9.4	18.8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76.4	69.7	59.6	29.2	21.3	11.2	9.0	5.6
	디자이너만 있음	74.5	61.7	53.2	27.7	25.5	10.6	4.3	21.3
	없음	65.2	61.5	43.7	26.7	21.5	27.4	14.8	10.4

구분		산업/ 중소기업	보건	농림 해양수산	과학기술	통신	국방	통일/외교
중앙부처 및 지자체		7.4	4.8	3.0	3.0	1.1	1.1	0.7
구분	지자체	5.9	4.2	2.5	1.3	1.3	0.0	0.4
	중앙부처	18.8	9.4	6.3	15.6	0.0	9.4	3.1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10.1	3.4	2.2	0.0	0.0	0.0	0.0
	디자이너만 있음	6.4	2.1	2.1	4.3	0.0	6.4	0.0
	없음	5.9	6.7	3.7	4.4	2.2	0.0	1.5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와 관계없이 '공공질서 및 안전'이 각각 86.7%, 71.9%로 가장 높고,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각각 60.0%, 65.2%)로 나타남.
- 예산별로 살펴보면, 2천억 원 미만에서는 '문화체육관광'과 '지역개발'을 71.4%로, 3천억 원 미만에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과 '문화체육관광'을 59.5%로 각각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음. 5천억 원 미만과 5천억 원 이상의 경우 '공공질서 및 안전'(각각 72.8%, 79.3%)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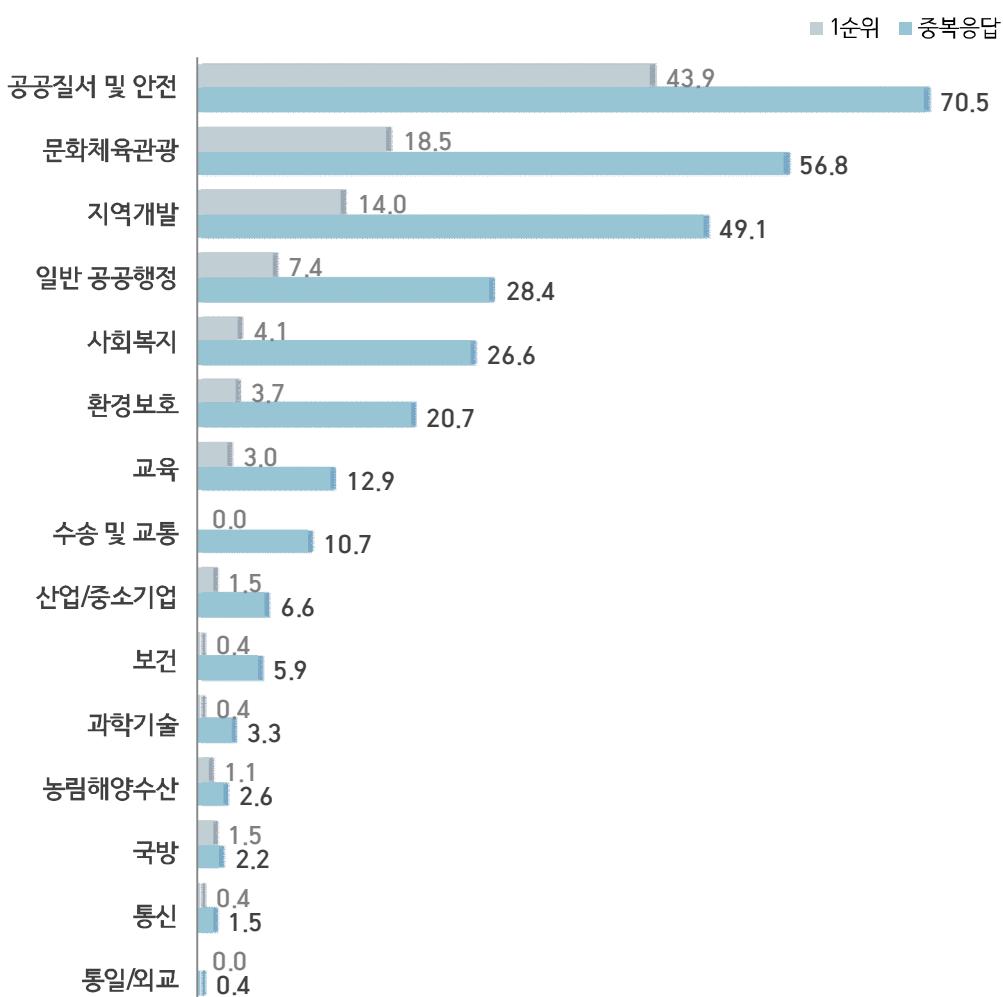
구분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체육 관광	지역개발	일반 공공행정	사회복지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교육
지자체		70.5	64.2	50.6	27.7	22.1	19.2	11.1	10.7
지자체	시/도	86.7	60.0	53.3	6.7	20.0	6.7	26.7	6.7
	시/군/구	71.9	65.2	54.9	30.8	19.2	20.1	10.3	9.8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57.1	71.4	71.4	28.6	0.0	28.6	28.6	14.3
	3천억 원 미만	59.5	59.5	45.9	27.0	18.9	29.7	13.5	8.1
지자체 예산	5천억 원 미만	72.8	66.0	58.3	29.1	18.4	18.4	7.8	11.7
	5천억 원 이상	79.3	65.2	53.3	30.4	21.7	15.2	13.0	7.6

구분		보건	산업/ 중소기업	농림 해양수산	과학기술	국방	통신	통일/외교
지자체		7.6	7.6	5.1	3.3	1.1	0.7	0.4
지자체	시/도	26.7	0.0	6.7	0.0	0.0	0.0	0.0
	시/군/구	4.5	4.5	2.2	1.3	1.3	0.0	0.4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0.0	0.0	0.0	0.0	0.0	0.0	0.0
	3천억 원 미만	8.1	2.7	2.7	5.4	5.4	0.0	0.0
지자체 예산	5천억 원 미만	3.9	4.9	3.9	0.0	1.0	0.0	1.0
	5천억 원 이상	7.6	4.3	1.1	1.1	0.0	0.0	0.0

5-1)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우선 추진 정책

-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우선 추진 정책을 살펴본 결과(중복응답 기준), '공공질서 및 안전'이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문화체육관광'(56.8%), '지역개발'(49.1%), '일반 공공행정'(28.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1순위 응답 역시 '공공질서 및 안전'(43.9%)이 우선 추진 정책으로 나타남.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우선 추진 정책 (단위: %)



* 모름/무응답 : 0.4%

- 지자체/중앙부처 모두 ‘공공질서 및 안전’을 우선 추진 정책으로 꼽은 가운데, 지자체에서 72.4%로 높은 비율을 보임. 전담부서별 구분에서도 ‘공공질서 및 안전’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 기관의 경우 77.5%로 더욱 높게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우선 추진 정책

(단위: %)

구분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체육 관광	지역개발	일반 공공행정	사회복지	환경보호	교육	수송 및 교통
중앙부처 및 지자체		70.5	56.8	49.1	28.4	26.6	20.7	12.9	10.7
구분	지자체	72.4	58.6	53.1	30.5	24.3	20.5	11.7	10.9
	중앙부처	56.3	43.8	18.8	12.5	43.8	21.9	21.9	9.4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77.5	59.6	58.4	31.5	23.6	11.2	10.1	10.1
	디자이너만 있음	72.3	55.3	51.1	25.5	29.8	12.8	19.1	4.3
	없음	65.2	55.6	42.2	27.4	27.4	29.6	12.6	13.3

구분		산업/ 중소기업	보건	과학기술	농림 해양수산	국방	통신	통일/외교
중앙부처 및 지자체		6.6	5.9	3.3	2.6	2.2	1.5	0.4
구분	지자체	5.0	4.2	1.7	2.1	0.8	1.7	0.4
	중앙부처	18.8	18.8	15.6	6.3	12.5	0.0	0.0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7.9	4.5	2.2	1.1	0.0	0.0	0.0
	디자이너만 있음	4.3	8.5	4.3	2.1	10.6	0.0	0.0
	없음	6.7	5.9	3.7	3.7	0.7	3.0	0.7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도 단위에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86.7%)을 우선 추진 정책으로 꼽았으며,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지역개발'(53.3%), '수송 및 교통'과 '산업/중소기업'(26.7%) 등의 순임.
시/군/구 단위에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71.4%)을 우선 추진 정책으로 꼽았으며, 다음은 '문화체육관광'(58.9%), '지역개발'(53.1%) 등의 순임.
- 예산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5천억 원 이상(77.2%)에서 더욱 높음.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우선 추진 정책

(단위: %)

구분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체육 관광	지역개발	일반 공공행정	사회복지	환경보호	교육	수송 및 교통
지자체		70.5	56.8	49.1	28.4	26.6	20.7	12.9	10.7
지자체	시/도	86.7	53.3	53.3	13.3	20.0	6.7	6.7	26.7
	시/군/구	71.4	58.9	53.1	31.7	24.6	21.4	12.1	9.8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71.4	71.4	71.4	14.3	14.3	28.6	14.3	14.3
	3천억 원 미만	67.6	54.1	43.2	29.7	27.0	32.4	8.1	13.5
	5천억 원 미만	69.9	58.3	56.3	30.1	25.2	18.4	13.6	7.8
	5천억 원 이상	77.2	59.8	52.2	32.6	22.8	17.4	10.9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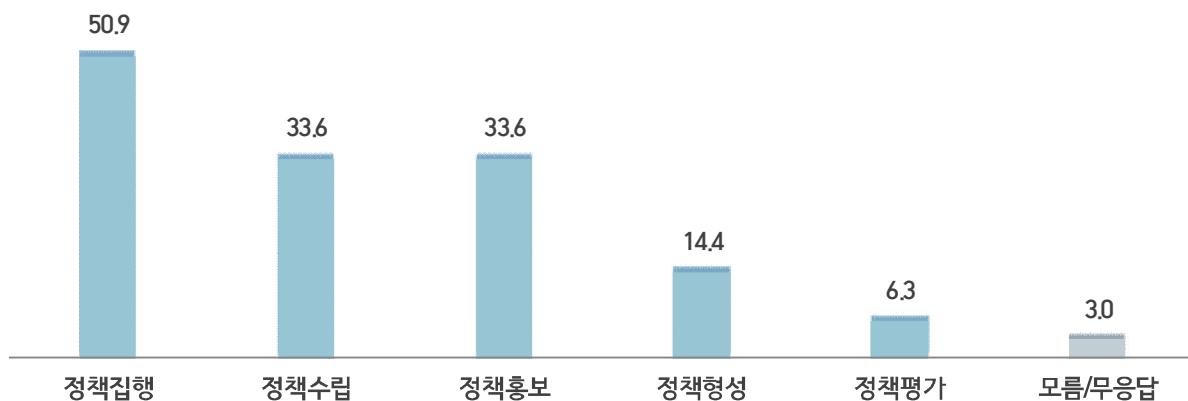
구분		산업/ 중소기업	보건	과학기술	농림 해양수산	국방	통신	통일/외교
지자체		6.6	5.9	3.3	2.6	2.2	1.5	0.4
지자체	시/도	26.7	0.0	0.0	6.7	0.0	0.0	0.0
	시/군/구	3.6	4.5	1.8	1.8	0.9	1.8	0.4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0.0	0.0	0.0	0.0	0.0	0.0	0.0
	3천억 원 미만	5.4	0.0	2.7	2.7	2.7	5.4	0.0
	5천억 원 미만	4.9	5.8	1.9	2.9	0.0	1.0	1.0
	5천억 원 이상	5.4	4.3	1.1	1.1	1.1	1.1	0.0

6) 공공정책의 디자인 활용 단계

- 공공정책에서 디자인이 활용되는 단계를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50.9%가 '정책집행'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책수립' 및 '정책홍보'(33.6%), '정책형성'(14.4%), '정책평가'(6.3%)의 순으로 나타남.

공공정책의 디자인 활용 단계

(단위: %, 중복응답)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는 '정책집행'(53.6%)의 단계에서 디자인이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반면, 중앙부처는 '정책홍보'(68.8%)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담부서별로는 전반적으로 '정책집행'의 응답이 높았으며, 특히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69.7%) 가장 높게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공공정책의 디자인 활용단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정책집행	정책수립	정책홍보	정책형성	정책평가
중앙부처 및 지자체		50.9	33.6	33.6	14.4	6.3
구분	지자체	53.6	36.0	28.9	15.1	6.7
	중앙부처	31.3	15.6	68.8	9.4	3.1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69.7	41.6	25.8	20.2	9.0
	디자이너만 있음	51.1	34.0	42.6	12.8	2.1
	없음	38.5	28.1	35.6	11.1	5.9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구분에서 ‘정책집행’ 단계에서 디자인이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가운데, 시/도(66.7%) 단위에서 시/군/구(52.7%) 단위보다 높음.
- 예산별로는 전반적으로 모든 예산 단위에서 ‘정책 집행’의 비중이 높았으며, 한편 5천억 원 이상에서는 59.8%를 보이며 디자인 활용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공공정책의 디자인 활용단계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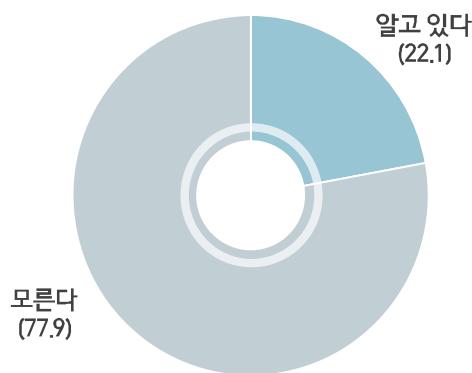
구분		정책집행	정책수립	정책홍보	정책형성	정책평가
지자체		50.9	33.6	33.6	14.4	6.3
지자체	시/도	66.7	40.0	20.0	13.3	0.0
	시/군/구	52.7	35.7	29.5	15.2	7.1
지자체예산	2천억 원 미만	42.9	42.9	14.3	14.3	0.0
	3천억 원 미만	43.2	43.2	37.8	18.9	8.1
	5천억 원 미만	52.4	30.1	31.1	11.7	8.7
	5천억 원 이상	59.8	39.1	23.9	17.4	4.3

7)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77.9%가 '모른다'라고 나타났으며, 나머지 22.1%만이 '알고 있다'고 나타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단위: %)



- 정부기관별 NCS 인지도는 '알고 있다'의 응답이 지자체(20.9%) 대비 중앙부처(31.3%)에서 높게 나타나, 중앙부처의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담부서별 NCS 인지도는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에 27.0%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는 20.0%,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 19.1%의 순으로 인지도를 보임.

▶ 구분별/전담부서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단위: %)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22.1	77.9
구분	지자체	20.9	79.1
	중앙부처	31.3	68.8
전담부서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27.0	73.0
	디자이너만 있음	19.1	80.9
	없음	20.0	80.0

- 지자체 규모별로는, 모든 구분에서 '모른다'의 응답 비중이 '알고 있다'의 비중보다 높은 가운데, 시/도(46.7%) 단위의 인지도가 시/군/구(19.2%) 단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예산별 NCS 인지도는 예산 단위가 커짐에 따라 인지도가 높아진 가운데, 5천억 원 이상 단위에서 26.1%로 가장 높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가 나타남. 한편, 2천억 원 미만의 경우 '모른다'의 응답이 100.0%로 매우 낮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를 보임.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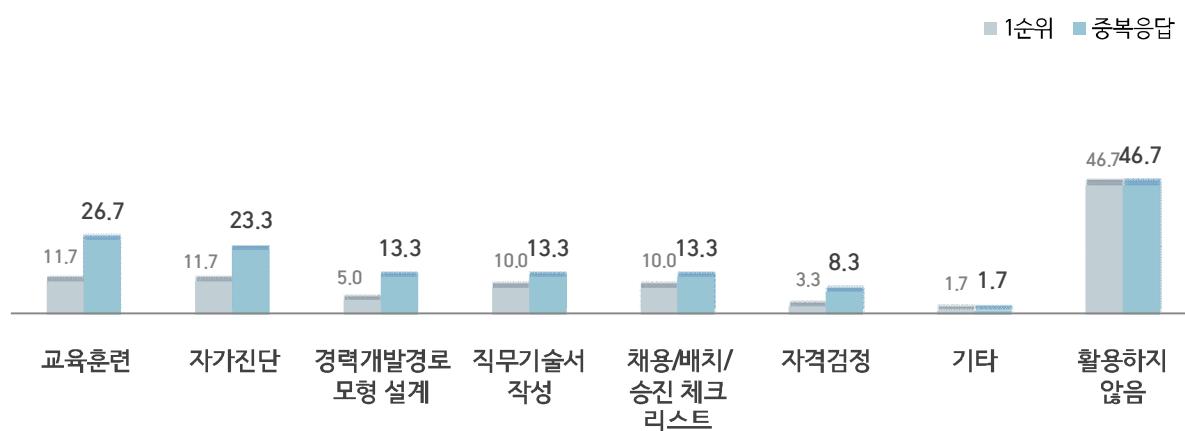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지자체		22.1	77.9
지 자 체	시/도	46.7	53.3
	시/군/구	19.2	80.8
지 자 체 예 산	2천억 원 미만	0.0	100.0
	3천억 원 미만	16.2	83.8
	5천억 원 미만	19.4	80.6
	5천억 원 이상	26.1	73.9

7-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업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활용하지 않음'의 비율이 46.7%로 높게 나타남. 활용 업무로는 '교육훈련'(26.7%), '자가진단'(23.3%), '경력개발경로 모형 설계'(13.3%), '직무기술서 작성'(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1순위 응답에서는 활용 업무 중 '교육훈련'과 '자가진단'이 1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단위: %)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와 중앙부처 모두 '활용하지 않음'의 비율이 40.0%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활용 업무로는 지자체에서는 '교육훈련'(28.0%), 중앙부처에서는 '자가진단'(30.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전담부서별로는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 '활용하지 않음'의 비율이 77.8%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훈련'(33.3%)이 NCS 활용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교육훈련	자가진단	경력개발 경로 모형 설계	직무 기술서 작성	채용/ 배치/ 승진체크리스트	자격검정	기타	활용하지 않음
중앙부처 및 지자체		26.7	23.3	13.3	13.3	13.3	8.3	1.7	46.7
구분	지자체	28.0	22.0	14.0	14.0	12.0	10.0	0.0	48.0
	중앙부처	20.0	30.0	10.0	10.0	20.0	0.0	10.0	40.0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33.3	25.0	16.7	8.3	12.5	8.3	0.0	45.8
	디자이너만 있음	11.1	11.1	0.0	11.1	0.0	0.0	0.0	77.8
	없음	25.9	25.9	14.8	18.5	18.5	11.1	3.7	37.0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도 단위의 활용도가 시/군/구 단위의 활용도 대비 낮게 나타난 가운데, 시/도 단위와 시/군/구 단위 모두 NCS 활용 업무 중 ‘교육훈련’(각각 42.9%, 25.6%)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예산별로는 5천억 원 미만에서 활용도가 55.0%로 다른 예산 단위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업무의 비중은 3천억 원 미만의 경우 ‘자격검정’(33.3%)에서, 5천억 원 미만은 ‘교육훈련’과 ‘자기진단’(25.0%)에서, 5천억 원 이상은 ‘교육훈련’(33.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단위: %, 총복용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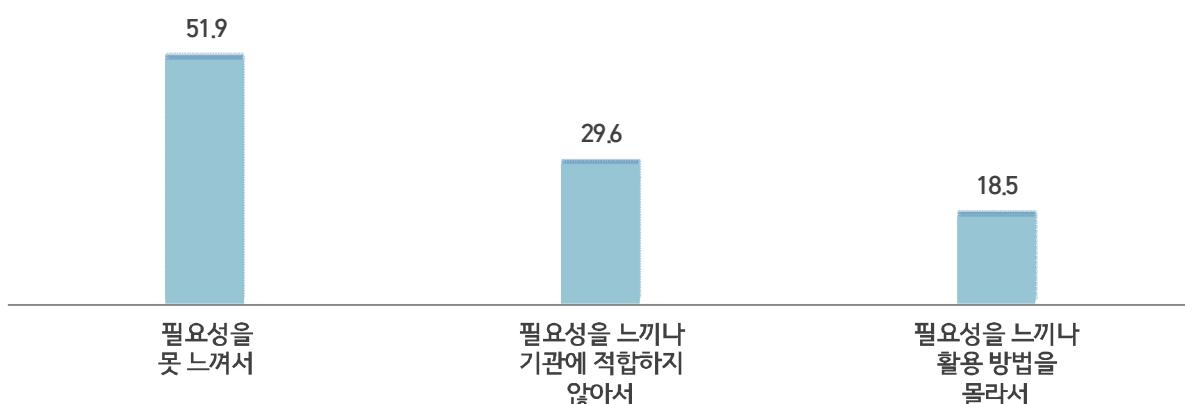
구분		교육훈련	자기진단	경력개발 경로 모형 설계	직무 기술서 작성	채용/ 배치/ 승진체크 리스트	자격검정	기타	활용하지 않음
지자체		26.7	23.3	13.3	13.3	13.3	8.3	1.7	46.7
지 자 체	시/도	42.9	14.3	28.6	0.0	0.0	0.0	0.0	57.1
	시/군/구	25.6	23.3	11.6	16.3	14.0	11.6	0.0	46.5
지 자 체 예 산	2천억 원 미만	-	-	-	-	-	-	-	-
	3천억 원 미만	16.7	16.7	16.7	16.7	0.0	33.3	0.0	50.0
	5천억 원 미만	25.0	25.0	10.0	20.0	20.0	0.0	0.0	45.0
	5천억 원 이상	33.3	20.8	16.7	8.3	8.3	12.5	0.0	50.0

7-2)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51.9%로 가장 높고, 그 외 '필요성을 느끼나 기관에 적합하지 않아서'(29.6%),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18.5%)의 순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와 중앙부처 모두 '필요성을 못 느껴서'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자체(50.0%)대비 중앙부처(66.7%)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남. 전담부서별로는 전담부서에 관계없이 모두 '필요성을 못 느껴서'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필요성을 느끼나 기관에 적합하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51.9	29.6	18.5
구분	지자체	50.0	33.3	16.7
	중앙부처	66.7	0.0	33.3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50.0	30.0	20.0
	디자이너만 있음	42.9	28.6	28.6
	없음	60.0	30.0	10.0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도 단위에서는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방법을 몰라서'(50.0%), 시/군/구 단위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55.0%)가 높게 나타남.
- 예산별로는 3천억 원 미만과 5천억 원 미만의 단위에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각각 66.7%, 55.6%로 높고, 5천억 원 이상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와 '필요성을 느끼나 기관에 적합하지 않아서'가 41.7%로 상대적으로 높음.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필요성을 느끼나 기관에 적합하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
지자체		51.9	29.6	18.5
지 자 체	시/도	25.0	25.0	50.0
	시/군/구	55.0	35.0	10.0
지 자 체 예 산	2천억 원 미만	-	-	-
	3천억 원 미만	66.7	33.3	0.0
	5천억 원 미만	55.6	22.2	22.2
	5천억 원 이상	41.7	41.7	16.7

2017 KOREA DESIGN STATISTICAL DATA

4장

교육통계(문현조사)

part
3
국내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결과



1 대학(원)의 디자인학과 보유 학교 및 학과 현황^⑯

- 2017년 대학(원) 디자인학과 보유 학교 수는 총 446개로 나타남. 그 중 학사 과정에 디자인 학과가 있는 학교는 총 251개로 가장 많았고, 석사 과정에 디자인학과가 있는 학교는 총 141개, 박사 과정에 디자인학과가 있는 학교는 총 54개로 나타남.

▶ 학교별 2017년 대학(원)의 디자인학과 보유 학교 수

(단위: 개)

구분	학교 수			
	학사	석사	박사	계
총합계	251	141	54	446
전문대학	88	0	0	88
대학교	133	0	0	133
산업대학	2	0	0	2
각종대학(대학)	1	0	0	1
일반대학원	0	141	54	195
사이버대학(대학)	10	0	0	10
전공대학	1	0	0	1
기능대학	16	0	0	16

⑯ 조사기준일: 2017. 4. 1

디자인 관련 학과: 요청 시 첨부한 학과리스트 기준

분교 및 캠퍼스가 포함된 학교 수임.

폐교는 제외됨.

개설된 학과가 1개 이상인 학교 기준임.

개설된 학과는 재적학생 수가 1명 이상인 학과 기준임.

한 학교에 2개 이상의 학과가 개설되어있을 경우, 1개의 학교로 카운트됨. 각 과정별로는 중복 카운트됨.

- ❖ 디자인 관련 학과 수는 학부, 석·박사 과정을 모두 포함하여 총 1,295개로 나타남.
학부과정의 디자인학과 수는 965개, 석사과정은 247개, 박사과정은 85개임.
- ❖ 학교 구분별로는 대학교의 디자인학과 수가 483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전문대학(406개), 일반대학원(332개)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디자인 특수분류별로는 패션/텍스타일디자인의 디자인학과 수가 237개로 가장 많고, 제품디자인과 공간디자인(195개), 시각디자인(194개), 디자인 일반(157개) 등의 순임.

▶ 학교구분별 & 디자인 특수분류별 2017년 대학(원)의 디자인학과 수

(단위: 개)

구분	디자인학과 수				계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총합계	965	247	85	1,295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406	-	-	406
	대학교	483	-	-	483
	산업대학	32	-	-	32
	각종대학(대학)	1	-	-	1
	일반대학원	-	247	85	332
	사이버대학(대학)	13	-	-	13
	전공대학	4	-	-	4
	기능대학	26	-	-	26
디자인 특수 분류별	디자인 일반	83	48	28	157
	제품디자인	142	43	10	195
	시각디자인	164	24	6	194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27	22	6	155
	공간디자인	161	28	6	195
	패션/텍스타일디자인	190	40	7	237
	서비스/경험디자인	24	11	9	44
	산업공예디자인	51	19	8	78
	디자인인프라	23	12	5	40

2 대학(원) 디자인학과 학생 현황

1) 재적학생 수^⑯

2017년 대학(원) 내 디자인학과 재적학생은 114,198명으로 나타남.

그 중 학부생은 109,156명, 석사과정은 4,103명, 박사과정은 939명으로 나타남.

▶ 2017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 디자인학과 재적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재적학생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총합계	109,156	4,103	939	114,198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36,681	-	-
	대학교	63,828	-	-
	산업대학	875	-	-
	각종대학(대학)	142	-	-
	일반대학원	-	4,103	939
	사이버대학(대학)	3,785	-	-
	전공대학	879	-	-
	기능대학	2,966	-	-

성별로는 여학생이 68,913명으로 남학생(45,285명)보다 많고, 산업대학 및 기능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를 앞서고 있음.

▶ 2017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 디자인학과 재적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재적학생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합계	43,672	65,484	1,241	2,862	372	567	45,285	68,913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17,625	19,056	-	-	-	-	17,625
	대학교	21,487	42,341	-	-	-	-	21,487
	산업대학	527	348	-	-	-	-	527
	각종대학(대학)	47	95	-	-	-	-	47
	일반대학원	-	-	1,241	2,862	0,372	0,567	1,613
	사이버대학(대학)	1,317	2,468	-	-	-	-	1,317
	전공대학	364	515	-	-	-	-	364
	기능대학	2,305	661	-	-	-	-	2,305

⑯ 조사기준일: 2017. 4. 1

2) 재학생 수^②

- 2017년 디자인학과 총 재학생 수는 82,355명으로 나타남.
그 중 학부 재학생 수는 78,266명, 석사과정 재학생 수는 3,319명, 박사과정 재학생 수는 770명이었음. 학교 구분별로는 절반 이상이 대학교의 디자인학과 재학생(47,928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대학(3년제)(24,181명)이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 디자인학과 재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재학생 수				계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총합계	78,266	3,319	770		82,355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3년제)	24,181	-	-	24,181
	대학교	47,928	-	-	47,928
	산업대학	528	-	-	528
	각종대학(대학)	109	-	-	109
	일반대학원	-	3,319	770	4,089
	사이버대학(대학)	2,937	-	-	2,937
	전공대학	640	-	-	640
	기능대학	1,943	-	-	1,943

- 성별로는 여자 재학생 수는 57,526명, 남자 재학생 수는 24,829명으로 나타남.
학교구분별로는 산업대학과 기능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의 여자 재학생 수가 남자 재학생 수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 디자인학과 재학생수

(단위: 명)

구분	재학생 수								계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합계	23,550	54,716	969	2,350	310	460	24,829	57,526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3년제)	8,067	16,114	-	-	-	-	8,067	16,114	
	대학교	12,639	35,289	-	-	-	-	12,639	35,289	
	산업대학	282	246	-	-	-	-	282	246	
	각종대학(대학)	27	82	-	-	-	-	27	82	
	일반대학원	-	-	969	2,350	310	460	1,279	2,810	
	사이버대학(대학)	977	1,960	-	-	-	-	977	1,960	
	전공대학	191	449	-	-	-	-	191	449	
	기능대학	1,367	576	-	-	-	-	1,367	576	

^② 조사기준일: 2017. 4. 1

3) 입학자 수①

- ❖ 2017년 디자인학과 총 입학자 수는 26,554명으로 나타남.
그 중 학부 입학자 수는 24,539명, 석사과정 입학자 수는 1,629명, 박사과정 입학자 수는 386명임.
- ❖ 학교 구분별로는 전문대학(3년제) 디자인학과 입학자 수(11,142명)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일반대학디자인학과 입학자 수(11,011명)가 많음.
디자인 특수분류별로는 패션/텍스타일디자인 디자인학과 입학자 수가 5,079명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 일반(4,362명), 공간디자인(3,875명),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3,444명), 시각디자인(3,41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 & 디자인 특수분류별 디자인학과 입학자 수

(단위: 명)

구분	입학자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총합계	24,539	1,629	386	26,554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3년제)	11,142	-	-	11,142
	대학교	11,011	-	-	11,011
	산업대학	58	-	-	58
	각종대학(대학)	20	-	-	20
	일반대학원	-	1,629	386	2,015
	사이버대학(대학)	869	-	-	869
	전공대학	379	-	-	379
	기능대학	1,060	-	-	1,060
디자인 특수 분류별	디자인 일반	3,690	509	163	4,362
	제품디자인	3,049	148	23	3,220
	시각디자인	3,252	147	15	3,414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3,350	83	11	3,444
	공간디자인	3,736	126	13	3,875
	패션/텍스타일디자인	4,869	195	15	5,079
	서비스/경험디자인	703	89	31	823
	산업공예디자인	935	71	95	1,101
	디자인인프라	955	261	20	1,236

① 2017년 3월 입학자 기준

- 성별로는 여학생 입학자 수가 18,054명으로 남학생 입학자 수(8,500명) 대비 2배 이상 많았음. 디자인 특수분류별로는 디자인인프라를 제외한 모든 디자인 분류에서 여학생 입학자 수가 남학생 입학자 수에 비해 많음.

▶ 2017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 & 디자인 특수분류별 디자인학과 입학자 수

(단위: 명)

구분		재적학생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합계		7,896	16,643	459	1,170	145	241	8,500	18,054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3년제)	3,800	7,342	-	-	-	-	3,800	7,342
	대학교	2,884	8,127	-	-	-	-	2,884	8,127
	산업대학	36	22	-	-	-	-	36	22
	각종대학(대학)	7	13	-	-	-	-	7	13
	일반대학원	-	-	459	1,170	145	241	604	1,411
	사이버대학(대학)	295	574	-	-	-	-	295	574
	전공대학	116	263	-	-	-	-	116	263
	기능대학	758	302	-	-	-	-	758	302
디자인 특수 분류별	디자인 일반	1,076	2,614	99	410	51	112	1,226	3,136
	제품디자인	1,083	1,966	68	80	10	13	1,161	2,059
	시각디자인	831	2,421	41	106	6	9	878	2,536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079	2,271	37	46	9	2	1,125	2,319
	공간디자인	1,701	2,035	43	83	8	5	1,752	2,123
	패션/텍스타일디자인	940	3,929	20	175	2	13	962	4,117
	서비스/경험디자인	243	460	24	65	17	14	284	539
	산업공예디자인	208	727	26	45	33	62	267	834
	디자인인프라	735	220	101	160	9	11	845	391

※ 조사기준일 : 2017년 4월 1일

4) 졸업자 수^②

- ❖ 2017년 디자인학과 총 졸업자 수는 24,203명으로 나타남.
그 중 학부 졸업자 수는 22,781명, 석사과정 졸업자 수는 1,261명, 박사과정 졸업자 수는 161명임.
- ❖ 학교구분별로는 일반대학교 디자인학과 졸업자 수가 11,0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학(9,889명)가 다음으로 나타남.
디자인 특수분류별로는 패션/텍스타일디자인 디자인학과 졸업자 수가 4,9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디자인(4,184명), 제품디자인(3,694명) 등의 순임.

▶ 2017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계열별 디자인학과 졸업자 수

(단위: 명)

구분		졸업자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총합계		22,781	1,261	161	24,203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9,889	-	-	9,889
	대학교	11,081	-	-	11,081
	산업대학	279	-	-	279
	각종대학(대학)	28	-	-	28
	일반대학원	-	1,261	161	1,422
	사이버대학(대학)	562	-	-	562
	전공대학	165	-	-	165
	기능대학	777	-	-	777
디자인 특수 분류별	디자인 일반	1,890	335	49	2,274
	제품디자인	3,554	127	13	3,694
	시각디자인	4,029	154	1	4,184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3,182	89	13	3,284
	공간디자인	3,451	110	6	3,567
	패션/텍스타일디자인	4,782	141	7	4,930
	서비스/경험디자인	251	91	8	350
	산업공예디자인	1,027	58	57	1,142
	디자인인프라	615	156	7	778

② 2017년 2월 졸업자 및 2016년 8월 졸업자 기준임

❖ 성별로는 여학생 졸업자 수가 17,243명으로 남학생 졸업자 수(6,960명)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남.

디자인 특수분류별로는 디자인인프라(남학생 졸업자 수: 585명, 여학생 졸업자 수: 193명)를 제외한 모든 분류의 디자인학과 졸업자 수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 & 디자인 특수분류별 디자인학과 졸업자 수

(단위: 명)

구분		졸업자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합계		6,527	16,254	365	896	68	93	6,960	17,243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3,027	6,862	-	-	-	-	3,027	6,862
	대학교	2,587	8,494	-	-	-	-	2,587	8,494
	산업대학	143	136	-	-	-	-	143	136
	각종대학(대학)	5	23	-	-	-	-	5	23
	일반대학원	-	-	365	896	68	93	433	989
	사이버대학(대학)	194	368	-	-	-	-	194	368
	전공대학	57	108	-	-	-	-	57	108
	기능대학	514	263	-	-	-	-	514	263
디자인 특수 분류별	디자인 일반	519	1,371	60	275	21	28	600	1,674
	제품디자인	1,192	2,362	62	65	6	7	1,260	2,434
	시각디자인	968	3,061	50	104	-	1	1,018	3,166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971	2,211	37	52	9	4	1,017	2,267
	공간디자인	1,257	2,194	36	74	1	5	1,294	2,273
	패션/텍스타일디자인	826	3,956	9	132	3	4	838	4,092
	서비스/경험디자인	96	155	40	51	6	2	142	208
	산업공예디자인	178	849	9	49	19	38	206	936
	디자인인프라	520	95	62	94	3	4	585	193

* 조사기준일 : 2017년 4월 1일

5) 취업자 수^③

- ❖ 2016년 디자인학과 총 취업자 수는 14,688명으로 나타남.
그 중 학부 취업자 수는 14,378명, 석사과정 취업자 수는 242명, 박사과정 취업자 수는 68명이었음.
- ❖ 디자인 특수분류별로는 패션/텍스타일디자인 디자인학과 취업자 수가 3,27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시각디자인(2,684명), 공간디자인(2,235명), 제품디자인(2,224명),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1,9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 & 디자인 특수분류별 디자인학과 취업자 수

(단위: 명)

구분		취업자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총합계		14,378	242	68	14,688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6,625	-	-	6,625
	대학교	6,810	-	-	6,810
	산업대학	233	-	-	233
	각종대학(대학)	13	-	-	13
	일반대학원	-	242	68	310
	사이버대학(대학)	-	-	-	-
	전공대학	-	-	-	-
	기능대학	697	-	-	697
디자인 특수 분류별	디자인 일반	847	75	24	946
	제품디자인	2,183	31	10	2,224
	시각디자인	2,669	14	1	2,684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899	9	3	1,911
	공간디자인	2,208	23	4	2,235
	패션/텍스타일디자인	3,248	18	6	3,272
	서비스/경험디자인	80	20	2	102
	산업공예디자인	716	8	18	742
	디자인인프라	528	44	-	572

③ 취업자는 조사 기준일(4월 1일) 당시 건강보험가입 취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임 - 일반대학원 외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조사에서 제외됨

❖ 성별로는 여학생 취업자 수가 10,262명으로 남학생 취업자 수(4,116명) 대비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디자인 특수분류별로는 서비스/경험디자인과 디자인인프라 분야에서는 디자인학과 남학생 취업자 수가 여학생에 비해 많았고, 그 외 모든 분류에서 여학생 취업자 수가 남학생 대비 많음.

▶ 2016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 & 디자인 특수분류별 디자인학과 취업자 수

(단위: 명)

구분		취업자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합계		4,116	10,262	70	172	27	41	4,213	10,475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1,945	4,680	-	-	-	-	1,945	4,680
	대학교	1,617	5,193	-	-	-	-	1,617	5,193
	산업대학	89	144	-	-	-	-	89	144
	각종대학(대학)	2	11	-	-	-	-	2	11
	일반대학원	-	-	70	172	27	41	97	213
	사이버대학(대학)	-	-	-	-	-	-	-	-
	전공대학	-	-	-	-	-	-	-	-
	기능대학	463	234	-	-	-	-	463	234
디자인 특수 분류별	디자인 일반	238	609	18	57	8	16	264	682
	제품디자인	710	1473	12	19	4	6	726	1498
	시각디자인	674	1995	5	9	1	-	680	2004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559	1340	5	4	2	1	566	1345
	공간디자인	823	1385	7	16	2	2	832	1403
	패션/텍스타일디자인	554	2694	2	16	0	6	556	2716
	서비스/경험디자인	34	46	7	13	2	-	43	59
	산업공예디자인	113	603	3	5	8	10	124	618
	디자인인프라	411	117	11	33	-	-	422	150

※ 조사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6) 취업률④

- ❖ 2016년 디자인학과 졸업자의 취업률은 66.3%로 나타남.
학위별로는 박사과정(71.6%), 석사과정 취업률(68.0%), 학부과정(66.3%) 순으로 나타남.
- ❖ 학교구분별로는 학부 내 기능대학(대학)의 취업률이 83.2%로 가장 높고,
각종대학(대학)(72.2%), 일반대학원(68.7%), 전문대학(6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디자인 특수분류별로는 디자인인프라 디자인학과 취업률이 7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공간디자인(68.4%)이 뒤를 이음.

▶ 2016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 & 계열별 디자인학과 취업률

(단위: %)

구분	총합계	취업률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학교 구분별	총합계	66.3	68.0	71.6	66.3
	전문대학	66.3	0.0	0.0	66.3
	대학교	65.2	0.0	0.0	65.2
	산업대학	58.8	0.0	0.0	58.8
	각종대학(대학)	72.2	0.0	0.0	72.2
	일반대학원	0.0	68.0	71.6	68.7
	사이버대학(대학)	-	-	-	-
	전공대학	-	-	-	-
디자인 특수 분류별	기능대학	83.2	0.0	0.0	83.2
	디자인 일반	61.6	59.1	77.4	61.7
	제품디자인	65.1	81.6	76.9	65.4
	시각디자인	65.8	87.5	100.0	65.9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65.5	75.0	100.0	65.6
	공간디자인	68.3	88.5	57.1	68.4
	패션/텍스타일디자인	66.5	72.0	66.7	66.5
	서비스/경험디자인	64.0	74.1	100.0	66.2
	산업공예디자인	64.7	50.0	62.1	64.5
	디자인인프라	79.8	63.8	-	78.2

④ 취업률: 취업자/(졸업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100

취업자는 조사 기준일(12월 31일) 당시 건강보험가입 취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임.

- 일반대학원 외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조사에서 제외됨

2017 KOREA DESIGN STATISTICAL DATA



part
3
국내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결과



표본 설계

디자인 활용업체 / 전문 디자인업체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1 디자인활용업체(일반업체) 조사

1) 모집단 분석

(1) 모집단

- 2015년 경제총조사 중 디자인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5인 이상인 사업체를 디자인활용여부 조사모집단으로 정의함. 종사자수 4인 이하는 디자인 활용 비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하여 4인 이하는 디자인 활용여부 조사에서 제외함. 디자인 특수분류 중 1-7-1 제품디자인, 2-5-6 시각디자인, 4-10-1 인테리어디자인, 5-5-1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등 전문디자인업체 전체와 8-3-2 행정서비스 중 지자체 및 중앙부처, 8-3-3 교육 서비스 중 대학은 타 조사영역과 중복되므로 제외함.

(2) 모집단 특성

- 2015년 경제총조사 DB(한국통계진흥원)를 이용하여 업종별/규모별 사업체수를 파악함. 전체 조사대상 사업체 수는 350,715개임. 업종별 사업체는 제품디자인 52,457개(15.0%), 시각디자인 19,222개(5.5%),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7,945개(2.3%), 공간디자인 73,197 개(20.9%), 패션/텍스타일디자인 13,004개(3.7%), 서비스/경험디자인 67,423개(19.2%), 산업공예디자인 18,431개(5.3%), 디자인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99,036(28.2%)개임. 종사자 수별로는 5-9인 188,522개(53.8%), 10-19인 85,775개(24.5%), 20-49인 51,214개(14.6%), 50-99인 15,249개(4.3%), 100-299인 7,996개(2.3%), 300인 이상 1,959(0.6%)개임.

▶ 디자인활용업체의 대분류업종/규모별 모집단 크기

대분류 업종	종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188,522	85,775	51,214	15,249	7,996	1,959	350,715
제품디자인	25,648	11,872	9,415	3,228	1,846	448	52,457
시각디자인	11,217	3,905	2,693	828	504	75	19,222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4,080	2,069	1,211	380	176	29	7,945
공간디자인	38,296	18,586	11,199	2,908	1,679	529	73,197
패션/텍스타일디자인	8,505	2,763	1,251	333	127	25	13,004
서비스/경험디자인	32,799	19,965	10,318	2,724	1,308	309	67,423
산업공예디자인	11,262	4,125	2,367	452	202	23	18,431
디자인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56,715	22,490	12,760	4,396	2,154	521	99,036

▶ 디자인활용업체의 대분류업종/규모별 모집단 크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종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188,522	85,775	51,214	15,249	7,996	1,959	350,715
1	1-1	1-1-1	의료기기디자인	1,107	354	212	78	48	2	1,801
1	1-1	1-1-2	컴퓨터및모니터디자인	98	38	32	13	6	-	187
1	1-1	1-1-3	컴퓨터주변기기디자인	112	85	57	14	8	1	277
1	1-1	1-1-4	유무선통신기기및통신장비디자인	673	357	314	106	58	14	1,522
1	1-1	1-1-5	영상기기디자인	170	94	69	23	14	4	374
1	1-1	1-1-6	음향기기디자인	172	89	76	27	17	10	391
1	1-1	1-1-7	방송용장비/기기디자인	230	133	98	20	16	2	499
1	1-1	1-1-8	생활가전및주방가전디자인	1,316	602	483	123	66	19	2,609
1	1-1	1-1-9	사무기기디자인	108	66	48	15	7	2	246
1	1-1	1-1-10	조명기기디자인	665	248	154	40	11	1	1,119
1	1-1	1-1-11	전기장비및특수용도조명등디자인	3,040	1,244	873	233	136	36	5,562
1	1-2	1-2-1	공구디자인	630	274	184	35	23	5	1,151
1	1-2	1-2-2	악기디자인	17	10	4	2	1	-	34
1	1-2	1-2-3	측정,시험,제어및기타정밀기기디자인	1,350	572	358	94	50	3	2,427
1	1-2	1-2-4	반도체및전자부품제조관련디자인	1,941	978	762	297	238	92	4,308
1	1-2	1-2-5	로봇디자인	122	73	44	15	4	-	258
1	1-2	1-2-6	시계디자인	21	9	4	-	-	-	34
1	1-3	1-3-1	안경및광학기기디자인	244	108	61	40	22	6	481
1	1-3	1-3-2	완구디자인	130	41	21	-	5	-	197
1	1-3	1-3-3	스포츠/레저용품디자인	136	69	21	5	2	-	233
1	1-3	1-3-4	사무/회화용품디자인	77	18	17	8	1	1	122
1	1-3	1-3-5	위생용품디자인	84	27	26	2	5	1	145
1	1-3	1-3-6	용기(用器)디자인	37	14	18	8	3	-	80
1	1-3	1-3-7	생활용품디자인	821	313	186	42	8	-	1,370
1	1-3	1-3-8	종이및판지제품디자인	1,465	732	480	110	42	8	2,837
1	1-3	1-3-9	화학제품,고무,플라스틱제품디자인	4,297	2,215	1,885	550	259	56	9,262
1	1-4	1-4-1	자동차디자인	2,072	1,164	1,380	670	347	86	5,719
1	1-4	1-4-2	요트/선박디자인	624	347	394	289	247	17	1,918
1	1-4	1-4-3	기차디자인	-	3	1	3	-	1	8
1	1-4	1-4-4	항공/우주선디자인	9	5	3	2	-	2	21
1	1-4	1-4-5	바이크디자인	44	16	11	2	1	-	74
1	1-4	1-4-6	기타운송기기디자인	380	240	217	62	15	3	917
1	1-5	1-5-1	리빙가구디자인	226	51	39	1	2	-	319
1	1-5	1-5-2	주방가구디자인	680	168	88	18	9	2	965
1	1-5	1-5-3	의료가구디자인	29	15	11	2	-	-	57
1	1-5	1-5-4	기타가구디자인	2,094	675	388	55	26	3	3,241
1	1-6	1-6-1	제조업회사본부디자인	427	425	396	224	149	71	1,692
2	2-1	2-1-1	일반서적편집디자인	1,345	608	321	50	41	5	2,370
2	2-1	2-1-2	신문/잡지편집디자인	581	251	152	66	40	10	1,100
2	2-1	2-1-3	기타인쇄물편집디자인	767	104	55	8	8	-	94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종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188,522	85,775	51,214	15,249	7,996	1,959	350,715
2	2-2	2-2-1	축·수산물가공식품패키지그래픽디자인	1,605	745	642	188	103	9	3,292
2	2-2	2-2-2	농산물가공식품패키지그래픽디자인	1,153	385	259	61	19	1	1,878
2	2-2	2-2-3	낙농품및빙과류패키지그래픽디자인	26	25	41	22	27	5	146
2	2-2	2-2-4	떡,빵,과자,면류패키지그래픽디자인	1,048	327	250	71	54	16	1,766
2	2-2	2-2-5	기타식품패키지그래픽디자인	1,282	495	368	143	66	6	2,360
2	2-2	2-2-6	음료패키지그래픽디자인	107	47	56	28	23	4	265
2	2-2	2-2-7	의약품패키지그래픽디자인	188	97	128	88	83	12	596
2	2-3	2-3-1	화학제품패키지그래픽디자인	456	201	176	62	28	7	930
2	2-3	2-3-2	미디어상품패키지그래픽디자인	57	25	9	2	3	-	96
2	2-4	2-4-1	신문·잡지및기타인쇄물광고디자인	521	156	40	5	-	-	722
2	2-4	2-4-2	목외인쇄물광고디자인	852	110	55	8	-	-	1,025
2	2-5	2-5-1	일러스트레이션	22	14	14	8	3	-	61
2	2-5	2-5-2	아이덴티티디자인	472	105	53	6	2	-	638
2	2-5	2-5-3	캐릭터디자인	517	155	62	11	3	-	748
2	2-5	2-5-4	타이포그래피	157	38	12	1	1	-	209
2	2-5	2-5-5	사진디자인	61	17	-	-	-	-	78
3	3-1	3-1-1	광고영화및비디오물영상디자인	270	114	29	3	1	-	417
3	3-1	3-1-2	일반영화및비디오물영상디자인	713	201	219	94	27	-	1,254
3	3-1	3-1-3	방송프로그램영상디자인	188	109	58	11	7	1	374
3	3-1	3-1-4	애니메이션디자인	89	64	51	17	3	-	224
3	3-1	3-1-5	공간영상디자인	152	44	22	3	-	-	221
3	3-2	3-2-1	웹사이트디자인	863	511	234	69	24	3	1,704
3	3-2	3-2-2	온라인광고디자인	1,014	476	252	56	24	4	1,826
3	3-3	3-3-1	온라인/모바일게임디자인	374	272	160	64	51	14	935
3	3-3	3-3-2	기타게임디자인	60	46	23	4	3	-	136
3	3-5	3-5-1	디지털DB소스디자인	203	143	74	35	14	4	473
3	3-5	3-5-2	기타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54	89	89	24	22	3	381
4	4-1	4-1-1	인테리어디자인	4,361	1,620	706	214	171	34	7,106
4	4-1	4-1-2	건축디자인	2,860	1,200	703	187	106	31	5,087
4	4-1	4-1-3	실내조경디자인	42	15	9	1	-	-	67
4	4-2	4-2-1	인테리어코디네이션	92	32	21	3	2	-	150
4	4-2	4-2-2	실내조명디자인	3,959	1,824	1,134	228	110	20	7,275
4	4-3	4-3-1	전시디자인	569	251	97	22	16	3	958
4	4-3	4-3-2	무대디자인	621	306	253	79	26	9	1,294
4	4-4	4-4-1	목재자재디자인	373	116	90	7	8	-	594
4	4-4	4-4-2	플라스틱자재디자인	808	349	219	46	16	3	1,441
4	4-4	4-4-3	금속자재디자인	1,939	710	467	66	24	4	3,210
4	4-4	4-4-4	기타자재디자인	1,975	846	409	78	30	7	3,345
4	4-5	4-5-1	환경디자인	265	93	39	6	1	-	404
4	4-5	4-5-2	경관디자인	168	56	34	11	5	3	277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종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188,522	85,775	51,214	15,249	7,996	1,959	350,715
4	4-5	4-5-3	예술장식품디자인	183	75	25	7	3	1	294
4	4-6	4-6-1	조경디자인	1,267	506	230	37	16	1	2,057
4	4-6	4-6-2	놀이터/공원디자인	52	20	9	-	-	-	81
4	4-7	4-7-1	주거용건축물리모델링디자인	1,708	894	605	197	92	39	3,535
4	4-7	4-7-2	상업및기타건축물리모델링디자인	1,587	1,200	771	230	75	9	3,872
4	4-8	4-8-1	건축물축조디자인	3,356	1,582	872	236	197	87	6,330
4	4-8	4-8-2	건축물설비디자인	3,684	1,923	1,067	251	139	49	7,113
4	4-8	4-8-3	건축물유지관리서비스디자인	1,959	1,243	1,154	454	363	137	5,310
4	4-9	4-9-1	도로및교량디자인	2,027	1,079	666	155	87	29	4,043
4	4-9	4-9-2	토목환경디자인	4,068	2,419	1,472	374	186	63	8,582
4	4-9	4-9-3	토목지질환경디자인	373	227	147	19	6	-	772
5	5-1	5-1-1	남성복디자인	187	71	54	12	17	2	343
5	5-1	5-1-2	여성복디자인	960	268	111	20	18	11	1,388
5	5-1	5-1-3	유아동복디자인	136	49	22	5	2	1	215
5	5-1	5-1-4	모피디자인	96	22	7	4	-	-	129
5	5-1	5-1-5	전통복식디자인	69	10	3	-	-	--	82
5	5-2	5-2-1	스포츠웨어디자인	1,753	621	201	40	11	2	2,628
5	5-2	5-2-2	근무복,캐주얼웨어디자인	683	149	62	20	7	1	922
5	5-2	5-2-3	테크니컬웨어,아웃터웨어디자인	198	33	8				239
5	5-2	5-2-4	이너웨어디자인	418	156	50	10	12	3	649
5	5-3	5-3-1	인테리어텍스타일디자인	534	169	75	25	7	1	811
5	5-3	5-3-2	직물디자인	90	44	26	2	-	-	162
5	5-3	5-3-3	편물디자인	775	254	71	12	4	-	1,116
5	5-3	5-3-4	프린팅디자인	440	230	232	103	27	-	1,032
5	5-3	5-3-5	기타폐브릭디자인	226	140	88	24	7	-	485
5	5-4	5-4-1	패션악세사리디자인	532	138	53	15	2	2	742
5	5-4	5-4-2	슈즈디자인	359	181	88	27	5	1	661
5	5-4	5-4-3	가방디자인	536	110	39	4	5	-	694
5	5-4	5-4-4	기타잡화디자인	513	118	61	10	3	1	706
6	6-1	6-1-1	보건의료서비스디자인	3,801	3,090	2,997	778	295	24	10,985
6	6-1	6-1-2	여가/레저서비스디자인	1,295	633	474	179	63	7	2,651
6	6-1	6-1-3	교육서비스디자인	178	77	34	6	6	3	304
6	6-1	6-1-4	커뮤니티서비스디자인	287	173	206	34	15	1	716
6	6-1	6-1-5	공공행정서비스디자인	23,613	13,508	4,724	1,068	575	172	43,660
6	6-2	6-2-1	휴먼인터렉션디자인	512	366	297	120	68	35	1,398
6	6-2	6-2-2	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디자인	2,306	1,538	1,038	335	167	28	5,412
6	6-2	6-2-3	디지털간행물디자인	293	132	65	25	20	11	546
6	6-2	6-2-4	사용자인터페이스(UI)디자인	95	59	41	13	13	4	225
6	6-2	6-2-5	기타인터랙티브미디어디자인	419	389	442	166	86	24	1,526
6	6-3	6-3-1	서비스/경영디자인컨설팅	-	-	-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종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188,522	85,775	51,214	15,249	7,996	1,959	350,715
7	7-1	7-1-1	금속단조디자인	203	106	85	26	16	4	440
7	7-1	7-1-2	금속압형디자인	1,282	418	309	87	34	2	2,132
7	7-1	7-1-3	금속주조디자인	172	139	168	44	16	1	540
7	7-1	7-1-4	비철금속주조디자인	215	81	62	12	6	-	376
7	7-1	7-1-5	커머셜주얼리디자인	112	27	16	1	1	-	157
7	7-1	7-1-6	귀금속디자인	237	48	29	9	2	2	327
7	7-1	7-1-7	금속표면장식디자인	6,438	2,320	1,164	167	68	8	10,165
7	7-2	7-2-1	도자디자인	119	18	22	4	3	-	166
7	7-2	7-2-2	건축도자디자인	38	12	21	7	-	-	78
7	7-3	7-3-1	자수디자인	232	54	9	1	-	-	296
7	7-3	7-3-2	매듭디자인	193	82	37	5	2	-	319
7	7-3	7-3-3	염색디자인	66	47	36	9	2	-	160
7	7-3	7-3-4	직조디자인	812	372	192	36	19	-	1,431
7	7-4	7-4-1	대목디자인	117	49	17	2	1	-	186
7	7-4	7-4-2	소목디자인	196	40	15	1	-	-	252
7	7-5	7-5-1	나전·칠공예디자인	130	76	68	25	20	6	325
7	7-5	7-5-2	유리공예디자인	14	7	4	1	1	-	27
7	7-5	7-5-3	가죽공예디자인	123	47	36	10	10	-	226
7	7-5	7-5-4	지물공예디자인	155	113	56	4	1	-	329
7	7-5	7-5-5	석공예디자인	408	69	21	1	-	-	499
8	8-1	8-1-1	디자인목업및모형제작	2,529	939	582	113	43	1	4,207
8	8-1	8-1-2	컴퓨터응용모델링(CAD/CAM)	13	-	-	-	2	-	15
8	8-2	8-2-1	디자인기획	1,204	591	282	71	31	4	2,183
8	8-2	8-2-2	디자인연구및출판	1,910	1,082	727	198	101	10	4,028
8	8-3	8-3-1	법률서비스	1,420	611	279	40	23	8	2,381
8	8-3	8-3-2	행정서비스	104	80	51	11	12	6	264
8	8-3	8-3-3	교육서비스	12,291	4,476	4,132	2,444	1,376	376	25,095
8	8-3	8-3-4	디자인마케팅및유통	31,263	12,805	5,938	1,330	475	91	51,902
8	8-3	8-3-5	디자인관련기관	5,790	1,773	667	146	54	4	8,434
8	8-3	8-3-6	기타산업회사본부	191	133	102	43	37	21	527

2) 표본 설계

(1) 표본크기

-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음.

$$n = \frac{N(zs)^2}{Nd^2 + (zs)^2}$$

- 여기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 은 신뢰계수임(신뢰수준 95% 하에서 $z=1.96$ 임). 본 조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대부분류 업종의 상대표본오차가 3% 이하가 되도록 하였고,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약 10,000개(모집단 크기 대비 약 3.0%)로 결정. 이 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 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0.97P$ (단, $p=0.5$ 로 가정함)임.

본 조사는 업종 및 종사자수를 고려한 층화추출법을 사용할 것으로 실제 표본오차가 이보다 조금 더 작을 것으로 기대되며,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표본오차가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됨.

(2) 표본추출방법 및 단계

○ 층화

-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과 종사자수를 층화변수로 고려함. 즉,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업종: 디자인 특수분류 소분류 154개 (디자인활용업체의 해당 특수분류 150개, 전문디자인업체 분류 4개)
 - 종사자규모 : 5 ~ 9인, 10 ~ 19인, 20 ~ 49인, 50 ~ 99인, 100 ~ 299인, 300인 이상

○ 표본 추출 방법

- 디자인 활용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1차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고, 1차 표본 중 약 일부를 2차 표본으로 추출하여 관심변수들을 조사하는 이중추출법(two-phase sampling) 사용함. 이는 디자인 활용여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조사비용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임.

○ 표본 추출 단계

- 1차 표본 배분: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크기를 할당할 경우 상당수의 층에 너무 작은 표본 크기가 할당되는 문제점이 발생. 따라서 제곱근비례배분으로 표본크기를 할당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였으며, 업종별 모집단 크기가 50개 이하 또는 각 층별 조사 모집단 크기가 5개 이하인 경우 또는 종사자수가 300인 이상인 업체는 전수조사를 목표로 조사함. 이러한 원칙 하에서 실제 조사된 표본크기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음.

- 2차 표본조사는 1차 표본조사에서 디자인활용업체로 파악된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약 1,000개의 표본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된. 1차 조사결과 파악된 디자인활용업체 수 추정치와 이러한 원칙 하에서 실제 조사된 디자인활용업체 실태조사 표본크기를 아래 표에 제시함.

(3) 표본추출방법 및 단계

- 업종별, 종사자수별 추출률(inclusion probability)을 고려하여 일반 업체의 모수에 대한 추정치와 표준오차를 계산함.

○ 디자인 활용 여부 조사(1차 조사)

- N : 전체 조사 모집단크기
- N_{ij}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 층의 조사 모집단 크기
- n'_{ij}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 층의 1차 조사 표본크기
- $m_{ij} = \sum_k x_{ijk}$: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 층의 표본 중 디자인활용업체 수.
- 단, $x_{ijk} = 1$: 디자인활용업체인 경우, $x_{ijk} = 0$: 디자인활용업체가 아닌 경우

☞ 디자인활용업체의 수

- 총별 : $\widehat{M}_{ij} = N_{ij} \times \frac{m_{ij}}{n'_{ij}}$
- 전체 : $\widehat{M} = \sum_i \sum_j \widehat{M}_{ij} = \sum_i \sum_j \sum_k w'_{ijk} x_{ijk}$

☞ 디자인활용업체의 비율

- 총별 : $\widehat{r}_{ij} = \widehat{M}_{ij} / N_{ij}$
- 전체 : $\widehat{r} = \widehat{M} / N$

○ 실태조사 (2차 조사)

- y_{ijk}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k 번째 표본 일반 업체에 대한 관찰 값.
- i : 업종의 번호($i = 1, 2, \dots, I$). 단, $I = 8$.
- j : 규모의 번호($j = 1, 2, \dots, J$). 단, $J = 6$.
- k : 권역/업종/규모 내의 표본 업체의 번호($k = 1, 2, \dots, n_{ij}$)

• n_{ij}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 층의 2차 조사 표본크기

• $n = \sum_{i=1}^I \sum_{j=1}^J n_{ij}$: 2차 조사 전체 표본크기

• $\bar{y}_{ij} = \frac{\sum_{k=1}^{n_{ij}} y_{ijk}}{n_{ij}}$: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표본평균

• $\hat{\tau}_{ij} = \widehat{M}_{ij} \bar{y}_{ij}$: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표본 합

• $s_{ij}^2 = \sum_{k=1}^{n_{ij}} (y_{ijk} - \bar{y}_{ij})^2 / (n_{ij} - 1)$: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표본분산

• \hat{p}_{ij}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표본비율

• 모비율 합 τ , 모평균 μ , 모비율 p 에 대한 추정량

$$\text{- } \bar{\tau} = \sum_{i=1}^I \sum_{j=1}^J \widehat{M}_{ij} \bar{y}_{ij} = \sum_{i=1}^I \sum_{j=1}^J \sum_{k=1}^{n_{ij}} w_{ijk} y_{ijk}$$

$$\text{- } \hat{\mu} = \sum_{i=1}^I \sum_{j=1}^J \frac{\widehat{M}_{ij}}{\widehat{M}} \bar{y}_{ij}$$

$$\text{- } \hat{p} = \sum_{i=1}^I \sum_{j=1}^J \frac{\widehat{M}_{ij}}{\widehat{M}} \hat{p}_{ij}$$

○ 분산에 대한 추정량

$$\text{- } \widehat{Var}(\hat{\tau}_{ij}) = \widehat{M}_{ij}^2 \left(1 - \frac{n_{ij}}{m_{ij}} \right) \frac{s_{ij}^2}{n_{ij}} + N_{ij}^2 \left(1 - \frac{n'_{ij}}{N_{ij}} \right) \frac{s'^2_{ij}}{n'_{ij}}$$

$$\text{단, } s_{ij}^2 = \frac{1}{n_{ij}-1} \sum_k (y_{ijk} - \bar{y}_{ij})^2, \quad s'^2_{ij} = \frac{1}{N_{ij}-1} \left\{ (\widehat{M}_{ij}-1)s_{ij}^2 + \frac{N_{ij}-\widehat{M}_{ij}}{N_{ij}} \widehat{M}_{ij} \bar{y}_{ij}^2 \right\}$$

$$\text{- } \widehat{Var}(\hat{\tau}) = \sum_{i=1}^I \sum_{j=1}^J \widehat{Var}(\hat{\tau}_{ij})$$

○ 가중치 산정

• 본 조사의 가중치는 사후총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모집단 크기인 N_{ij} 개와 표본 조사된 사업체수인

n_{ij} 를 비교하여 표본 조사된 사업체 1개는 모집단의 $\frac{N_{ij}}{n_{ij}}$ 를 대표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함.

$$W_{ijk} = \frac{N_{ij}}{n_{ij}}, \quad (i=\text{디자인 특수분류}, j=\text{종사자, 규모총})$$

(4) 주요항목 공표범위

- 조사 결과는 디자인 특수분류 대분류와 규모별로 구분해 공표하고, 공표 시에는 주요변수(디자인 활용여부, 디자인 투자금액 등)에 대한 표본 오차를 제시함.

▶ 디자인활용업체의 대분류업종/규모별 표본 크기

대분류 업종	총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3,026	1,987	1,556	849	620	1,962	10,000
제품디자인	638	422	354	206	158	449	2,227
시각디자인	313	184	150	82	66	75	87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45	106	82	49	34	30	446
공간디자인	640	438	337	171	128	530	2,244
패션/텍스타일디자인	275	154	107	60	43	25	664
서비스/경험디자인	304	242	191	101	71	309	1,218
산업공예디자인	278	168	129	66	39	23	703
디자인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433	273	206	114	81	521	1,628

▶ 디자인활용업체의 대분류업종/규모별 표본 크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총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3,026	1,987	1,556	849	620	1,962	10,000
1	1-1	1-1-1	의료기기디자인	25	14	11	7	5	2	64
1	1-1	1-1-2	컴퓨터및모니터디자인	8	5	4	3	5	1	26
1	1-1	1-1-3	컴퓨터주변기기디자인	8	7	6	3	2	1	27
1	1-1	1-1-4	유무선통신기기및통신장비디자인	20	14	14	8	6	14	76
1	1-1	1-1-5	영상기기디자인	10	7	6	4	3	4	34
1	1-1	1-1-6	음향기기디자인	10	7	7	4	3	10	41
1	1-1	1-1-7	방송용장비/기기디자인	12	9	8	3	3	2	37
1	1-1	1-1-8	생활가전및주방가전디자인	28	19	17	8	6	19	97
1	1-1	1-1-9	사무기기디자인	8	6	5	3	2	2	26
1	1-1	1-1-10	조명기기디자인	20	12	9	5	3	1	50
1	1-1	1-1-11	전기장비및특수용도조명등디자인	42	27	22	12	9	36	148
1	1-2	1-2-1	공구디자인	19	13	10	4	4	5	55
1	1-2	1-2-2	악기디자인	17	10	4	2	1	-	34
1	1-2	1-2-3	측정,시험,제어및기타정밀기기디자인	28	18	14	7	5	3	75
1	1-2	1-2-4	반도체및전자부품제조관련디자인	34	24	21	13	12	92	196
1	1-2	1-2-5	로봇디자인	8	6	5	3	4	-	26
1	1-2	1-2-6	시계디자인	21	9	4	-	-	-	34
1	1-3	1-3-1	안경및광학기기디자인	12	8	6	5	4	6	41
1	1-3	1-3-2	완구디자인	9	5	3	1	4	-	22
1	1-3	1-3-3	스포츠/레저용품디자인	9	6	3	5	2	-	25
1	1-3	1-3-4	사무/회화용품디자인	7	3	3	2	1	1	17
1	1-3	1-3-5	위생용품디자인	7	4	4	2	5	1	23
1	1-3	1-3-6	용기(用器)디자인	5	3	3	2	3	-	16
1	1-3	1-3-7	생활용품디자인	22	13	10	5	2	-	52
1	1-3	1-3-8	종이및판지제품디자인	29	21	17	8	5	8	88
1	1-3	1-3-9	화학제품,고무,플라스틱제품디자인	50	36	33	18	12	56	205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종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3,026	1,987	1,556	849	620	1,962	10,000
1	1-4	1-4-1	자동차디자인	35	26	28	20	14	86	209
1	1-4	1-4-2	요트/선박디자인	19	14	15	13	12	17	90
1	1-4	1-4-3	기차디자인	1	2	1	3	-	1	8
1	1-4	1-4-4	항공/우주선디자인	9	5	3	2	-	2	21
1	1-4	1-4-5	바이크디자인	5	3	3	2	1	-	14
1	1-4	1-4-6	기타운송기기디자인	15	12	11	6	3	3	50
1	1-5	1-5-1	리빙가구디자인	11	5	5	1	2	-	24
1	1-5	1-5-2	주방가구디자인	20	10	7	3	2	2	44
1	1-5	1-5-3	의료가구디자인	4	3	2	2	-	-	11
1	1-5	1-5-4	기타가구디자인	35	20	15	6	4	3	83
1	1-6	1-6-1	제조업회사본부디자인	16	16	15	11	9	71	138
2	2-1	2-1-1	일반서적편집디자인	28	19	14	5	5	5	76
2	2-1	2-1-2	신문/잡지편집디자인	18	12	9	6	5	10	60
2	2-1	2-1-3	기타인쇄물편집디자인	21	8	6	2	2	-	39
2	2-2	2-2-1	축.수산물가공식품패키지그래픽디자인	31	21	19	10	8	9	98
2	2-2	2-2-2	농산물가공식품패키지그래픽디자인	26	15	12	6	3	1	63
2	2-2	2-2-3	낙농품및빙과류패키지그래픽디자인	4	4	5	4	4	5	26
2	2-2	2-2-4	떡,빵,과자,면류패키지그래픽디자인	25	14	12	6	6	16	79
2	2-2	2-2-5	기타식품패키지그래픽디자인	27	17	15	9	6	6	80
2	2-2	2-2-6	음료패키지그래픽디자인	8	5	6	4	4	4	31
2	2-2	2-2-7	의약품패키지그래픽디자인	10	8	9	7	7	12	53
2	2-3	2-3-1	화학제품패키지그래픽디자인	16	11	10	6	4	7	54
2	2-3	2-3-2	미디어상품패키지그래픽디자인	6	4	2	2	3	-	17
2	2-4	2-4-1	신문·잡지및기타인쇄물광고디자인	17	10	5	5	-	-	37
2	2-4	2-4-2	옥외인쇄물광고디자인	22	8	6	2	-	-	38
2	2-5	2-5-1	일러스트레이션	4	3	3	2	3	-	15
2	2-5	2-5-2	아이덴티티디자인	17	8	6	2	2	-	35
2	2-5	2-5-3	캐릭터디자인	17	9	6	3	3	-	38
2	2-5	2-5-4	타이포그래피	10	5	3	1	1	-	20
2	2-5	2-5-5	사진디자인	6	3	2	-	-	-	11
3	3-1	3-1-1	광고영화및비디오물영상디자인	12	8	4	3	1	-	28
3	3-1	3-1-2	일반영화및비디오물영상디자인	20	11	11	7	4	1	54
3	3-1	3-1-3	방송프로그램영상디자인	10	8	6	3	2	1	30
3	3-1	3-1-4	애니메이션디자인	7	6	5	3	3	-	24
3	3-1	3-1-5	공간영상디자인	9	5	4	2	1	-	21
3	3-2	3-2-1	웹사이트디자인	22	17	12	6	4	3	64
3	3-2	3-2-2	온라인광고디자인	24	17	12	6	4	4	67
3	3-3	3-3-1	온라인/모바일게임디자인	15	13	10	6	5	14	63
3	3-3	3-3-2	기타게임디자인	6	5	4	4	3	-	22
3	3-5	3-5-1	디지털DB소스디자인	11	9	7	5	3	4	39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종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3,026	1,987	1,556	849	620	1,962	10,000
3	3-5	3-5-2	기타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9	7	7	4	4	3	34
4	4-1	4-1-1	인테리어디자인	50	31	20	11	10	34	156
4	4-1	4-1-2	건축디자인	41	26	20	10	8	31	136
4	4-1	4-1-3	실내조경디자인	5	3	2	1	-	-	11
4	4-2	4-2-1	인테리어코디네이션	7	4	3	3	2	-	19
4	4-2	4-2-2	실내조명디자인	48	33	26	12	8	20	147
4	4-3	4-3-1	전시디자인	18	12	7	4	3	3	47
4	4-3	4-3-2	무대디자인	19	13	12	7	4	9	64
4	4-4	4-4-1	목재자재디자인	15	8	7	2	2	1	35
4	4-4	4-4-2	플라스틱자재디자인	22	14	11	5	3	3	58
4	4-4	4-4-3	금속자재디자인	34	20	16	6	4	4	84
4	4-4	4-4-4	기타자재디자인	34	22	15	7	4	7	89
4	4-5	4-5-1	환경디자인	12	7	5	2	1	-	27
4	4-5	4-5-2	경관디자인	10	6	4	3	5	3	31
4	4-5	4-5-3	예술장식품디자인	10	7	4	2	3	1	27
4	4-6	4-6-1	조경디자인	27	17	12	5	3	1	65
4	4-6	4-6-2	놀이터/공원디자인	5	3	2	1	-	-	11
4	4-7	4-7-1	주거용건축물리모델링디자인	31	23	19	11	7	39	130
4	4-7	4-7-2	상업및기타건축물리모델링디자인	30	26	21	12	7	9	105
4	4-8	4-8-1	건축물축조디자인	44	30	22	12	11	87	206
4	4-8	4-8-2	건축물설비디자인	46	33	25	12	9	49	174
4	4-8	4-8-3	건축물유지관리서비스디자인	34	27	26	16	15	137	255
4	4-9	4-9-1	도로및교량디자인	34	25	20	9	7	29	124
4	4-9	4-9-2	토목환경디자인	49	37	29	15	10	63	203
4	4-9	4-9-3	토목지질환경디자인	15	11	9	3	2	-	40
5	5-1	5-1-1	남성복디자인	10	6	6	3	3	2	30
5	5-1	5-1-2	여성복디자인	24	12	8	3	3	11	61
5	5-1	5-1-3	유아동복디자인	9	5	4	5	2	1	26
5	5-1	5-1-4	모피디자인	7	4	2	4	-	-	17
5	5-1	5-1-5	전통복식디자인	6	2	3	-	-	-	11
5	5-2	5-2-1	스포츠웨어디자인	32	19	11	5	3	2	72
5	5-2	5-2-2	근무복, 캐주얼웨어디자인	20	9	6	3	2	1	41
5	5-2	5-2-3	테크니컬웨어, 아우터웨어디자인	11	4	2	1	-	-	18
5	5-2	5-2-4	이너웨어디자인	16	10	5	2	3	3	39
5	5-3	5-3-1	인테리어텍스타일디자인	18	10	7	4	2	1	42
5	5-3	5-3-2	직물디자인	7	5	4	2	-	-	18
5	5-3	5-3-3	편물디자인	21	12	6	3	4	-	46
5	5-3	5-3-4	프린팅디자인	16	12	12	8	4	-	52
5	5-3	5-3-5	기타페브릭디자인	11	9	7	4	2	-	33
5	5-4	5-4-1	패션악세사리디자인	18	9	6	3	2	2	40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종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3,026	1,987	1,556	849	620	1,962	10,000
5	5-4	5-4-2	슈즈디자인	14	10	7	4	5	1	41
5	5-4	5-4-3	가방디자인	18	8	5	4	5	-	40
5	5-4	5-4-4	기타잡화디자인	17	8	6	2	3	1	37
6	6-1	6-1-1	보건의료서비스디자인	47	42	42	21	13	24	189
6	6-1	6-1-2	여가/레저서비스디자인	27	19	17	10	6	7	86
6	6-1	6-1-3	교육서비스디자인	10	7	4	2	2	3	28
6	6-1	6-1-4	커뮤니티서비스디자인	13	10	11	4	3	1	42
6	6-1	6-1-5	공공행정서비스디자인	117	89	52	25	18	172	473
6	6-2	6-2-1	휴먼인터렉션디자인	17	15	13	8	6	35	94
6	6-2	6-2-2	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디자인	37	30	25	14	10	28	144
6	6-2	6-2-3	디지털간행물디자인	13	9	6	4	3	11	46
6	6-2	6-2-4	사용자인터페이스(UI)디자인	7	6	5	3	3	4	28
6	6-2	6-2-5	기타인터넷브이미디어디자인	16	15	16	10	7	24	88
6	6-3	6-3-1	서비스/경영디자인컨설팅	-	-	-	-	-	-	-
7	7-1	7-1-1	금속단조디자인	11	8	7	4	3	4	37
7	7-1	7-1-2	금속압형디자인	27	16	13	7	4	2	69
7	7-1	7-1-3	금속주조디자인	10	9	10	5	3	1	38
7	7-1	7-1-4	비철금속주조디자인	11	7	6	3	2	-	29
7	7-1	7-1-5	커머셜주얼리디자인	8	4	3	1	1	-	17
7	7-1	7-1-6	귀금속디자인	12	5	4	2	2	2	27
7	7-1	7-1-7	금속표면장식디자인	61	37	26	10	6	8	148
7	7-2	7-2-1	도자디자인	8	3	4	4	3	-	22
7	7-2	7-2-2	건축도자디자인	5	3	3	2	-	-	13
7	7-3	7-3-1	자수디자인	12	6	2	1	-	-	21
7	7-3	7-3-2	매듭디자인	11	7	5	5	2	-	30
7	7-3	7-3-3	염색디자인	6	5	5	2	2	-	20
7	7-3	7-3-4	직조디자인	22	15	11	5	3	-	56
7	7-4	7-4-1	대목디자인	8	5	3	2	1	-	19
7	7-4	7-4-2	소목디자인	11	5	3	1	-	-	20
7	7-5	7-5-1	나전·칠공예디자인	9	7	6	4	3	6	35
7	7-5	7-5-2	유리공예디자인	14	7	4	1	1	-	27
7	7-5	7-5-3	가죽공예디자인	8	5	5	2	2	-	22
7	7-5	7-5-4	지물공예디자인	9	8	6	4	1	-	28
7	7-5	7-5-5	석공예디자인	15	6	3	1	-	-	25
8	8-1	8-1-1	디자인목업및모형제작	38	23	18	8	5	1	93
8	8-1	8-1-2	컴퓨터응용모델링(CAD/CAM)	11	2	-	1	1	-	15
8	8-2	8-2-1	디자인기획	26	19	13	6	4	4	72
8	8-2	8-2-2	디자인연구및출판	33	25	21	11	8	10	108
8	8-3	8-3-1	법률서비스	29	19	13	5	4	8	78
8	8-3	8-3-2	행정서비스	8	7	5	3	3	6	32
8	8-3	8-3-3	교육서비스	84	51	49	38	28	376	626
8	8-3	8-3-4	디자인마케팅및유통	135	86	59	28	17	91	416
8	8-3	8-3-5	디자인관련기관	58	32	20	9	6	4	129
8	8-3	8-3-6	기타산업회사본부	11	9	8	5	5	21	59

▶ 디자인활용업체의 실태조사 표본크기

대분류 업종	총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346	296	233	124	87	147	1,233
제품디자인	58	44	59	27	19	47	254
시각디자인	51	39	36	17	6	6	155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25	22	13	10	3	5	78
공간디자인	80	80	32	12	9	15	228
패션/텍스타일디자인	34	21	21	5	8	5	94
서비스/경험디자인	35	32	24	16	17	44	168
산업공예디자인	19	26	26	16	9	3	99
디자인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44	32	22	21	16	22	157

2 전문디자인업체 조사

1) 모집단 분석

❖ 2015년 경제총조사 DB를 이용하여 전문디자인업체의 업종별/규모별 사업체수를 파악함. 전체 전문디자인업체 사업체 수는 5,425개 업체로 나타남. 전문디자인업체의 경우 규모가 작은 사업체가 대다수로 4인 이하의 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킴.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기준으로 1-7-1 제품디자인은 1,324개, 2-5-6 시각디자인은 2,045개, 4-10-1 인테리어디자인은 1,188개, 5-5-1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은 868개 업체로 나타남. 종사자수별로는 4인 이하가 4,087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5-9인 898개, 10-19인 321개, 20-49인 99개, 50인 이상 20개(100인 이상 5개)로 나타남.

▶ 전문디자인업체의 업종/규모별 모집단 크기

디자인 특수분류	업종	총사자 규모					
		4인 이하	5-9인	10-19인	20-49인	50인 이상	계
총계		4,087	898	321	99	20	5,425
1-7-1	제품디자인	940	251	103	29	1	1,324
2-5-6	시각디자인	1,538	353	103	41	10	2,045
4-10-1	인테리어디자인	910	184	72	18	4	1,188
5-5-1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699	110	43	11	5	868

2) 표본설계

(1) 표본크기

-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음.

$$n = \frac{N(zs)^2}{Nd^2 + (zs)^2}$$

- 여기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 은 신뢰계수이다(신뢰수준 95% 하에서 $z=1.96$ 이다). 본 조사의 전체 목표표본 크기는 모집단 크기 및 비용을 고려하여 약 600개 (모집단 크기 대비 약 13.1%)로 결정함. 이 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3.75\%$ ($p=0.5$ 로 가정함)임.
본 조사는 업종 및 종사자수를 고려한 층화추출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실제 표본오차가 이보다 조금 더 작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표본오차가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됨.

(2) 표본추출방법 및 단계

○ 층화

-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과 종사자수를 층화변수로 고려함.
즉,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업종: 디자인 특수분류 소분류 4개
 - 종사자규모 : 4인 이하, 5~9인, 10~19인, 20~49인, 50인 이상

○ 표본 추출 방법

-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크기를 할당할 경우 상당수의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할당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따라서 제곱근비례배분으로 표본크기를 할당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였으며, 업종별 모집단 크기가 50개 이하 또는 각 층별 조사 모집단 크기가 5개 이하인 경우 또는 종사자수가 50인 이상인 업체는 전수조사를 목표로 조사함.
이러한 원칙 하에서 실제 조사된 표본크기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음.

▶ 전문디자인업체의 업종/규모별 할당

디자인 특수분류	업종	총사자 규모					
		4인 이하	5-9인	10-19인	20-49인	50인 이상	계
	총계	306	141	87	46	20	600
1-7-1	제품디자인	74	38	25	13	1	151
2-5-6	시각디자인	95	45	25	15	10	190
4-10-1	인테리어디자인	73	33	21	10	4	141
5-5-1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64	25	16	8	5	118

(3) 모수 추정

❖ 업종별, 종사자수별 추출률(inclusion probability)을 고려하여 전문디자인업체의 모수에 대한 추정치와 표준오차를 계산함.

- y_{ijk} : 관찰값(각 문항에 대한 응답)

❖ i : 업종의 번호($i = 1, 2, \dots, I$). 단, $I=4$.

❖ j : 규모의 번호($j = 1, 2, \dots, J$). 단, $J=5$.

❖ k : 업종/규모 내의 표본 전문디자인업체의 번호($k = 1, 2, \dots, n_{hij}$)

즉, y_{ijk} 는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k 번째 표본 전문디자인업체에 대한 관찰값임.

❖ n_{ij}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에 대한 표본크기

❖ N_{ij}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에 대한 모집단크기

❖ $n = \sum_{i=1}^I \sum_{j=1}^J n_{ij}$: 전체 표본크기

❖ $N = \sum_{i=1}^I \sum_{j=1}^J N_{ij}$: 전체 모집단 크기

❖ $\bar{y}_{ij} = \sum_{k=1}^{n_{ij}} y_{ijk} / n_{ij}$: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표본평균

❖ $\hat{\tau}_{ij} = N_{ij} \bar{y}_{ij}$: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표본 합

❖ $s_{ij}^2 = \sum_{k=1}^{n_{ij}} (y_{ijk} - \bar{y}_{ij})^2 / (n_{ij} - 1)$: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표본분산

❖ \hat{p}_{ij}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표본비율

❖ 모비율 합 τ 의 추정량 및 분산

- $\hat{\tau} = \sum_{i=1}^I \sum_{j=1}^J N_{ij} \bar{y}_{ij}$
- $\widehat{Var}(\hat{\tau}) = \sum_{i=1}^I \sum_{j=1}^J N_{ij}^2 \left(\frac{N_{ij} - n_{ij}}{N_{ij}} \right) \frac{s_{ij}^2}{n_{ij}}$

❖ 모평균 μ 의 추정량 및 분산

- $\hat{\mu} = \sum_{i=1}^I \sum_{j=1}^J \frac{N_{ij}}{N} \bar{y}_{ij}$
- $\widehat{Var}(\hat{\mu}) = \sum_{i=1}^I \sum_{j=1}^J \left(\frac{N_{ij}}{N} \right)^2 \left(\frac{N_{ij} - n_{ij}}{N_{ij}} \right) \frac{s_{ij}^2}{n_{ij}}$

❖ 모비율 p 의 추정량 및 분산

- $\hat{p} = \sum_{i=1}^I \sum_{j=1}^J \frac{N_{ij}}{N} \bar{y}_{ij}$
- $\widehat{Var}(\hat{p}) = \sum_{i=1}^I \sum_{j=1}^J \left(\frac{N_{ij}}{N} \right)^2 \left(\frac{N_{ij} - n_{ij}}{N_{ij}} \right) \frac{\hat{p}_{ij}(1 - \hat{p}_{ij})}{n_{ij} - 1}$

(4) 주요항목 공표범위

- ❖ 조사 결과의 공표는 디자인 특수분류 대분류, 업체 규모별로 공표하고 공표 시에는 주요변수 (매출액, 디자이너 수)에 대한 표본 오차를 제시함.

▶ 전문디자인업체 실태조사 표본크기

디자인 특수분류	업종	총사자 규모						계
		4인 이하	5~9인	10~19인	20~49인	50인 이상		
총계		326	155	92	30	6	609	
1-7-1	제품디자인	78	48	40	9	0	175	
2-5-6	시각디자인	100	49	28	15	3	195	
4-10-1	인테리어디자인	76	32	15	3	1	127	
5-5-1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72	26	9	3	2	112	

3 중앙부처 및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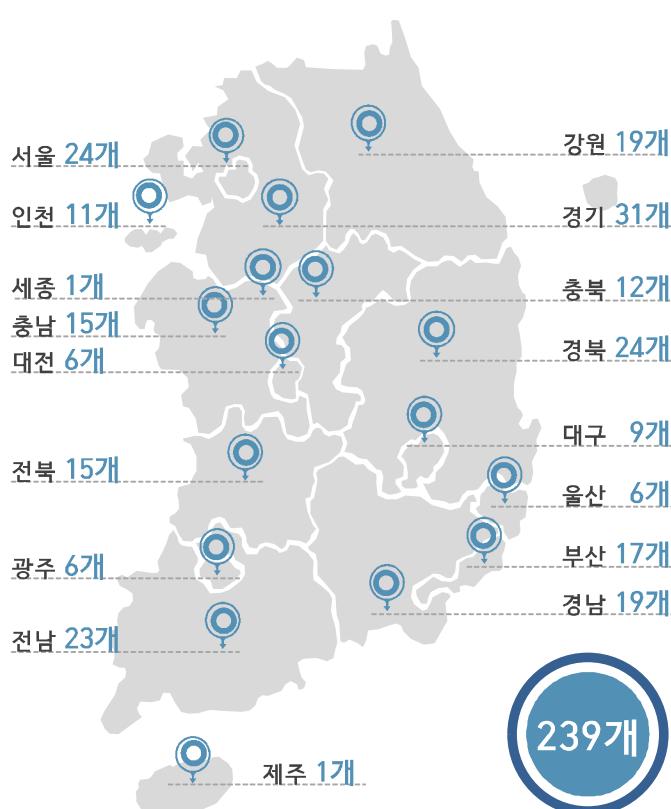
1) 중앙부처

▷ 총 38개 기관 중 32개 기관 조사 완료^⑤

구분	중앙부처
17부 (13부 완료)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통일부, 환경부
5처 (4처 완료)	국가보훈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16청 (15청 완료)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2) 지방자치단체

▷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39개 조사 완료^⑥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모집단 크기 (2016년)]
조사완료수/전체지자체수

시/도	시군구(행정구/자치구)			계
	시	군	구	
서울	1/1			23/25 24/26
부산	1/1		1/1	15/15 17/17
대구	1/1		1/1	7/7 9/9
인천	1/1		2/2	8/8 11/11
광주	1/1			5/5 6/6
대전	1/1			5/5 6/6
울산	1/1		1/1	4/4 6/6
경기	1/1	27/28	3/3	31/32
강원	1/1	7/7	11/11	19/19
충북	1/1	3/3	8/8	12/12
충남	1/1	7/8	7/7	15/16
세종	1/1			1/1
전북	1/1	6/6	8/8	15/15
전남	1/1	5/5	17/17	23/23
경북	1/1	10/10	13/13	24/24
경남	1/1	8/8	10/10	19/19
제주	1/1			1/1
계	17/17	73/75	82/82	67/69 239/243

⑤ 법무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검찰청 미응답

국민안전처는 2017년 7월 정부 조직 개편으로 행정자치부에 흡수·통합됨

⑥ 서울 종량구, 서울 강서구, 경기 시흥시, 충남 아산시 미응답

02

조사표

디자인 활용업체 / 전문 디자인업체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2017 산업디자인통계조사 (디자인활용업체)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 2에 근거하여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2017 산업디자인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로, 기업의 디자인관련 현황을 조사하여 디자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디자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매우 중요한 조사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귀사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으므로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 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엔지니어링PD 윤상석(☎ 031-780-2266)	조사 기관	월드리서치 양대영(☎ 02-6188-6017)
----------	--	----------	------------------------------

■ 사업체 기본 현황

★ 이후 모든 문항은 기업 기준이 아닌 사업체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ID			List No		
1 List 명시(할당)	지역		업종		상용근로자수
2 조사결과	지역		업종		상용근로자수
3. 사업체명					
4. 사업자등록번호					
5. 상세업종	※ 리스트의 업종과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세업종을 구체적으로 작성				
6. 기업규모분류	① 대기업	② 중견기업	③ 중기업	④ 소기업	
7. 조직형태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법인 ④ 비법인 단체	→	구분	① 단독사업체 ② 본사, 본점 등 ③ 공장, 지사(점) 영업소 등	
※ 회사이외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 재단법인, 사단법인 특수법인(법무, 회계법인, 공사, 공단 등) ※ 비법인 단체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모임, 종교단체, 문화단체, 후원회 등					
8. 재무제표 작성여부	① 작성 ② 미작성	9. 상장 여부	① 상장 ② 비상장		
		10. 외감기업 여부	① 외감기업 ② 비외감기업		
11. 최종 상품의 유형	① 최종소비재 ② 자본재(기계류 등) ③ 중간재(부품, 소재)	④ 서비스			

■ 응답자 현황

1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 -
2 응답자 부서(팀)		응답자 직책	
		전공여부	① 디자인 전공 ② 디자인 외 전공

SC1. 귀사의 디자인 활용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아니오
①	2016년 12월 기준으로 귀사에는 디자인 부서가 있었습니까?	①	②
②	2016년 12월 기준으로 귀사에는 디자이너가 직원으로 종사하고 있었습니까? ※ 디자이너 : 디자이너로 고용된 자 중 디자인 관련학과 전공 또는 디자인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디자인 관련학과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도 디자인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①	②
③	2015년, 2016년 동안 귀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디자인 개발을 위해 전문디자인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②

SC2 [SC1에서 모두 없다고 하는 경우]

1) 귀사는 2015~2016년 동안 신제품을 출시했거나 기존 상품의 디자인을 변경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신제품 출시 및 디자인 변경 경험이 있는 경우]

신제품 디자인 혹은 디자인 변경은 어떤 방법(자체, 외주 등)으로 하셨습니까?

[디자인활용 현황]
문1) [SC1 디자인 부서가 있는 경우]

귀사의 디자인부서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기업 디자인센터, 디자인연구소 등 독립된 디자인 부서(팀)가 있다.
- ② R&D 연구소 등 R&D 관련 부서 내에 디자인 부서(팀)를 운영하고 있다.
- ③ 상품기획, 마케팅 등 R&D 이외의 부서에서 디자인 부서(팀)를 운영하고 있다.
- ④ 기타()

문2) 2016년 기준, 귀사에서 디자인 개발을 할 때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사내 인력 활용)과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그룹 내 디자인 전문 계열사, 외부 전문 디자인업체, 프리랜서를 활용)을 작성해주세요. 디자인 개발 건 수와 개발 비용 각각의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구분	디자인 개발 건 수 기준	디자인 개발 비용 기준
자체 디자인 개발	%	%
외주 디자인 개발	%	%
합계	100%	100%

문2-1) [외주 디자인 개발이 있는 경우]

외주 대상별 비중은 어떠합니까? 각각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해 주세요.

구분	디자인 개발 건 수 기준	디자인 개발 비용 기준
그룹 내 디자인 전문 계열사	%	%
외부 전문 디자인업체	%	%
프리랜서	%	%
합계	100%	100%

문2-2) 국내, 해외 의뢰 비중은 어떠합니까? 각각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해 주세요.

구분	디자인 개발 건 수 기준	디자인 개발 비용 기준
국내 의뢰	%	%
해외 의뢰	%	%
합계	100%	100%

문3) 귀사의 디자인 활용 분야 비중을 작성해 주세요. 활용 비중의 합은 100%입니다.

분야	범위	활용 비중
① 제품디자인	전기 전자 제품디자인, 다목적 기계 및 공구디자인, 생활/환경용품디자인, 운송기기디자인, 가구디자인, 제조업 회사본부 디자인, 기타 제품디자인	%
② 시각디자인	편집디자인, 삽·의약품 패키지디자인, 비식·의약품 패키지디자인, 광고디자인(인쇄매체), 기타 시각디자인	%
③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영상디자인, 웹디자인, 게임디자인, 기타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
④ 공간디자인	건축디자인, 인테리어장식디자인, 전시 및 무대디자인, 인테리어 자재디자인, 익스테리어디자인, 조경 및 레저공간디자인, 리모델링디자인, 건설환경디자인, 토목환경디자인, 기타인테리어디자인	%
⑤ 패션/텍스타일디자인	패션디자인, 기능성패션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집화디자인,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
⑥ 서비스디자인	보건의료서비스디자인, 여가/레져서비스디자인, 교육서비스디자인, 커뮤니티서비스디자인, 공공행정서비스디자인	%
⑦ 경험디자인	사용자인터페이스(UI)디자인, 사용자경험(UX)디자인, 휴먼인터랙션디자인	%
⑧ 산업공예디자인	금속공예, 도자공예, 섬유공예, 목공예, 기타공예	%
⑨ 디자인인프라	디자인 모형, 디자인 연구개발, 기타디자인서비스	%
⑩ 기타디자인()		%

[디자인 투자 실적]

문4) 귀사의 2016년 사업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실조	조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① 매출액	2016년 1년간 사업 활동을 통한 수익총액								
② 인건비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충당금전입액 등 인건비성 제비용으로 기타총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수수료도 포함								
③ 연구개발비	연구비, 개발비, 경상개발비의 합으로 구성됨								
④ 영업이익	매출액 - 영업비용(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								

문5) 귀사의 2016년 디자인 투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실조	조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① 디자이너 인건비	고용 디자이너 인건비								
② 디자인업체 용역비	전문디자인업체 용역비								
③ 그 외 디자인 용역비	프리랜서 등 고용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록업 제작비/인쇄비 등								
④ 디자인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	구매 디자인 연구 개발용 고가 기기, 장치, 컴퓨터시스템 및 음용소프트웨어 구매 및 관리 비용								
⑤ 디자인 연구개발용 토지/건물	구매 디자인 연구 개발용 토지, 건물비 및 건물의 대규모 수리 등을 위한 지출액								
⑥ 디자인/디자이너 교육비	디자인/디자이너 교육비								
⑦ 디자인 시설재산권 구입·관리비	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등) 구입 및 관리 등								
⑧ 디자인 관련 기타 경상비	디자인 연구에 소요되는 재료비, 유인물비, 비품구입비, 출장비 등 기타 경비								
디자인 투자금액 합계(①+...+⑧)									

문6) 귀사의 향후 디자인투자 금액 및 디자이너 고용 전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6년과 같으면 100%, 2016년의 절반 수준이면 50%, 2배 증가면 200% 등으로 작성해 주세요.

	2017년 전망		2018년 전망	
	2016년의 (%) 수준	()명	2016년의 (%) 수준	()명
① 디자인투자 금액 전망				
② 디자이너 고용 전망	디자이너 있는 경우 디자이너 없는 경우	2016년의 (%) 수준 ()명 채용 전망	디자이너 있는 경우 디자이너 없는 경우	2016년의 (%) 수준 ()명 채용 전망

문7) 귀사의 제품(서비스)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7개 요소의 비중을 작성해 주세요.

	브랜드	성능	마케팅 (홍보/광고)	유통	디자인	고객서비스	기업 아이덴티티	합계
요소별 비중	%	%	%	%	%	%	%	100%

문8) 오른쪽 마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한 우수 디자인 상품을 나타냅니다.

귀사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본 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 ② 본 적은 있지만 의미는 모른다
 ③ 전혀 모르고 있다



문9) 귀사에서 GD 마크 획득이 다음의 각 경영활동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기여하지 않음	별로 기여하지 않음	보통	조금 기여함	매우 기여함
매출증가	①	②	③	④	⑤
브랜드(제품/기업이미지) 강화	①	②	③	④	⑤
해외시장 진출	①	②	③	④	⑤
품질홍보비용 절감	①	②	③	④	⑤
유통매장 입점	①	②	③	④	⑤
조달품목 등록	①	②	③	④	⑤

문10) 2016년 귀사의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 등의 경력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있다	없다
디자인 관련 수상 경력	국내	①__건
	해외	①__건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출원	국내	①__건
	해외	①__건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등록	국내	①__건
	해외	①__건
디자인 마크 획득	국내- GD마크 등	①__건
	해외	①__건

[디자인 위상 및 기여도]

문11) 다음의 신제품(서비스) 개발 프로세스에서 귀사의 디자이너 또는 용역 의뢰한 전문디자인업체가 개입하는 단계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2페이지의 SCI 디자이너 고용 업체만] 디자이너 개입	전문디자인업체 개입
비즈니스 전략 수립	①	①
시장 조사	②	②
상품 기획	③	③
연구 개발(디자인 개발 포함)	④	④
생산엔지니어링·서비스 제공	⑤	⑤
판매 및 유통	⑥	⑥
광고 및 마케팅	⑦	⑦

문12) 디자인 업무 및 활동에 대한 귀사의 수준을 평가해 주세요.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디자인 비전 및 전략수립(개발 계획)	①	②	③	④	⑤
디자인 전문 인력 채용 및 경력개발	①	②	③	④	⑤
디자인 아웃소싱	①	②	③	④	⑤
디자인 전담 조직	①	②	③	④	⑤
디자인 성과	①	②	③	④	⑤
디자인 자산 관리	①	②	③	④	⑤

문13) 귀사의 디자인 투자 및 활용이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기여하지 않음	별로 기여하지 않음	보통	다소 기여 함	상당히 기여 함
매출 증대	①	②	③	④	⑤
고용 증대	①	②	③	④	⑤
주가 등 기업 가치 상승	①	②	③	④	⑤
고객 만족도 향상	①	②	③	④	⑤
제품·브랜드 충성도 상승	①	②	③	④	⑤
기업 이미지 향상	①	②	③	④	⑤
기술-디자인 간 융합 생성	①	②	③	④	⑤
기업 내 생산성 향상	①	②	③	④	⑤

문14) 귀사에서 디자인 활용 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① 전문인력 및 전문회사 역량 미흡
- ② 디자인활용 시 비용부담
- ③ 디자인 활용에 대한 정보/이해 부족
- ④ 기타 ()

문15) 질문에 따라 가장 알맞은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감(Empathy) 고객 공감도 및 고객 니즈가 의사 결정 여부에 미치는 영향 평가					
- 고객에 대한 연구 결과를 참고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한다.	①	②	③	④	⑤
- 고객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 최근 산업과 시장 트렌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①	②	③	④	⑤
- 고객 대상 연구결과를 전사에 자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 주요 디자인 업무의 전담조직을 구성하거나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능력(Mastery) 디자인 프로세스와 실행 능력의 우수성 평가					
-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전 단계에서 디자인 디테일에 세심하게 주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을 위한 프로토타입을 자주 제작하고 시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디자인 품질을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 고품질로 디자인되기 전에는 제품을 출시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 디자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대안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화(Character) 회사 문화가 디자인을 얼마나 지원하고 장려하는지 평가					
- 회사의 물리적인 주위 환경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장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 구체적인 디자인 자산관리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디자이너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 디자이너들은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원을 제공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 디자이너가 아닌 경우에도 디자인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교육한다.	①	②	③	④	⑤
- 모든 조직 내에서 디자인에 대한 의미와 개념이 잘 확립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성과(Performance) 디자인이 주는 경제적 성과와 고객들의 브랜드 인식 수준 평가					
- 경쟁업체들보다 선도적인 인지 확보를 위해 디자인을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 디자인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성과와 깊은 연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고객들은 당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타인에게 추천한다.	①	②	③	④	⑤
- 디자인 성과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 디자인 성과에 대한 별도의 보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보상이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영향(Impact) 제품과 서비스가 가지는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수준을 평가					
- 소외계층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 디자인 인재상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채용 및 경력개발이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당사의 제품과 서비스는 고객의 삶에 가치를 더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 지역 사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디자인 인력]

문16) 귀사에서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의 전문 분야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 ① 제품디자인 | ② 시각디자인 | ③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
| ④ 공간디자인 | ⑤ 패션/텍스타일디자인 | ⑥ 서비스디자인 |
| ⑦ 경험디자인 | ⑧ 산업공예디자인 | ⑨ 디자인인프라 |
| ⑩ 타분야 융합디자인 | ⑪ 기타() | |

문17) [디자인 부서 직원 수 및 디자이너 수는 해당 업체만 기입]

2016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의 인력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 직원 수			디자인 부서 직원 수 (지원인력 포함)			디자이너 수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① 상용근로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①+②)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상용근로자 : 기간 제한 없이 고용되어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상여금과 각종 수혜를 받는 근로자 또는 사업체 외 1년 이상 고용을 계약한 자

*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

* 디자이너 : 디자인 고용된 자 중 디자인 관련학과 전공 또는 디자인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나 디자인 관련학과 또는 자격증 소지자이며 디자인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문18~문34은 [SC1 디자이너 고용 업체만 응답]

문18) 2016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의 디자이너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디자인 분야별에서 한 디자이너가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이라면 주요 분야 하나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디자인 분야별*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	공간디자인	패션/텍스타일	서비스디자인	경험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인프라	기타디자인	계					
직급별	상장/부사장급	상무/이사급	부장급	차/과장급	대리급	사원급	문17의 디자이너 계와 동일하지 확인									
	명	명	명	명	명	명										
연령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명	명	명	명	명											
학력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학	석사졸	박사졸											
	명	명	명	명	명											

문19) 올해 귀사가 구인한 디자이너 수는 몇 명입니까?

()명

*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응답

문20) 2016년 한 해 동안 귀사에 신규 채용된 디자이너는 몇 명입니까? 경력()명, 신입()명

*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응답

문21) 2016년 한 해 동안 퇴직한 디자이너는 몇 명입니까?

()명

*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응답

문22) 디자인 인력 채용 시 주로 어떤 경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① 공공기관 취업 알선센터 | ② 언론매체 및 온라인(취업사이트)을 통한 구인 |
| ③ 학교 취업상담실 | ④ 인력채용정보회사(헤드헌팅사 포함) |
| ⑤ 정부 지자체의 채용박람회 | ⑥ 학연·지연 등 연고 채용 |
| ⑦ 동종업계 인력 스카우트 | ⑧ 지인의 소개 또는 추천 |
| ⑨ 기타() | |

문23) 귀사는 디자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신입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②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③ 어려움을 겪은 적 없다 문 24로

문23-1) [문23, ①, ②]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업체1

디자인 인력 채용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못하였기 때문
 - ② 다른 사업체와의 격심한 인력유치 경쟁 때문
 - ③ 3D직종 등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
 - ④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
 - ⑤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 ⑥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 ⑦ 통근불편과 문화시설 부족 등 사업장 환경 때문
 - ⑧ 기타()

문24) 2016년 기준 귀사의 신입 직원 및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은 얼마입니까?

2016년 채용 직원이 없으면 최근 채용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전체 신입 직원 평균 만원 신입 디자이너 평균 만원

[디자인 교육]

문25) 최근 쿠사가 고용한 디자인 인력이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문25-1) [문24. 불만족①, ②하는 사업체]

귀사가 고용한 디자인 이력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실무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② 새로운 지식·기술 습득 능력이 낮아서
③ 필요한 (전공) 분야의 전문 인력이 아니어서 ④ 안성 근무 자세와 태도 등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⑤ 기타 ()

문26) 디자인 업무에서 디자이너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창의 역량 (사회 문화, 경제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복합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각과 직관력)
 - ② 비즈니스 역량 (창출된 새로운 가치를 구체화하여 시장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논리력과 시장 지향적 역량)
 - ③ 디자이닝 역량 (창출된 아이디어를 디자인 결과물로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감각과 스킬)
 - ④ 융합 역량 (타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소통, 협업 활용 등을 통해 새로운 자원의 기획이나 개선점, 해결방안 도출을 주도하는 역량)
 - ⑤ 기타 역량 ()

문27) 2016년 환해 둘안 쿠사에서 디자인 재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다음 중에 주로 어느 직급에 속합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사원급 ② 대리급 ③ 차/과장급 ④ 부장급 ⑤ 상무/이사급 ⑥ 사장/부사장급

문28) 2015년 쿠사에서 실시한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은 무어인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 ② 사내 특강(외부 강사) ③ 외부 위탁교육(유료)
④ 해외연수(학위과정 제외) ⑤ (국내외) 학위과정 ⑥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⑦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⑧ 기타()
⑨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문29) 귀사에서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 | ② 사내 특강(외부 강사) | ③ 외부 위탁교육(유료) |
| ④ 해외연수(학위과정 제외) | ⑤ (국내외) 학위과정 | ⑥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
| ⑦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 ⑧ 기타() | |
| ⑨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 | |

문30) 귀사 디자이너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교육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디자인 스킬·툴 교육	역량 향상 교육	기타 교육
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 ② 디자인 표현력 ③ 디자인 리서치 ④ CMF 관련 ⑤ UI/UX 디자인 ⑥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및 실습 ⑦ 제품 촬영 기법 ⑧ 3D 프린팅 모델링 ⑨ 브랜드 개발 ⑩ 기타()	⑪ 창의력 ⑫ 커뮤니케이션 역량 ⑬ 기획력(사업 기획 및 전략 수립 등) ⑭ 비즈니스 역량(마케팅, 영업 등) ⑮ 프리젠테이션 역량 ⑯ 트렌드 활용 능력 ⑰ 외국어 등 해외비즈니스 역량 ⑱ 보고서 작성 능력 ⑲ 팀워크, 협동심, 리더십 ⑳ 기타()	㉑ 타분야 융합 교육(인문학, 언어학 등) ㉒ 신기술 이해(AI, 증강현실 등) ㉓ 트렌드 정보 ㉔ 국내외 시장 정보 ㉕ 기타()

문31) 디자이너 재교육 시 가장 큰 애로사항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① 교육예산 부족 | ②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 |
| ③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 | ④ 경영진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 |
| ⑤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 ⑥ 재교육 정보 부족 |
| ⑦ 재교육 전문기관 부족 | ⑧ 재교육 후 이직 등 투자 대비 효과 |
| ⑨ 기타() | |

문32) 대학 디자인 전공 교육이 실제 디자인 업무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음	보통	대체로 높음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문33) 대학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시급히 보강되어야 할 교육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① 시각화 및 표현 능력 | ② 디자인 관련 이론 |
| ③ 기획 및 마케팅 능력 | ④ 컴퓨터 활용 스킬 |
| ⑤ 외국어(영어) 능력 | ⑥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 |
| ⑦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 | ⑧ 기타() |

문34) 디자이너 채용 시 가장 선호하는 교육(학위) 수준을 순서대로 두 가지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
|---------------------------|-------------------|-------------------|-------------------|----------|
| ① 고등학교 졸업자(디자인 특성화고등학교 등) | ② 디자인 전공 | ③ 디자인 전공 | ④ 디자인 전공 | ⑤ 디자인 전공 |
| - 전문학사(2~3년제) | - 전문학사(2~3년제) | - 학사(4년제) | - 석사 | - 박사 |
| ⑥ 디자인-공학 등 융합 전공자 | ⑦ 디자인-공학 등 융합 전공자 | ⑧ 디자인-공학 등 융합 전공자 | ⑨ 디자인-공학 등 융합 전공자 | |
| - 전문학사(2~3년제) | - 전문학사(2~3년제) | - 학사(4년제) | - 석사 | - 박사 |
| ⑩ 디자인이 아닌 타분야 전공자 | ⑪ 디자인이 아닌 타분야 전공자 | ⑫ 디자인이 아닌 타분야 전공자 | ⑬ 디자인이 아닌 타분야 전공자 | |
| - 전문학사(2~3년제) | - 전문학사(2~3년제) | - 학사(4년제) | - 석사 | - 박사 |

[정부 정책 및 지원]

문35) 귀 사는 디자인 연구, 개발 등 디자인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정부 지원 내용	지원 여부	
	있다	없다
인력양성 지원(재교육 등)	①	②
자금지원(융자, 출연금 등)	①	②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①	②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	①	②
기타()	①	②

문36)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 6월 고시한 디자인표준계약서를 활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36-1로 ② 없다 ⇒ 문 37로

문36-1) 활용한 적이 있다면 사용하신 계약서의 종류를 선택해 주시고, 활용 건수를 작성해 주세요.

- ①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건)
- ②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건)
- ③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성과보수) (건)
- ④ 인터랙티브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건)

문37) 귀사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란

한 개인이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입니다.

- ① 알고 있다 ⇒ 문 37-1로
 ② 모른다 ⇒ 문 38로

문37-1) 귀사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어떤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는 업무를 활용도가 높은 순으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_____) ⇒ 2순위:(_____)

- ① 경력개발경로 모형 설계 ② 직무기술서 작성
- ③ 채용·배치·승진체크리스트 ④ 자가진단
- ⑤ 교육훈련 ⑥ 자격검정
- ⑦ 기타 () ⑧ 활용하지 않음

문37-2) 귀사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필요성을 못 느껴서
- ②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
- ③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
- ④ 기타 ()

[신산업 관련]

문38) 귀사에서는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38-1로 ② 아니오 ⇒ 설문종료

문38-1) [문38에서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경험 업체]

수행하신 비즈니스의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는 아래 중 어디에 속합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 | | | | |
|----------|------------|-------------|-------------|
| ① 전기·차율차 | ② IoT 가전 | ③ 로봇 | ④ 바이오헬스 |
| ⑤ 항공·드론 | ⑥ 프리미엄 소비재 | ⑦ AR·VR | ⑧ 스마트·친환경선박 |
| ⑨ 에너지신산업 | ⑩ 첨단신소재 | ⑪ 차세대 디스플레이 | ⑫ 차세대 반도체 |
| ⑬ 기타() | | | |

문38-2) [문38에서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경험 업체]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당시 어떠한 형태로 디자이너를 활용하였습니까?

- ① 전문디자인업체와 협업
- ② 회사 내 디자이너 대상으로 해당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전문교육 후 활용
- ③ 전공·경험 등 관련 역량이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활용

문38-3) [문38에서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경험 업체]

문 38-1에서 선택하신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디자이너 인력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필요인원	현원	2017년 채용예정
명	명	명

문39) [문38에서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경험 업체]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의 역량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디자인	공학·신기술	커뮤니케이션/비즈니스
① UX/UI	⑦ 인체공학	⑫ 스토리텔링/프리젠테이션
② 고급 CMF	⑧ 디지털 기술 지식(AR/VR/IoT)	⑬ 다문화 이해·해석
③ 프로토타이핑 모델 제작	⑨ 3D 앤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운용	⑭ 디지털 마케팅
④ 디자인-공학 융합	⑩ 신 제조 지식	⑮ 비즈니스 모델 개발
⑤ 비주얼 트렌드 분석	⑪ 기타()	⑯ 기타()
⑥ 기타()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17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전문디자인업체)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 2에 근거하여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2017 산업디자인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로, 기업의 디자인관련 현황을 조사하여 디자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디자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매우 중요한 조사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귀사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으므로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 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엔지니어링PD 윤상석☎ 031-780-2266)	조사 기관	월드리서치 양대영☎ 02-6188-6017)
----------	---	----------	-----------------------------

■ 사업체 기본 현황

★ 이후 모든 문항은 기업 기준이 아닌 사업체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ID				List No			
1. List 명시(할당)	지역			업종			상용근로자수
2. 조사결과	지역			업종			상용근로자수
3. 사업체명							
4. 사업자등록번호			-		-		
5. 상세업종	※ 리스트의 업종과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세업종을 구체적으로 작성						
6. 조직형태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법인 ④ 비법인 단체]→ 구분 ① 단독사업체 ② 본사, 본점 등 ③ 공장, 지사(점), 영업소 등						
7. 재무제표 작성여부	① 작성 ② 미작성						
8. 상장 여부	① 상장 ② 비상장						
9.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① 신고 → 분야 ① 시각디자인 ② 포장디자인 ③ 제품디자인 ④ 환경디자인 ⑤ 멀티미디어 ⑥ 서비스디자인 ※ 종합디자인으로 신고한 경우 위 6개 분야 중 3개 이상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미신고						

■ 응답자 현황

1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 -
2	응답자 부서(팀)		응답자 직책	
			전공여부	① 디자인 전공 ② 디자인 외 전공

[주력 디자인 분야 및 인력]

문1) 귀사의 주력 디자인 분야 비중을 작성해 주십시오. 비중의 합은 100%입니다.

분야	범위	주력 비중
① 제품디자인	전기 전자 제품디자인, 단목적 기계 및 공구디자인, 생활/환경용품디자인, 운송기기디자인, 가구디자인, 제조업 회사본부 디자인, 기타 제품디자인	%
② 시각디자인	편집디자인, 식·의약품 패키지디자인, 비식·의약품 패키지디자인, 광고디자인(인쇄매체), 기타 시각디자인	%
③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영상디자인, 웹디자인, 게임디자인, 기타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
④ 공간디자인	건축디자인, 인테리어장식디자인, 전시 및 무대디자인, 인테리어 자재디자인, 익스테리어디자인, 조경 및 레저공간디자인, 리모델링디자인, 건설환경디자인, 토목환경디자인, 기타인테리어디자인	%
⑤ 패션/텍스타일디자인	패션디자인, 기능성패션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잡화디자인,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
⑥ 서비스디자인	보건의료서비스디자인, 여가/레저서비스디자인, 교육서비스디자인, 커뮤니티서비스디자인, 공공행정서비스디자인	%
⑦ 경험디자인	사용자인터페이스(UI)디자인, 사용자경험(UX)디자인, 휴먼인터랙션디자인	%
⑧ 산업공예디자인	금속공예, 도자공예, 섬유공예, 목공예, 기타공예	%
⑨ 디자인인프라	디자인 모형, 디자인 연구개발, 기타디자인서비스	%
⑩ 기타디자인()		%

문2) 2016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의 인력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 직원 수			디자인 분야 직원 수 (지원인력 포함)			디자이너 수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① 상용근로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①+②)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상용근로자: 기간 제한 없이 고용되어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상여금과 각종 수혜를 받는 근로자 또는 사업체 외 1년 이상 고용을 계약한 자

※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

※ 디자이너 디자이너로 고용된 자 중 디자인 관련학과 전공 또는 디자인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디자인 관련학과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도 디자인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문3) 2016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의 디자이너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디자인 분야별에서 한 디자이너가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이라면 주요 분야 하나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디자인 분야별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	공간디자인	패션/텍스타일	서비스디자인	경험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인프라	기타디자인	계 문2의 디자이너 계와 동일한지 확인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직급별	사장/부사장 급	상무/이사 급	부장급	차/과장급	대리급	사원급					
	명	명	명	명	명	명					
연령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명	명	명	명	명						
학력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학	석사졸	박사졸						
	명	명	명	명	명						

문4) 올해 귀사가 구인한 디자이너 수는 몇 명입니까?

()명

※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응답

문5) 귀사에서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의 전문 분야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 ① 제품디자인 | ② 시각디자인 | ③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
| ④ 공간디자인 | ⑤ 패션/텍스타일디자인 | ⑥ 서비스디자인 |
| ⑦ 경험디자인 | ⑧ 산업공예디자인 | ⑨ 디자인인프라 |
| ⑩ 타분야융합 디자인 | ⑪ 기타() | |

문6) 2016년 한 해 동안 귀사에 신규 채용된 디자이너는 몇 명입니까? 경력()명, 신입()명
 ※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응답

문7) 2016년 한 해 동안 퇴직한 디자이너는 몇 명입니까? ()명
 ※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응답

문8) 디자인 인력 채용 시 주로 어떤 경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① 공공기관 취업 알선센터 | ② 언론매체 및 온라인(취업사이트)을 통한 구인 |
| ③ 학교 취업상담실 | ④ 인력채용정보회사(헤드헌팅사 포함) |
| ⑤ 정부 지자체의 채용박람회 | ⑥ 학연·지연 등 연고 채용 |
| ⑦ 동종업계 인력 스카우트 | ⑧ 지인의 소개 또는 추천 |
| ⑨ 기타() | |

문9) 귀사는 디자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② 신입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③ 어려움을 겪은 적 없다 ⇒ 문10으로

문9-1) 디자인 인력 채용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
|---|
| ①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못하였기 때문 |
| ② 다른 사업체와의 격심한 인력유치 경쟁 때문 |
| ③ 3D직종 등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 |
| ④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 |
| ⑤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
| ⑥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
| ⑦ 통근불편과 문화시설 부족 등 사업장 환경 때문 |
| ⑧ 기타() |

문10) 2016년 기준 귀사의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은 얼마입니까?

2016년 기준 평균 연봉	평균 연봉	2016년 기준 평균 연봉	평균 연봉
신입 디자이너	만원	3년차 디자이너	만원
5년차 디자이너	만원	10년차 디자이너	만원

[디자인 사업 실적]

문11) 귀사의 2016년 사업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매출액	2016년 1년간 사업 활동을 통한 수익총액					
② 인건비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금여 충당금전입액 등 인건비성 제비용으로 기타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수수료도 포함					
③ 연구개발비	연구비, 개발비, 경상개발비의 합으로 구성됨					
④ 영업이익	매출액 - 영업비용(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					

문12) 귀사에서 디자인 사업 이외 경영하고 있는 다른 영역의 사업이 있습니까?

- | |
|----------------------------|
| ① 경영하는 사업 있다(사업 내용:) |
| ② 경영하는 사업 없다 |

문13) 귀사의 2016년 매출 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영역별 매출액 비중과 용역 건수를 작성해 주세요.

구분		매출액 비중	용역 건 수
국내 고객	디자인 컨설팅	%	건
	디자인 개발	%	건
	기타()	%	건
해외 고객	디자인 컨설팅	%	건
	디자인 개발	%	건
	기타()	%	건
자체 상품 개발/판매		%	건
전체		100%	건

문14) 귀사의 국내 고객 용역 비중(2016년 매출액 기준)을 작성해 주세요.

국내 기업				지자체/ 국가기관	합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	%	%	%	%	100%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원 이상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에는 속하지 않는 회사

문15) 귀사의 2016년 디자인 사업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디자이너 인건비	고용 디자이너 인건비						
② 디자인업체 용역비	전문디자인업체 재하청 용역비						
③ 그 외 디자인 용역비	프리랜서 등 고용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특업 제작비/인쇄비 등						
④ 디자인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	구매 디자인 연구 개발용 고가 기기, 장치, 컴퓨터시스템 및 응용소프트웨어 구매 및 관리 비용						
⑤ 디자인 연구개발용 토지/건물	구매 디자인 연구 개발용 토지, 건물비 및 건물의 대규모 수리/증설을 위한 자금액						
⑥ 디자인/디자이너 교육비	디자인/디자이너 교육비						
⑦ 디자인 지식재산권 구입/관리비	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등) 구입 및 관리 등						
⑧ 디자인 관련 기타 경상비	디자인 연구에 소요되는 재료비, 유인물비, 비품구입비, 출장비 등 기타 경비						
디자인 사업비 합계(①+...+⑧)							

문16) 귀사의 향후 매출 및 사업비, 고용 전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6년과 같으면 100%, 2015년의 절반 수준이면 50%, 2배 증가면 200% 등으로 작성해 주세요.

	2017년 전망	2018년 전망
① 매출액 전망	2016년의 ()% 수준	2016년의 ()% 수준
② 디자인사업비 전망	2016년의 ()% 수준	2016년의 ()% 수준
③ 디자이너 고용 전망	()명, 2016년의 ()% 수준	()명, 2016년의 ()% 수준
④ 연구개발비 전망	()명, 2016년의 ()% 수준	()명, 2016년의 ()% 수준

문17) 귀사가 매출 증대 방안으로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국내 용역 수주 확대 | ② 해외 시장 진출 확대 |
| ③ 종합 컨설팅으로 영역 확대 | ④ 자체 상품 개발 및 판매 |
| ⑤ 특화된 디자인 전문영역으로 차별화 | ⑥ 기타() |

문18) 2016년 한 해 동안 산출한 디자인권(출원·등록 포함)의 소유(명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객사 소유(명의)	건	귀사 소유(명의)	건
------------	---	-----------	---

문19) 오른쪽 마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한 우수 디자인 상품을 나타냅니다.

귀사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 | |
|---------------------|--------------------|
| ① 본 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 | ② 본 적은 있지만 의미는 모른다 |
| ③ 전혀 모르고 있다 | |



문20) 귀사에서 GD 마크 획득이 다음의 각 경영활동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기여하지 않음	별로 기여하지 않음	보통	조금 기여함	매우 기여함
매출증가	①	②	③	④	⑤
브랜드(제품/기업이미지) 강화	①	②	③	④	⑤
해외시장 진출	①	②	③	④	⑤
품질홍보비용 절감	①	②	③	④	⑤
유통매장 입점	①	②	③	④	⑤
조달품목 등록	①	②	③	④	⑤

문21) 2016년 귀사의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 등의 경력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있다	없다
디자인 관련 수상 경력	국내	① 건	②
	해외	① 건	②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출원	국내	① 건	②
	해외	① 건	②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등록	국내	① 건	②
	해외	① 건	②
디자인 마크 획득	국내- GD마크 등	① 건	②
	해외	① 건	②

[디자인 해외 교류]

문22) 귀사는 현재 해외 비즈니스(문22-1 보기 확인)를 하고 있거나, 향후 해외진출 계획이 있습니까?

- | | | |
|----------------------------|---------------------|-----------------|
| ① 현재 해외 비즈니스 진행 중 ⇒ 문22-1로 | ② 향후 계획 있음 ⇒ 문22-4로 | ③ 계획 없음 ⇒ 문23으로 |
|----------------------------|---------------------|-----------------|

문22-1) 귀사의 해외 비즈니스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 | | |
|-----------------------|---------------------------------|
| ① 해외에 법인 설립·운영 | ② 해외에 연락사무소(법인 미등록) 운영 |
| ③ 파트너쉽 등 해외 업체와 협업 | ④ 해외 현지의 전문가(비즈니스개발, 디자이너 등) 활용 |
| ⑤ 해외 대학과의 산·학 프로젝트 수행 | ⑥ 국내에서 추진(필요시 현지 출장 등) |

문22-2) 귀사의 해외 비즈니스 주력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컨설팅서비스 ② 디자인상품 개발 용역 ③ 컨설팅서비스 및 디자인상품 개발 병행
④ 기타 ()

문22-3) 귀사가 진출해 있는 해외 지역은 어디입니까?

모두 체크해주시고, 구체적인 국가(지역)를 작성해 주세요.
① 중국 (지역:) ② 아시아 (국가:)
③ 유럽 (국가:) ④ 미주 (국가:)
⑤ 기타 (국가:)

문22-4) 귀사가 향후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모두 체크해주시고, 구체적인 국가(지역)를 작성해 주세요.
① 중국 (지역:) ② 아시아 (국가:)
③ 유럽 (국가:) ④ 미주 (국가:)
⑤ 기타 (국가:)

[디자인 교육]

문23) 최근 귀사가 고용한 디자인 인력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문23-1) [문23, 불만족①, ②하는 사업체]

귀사가 고용한 디자인 인력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실무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② 새로운 지식·기술 습득 능력이 낮아서
③ 필요한 (전공) 분야의 전문 인력이 아니어서 ④ 인성, 근무 자세와 태도 등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⑤ 기타 ()

문24) 귀사에 디자인 분야 이외 필요한 인력의 전공 분야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공학(엔지니어링 전반) | ② 상경계열(경영학/경제학/회계학/통계학 등) |
| ③ 사회과학(심리학/사회학 등) | ④ 인문학(역사/철학 등) |
| ⑤ 자연과학(물리/화학/생물학 등) | ⑥ 법학 |
| ⑦ 기타() | |

문25) 디자인 업무에서 디자이너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입니까?

- ① 창의 역량 (사회·문화·경제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복합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각과 직관력)
② 비즈니스 역량 (창출된 새로운 가치를 구체화하여 시장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논리력과 시장·지향적 역량)
③ 디자이닝 역량 (창출된 아이디어를 디자인 결과물로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감각과 스킬)
④ 융합 역량 (타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소통, 협업 활용 등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기획이나 개선점·해결방안 도출을 주도하는 역량)
⑤ 기타 역량 ()

문26) 2016년 한 해 동안 귀사에서 디자인 재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다음 중 주로 어느 직급에 속합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사원급 ② 대리급 ③ 차/과장급 ④ 부장급 ⑤ 상무/이사급 ⑥ 사장/부사장급

문27) 2016년에 귀사에서 실시한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은 무엇인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 ② 사내 특강(외부 강사) ③ 외부 위탁교육(유료)
④ 해외연수(학위과정 제외) ⑤ (국내외) 학위과정 ⑥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⑦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⑧ 기타()
⑨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문28) 귀사에서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 | ② 사내 특강(외부 강사) | ③ 외부 위탁교육(유료) |
| ④ 해외연수(학위과정 제외) | ⑤ (국내외) 학위과정 | ⑥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
| ⑦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 ⑧ 기타() | |
| ⑨ 재교육에 관심 없음 | | |

문29) 귀사 디자이너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교육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디자인 스킬/툴 교육	역량 향상 교육	기타 교육
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 ② 디자인 표현력 ③ 디자인 리서치 ④ CMF 관련 ⑤ UI/UX 디자인 ⑥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및 실습 ⑦ 제품 촬영 기법 ⑧ 3D 프린팅 모델링 ⑨ 브랜드 개발 ⑩ 기타()	⑪ 창의력 ⑫ 커뮤니케이션 역량 ⑬ 기획력(사업 기획 및 전략 수립 등) ⑭ 비즈니스 역량(마케팅, 영업 등) ⑮ 프리젠테이션 역량 ⑯ 트렌드 활용 능력 ⑰ 외국어 등 해외비즈니스 역량 ⑱ 보고서 작성 능력 ⑲ 팀워크, 협동심, 리더십 ⑳ 기타()	㉑ 타분야 융합 교육(인문학, 엔지니어링 등) ㉒ 신기술 이해(AI, 증강현실 등) ㉓ 트렌드 정보 ㉔ 국내외 시장 정보 ㉕ 기타()

문30) 디자이너 재교육 시 가장 큰 애로 사항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① 교육예산 부족 | ②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 |
| ③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 | ④ 경영진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 |
| ⑤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 ⑥ 재교육 정보 부족 |
| ⑦ 재교육 전문기관 부족 | ⑧ 재교육 후 이직 등 투자 대비 효과 |
| ⑨ 기타() | |

문31) 대학 디자인 전공 교육이 실제 디자인 업무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음	보통	대체로 높음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문32) 대학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시급히 보강되어야 할 교육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① 시각화 및 표현 능력 | ② 디자인 관련 이론 |
| ③ 기획 및 마케팅 능력 | ④ 컴퓨터 활용 스킬 |
| ⑤ 외국어(어학) 능력 | ⑥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 |
| ⑦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 | ⑧ 기타() |

문33) 디자이너 채용 시 가장 선호하는 교육(학위) 수준을 순서대로 두 가지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
| ① 고등학교 졸업자(디자인 특성화고등학교 등) | | | |
| ② 디자인 전공
- 전문학사(2~3년제) | ③ 디자인 전공
- 학사(4년제) | ④ 디자인 전공
- 석사 | ⑤ 디자인 전공
- 박사 |
| ⑥ 디자인·공학 등 융합 전공자
- 전문학사(2~3년제) | ⑦ 디자인·공학 등 융합 전공자
- 학사(4년제) | ⑧ 디자인·공학 등 융합 전공자
- 석사 | ⑨ 디자인·공학 등 융합 전공자
- 박사 |
| ⑩ 디자인이 아닌 타분야 전공자
- 전문학사(2~3년제) | ⑪ 디자인이 아닌 타분야 전공자
- 학사(4년제) | ⑫ 디자인이 아닌 타분야 전공자
- 석사 | ⑬ 디자인이 아닌 타분야 전공자
- 박사 |

[정부 정책 및 지원]

문34) 디자인산업이 성장·발전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 | | |
|--------------------|------------------|
| ① 기업의 디자인 인식 부족 | ② 디자인 업체의 영세성 |
| ③ 전문디자인 업체 취업 기피 | ④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 |
| ⑤ 국가 지원 정책 및 제도 미흡 | ⑥ 기타() |

1순위:() ⇒ 2순위:()

문35) 디자인산업이 타산업에 비해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인접기술 분야와의 융합 | ② 전문 인력 양성 |
| ③ 비즈니스 모델 | ④ 관련 정부 지원 |
| ⑤ 기타() | |

문36) 귀사가 디자인 개발을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문37) 2016년 한 해 동안 귀사는 고객사(발주사)로부터 디자인권, 용역비용 미지급 등의 문제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 ① 없다 ⇒ 문38로 ② 있다→ (연간 ___회) ⇒ 문37-1로

문37-1)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다음 중 그 피해 유형이 어떠한 것인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 | |
|--|
| ① 대금지급 지연 |
| ② 계약내용 외 무상 추가 개발 요구 |
| ③ 일방적인 계약해지 후 용역대금 미지급 |
| ④ 지식재산권 침해 (디자인개발 중 발생된 여려 시안의 지식재산권 소유 및 비용처리 문제 등) |
| ⑤ 채택된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무한책임전가 (결과물 관련 소송 문제 등) |
| ⑥ 기타 피해 유형 () |

문38) 귀사는 디자인 연구, 개발 등 디자인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다음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정부 지원 내용	지원 여부	
	있다	없다
인력양성 지원(재교육 등)	①	②
자금지원(융자, 출연금 등)	①	②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①	②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	①	②
기타()	①	②

문39) 귀사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문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① 인력양성 지원 | ② 자금지원 확대(융자, 출연금 등) |
| ③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 ④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 |
| ⑤ 입찰정보 지원 | ⑥ 관련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 |
| ⑦ 기타() | |

문40) 귀사가 원하는 우수인재를 뽑기 위해 정부는 어떤 부분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① 대학-기업 간 연계활동(ex. 계약학과)에 대한 지원 | ② 관련 분야 인력 양성 증대 |
| ③ 재교육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 ④ 인턴쉽 지원 |
| ⑤ 인력정보 제공 등 기업의 채용 활동지원 | ⑥ 관련 전문자격증 개발 및 운영 |
| ⑦ 자격제한이 없는 다양한 경진대회 지원을 통해 실력 있는 인력들의 기량 발휘 기회 증대 | |
| ⑧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 ⑨ 기타 () |

문41) 귀사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수출지원금 | ② 귀사의 글로벌 역량 측정 |
| ③ 해외지사 지원사업 | ④ 해외 시장조사 |
| ⑤ 수출 상담회 | ⑥ 해외 전시회 |
| ⑦ 민간네트워크 지원 정책 | ⑧ 기타 () |

문42)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 6월 고시한 디자인표준계약서를 활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42-1로 ② 없다 ⇒ 문 43로

문42-1) 활용한 적이 있다면 사용하신 계약서의 종류를 선택해 주시고, 활용 건수를 작성해 주세요.

- | | |
|------------------------|-----------|
| ①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건) |
| ②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건) |
| ③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성과보수) | (건) |
| ④ 인터랙티브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건) |

문42-2)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평균 계약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① 2천만원 미만 | ②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 ③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④ 1억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 ⑤ 1억5천만원 이상 | |

문42-3)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사용 대상은 어디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공공기관 ② 중소기업 ③ 중견기업 ④ 대기업 ⑤ 기타()

문43) 귀사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란
한 개인이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입니다.

- ① 알고 있다 ⇒ 문43-1로 ② 모른다 ⇒ 문44로

문43-1) 귀사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어떤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는 업무를 활용도가 높은 순으로 선택하여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① 경력개발경로 모형 설계 | ② 직무기술서 작성 |
| ③ 채용배치승진체크리스 | ④ 자가진단 |
| ⑤ 교육훈련 | ⑥ 자격검정 |
| ⑦ 기타 () | ⑧ 활용하지 않음 |

문43-2) 귀사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필요성을 못 느껴서
- ②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
- ③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
- ④ 기타()

문44) 귀사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또는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 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신산업 관련]

문45) 귀사에서는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45-1로
- ② 아니오 ⇒ 설문종료

문45-1) [문45에서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경험이 있는 경우]

수행하신 비즈니스의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는 아래 중 어느 분야에 속합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 | | | | |
|----------|------------|-------------|-------------|
| ① 전기·자율차 | ② IoT 가전 | ③ 로봇 | ④ 바이오헬스 |
| ⑤ 항공·드론 | ⑥ 프리미엄 소비재 | ⑦ AR·VR | ⑧ 스마트·친환경선박 |
| ⑨ 에너지신산업 | ⑩ 첨단신소재 | ⑪ 차세대 디스플레이 | ⑫ 차세대 반도체 |
| ⑬ 기타() | | | |

문45-2) [문45에서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경험이 있는 경우]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당시 어떠한 형태로 디자이너를 활용하였습니까?

- ① 회사 내 디자이너 대상으로 해당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전문교육 후 활용
- ② 전공·경험 등 관련 역량이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활용

문45-3) [문45에서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경험이 있는 경우]

문45-1에서 선택하신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디자이너 인력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필요인원	현원	2017년 채용예정

문46) [문45에서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경험이 있는 경우]

신산업 분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의 역량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디자인	공학·신기술	커뮤니케이션/비즈니스
① UX/UI	⑦ 인체공학	⑫ 스토리텔링/프리젠테이션
② 고급 CMF	⑧ 디지털 기술 지식(AR/VR/IoT)	⑬ 다문화 이해·해석
③ 프로토타이핑 모델 제작	⑨ 3D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운용	⑭ 디지털 마케팅
④ 디자인-공학 융합	⑩ 신 제조 지식	⑮ 비즈니스 모델 개발
⑤ 비주얼 트렌드 분석	⑪ 기타()	⑯ 기타()
⑥ 기타()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17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KIDP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면접원이 기입하는 날입니다	ID					List No																																																			
<p>안녕하십니까?</p> <p>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 2에 근거하여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2017 산업디자인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p> <p>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로,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디자인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효용성을 측정하여 디자인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계획 및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p> <p>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p>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수행 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엔지니어링PD 윤상석(☎ 031-780-2266)			조사 기관	월드리서치 양대영(☎ 02-6188-6017)																																																				
<p>■ 기관 개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4"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background-color: #e0e0e0;">면접원 작성</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지자체</td> <td colspan="3"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① 광역시/도 ② 시 ③ 군 ④ 구</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정부부처</td> <td colspan="4"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①부 ②처 ③청</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관명</td> <td colspan="5"></td> <td colspan="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응답자 성명</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응답자 연락처</td> <td colspan="2"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td> <td colspan="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응답자 부서(팀)</td> <td colspan="2"></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응답자 직책</td> <td colspan="5"></td> </tr> <tr> <td></td> <td colspan="2"></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공여부</td> <td colspan="6" style="text-align: center;">① 디자인 전공 ② 디자인 외 전공</td> </tr> </table>										면접원 작성	지자체	① 광역시/도 ② 시 ③ 군 ④ 구			정부부처	①부 ②처 ③청				기관명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 -						응답자 부서(팀)			응답자 직책									전공여부	① 디자인 전공 ② 디자인 외 전공					
면접원 작성	지자체	① 광역시/도 ② 시 ③ 군 ④ 구			정부부처	①부 ②처 ③청																																																			
	기관명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 -																																																					
	응답자 부서(팀)			응답자 직책																																																					
			전공여부	① 디자인 전공 ② 디자인 외 전공																																																					

문1) 현재 귀 기관에는 별도의 디자인실(팀,계)이나 국, 전담과 등 디자인 관련 전담부서 및 팀이 있거나 혹은 디자이너가 있습니까?

- ①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다 → 문1-1)로
- ② 디자인 전담부서는 없고, 디자이너만 있다 → 문1-3)으로
- ③ 디자인 전담부서 및 디자이너가 없다 → 문1-5)로

※ 디자이너 : 디자이너로 고용된 자 중 디자인 관련학과 전공 또는 디자인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디자인 관련학과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도 디자인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문1-1) 디자인 전담부서의 소속과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여러 부서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국/실/본부	관	과	팀
1				
2				
3				
4				
5				

문1-2) 디자인 전담부서의 2016년 예산집행금액을 작성해 주십시오.

No	디자인 전담부서 명	디자인 용역비						디자인 전담부서 총 인건비						프리랜서 등 고용되지 않은 인력에 지급된 인건비, 목업 제작비, 인쇄비 등					
		전 액	백 억	십 억	여 억	천 만	백 만	전 액	백 억	십 억	여 억	천 만	백 만	전 액	백 억	십 억	여 억	천 만	백 만
1																			
2																			
3																			
4																			
5																			
합계																			

문1-3) 디자인 전담부서의 해당 직원은 모두 몇 명이며, 그 중 디자이너는 몇 명입니까?

디자인 전담부서는 없고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 디자이너 수만 작성해 주세요.

No	디자인 전담부서 명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			디자이너 수		
		남 자	여 자	계	남 자	여 자	계
1							
2							
3							
4							
5							
합계							

문1-4) 귀 기관의 디자이너 수를 활동 디자인 분야별로 작성해 주세요.

만약 한 디자이너가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이라면 주요 분야 하나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분야	범위	디자이너 수
① 제품디자인	전기 전자 제품디자인, 다목적 기계 및 공구디자인, 생활/환경용품디자인, 운송기기디자인, 가구디자인, 제조업 회사본부 디자인, 기타 제품디자인	명
② 시각디자인	편집디자인, 식·의약품 패키지디자인, 비식·의약품 패키지디자인, 광고디자인(인쇄매체), 기타 시각디자인	명
③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영상디자인, 웹디자인, 게임디자인, 기타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명
④ 공간디자인	건축디자인, 인테리어장식디자인, 전시 및 무대디자인, 인테리어 자재디자인, 익스테리어디자인, 조경 및 레저공간디자인, 리모델링디자인, 건설환경디자인, 토목환경디자인, 기타인테리어디자인	명
⑤ 패션/텍스타일디자인	패션디자인, 기능성패션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잡화디자인,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명
⑥ 서비스디자인	보건의료서비스디자인, 여가/레져서비스디자인, 교육서비스디자인, 커뮤니티서비스디자인, 공공행정서비스디자인	명
⑦ 경험디자인	사용자인터페이스(UX)디자인, 사용자경험(UX)디자인, 휴먼인터랙션디자인	명
⑧ 산업공예디자인	금속공예, 도자공예, 섬유공예, 목공예, 기타공예	명
⑨ 디자인인프라	디자인 모형, 디자인 연구개발, 기타디자인서비스	명
⑩ 기타디자인()		명
합 계 (문1-3의 디자이너 수와 동일여부 확인)		명

문1-5) 귀 기관의 적정 디자인 담당 인력은 몇 명입니까? ()명

문1-6)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문1의②,③)만 해당]

귀 기관에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다면 디자인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곳을 기술해 주세요.

국/실/본부	관	과	팀

문1-7)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문1의②,③)만 해당] 아래 2016년 예산집행금액을 작성해 주십시오.

디자인 용역비						[문1 ② 디자이너가 있는 경우] 디자이너 종 인건비						디자인 관련 프리렌서 등 고용되지 않은 인력에 지급된 인건비, 특업 제작비, 인쇄비 등					
전역	백역	십억	억	천만	백만	전역	백역	십억	억	천만	백만	전역	백역	십억	억	천만	백만

문1-8) 귀 기관의 향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및 디자이너 고용 전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6년과 같으면 100%, 2016년의 절반 수준이면 50%, 2배 증가면 200% 등으로 작성해 주세요.

①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2017년 전망						2018년 전망					
	2016년의 ()% 수준						2016년의 ()% 수준					
② 디자이너 고용 전망	디자이너가 있는 경우	()명	2016년의 ()%	수준	디자이너가 있는 경우	()명	2016년의 ()%	수준	디자이너가 있는 경우	()명	2016년의 ()%	수준
	디자이너가 없는 경우	()명	채용 전망		디자이너가 없는 경우	()명	채용 전망		디자이너가 없는 경우	()명	채용 전망	

문2) 귀 기관에서는 기관 특성(아이덴티티)을 고려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ex. 공공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등) ① 있다 ② 없다

문3) 디자인 관련 예산 집행 시,

기관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하는 비율과 기관의 산하기관을 통하는 비율, 기타 비율을 응답해 주세요.

기관 직접 용역 발주	산하기관을 통해	기타()	합계
%	%	%	100%

문4) 귀 기관에서 디자인이 포함된 사업을 발주할 경우 설계·시공 등과 별도로

디자인사업 부문만 분리하여 발주하는 비율과 디자인 사업을 포함하여 발주하는 비율을 작성해 주십시오.

분리 발주	포함 발주	합계
%	%	100%

문5) 디자인 연계 사업 중 가장 효과 있었던 분야 및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작성해 주십시오. (우선순위를 번호로 표기해 주세요.)

범주 보기		세부 내용	가장 효과 있는 분야	우선 추진분야
정책 형성	① 문제정의를 위한 협장조사 이해관계자 파악	정책 현황과 문제점 파악, 협장 조사를 통한 핵심 수요자 선정 및 핵심 이슈 파악, 국내외 참고사례 벤치마킹, 이해관계자 여론수렴		
정책 수립	②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수립, 해결책 구체화	정책 추진 목적 및 목표 설정, 추진 내용 및 방법 수립, 사전타당성 분석, 관계부처 협의, 갈등관리, 정책영향평가 등		
	③ 적용 및 홍보	추진상황 모니터링, 자원확보 및 투입, 관계기관 협조,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 극복 대책 마련, 여건변화 대책마련, 평가결과 분석 및 활용		
	④ 도시 기반시설	공원, 운동장, 광장, 놀이터, 집회시설, 보도, 자투리 공원, 주차장, 터널, 도로, 철로, 고랑, 육교, 고가도로, 하천, 하수처리장, 산업공단, 변전소, 전소 등		
공간	⑤ 건축 및 실내 환경	마을회관, 출판소, 소방서, 우체국, 전화국, 동사무소, 군사시설, 교도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정부 행정부처 건물, 외국공관 건축물, 시민회관, 문화재, 체육관, 경기장, 공연장, 국공립 복지시설, 국공립 의료시설, 보육원,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휴게소,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도로 휴게실,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유아원, 교육원 훈련원, 연구소, 도서관, 연수원 등		
정책 집행 및 정책 홍보	⑥ 보행 및 운송시설물	보행신호등, 텔스, 방음벽, 블라드, 가드레일, 가로표식,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육교, 정류장, 자전거 정차대, 보행 유도등, 신호등, 교통차단물, 속도 억제물, 주차시설, 주차요금징수기, 공공기관 소유차량 등		
	⑦ 편의시설물	벤치, 의자, 쉘터, 옥외용 테이블, 휴지통, 음수대, 재떨이, 화장실, 세면장, 매점, 무인 키오스크, 자동판매기, 신문가판대 등		
	⑧ 관리시설물	맨홀, 전신주, 가로등, 신호개폐기, 전력구, 분전반, 환기구, 우체통, 소화전, 방재시설, 범죄예방장치, 신원확인장치 등		
	⑨ 정보시설물	공중전화, 풍향계, 시계, 음습도계, 정보부스, 지역/관광안내시설, 시(도)계 경계석, 지자체 상징탑, 교통정보판 등		
	⑩ 행정시설물	제복, 가구, 문구, 표찰, 무인 민원처리기 등		
시설물	⑪ 정보매체	이정표, 교통표지판, 지역/관광 안내도, 버스노선도, 지하철노선도, 방향유도사인, 규제사인, 자동차 번호판, 각종 픽토그램, 광고판, 현수막, 포스터, 게시판, 간판, 배너, 기, 홍보영상 등		
이미지	⑫ 상징매체	국가 및 행정부처/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상징시스템(상징사인, 증명서, 공문서, 출판물 표지, 웹페이지 등), 화폐, 주민등록증, 여권, 교통카드, 채권, 기념주화, 우표 등		
	⑬ 환경연출	벽화, 수퍼그래픽, 미디어 아트, 오감연출매체(sound scape, light scape), 미술장식품 등		
	⑭ 도시마스터플랜/가이드라인	녹지 벨트 확보를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도시별 이미지 구축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문6) 다음의 정책 분야에 디자인을 적용한다고 할 때

가장 효과 있는 분야 및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순서대로 3가지만 작성해 주십시오. (우선순위를 번호로 표기해 주세요.)

정책 분야	가장 효과 있는 분야	우선 추진분야
① 공공질서 및 안전		
② 과학기술		
③ 교육		
④ 국방		
⑤ 농림해양수산		
⑥ 문화체육관광		
⑦ 보건		
⑧ 사회복지		
⑨ 산업·중소기업		
⑩ 수송 및 교통		
⑪ 일반공공행정		
⑫ 지역개발		
⑬ 통신		
⑭ 통일·외교		
⑮ 환경보호		

문7) 귀 기관은 현재 디자인을 공공정책의 어느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 | | |
|--------|--------|--------|
| ① 정책형성 | ② 정책수립 | ③ 정책집행 |
| ④ 정책평가 | ⑤ 정책홍보 | |

문8) 귀 기관의 디자인 담당자를 신규로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필요 없다	대체로 필요 없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문9~문14는 문1의 ①, ②(디자이너를 보유한 기관)만 응답

문9) 귀 기관의 디자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디자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 | | | |
|-------------|-------------|--------|
| ① 전혀 필요 없다 | ② 대체로 필요 없다 | ③ 보통이다 |
| ④ 대체로 필요 하다 | ⑤ 매우 필요하다 | |

문10) 귀 기관은 2016년 한 해 동안 기관 디자인 담당자들에게 디자인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 | |
|------|-------------------------------------|
| ① 없다 | ② 있다→ (연간 총: _____회, 연간 총: _____시간) |
|------|-------------------------------------|

문11) 2016년 한 해 동안 디자인 재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다음 중 주로 어느 층에 속합니까?

- | | | | | |
|------|--------|------|------|-----------------------------------|
| ① 9급 | ② 6~8급 | ③ 5급 | ④ 4급 | 1순위:(_____) ⇒ 2순위:(_____)
1~3급 |
|------|--------|------|------|-----------------------------------|

문12) 2016년에 귀 기관에서 실시한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은 무엇인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 | | | |
|-----------------------|----------------|--------------------|
| ①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 | ② 사내 특강(외부 강사) | ③ 외부 위탁교육(유료) |
| ④ 해외연수(학위과정 제외) | ⑤ (국내외) 학위과정 | ⑥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
| ⑦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 ⑧ 기타() | |
| ⑨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 | |

문13) 귀 기관에서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 | ② 사내 특강(외부 강사) | ③ 외부 위탁교육(유료) |
| ④ 해외연수(학위과정 제외) | ⑤ (국내외) 학위과정 | ⑥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
| ⑦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 ⑧ 기타() | |
| ⑨ 재교육에 관심 없음 | | |

문13-1) 귀 기관에서 실시했던 디자인 교육 분야는 무엇입니까?

()

문14) 재직 디자이너 재교육 시 가장 큰 애로 사항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① 교육예산 부족 | ②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 |
| ③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 | ④ 기관장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 |
| ⑤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 ⑥ 재교육 정보 부족 |
| ⑦ 재교육 전문기관 부족 | ⑧ 재교육 후 이직 등 투자 대비 효과 |
| ⑨ 기타() | |

문15) 디자인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디자이너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창의 역량 (사회·문화·경제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복합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각과 직관력) | |
| ② 비즈니스 역량 (창출된 새로운 가치를 구체화하여 시장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논리력과 시장 지향적 역량) | |
| ③ 디자이닝 역량 (창출된 아이디어를 디자인 결과물로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감각과 스킬) | |
| ④ 융합 역량 (타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소통, 협업 활용 등을 통해 새로운 자원의 기획이나 개선점, 해결방안 도출을 주도하는 역량) | |
| ⑤ 기타 역량 () | |

문16)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기관(문1의①)만 해당]

귀 기관의 디자인 부서에 필요한 미충원 전공 인력은 어떤 분야입니까?

- | | |
|---------------------|---------------------------|
| ① 공학(엔지니어링 전반) | ② 상경계열(경영학/경제학/회계학/통계학 등) |
| ③ 사회과학(심리학/사회학 등) | ④ 인문학(역사/철학 등) |
| ⑤ 자연과학(물리/화학/생물학 등) | ⑥ 법학 |
| ⑦ 기타() | |

문17) 대학 디자인 전공 교육이 실제 디자인 업무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까?

기여도가 매우 낮음	기여도가 대체로 낮음	보통	기여도가 대체로 높음	기여도가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문18) 대학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시급히 보강되어야 할 교육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① 시각화 및 표현 능력 | ② 디자인 관련 이론 |
| ③ 기획 및 마케팅 능력 | ④ 컴퓨터 활용 스킬 |
| ⑤ 외국어(영어) 능력 | ⑥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 |
| ⑦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 | ⑧ 기타() |

문19) 귀 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란

한 개인이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입니다.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 문19-1로
⇒ 조사 완료

문19-1) 귀 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어떤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는 업무를 활용도가 높은 순으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_____) ⇒ 2순위:(_____)

- | | |
|-----------------|------------|
| ① 경력개발경로 모형 설계 | ② 직무기술서 작성 |
| ③ 채용·배치·승진체크리스트 | ④ 자가진단 |
| ⑤ 교육훈련 | ⑥ 자격검정 |
| ⑦ 기타 (_____) | ⑧ 활용하지 않음 |

문19-2) 귀 기관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② 필요성을 느끼나 기관에 적합하지 않아서
③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
④ 기타 (_____)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17 산업디자인통계조사

2017 KOREA DESIGN STATISTICAL DATA

연구진	박한출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략연구소 본부장
	이동현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엔지니어링PD PD
	윤상석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엔지니어링PD 주임연구원
	이양숙	한국디자인진흥원 위촉연구원
	문은정	한국디자인진흥원 위촉연구원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략연구소 디자인엔지니어링PD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한국디자인진흥원	
전 화	031-780-2266	
웹사이트	한국디자인진흥원	www.kidp.or.kr
	디자인DB	www.designdb.com

© 한국디자인진흥원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위에 기재된 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전재할 수 없습니다.

kip 한국디자인진흥원